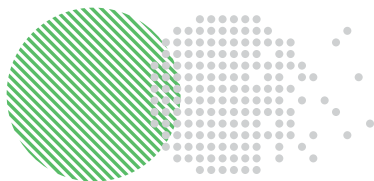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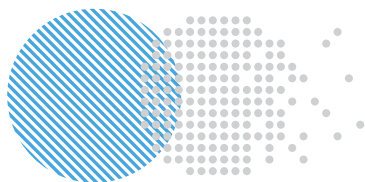


연구보고25-일반03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양계민 · 권오영 · 서정아 · 변수정 · 장윤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저 자 양계민, 권오영, 서정아, 변수정, 장윤선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_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부교수)  
연구보조원\_안지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연구요약

###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의 연속과제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이주배경청년 집단이 당면한 주요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함.
  - 이주배경청년의 객관적 실태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함.
  - 이주배경청년과 선주민의 상호이해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
- 2025년의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실태 및 자립실태 파악
  -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 확대방안,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 이주배경청년 체류 및 자립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

### ■ 연구내용

-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유형화
- 일반청년 및 이주배경청년 생활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 이주배경청년 관련 정책 분석
- 이주배경청년의 현황 및 요구도 파악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

###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전문가 자문
- 양적 연구
- 질적 연구
- 기타: 콜로키움, 전문가포럼,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국회토론회, 정책실무협의회

## ■ 연구결과

### 주요 연구결과

#### ● 설문조사

- 이주배경청년들은 한국 장기 정착의지가 높으며,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높음.
-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주배경청년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됨.
-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임.
- 한국사회에 대한 가치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식도 높은 편임.
- 체류자격에 따라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지고,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경우 심리적응수준이 낮음.
- 참여자 중 대다수는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없고, 이용한 경우는 한국어교육을 받음.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의 기관 신설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

#### ● 면접조사

- 체류 불안정성은 이주배경청년의 이동·금융·교육·취업 접근을 제약해 정주 결정을 지연시킴.
- 성인기 한국어는 중급 이후 학문·직무·제도 목적 분화가 미흡하고, 야간·주말·온라인 등 유연 운영과 성과 인정 연계가 부족함. 따라서 성인기 한국어를 위한 ‘목적별 표준과정’(학문·직무·제도) 도입, 야간·주말·온라인 혼합 운영, 수료 성과의 학점·장학·채용 서류 연계 방안 등이 필요함.

## 주요 연구결과

- 기술교육의 경우 정보 창구가 분절되고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성이 불명확하여 탐색·신청·수료·채용 연계가 약함. 따라서 기술교육 통합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외국국적자 입학·이수 요건 명확화, 모듈형 과정+현장실습+채용 연계 표준 경로 설계, 시간·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대학 단계에서 과제·보고서·발표·팀과제·장학·대출·학습지원의 구조적 공백이 초기 성취와 진로 전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전공 문해·보고서·발표 훈련 정례화, 팀프로젝트 매칭·포레 멘토링·학습 지원 포털 및 1:1 상담 상시화, 장학·대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반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인턴·현장실습은 경력 인증과 채용 전환 절차가 부재하거나 약하여 '경험'에 머무름.
- 지역 단위 전담 창구 부재, 현황 파악·사례관리 미흡,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함. 시군구 차원에서 전담 창구와 지역 허브기관 설치가 필요함.

### ● 전문가조사

-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유예 체류를 보장하는 이주배경청년 전용 체류 유예 비자를 도입하고,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교육이력, 체류기간, 사회 적응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국내성장기반 장기거주 이주배경청년의 GNI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일정 조건(한국거주기간, 교육이수기간, 범죄이력 등 고려)을 갖춘 경우 영주 가능성에 초점을 둔 체류자격 획득 경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주배경청년들은 입국 연령, 모국어 사용 환경, 학업 경험 등에 따라 한국어 숙련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단일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의 입국 시기, 교육 이력, 진로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수준별·목적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함.

## 주요 연구결과

- 이주배경청년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함.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언어·문화 장벽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접근성과 수강 지속률이 낮은 편임. 또한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지역사회 내 기업과 이주배경청년을 연계하는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방안 모색
-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 전형이나 학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재학 중 체류자격 유지와 등록금·생활비 마련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
- 국내성장자의 경우 일반 유학비자(D-2)가 아닌 거주비자(F-2), 동포비자(F-4), 영주비자(F-5) 등의 보다 안정적 체류자격을 소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대학 내에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학습지원·생활적응·상담지원·재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할 필요 있음.
-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의 유입배경, 국적분포, 체류 형태, 정착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사업 모델이 필요함.
-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및 강화(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가 필요함.
- 지자체에 이주배경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지원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
- 체류자격, 언어, 정체성, 복지 접근 등 다영역 문제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지방 연계형 협업체계(예: 이주청년통합지원센터) 마련이 필요함.

## ■ 핵심 정책제언

### 핵심 정책제언

- 추진방향 1. 기본적 삶의 여건 마련
  - 추진전략 1-1. 체류안정화
    -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개선
    - 국내 성장기반 청년의 취업 및 정주방안 개선
  - 추진전략 1-2.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 이주배경청년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구축
    -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연계형 온라인 한국어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 추진방향 2. 자립역량강화
  - 추진전략 2-1.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
    - 이주배경청년 대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
    - 이주배경청소년 거점형 직업교육 고등학교 설립
  - 추진전략 2-2. 고등교육 내실화
    - 다문화친화적 캠퍼스환경조성
    - 대학 내 이주배경학생 학습, 진로 및 취업지원센터 설립
- 추진방향 3.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 기반 마련
  - 추진전략 3-1.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지원체계구축
  - 추진전략 3-2.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 지역별 인력수요 기반 맞춤형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연구보고25-일반03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 2. 연구추진체계 ..... 6
- 3. 연구내용 ..... 8
- 4. 연구방법 ..... 10
- 5. 보고서 구성 ..... 18
- 6.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도 ..... 19

II.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청년의 정의와 유형 ..... 23
- 2.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 27
- 3.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배경청년 ..... 29
- 4. 국내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실태 ..... 39
- 5. 일반청년의 실태 ..... 51
- 6. 요약 및 결론 ..... 60

### Ⅲ.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이슈 및 주제 도출

- 1. 조사개요 ..... 65
- 2. 조사결과 ..... 69
- 3. 요약 및 소결 ..... 80

### Ⅳ.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 1.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설문조사 ..... 85
- 2.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면접조사 ..... 241
- 3.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전문가조사 ..... 291
- 4. 요약 및 소결 ..... 303

### Ⅴ. 이주배경청년 정책현황

- 1. 이주배경청년 관련 국가 기본계획 ..... 309
- 2. 이주배경청년 관련 주요 이슈별 정책 현황 ..... 318

### Ⅵ.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이주배경청년 정책방안 도출의 절차 ..... 341
- 2.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343

### 참고문헌 ..... 393

### 부 록 ..... 403

### Abstract ..... 431



## 표 목차

|                                                             |    |
|-------------------------------------------------------------|----|
| 표 Ⅰ-1. 전문가 자문회의 현황 .....                                    | 11 |
| 표 Ⅰ-2.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                                | 17 |
| 표 Ⅰ-3. 국회포럼 부처별 토론자 .....                                   | 17 |
| 표 Ⅰ-4.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                                    | 18 |
| 표 Ⅱ-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                         | 23 |
| 표 Ⅱ-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포함대상 및 특성 .....                   | 25 |
| 표 Ⅱ-3. 이주배경청년 관련 통계 현황 .....                                | 28 |
| 표 Ⅱ-4. MIPEX 8개 핵심지표별 정책지표 .....                            | 34 |
| 표 Ⅱ-5. OECD 이민자 통합지표 .....                                  | 36 |
| 표 Ⅱ-6.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자 사회통합지수의 세부구성요소 .....                     | 37 |
| 표 Ⅲ-1.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자의 조사대상자 특성 .....                        | 66 |
| 표 Ⅲ-2. 전문가 의견 조사내용 .....                                    | 68 |
| 표 Ⅲ-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빈도 및 평균 .....                  | 70 |
| 표 Ⅲ-4.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전문가 직종별<br>평균 비교 .....        | 71 |
| 표 Ⅲ-5.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업무경력별<br>평균비교 .....           | 72 |
| 표 Ⅲ-6.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빈도 및 평균 .....                  | 74 |
| 표 Ⅲ-7.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전문가 직종별<br>평균 .....           | 75 |
| 표 Ⅲ-8.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업무경력별<br>평균 .....             | 76 |
| 표 Ⅲ-9.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순위 .....                       | 78 |
| 표 Ⅲ-10.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순위 .....                      | 79 |
| 표 Ⅲ-11. 연도별 연구 주제 .....                                     | 80 |
| 표 Ⅲ-1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최종 선정 주제별 필요성과<br>시급성 평균 및 표준편차 ..... | 81 |
| 표 Ⅳ-1.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                                  | 86 |
| 표 Ⅳ-2. 성별 및 연령 분포: 빈도(%) .....                              | 91 |

|                                                                          |     |
|--------------------------------------------------------------------------|-----|
| 표 IV-3. 거주지역: 빈도(%) .....                                                | 92  |
| 표 IV-4. 혼인상태 및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빈도(%) .....                             | 92  |
| 표 IV-5. 부모님의 최종 학력: 빈도(%) .....                                          | 93  |
| 표 IV-6. 주관적 가정 경제 수준: 빈도(%) .....                                        | 93  |
| 표 IV-7. 현재 주로 하는 일: 빈도(%) .....                                          | 94  |
| 표 IV-8. 현재 쉬고 있는 이유: 빈도(%) .....                                         | 94  |
| 표 IV-9. 조사대상의 출생국과 국적: 빈도(%) .....                                       | 95  |
| 표 IV-10. 처음으로 한국에 살기 시작한 년도: 빈도(%) .....                                 | 95  |
| 표 IV-11. 현재 및 이전 체류자격: 빈도(%) .....                                       | 96  |
| 표 IV-12. 향후 한국 거주 의향: 빈도(%) .....                                        | 96  |
| 표 IV-13. 조사대상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 빈도(%) .....                             | 97  |
| 표 IV-14. 희망하는 최종 체류 상태: 빈도(%) .....                                      | 97  |
| 표 IV-15. 부모님의 출생국 및 현재 국적: 빈도(%) .....                                   | 98  |
| 표 IV-16. 한국어 능력 수준: 말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00 |
| 표 IV-17. 한국어 능력 수준: 쓰기 :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02 |
| 표 IV-18. 한국어 능력 수준: 읽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04 |
| 표 IV-19. 한국어 능력 수준: 듣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06 |
| 표 IV-20. 조사대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br>: 1) 일상생활: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08 |
| 표 IV-21.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2) 공공기관에서<br>업무 보기:빈도(%), 평균(표준편차) .....    | 110 |
| 표 IV-22.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3) 친구 사귀기:<br>빈도(%), 평균(표준편차) .....         | 112 |
| 표 IV-23.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4) 대학 내 교우관계<br>형성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14 |
| 표 IV-24.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5) 대학 강의 이해하기:<br>빈도(%), 평균(표준편차) .....     | 116 |
| 표 IV-25.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6) 대학 수업 조별<br>발표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18 |
| 표 IV-26.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7) 직장 구하기:<br>빈도(%), 평균(표준편차) .....         | 119 |
| 표 IV-27.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8) 직장에서 인간관계<br>맺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21 |
| 표 IV-28.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9) 직장에서 업무 수행<br>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 123 |
| 표 IV-29. 조사대상이 소지한 한국어 등급 : 빈도(%) .....                                  | 125 |

|                                                            |     |
|------------------------------------------------------------|-----|
| 표 IV-30. 토픽 소지자의 한국어 등급 .....                              | 126 |
| 표 IV-3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급수 소지자의 한국어 등급 .....                 | 126 |
| 표 IV-32.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27 |
| 표 IV-33. 만 19세 이후 한국어 교육 경험: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29 |
| 표 IV-34. 만 19세 이후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관: 빈도(%) .....               | 130 |
| 표 IV-35.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30 |
| 표 IV-36. 한국어 교육 참여 희망 여부: 빈도(%) .....                      | 132 |
| 표 IV-37. 과거 학교 재학 경험: 빈도(%) .....                          | 134 |
| 표 IV-38. 과거 다른 나라에서 학교 다닌 기간: 빈도(%) .....                  | 134 |
| 표 IV-39. 한국에서 다닌 학교 : 빈도(%) .....                          | 135 |
| 표 IV-40.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 빈도(%) .....                   | 135 |
| 표 IV-41. 현재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학교: 빈도(%) .....                    | 136 |
| 표 IV-42. 현재 학교를 다니는 이유: 빈도(%) .....                        | 137 |
| 표 IV-43.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1) 대학입시 전형 준비:<br>빈도(%) .....     | 138 |
| 표 IV-44.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2) 대학입시 관련 정보 제공:<br>빈도(%) .....  | 139 |
| 표 IV-45.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3) 대학 진학여부 결정:<br>빈도(%) .....     | 139 |
| 표 IV-46.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4) 입학한 대학 선택:<br>빈도(%) .....      | 140 |
| 표 IV-47.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5)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br>빈도(%) .....   | 140 |
| 표 IV-48. 대학(원)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                         | 141 |
| 표 IV-49.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빈도(%) .....                          | 142 |
| 표 IV-50. 2025년도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 빈도(%) .....               | 143 |
| 표 IV-51.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                     | 144 |
| 표 IV-52. 향후 더 공부할 계획: 빈도(%) .....                          | 146 |
| 표 IV-53. 희망 교육수준: 빈도(%) .....                              | 148 |
| 표 IV-54.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노력: 빈도(%) .....                    | 149 |
| 표 IV-55.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빈도(%) .....                          | 150 |
| 표 IV-56.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 빈도(%) .....                         | 151 |
| 표 IV-57. 직업훈련 경험: 빈도(%) .....                              | 152 |

|                                                                       |     |
|-----------------------------------------------------------------------|-----|
| 표 IV-58.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 빈도(%)                                           | 153 |
| 표 IV-59.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빈도(%)                                        | 154 |
| 표 IV-60.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 빈도(%)                                        | 156 |
| 표 IV-61. 구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 빈도(%)                                       | 158 |
| 표 IV-62. 현재 직장 구직 시 일자리 정보 출처: 빈도(%)                                  | 160 |
| 표 IV-63.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빈도(%)                                        | 161 |
| 표 IV-64. 고용계약 기간: 빈도(%)                                               | 161 |
| 표 IV-65.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빈도(%)                                | 162 |
| 표 IV-66.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 빈도(%)                                      | 162 |
| 표 IV-67.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이유: 빈도(%)                                   | 162 |
| 표 IV-68.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빈도(%)                                      | 163 |
| 표 IV-69. 직업 만족도: 빈도(%)                                                | 164 |
| 표 IV-70. 일을 하며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일:<br>빈도(%)                  | 165 |
| 표 IV-71. 일을 하며 경험한 부당한 대우: 빈도(%)                                      | 165 |
| 표 IV-72. 한국 사회인식: 1) 공정한 사회: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67 |
| 표 IV-73. 한국 사회인식: 2)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69 |
| 표 IV-74. 한국 사회인식: 3)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71 |
| 표 IV-75. 한국 사회인식: 4)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73 |
| 표 IV-76.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1) 한국에 사는 것이 좋다:<br>빈도(%), 평균(표준편차)            | 175 |
| 표 IV-77.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2)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br>되고 싶다: 빈도(%), 평균(표준편차) | 177 |
| 표 IV-78.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1) 출신국가: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79 |
| 표 IV-79.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2) 피부색: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81 |
| 표 IV-80.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3) 외국국적: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83 |
| 표 IV-81.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4) 체류자격: 빈도(%),<br>평균(표준편차)                    | 185 |

|                                                                               |     |
|-------------------------------------------------------------------------------|-----|
| 표 IV-8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87 |
| 표 IV-83.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89 |
| 표 IV-84. 삶에서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92 |
| 표 IV-85.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결정도: 평균(표준편차) .....                                   | 194 |
| 표 IV-86.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1) 교육기회 보장 :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96 |
| 표 IV-87.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2) 체류 안정성 보장: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198 |
| 표 IV-88.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3) 소득격차: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00 |
| 표 IV-89.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4) 취업률 격차: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02 |
| 표 IV-90.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5) 의료 소외: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04 |
| 표 IV-91.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6) 가족해체 :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06 |
| 표 IV-92.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7) 정치참여: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08 |
| 표 IV-93.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8) 영주권 취득: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10 |
| 표 IV-94.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9) 국적취득 용이성: 빈도(%),<br>평균(표준편차) .....                 | 212 |
| 표 IV-95.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10) 차별에 대한 사회적 보호:<br>빈도(%), 평균(표준편차) .....           | 214 |
| 표 IV-96.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평균(표준편차) .....                                  | 217 |
| 표 IV-97. 심리사회적응: 대인관계 어려움 및 부정적 미래관 :<br>평균(표준편차) .....                       | 218 |
| 표 IV-98.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몸이 아플 때 :<br>빈도(%), 평균(표준편차) .....          | 221 |
| 표 IV-99.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우울하거나<br>스트레스를 받을 때 : 빈도(%), 평균(표준편차) ..... | 223 |
| 표 IV-100.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필요한 정보가<br>있을 때: 빈도(%), 평균(표준편차) .....     | 225 |

|                                                                          |     |
|--------------------------------------------------------------------------|-----|
| 표 IV-101.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 경제적으로<br>어려울 때: 빈도(%), 평균(표준편차) ..... | 227 |
| 표 IV-102. 경제적 어려움 경험: 빈도(%) .....                                        | 230 |
| 표 IV-103. 이주배경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br>빈도(%) .....                       | 232 |
| 표 IV-104. 이용한 지원 프로그램: 빈도(%) .....                                       | 233 |
| 표 IV-105.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주배경청년 지원: 빈도(%) .....                              | 235 |
| 표 IV-106. 이주배경청년 지원 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 빈도(%) .....                            | 237 |
| 표 IV-107. 설문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                                          | 238 |
| 표 IV-108. 면접조사 개요 .....                                                  | 244 |
| 표 IV-109.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배경특성 .....                                         | 244 |
| 표 IV-110. 면접조사 참여 전문가 배경특성 .....                                         | 245 |
| 표 IV-111. 이주배경청년 면접조사 질문지 .....                                          | 246 |
| 표 IV-112. 전문가 면접조사 항목 .....                                              | 250 |
| 표 IV-113. 내용분석의 범주와 주제 .....                                             | 252 |
| 표 IV-114. 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 290 |
| 표 IV-115. 한국국적 비(非)소지자 체류자격 안정화 관련 현황 및<br>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293 |
| 표 IV-116. 수준별 한국어능력 강화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br>전문가 의견 .....                  | 295 |
| 표 IV-117. 기술교육 지원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br>의견 .....                        | 297 |
| 표 IV-118. 고등교육지원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br>의견 .....                        | 299 |
| 표 IV-119.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관련 현황 및<br>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 300 |
| 표 IV-120. 기타 이주배경청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br>의견 .....                     | 302 |
| 표 IV-121.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와 요구도 조사의 주요 결과 및<br>시사점 .....                       | 303 |
| 표 V-1.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                                                | 312 |
| 표 V-2.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                                  | 312 |
| 표 V-3. 지역별·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현황 .....                                      | 313 |
| 표 V-4. 이주배경청년(19~30세)의 주요 체류자격 종류와 특성 .....                              | 320 |
| 표 V-5.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br>대상자 .....                          | 328 |

|                                              |     |
|----------------------------------------------|-----|
| 표 V-6. 국내성장 기반요건 예외적 대상자의 인정 기준 .....        | 329 |
| 표 V-7. 국내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 .....            | 333 |
| 표 V-8. 이주배경청년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 .....        | 336 |
| 표 V-9. 이주배경청년 진로 및 직업 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 ....    | 338 |
| 표 VI-1. 이주배경청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 344 |
| 표 VI-2.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안) .....        | 355 |
| 표 VI-3. 수요자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안) .....            | 361 |
| 표 VI-4. 1년 직업교육과정 구성(안) .....                | 362 |
| 표 VI-5. 전문기술교육 훈련직종(안) .....                 | 363 |
| 표 VI-6. 이주배경청년 경력 경로 지원과정(안) .....           | 365 |
| 표 VI-7. 이주배경청년 직업교육과정 추진주체별 역할과 내용 .....     | 366 |
| 표 VI-8. 이주배경청년 직업교육방안 추진 로드맵 .....           | 367 |
| 표 VI-9. 다문화친화적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 운영(안) .....       | 374 |
| 표 VI-10. 다문화친화적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운영의 부처별 역할 ....   | 374 |
| 표 VI-11. 이주배경대학생 학습, 진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안) ..... | 378 |
| 표 VI-12.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역할 .....       | 383 |

## 그림 목차

|                                                          |     |
|----------------------------------------------------------|-----|
| 그림 Ⅰ-1. 연구추진체계 .....                                     | 7   |
| 그림 Ⅰ-2. 본 연구의 연차별 주제 .....                               | 8   |
| 그림 Ⅰ-3. 1차 콜로키움 표지 .....                                 | 14  |
| 그림 Ⅰ-4. 1차 콜로키움 목차 .....                                 | 14  |
| 그림 Ⅰ-5. 2차 콜로키움 표지 .....                                 | 15  |
| 그림 Ⅰ-6. 2차 콜로키움 목차 .....                                 | 15  |
| 그림 Ⅰ-7. 전문가 포럼 표지 .....                                  | 16  |
| 그림 Ⅰ-8. 전문가 포럼 목차 .....                                  | 16  |
| 그림 Ⅰ-9. 국회포럼 포스터 .....                                   | 18  |
| 그림 Ⅰ-10. 국회포럼 자료집 목차 .....                               | 18  |
| 그림 Ⅲ-1. 3차년도 연구 주제 도출 .....                              | 82  |
| 그림 Ⅳ-1. 조사대상이 인식한 한국어 능력 수준(평균) .....                    | 99  |
| 그림 Ⅳ-2.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정도(평균) .....                  | 108 |
| 그림 Ⅳ-3. 한국어 교육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전체 235명) .....             | 133 |
| 그림 Ⅳ-4.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비율) .....                            | 149 |
| 그림 Ⅳ-5. 직업 만족도(평균) .....                                 | 164 |
| 그림 Ⅳ-6. 한국 사회 인식(평균) .....                               | 166 |
| 그림 Ⅳ-7. 조사대상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부당한 대우나<br>불이익 정도(평균) .....  | 179 |
| 그림 Ⅳ-8. 한국사회 이주민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의<br>중요성 (평균) .....   | 195 |
| 그림 Ⅳ-9. 심리사회적응 수준 (평균) .....                             | 216 |
| 그림 Ⅳ-10.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비율) .....                | 229 |
| 그림 Ⅴ-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                   | 311 |
| 그림 Ⅴ-2. 제1차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 314 |
| 그림 Ⅴ-3.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 및<br>추진과제 .....      | 316 |
| 그림 Ⅴ-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 및<br>추진과제 ..... | 318 |



|                                            |     |
|--------------------------------------------|-----|
| 그림 V-5. 고교졸업 외국인 청소년의 성년기 체류자격 취득 경로 ..... | 328 |
| 그림 VI-1.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의 절차 .....           | 342 |
| 그림 VI-2.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 조직 모형 .....        | 382 |
| 그림 VI-3. 이주배경청소년·청년센터 조직 모형 .....          | 383 |
| 그림 VI-4. 이주배경청년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          | 384 |
| 그림 VI-5.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  | 389 |



# ○ — 제 I 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보고서 구성
- 6.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이주배경청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19세에서 34세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정의에서 연령이 확장된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이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24세 이하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정의될 수 있다(양계민 외, 2020: 21).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은 청년기본법상의 연령인 19세에서 34세의 연령범주에 속하되,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 등과 같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단독으로 입국한 대상을 제외하고, 부모 동반으로 미성년 시기인 만 19세 미만의 연령에 입국을 하였거나 국내에서 출생하여 청년 연령에 이른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이주’의 의미는 국경을 넘는 이주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국으로부터의 이주에 국한되지 않고 북한으로부터의 이주자도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집단이 등장한 이래로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24년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583,626명에서 2025년은 2,459,542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5.10.30). 그 중 국내출생 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289,886명으로 전년 대비 7,809명(2.8%) 증가한 수치이다(행정안전부, 2025.10.30.).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통계는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수만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분포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비해 교육부의 통계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집단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1) 1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긴 보다 다양한 배경의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따라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형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면, 2025년 4월 기준 이주배경 학생의 수를 살펴보면 총 202,208명으로, 과거에 비하여 외국인가정 자녀의 비율의 증가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5.8.29.). 이는 우리 사회에 향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19세 이상의 청년 연령층에 이른 이주배경 집단의 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고, 그 중 외국인가정 자녀인 청년들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하게 해 준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실시하고, 유학생(D-2) 및 외국인 근로자(E-7)에 대한 비자발급 및 체류기간 결정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가 넘겨받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적 외국인 이민 유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국내에서 성장하여 청년 연령에 이른 이주배경청년 집단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은 체계적으로 수립된 바 없으며,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사업들 또는 청년연령 대상의 통계구축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수준이다.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역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재외동포 자격부여 확대 및 취업 완화 및 재외동포 적응을 위한 지원센터 확대 등 단편적인 몇 가지 사업에 대한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아직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 중 외국국적을 지닌 경우 국내에서 학교를 다니고 성장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며 가족이 이미 한국에 거주하는 등 성인기 국내정착의 용이성과 인적자원으로써의 개발 가능성 측면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경우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생 비자를 받거나 또는 본국에 귀국 후 국내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재입국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최근 법무부가 「신(新)출입국·이민정책」을 발표하여,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바로 구직(D-10), 취업비자(E-7)비자 전환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아도 국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문동거(F-1) 비자 등 일정 체류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개선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법무부, 2024.9.26.). 이러한 정책들은 사회통합과 이주민의 정착 및 정주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주배경청년의 입장에서

보자면 체류의 문제만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있을 뿐 이들의 장기적 정착과 인적자원으로써의 성장과 사회통합의 문제까지 고려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한 지 거의 20년이 경과했고, 이들 집단이 성장함에 따라 이주배경 청년인구의 수는 상당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의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통합정책은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하여 아직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청년기는 아동·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투입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주배경청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주배경청년들이 자신의 타고난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뿐 아니라 인구감소 시대의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이주배경청년 연령 범주에 속한 대상에 대한 연구는 소수이며, 그 주제도 노동, 진로 등 일부 제한된 주제에 국한되어 있거나 집단의 다양한 배경적 특성을 구분 및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적으로도 청년연령에 속하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연령 전체를 포괄하여 이들이 당면한 관련 주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년집단이 당면하는 문제들과는 별도로 이주배경청년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개발 및 제시함으로써 이주배경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정책을 개발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통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의 연속과제로 연구의 목적은 총 3가지이다.

첫째,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이주배경청년 집단이 당면한 주요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이주배경청년의 객관적 실태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이주배경청년과 선주민의 상호이해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          |                                                                                                                                                                                                                          |
|----------|--------------------------------------------------------------------------------------------------------------------------------------------------------------------------------------------------------------------------|
| 본 연구의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이주배경청년 집단이 당면한 주요 문제에 대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함.</li> <li>• 이주배경청년의 객관적 실태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함.</li> <li>• 이주배경청년과 선주민의 상호이해를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함.</li> </ul> |
|----------|--------------------------------------------------------------------------------------------------------------------------------------------------------------------------------------------------------------------------|

그 중 2025년도의 연구목적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              |                                                                                                                                                                         |
|--------------|-------------------------------------------------------------------------------------------------------------------------------------------------------------------------|
| 2025년의 연구 목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실태 및 자립실태 파악</li> <li>•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 확대방안,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li> <li>• 이주배경청년 체류 및 자립역량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li> </ul> |
|--------------|-------------------------------------------------------------------------------------------------------------------------------------------------------------------------|

## 2. 연구추진체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연구는 진로, 직업, 노동 등 주로 사회적 인적자원 개발의 측면에서 다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연구 자체도 매우 소수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 정착하게 될 이주배경청년들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수단의로서의 존재보다는 각자의 역량을 지닌 집단으로 성장하여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를 지닌 존재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 청년집단을 우리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바라보기 보다는 그들이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의 주요 이슈들을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3년 간의 종합 연구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청년으로 성장할 이주배경 집단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들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청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년 관련 주요 주제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3년간의 연도별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별로 크게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실태조사에서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주제별 실태와 정책적 요구도 등을 조사하였고, 면접조사 역시 주제별 경험과 정책적 요구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한 개괄과 함께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제별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현재의 한계와 개선점



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이고 현장 기반의 주제별 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의 현실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콜로키움, 전문가포럼 등을 통하여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이슈에 대해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들을 발표하고, 이에 대하여 각 부처 담당 공무원, 전문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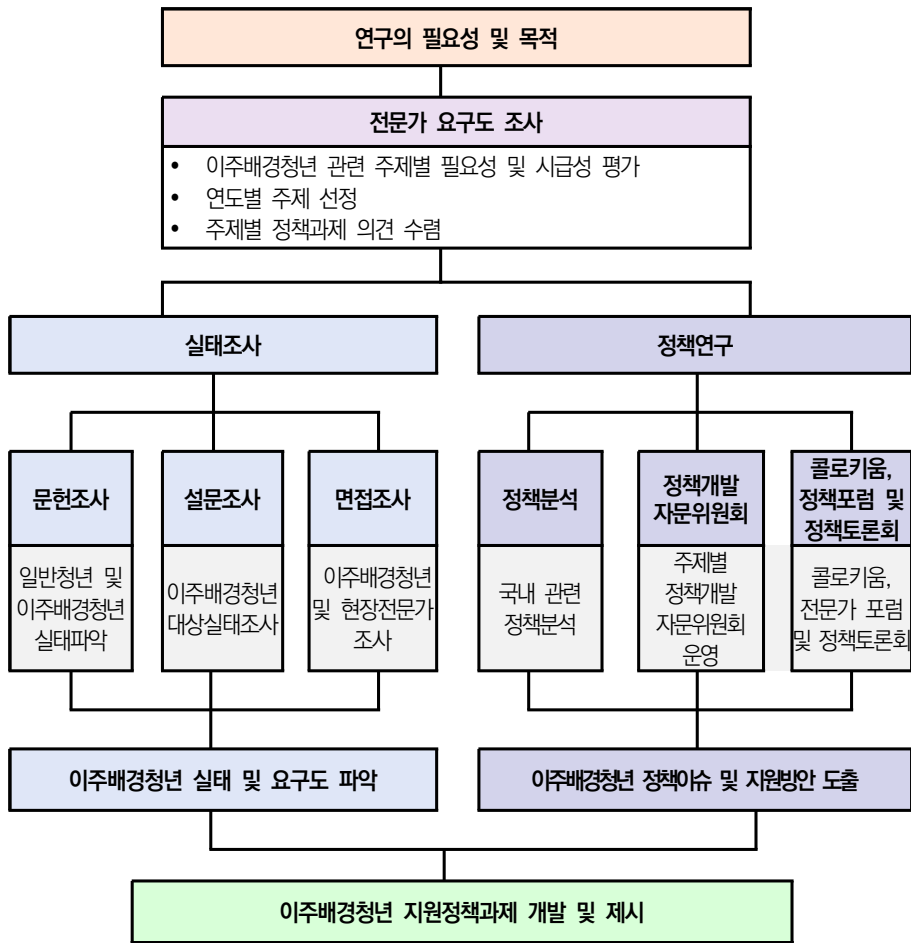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 3.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25년부터 2027년에 걸친 총 3년간의 연구로 연도별 간략한 내용과 2025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이슈 발굴 및 유형화

지금까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태는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주배경청년, 특히 19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연령의 이주배경집단이 경험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이들의 문제는 일반적인 청년들이 경험하는 문제와는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기에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주제발굴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도출된 주요 주제들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현장전문가, 학교교사, 연구자, 공무원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각 주제별 필요도와 시급성을 평정하도록 하였고, 시급성 및 주제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3년 간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1년차인 2025년은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안정화 방안과 자립역량강화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2년차에는 심리사회적응, 사회적 배제와 차별 실태와 이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을 선정하였으며, 3년차에는 결혼, 출산, 자녀교육 및 돌봄, 주거 등 가족형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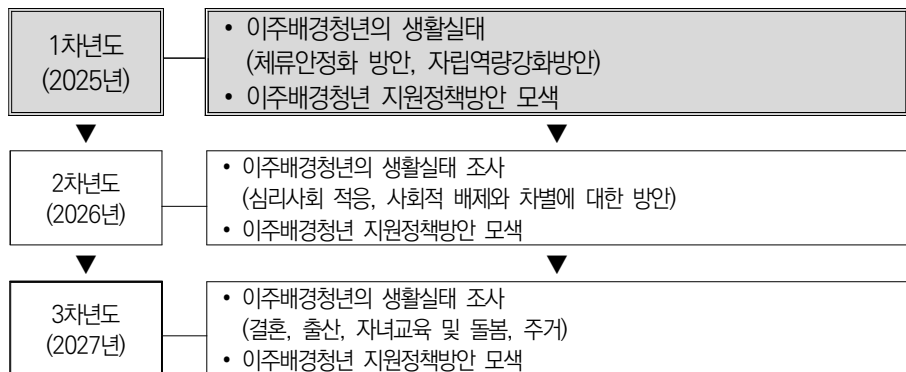


그림 1-2. 본 연구의 연차별 주제

## 2) 일반청년 생활 실태 및 이주배경청년 생활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이주배경청년들 중 2025년의 주요 대상인 외국국적자와 무국적자, 미등록 체류자 등 국적이 없는 집단이 경험하는 문제들은 체류자격과 한국어 등의 주제가 포함될 수 있지만, 발달특성상 청년시기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들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년들과 비교하여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일반청년의 생활실태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이주배경청년 관련 정책 분석

두 번째는 국내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주배경청년 관련 정책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등 네 가지 기본계획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2025년도의 주요 이슈와 관련된 정책현황 중 체류자격 정책 현황, 한국어교육 현황, 기술 및 직업교육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 4) 이주배경청년의 현황 및 요구도 파악

세 번째로 2025년의 주제인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 확대방안, 그리고 자립역량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한 현황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배경변인(성별, 연령, 결혼여부, 가정경제수준, 교육수준, 거주지역, 체류자격, 한국어수준), 진로변인(희망교육수준, 장래희망직업, 진로의식, 직업훈련경험), 노동현황(아르바이트 경험,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수준, 종사상 지위 및 근로형태, 근로시간 형태, 노동의 부당행위 및 부당처우 경험, 구직활동) 등을 분석하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년 집단을 대상으로 체류자격, 국내출생여부, 입국시기 등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교육경험, 가정경제수준, 한국어수준, 한국에서의 교육연수, 현재의 학업 및 노동 현황, 기술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방안 등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는 한국정책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중요한 이슈별 실태와 정책방안,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정책 추진방안 등을 조사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든 단계별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여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요구도를 현장감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5)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 과제 도출

마지막으로 선행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조사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2025년의 주제는 체류안정화와 자립역량강화인만큼 그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 4. 연구방법

### 1) 문헌연구

문헌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는 일반 청년실태 및 이주배경청년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둘째는 국내 이주배경청년 관련 정책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셋째는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과 관련된 자료, 한국어교육 현황, 이주배경청년 대상 진로, 기술 및 직업교육 정책현황을 분석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전문가 자문은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이주배경청년 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이슈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수집함으로써 도출된 내용을 주제별로 그룹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로 전문가 대상으로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주제별 주요 이슈와 현황, 한계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내용은 본 연구의 3년간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로, 조사문항의 타당성, 분석의 방향 등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 집단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1-1. 전문가 자문회의 현황

| 날짜          | 시간        | 주제                                  | 장소                   | 참석자 | 소속                    |
|-------------|-----------|-------------------------------------|----------------------|-----|-----------------------|
| 3/26<br>(수) | 오전<br>10시 | 이주배경청년의<br>주요 이슈와<br>정책과제 발굴        | 비즈허브<br>서울센터<br>211호 | 신혜영 | 서울시글로벌센터, 센터장         |
|             |           |                                     |                      | 이승미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             |           |                                     |                      | 석원정 |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
|             |           |                                     |                      | 김준태 | 사단법인 너머, 소장           |
| 3/26<br>(수) | 오후<br>2시  | 이주배경청년의<br>주요 이슈와<br>정책과제 발굴        | 비즈허브<br>서울센터<br>211호 | 강은이 | 화성시청소년글로벌센터, 센터장      |
|             |           |                                     |                      | 이은희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사무국장   |
|             |           |                                     |                      | 김수영 | 사단법인 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             |           |                                     |                      | 김사강 |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 5/20<br>(화) | 오전<br>10시 | 이주배경청년<br>한국어교육방안                   | 공유와<br>공감<br>302호    | 한혜민 | 한국외국어대학교KFL대학원, 조교수   |
|             |           |                                     |                      | 송은정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조교수      |
|             |           |                                     |                      | 신혜영 | 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             |           |                                     |                      | 황복선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 5/21<br>(수) | 오전<br>9시  | 이주배경청년 전문<br>기술교육 및 직업<br>교육 현황과 과제 | 공유와<br>공감<br>302호    | 변경환 |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교감       |
|             |           |                                     |                      | 손형도 | 한국폴리텍대학교 아산캠퍼스 교학처장   |
|             |           |                                     |                      | 임정연 | 한국폴리텍대학교 법인기획부, 교수    |
|             |           |                                     |                      | 김수영 | (사)서울시글로벌청소년센터, 대표    |
| 6/11<br>(수) | 오전<br>10시 | 설문지 및<br>면접조사지<br>문항 검토             | 공유와<br>공감<br>302호    | 강은이 | 화성시청소년글로벌센터, 센터장      |
|             |           |                                     |                      | 김사강 | 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
|             |           |                                     |                      | 이경숙 |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팀장     |
|             |           |                                     |                      | 이민영 |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             |           |                                     |                      | 이승미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센터장      |

### 3) 양적 연구

#### (1)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청년 전문가 총 50명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청년정책의 주요 주제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의

3년간의 주제의 순서를 정하였다. 조사항목에 포함된 주제들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와 연구 초반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총 2차에 걸쳐서 실시한 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근거로 구성하였다. 각 주제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도록 한 것 이외에 각 주제별로 전문가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현황, 한계 및 개선방안을 자유응답으로 받아서 전문가 의견으로 분석하고 정책개발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2) 이주배경청년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국내 거주 19세에서 34세의 이주배경청년으로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부모 동반으로 입국한 외국인가정자녀 또는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국제결 혼가정자녀 등 세 집단에 속하는 자들로 현재 한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년은 총 410명이었고, 설문조사는 2025년 8월부터 9월까지 약 한 달 간 실시하였다.

| 주요 요소 | 내용                                                                  |
|-------|---------------------------------------------------------------------|
| 모집단   |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하여 성장한 19세~34세의 외국국적 소지자(귀화자, 이중국적자 제외)        |
| 표집틀   | 없음                                                                  |
| 표본수   |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하여 성장한 19세~34세의 외국국적 소지자(귀화자, 이중국적자 제외) 총 410명 |
| 표집방법  | 눈덩이 표집                                                              |
| 조사시기  | 2025년 8월 ~ 9월                                                       |

4) 질적 연구

질적연구는 이주배경청년 30명, 현장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를 실시하였다. 면담조사문항은 연구진이 직접 개발하고, 면담도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 주요 요소           | 내 용                                                                                                                                                              |
|-----------------|------------------------------------------------------------------------------------------------------------------------------------------------------------------|
|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가</li> <li>○ 현장전문가 및 교사: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학교교사</li> </ul>                                         |
| 면담참여자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30명</li> <li>○ 현장전문가: 8명</li> </ul>                                                                                 |
|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에 따른 실태를 파악함.</li> <li>○ 현장전문가: 국내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가 실무자 및 고등학교 이주배경학생 담당교사 등 관련 업무 최소 3년 이상 종사자</li> </ul> |
| 면담방식            |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집단면담(FGI)                                                                                                                                           |
| 면담 시간 및 횟수      | 1시간 30분~2시간                                                                                                                                                      |
|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녹취 후 분석                                                                                                                                                          |
| 면담자             | 연구진                                                                                                                                                              |

## 5) 기타 연구방법

그 외 기타 연구방법으로 콜로키움, 전문가포럼,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국회토론회 등을 추진하였다.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콜로키움

콜로키움은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주요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추진하는 자리였다. 1차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이규용 박사를 모시고 ‘선주민과 이민자 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OECD 국가의 이민자 추이와 특징, 이민자와 선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 노동시장 실태를 비교하고, 한국의 이민자 경제활동실태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 대한 이주민 경제활동에 대한 함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차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종명 교수를 모시고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 제도적 근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KFL)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KSL)의 차이와 현황, 한국어교육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체계, 중앙부처별 교육현황 등에 대하여 발표를 들었다. 이 콜로키움을 통하여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나아가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방안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차수 | 주요내용                     | 발제자                  | 개최일  |
|----|--------------------------|----------------------|------|
| 1회 | 선주민과 이민자 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4.17 |
| 2회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 홍종명(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5.13 |



그림 1-3. 1차 콜로키움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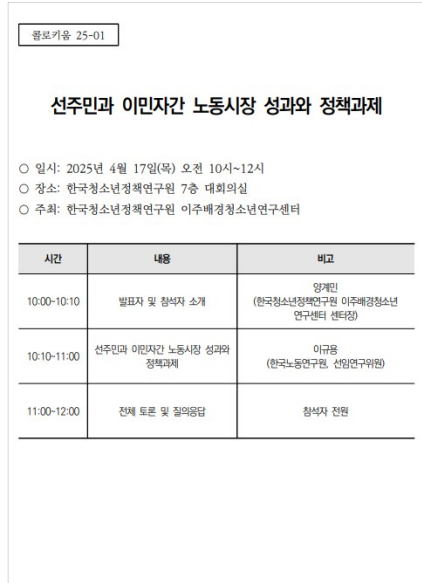


그림 1-4. 1차 콜로키움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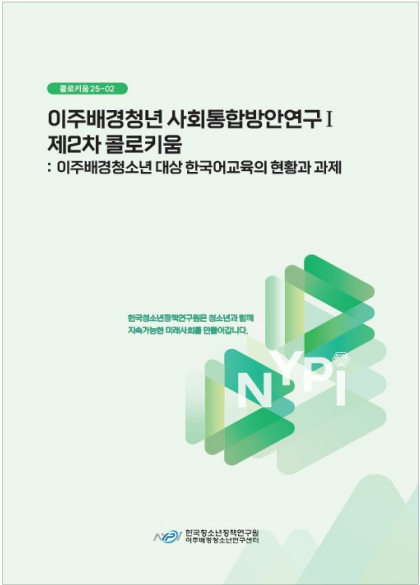


그림 1-5. 2차 콜로키움 표지

|                                                        |    |
|--------------------------------------------------------|----|
| <b>I. '한국어교육'의 개괄</b>                                  |    |
| 1. 한국어교육(한국어교육학)의 정의와 개념                               | 1  |
| 2. 한국어교육 역사(略史)                                        | 1  |
| 3. 한국어교육의 제도적 근거                                       | 2  |
|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br>(KFL: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 3  |
| 5.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br>(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 | 4  |
| <b>I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어(KSL) 교육</b>                     |    |
| 1. 도입 배경                                               | 5  |
| 2.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성격                                   | 6  |
| 3.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목표                                   | 6  |
| 4. 한국어(KSL) 교육과정 적용 대상 학습자                             | 7  |
| 5.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의 제도적 근거                            | 7  |
| 6. 한국어(KSL) 교육과정 내용 체계                                 | 8  |
| 7. 한국어(KSL) 교육과정 운영 체계                                 | 9  |
| 8. 한국어(KSL) 교육 담당 교원의 문제                               | 10 |
| <b>II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b>                       |    |
| 1. 교육부                                                 | 10 |
| 2. 여성가족부                                               | 13 |
| 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TP)                                 | 14 |
| <b>IV.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b>                 |    |
| 1. 교육                                                  | 19 |
| 2. 제도와 행정                                              | 21 |

그림 1-6. 2차 콜로키움 목차

## (2) 전문가 포럼

본 연구를 통하여 이주배경청년의 주제와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2025년 4월 29일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포럼은 이민정책연구원의 교육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는데,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의 체류자격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하여 이주와 인권 연구소의 김사강 박사가 발표하였고, ‘이민자를 위한 지역 정착 비자의 현황과 한계’라는 주제로 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인 박민정 박사가 발표하였다. 이어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와 의정부 EXODUS의 강슬기 활동가가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청년의 체류실태와 현재 비자제도의 한계 등을 한층 더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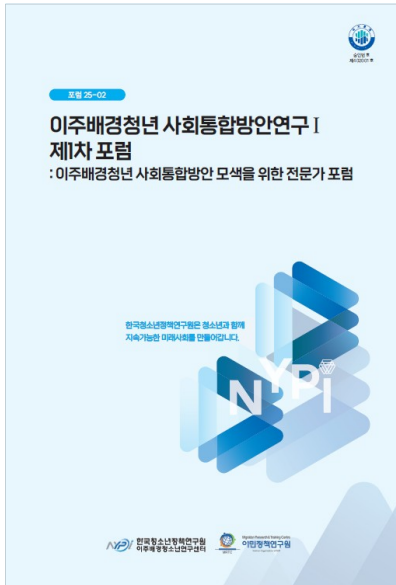


그림 1-7. 전문가 포럼 표지

| 포럼 25-02                                                                                                                            |                                 |                                 |
|-------------------------------------------------------------------------------------------------------------------------------------|---------------------------------|---------------------------------|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                                 |                                 |
| <p>○ 일시: 2025년 4월 29일(화) 오후 2시~5시</p> <p>○ 장소: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대회의실 2</p> <p>○ 주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br/>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 공동주최</p> |                                 |                                 |
| 시간                                                                                                                                  | 내용                              | 비고                              |
| 14:00-14:10                                                                                                                         | 발표자 및 참석자 소개                    | 임재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센터장) |
| 14:10-14:50                                                                                                                         | 이주배경이동, 청소년, 청년의 제류지역 현황과 주요 이슈 | 김사강(이주이민연구원, 연구위원)              |
| 14:50-15:00                                                                                                                         | 휴식                              |                                 |
| 15:00-15:30                                                                                                                         | 이민자를 위한 지역정책 비자의 현황과 한계         | 박민정(이민정책연구원, 교육센터장)             |
| 15:30-15:45                                                                                                                         | 토론 1                            | 이진혜(이주이민센터 친구, 변호사)             |
| 15:45-16:00                                                                                                                         | 토론 2                            | 강술기(의정부 EXODUS 활동가)             |
| 16:00-17:00                                                                                                                         | 전체 토론 및 질의응답                    | 참석자 전원                          |

그림 1-8. 전문가 포럼 목차

### (3)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운영

본 연구를 통하여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자문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정책개발자문위원회는 본 연구가 도출하고자 하는 주제들과 관련된 국내 전문가 약 10명으로 연구진들이 1차적으로 주제별 정책을 도출하고, 정책개발자문위원회의 분과별 전문가들과 내용을 구체화 및 정책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안)를 발굴하였으며, 1차로 도출된 주제를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하고 부처별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정책개발자문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2.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운영현황

| 주제                   | 성명  | 소속             | 직위     | 1차          | 2차(서면)     |
|----------------------|-----|----------------|--------|-------------|------------|
| 체류안정화                | 김사강 | 이주와인권연구소       | 연구위원   | 7.24<br>(목) | 8.1<br>(금) |
|                      | 박민정 | 이민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
| 성인기 한국어<br>능력 강화     | 송은정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 조교수    | 7.18<br>(금) | 8.1<br>(금) |
|                      | 한혜민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조교수    |             |            |
| 전문기술교육 및<br>직업교육 내실화 | 변경환 | 한국폴리텍다솜고등학교    | 교감     | 7.22<br>(화) | 8.1<br>(금) |
|                      | 임정연 | 한국폴리텍대학교 법인가획팀 | 교수     |             |            |
| 고등교육 내실화             | 주희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 7.17<br>(목) | 8.1<br>(금) |
|                      | 김택형 | 한국교육개발원        | 부연구위원  |             |            |
| 지역중심이주배경<br>청년정책추진방안 | 강은이 |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    | 센터장    | 7.22<br>(화) | 8.1<br>(금) |
|                      | 이승미 |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 센터장    |             |            |

#### (4) 국회토론회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사회통합방안 정책(안)을 1차로 도출한 후 2025년 8월 26일 국회포럼을 실시하였는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와 이학영 국회부의장실, 국회의원 서영교, 백혜련, 문정복, 이용우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였다. 이 때 각 정부부처의 담당자들을 토론자로 모시고 도출된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포럼에 참여한 부처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다.

표 1-3. 국회포럼 부처별 토론자

| 부처     | 성명   | 소속 및 직위     | 토론주제                      |
|--------|------|-------------|---------------------------|
| 법무부    | 안재필  | 체류관리과 사무관   |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개선방안 |
| 교육부    | 김희준  | 지역인재정책과 사무관 | 이주배경청년의 고등교육지원방안          |
| 노동부    | 최어지니 | 직업능력정책과 사무관 | 이주배경청년의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지원방안 |
| 성평등가족부 | 선강희  | 다문화가족과 사무관  |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방안        |

| 인구감소시대<br>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br>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      |                                                  |
|-------------------------------------------------------------------------|------|--------------------------------------------------|
| 2025. 8. 26.(화) 오후 2시 ~ 5시<br>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                                                  |
| 주최<br>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 국회의원장 이학영,<br>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백혜란·문정복·이용우 |      |                                                  |
| 시간                                                                      | 내용   |                                                  |
| 13:30~14:00                                                             | 등록   | 등록                                               |
| 14:00~14:10                                                             | 개회식  | 백혜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4                              |
| 14:00~14:20                                                             | 축사   | 이학영 국회의원장 / 6                                    |
| 14:20~14:30                                                             | 사단발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 중랑갑) / 8 |
| 14:30~14:50                                                             | 거포발표 | 백혜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수원을) / 10         |
| 14:50~15:00                                                             | 주제발표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경기 서울갑) / 12           |
| 15:00~15:15                                                             | 주제발표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천 서구을) / 14         |
| 15:15~15:30                                                             | 주제발표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 15:30~15:45                                                             | 주제발표 | 장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                      |
| 15:45~16:00                                                             | 주제발표 | 주제                                               |
| 16:00~16:40                                                             | 부처토론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 16:40~17:00                                                             | 부처토론 | 김사강 이주배경청년 연구위원                                  |
| 17:00                                                                   | 종료   | 종료                                               |

그림 1-9. 국회포럼 포스터

| 인구감소시대<br>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br>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                             |
|-------------------------------------------|-----------------------------|
| 차 례                                       |                             |
| 개회식 및 축사                                  | 백혜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4         |
| 거포발표                                      | 이학영 국회의원장 / 6               |
| 주제발표 1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8  |
| 주제발표 2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0 |
| 주제발표 3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2 |
| 주제발표 4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4 |
| 부처토론                                      | 이주배경청년 연구위원 / 16            |
| 종료                                        | 종료 / 18                     |

그림 1-10. 국회포럼 자료집 목차

## 5. 보고서 구성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4.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

| 장          | 절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br>2. 연구추진체계<br>3. 연구내용<br>4. 연구방법<br>5. 보고서 구성<br>6.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도 |
| II.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와 유형<br>2. 이주배경청년의 규모<br>3.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배경청년                              |

| 장                              | 절                                                                                                  |
|--------------------------------|----------------------------------------------------------------------------------------------------|
|                                | 4. 국내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실태<br>5. 일반청년의 실태<br>6. 요약 및 결론                                                  |
| Ⅲ. 이주배경청년의<br>주요 이슈 및 주제<br>도출 | 1. 조사개요<br>2. 조사결과<br>3. 요약 및 소결                                                                   |
| Ⅳ. 이주배경청년의<br>실태 및 요구도         | 1.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설문조사<br>2.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면접조사<br>3.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전문가조사<br>4. 요약 및 소결 |
| Ⅴ. 이주배경청년<br>정책 현황             | 1. 이주배경청년 관련 국가 기본계획<br>2. 이주배경청년 관련 주요 이슈별 정책현황                                                   |
| Ⅵ. 이주배경청년정책<br>의 방향과 과제        | 1. 이주배경청년 정책방안 도출의 절차<br>2.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 6. 본 연구의 차별성 및 기여도

본 연구는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들의 실태를 분석하고 요구도를 파악하여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3년간의 연구이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에 비하여 아직 소외된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들의 문제는 매우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간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몇몇 연구가 있었으나 평생교육이나 노동시장진입 등 일부 주제에 국한되어 이루어졌고, 그 대상도 여러 대상의 배경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에 조사하고 결론을 내림으로써 하위 유형별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년이 지니는 삶의 전 영역을 주제별로 나누어 3년간 연속과제로 다룬다는 점, 그리고 대상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론적 기여도로, 지금까지 이주배경청년의 교육이나 노동 등 일부 주제에 대한 내용들이 연구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년들이 직면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체류자격에 따른 생활실태와 요구도,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 및 진로, 기술, 직업교육 실태와 요구도, 고등교육 관련 실태와 요구도, 지원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요구도 등 이주배경청년 생활실태의 전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파악되지 못한 내용들을 파악하여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주배경청년 모든 집단을 한 번에 다루지 않고 2025년의 경우 체류불안정성을 지닌 외국국적자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년 집단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는 측면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는 정책적 기여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기본적 삶의 여건 마련」, 「자립역량강화」, 「지역중심 청년정책 추진방안」 등 세 가지 추진방향에 따라 6가지 추진전략, 즉, i)이주배경청년의 체류안정화방안, ii)성인기 한국어능력 강화, iii)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방안, iv)고등교육 내실화방안, v)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 체계 구축방안, vi)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방안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총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과제별 현황을 진단하고,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추진내용과 로드맵, 기대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 정책과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각 도출 과제들에 대하여 부처별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과제의 현실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제II장 이론적 배경

- 1. 이주배경청년의 정의와 유형
- 2.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 3.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배경청년
- 4. 국내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실태
- 5. 일반청년의 실태
- 6. 요약 및 결론





## 1. 이주배경청년의 정의와 유형<sup>3)</sup>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는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으로 여기서의 ‘이주’는 국경을 넘는 이주를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외국으로부터의 이주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의 이주도 포함한다(양계민 외, 2020: 21). 이 개념에 근거하면 아래의 <표 II-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외국배경자 4개 유형과 북한배경자 3개 유형으로 총 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양계민 외, 2020: 21).

표 II-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유형

| 부모배경                              | 본인출생지              | 국내출생               | 국외출생                 |
|-----------------------------------|--------------------|--------------------|----------------------|
|                                   |                    |                    |                      |
| 부모배경                              |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      |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                                   | 부모 모두 외국인          |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 부모배경                              | 본인출생지              | 남한출생               | 남한 외 출생              |
|                                   |                    |                    |                      |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br>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결혼 |                    | ⑤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
|                                   | 북한이탈주민과<br>외국인의 결혼 |                    | ⑦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 출처: 양계민 외(2020: 22) <표 1-8> 수정

2) 2장의 1절, 2절, 3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4절, 5절, 6절은 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3) 이 부분은 양계민 외(2023: 25-28)의 내용을 인용함.

아래 제시한 7개 유형은 이론적 구분으로, 사실상 현실에서는 더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양계민 등(2020)은 청소년 자신의 출생과 부모의 배경에 따라 간명화된 틀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은 외국출신이며 본인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이다. 이들은 이주배경청소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국적을 지닌 한국인이기 때문에 법적지위나 국민대상 지원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들을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 대상으로 범주화되고 정책적 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는 외국배경의 이주배경청소년 모두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는 외국배경의 4개 하위유형 모두를 다문화학생이라고 지칭해 왔고, 최근에는 이주배경학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두 번째 범주인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는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 명이 외국출신인면서, 청소년 본인의 출생지는 외국인 경우로,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한국에 입국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귀화를 통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의 국적을 그대로 지니는 경우도 있는데, 성장기에 입국했다는 의미로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되어 왔다.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용어 역시 지역 현장에서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지칭하기도 하여 역시 혼란이 있는 용어이다.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외국에서 출생을 한 후 어느 정도 성장한 후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입국연령에 따라 한국어 수준이나 한국문화 적응의 수준이 다르고 부모의 입양여부에 따라 법적지위가 달라진다.

세 번째 범주인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는 부모가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의 자녀로 본인의 국적은 외국이고, 미등록자, 무국적자, 난민, 유학생 자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어도 한국에서 출생하여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생활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 외모에서 한국인과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네 번째 범주인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는 부모 모두가 외국인이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입국한 집단으로 본인의 국적은 외국이다. 세 번째 범주와 마찬가지로 미등록, 난민, 유학생, 유학생자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의 동포자녀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체류의 문제는 비교적 안정적일 수 있으나

외국에서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어나 학교적응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북한배경청소년의 경우는 본인의 출생지가 남한인 경우와 북한인 경우, 그리고 제3국인 경우로 나누어서 총 3개 하위 집단으로 나눈다. 보통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지원대상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본인이 직접 탈북을 한 아동청소년으로 아래의 범주 중 ⑥에 해당된다. 최근에는 이 집단의 수가 매우 적고,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으로 탈북을 한 후 외국에서 결혼 하여 자녀를 출생하고 동반 입국한 제3국 출생북한배경청소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많은 경우는 중국 출신자들이 많고,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입국을 한 경우로, 한국어가 서툴고 중국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등 이들 집단만의 특성이 있다. 이들은 통일부와 교육부 통계에서 제3국출생 북한배경청소년으로 분류되지만 교육부 이주배경학생 통계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으로 포함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남한출생 북한배경청소년은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거나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결혼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의 결혼가정 자녀 중 본인이 남한에서 태어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남한에서 출생한 한국국적자이지만, 부모가 탈북배경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현실적으로 다른 북한배경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취약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북한배경청소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이 범주에 포함하였다.

표 II-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하위범주별 포함대상 및 특성

| 하위 범주    |                 | 포함 대상 및 특성                                                                                                                                                                                |
|----------|-----------------|-------------------------------------------------------------------------------------------------------------------------------------------------------------------------------------------|
| 외국<br>배경 |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li> <li>■ 국내출생자이며 한국인</li> <li>■ '다문화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li> </ul>                                                      |
|          | ②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은 한국인인 국제결혼가정의 자녀</li> <li>■ 외국출생자로 어느 정도 성장 후 한국에 입국</li> <li>■ 귀화를 통한 한국 국적자와 외국 국적자 모두 존재</li> <li>■ '중도입국청소년'이라고 지칭하기도 함.</li> </ul> |
|          | ③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 자녀</li> <li>■ 본인의 국적은 외국 또는 무국적</li> <li>■ 동포자녀, 외국인노동자자녀</li> <li>■ 미등록, 난민, 유학생자녀 포함</li> </ul>                                 |

| 하위 범주    |                      | 포함 대상 및 특성                                                                                                                                                |
|----------|----------------------|-----------------------------------------------------------------------------------------------------------------------------------------------------------|
| 북한<br>배경 |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모두 외국국적인 가정 자녀</li> <li>■ 본인의 국적은 외국</li> <li>■ 동포자녀, 외국인노동자자녀</li> <li>■ 미등록, 난민, 유학생, 유학생 자녀 포함.</li> </ul> |
|          | ⑤ 남한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가정의 남한출생 자녀</li> </ul>                                                                      |
|          | ⑥ 북한출생 아동·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에서 출생한 후 탈북한 아동·청소년</li> </ul>                                                                                 |
|          | ⑦ 제3국 출생 북한배경 아동·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이고 다른 한 사람은 외국인</li> <li>■ 남한, 북한 이외의 제3국에서 출생</li> <li>■ '중도입국청소년'으로 범주화되기도 함.</li> </ul>      |

※ 출처: 양계민 외(2020: 24) 〈표 1-9〉 수정

이 유형 중 본 연구에서는 고졸 이후 청년으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들의 생활 및 적응실태를 유형별로 살펴봄으로써 다각적이고 객관적으로 집단별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위에서 제시한 정의와 하위유형을 기준으로 할 것이다. 다만, 북한배경 청년들의 경우 같은 이주배경집단이라 할지라도 외국배경 집단과는 다소 이질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주로 외국배경자에 초점을 두었다. 사실상 이주배경청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지닌 19세에서 34세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집단이다.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한국국적을 지니고 있고,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에서 성장한 한국인으로, 한국인으로써의 권리와 의무, 지원 등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사한 환경의 일반적인 취약계층과 비교했을 때 동등한 수준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써 일단 안정적 체류자격과 한국인으로 성장한 집단과 비교해 볼 때, 미성년 시기를 벗어나 성년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출국을 해야 하거나 유학비자로 일시적 체류를 하는 등 불안정한 생애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외국국적자들 또는 미등록자들의 문제는 이주배경청년 집단 중 가장 심각하고도 시급히 다루어야 할 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25년도에는 위에서 제시한 하위 범주 중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세 집단, 그 중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국적자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 2.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통계로부터 일부 추론을 할 수는 있는데, 그야말로 추론일 뿐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가정자녀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의 외국인주민자녀의 2019년 당시 13세에서 18세인 자의 현황을 그대로 가져오면 2025년 기준 19세에서 34세가 된다. 이 수치는 약 43,517명으로 집계될 수 있다. 이는 2019년 당시 13세에서 18세였던 청소년들이 출국을 하지 않았고, 국외출생자들도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가정하에 추론할 수 있는 통계로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의 경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인인 가정의 자녀들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외국인가정자녀는 모두 제외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외국인가정자녀들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로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가 있는데, 외국인의 연령별 통계를 제공하고 있어서 미성년기 아동청소년의 통계는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제공되는 자료는 5세 단위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19세에서 34세의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2024년 통계에서 19세는 제외하고 20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인원을 보면 696,101명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해당 연령의 모든 외국인 통계로,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성장한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통계는 국제결혼가정자녀나 외국인가정자녀 모두 포함되어 2019년 당시 13세부터 18세 연령의 통계를 파악하여 추론할 수 있는데, 13세에서 18세는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연령이므로 2019년 기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이주배경학생의 규모인 32,932명이 현재 청년연령으로 성장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이 역시 2019년 당시 통계에 포함되었던 학생들이 출국하지 않고, 해당 연령의 학생들이 입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된 규모라는 가정하에서의 예측이므로 부정확하고, 특히 교육부의 통계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학교밖 청소년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

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중 2019년 당시 학교에 재학하고 있었던 이주배경청년의 수치 정도로밖에는 해석될 수 없다.

김영아, 강동우, 임유진(2024)은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연구」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의 규모를 추정하 바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에 인구가중치를 적용하여 19세에서 24세 이주배경청년 중 가구주의 관계가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를 추출하여 약 35,000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집단가구 및 외국인가구의 이주배경청년은 제외되는 등 한계를 지닌다.

표 II -3. 이주배경청년 관련 통계 현황

| 관련통계                         | 현황 및 한계                                                                                                                                                                                                                                        |
|------------------------------|------------------------------------------------------------------------------------------------------------------------------------------------------------------------------------------------------------------------------------------------|
| 지방자치단체<br>외국인주민현황<br>(행정안전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가정자녀만 포함</li> <li>■ 2019년 당시 13세에서 18세인 자가 출입국 등 특별한 변동 없이 그대로 성장하여 국내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현재 19세에서 34세 연령집단 추론 가능</li> </ul>                                                                           |
| 출입국외국인<br>정책통계연보<br>(법무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가정자녀만 포함</li> <li>■ 연령별 외국인현황이 있으나 5세 연령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19세에서 34세 통계를 파악할 수 없음.</li> <li>■ 체류자격별 외국인현황으로 체류자격별로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과 아닌 자를 구분하기 어려움.</li> <li>■ 연령과 체류자격을 모두 고려한 현황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음.</li> </ul> |
| 교육통계<br>(교육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 모두 포함.</li> <li>■ 학교 재학생만 포함.</li> <li>■ 2019년 당시 13세에서 18세(중, 고등학교 연령)였던 학생들이 출입국 등 특별한 변동 없이 그대로 성장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정규학교 졸업자 수 추론 가능함</li> </ul>                              |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국내 통계로는 정확하게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는 이주배경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의 다양한 유형별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도 없는 형편이다. 향후 이주배경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규모도 커질 것이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따라 이주배경청년의 규모도 점차 커질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주민의 규모가 점점 더 증가하고 이주민 사회통합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임으로 시사한다. 인구감소 시대에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을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 3. 사회통합정책과 이주배경청년

#### 1) 사회통합의 개념

사회통합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 사회도 사회경제적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이념, 지역, 성별, 나이,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국제이주의 증가로 인한 한국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이주민의 사회통합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회통합은 불필요한 갈등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줄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채중현, 김세진, 조유선, 이효주, 2023: 21)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비통합적인 상태에 있는 사회 내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 적응함으로써 단일의 집합체로서 통합되어 가는 과정으로(정상우, 2016: 23),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로, ‘동등한 기회’, ‘물질적 불평등의 최소화’로 보거나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여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미숙 외, 2012: 38-39; 김현숙, 2021: 39). 따라서 국내에서 매년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사회통합이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신뢰와 결속 등 사회적 관계를 지칭함과 동시에 소득불평등과 같은 물질적 토대이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며, 그 정책은 항상 차이, 불평등,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관계, 상호작용 및 연계를 강화하여 사회자본 수준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고 개념화 하고 있다(한국행정연구원, 2024: 12). 사회통합은 사회갈등을 막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개인적 삶의 의미로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결속을 높이는 기능을 담당하지만, 사회가 양극화되고 사회적인 갈등이 증가하게 되면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이 약화될 수 있다(조석주, 박지영, 2012: 21). 사회통합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 안정·평화 등을 비롯하여 개인의 안전이나

행복의 주요 요건이 되어, 실제 북유럽과 같이 경제적·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개인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매우 높다(채종현, 김세진, 조유선, 이효주, 2023: 10).

한편,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등이 있는데 이들을 사회통합으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닌다(채종현 외, 2023: 19). 우선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나이,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경제 또는 기타 지위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게 사회참여 조건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그 방법은 기회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United Nations, 2016: 21; 채종현 외, 2023: 19 재인용).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은 사회 내 균열이나 분열의 부재, 분열을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사회적 응집력이 높은 사회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고 신뢰를 증진시키며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상향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를 뜻한다(United Nations, 2016: 21; 채종현 외, 2023: 19 재인용).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은 사회구성원들,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고용의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인 재화나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으로, 그 결과 사회적 응집(Social Cohesion)이 나타난다(김미숙, 김상욱, 강신욱, 정영호, 김안나, 조명래, 이주연, 하태정, 2012: 28).

그에 비해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권리와 책임을 지닌 모든 개인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모두를 위한 사회라고 정의되고(United Nations, 2016: 21; 채종현 외, 2023: 19 재인용), 다양한 문화, 언어, 민족 등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공존함을 의미한다(김미숙 외, 2012: 38; 채종현 외, 2023: 20 재인용).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통합적 목표를 지향한다(채종현 외, 2023: 20).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개념이 각각 조금씩 다른 상태를 지향하지만 개인의 정체성과 권리 존중, 차별 배제, 참여 촉진, 주류사회와 이주민의 쌍방향적 상호적응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박광동, 2024: 46).

## 2) 이주민 사회통합

사회통합의 대상은 반드시 내국인만을 포함하지 않는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이주의 결과 나타난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집단인 이주민



의 경우도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민의 사회통합은 사회통합의 특별한 경우로,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알아가고 인정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주민이 일방적으로 이주국에 동화, 적응하는 것이 아니다(정동재, 2019: 57, 김현숙, 2021: 40 재인용). 국제이주기구(IOM, 2011: 80; 곽윤경, 주유선, 우선희, 2019: 25 재인용)에서는 이주관련 사회통합을 이민자와 수용국 쌍방의 적응과정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고, Geust & Stamm(1993)도 사회통합은 권리, 평등, 존엄성을 기반으로 이민자들이 내국인들과 같이 사회, 경제, 문화 및 정치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치, 관계 및 제도를 촉진하는 역동적이고 원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곽윤경 외, 2019: 26).

이민자 사회통합의 문제에 대하여 과거 유럽에서는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가정한 다문화주의를 정책의 기조로 삼았다(고상두, 2012: 242). 따라서 당시의 사회통합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럽에 머무르는 동안 자기 고유의 언어와 종교, 문화를 보존하도록 하고 귀국 후 고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었다(고상두, 2012: 242).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라마다 수백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 입국-체류-영주-귀화 등 이주의 전 단계에 걸쳐서 실행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고상두, 2012: 242).

한국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회통합정책 역시 초기에는 일시적 거주 후 귀국을 가정한 정책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장기 정착 및 정주를 가정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주의 배경을 지닌 경우 모두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포함하고 있어서 귀화한 외국인도 정책에 포함된다. 그러나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내의 모든 사회적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정책과는 결이 다를 수 밖에 없다. 현실적으로도 청소년을 예로 들 때,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자녀와 국외에서 출생하여 부모동반으로 입국한 외국인가정자녀 대상의 정책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 출생하여 청년으로 성장한 한국국적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국적이 없는 외국국적자나 무국적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것도 그 이유이다. 따라서 한국국적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거나 추후 귀화를 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강제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합정책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상두, 2012: 244). 이는 사회통합정책을 넓게 보았을 때 다양한 사회적 정보 및 자원들에 대한

제도적 접근가능성과는 별개로 현실적 접근가능성의 격차까지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모두 포함할 수 있으나 국적 자체가 없어서 제도적 접근까지 제한되는 집단에 대한 정책과는 달리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주민의 사회통합모델은 차별적배제 모델, 동화모델, 다문화모델 세 가지로 설명된다(Castles & Miller, 2003; 고상두, 2012: 244 재인용). 차별적 배제 모델은 종족적 관점에서 시민권을 부여하는 숙민주의 원칙을 택하고, 외국인 이주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꺼리고 그들의 정착을 차단하는 정책을 실행한다(고상두, 2012: 244). 동화모델은 숙지주의 원칙에 따라 시민권 취득이 비교적 용이하나 국적취득국의 언어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고상두, 2012: 244). 다문화모델은 동화모델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취득이 용이하지만, 이주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보존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는다는 점에서 동화모델과 구분된다(고상두, 2012: 244). 다문화모델은 이민국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채택한 모델이지만, 문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현실적으로 점차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Emerson, 2011: 6. 고상두 2012: 244 재인용). 각국의 법과 제도 및 문화가 동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주자들이 특별히 고유의 문화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Joppke & Morawska, 2013: 19; 고상두, 2012: 244 재인용).

이주민 동화 중 문화적 동화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잘 편입하는 구조적 동화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Alba & Nee, 1997; 고상두, 2012: 245 재인용), 이렇게 구조적 동화를 강조하는 모델이 상호문화주의 모델이다. 상호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단순한 공존이라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상호교류에 초점을 두는 대안적 모델로, 이주자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매개로 현지인과 이주자 문화 간에 교류와 상호작용이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상두, 2012: 245). 이와 관련하여 고상두(2012)는 초기에 전형적인 다문화주의 모델을 보여주다가 외국인의 사회경제적 참여에 대한 소극적 참여 및 배제로 인하여 이주민들이 점차 사회의 하층으로 전락하고 거주와 교육에서 격리되면서 결국 외국인의 실업률이 내국인의 5.4배에 달하고 사회복지 예산의 절반이 이주자들에게 지출되는 문제를 겪었던 네덜란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이주민 통합법은 이주민들의 언어 및 사회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경제적 동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초기 다문화주의에서 동화주의로, 문화에서 경제로 그 무게중심이 바뀌었다는 것이다(Vasta, 2005).

한편, 마할로프스키는 사회통합교육의 목적을 문화적 동화, 경제적 동화, 정치적·법적 동화의 세 가지로 보았다. 문화적 동화는 외국인이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옴으로 인하여 수용국이 지닌 문화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 동화는 이주민들이 사회복지제도의 수급자로 전락함으로써 사회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지막으로 정치적·법적 동화는 외국인이 이주한 나라의 헌법과 법질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Michalowski, 2010: 242, 고상두 2012: 246 재인용). 우리 사회의 이주민 사회통합의 방향도 단순히 문화적 통합이 아니라 이주민들의 언어교육과 사회교육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돕는 경제적 동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에 성공하는 이주민이 많아질수록 이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에 드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인구감소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 3) 이주민 사회통합지표와 한국의 현황

#### ① MIPEX(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유럽연합(EU)은 2004년부터 이민자의 통합수준을 지표로 구성하여 이민자가 수용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통합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오고 있다. MIPEX에서는 사회통합을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라는 사회적·시민적(socio-civic) 용어로 사용하는데, 사회경제적(socio-economic)이라는 의미는 내국인과 동등한 존엄성을 보장받고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시민적(civic)이라는 의미는 모든 주민들이 평등을 기반으로 상호권리와 책임에 헌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IPEX 조사는 2020년 기준 전 세계 5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도 포함되어 있다(2025년 조사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 총 8개 영역의 58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된 MIPEX의 영역을 간략히 소개하면, 노동시장이동성(9개), 가족 재결합(13개), 교육(10개), 보건(12개), 정치참여(5개), 영주(7개), 국적취득접근성(7개), 반차별(9개) 등이다.

한국은 8개 지표 중 교육지표에서 56개국 중 8위, 정치참여가 9위, 노동시장 이동성이 13위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그 외에는 가족 재결합 33위, 영주거주 27위, 보건 36위, 국적취득 접근성 28위 등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특히 반차별 지표의 경우 4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물론 이 지표들이 본 연구의 대상자인 이주배경청년, 즉,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부모 동반으로 미성년 시기에 입국하여 청년으로 성장한 집단

에 정확히 부합하는 지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통합의 주요 지표인 만큼 본 연구에서 고려할 부분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8개 핵심지표들을 볼 때, 그 중 많은 것들은 실질적으로 체류자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의 문제를 다룰 때 단순히 진로, 노동, 교육, 보건 등 각각의 개별 문제를 다룬다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체류자격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I-4. MIPEX 8개 핵심지표별 정책지표

| 핵심지표                                | 정책지표                                                   | 한국 순위 |
|-------------------------------------|--------------------------------------------------------|-------|
| 노동시장 이동성<br>(Labor market mobility) | 이민자들은 일자리를 얻고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갖고 있습니까?       | 13위   |
| 가족 재결합<br>(Family reunion)          | 이민자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일이 얼마나 용이합니까?                           | 33위   |
| 정치참여<br>(Political participation)   | 이민자들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니까?                     | 9위    |
| 영주거주<br>(Permanent residence)       | 이민자들이 얼마나 쉽게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 27위   |
| 교육<br>(Education)                   | 교육 시스템이 이민자 자녀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 8위    |
| 보건<br>(Health)                      | 의료 시스템이 이민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 36위   |
| 국적취득 접근성<br>(Access to nationality) |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합니까?                           | 28위   |
| 반차별(Anti-discrimination)            | 모든 사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종/민족, 종교, 국적 차별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습니까? | 43위   |

\* 출처: MIPEX 2020 (n.d.), Anti-discrimination. <https://www.mipex.eu/anti-discrimination> (2023.10.27. 검색)  
양계민 외(2023: 37의 <표 II-5>와 (2023: 41)의 표 <표 II-7>을 수정함.

② OECD 이민자통합지표(Indicators of Immigrant Integration)

MIPEX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법과 제도 중심의 측정을 실시한 것에 비하여 OECD의 이민자통합지표는 국가별로 이민자의 통합정도를 진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이혜경, 2016: 18). 그러나 이민자와 2-3세대 자녀의 경제활동(노동시장참여), 정치참여(정치·사회참여, 차별금지, 시민권 부여 등), 사회적응(교육, 보건 및 복지, 장기거주, 가족재결합 등), 문화적 측면을 고려한다는 점에

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김동욱, 전대성, 이주실 이정철, 2018: 44). OECD는 특히 이민자의 2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지표로 교육영역과 사회적 포용영역에서 이민자 2세의 통합정도를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15-34세 이민배경자녀를 별도의 이민자통합 정책영역으로 분리하면서 결혼부터 교육, 고용, 사회적 포용, 시민권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통합의 현황과 성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김동욱 외, 2018: 47). 가장 최근인 2023년에 발간된 OECD 이민자 통합지표에는 한국의 자료는 나와있지 않았다.

OECD이민자 통합지표는 배경지표를 제외하고 총 10개의 핵심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의 <표 II-5>와 같이 노동시장 성과(Labor market outcome), 직업 특성(Job characteristic),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 수준(Education of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 성인 이민자의 역량 및 훈련, 가구소득(Household income), 주택(Housing), 건강 지위와 의료접근성(Health status & access to health care),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차별(Discrimination), 15-34세 이민배경자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본 연구의 주 관심 대상인 19-34세 이주배경청년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지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3년간 다루게 될 주제 중 체류안정화를 제외하고는 자립역량강화, 심리사회적응, 사회적 배제와 차별, 결혼, 출산 자녀교육 등 대부분의 주제와 관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MIPEX의 경우 정부에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를 보는 것에 비하여 OECD 이민자 통합지표는 이민자들의 사회통합 실태를 구체적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 반영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의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여 한국의 사회통합수준이 어떤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 II-5. OECD 이민자 통합지표

| 핵심지표                                                                     | 정책지표                                                                                                                   |
|--------------------------------------------------------------------------|------------------------------------------------------------------------------------------------------------------------|
| 노동시장 성과<br>(Labor market outcome)                                        | 고용률, 실업률, 이민자녀의 실업률, NEET 비율, 경제활동률, 장기간 실업률, 실업률                                                                      |
| 직업 특성(Job characteristic),                                               | 임시직 근로, 파트타임 근로, 기능수준, 과잉자격, 자영업, 공공부문에서의 이민자 자녀의 임시직, 이민자 자녀의 과잉자격, 이민자녀의 공공부문취업, 30시간 이하 근로, 비자발적 파트타임               |
| 이민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교육 수준<br>(Education of native-born offspring of immigrant) | 초등 전 교육 특성, 15세 읽기 능력, 교육 성취                                                                                           |
| 성인이민자의 역량 및 훈련                                                           | (학교에 다니지 않는 15-64세 대상) 교육수준, 문해율, 성인교육 및 훈련참여, 훈련수요미충족, 직업 관련 훈련의 참여 및 유용성                                             |
| 가구소득(Household income)                                                   | 가구소득분포, 빈곤율, 아동빈곤율, 근로빈곤율, 금융소외(무계좌 가구, 초과인출 계좌가구)                                                                     |
| 주택(Housing)                                                              | 주택점유 형태, 주거환경, 주거비용                                                                                                    |
| 건강 지위와 의료접근성<br>(Health status & access to health care)                  | 건강상태 인지율, 의료서비스 미충족률                                                                                                   |
|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 국적취득, 투표참여, (10년 이상 거주 이민자 중) 국적취득율, 선거 투표율, 시민참여(공동체 회원, 스포츠여가활동, 이웃위원회, 노조 참여, 정당참여, 자원봉참여)                          |
| 차별(Discrimination)                                                       | 차별받는 집단소속감, 차별경험율, (유입국 국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이민자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이민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                                    |
| 15-34세 이민배경자녀                                                            | 프리스쿨 교육참여, 15세 읽기능력 부족 학생의 비율, 25-34세 교육수준, 25-34세 문해율, 15-24세 조기퇴학율, 고용율, 실업율, 과잉자격, 공공부문취업, 유아빈곤율, 18-34세 투표율, 차별경험율 |
| 배경지표                                                                     | (이민자, 이민자 자녀)규모, 성, 연령, 이주목적(동기), 거주기간, 출신지역, 시민권, 출신국언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평균가구크기, 가구구성, (부모)출신국                          |

\* 출처: 김동욱 외, 2018: 47-48). <표 4-2> OECD통합지표 내용 수정제시

### ③ 국내 이민통합정책 평가지표

국내에서도 이민통합정책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한 바 있다(이민정책연구원, 2021).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통합정책 평가지표에서는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 간 상호존중과 유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국민)은 이민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며 이민자가 국내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 제반한

경을 조성하고, 이민자는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고 사회질서유지 및 사회발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고 있다(유민이, 김화연, 민수진, 홍성준, 한창묵, 김도원, 2024). 이민자 사회통합지표는 이민자 뿐 아니라 국가(대한민국)/내국인과의 상호통합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이민자 차원에서는 국가(대한민국)에 대한 소속감, 책임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공공재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며, 국민차원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인식, 유대감, 수용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유민이 외, 2024). 이민정책연구원의 이민자 사회통합지수는 3개 차원의 15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 차원은 통합기반, 통합촉진, 통합상태이다. 통합기반 차원에는 법·제도, 행정, 통계의 3개 영역이 포함되고, 통합촉진 차원에는 수용성, 의사소통, 디지털역량, 한국사회와 연계, 안전 등 5개 영역이 포함되며, 통합상태를 나타내는 차원에는 노동, 소득, 교육, 주거 및 생활, 의료 및 복지, 참여 및 권리, 한국 사회에 대한 기여 등 총 7개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각 영역별로 세부지표를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6>과 같다. 국내에서 개발된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자사회통합지수는 아래에 나타난 바와 같이 MIPEX에서 초점을 둔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 지표들과 OECD의 이민자통합지표에서 측정하는 사회통합의 상태를 측정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통합기반 차원의 지표들은 MIPEX의 지표와 같이 정부차원의 노력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통합촉진과 통합상태 차원은 OECD에서 측정하는 지표와 관련된다. 그런 면에서 MIPEX와 OECD 이민자통합지표의 특성을 모두 포괄한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표로 생각된다.

표 II-6. 이민정책연구원 이민자 사회통합지수의 세부구성요소

| 차원       | 영역     | 세부지표                                  |
|----------|--------|---------------------------------------|
| 통합<br>기반 | 법 및 제도 | 이민정책(외국인, 다문화가족등) 관련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여부 |
|          |        | 이민자 대표, 협의회 등 이민자로 구성된 독립적 자문기구유무     |
|          |        | 중앙정부기관과 이민·외국인 정책 관련 정례화된 협의체 구성 여부   |
|          |        | 지방자치단체간 이민·외국인정책 관련 정례화된 협의체 구성여부     |
|          | 행정     | 이민자 대상 행정서비스 편의성 및 만족도                |
|          |        | 이주민 인구 대비 지역 내 관련 지원기관 수              |
|          |        | 관계공무원 및 활동가(위탁기관)대상 이민자 수용성 교육 정례화    |
|          |        | 이민자 현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조직 구성               |

| 차원       | 영역         | 세부지표                                                        |
|----------|------------|-------------------------------------------------------------|
|          | 통계         | 이민자 비율 대비 관련 예산 배분 비율                                       |
|          |            | 정책컨설팅, 자문 등을 활용한 사업 기획 비율                                   |
|          |            | 신규이민자(newcomer)를 위한 웰컴패키지 및 지역정보 제공 여부                      |
|          |            | 이민자 대상 데이터 수집 및 관리<br>이민·외국인·다문화정책 개발 시 근거 및 데이터(조사)기반하는 비율 |
| 통합<br>촉진 | 수용성        | 국내 체류 이민자 규모의 적절성                                           |
|          |            | 이민자에 대한 한국사회구성원으로서 수용성                                      |
|          |            | 이주민 대상 정책에 대한 수용성                                           |
|          | 의사소통       |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중/고급 단계 이수자 비율                         |
|          |            |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본인의 한국어 능력(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
|          | 디지털 역량     | PC 및 모바일기기 활용도                                              |
|          |            | PC 및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정보 습득                                       |
|          | 한국사회<br>연계 | 친분이 있는 한국인의 수                                               |
|          |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에 대한 소속감<br>현재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에 대한 정주의사   |
| 통합<br>상태 | 노동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에 대한 주관적 안전 인식                            |
|          |            | 최근 1년간 범죄, 질병, 사기, 차별 등으로 인한 두려움 또는 불안                      |
|          |            |                                                             |
|          | 소득         | 고용률                                                         |
|          |            | 실업률                                                         |
|          |            | 근로자중 상용근로자비율                                                |
|          | 교육         | 정주형 체류자격(F-2, F-4, F-5, F-6)의 연간소득                          |
|          |            | 최근 1년 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                                    |
|          |            | 취/창업, 직무역량강화 등 개인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
|          | 주거 및<br>생활 | (국내 체류하는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이민자 대상) 자녀의 공교육 진학률                   |
|          |            | (국내 체류하는 자녀가 1인 이상 있는 이민자 대상)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정도                  |
|          |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에서의 삶의 질 만족도                              |
|          |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에서의 가족, 친구 등 커뮤니티 만족도                     |
|          |            | 현재 살고 있는 동네(시/군/구)에서의 주거(주택, 주거면적, 주거환경 등) 만족도              |
|          | 의료 및<br>복지 | 총 가구소득 중 생활비 지출 비율                                          |
|          |            | 최근 1년간 일주일 평균 여가시간                                          |
|          |            | 주관적 건강 인식                                                   |
|          |            | 최근 한달 간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일 수                           |
|          |            | 최근 1년간 의료서비스 미충족                                            |
|          |            |                                                             |



| 차원 | 영역      | 세부지표                                                                                                      |
|----|---------|-----------------------------------------------------------------------------------------------------------|
|    | 참여 및 권리 | (제도수혜가능자 대상) 제도 인지 및 수급여부<br>-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긴급복지지원금, 아동수당, 장애인등록, 의료급여 외 의료비 지원, 공공근로사업 |
|    |         | 사적 모임 참여 빈도                                                                                               |
|    |         | 시민단체 등 공익적 모임 참여빈도                                                                                        |
|    |         |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br>(2019년 6월 이후 영주권 취득자 대상)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참여율                                          |
|    | 한국사회 기여 | 기부 및 봉사활동 참가여부                                                                                            |
|    |         | 한국의 법, 제도, 문화, 규범에 대한 이해 노력                                                                               |
|    |         | 성실 세금납부 여부                                                                                                |

\* 출처 : 이민정책연구원(2024)

## 4. 국내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실태

### 1) 체류자격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은 그들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체류자격이 불안정할 경우 앞으로의 삶과 생활에 대한 계획이 어렵기 때문이다. 체류자격에 대한 연구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다수 진행되었다. 서덕희, 김은석(2015)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가 다수로 체류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취업이나 다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전경숙(2017)과 황복선(2019) 또한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어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미성년 시기까지는 부모 동반 비자를 소지할 수 있지만 성년시기가 되는 순간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 단독 비자를 받아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출생 외국국적의 후기청소년기의 경우는 이전 학령기보다 체류자격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2023)은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과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출신 후기 청소년에게 비자 및 체류자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특히 외국국적을 지닌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진로와 취업을 위한 선택에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위하여 대학진학이나 전공

선택을 하게 되고 진로나 취업을 변경하기도 한다. 또한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해야 해서 자기 개발이나 실력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같은 연구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병행하였는데, 국외출생자라도 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후기 이주배경 청소년이라면 체류자격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약 70%가 찬성해 수용적인 태도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외출생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체류조건 완화를 제안하였다(양계민 외, 2023).

15세~29세의 중국동포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연구(이창원, 허설화, 조하영, 2020)에서는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진로 탐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불확실한 미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동포방문 단기체류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다수인 중국동포 청년은 단기체류비자의 특성상 체류의 불안정성이 높고 이에 따른 취업 제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3국 출생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국적과 체류자격 불안정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북한출생과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온 15세~34세 청년을 중심으로 이들이 경험하는 정책적 소외를 찾아내고자 한 이우태 외(2022)의 연구에 따르면, 제3국 출생자는 국적과 체류자격이 불안정하여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 지원이 부족해 다문화 청년과 같은 이주배경청년보다 정책적 소외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가진 청년은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고, 일을 하더라도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 경험 단절이나 정책 접근성에 대한 정보 부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법 외에 제3국 출생 청년을 포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체류자격은 교육, 취업, 의료 등 삶에서 중요한 권리와 관련된 제도적 접근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은 한국에서의 삶이 일시적일 수 있음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불안, 우울, 정체성 혼란 등 심리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진로와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인 청년기에 체류자격의 안정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진입과 원하는 진로의 선택 등 이주배경청년의 앞에 놓인 과업을 안정된 상태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그 이후의 생애기획과 역량개발 등이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청년에게 체류자격은 단순한

법적 지위로만 다루어질 수 없다. 체류자격의 안정성에 따른 사회적 소속감, 제도적 보호는 심리적 안정과 삶에 대한 기획을 가능하게 하여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합의 주요 변수로서도 중요하다.

## 2) 진로 및 진학과 취업

### (1) 진로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청소년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e.g. 김민선, 송영호, 2023; 노승인, 2018; 노연희, 신서원, 2024; 전경숙, 2017; 채소린, 2021). 청년기 연구 중 진로 관련 연구는 청소년기의 진로 탐색과 이행의 결과가 청년기에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성인기로 진입한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2022)의 연구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내출생 6명과 국외출생 6명의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 과정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는 성인기 진입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았는데, 진로는 학업과 언어 능력에 크게 좌우되어 이주배경청년은 청소년기에 희망한 진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되어서는 학력이나 국적 등 자신이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과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시 자격증 공부를 한다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수정된 진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낮은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가 집중한 진로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중 하나는 이주배경청년이 본인을 둘러싼 이주배경 환경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진로 선택에 있어 자아실현 중심의 선택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배경청년은 미래에 대한 기대도 하지만 진로 방향에 대한 혼란과 취업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불안한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주배경청년 중 국외출생 청년의 경우는 한국에서 잘 안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오히려 불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김은정, 김민선, 김두울(2022)의 연구는 25세~34세 이주배경청년 300명을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진로미결정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도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청년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좋은 부모-자녀 관계는 진로장벽을 낮추고, 진로적응성은 높여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는 진로 결정에 있어서 부모-자녀 관계가 더 강하고 복잡하게 작용했다. 이는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은 친구, 교사 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부모와의 관계가 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 진로 상담이나 정책 지원에서도 가족관계나 정서적 지원을 포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바를 시사한다.

이주배경청년을 국내출생과 중도입국 유형으로 나누어 코로나19 스트레스와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장현진, 이수현, 한은지, 김민선, 연구진, 2022)에서는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내출생 이주배경청년보다 중도입국한 청년의 경우에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도입국 청년이 국내출생 청년의 경우보다 취업에 있어서 더 높은 장벽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주배경청년이라도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된 진로나 취업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2) 진학 및 자립

청년기에는 대학으로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진학과 관련된 연구로 채소린(2022)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연구는 17세~29세 청년 3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대상은 10대 중후반에 중도입국하여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청년이 된 중국 출신 청년이다. 대학 진학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않은 입시정보 진입장벽을 경험했다. 또한 부모와 가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증폭시켰다. 특히 귀화자의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 특수 전형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대학을 진학한다 해도 한국 학생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점과 자기계발에서 뒤처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 교육을 통해 부모세대의 위치에서 벗어나 상향 이동에 대한 노력을 하지만,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주류사회 진입의 어려움이 단계마다 존재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아동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청년이 되면서 교육을 주체적으로 받는 행위자가 되는 이주배경청년을 위해 부족한 정책적 공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주배경청년에 대해 이주의 특성만이 너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보다는 일반적인 청년 세대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이슈들, 즉, 교육, 일자리, 주거, 미래와 관련된 부분 등의 문제와 욕구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다(채소린, 2022).

체류자격과 자립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김강남(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체류자격 불안정의 결과는 결국 자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체류자격이 단지 법적 체류 가능성을 판단하는 문제라기보다, 진학, 취업은 물론이고 사회적 통합의 기본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체류자격으로는 취업이 어렵고, 취업의 길이 막힌다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어렵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불법노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악순환은 이어진다는 것이다.

### (3) 취업 및 교육

김진희, 김경애, 한효정, 김태준, 공석기, 권진희, 김지영, 이로미(2020)는 이주배경을 가진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실태에 관해 연구하였다. 해당 연령대를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였는데, 분석에 포함된 청년의 41.8%가 중도입국자였고, 58.2%가 국내출생자였다. 중도입국 청년은 10대 중후반에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정규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과반이다. 이 연구는 면접조사도 실시하였는데, 이주배경청년은 가지고 있는 학습 욕구에 비해 학습을 실천하는 측면이 부족했다. 이는 정보가 부족하거나 처음 진입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며, 교육과 훈련을 받는 것을 친지의 정보나 다문화센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중도입국 청년은 한국어에 대한 기초문해, 직업훈련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20명의 이주배경청년 중 대부분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것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특히 여성과 저학력인 경우에는 더욱 어려움이 많아 직업능력개발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김영주 외(2012)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주배경청년 내부의 다양성으로 여러 조건에 따라 다양한 요구가 있고 그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재차 강조되었다.

김진희, 김자영, 권진희(2021)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국내출생 이주배경청년과 중도입국 청년 10명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학습생활 실태와 교육 관련 장애 및 욕구를 파악하였다. 이주배경청년은 학습에 관심은 있지만 시간이나 경제적인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청년이기 때문에 직업적 역량을 기르고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는 것이 우선되다 보니 학습의 목적이 진로 탐색이나 자아실현을 위한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일부는 이주배경이라는 조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동기에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이주배경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경험까지 겹쳐 있어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어느 한 가지 측면의 교육이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과 삶의 질 향상 모두를 목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4) 한국어

한국어는 기본적인 적응에는 물론이고, 진로나 취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다. 한국 출생 이주배경청년은 한국어 능력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외국출생자의 경우에는 진로결정 및 취업 시기인 만큼 한국어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김영주, 고윤석, 김아름, 김소현(2012)은 중도입국 청년과 북한이탈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어 습득과 관련된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북한이탈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의 언어적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어 문법구조에 익숙한 북한이탈 청년은 중도입국 청년보다 문법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과 한국어 학습 동기는 부족했다. 반면 중도입국 청년은 동기나 사회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활용능력을 갖추었지만 기초 문법이 약한 탓에 문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북한이탈 청년과 달랐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언어 교육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앞서 진로와 관련된 연구로 살펴본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2022)의 연구에서도 이주배경청년 중 중도입국 청년은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학업에서의 어려움뿐 아니라 입시 정보 접근에의 한계 등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부족한 한국어 능력은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진로 선택의 폭을 좁혀 원하는 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이주배경 청년의 생애기획 경로를 연구한 류우선(2023)의 연구에서도 한국어는 매우 중요한 자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이주배경청년이 삶에 대한 계획을 하는 방식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 미래에 대한 뚜렷한 기획이 없고 확정된 것이 많지 않으며, 단지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는 유형은 대부분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언어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3) 심리사회 적응과 사회적 수용

#### (1) 사회 적응, 관계 및 고립

이주배경청년의 불안정성에 대해 연구한 송영호, 김재훈(2022)은 고용 지위, 소득, 직업훈련 경험을 객관적 지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질, 일 자유의지, 사회적 주변화 인식을 주관적 지표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총 네 유형의 집단이 도출되었는데, 그 집단은 객관 지표는 안정되었지만 주관 지표는 불안정한 집단,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 모두 불안정한 집단,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 모두 안정된 집단, 객관 지표는 불안정하나 주관 지표는 안정인 집단이었다. 이 중 객관 지표는 불안정하나 주관 지표는 안정된 집단의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반면, 객관 지표와 주관 지표가 불안정한 집단은 삶의 질이 낮았다. 이는 객관적 불안정성보다 주관적 불안정성이 낮은 것이 삶의 질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형적인 조건보다 주관적인 고용 안정성이나 사회적 수용감, 주변화 인식 등 심리사회적인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지지망을 넓혀주고 인정받고 수용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교육 체계에 진입하지 못한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 중 수도권에 거주하는 17세~23세 청소년 및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연구(전경숙, 2020)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로 이주한 이후 어떤 적응 과정을 경험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과 심리적 부적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와 이 부적응에 대해 가족이나 사회의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탐색하였다.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적 시선이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이는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심리적인 부적응은 다양한 감정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대화 상대가 부재하거나 가족 내에서도 소외감을 느끼는 등 주관적인 고립감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주고, 희망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끼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체류자격이나 귀화여부에 따라 진로가 불안하고, 국적과 소속에 대한 혼란은 정체성 혼란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모와의 대화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가족 사이의 유대감이 앞으로 할 일이나 진로에 대한 의지를 고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이외에 학교나 지역사회의 진로 지도는 정서적 지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비제도권 상태에 놓인 후기청소년을 위해 멘토-멘티 프로그램이나 진로교육 및 자격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전경숙, 2020).

## (2) 정체성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이 자기정체성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재구성 하는지를 연구한 김진희, 이로미, 권진희(2021)의 연구는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이행 과정에 있는 20대 청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성장기의 심리적 안정이 부족한 가족 환경과 이주배경이라는 사회적 구분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온전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정체성과 국적이나 언어에 따라 복합적인 정체 성을 갖는 특징을 보였다. 선생님이나 친구와 같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지지가 정체성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배경이 주는 언어적 유리함이나 해외 경험을 장점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이는 이주배경청년의 정체성이 단일 하기보다는 다층적인 정체성을 경험하고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주배경청년으로 구분 짓기보다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존재로의 정체성이 중심 이 될 수 있는 정책과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중앙아시아 및 러시아 출신 등 고려인 이주배경청년 124명을 대상으로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탐색한 김혜진(2016)의 연구에서는 고려인의 90% 이상이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스스로를 한인으로 인식했으나, 이주 후에는 한인으로 인식하는 수준이 절반 가량으로 감소하였다. 결국 한인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정체성 인식이 불확실하고 모르겠다라는 반응 이 그 비율을 대체한 것으로, 어느 민족도 아닌 경계에 있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이주하면서 가졌던 기대와는 다르게 한국인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경험 을 통해 한민족에 대한 동질감은 낮아지고, 오히려 고향이 같은 사람, 동일 종교, 고려인 공동체로부터 동질감을 느끼면서 모호한 정체성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 는 고려인이라는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이라도 민족 동질성에 의존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으며 청년기 이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서 동질감을 느끼는 지역 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통합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주배경청년의 생애사를 분석한 연구(이혜정, 황명진, 2024)에서는 한국에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귀환 이주한 우즈베키스탄 출생의 고려인 청년 1인이 민족 정체성을



상실했다가 각성하고 정체성 강화와 혼란의 시기를 거쳐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구소련 강제이주 경험 속에서 민족 정체성이 약화되었다가, 한류문화를 접하고 동포 친구들과의 교류로 다시 한민족의 후손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자각하면서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각성하면서 강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학교에서 벗어난 시기에 다시 한국 사회에서 차별과 배제, 언어적 한계 등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대한 거부감과 자신의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경험한다.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감정을 회복하고 스스로를 러시아적 재외동포이자 고려인이라고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주배경청년이 귀환 이주 과정에서 정체성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의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하지만, 차별을 경험하게 되면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중도입국 청년의 경우는 본인의 출신국 정체성과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현재 의지 사이에서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기도 하였다(이해웅, 김미정, 2024).

반면,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이주배경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주배경청년 중 자기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진로나 학업, 나아가 생활을 설계하는 유형은 자아 정체성 인식이 분명한 특징을 보였다(류우선, 2023).

이렇게 기존 연구에서 살펴본 이주배경청년기에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은 학교나 가족 환경에서 보호받는 시기와 달리, 청년이 되어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서 겪는 시기적인 혼란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의 정체성 연구와 차별점을 두고 이주배경청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일 수 있다.

### (3) 사회적 주변화와 차별

사회적 주변화의 영향에 대해 연구한 장현진, 류예진, 왕희찬, 연구진, 김민선, Paul Youngbin Kim(2023)은 만 25세~34세 이주배경청년 32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국내출생 60.2%, 국외출생 39.8%), 사회적 주변화로 인해 진로 목표가 불일치 되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이주배경청년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진로에 대한 목표가 주변화로 인해 실제에서는 달라지는 현상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지원은 그 방법이나 기능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을 다루는 심리사회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국외출생 후 한국에 중도 입국한 만 25세~34세 이주배경청년 22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서는 차별과 주변화 인식의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잠재 집단을 도출하였다(박희진, 위고운, 강민희, 윤성찬, 김민선, 2023). 첫 번째 집단은 높은 차별과 주변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낮은 집단이다. 중도입국 이주배경청년 중 나이가 어릴수록, 한국어 실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대도시 거주하는 경우가 이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두 번째는 차별과 주변화 인식이 가장 낮은 집단이면서 소득은 중간 수준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된 집단이다. 이 집단에 속하는 청년은 한국어 실력이 낮고 중소도시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았다. 세 번째는 차별 인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소득과 고용 안정이 높아 경제적으로 안정된 집단인데,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경우가 많이 속했다. 이 집단은 경제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 한국인으로 취급받지 않아 지속적인 심리적 차별 경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집단에 속한 이주배경청년은 진로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제약보다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미묘한 차별과 이방인 취급을 받는 일상이 누적되어 위축감이나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제약을 경험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까지 고려한 다차원적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주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백경민, 연구진(2022)은 만 25세~34세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 300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주배경청년이 가진 사회적 연결망이 높을수록 주변화 인식은 낮게 나타났는데, 정보 획득의 가능성이 이 주변화 경험 완화에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사회적 주변화 인식은 국내출생 이주배경청년이 상대적으로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았다. 이주배경청년의 주변화 인식을 낮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감정에 대한 단순 지지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회통합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국내출생과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의 국적, 출생지, 성별을 조합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시민적 위계화(civic stratification) 안에서 사회적 주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분석한 송영호, 최영미(2021)의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주변화 인식이 심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국내출생-한국국적-남성의 조합을 준거 집단으로 하였을 때, 국외출생-한국국적-여성인 경우가 가장 높은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에서 태어나고 현재 국적을 취득한 청년이 부정적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한국

시민이 되면서 기대가 높아졌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시민권 획득과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온전한 국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이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도입국 청년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족한 교육 기회,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노동 시장에서의 불안한 지위가 심리적 배제를 경험하게 하여 주변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해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사회적 차별 경험은 이주배경청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별 없는 환경과 더불어 청년기에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김민선, 김재훈(202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사회에서 차별을 많이 경험 할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차별 경험은 청년기 정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이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연구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기에 대한 예방과 같은 기존 프로그램에 더해, 학교 졸업 후 전환기는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이 강조되었다.

차별 경험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내면서 경험하는 차별에는 외모에 의한 차별 경험이 논의되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20~30대 이주배경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외모로 인해 놀림을 받은 경험을 발견할 수 있었다(이해웅, 김미정, 2024). 혼혈로 인한 피부나 생김새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라는 점은 다른 친구들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외모 측면에서 차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드러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동일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음에도 자신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피부색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국외출생과 외국인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정유, 2024)에서는 주관적 건강상태, 도움 가능한 인적자원과 더불어 차별 경험 여부가 이들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만 15~39세 홀로 생활하는 국외출생 이주배경청년 2,138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 한국어 능력도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변수였지만, 차별 경험과 인적자원 변수를 넣은 회귀분석 모델에서는 한국어 능력 영향이 사라지고 두 변수가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생활만족도에서 차별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년들은 체류자격, 민족, 피부색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의 원인이 다양한데, 이민정(2022)은 종교에 따른 차별경험을 연구하였다. 15~29세 이주배경청년 자료를 활용하였고, 종교를 기독교, 불교, 이슬람/힌두교, 무교로 종교 유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18년도 한국에서 난민 이슈와 이슬람 혐오 등의 문제가 떠올랐을 때, 다른 종교보다 무슬림 청년은 사회적으로 낙인이나 차별을 더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삶의 만족도 저하로 이어졌다. 즉 차별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이 단순하게 경험하는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특정 종교와 사회적 이슈가 교차하면 더욱 증폭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이민정, 2022)는 다문화 정책 설계 시 종교적 맥락을 변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미디어와 여론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제안했다.

#### 4) 가족 형성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가족 형성에 대한 연구는 풍부하지 않다. 그 이유는 이주배경청년 연구의 대상자 연령이 후기 청소년에 해당하거나 초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진로나 취업 등 사회진출 시도에서 장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더 시급한 문제에 집중된 경향 등의 사회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가족 형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류우선(2023)의 연구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과 기회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출생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 12명으로 구성된 20대의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연령에서 예상할 수 있듯이 결혼을 먼 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결혼을 생애과정에서 경험할 일로 생각은 하지만 이주배경청년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생존과 관련된 일자리나 자립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안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일부 여성 이주배경청년은 결혼에 대한 생각보다는 자신의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계획이 생애기획에 더 많이 녹아있기도 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한 독립보다 자립적으로 독립성을 기르고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주배경청년의 생애기획 경로를 주제로 한 이 연구(류우선, 2023)는 가족형성과 관련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은 연령에 따라 특정시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주배경청년의 삶 전체 경로 속에서 결혼을 어떻게 기획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자립 경험을 다루는 과정에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연구(김강남, 2019)를 찾아볼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17세~23세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대한 탐구 과정에서 결혼을 독립의 계기로 인식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결혼을 하면서 가족을 떠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후기 청소년기는 결혼을 당장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니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은 크게 자리잡고 있어서 자기 자신의 앞길을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현실에서 생각도 안 해 본 일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즉, 결혼은 자립을 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기존 연구와 정책은 주로 교육이나 진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의 과정을 촘촘히 다루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이주배경청년들이 체류자격이 불안정하거나 생계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어서 생애경로에 있는 가족 형성 등 다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이주배경청년의 문제를 다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지금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문제들이 우선 해결되어 다른 문제들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일반청년의 실태

### 1) 삶의 기반과 구조적 조건

#### (1) 노동 및 일자리

청년 세대의 고용 및 노동이 한국 사회의 주요 문제인 만큼, 이와 관련된 주제 또한 청년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실업, 고용 불안정성, 구직의 어려움, 일자리의 질 등 한국 사회의 청년이 직면한 노동 환경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청년층 노동시장 현황 파악, 취업 및 실업 실태, 고용 구조 분석 및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는 연구들(김유빈, 전주용, 2014; 김종숙, 김혜영, 김난주, 남재량, 2007; 김태홍, 김종숙, 2002; 정인수, 김기민, 2005)이 먼저 주로 축적되었다. 최근에는 청년의 노동과 관련해 일자리 조건별, 성별 등 특성에 따라 세분화된 연구로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정성 관련 연구는 청년층 일자리가 경제 상황과 맞물려 민감하게 변하는 가운데 최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일자리의 진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김기현, 김형주, 강영배, 오선정(2023)은 한국, 중국, 일본 청년의 고용실태 분석을 통해 다른 국가보다 한국은 청년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는 것과 졸업 후 조기 취업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의 그 사회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은 일자리 확보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첫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거나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과가 이어진다(곽은혜, 2021).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은 청년 자신의 문제라기보다 외부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강조된다.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진입도 쉽지 않지만, 현재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자리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김문길 외, 2022a).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심으로 단기계약이나 기간제 위주인 노동시장의 구조는 청년의 고용안정성을 떨어뜨린다. 이러한 경향으로 청년들이 장기 경력을 쌓기 어려워지는데, 노동시장의 수요는 신입보다 경력직에 집중되어 사회 초년생인 청년은 장기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기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이 지속된다(김문길 외, 2022a).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일자리 질, 경력 단절 등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성별에 따른 차이에도 집중하고 있다. 곽은혜(2021)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자신에게 잘 맞지 않는 일자리나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기 어려운 일자리라도 우선 입직하게 되는 전반적인 경향은 여성의 경우 더 두드러질 수 있어 여성 청년의 일자리 질과 경력 지속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더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찬가지로 김문길 외(2022a)의 연구에서도 여성의 취약성은 지적되었는데, 여성 청년은 취업하더라도 남성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고용 유지 기간이 짧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신, 출산과 이어지는 돌봄이나 육아 등으로 인해 여성에게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덜 제공되는 노동시장의 현재 구조로 인해 여성 스스로도 남성 청년보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고 보았다(김문길, 2022a). 또한 김종숙, 김혜영, 김난주, 남재량(2007)의 연구는 여성이 고학력이더라도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거나 정착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하였다. 비정규직 일자리와 출산과 육아와의 관계가 강해 여성은 경력 형성과 정규직 이동과 유지가 어려운 현실로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근에는 기존의 청년 일자리나 실업과 관련된 분석에서 나아가 청년들의 일에 대한 가치관을 이해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의 가치 변화에 대해 주목한 길현중, 이정희, 이영수(2022)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의 조건에 있어서 장기 고용보다 오히려 자율성이나 유연성을 가지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파악한다. 또한 청년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원하지만, 아직 정책적인 측면은 이에 대한 지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렇게 청년과 관련해 노동시장이나 일자리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되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증적으로 청년기의 노동시장 경험이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윤준현, 2021), 고용상태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울하거나 불안감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을 하고 있더라도 비정규직 일자리를 가진 청년은 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보다 삶의 만족 정도가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청년기 초기에 비정규직이나 실업 상태를 반복하는 등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경험하는 것은 사회적 소외감이나 사회참여 기회를 낮추어 이후 청년기 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준현, 2021). 따라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보와 나아가 단순한 일자리 수 증가보다는 괜찮은 일자리가 확보되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부정적인 경험을 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중요해 보인다.

## (2) 소득과 경제적 환경

청년기에는 소득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청년기의 낮은 소득 수준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더 감소하였고, 소득 불안정성도 증가하였다(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특히 20대 여성의 일자리나 서비스업과 단기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은 단기형 일자리로 가거나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일을 하게 되어 청년 일자리 안정성이 낮아졌다. 이는 결국 청년이 미래를 설계하기 어렵게 만들거나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소득 수준은 자산 형성, 결혼 및 출산 등 청년기 중요한 이행 등 여러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김문길 외, 2022b). 또한 소득은 자산과도 연결되어 있다. 김문길 외(2022b)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은 청년은 주거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이 낮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자산과 연결되는

소득 불평등에 대해 청년들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정책적 개입으로는 이러한 격차를 감소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김문길 외, 2022b).

청년의 자산 실태를 연구한 곽윤경, 하은솔, 오욱찬, 신영규(2022)의 연구에서는 19~39세 청년가구주를 대상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가구의 자산과 비교하면 청년가구주의 자산은 낮은 수준이었으나, 자산의 수준은 증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김문길 외(2022b)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는데, 청년가구주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산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미혼, 정규직/비정규직, 1인가구/자녀가구 등 다양한 상황의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미혼이면서 정규직인 경우는 다양한 금융투자를 하는 경향을 보였고, 미혼이면서 비정규직인 집단에서는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를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미혼과 달리 기혼 청년 집단에서는 적금이나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의 혼인 상태나 근로 형태에 따라 자산 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3) 주거 환경

청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주거 마련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청년 주거 실태를 보면, 청년 대부분은 자가 주택 보유하는 비율이 낮고,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도 많다(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전국의 만 25세~39세 이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주거 환경은 결혼 지연 사유 중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 의향이 있다 해도 주거 마련이라는 문제가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서 마련하게 되는 신혼집의 형태로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절반 정도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여 희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생각을 가진 청년 사이에서는 주거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높았다(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1인 청년가구의 주거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에 이르는 청년의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2017)의 연구에서는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1인 청년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거주 형태는 단독주택과 오피스텔이 가장 많았고, 보증부월세가 과반으로 가장 많았다. 보증금의 71%, 월세의 65%, 생활비의 51%를 부모가 지원하는 형태로 생활



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주거비 부담은 취업 준비생의 독립을 지연시킬 수 있고, 사회초년생이 가족형성 및 출산을 이행하고자 하는 것을 지연 또는 포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선호 정책 유형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년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했다.

#### (4) 청년 빈곤과 사회보장

청년기의 빈곤은 경제적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영역에서의 빈곤이 나타난다. 전국의 만 19세~34세 청년 약 4천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빈곤 상태에 있는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한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2021)의 연구에서는 청년의 빈곤이 다차원적 성격을 가진다는 실태를 보여주었다.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경제적 빈곤, 실업 상태이거나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상태로 인한 노동 빈곤, 최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거주하는 주거 빈곤, 정신건강을 포함한 건강 빈곤,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 결핍과 사회적 자본 및 문화자본 결핍 등 청년의 빈곤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학업을 마치고 취업과 독립으로 이어지는 청년 이행기에 필요한 자원이나 기회가 부족하여 노동, 주거, 교육 영역에서의 빈곤이 높은 특징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측면이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증폭된 고립감과 불안정성 등은 단순히 소득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곤이었다. 그리고 현재의 빈곤이 미래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의 자산빈곤이나 정신건강이 상태가 악화되었고, 주거 마련에 있어서도 부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자립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높았다(김형주, 장근영, 박미선, 정세정, 변금선, 배정희, 2022). 김문길 외(2022b)의 연구에서는 고용 빈곤이나 건강 빈곤의 증가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차원적 빈곤에서 특히 경제적 빈곤은 사회보장을 통해 취약성을 덜어줄 수 있는데, 복지 제도의 자격 기준과 소득 산정 방식 등이 청년 실태를 잘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찾아볼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복지는 가구 단위로 소득이나 재산을 산정하여 수급 자격을 판단한다. 그러나 청년은 부모와 경제적으로 독립하더라도 부모의 주소지 공유로 쉽게 가구로 판단되는 등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한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빈곤 청년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일부 개선되었지만, 소득인정액 산정은 가구 단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행정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김형주, 김정숙, 김문길, 변금선, 배정희, 2023).

## 2) 사회적 관계와 참여

### (1) 사회적 고립

청년의 취약점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이 아니라 다차원에 걸쳐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은둔 청년 역시 취약계층 청년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박윤경, 임덕영, 신영규, 황선유, 송치호, 2021). 청년의 고립이나 단절이 일어나는 원인,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의 제도는 이 은둔 청년을 잘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분류하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지원을 강조하기도 한다(김성아 외, 2021).

최근 청년 문제에서 이 사회적 고립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의제 중 하나인 이유는 청년기의 고립은 단순히 교류 단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한 소속감 상실, 심리적 고립감 등으로 인해 생애 전환기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민상, 신동훈, 2021). 고립은 자발적으로 은둔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취업에 실패하거나 정신건강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고립된 생활을 이어나가는 외부 요인에 의한 고립도 있다(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고립이 길어질수록 우울, 불안, 무기력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화되어, 청년기에 갖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이나 계획이 부족하게 되고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지역사회와의 단절은 물론이고, 지인이나 가족과도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고립 청년의 경우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존 복지 서비스와 달리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나 단체 등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방법으로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김성아 외, 2023).

## (2) 시민성, 사회참여, 권리 인식

청년들은 자신을 이 사회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기를 경제적 자립과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성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그러나 정치참여와 관련해서는 실망감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참여의 비율은 낮다. 이는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 사회참여 등에 대해 학교에서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며, 청년들이 공교육에서 받은 시민성에 대한 교육이 이론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청년 시민성 교육과 참여나 권리 주장, 정책 및 제도 이해 등에 대한 일상에서 적용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기현 외, 2023).

사회참여의 권리 이외에 청년 사이에서는 여가권에 대한 관심도 나타났다. 청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은 결국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나 문화비용 지원제도의 확대와 연결되어 있다(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2023). 또한 청년의 사회참여는 적극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하는 행동보다 온라인 청원에 응답하거나 소모임 활동을 하는 등 비공식적인 참여의 경향이 더 높았다. 이러한 청년 다수가 실제 행하는 참여 방식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청년 참여기구나 위원회 등 공식적인 절차나 규범 내에서의 참여, 또는 제도적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참여 등 정부가 설계한 참여 구조와는 괴리가 있다(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2023).

## 3) 자립, 성인기 이행과 가족 형성

### (1) 자립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성인이 되고, 그 시기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자립을 하거나 계획하게 된다. 청년의 자립을 생각하면 경제적 자립이나 주거 자립이 가장 흔하게 연상된다.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 데에는 정규직 여부, 부모의 소득수준, 주거형태 등이 주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이 주거 독립을 이루는 경우는 전세나 월세의 형태가 많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은 청년에게는 매우 큰 부분이었다. 또한, 이 경제적 자립이나 주거 독립은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립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이 된 청년들이 개인의 노력과 자율적 역량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할 자립이라는 것이 부모의 소득과 자산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출발점이 이미 다르게 되어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청년이 자신은 자립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성인이라는 인식을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유민상 외, 2022).

최근 청년들은 경제적 자립, 주거 독립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자립까지 포괄해 여러 가지 차원의 자립을 경험한다(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이는 자립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계 유지만을 의미하기보다는 미래 설계 가능성이라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 삶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김형주, 김정숙, 김문길, 변금선, 배정희, 2023). 즉, 자립에 대한 개념이 소득 확보 측면으로 한정되지 않고 심리적 안정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 자기결정권 보장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차원의 자립을 포괄하는 의미에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립감, 자존감 저하, 사회적 연결망 부족 등은 심리사회적 측면의 자립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지원체계나 관계망이 부족한 청년은 자립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주, 김정숙, 김문길, 변금선, 배정희, 2023).

## (2) 성인기 이행과 가족 형성

과거에는 교육, 취업, 결혼, 출산 등 이행 경로가 정형화된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김문길, 김기태, 최선영, 우선희, 김상배, 노법래, 2023). 즉, 교육을 마치더라도 취업으로 바로 이행하지 않거나, 취업 후 결혼이나 출산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이행 경로의 다양화는 소득, 학력, 부모 배경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뒷받침될수록 취업, 결혼, 출산이 과거의 정형화 되었던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소득이나 학력이 낮은 집단은 이행이 지연되는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기 이행을 획일화해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이고 다양한 이행의 궤적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김문길 외, 2023).

청년기 이행이 단선형이 아니라 다경로적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안선영, Cuervo, Wyn, 2010). 진학 및 교육이후 취업, 결혼이라는 전통적 경로가 최근 많이 약화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호주의 청년과 비교한 결과는

여전히 한국의 청년은 전통적인 이행 경향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청년기를 인식하는 것에서의 차이에 근거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한국 청년은 청년기를 자립이 지연되고 압박을 느끼는 시기로 인식되는 반면, 호주 청년은 자아 탐색과 자유로운 기회의 시기로 한국보다 긍정적인 시기로 인식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청년기는 자립과 이행의 욕구는 높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경로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실천도 증가하는 만큼 청년기 생애 전환의 유연성 보장이 중요한 시대이다. 따라서 청년을 능동적 주체로 인식하고 비선형 경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안선영, Cuervo, Wyn, 2010).

청년기에는 학업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결혼이나 출산 등 다양한 삶의 이벤트를 거치는 시기이다. 미성년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로 여러 과업이 놓여있는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청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과업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성인이 이행 과정에서 모두 유기적인 것들이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일자리, 주거 환경 등 청년 연구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진 주제들은 결국 성인이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결혼까지 이행한 청년을 대상으로 여러 이행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연구(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에서 일자리 상태와 소득 수준은 청년의 결혼 의사나 그 시기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것은 이를 방증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 결혼 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특징은 주거 마련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다. 이는 신혼집 마련이 결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회 초년생인 청년에게 주거 마련은 어려운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나이가 결혼해 출산을 하더라도 출산 시기나 자녀 수는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9). 다시 말해, 청년 시기에 이루게 되는 여러 과업 중 가족 형성과 출산이 다른 과업을 다 이룬 후에 거치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과정이 기대하거나 기뻐하는 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 사회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의 가족 형성과 출산 등에 관련된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초혼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미혼 청년 비율이 많다보니, 청년 세대의 결혼 의향에 관심을 많이 갖기도 한다. 전국의 19세~34세 청년 4,530명을 대상으로 청년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김형주, 정세정,

박미선, 김동훈, 2024)에서는 미혼 약 70%, 기혼 약, 30%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미혼 청년 중 결혼 의사 있다는 응답은 55.7%였으며, 희망하는 결혼 연령 평균은 32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청년기본법」상의 청년 연령 기준이 만 19세~34세라는 점을 같이 생각해 본다면, 청년기에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 의사는 경제적인 안정과 주거 마련, 일자리 확보 등 경제적인 준비와 상당한 연관성을 보였다. 결혼과 출산을 위한 경제적 여건 마련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혼 준비에 필요한 자산 중위값은 1억 원이었으며,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중위값은 월 6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청년은 분가 및 독립 의지가 결혼에 대한 의향과 이후 출산에 대한 의향으로 이어지는 순서를 보였다. 즉 먼저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이후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다(김형주 외, 2024).

이러한 독립 이행이 가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국 청년뿐 아니라 일본 청년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한국과 일본의 청년을 비교한 연구(조성호, 스가 케이타, 와타나베 유이치, 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에서도 두 나라 청년 모두 경제적 자립과 가족 형성 의향 사이의 강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소득, 직업 안정성, 주거 독립 여부가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 등 가족 형성 측면에서 장애로 작동하는 요인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일본 청년은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부부간 역할 분담, 개인 시간과 자유의 감소와 같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장애요인으로 작동한 반면, 한국 청년은 일본 청년보다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성호 외, 2017). 경제적 환경이 이행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다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확인되어, 이는 한국 청년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 6. 요약 및 결론

이주배경청년과 일반청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이 두 집단에 대한 연구는 각각 다른 출발점에서 접근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이주배경청년 관련 연구는 사회적 배제, 구조적 불평등, 정체성, 제도 접근성 등의 사회적 취약성과 주변화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이주와 관련된 요인인 국적, 체류자격, 출생지, 언어능력,

문화적 이질성 등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사회통합과 적응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는 이들을 청년보다는 이주자 또는 소수자로서 탐구하였으며, 일반청년과 다른 제도적·사회적 위치에 놓여있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이주배경청년의 연구에서도 청년기로서의 특성, 즉 생애과업의 수행, 자립 경로, 진로 형성 등과 같은 청년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일반청년 연구에서 집중해 온 주제에 대해서 탐색하려는 연구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제 이주배경청년의 위치를 이주에만 집중해 이해하기보다는 청년기를 경험하는 개인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언어장벽, 체류 불안, 제도적 배제와 같이 이주 특성에 따른 구조적 장벽과 이에 따른 심리적·사회적 영향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아직 이주배경청년 연구는 누적 단계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측면에서 보면, 이주배경청년을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닌, 중도입국 청년, 북한이탈청년, 고려인 청년 등 하위 집단별로 나누어 질적 사례로 다루는 등 이주배경청년을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특성을 이해하려는 연구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이렇게 집단 내 이질성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이주 관련 배경이라도 이주 자체가 다차원적이고 그에 따른 조건들이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 집단별 정확한 니즈(needs)를 파악하는 단계로 연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일반청년에 대한 연구는 청년세대 전반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생애이행의 지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수의 연구를 통해 청년세대의 불안정한 노동시장, 높은 주거비용, 낮은 자산 축적 기회나 자산 격차의 증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성인기 이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청년을 구조적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출생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하는 성인기 이행의 지연과 관련되어 연구가 풍부하게 진행되었다. 과거에는 청년들이 성인기에 자연스럽게 이행했던 교육 후 취업, 가족형성이 지연되거나 어려워지면서 각 단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된 것이다.

두 집단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찾아보면, 청년을 독립적 사회 주체로 인식하며, 청년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는 점이다. 그리고 청년기의 불안정성은 이주배경청년과 일반청년 모두가 경험하는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두 집단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대한 양상과 맥락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청년에

대한 연구는 청년의 생애이행기적 특성과 경제적 자립, 주거 안정, 진로 및 직업 탐색, 심리적 건강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과 취약성이 중심이다. 반면, 이주배경청년은 이주로 인한 특성이 기존연구의 주를 이루고 있어, 청년기에 해당하는 이들은 청년이자 이주자로 이중 배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경향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는 ‘청년성’보다는 ‘이주성’이나 ‘다문화성’이 전면에 강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으로서의 욕구나 생애기획은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최근에는 일부 이주배경청년에 관한 연구에서도 청년기라는 생애 전환기의 위기와 도전의 시기라는 것에 초점이 맞춘 연구가 진행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 이주배경청년에게는 국적, 체류자격, 제도 진입에 있어서의 제한, 언어와 문화 등 삶에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주는 다층적인 배제 요인들이 더 시급해 보인다. 이러한 이주배경청년이 마주한 시급한 문제는 청년기의 문제 대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기 문제 위에 추가적으로 있는 것으로, 이주배경청년이 일반청년보다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주배경청년 연구는 이주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나아가 일반청년 연구에서 기존에 다룬 주제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청년 연구에서는 이미 폭넓게 다루어진 주제인 노동 및 경제적 상황 관련 문제, 관계성, 자립 및 성인기 이행 지연 등의 문제는 청년기의 특성과 관련된 주제로 동일한 청년기에 속하는 이주배경청년에게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주배경청년 사이에서도 이러한 주제는 주요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심지어 일반청년의 문제 수준보다 더 심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이 직면한 더 시급한 문제에 가려진 청년으로서의 주제성, 생애설계, 사회참여 욕구에 대한 관점을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청년 정책 내에서 이주배경 집단을 포괄하거나 사회통합의 관점에서의 접근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나아가 이주배경청년 연구는 기존 일반청년 연구 검토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청년 연구에서 다룬 주제, 축적된 데이터, 제안된 정책 등 기존 연구 결과 및 방법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년 대상 조사나 정책 제언이 발전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의 배경적 특수성을 반영하거나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물론이고, 청년기에 특수하게 경험하는 삶의 전환기 문제를 정교하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망해 나가는 연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 — 제Ⅲ장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이슈 및 주제 도출

- 1. 조사개요
- 2. 조사결과
- 3. 요약 및 소결



## 1. 조사개요

### 1)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이번 장은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3년간 수행할 연차별 주제 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된 전문가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이주배경청년 관련 연구들은 이주배경청년의 삶과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인적자원으로써의 활용 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고, 교육, 노동 등 일부 주제와 관련하여 소수 추진되었으며, 지금까지 이주배경청년 삶의 전 영역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종합연구는 추진된 바 없다. 이주배경집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주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또는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 집단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이 청년세대로 성장하게 되면서 떠오르게 된 집단으로, 아직 이들 집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이주배경청년 집단 대상의 사회통합정책을 연구하는 데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기반한 이슈 파악 및 주제 도출을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연구자들의 직관이 아닌 국내 여러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도출하고, 시급성에 근거하여 3년 동안 순차적으로 정책과제 개발의 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내 이주배경청소년 및 이주배경청년 관련

4) 3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정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함.

연구자와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본 연구의 3년간 주제 선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2) 조사대상자

전문가 의견 조사의 대상자는 국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 50명으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총 50명 중 남자는 28.0%, 여자는 72.0%로 여자의 비율이 크게 높았다. 연령대는 40대가 46.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38.0%, 60대 12.0%, 30대 4.0% 순으로 40대와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장 낮은 연령은 37세이며 가장 높은 연령은 64세로 평균 연령은 49.6세였다. 근무지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특별시로, 32.0%였으며, 충청북도 8.0%, 충청남도 6.0%, 세종특별자치시 6.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거주자가 각각 2.0%였다. 조사 대상 전문가의 최종학력은 박사 졸업이 6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석사 졸업 16.0%, 대학교 졸업과 박사 수료가 각각 6.0%, 석사 수료가 4.0% 순이었다. 직위는 연구원이 36.0%로 가장 많았고, 현장전문가 22.0%, 대학교수 18.0%, 교사와 기타가 각각 10.0%,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4.0% 등의 순이었다. 기타 집단으로는 공공기관 근무자, 변호사 등이 있었다.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업무 경력은 6년 이상이 76.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5년 이상~6년 미만이 12.0%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5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약 88%를 차지하였다. 1년 미만은 4.0%이며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5년 미만은 모두 각각 2.0%였다.

표 III-1. 전문가 의견 조사 참여자의 조사대상자 특성

| 구분          |     | 빈도(%)    | 구분               |        | 빈도(%)    |
|-------------|-----|----------|------------------|--------|----------|
| 성<br>별      | 남자  | 14(28.0) | 최<br>종<br>학<br>력 | 대학교 졸업 | 3( 6.0)  |
|             | 여자  | 36(72.0) |                  | 석사 수료  | 2( 4.0)  |
| 연<br>령<br>대 | 30대 | 2( 4.0)  |                  | 석사 졸업  | 8(16.0)  |
|             | 40대 | 23(46.0) |                  | 박사 수료  | 3( 6.0)  |
|             | 50대 | 19(38.0) |                  | 박사 졸업  | 34(68.0) |

| 구분   |         |          | 빈도(%)     |                |          |
|------|---------|----------|-----------|----------------|----------|
| 근무지역 | 60대     | 6(12.0)  | 직위        | 대학교수           | 9(18.0)  |
|      | 서울특별시   | 16(32.0) |           | 연구원            | 18(36.0) |
|      | 부산광역시   | 1( 2.0)  |           | 현장전문가          | 11(22.0) |
|      | 대구광역시   | 1( 2.0)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 2( 4.0)  |
|      | 인천광역시   | 1( 2.0)  |           | 교사             | 5(10.0)  |
|      | 울산광역시   | 1( 2.0)  |           | 기타             | 5(10.0)  |
|      | 세종특별자치시 | 3( 6.0)  | 관련경력      | 1년 미만          | 2( 4.0)  |
|      | 경기도     | 17(34.0) |           | 1년 이상~2년 미만    | 1( 2.0)  |
|      | 충청북도    | 4( 8.0)  |           | 2년 이상~3년 미만    | 1( 2.0)  |
|      | 충청남도    | 3( 6.0)  |           | 3년 이상~4년 미만    | 1( 2.0)  |
|      | 전북특별자치도 | 1( 2.0)  |           | 4년 이상~5년 미만    | 1( 2.0)  |
|      | 경상북도    | 1( 2.0)  |           | 5년 이상~6년 미만    | 6(12.0)  |
|      | 경상남도    | 1( 2.0)  |           | 6년 이상          | 38(76.0) |
|      | 합계      |          | 50(100.0) |                |          |

### 3) 조사절차

전문가 의견 조사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근거로 1차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1차로 구성된 설문지를 연구진 3명이 검토하여 수정·보완 후 최종 확정하였다. 설문조사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면제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승인번호 202505-HR-고유-008). 조사방법은 학계 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 교사 등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보낸 후 응답을 기재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총 4일간이었다.

### 4) 조사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근무지, 최종학력, 직위,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업무경력 등이었다.

둘째는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의 <표 III-2>에 제시된 15개 항목에 대하여 1차로 ‘전혀 필요하지 않다(1)’부터 ‘매우 필요하다(9)’까지 9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2차로 동일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전혀 시급하지 않다(1)’부터 ‘매우 시급하다(9)’까지 9점 척도상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15개 항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표 III-2. 전문가 의견 조사내용

| 대영역                                    |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
|----------------------------------------|-------------------------------------------------------------------------------------------------------------------------------------------------------------------------------------------------------------------------------------------------------------------------------------------------|
| I.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연령, 근무 지역, 최종 학력, 직위, 관련 업무 경력                                                                                                                                                                                                                                                              |
| II.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 1) 한국 국적 비(非) 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br>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br>3) 기술교육 및 지원<br>4) 창업교육 및 지원<br>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br>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br>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br>8) 심리사회 적응 지원<br>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br>10) 사회적 고립문제<br>11) 결혼 및 출산<br>12) 부모 교육<br>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br>14) 자녀 돌봄<br>15) 주거지원<br>16) 기타 |
| III.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 위에서 제시한 각 주제와 관련한 주제별 현황, 문제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자유 의견 제시                                                                                                                                                                                                                                     |

이 중 두 번째 내용인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를 이번 장에 제시하고, 정책과제에 대한 내용은 「IV장 이주배경청년 실태 및 요구도: 전문가 조사」 부분에 제시하였다.

## 2. 조사결과

### 1)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주제별 필요성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15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평균 9점 만점에 6.9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여 전반적인 정책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국적 비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8.32점),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7.90점), ‘기술교육 및 지원’(7.38점)은 평균 8점 이상을 기록하며 이주배경청년의 기본적인 정주 기반 및 자립 역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심리사회 적응 지원’(7.18점), ‘사회적 배제와 차별’(7.72점),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7.68점) 등이 7점 이상으로 나타나, 이주배경청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권리 접근,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지역 기반의 제도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높은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 반면, ‘결혼 및 출산’(5.68점), ‘창업교육 및 지원’(5.94점), ‘부모교육’(6.2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두 평균 9점 만점에 5.5점 이상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 필요성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전문가들은 사회통합의 핵심 기반인 체류 안정, 언어 능력, 기술역량 뿐 아니라, 관계 형성과 가족생활 등 보다 광범위한 생활영역 전반에 걸친 전반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빈도 및 평균

| 주제                         | 필요성(빈도) |   |   |   |    |    |    |    |    | 평균<br>(표준편차)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       | - | - | - | 2  | 1  | 6  | 11 | 30 | 8.32(1.04)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       | - | - | - | 3  | 3  | 9  | 16 | 19 | 7.90(1.17)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       | - | 1 | - | 3  | 8  | 14 | 11 | 13 | 7.38(1.37)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       | - | 5 | 3 | 13 | 9  | 11 | 7  | 2  | 5.94(1.61)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       | - | 2 | 2 | 10 | 12 | 15 | 5  | 4  | 6.34(1.44)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       | - | 1 | 2 | 8  | 9  | 12 | 11 | 7  | 6.80(1.51)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       | - | - | - | 2  | 6  | 11 | 18 | 13 | 7.68(1.12)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       | - | - | 1 | 7  | 6  | 12 | 16 | 8  | 7.18(1.35)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       | - | - | - | 4  | 4  | 13 | 10 | 19 | 7.72(1.28)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       | - | - | 1 | 4  | 8  | 11 | 15 | 10 | 7.33(1.31)   |
| 11) 결혼 및 출산                | 1       | 1 | 3 | 6 | 14 | 8  | 9  | 5  | 3  | 5.68(1.79)   |
| 12) 부모 교육                  | -       | 3 | 1 | 4 | 8  | 11 | 10 | 6  | 7  | 6.24(1.89)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       | 1 | - | 1 | 8  | 15 | 13 | 5  | 7  | 6.60(1.47)   |
| 14) 자녀 돌봄                  | 1       | 1 | - | 1 | 10 | 12 | 10 | 13 | 2  | 6.42(1.61)   |
| 15) 주거지원                   | -       | 2 | 2 | 3 | 12 | 12 | 10 | 4  | 5  | 6.02(1.72)   |

다음으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주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전문가의 직종에 따라 다른지 확인하고자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직종 간 평균 차이는 크지 않아 대체로 일관된 정책 필요성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항목에서는 직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항목에서는 교사 집단의 평균값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고, 나머지 집단의 평균값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심리사회 적응 지원’ 항목에서도 직종 간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되었는데, 현장전문가, 공무원, 교사 집단의 필요성 인식 수준이 나머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7점~8점의 평균값을 보여 이주배경청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전문가 집단 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4.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전문가 직종별 평균 비교

| 구분                         | 대학교수<br>(N=9)    | 연구원<br>(N=18)   | 현장<br>전문가<br>(N=11) | 중앙정부<br>및 지자체<br>공무원<br>(N=2) | 교사<br>(N=5)     | 기타<br>(N=5)     | F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속자의 체류자격 인정화 | 7.67<br>(1.50)   | 8.28<br>(1.10)  | 8.91<br>(.30)       | 8.50<br>(.71)                 | 8.40<br>(.89)   | 8.20<br>(.84)   | 1.54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8.33<br>(.87)    | 7.78<br>(1.17)  | 7.91<br>(1.30)      | 8.50<br>(.71)                 | 8.20<br>(.84)   | 7.00<br>(1.58)  | 1.07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6.56<br>(1.94)   | 7.67<br>(1.19)  | 7.64<br>(1.03)      | 8.00<br>(1.41)                | 8.00<br>(1.00)  | 6.40<br>(1.14)  | 1.83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5.78<br>(1.56)   | 6.00<br>(1.85)  | 6.55<br>(1.51)      | 5.50<br>(.71)                 | 5.20<br>(1.79)  | 5.60<br>(1.14)  | .60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6.11<br>(2.09)   | 6.28<br>(1.18)  | 7.09<br>(1.38)      | 5.50<br>(.71)                 | 6.40<br>(1.14)  | 5.60<br>(1.37)  | 1.06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7.00<br>(1.66)   | 7.17<br>(1.10)  | 7.00<br>(2.00)      | 5.00<br>(.00)                 | 6.80<br>(1.48)  | 5.40<br>(.55)   | 1.86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 기반 조성 | 8.00<br>(1.10)a  | 7.72<br>(.96)a  | 8.00<br>(1.00)a     | 8.50<br>(.71)a                | 7.40<br>(.89)ab | 6.20<br>(1.30)b | 2.82*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7.56<br>(1.24)ab | 6.56<br>(1.46)b | 7.91<br>(.70)a      | 8.00<br>(.00)a                | 8.00<br>(1.00)a | 6.00<br>(1.23)b | 3.57**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8.33<br>(.87)    | 7.44<br>(1.34)  | 8.00<br>(1.48)      | 8.50<br>(.71)                 | 7.20<br>(.84)   | 7.20<br>(1.48)  | 1.19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7.78<br>(1.39)   | 7.28<br>(1.39)  | 7.30<br>(1.64)      | 7.00<br>(1.41)                | 7.00<br>(1.23)  | 7.20<br>(1.30)  | .29    |
| 11) 결혼 및 출산                | 5.89<br>(2.21)   | 5.39<br>(1.85)  | 6.09<br>(1.97)      | 5.50<br>(.71)                 | 5.80<br>(1.64)  | 5.40<br>(1.14)  | .25    |
| 12) 부모 교육                  | 6.00<br>(2.18)   | 5.72<br>(1.74)  | 6.73<br>(2.24)      | 7.00<br>(.00)                 | 7.80<br>(1.30)  | 5.60<br>(1.14)  | 1.35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6.11<br>(2.15)   | 6.28<br>(1.41)  | 7.00<br>(1.18)      | 7.00<br>(.00)                 | 7.40<br>(1.52)  | 6.80<br>(.84)   | .87    |
| 14) 자녀 돌봄                  | 5.67<br>(2.12)   | 6.50<br>(1.10)  | 6.18<br>(2.09)      | 7.00<br>(1.41)                | 7.00<br>(1.58)  | 7.20<br>(.84)   | .52    |
| 15) 주거지원                   | 5.67<br>(2.24)   | 6.11<br>(1.68)  | 6.27<br>(2.20)      | 5.50<br>(.71)                 | 6.20<br>(.84)   | 5.80<br>(.84)   | .97    |

\*  $p < .05$ . \*\*  $p < .01$ , Duncun: a)b

전문가의 업무경력별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주제에 대한 필요성 인식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된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평균 7점 전후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이는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가 직무 경험의 차이와 무관하게 폭넓은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정책 실무 초기 단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다년간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들 모두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안정, 교육 접근, 사회 적응 등 주요 통합 과제에 대해 유사한 수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5.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업무경력별 평균비교

| 구분                         | 3년 미만<br>(N=4) | 3년 이상<br>~6년 미만<br>(N=8) | 6년 이상<br>(N=38) | F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7.25(1.71)     | 8.50(.54)                | 8.39(1.00)      | 2.48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7.75(1.89)     | 7.75(1.17)               | 7.95(1.11)      | .13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6.75(2.63)     | 7.75(1.66)               | 7.37(1.26)      | .70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5.50(2.08)     | 5.50(2.08)               | 6.08(1.58)      | .58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5.25(2.63)     | 6.00(.76)                | 6.53(1.37)      | 1.75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6.50(2.38)     | 6.88(1.46)               | 6.82(1.47)      | .09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8.25(.50)      | 7.75(1.17)               | 7.61(1.15)      | .61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7.50(1.73)     | 6.75(1.49)               | 7.24(1.30)      | .54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8.25(.96)      | 7.38(1.41)               | 7.74(1.29)      | .63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8.25(1.50)     | 7.13(.99)                | 7.27(1.35)      | 1.12 |
| 11) 결혼 및 출산                | 6.25(3.10)     | 6.00(1.51)               | 5.55(1.72)      | .42  |
| 12) 부모 교육                  | 5.00(3.56)     | 6.25(1.91)               | 6.37(1.68)      | .95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6.50(3.11)     | 6.88(1.55)               | 6.55(1.27)      | .16  |
| 14) 자녀 돌봄                  | 6.00(2.83)     | 7.13(1.25)               | 6.32(1.53)      | .99  |
| 15) 주거지원                   | 5.50(2.89)     | 6.25(1.67)               | 6.03(1.64)      | .25  |

※ 업무 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을 “① 3년 미만”으로, ④ 3년 이상~4년 미만, ⑤ 4년 이상~5년 미만, ⑥ 5년 이상~6년 미만을 “② 3년 이상~6년 미만”으로, ⑦ 6년 이상을 “③ 6년 이상”으로 구분함.

## 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주제별 시급성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15개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인식한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8.20점),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7.70점),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7.70점), ‘기술교육 및 지원’(7.12점), ‘사회적 고립문제’(7.12점),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7.40점) 등은 평균 7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은 이주배경청년의 제도적 접근권, 권리 보장,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주제로, 전문가들이 정책 대응의 시급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결혼 및 출산’(5.10점), ‘창업교육 및 지원’(5.26점), ‘부모교육’(5.44점),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5.52점), ‘자녀 돌봄’(5.72점), ‘주거지원’(5.64점) 등은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주배경청년의 가족생활, 양육, 주거 등의 생활 기반과 관련된 과제로, 상대적으로 정책 개입의 시급성이 낮게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과 관련하여 체류 안정, 언어 능력, 차별 해소와 같은 구조적 접근이 우선적 정책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족 및 생활 영역은 중장기적 과제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6.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빈도 및 평균

| 구분                         | 시급성(빈도) |   |   |    |    |    |    |    |    | 평균<br>(표준편차) |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       | - | 1 | 1  | 0  | 3  | 7  | 6  | 32 | 8.20(1.36)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       | - | 1 | -  | 4  | 4  | 9  | 13 | 19 | 7.70(1.43)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       | - | 1 | 1  | 8  | 5  | 11 | 14 | 10 | 7.12(1.53)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2       | 2 | 7 | 3  | 15 | 8  | 6  | 4  | 3  | 5.26(1.99)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       | - | 3 | 4  | 13 | 11 | 11 | 4  | 4  | 6.02(1.56)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1       | - | - | 2  | 12 | 9  | 11 | 11 | 4  | 6.48(1.60)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 청년 정책기반 조성 | -       | - | 1 | 2  | -  | 13 | 8  | 9  | 17 | 7.40(1.54)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       | - | 1 | 4  | 3  | 8  | 11 | 17 | 6  | 6.98(1.52)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       | - | - | -  | 3  | 5  | 11 | 16 | 15 | 7.70(1.18)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       | - | - | 1  | 6  | 7  | 13 | 16 | 6  | 7.12(1.29)   |
| 11) 결혼 및 출산                | 2       | 2 | 2 | 10 | 13 | 12 | 6  | 3  | -  | 5.10(1.63)   |
| 12) 부모 교육                  | 2       | 2 | 3 | 6  | 16 | 4  | 10 | 4  | 3  | 5.44(1.95)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1       | 2 | 3 | 8  | 13 | 7  | 8  | 5  | 3  | 5.52(1.88)   |
| 14) 자녀 돌봄                  | 1       | 1 | 3 | 6  | 15 | 8  | 4  | 9  | 3  | 5.72(1.86)   |
| 15) 주거지원                   | 1       | 1 | 3 | 9  | 13 | 7  | 5  | 7  | 4  | 5.64(1.91)   |

전문가 직종별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주제의 시급성 인식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과제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은 직무 영역에 관계없이 대체로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전문가 직종별 평균

| 구분                            | 대학교수<br>(N=9)  | 연구원<br>(N=18)  | 현장<br>전문가<br>(N=11) | 중앙정부<br>및 지자체<br>공무원<br>(N=2) | 교사<br>(N=5)    | 기타<br>(N=5)    | F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br>체류자격 안정화 | 7.11<br>(2.32) | 8.28<br>(1.07) | 8.82<br>(.60)       | 8.50<br>(.71)                 | 8.20<br>(1.10) | 8.40<br>(.89)  | 1.81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7.78<br>(1.30) | 7.83<br>(1.20) | 7.45<br>(2.07)      | 8.50<br>(.71)                 | 8.00<br>(1.00) | 7.00<br>(1.58) | .48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6.11<br>(1.90) | 7.56<br>(1.34) | 7.55<br>(1.29)      | 8.00<br>(1.41)                | 7.40<br>(1.52) | 5.80<br>(.84)  | 2.46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4.89<br>(1.97) | 5.28<br>(2.32) | 6.00<br>(1.95)      | 5.00<br>(.00)                 | 4.00<br>(2.00) | 5.60<br>(.55)  | .79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5.67<br>(2.12) | 5.83<br>(1.47) | 7.00<br>(1.55)      | 5.00<br>(.00)                 | 5.80<br>(1.10) | 5.80<br>(.84)  | 1.26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6.78<br>(1.21) | 6.78<br>(1.56) | 6.64<br>(2.34)      | 5.00<br>(.00)                 | 6.20<br>(.84)  | 5.40<br>(.55)  | 1.05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br>정책기반 조성  | 7.56<br>(1.59) | 7.44<br>(1.29) | 7.45<br>(1.92)      | 9.00<br>(.00)                 | 7.20<br>(1.30) | 6.40<br>(1.82) | .89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6.78<br>(6.78) | 6.56<br>(1.65) | 7.45<br>(1.21)      | 8.00<br>(.00)                 | 8.20<br>(.84)  | 6.20<br>(1.48) | 1.74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7.78<br>(.97)  | 7.39<br>(1.24) | 8.36<br>(.92)       | 7.50<br>(2.12)                | 7.40<br>(.89)  | 7.60<br>(1.67) | 1.04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6.89<br>(.93)  | 7.12<br>(1.36) | 7.27<br>(1.62)      | 6.50<br>(2.12)                | 7.20<br>(.45)  | 7.40<br>(1.52) | .22  |
| 11) 결혼 및 출산                   | 5.00<br>(1.41) | 5.17<br>(1.86) | 4.55<br>(1.75)      | 5.50<br>(.71)                 | 6.00<br>(1.87) | 5.20<br>(.84)  | .57  |
| 12) 부모 교육                     | 5.56<br>(2.13) | 4.94<br>(1.83) | 5.18<br>(2.23)      | 7.00<br>(.00)                 | 7.00<br>(2.00) | 5.40<br>(1.14) | 1.20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5.11<br>(1.97) | 5.11<br>(2.00) | 5.55<br>(1.64)      | 7.00<br>(.00)                 | 6.20<br>(2.59) | 6.40<br>(1.14) | .84  |
| 14) 자녀 돌봄                     | 5.00<br>(1.87) | 5.06<br>(1.73) | 5.55<br>(1.64)      | 6.50<br>(2.12)                | 7.80<br>(1.10) | 7.40<br>(1.14) | 3.66 |
| 15) 주거지원                      | 5.11<br>(1.97) | 5.39<br>(1.94) | 6.18<br>(1.99)      | 5.50<br>(.71)                 | 5.80<br>(2.78) | 6.20<br>(1.10) | .44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 관련 주제에 대한 시급성 인식을 전문가의 업무경력별로 비교한 결과,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항목에서는 경력 3년 미만 집단이 6.50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보인 반면, 3년 이상~6년 미만 집단은 8.25점, 6년 이상 집단은 8.37점으로 나타나, 3년 미만인 집단과 그 이상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체류자격 안정화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업무경력에 관계없이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급성 인식의 차이가 유사함을 보여주었다.

표 III-8.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업무경력별 평균

| 구분                         | 3년 미만<br>(N=4) | 3년 이상~<br>6년 미만<br>(N=8) | 6년 이상<br>(N=38) | F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6.50(2.65)b    | 8.25(1.66)a              | 8.37(1.13)a     | 3.85*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7.50(1.73)     | 7.75(1.49)               | 7.71(1.43)      | .04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6.25(2.22)     | 7.50(1.85)               | 7.13(1.40)      | .89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5.25(2.06)     | 5.13(2.17)               | 5.29(2.00)      | .02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4.75(2.36)     | 5.75(1.28)               | 6.21(1.49)      | 1.79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6.25(1.26)     | 6.50(1.77)               | 6.50(1.62)      | .04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 기반 조성 | 8.50(.58)      | 7.25(1.75)               | 7.32(1.54)      | 1.12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6.75(2.50)     | 7.00(1.51)               | 7.00(1.45)      | .05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7.25(.96)      | 7.25(1.58)               | 7.84(1.10)      | 1.12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7.00(1.83)     | 6.75(1.04)               | 7.22(1.29)      | .44   |
| 11) 결혼 및 출산                | 5.50(2.52)     | 5.50(1.51)               | 4.97(1.59)      | .46   |
| 12) 부모 교육                  | 4.75(3.86)     | 5.63(1.60)               | 5.47(1.95)      | .28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6.00(2.71)     | 5.63(1.41)               | 5.45(1.91)      | .17   |
| 14) 자녀 돌봄                  | 5.25(2.50)     | 6.63(1.60)               | 5.58(1.84)      | 1.19  |
| 15) 주거지원                   | 5.50(2.89)     | 5.63(2.50)               | 5.66(1.73)      | .01   |

\*  $p < .05$ . \*\*  $p < .01$ , Duncun: a)b

### 3) 본 연구의 연도별 주제 선정

본 조사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연구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3년 연속과제의 주제를 할당하여 보다 효율성 있고 시의적절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한국국적 비(非)소자자의 체류자격 안정화를 가장 필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2위가 수준별 한국어 능력의 강화 요인, 3위가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의 문제였다. 4위는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으로 개별적인 영역별 주제 못지않게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은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5위가 기술교육 및 지원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주배경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아 나가기 위한 기반마련 및 자립역량과 관련된 주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6위는 사회적 고립 문제, 7위는 심리사회 적응 지원이었다. 그 외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인 항목은 주로 이주배경청년들의 가족형성과 관련된 요인으로 자녀교육 및 자녀양육 9위, 자녀 돌봄 10위, 부모교육 12위, 주거지원 13위, 결혼 및 출산은 15위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직 이주배경청년들이 가족을 형성할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필요성 순위에서 후순위로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I. 기초적 삶의 기반 마련, II. 자립역량강화, III. 심리·사회적응 및 사회적 수용, IV. 가족형성으로 구분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는 완벽하게 필요성 순위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순위와 특성을 고려하였다.

표 III-9.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필요성 순위

| 주제                          | 순위 | 필요성                    | 평균값(표준편차)  |
|-----------------------------|----|------------------------|------------|
| I.<br>기초적 삶의<br>기반 마련       | 1  |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8.32(1.04) |
|                             | 2  |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7.90(1.17) |
|                             | 4  |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7.68(1.12) |
| II.<br>자립역량강화               | 5  | 기술교육 및 지원              | 7.38(1.37) |
|                             | 8  |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6.80(1.51) |
|                             | 11 |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6.34(1.44) |
|                             | 14 | 창업교육 및 지원              | 5.94(1.61) |
| III.<br>심리·사회적응<br>및 사회적 수용 | 3  |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7.72(1.28) |
|                             | 6  | 사회적 고립문제               | 7.33(1.31) |
|                             | 7  |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            | 7.18(1.35) |
| IV.<br>가족형성                 | 9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6.60(1.47) |
|                             | 10 | 자녀 돌봄                  | 6.42(1.61) |
|                             | 12 | 부모 교육                  | 6.24(1.89) |
|                             | 13 | 주거지원                   | 6.02(1.72) |
|                             | 15 | 결혼 및 출산                | 5.68(1.79) |

다음으로 시급성은 전문가들에게 본 연구가 3년 연속과제임을 알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주제일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필요성에 대한 평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1순위는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가 전체 중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2위가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이고 4위가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으로 기초적 삶의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가장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강화의 주제로 6위가 기술교육 및 지원, 8위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9위는 고등교육 지원, 14위는 창업교육 및 지원으로 필요성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창업교육에 대한 시급성은 여러 주제들 중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심리·사회적응 및 사회적 수용의 주제인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가 3위,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5위, 7위가 심리·사회적응 지원으로 자립역량강화 못지않게 사실상 심리·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의 문제가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족형성과 관련된 주제는 앞의 필요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이주배경청년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주제별 시급성 순위

| 주제                          | 순위 | 시급성                    | 평균값(표준편차)  |
|-----------------------------|----|------------------------|------------|
| I.<br>기초적 삶의<br>기반 마련       | 1  |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8.20(1.36) |
|                             | 2  |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7.70(1.43) |
|                             | 4  |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7.40(1.54) |
| II.<br>자립역량강화               | 6  | 기술교육 및 지원              | 7.12(1.53) |
|                             | 8  |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6.48(1.60) |
|                             | 9  |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6.02(1.56) |
|                             | 14 | 창업교육 및 지원              | 5.26(1.99) |
| III.<br>심리·사회적응<br>및 사회적 수용 | 3  |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7.70(1.18) |
|                             | 5  | 사회적 고립문제               | 7.12(1.29) |
|                             | 7  | 심리사회 적응 지원             | 6.98(1.52) |
| IV.<br>가족형성                 | 10 | 자녀 돌봄                  | 5.72(1.86) |
|                             | 11 | 주거지원                   | 5.64(1.91) |
|                             | 12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5.52(1.88) |
|                             | 13 | 부모 교육                  | 5.44(1.95) |
|                             | 15 | 결혼 및 출산                | 5.10(1.63)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2025년 주제를 크게 다섯 가지 즉, 1)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2)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3)기술교육 및 지원, 4)고등교육 지원, 5)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을 선정하였다. 위 주제 중 고등교육의 경우 전체 항목 중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은 아니나 연구진의 회의를 통하여 고등교육의 원활한 과정이수와 역량강화는 이주배경청년의 역량강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2025년 연구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창업교육 및 지원의 경우는 자립역량강화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하나 필요성이나 시급성 모두에서 점수가 낮아 연구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의 경우 평균점수가 크게 높지 않고, 이번 연구에서 다루기 보다 별도의 연구로 수행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연구진의 의견에 따라 이번 연도에 서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도별로 선정된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25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주배경청년 중 외국국적자를 대상으로 한 가장 기본적인 삶의 기초여건

마련을 위한 내용(체류자격 안정화, 수준별 한국어능력 강화), 자립역량강화(기술교육 및 지원, 고등교육 지원방안), 지역사회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어서 2026년에는 주로 심리·사회적응 및 사회적 수용을, 2027년에는 가족형성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표 III -11. 연도별 연구 주제

| 수행 연도 | 연번 | 세부 주제                  |
|-------|----|------------------------|
| 2025년 | 1  |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       | 2  |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방안       |
|       | 3  | 기술교육 및 지원              |
|       | 4  | 고등교육 지원 방안             |
|       | 5  |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 2026년 | 1  |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       | 2  | 사회적 고립문제               |
|       | 3  | 심리사회 적응 지원             |
| 2027년 | 1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       | 2  | 자녀 돌봄                  |
|       | 3  | 부모 교육                  |
|       | 4  | 주거지원                   |
|       | 5  | 결혼 및 출산                |

### 3. 요약 및 소결

#### 1) 요약

본 장은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의 3년간 주제를 필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국내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 대상 50명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15개의 주제에 대하여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정하도록 한 결과 아래의 <표 III-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적 삶의 기반 마련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와 자립역량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의 평균값이 높고, 전문가 집단별, 전문가 경력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의 결과에 근거하여 맨 위의 5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주배경청년 특화 사업의 경우 이번 연구에 포함하기 보다는 별도의 개별 연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포함하지 않았고, 창업의 경우는 전문가들의 평정한 필요성과 시급성의 평균값이 비교적 낮고,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분야이기에 적절치 않다는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이번 연구에서 개발할 정책과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III-1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최종 선정 주제별 필요성과 시급성 평균 및 표준편차

| 주제                     | 필요성                    | 필요성        | 시급성        |
|------------------------|------------------------|------------|------------|
| Ⅰ.<br>기초적 삶의 기반 마련     |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8.32(1.04) | 8.20(1.36) |
|                        |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7.90(1.17) | 7.70(1.43) |
|                        |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7.68(1.12) | 7.40(1.54) |
| Ⅱ.<br>자립역량강화           | 기술교육 및 지원              | 7.38(1.37) | 7.12(1.53) |
|                        |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6.34(1.44) | 6.02(1.56) |
| Ⅲ.<br>심리·사회적응 및 사회적 수용 |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7.72(1.28) | 7.70(1.18) |
|                        | 사회적 고립문제               | 7.33(1.31) | 7.12(1.29) |
|                        | 심리사회적 적응 지원            | 7.18(1.35) | 6.98(1.52) |
| Ⅳ.<br>가족형성             |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6.60(1.47) | 5.52(1.88) |
|                        | 자녀 돌봄                  | 6.42(1.61) | 5.72(1.86) |
|                        | 부모 교육                  | 6.24(1.89) | 5.44(1.95) |
|                        | 주거지원                   | 6.02(1.72) | 5.64(1.91) |
|                        | 결혼 및 출산                | 5.68(1.79) | 5.10(1.63) |

## 2) 소결

전문가 대상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15가지 주제를 대상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평정하게 한 결과에 근거하여 3년간의 주제를 도출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표 III-12>와 같다. 1차년도에는 체류안정화 및 자립역량강화 방안으로 1)체류자격 안정화, 2)수준별 한국어능력 강화, 3)기술교육 및 직업훈련, 4)고등교육 지원, 5)지역사회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조성 등 5가지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2차년도에는 심리사회적응 및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주제로 1)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2)사회적 고립, 3)심리사회적응 지원 등 3가지 주제를 추진할 예정이고, 3차년도에는 가족형성과

관련된 주제로 1)결혼 및 출산, 2)자녀양육, 교육 및 돌봄, 3)부모교육, 4)주거지원 등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 1차년도(2025년)                                                                                                                                                            | 2차년도(2026년)                                                                                               | 3차년도(2027년)                                                                                                           |
|------------------------------------------------------------------------------------------------------------------------------------------------------------------------|-----------------------------------------------------------------------------------------------------------|-----------------------------------------------------------------------------------------------------------------------|
| 기초적 삶의 기반 마련 및<br>자립역량강화                                                                                                                                               | 심리사회적응 및<br>사회적 수용                                                                                        | 가족형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 안정화</li> <li>■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li> <li>■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li> <li>■ 고등교육 지원</li> <li>■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br/>년 정책기반 조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li> <li>■ 사회적 고립</li> <li>■ 심리사회 적응 지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및 출산</li> <li>■ 자녀양육, 교육 및 돌봄</li> <li>■ 부모 교육</li> <li>■ 주거지원</li> </ul> |

그림 Ⅲ-1. 3차년도 연구 주제 도출



## 제Ⅳ장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 1.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설문조사
- 2.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면접조사
- 3.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전문가조사
- 4. 요약 및 소결



## 1.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설문조사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설문조사는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상태별 자립실태와 그 결과 나타나는 영향을 분석하고, 체류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이주배경청년들의 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국내 거주 이주배경청년의 배경특성별 생활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국내거주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별 생활실태 및 요구도를 파악한다. 셋째, 국내 거주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주제별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 (2) 조사절차

본 조사의 대상자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이주배경청년 중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국제결혼가정 또는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한 국내성장자의 경우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 심의신청서, 연구계획서, 조사안내문 및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자의 생명윤리 준수 서약서, 질문지, 연구자 생명윤리교육이수증을 제출하였고, 2025년 7월 25일 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승인번호: 202505-HR-고유-008). 조사대상은 전국 규모단위로 모집하였으나, 전국 규모의 모집단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 성별, 체류 자격, 현재 하고 있는 일(학생, 직업인, 무직 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을

5) 4장의 1절은 장운선(대구교육대학교 부교수)가 집필하였고, 2절은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으며, 3절, 4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함.

중심으로 현재 기관 이용자 중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해당 기관 과거 이용자 등을 통하여 눈덩이 표집을 실시하였다. 조사실시는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종이 설문지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외 총 8개국어(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아랍어, 태국어, 우루두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조사 기간은 2025년 8월 18일부터 2025년 9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이었다.

### (3) 조사내용

설문조사 영역은 배경 특성, 이주배경 특성, 교육경험, 진로·직업탐색 및 사회진입, 사회인식 및 가치관, 심리사회적응 및 일상생활,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였다. 각 조사영역의 조사항목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실태조사 설문지 구성의 영역과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IV-1. 설문조사 영역별 조사항목 및 출처

|                   | 조사항목       | 문항 내용                                               | 출처                    |
|-------------------|------------|-----------------------------------------------------|-----------------------|
| Ⅰ. 배경<br>특성       | 성별         | ■ 성별                                                | 연구진 작성                |
|                   | 생년월        | ■ 실제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 혼인상태       | ■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연구진 작성                |
|                   | 동거가족       | ■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br>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br>(2021) |
|                   | 부모학력       | ■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br>(2021) |
|                   | 가정경제<br>수준 | ■ 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어디에 가깝다고<br>생각하십니까?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br>(2021) |
|                   | 현재상태       | ■ 현재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br>(쉬는 경우) 일을 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Ⅱ. 이주<br>배경<br>특성 | 출생국        | ■ 귀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br>(외국의 경우) 태어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br>(2021) |
|                   | 국적         | ■ (외국국적자) 현재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br>있습니까?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br>(2021) |



|          | 조사항목            | 문항 내용                                                                                     | 출처                    |
|----------|-----------------|-------------------------------------------------------------------------------------------|-----------------------|
|          | 해외 거주 경험        | ■ 귀하가 처음 한국에 살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2021) 수정 |
|          | 체류자격            | ■ 현재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br>- 현재 체류자격 이전에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br>- 어떤 체류자격이었는지 한국어로 작성해주세요  | 연구진 작성                |
|          | 한국거주 계획         | ■ 앞으로 한국에 계속 살 생각이 있습니까?<br>- 살고 싶은 이유<br>- 살고 싶지 않은 이유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2021)    |
|          | 원하는 체류자격        | ■ 한국에서 최종 어떤 체류자격을 원하십니까?                                                                 | 연구진 작성                |
|          | 한국어능력 사회통합 프로그램 | ■ 귀하는 다음의 영역별로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2021) 수정 |
|          |                 | ■ 귀하는 토픽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br>- 몇 등급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 모두 기재해주세요                 | 연구진 작성                |
|          | 부모 출생국          | ■ 귀하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2021) 수정 |
| Ⅲ. 교육 경험 | 향후 계획           | ■ 향후 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습니까?<br>(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는 경우)<br>귀하는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 받기를 원하십니까?    | 연구진 작성                |
|          | 학교경험            | ■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br>(다닌 경우) 어느 학교를 다녔습니까?<br>(다닌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 최종학력            | ■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br>- 한국에서 졸업했습니까?<br>- 어떤 방식으로 졸업했습니까?<br>-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 한국어교육 경험 및 요구도  | ■ 귀하는 만 19세 이후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br>-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 연구진 작성                |
|          |                 | ■ 귀하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한국어 수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진 작성                |

|                      | 조사항목       | 문항 내용                                                                                                 | 출처                           |
|----------------------|------------|-------------------------------------------------------------------------------------------------------|------------------------------|
|                      |            | ■ 귀하는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까?                                                       | 연구진 작성                       |
|                      |            | ■ 고등학교 졸업 후 한국어가 부족한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진 작성                       |
|                      |            | ■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이 제공된다면 이용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연구진 작성                       |
|                      | 현재 재학 학교   | ■ 현재 귀하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br>-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br>-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 연구진 작성<br>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
|                      | 학교생활 만족도   | ■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
|                      | 대학생활       | ■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 연구진 작성                       |
|                      |            | ■ 2025년도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
|                      |            | ■ 귀하는 등록금 마련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
| IV. 진로·직업 탐색 및 사회 진입 | 현재 일       |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정보         | ■ 현재의 직장을 찾을 때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 연구진 작성                       |
|                      | 종사상 지위     | ■ 지난 1주일 간 근무한 직장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br>-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근로시간       | ■ 최근 3개월 동안 일한 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임금         | ■ 최근 3개월 동안 귀하가 받은 1개월 임금은 평균 얼마입니까?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현재 일하는 이유  | ■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 원하는 일인지 여부 | ■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본인이 원하는 일입니까?<br>-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 직무 만족도     | ■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래의 항목별로 응답해주세요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

|                | 조사항목                        | 문항 내용                                                                                                                                                 | 출처                     |
|----------------|-----------------------------|-------------------------------------------------------------------------------------------------------------------------------------------------------|------------------------|
|                | 노동부당행 위 경험                  | ■ 현재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진로노력                        | ■ 귀하가 하고싶은 일을 하기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연구진 작성                 |
|                | 직업훈련 경험 및 요구                | ■ 한국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br>-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br>-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br>- 향후 기회가 있다면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구직 어려움                      | ■ 귀하가 일자리를 찾을 때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주세요                                                                                    | 연구진 작성                 |
| V. 사회 인식 및 가치관 | 한국사회 인식                     | ■ 다음은 한국 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br>1) 한국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br>2) 한국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br>3)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br>4)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 2020년 청소년종합 실태조사(2021) |
|                | 한국생활                        | ■ 나는 한국에 사는 것이 좋다<br>■ 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2021)     |
|                | 사회적 지위 인식                   | ■ 현재 귀하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행정연구원 (2024)         |
|                | 미래에 대한 태도                   | ■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행정연구원 (2024)         |
|                | 삶의 결정도                      | ■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행정연구원 (2024)         |
|                | 부당대우                        | ■ 한국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수정  |
|                | 한국사회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태도 | ■ 귀하는 한국사회가 이주배경아동·청소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br>■ 귀하는 한국사회가 이주배경청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연구진 작성<br>연구진 작성       |
|                | 사회통합을 위한 요인                 | ■ 귀하는 한국사회의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연구진 작성                 |

|                                 | 조사항목        | 문항 내용                                                                             | 출처                       |
|---------------------------------|-------------|-----------------------------------------------------------------------------------|--------------------------|
| Ⅵ. 심리<br>사회<br>적응 및<br>일상<br>생활 | 자아존중감       | ■ 나는 많은 장점을 가졌다 등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br>(2020)    |
|                                 | 삶의 만족도      | ■ 나는 사는게 즐겁다 등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br>(2020)    |
|                                 | 대인관계<br>어려움 | ■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등                                                                   | 한국행정연구원<br>(2024)        |
|                                 | 미래관         | ■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 한국행정연구원<br>(2024)        |
|                                 | 사회적 지원      | ■ 귀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외 도움을<br>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br>도움받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br>(2020) 수정 |
|                                 | 경제적 상황      | ■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br>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한국행정연구원<br>(2024)        |
| Ⅶ. 지원<br>정책                     | 지원경험        | ■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청년대상 지원<br>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br>- 이용해 본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 연구진 작성                   |
|                                 | 필요한 지원      | ■ 이주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br>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br>순서대로 최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연구진 작성                   |
|                                 | 지원조직<br>성격  | ■ 귀하는 이주배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br>신설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br>생각하십니까?                 | 연구진 작성                   |

## 2) 조사결과

### (1) 배경 특성

설문조사에 참여한 외국국적을 소지한 19~34세 이주배경청년은 총 410명이었다. 조사 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자가 251명(61.2%), 여자가 159명(38.8%)으로 남자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조사대상의 연령분포는 다음과 같다. 25세 이주배경청년이 전체의 32.0%(131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23세가 13.2%(54명)로 많았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25세 이주배경청년이 가장 많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23세의 비율이 16.3%(41명)로 두 번째로 높지만, 여자는 20세의 비율이 13.8%(22명)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년 가운데 30대의 비율은 전체의 5.4%(22명)였다.

표 IV-2. 성별 및 연령 분포: 빈도(%)

| 나이 | 19세      | 20세      | 21세      | 22세      | 23세      | 24세      | 25세       | 26세        | 27세      |
|----|----------|----------|----------|----------|----------|----------|-----------|------------|----------|
| 남자 | 24( 9.6) | 13( 5.2) | 9( 3.6)  | 13( 5.2) | 41(16.3) | 21( 8.4) | 83(33.1)  | 17( 6.8)   | 10( 4.0) |
| 여자 | 17(10.7) | 22(13.8) | 10( 6.3) | 9( 5.7)  | 13( 8.2) | 12( 7.5) | 48(30.2)  | 10( 6.3)   | 3( 1.9)  |
| 전체 | 41(10.0) | 35( 8.5) | 19( 4.6) | 22( 5.4) | 54(13.2) | 33( 8.0) | 131(32.0) | 27( 6.6)   | 13( 3.2) |
| 나이 | 28세      | 29세      | 30세      | 31세      | 32세      | 33세      | 34세       | 계          |          |
| 남자 | 4( 1.6)  | 4( 1.6)  | 6( 2.4)  | 2( 0.8)  | 2( 0.8)  | 1( 0.4)  | 1( 0.4)   | 251(100.0) |          |
| 여자 | 1( 0.6)  | 4( 2.5)  | 5( 3.1)  | -        | 2( 1.3)  | 2( 1.3)  | 1( 0.6)   | 159(100.0) |          |
| 전체 | 5( 1.2)  | 8( 2.0)  | 11( 2.7) | 2( 0.5)  | 4( 1.0)  | 3( 0.7)  | 2( 0.5)   | 410(100.0) |          |

조사대상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의 비율이 54.1%(222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경기도(18.0%, 74명), 인천(5.6%, 23명), 부산(4.9%, 20명) 순이었다.

표 IV-3. 거주지역: 빈도(%)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구분 | 빈도(%)      |
|----|------------|----|-----------|----|------------|
| 서울 | 222( 54.1) | 울산 | 5( 1.2)   | 전남 | 6( 1.5)    |
| 부산 | 20( 4.9)   | 경기 | 74( 18.0) | 경북 | 1( 0.2)    |
| 대구 | 9( 2.2)    | 강원 | 2( 0.5)   | 경남 | 2( 0.5)    |
| 인천 | 23( 5.6)   | 충북 | 0( 0.0)   | 제주 | 3( 0.7)    |
| 광주 | 4( 1.0)    | 충남 | 14( 3.4)  | 세종 | 9( 2.2)    |
| 대전 | 10( 2.4)   | 전북 | 6( 1.5)   | 전체 | 410(100.0) |

조사대상의 혼인상태는 95.6%(392명)가 미혼이고, 4.4%(18명)는 사실혼을 포함한 결혼 상태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 어머니가 가장 많았고(379명, 95.0%),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는 응답(349명, 87.5%)은 어머니보다는 적었다. 현재 한국에서 혼자 살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은 11명(2.7%)이었다.

표 IV-4. 혼인상태 및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빈도(%)

| 구분               |            | 빈도(%)      |
|------------------|------------|------------|
| 혼인상태             | 미혼         | 392( 95.6) |
|                  | 결혼(사실혼 포함) | 18( 4.4)   |
|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 | 어머니        | 379( 95.0) |
|                  | 아버지        | 349( 87.5) |
|                  | 형제/자매      | 93( 23.3)  |
|                  | 할머니/할아버지   | 11( 2.8)   |
|                  | 친척         | 5( 1.3)    |
|                  | 친구/선후배     | 6( 1.5)    |
|                  | 자녀         | 6( 1.5)    |
|                  | 배우자        | 14( 3.5)   |
| 혼자 산다            |            | 11( 2.7)   |
| 전체               |            | 410(100.0) |

※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중복응답 항목임.

조사대상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아버지: 58.8%, 241명, 어머니: 58.0%, 238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아버지: 31.2%, 128명, 어머니: 32.9%, 135명)가 많았다. 대학원 이상의 비율은 아버지가 어머니에 비해 높았고, 중학교 이하의 비율은 어머니가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모들의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부모님의 최종 학력: 빈도(%)

| 구분     | 아버지        | 어머니        |
|--------|------------|------------|
|        | 빈도 (%)     | 빈도 (%)     |
| 중학교 이하 | 21( 5.1)   | 31( 7.6)   |
| 고등학교   | 128( 31.2) | 135( 32.9) |
| 대학교    | 241( 58.8) | 238( 58.0) |
| 대학원 이상 | 20( 4.9)   | 6( 1.5)    |
| 전체     | 410(100.0) | 410(100.0) |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48.0%, 197명), 잘사는 편으로 인식하는 비율(33.9%, 139명)도 높았다. 반면, 매우 어렵거나 어려운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였다.

표 IV-6. 주관적 가정 경제 수준: 빈도(%)

| 구분     | 매우 어렵다   | 어려운 편이다   | 중간이다       | 잘사는 편이다    | 매우 잘산다    | 전체          |
|--------|----------|-----------|------------|------------|-----------|-------------|
| 빈도 (%) | 6 ( 1.5) | 44 (10.7) | 197 (48.0) | 139 (33.9) | 24 ( 5.9) | 410 (100.0) |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응답이 151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쉬고 있다’는 응답이 107명(26.1%)으로 많았고,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비율은 각각 17.8%(73명), 18.0%(74명)였다. 현재 주로 하는 일에 대한 기타 응답으로는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거나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가 있었다.

표 IV-7. 현재 주로 하는 일: 빈도(%)

| 구분        | 학교를<br>다니고 있다 | 일을<br>하고 있다  | 일자리를<br>찾고 있다 | 쉬고 있다         | 기타          | 전체             |
|-----------|---------------|--------------|---------------|---------------|-------------|----------------|
| 빈도<br>(%) | 151<br>(36.8) | 73<br>(17.8) | 74<br>(18.0)  | 107<br>(26.1) | 5<br>( 1.2) | 410<br>(100.0) |

현재 쉬고 있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그냥 쉬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2.2%(88명)로 가장 높았다. 그 밖에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쉬고 있다(8.4%, 9명)는 응답과 기타 응답으로 공부 또는 육아로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이주배경청년이 한 명씩 있었고, 체류자격 문제로 쉬고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표 IV-8. 현재 쉬고 있는 이유: 빈도(%)

| 구분    | 원하는<br>일자리를<br>얻지 못해서 | 하던 일의<br>계약이<br>끝나서 | 몸이<br>아파서 | 그냥<br>쉬고<br>싶어서 | 기타      | 전체         |
|-------|-----------------------|---------------------|-----------|-----------------|---------|------------|
| 빈도(%) | 9( 8.4)               | 2( 1.9)             | 5( 4.7)   | 88(82.2)        | 3( 2.8) | 107(100.0) |

## (2) 이주배경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더불어 출생국, 국적, 체류 자격 등 이주배경 관련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조사대상의 출생국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배경청년은 20명(4.9%)이었고, 국외 출생자의 대부분은 중국(158명, 38.5%)과 일본(127명, 31.0%)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설문조사의 대상은 외국국적 소지자로 한정하였으므로 한국국적을 소지한 조사대상은 없으며, 국적은 출생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은 중국(166명, 40.5%) 또는 일본(127명, 31.0%)이었다.



표 IV-9. 조사대상의 출생국과 국적: 빈도(%)

| 국가   | 출생국       | 국적        | 국가     | 출생국        | 국적         |
|------|-----------|-----------|--------|------------|------------|
| 한국   | 20( 4.9)  | -         | 미얀마    | 2( 0.5)    | 2( 0.5)    |
| 중국   | 158(38.5) | 166(40.5) | 우즈베키스탄 | 3( 0.7)    | 2( 0.5)    |
| 일본   | 127(31.0) | 127(31.0) | 러시아    | 11( 2.7)   | 14( 3.4)   |
| 대만   | 12( 2.9)  | 12( 2.9)  | 키르기스스탄 | 4( 1.0)    | 2( 0.5)    |
| 베트남  | 24( 5.9)  | 29( 7.1)  | 네팔     | 2( 0.5)    | 4( 1.0)    |
| 필리핀  | 16( 3.9)  | 16( 3.9)  | 스리랑카   | -          | 1( 0.2)    |
| 태국   | 14( 3.4)  | 15( 3.7)  | 기타     | 13( 3.2)   | 17( 4.1)   |
| 캄보디아 | 4( 1.0)   | 3( 0.7)   | 전체     | 410(100.0) | 410(100.0) |

한국에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년도는 2006년에서 2010년 사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139명)로 가장 높았고, 2011년 이후에서 2020년 사이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주배경 청년의 비율도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거주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2021년 이후 한국에서 살기 시작한 조사대상의 비율은 3.9%(16명)로 가장 작았다.

표 IV-10. 처음으로 한국에 살기 시작한 년도: 빈도(%)

| 구분        | 2005년<br>이전  | 2006~<br>2010년 | 2011~<br>2015년 | 2016~<br>2020년 | 2021년<br>이후  | 전체             |
|-----------|--------------|----------------|----------------|----------------|--------------|----------------|
| 빈도<br>(%) | 48<br>(11.7) | 139<br>(33.9)  | 105<br>(25.6)  | 102<br>(24.9)  | 16<br>( 3.9) | 410<br>(100.0) |

조사대상의 현재 체류자격은 거주(F-2)가 93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체류자격은 유학비자(D-2)로 전체의 22.2%(91명)로 현재 이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와 영주(F-5)인 경우도 각각 88명(21.5%)과 76명(18.5%)으로 다른 체류자격에 비해 많은 편이었다.

이전에 다른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도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 138명이 이전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거주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방문동거(F-1) 자격이었다는 이주배경청년이 51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전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였다는 응답도 24.6%(34명)였다.

표 IV-11. 현재 및 이전 체류자격: 빈도(%)

| 구분         | 현재 체류자격    | 이전 체류자격  | 구분        | 현재 체류자격  | 이전 체류자격  |
|------------|------------|----------|-----------|----------|----------|
| 유학(D-2)    | 91(22.2)   | 7( 5.1)  | 동반(F-3)   | -        | 15(10.9) |
| 일반연수(D-4)  | 1( 0.2)    | 3( 2.2)  | 재외동포(F-4) | 88(21.5) | 34(24.6) |
| 구직(D-10)   | 8( 2.0)    | 2( 1.4)  | 영주(F-5)   | 76(18.5) | 1( 0.7)  |
| 전문직업(E-5)  | 1( 0.2)    | -        | 결혼이민(F-6) | 15( 3.7) | 1( 0.7)  |
| 특정활동(E-7)  | 2( 0.5)    | -        | 방문취업(H-2) | 3( 0.7)  | 3( 2.2)  |
| 비전문취업(E-9) | 2( 0.5)    | -        | 기타(G-1)   | -        | 3( 2.2)  |
| 방문동거(F-1)  | 21( 5.1)   | 51(37.0) | 그 외       | 9( 2.2)  | 2( 1.4)  |
| 거주(F-2)    | 93(22.7)   | 14(10.1) | 기억 안남     | -        | 2( 1.4)  |
| 전체         | 410(100.0) |          |           |          |          |

향후 한국 거주 의향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다는 응답(230명, 56.1%)이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175명, 42.0%)는 조사 대상도 비교적 많았다.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는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서’(109명, 47.4%)가 가장 많았다. 사실상 가족 해체의 문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면서 겪는 큰 문제로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조사대상 가운데 8명은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다고 응답하였는데, 그 이유로 한국 사회 적응의 어려움(2명)과 안정적 체류자격 획득의 어려움(2명)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취업의 어려움(1명), 결혼 및 자녀 양육이 힘들 것 같아서(1명), 내가(또는 부모님이) 태어난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1명)를 이유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와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를 이유로 선택한 이주배경청년은 없었다.

표 IV-12. 향후 한국 거주 의향: 빈도(%)

| 구분    |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다 |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없다 | 잘 모르겠다    | 전체         |
|-------|------------------|------------------|-----------|------------|
| 빈도(%) | 230(56.1)        | 8( 2.0)          | 175(42.0) | 410(100.0) |

표 IV-13. 조사대상이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 빈도(%)

| 구분                                        | 빈도(%)      |
|-------------------------------------------|------------|
| 지금까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 53( 23.0)  |
|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 109( 47.4) |
| 한국에서 사는 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아서 | 42( 18.3)  |
| 안전 등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해서                 | 26( 11.3)  |
| 전체                                        | 230(100.0) |

조사대상 가운데 167명(40.7%)은 한국국적 취득을 취득해서 체류하고 싶다고 응답하였고, 131명(32.0%)은 현재 체류상태를 유지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체류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년 30명이 희망하는 체류자격을 살펴보면, 전문직업(E-5)이 17명(5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이주배경청년이 각 3명(10.0%)씩 있었다.

표 IV-14. 희망하는 최종 체류 상태: 빈도(%)

| 구분    | 현재 체류자격 유지 | 체류자격 변경  | 영주권 취득   | 한국국적 취득   | 전체         |
|-------|------------|----------|----------|-----------|------------|
| 빈도(%) | 131(32.0)  | 30( 7.3) | 82(20.0) | 167(40.7) | 410(100.0) |

조사대상 부모님의 출생국 및 국적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출생국은 한국이 151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출생국은 중국이 131명(32.0%)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출생국은 아버지는 중국(119명, 29.0%), 어머니는 일본(92명, 22.4%)이었다. 아버지의 출생국이 일본인 경우도 76명(18.5%)으로 다른 출생국에 비해 많았고, 어머니의 출생국이 한국인 경우 역시 89명(21.7%)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조사대상 부모님의 현재 국적의 경우,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 151명(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는 중국 국적이 131명(32.0%)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현재 국적은 아버지는 중국(119명, 29.0%), 어머니는 일본(92명, 22.4%)이었다.

표 IV-15. 부모님의 출생국 및 현재 국적: 빈도(%)

| 구분     | 출생국        |            | 현재 국적      |            |
|--------|------------|------------|------------|------------|
|        | 아버지        | 어머니        | 아버지        | 어머니        |
| 한국(남한) | 151( 36.8) | 89( 21.7)  | 151( 36.8) | 89( 21.7)  |
| 중국     | 119( 29.0) | 131( 32.0) | 119( 29.0) | 131( 32.0) |
| 일본     | 76( 18.5)  | 92( 22.4)  | 76( 18.5)  | 92( 22.4)  |
| 대만     | 8( 2.0)    | 6( 1.5)    | 8( 2.0)    | 6( 1.5)    |
| 베트남    | 11( 2.7)   | 25( 6.1)   | 11( 2.7)   | 25( 6.1)   |
| 필리핀    | 6( 1.5)    | 14( 3.4)   | 6( 1.5)    | 14( 3.4)   |
| 태국     | 5( 1.2)    | 15( 3.7)   | 5( 1.2)    | 15( 3.7)   |
| 캄보디아   | 4( 1.0)    | 2( 0.5)    | 4( 1.0)    | 2( 0.5)    |
| 미얀마    | 1( 0.2)    | 3( 0.7)    | 1( 0.2)    | 3( 0.7)    |
| 우즈베키스탄 | 5( 1.2)    | 4( 1.0)    | 5( 1.2)    | 4( 1.0)    |
| 러시아    | 3( 0.7)    | 6( 1.5)    | 3( 0.7)    | 6( 1.5)    |
| 카자흐스탄  | -          | 2( 0.5)    | -          | 2( 0.5)    |
| 키르기스스탄 | 4( 1.0)    | 3( 0.7)    | 4( 1.0)    | 3( 0.7)    |
| 네팔     | 3( 0.7)    | 3( 0.7)    | 3( 0.7)    | 3( 0.7)    |
| 스리랑카   | 1( 0.2)    | 1( 0.2)    | 1( 0.2)    | 1( 0.2)    |
| 기타     | 13( 3.2)   | 14( 3.4)   | 13( 3.2)   | 14( 3.4)   |
| 전체     | 410(100.0) | 410(100.0) | 410(100.0) | 410(100.0) |

### (3)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대상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 수준과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어려움 정도, 그리고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과 향후 한국어 교육 참여 희망 여부 등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이 이주배경청년의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거주지, 체류자격, 한국에서의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변수를 생성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집단 최소 표본 크기 확보를 위해 체류자격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사례만 포함하였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은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은 집단 비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 대한 집단 비교 분석은 일원분산분석 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수행하였고, 명명 척도로 조사한 항목은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 ① 한국어 능력 수준

조사대상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능력 수준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각 영역의 평균은 3.77에서 4.04로 전반적으로 잘하는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 영역 중에서는 한국어 쓰기 능력 수준(평균 3.77)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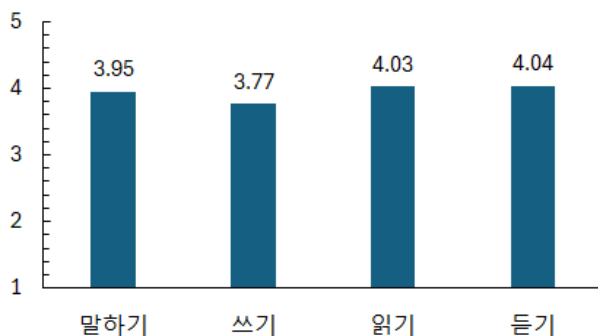


그림 IV-1. 조사대상이 인식한 한국어 능력 수준(평균)

각 영역의 능력 수준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에 대해서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년은 없었으며, 잘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3.4%로 가장 높았다.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남자(평균 3.77)가 여자(평균 4.23)보다 한국어 말하기가 더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경기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평균 3.81)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평균 4.11)보다 자신의 한국어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라서도 한국어 말하기 수준을 인식하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체류자격이 유학비자(D-2)인 집단의 평균은 3.58로 가장 낮았고, 거주(F-2)와 재외동포(F-4) 자격의 집단 평균이 4.35, 4.05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다른 집단 역시 한국어 말하기 능력 수준 인식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한국에서 초등학교부터 계속해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4.63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41로 가장 낮았다. 한편,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한국어 말하기 능력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IV-16. 한국어 능력 수준: 말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 못한다 | 못하는 편이다  | 중간 이다      | 잘하는 편이다    | 매우 잘한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성별    | 남자                         | -      | 4 ( 1.6) | 88 (35.1)  | 120 (47.8) | 39 (15.5)  | 251 (100.0) | 3.77 (0.72) | -5.794***             |
|       | 여자                         | -      | 3 ( 1.9) | 28 (17.6)  | 58 (36.5)  | 70 (40.0)  | 159 (100.0) | 4.23 (0.80) |                       |
|       | 전체                         | -      | 7 ( 1.7) | 116 (28.3) | 178 (43.4) | 109 (26.6) | 410 (100.0) | 3.95 (0.7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0 ( 0.0) | 64 (28.8)  | 107 (48.2) | 51 (23.0)  | 222 (100.0) | 3.94 (0.72) | 3.062* (b<c)          |
|       | 경기인천 <sup>b</sup>          | -      | 4 ( 4.1) | 31 (32.0)  | 41 (42.3)  | 21 (21.6)  | 97 (100.0)  | 3.81 (0.82) |                       |
|       | 기타 <sup>c</sup>            | -      | 3 ( 3.3) | 21 (23.1)  | 30 (33.3)  | 37 (40.7)  | 91 (100.0)  | 4.11 (0.87) |                       |
|       | 전체                         | -      | 7 ( 1.7) | 116 (28.3) | 178 (43.4) | 109 (26.6) | 410 (100.0) | 3.95 (0.78) |                       |
| 체류 자격 | 유학(D-2) <sup>a</sup>       | -      | 1 ( 1.1) | 51 (56.0)  | 24 (26.4)  | 15 (16.5)  | 91 (100.0)  | 3.58 (0.78) | 13.35*** (a<b,c; d<b) |
|       | 거주(F-2) <sup>b</sup>       | -      | 1 ( 1.1) | 9 ( 9.7)   | 39 (41.9)  | 44 (47.3)  | 93 (100.0)  | 4.35 (0.70) |                       |
|       | 재외동포 (F-4) <sup>c</sup>    | -      | 1 ( 1.1) | 14 (15.9)  | 53 (60.2)  | 20 (22.7)  | 88 (100.0)  | 4.05 (0.66) |                       |
|       | 영주(F-5) <sup>d</sup>       | -      | 3 ( 3.9) | 18 (23.7)  | 42 (55.3)  | 13 (17.1)  | 76 (100.0)  | 3.86 (0.74) |                       |
|       | 동거(F-1 & F-3) <sup>e</sup> | -      | -        | 9 (42.9)   | 7 (33.3)   | 5 (23.8)   | 21 (100.0)  | 3.81 (0.81) |                       |
|       | 전체                         | -      | 6 ( 1.6) | 101 (27.4) | 165 (44.7) | 97 (26.3)  | 369 (100.0) | 3.96 (0.78) |                       |

| 구분                   |                            | 전혀<br>못한다 | 못하는<br>편이다  | 중간<br>이다      | 잘하는<br>편이다    | 매우<br>잘한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3<br>( 3.1) | 64<br>(66.0)  | 17<br>(17.5)  | 13<br>(13.4)  | 97<br>(100.0)  | 3.41<br>(0.76)   | 45.23***<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20<br>(13.7)  | 106<br>(72.6) | 19<br>(13.0)  | 146<br>(100.0) | 3.98<br>(0.54)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2<br>( 3.0) | 21<br>(31.3)  | 29<br>(43.3)  | 15<br>(22.4)  | 67<br>(100.0)  | 3.85<br>(0.80)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1<br>( 1.3) | 4<br>( 5.1)   | 18<br>(22.8)  | 56<br>(70.9)  | 79<br>(100.0)  | 4.63<br>(0.64)   |                       |
|                      | 전체                         | -         | 7<br>( 1.8) | 109<br>(28.0) | 170<br>(43.7) | 103<br>(26.5) | 389<br>(100.0) | 3.95<br>(0.79)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           | 66<br>(41.8)  | 34<br>(21.5)  | 58<br>(36.7)  | 158<br>(100.0) | 3.95<br>(0.89)   | 0.37                  |
|                      | 15세 이전 <sup>b</sup>        | -         | 4<br>( 4.1) | 22<br>(22.7)  | 41<br>(42.3)  | 30<br>(30.9)  | 97<br>(100.0)  | 4.00<br>(0.84)   |                       |
|                      | 16세 이후 <sup>c</sup>        | -         | 3<br>( 1.9) | 28<br>(18.1)  | 103<br>(66.5) | 21<br>(13.5)  | 155<br>(100.0) | 3.92<br>(0.62)   |                       |
|                      | 전체                         | -         | 7<br>( 1.7) | 116<br>(28.3) | 178<br>(43.4) | 109<br>(26.6) | 410<br>(100.0) | 3.95<br>(0.7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년들은 다른 영역보다 한국어 쓰기 능력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다. 전혀 못한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년도 한 명 있었고,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4%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말하기 능력과 마찬가지로 남자(평균 3.67)가 여자(평균 3.93)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였으나 성별 간 차이는 덜 하였다. 또한, 경기와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평균 3.47)이 서울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보다 한국어 쓰기 수준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체류자격이 거주(F-2)인 이주배경청년 집단의 평균은 4.23으로 가장 높았고,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은 3.38로 가장 낮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의 경우,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이 4.62로 가장 높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3.25로 가장 낮았다.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과 고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은 각각 3.64, 3.75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한국어 쓰기 수준 인식 차이도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17. 한국어 능력 수준: 쓰기 :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못한다   | 못하는<br>편이다   | 중간<br>이다      | 잘하는<br>편이다    | 매우<br>잘한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br>( 0.4) | 17<br>( 6.8) | 102<br>(40.6) | 76<br>(30.3)  | 55<br>(21.9)  | 251<br>(100.0) | 3.67<br>(0.91)   | -2.72**                             |
|          | 여자                            | -           | 19<br>(11.9) | 35<br>(22.0)  | 43<br>(27.0)  | 62<br>(39.0)  | 159<br>(100.0) | 3.93<br>(1.04)   |                                     |
|          | 전체                            | 1<br>( 0.2) | 36<br>( 8.8) | 137<br>(33.4) | 119<br>(29.0) | 117<br>(28.5) | 410<br>(100.0) | 3.77<br>(0.97)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9<br>( 4.1)  | 73<br>(32.9)  | 79<br>(35.6)  | 61<br>(27.5)  | 222<br>(100.0) | 3.86<br>(0.87)   | 5.47**<br>(b(a,c))                  |
|          | 경기인천 <sup>b</sup>             | 1<br>( 1.0) | 15<br>(15.5) | 39<br>(40.2)  | 21<br>(21.6)  | 21<br>(21.6)  | 97<br>(100.0)  | 3.47<br>(1.03)   |                                     |
|          | 기타 <sup>c</sup>               | -           | 12<br>(13.2) | 25<br>(27.6)  | 19<br>(20.9)  | 35<br>(38.5)  | 91<br>(100.0)  | 3.85<br>(1.08)   |                                     |
|          | 전체                            | 1<br>( 0.2) | 36<br>( 8.8) | 137<br>(33.4) | 119<br>(29.0) | 117<br>(28.5) | 410<br>(100.0) | 3.77<br>(0.97)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66<br>(72.5)  | 15<br>(16.5)  | 10<br>(11.0)  | 91<br>(100.0)  | 3.38<br>(0.68)   | 12.20***<br>(a<c(b;<br>a<d;<br>e(b) |
|          | 거주(F-2) <sup>b</sup>          | -           | 8<br>( 8.6)  | 11<br>(11.8)  | 26<br>(28.0)  | 48<br>(51.6)  | 93<br>(100.0)  | 4.23<br>(0.97)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9<br>(10.2)  | 19<br>(21.6)  | 47<br>(53.4)  | 13<br>(14.8)  | 88<br>(100.0)  | 3.73<br>(0.84)   |                                     |
|          | 영주(F-5) <sup>d</sup>          | -           | 12<br>(15.8) | 17<br>(22.4)  | 17<br>(22.4)  | 30<br>(39.5)  | 76<br>(100.0)  | 3.86<br>(1.12)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3<br>(14.3)  | 9<br>(42.9)   | 5<br>(23.8)   | 4<br>(19.0)   | 21<br>(100.0)  | 3.48<br>(0.98)   |                                     |
|          | 전체                            | -           | 32<br>( 8.7) | 122<br>(33.1) | 110<br>(29.8) | 105<br>(28.5) | 369<br>(100.0) | 3.78<br>(0.96)   |                                     |



| 구분                   |                            | 전혀<br>못한다   | 못하는<br>편이다   | 중간<br>이다      | 잘하는<br>편이다    | 매우<br>잘한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6<br>( 6.2)  | 70<br>(72.2)  | 12<br>(12.4)  | 9<br>( 9.3)   | 97<br>(100.0)  | 3.25<br>(0.85)   | 55.74***<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3<br>( 8.9) | 36<br>(24.7)  | 71<br>(48.6)  | 26<br>(17.8)  | 146<br>(100.0) | 3.75<br>(0.85)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11<br>(16.4) | 20<br>(29.9)  | 18<br>(26.9)  | 18<br>(26.9)  | 67<br>(100.0)  | 3.64<br>(1.05)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2<br>( 2.5)  | 4<br>( 5.1)   | 16<br>(20.3)  | 57<br>(72.2)  | 79<br>(100.0)  | 4.62<br>(0.70)   |                       |
|                      | 전체                         | -           | 32<br>( 8.2) | 130<br>(33.4) | 117<br>(30.1) | 110<br>(28.3) | 389<br>(100.0) | 3.78<br>(0.95)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10<br>( 6.3) | 70<br>(44.3)  | 21<br>(13.3)  | 57<br>(36.1)  | 158<br>(100.0) | 3.79<br>(1.01)   | 0.13                  |
|                      | 15세 이전 <sup>b</sup>        | 1<br>( 1.0) | 17<br>(17.5) | 19<br>(19.6)  | 31<br>(32.0)  | 29<br>(29.9)  | 97<br>(100.0)  | 3.72<br>(1.11)   |                       |
|                      | 16세 이후 <sup>c</sup>        | -           | 9<br>( 5.8)  | 48<br>(31.0)  | 67<br>(43.2)  | 31<br>(20.0)  | 155<br>(100.0) | 3.77<br>(0.83)   |                       |
|                      | 계                          | 1<br>( 0.2) | 36<br>( 8.8) | 137<br>(33.4) | 119<br>(29.0) | 117<br>(28.5) | 410<br>(100.0) | 3.77<br>(0.97)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한국어 읽기 능력 수준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 평균 3.95, 여자 평균 4.14로 다른 영역에서와 같이 여자가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이 3.72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체류자격별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거주(F-2) 집단의 평균이 4.39로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에서도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이 4.67로 가장 높았다. 한국어 읽기 영역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평균 4.24)이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평균 3.83)에 비해 높았다.

표 IV-18. 한국어 능력 수준: 읽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못한다 | 못하는<br>편이다    | 중간<br>이다     | 잘하는<br>편이다    | 매우<br>잘한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8<br>( 3.2)   | 46<br>(18.3) | 147<br>(58.6) | 50<br>(19.9)  | 251<br>(100.0) | 3.95<br>(0.71)   | -2.47*                |
|          | 여자                            | -         | 5<br>( 3.1)   | 32<br>(20.1) | 57<br>(35.8)  | 65<br>(40.9)  | 159<br>(100.0) | 4.14<br>(0.85)   |                       |
|          | 전체                            | -         | 32<br>( 3.2)  | 78<br>(19.0) | 204<br>(49.8) | 115<br>(28.0) | 410<br>(100.0) | 4.03<br>(0.77)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             | 23<br>(10.4) | 143<br>(64.4) | 56<br>(25.2)  | 222<br>(100.0) | 4.15<br>(0.58)   | 8.89***<br>(b(a,c))   |
|          | 경기인천 <sup>b</sup>             | -         | 7<br>( 7.2)   | 37<br>(38.1) | 29<br>(29.9)  | 24<br>(24.7)  | 97<br>(100.0)  | 3.72<br>(0.92)   |                       |
|          | 기타 <sup>c</sup>               | -         | 6<br>( 6.6)   | 18<br>(19.8) | 32<br>(35.2)  | 35<br>(38.5)  | 91<br>(100.0)  | 4.05<br>(0.92)   |                       |
|          | 전체                            | -         | 36<br>( 3.17) | 78<br>(19.0) | 204<br>(49.8) | 115<br>(28.0) | 410<br>(100.0) | 4.03<br>(0.77)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10<br>(11.0) | 68<br>(74.7)  | 13<br>(14.3)  | 91<br>(100.0)  | 4.03<br>(0.50)   | 6.50***<br>(a,c,d(b)) |
|          | 거주(F-2) <sup>b</sup>          | -         | 2<br>( 2.2)   | 9<br>( 9.7)  | 33<br>(35.5)  | 49<br>(52.7)  | 93<br>(100.0)  | 4.39<br>(0.75)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             | 21<br>(23.9) | 51<br>(58.0)  | 16<br>(18.2)  | 88<br>(100.0)  | 3.94<br>(0.65)   |                       |
|          | 영주(F-5) <sup>d</sup>          | -         | 9<br>(11.8)   | 17<br>(22.4) | 30<br>(39.5)  | 20<br>(26.3)  | 76<br>(100.0)  | 3.80<br>(0.97)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6<br>(28.6)  | 10<br>(47.6)  | 5<br>(23.8)   | 21<br>(100.0)  | 3.95<br>(0.74)   |                       |
|          | 전체                            | -         | 11<br>( 3.0)  | 63<br>(17.1) | 192<br>(52.0) | 103<br>(27.9) | 369<br>(100.0) | 4.05<br>(0.75)   |                       |

| 구분                   |                            | 전혀<br>못한다 | 못하는<br>편이다   | 중간<br>이다     | 잘하는<br>편이다    | 매우<br>잘한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2<br>( 2.1)  | 20<br>(20.6) | 67<br>(69.1)  | 8<br>( 8.2)   | 97<br>(100.0)  | 3.84<br>(0.59)   | 35.61***<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4<br>( 2.7)  | 30<br>(20.5) | 87<br>(59.6)  | 25<br>(17.1)  | 146<br>(100.0) | 3.91<br>(0.69)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6<br>( 9.0)  | 18<br>(26.9) | 23<br>(34.3)  | 20<br>(26.9)  | 67<br>(100.0)  | 3.85<br>(0.96)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1<br>( 1.3)  | 2<br>( 2.5)  | 19<br>(24.1)  | 57<br>(72.2)  | 79<br>(100.0)  | 4.67<br>(0.59)   |                       |
|                      | 전체                         | -         | 13<br>( 3.3) | 70<br>(18.0) | 196<br>(50.4) | 110<br>(28.3) | 389<br>(100.0) | 4.04<br>(0.77)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4<br>( 2.5)  | 13<br>( 8.2) | 82<br>(51.9)  | 59<br>(37.3)  | 158<br>(100.0) | 4.24<br>(0.71)   | 13.20***<br>(c<a)     |
|                      | 15세 이전 <sup>b</sup>        | -         | 5<br>( 5.2)  | 24<br>(24.7) | 35<br>(36.1)  | 33<br>(34.0)  | 97<br>(100.0)  | 3.99<br>(0.90)   |                       |
|                      | 16세 이후 <sup>c</sup>        | -         | 4<br>( 2.6)  | 41<br>(26.5) | 87<br>(56.1)  | 23<br>(14.8)  | 155<br>(100.0) | 3.83<br>(0.70)   |                       |
|                      | 전체                         | -         | 13<br>( 3.2) | 78<br>(19.0) | 204<br>(49.8) | 115<br>(28.0) | 410<br>(100.0) | 4.03<br>(0.77)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마지막으로 한국어 듣기 능력 수준에 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여자가 인식한 한국어 듣기 능력 수준의 평균은 4.23으로 남자의 평균 3.9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3.78)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4.14)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았다. 거주(F-2) 자격을 가진 집단의 평균은 4.32로 재외동포(F-4)와 영주(F-5) 자격을 가진 집단 평균(4.02와 3.75)에 비해 높았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한국어 듣기 수준에 대한 인식 평균(4.6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나머지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12세 이전의 평균이 4.25로 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3.89와 3.92)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19. 한국어 능력 수준: 듣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못한다 | 못하는<br>편이다   | 중간<br>이다     | 잘하는<br>편이다    | 매우<br>잘한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5<br>( 2.0)  | 53<br>(21.1) | 151<br>(60.2) | 42<br>(16.7)  | 251<br>(100.0) | 3.92<br>(0.67)   | -4.11***            |
|          | 여자                            | -         | 5<br>( 3.1)  | 26<br>(16.4) | 55<br>(34.6)  | 73<br>(45.9)  | 159<br>(100.0) | 4.23<br>(0.84)   |                     |
|          | 전체                            | -         | 10<br>( 2.4) | 79<br>(19.3) | 206<br>(50.2) | 115<br>(28.0) | 410<br>(100.0) | 4.04<br>(0.76)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1<br>( 0.5)  | 19<br>( 8.6) | 149<br>(67.1) | 53<br>(23.9)  | 222<br>(100.0) | 4.14<br>(0.57)   | 6.90**<br>(b(a))    |
|          | 경기인천 <sup>b</sup>             | -         | 4<br>( 4.1)  | 38<br>(39.2) | 30<br>(30.9)  | 25<br>(25.8)  | 97<br>(100.0)  | 3.78<br>(0.88)   |                     |
|          | 기타 <sup>c</sup>               | -         | 5<br>( 5.5)  | 22<br>(24.2) | 27<br>(29.7)  | 37<br>(40.7)  | 91<br>(100.0)  | 4.05<br>(0.94)   |                     |
|          | 전체                            | -         | 10<br>( 2.4) | 79<br>(19.2) | 206<br>(50.2) | 115<br>(28.0) | 410<br>(100.0) | 4.04<br>(0.76)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12<br>(13.2) | 61<br>(67.0)  | 18<br>(19.8)  | 91<br>(100.0)  | 4.07<br>(0.57)   | 5.47***<br>(c,d(b)) |
|          | 거주(F-2) <sup>b</sup>          | -         | 1<br>( 1.1)  | 10<br>(10.8) | 40<br>(43.0)  | 42<br>(45.2)  | 93<br>(100.0)  | 4.32<br>(0.71)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15<br>(17.0) | 53<br>(60.2)  | 19<br>(21.6)  | 88<br>(100.0)  | 4.02<br>(0.66)   |                     |
|          | 영주(F-5) <sup>d</sup>          | -         | 8<br>(10.5)  | 20<br>(26.3) | 31<br>(40.8)  | 17<br>(22.4)  | 76<br>(100.0)  | 3.75<br>(0.93)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7<br>(33.3)  | 9<br>(42.9)   | 5<br>(23.8)   | 21<br>(100.0)  | 3.90<br>(0.77)   |                     |
|          | 전체                            | -         | 10<br>( 2.7) | 64<br>(17.3) | 194<br>(52.6) | 101<br>(27.4) | 369<br>(100.0) | 4.05<br>(0.74)   |                     |

| 구분          |                         | 전혀 못한다 | 못하는 편이다      | 중간 이다        | 잘하는 편이다       | 매우 잘한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sup>a</sup>         | -      | 1<br>( 1.0)  | 19<br>(19.6) | 68<br>(70.1)  | 9<br>( 9.3)   | 97<br>(100.0)  | 3.88<br>(0.56) | 31.59***<br>(a,b,c,d)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      | 2<br>( 1.4)  | 33<br>(22.6) | 87<br>(59.6)  | 24<br>(16.4)  | 146<br>(100.0) | 3.91<br>(0.66) |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      | 5<br>( 7.5)  | 19<br>(28.4) | 26<br>(38.8)  | 17<br>(25.4)  | 67<br>(100.0)  | 3.82<br>(0.9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d</sup> | -      | 2<br>( 2.5)  | 1<br>( 1.3)  | 18<br>(22.8)  | 58<br>(73.4)  | 79<br>(100.0)  | 4.67<br>(0.63) |                       |
|             | 전체                      | -      | 10<br>( 2.6) | 72<br>(18.5) | 199<br>(51.2) | 108<br>(27.8) | 389<br>(100.0) | 4.04<br>(0.75)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2<br>( 1.3)  | 16<br>(10.1) | 81<br>(51.3)  | 59<br>(37.3)  | 158<br>(100.0) | 4.25<br>(0.68) | 10.24***<br>(b,c,a)   |
|             | 15세 이전 <sup>b</sup>     | -      | 4<br>( 4.1)  | 27<br>(27.8) | 42<br>(43.3)  | 24<br>(24.7)  | 97<br>(100.0)  | 3.89<br>(0.68) |                       |
|             | 16세 이후 <sup>c</sup>     | -      | 4<br>( 2.6)  | 36<br>(23.2) | 83<br>(53.3)  | 32<br>(20.6)  | 155<br>(100.0) | 3.92<br>(0.73) |                       |
|             | 전체                      | -      | 10<br>( 2.4) | 79<br>(19.3) | 206<br>(50.2) | 115<br>(28.0) | 410<br>(100.0) | 4.04<br>(0.76)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 ②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겪은 어려움 정도를 아홉 가지 상황(① 일상생활 하기, ② 공공기관에서 업무 보기, ③ 친구 사귀기, ④ 대학 내 교우관계 형성하기, ⑤ 대학 강의 이해하기, ⑥ 대학 수업 시간의 조별 발표하기, ⑦ 직장 구하기, ⑧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맺기, ⑨ 직장 내에서 업무 수행하기)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 이하에 제시된 어려움 정도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이다.

전반적으로 조사대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정도에 대한 응답의 평균은 2.40에서 2.85 사이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상황별 전체 평균을 비교해보면, ⑦ 직장 구하기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평균 2.85로 다른 상황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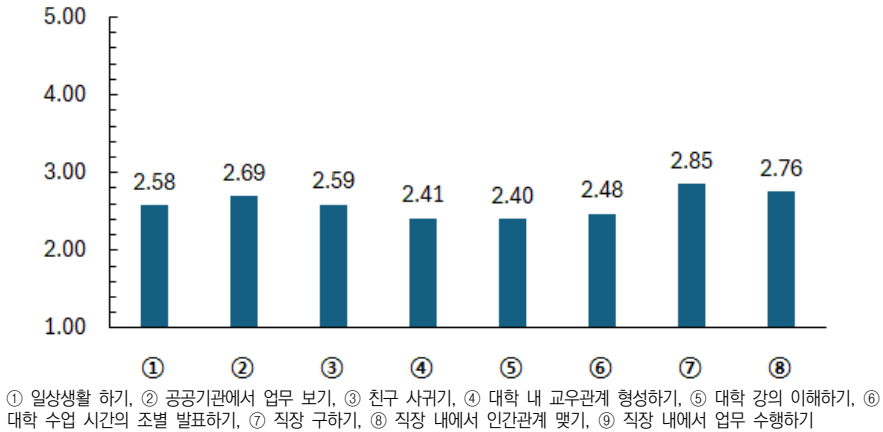


그림 IV-2.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정도(평균)

한국어 부족으로 겪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체류자격, 한국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체류자격의 경우, 거주(F-2) 집단의 평균(2.86)이 재외동포(F-4) 집단의 평균(2.29)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의 경우, 한국에서의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 평균(3.20)이 다른 집단 평균보다 어려움을 경험한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서는 16세 이후 입국한 집단의 평균(2.25)이 다른 집단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표 IV-20. 조사대상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1) 일상생활: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¹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4<br>(13.7) | 86<br>(34.5)  | 82<br>(32.9)  | 25<br>(10.0) | 22<br>( 8.8) | 249<br>(100.0) | 2.66<br>(1.11)   | 1.45              |
|    | 여자 | 57<br>(37.0) | 32<br>(20.8)  | 24<br>(15.6)  | 19<br>(12.3) | 22<br>(14.3) | 154<br>(100.0) | 2.46<br>(1.45)   |                   |
|    | 전체 | 91<br>(22.6) | 118<br>(29.3) | 106<br>(26.3) | 44<br>(10.9) | 44<br>(10.9) | 403<br>(100.0) | 2.58<br>(1.25)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¹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48<br>(21.9) | 75<br>(34.2)  | 61<br>(27.9)  | 19<br>( 8.7) | 16<br>( 7.3) | 219<br>(100.0) | 2.45<br>(1.14)   | 2.67                  |
|                      | 경기인천 <sup>b</sup>             | 25<br>(26.3) | 19<br>(20.0)  | 25<br>(26.3)  | 12<br>(12.6) | 14<br>(14.7) | 95<br>(100.0)  | 2.69<br>(1.38)   |                       |
|                      | 기타 <sup>c</sup>               | 18<br>(20.2) | 24<br>(27.0)  | 20<br>(22.5)  | 13<br>(14.6) | 14<br>(15.7) | 89<br>(100.0)  | 2.79<br>(1.35)   |                       |
|                      | 전체                            | 91<br>(22.6) | 118<br>(29.3) | 106<br>(26.3) | 44<br>(10.9) | 44<br>(10.9) | 403<br>(100.0) | 2.58<br>(1.25)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28<br>(30.8) | 4<br>( 4.4)   | 52<br>(57.1)  | 4<br>( 4.4)  | 3<br>( 3.3)  | 91<br>(100.0)  | 2.45<br>(1.08)   | 3.65**<br>(c<b)       |
|                      | 거주(F-2) <sup>b</sup>          | 23<br>(25.6) | 24<br>(26.7)  | 6<br>( 6.7)   | 17<br>(18.9) | 20<br>(22.2) | 90<br>(100.0)  | 2.86<br>(1.54)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7<br>(19.5) | 46<br>(52.9)  | 12<br>(13.8)  | 6<br>( 6.9)  | 6<br>( 6.9)  | 87<br>(100.0)  | 2.29<br>(1.08)   |                       |
|                      | 영주(F-5) <sup>d</sup>          | 12<br>(16.0) | 33<br>(44.0)  | 20<br>(26.7)  | 9<br>(12.0)  | 1<br>( 1.3)  | 75<br>(100.0)  | 2.39<br>(0.94)   |                       |
|                      | 동거(F-1 &<br>F-3) <sup>e</sup> | 3<br>(15.0)  | 3<br>(15.0)   | 5<br>(25.0)   | 4<br>(20.0)  | 5<br>(25.0)  | 20<br>(100.0)  | 3.25<br>(1.41)   |                       |
|                      | 전체                            | 83<br>(22.9) | 110<br>(30.3) | 95<br>(26.2)  | 40<br>(11.0) | 35<br>( 9.6) | 363<br>(100.0) | 2.54<br>(1.23)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6<br>( 6.3)  | 8<br>( 8.4)   | 57<br>(60.0)  | 9<br>( 9.5)  | 15<br>(15.8) | 95<br>(100.0)  | 3.20<br>(1.02)   | 15.95***<br>(b,c,d<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41<br>(28.1) | 65<br>(44.5)  | 16<br>(11.0)  | 10<br>( 6.8) | 14<br>( 9.6) | 146<br>(100.0) | 2.25<br>(1.21)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10<br>(15.4) | 23<br>(35.4)  | 17<br>(26.2)  | 9<br>(13.8)  | 6<br>( 9.2)  | 65<br>(100.0)  | 2.66<br>(1.1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30<br>(39.5) | 19<br>(25.0)  | 8<br>(10.5)   | 12<br>(15.8) | 7<br>( 9.2)  | 76<br>(100.0)  | 2.30<br>(1.38)   |                       |
|                      | 전체                            | 87<br>(22.8) | 115<br>(30.1) | 98<br>(25.7)  | 40<br>(10.5) | 42<br>(11.0) | 382<br>(100.0) | 2.57<br>(1.25)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32<br>(20.8) | 26<br>(16.9)  | 60<br>(39.0)  | 17<br>(11.0) | 19<br>(12.3) | 154<br>(100.0)  | 2.77<br>(1.25)   | 9.88***<br>(c<a,b) |
|                | 15세 이전 <sup>b)</sup> | 18<br>(18.9) | 25<br>(26.3)  | 23<br>(24.2)  | 14<br>(14.7) | 15<br>(15.8) | 95<br>(100.0)   | 2.82<br>(1.34)   |                    |
|                | 16세 이후 <sup>c)</sup> | 41<br>(26.6) | 67<br>(43.5)  | 23<br>(14.9)  | 13<br>( 8.4) | 10<br>( 6.5) | 154<br>(100.0)  | 2.25<br>(1.13)   |                    |
|                | 전체                   | 91<br>(22.6) | 118<br>(29.3) | 106<br>(26.3) | 44<br>(10.9) | 44<br>(10.9) | 403<br>(100.0)  | 2.58<br>(1.25)   |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한국어 부족으로 겪은 공공기관에서 업무 보기 어려움에 대해서는 성별을 제외한 집단 간 비교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 지역 집단 평균(2.47)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체류자격의 경우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2.10)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집단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초등학교 이상 재학 집단의 평균(2.38)이 중학교 이상 재학 집단의 평균(3.00)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서는 15세 이전 입국한 집단의 평균(3.11)이 다른 집단 평균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21.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2) 공공기관에서 업무 보기: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5<br>(10.3) | 119<br>(49.2) | 45<br>(18.6) | 25<br>(10.3) | 28<br>(11.6) | 242<br>(100.0)  | 2.64<br>(1.16)   | -1.05             |
|    | 여자 | 36<br>(24.3) | 37<br>(25.0)  | 28<br>(18.9) | 17<br>(11.5) | 30<br>(20.3) | 148<br>(100.0)  | 2.78<br>(1.45)   |                   |
|    | 전체 | 61<br>(15.6) | 156<br>(40.0) | 73<br>(18.7) | 42<br>(10.8) | 58<br>(14.9) | 390<br>(100.0)  | 2.69<br>(1.28)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29<br>(13.4) | 119<br>(55.1) | 30<br>(13.9) | 13<br>( 6.0) | 25<br>(11.6) | 216<br>(100.0) | 2.47<br>(1.16)   | 7.39**<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15<br>(16.0) | 19<br>(20.2)  | 27<br>(28.7) | 15<br>(16.0) | 18<br>(19.1) | 94<br>(100.0)  | 3.02<br>(1.34)   |                        |
|                      | 기타 <sup>c</sup>               | 17<br>(21.3) | 18<br>(22.5)  | 16<br>(20.0) | 14<br>(17.5) | 15<br>(18.8) | 80<br>(100.0)  | 2.90<br>(1.42)   |                        |
|                      | 전체                            | 61<br>(15.6) | 156<br>(40.0) | 73<br>(18.7) | 42<br>(10.8) | 58<br>(14.9) | 390<br>(100.0) | 2.69<br>(1.2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5<br>(16.7) | 64<br>(71.1)  | 3<br>( 3.3)  | 3<br>( 3.3)  | 5<br>( 5.6)  | 90<br>(100.0)  | 2.10<br>(0.91)   | 9.62***<br>(a<b,c,d,e) |
|                      | 거주(F-2) <sup>b</sup>          | 15<br>(17.9) | 22<br>(26.2)  | 15<br>(17.9) | 7<br>( 8.3)  | 25<br>(29.8) | 84<br>(100.0)  | 3.06<br>(1.51)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4<br>(16.9) | 36<br>(43.4)  | 13<br>(15.7) | 8<br>( 9.6)  | 12<br>(14.5) | 83<br>(100.0)  | 2.61<br>(1.29)   |                        |
|                      | 영주(F-5) <sup>d</sup>          | 7<br>( 9.3)  | 25<br>(33.3)  | 30<br>(40.0) | 11<br>(14.7) | 2<br>( 2.7)  | 75<br>(100.0)  | 2.68<br>(.93)    |                        |
|                      | 동거(F-1 &<br>F-3) <sup>e</sup> | 3<br>(15.8)  | 2<br>(10.5)   | 4<br>(21.1)  | 5<br>(26.3)  | 5<br>(26.3)  | 19<br>(100.0)  | 3.37<br>(1.42)   |                        |
|                      | 전체                            | 54<br>(15.4) | 149<br>(42.5) | 65<br>(18.5) | 34<br>( 9.7) | 49<br>(14.0) | 351<br>(100.0) | 2.64<br>(1.25)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5<br>( 5.3)  | 53<br>(56.4)  | 9<br>( 9.6)  | 7<br>( 7.4)  | 20<br>(21.3) | 94<br>(100.0)  | 2.83<br>(1.3)    | 3.49*<br>(d<c)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21<br>(14.6) | 68<br>(47.2)  | 25<br>(17.4) | 13<br>( 9.0) | 17<br>(11.8) | 144<br>(100.0) | 2.56<br>(1.2)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6<br>( 9.7)  | 13<br>(21.0)  | 25<br>(40.3) | 11<br>(17.7) | 7<br>(11.3)  | 62<br>(100.0)  | 3.00<br>(1.12)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27<br>(39.1) | 18<br>(26.1)  | 6<br>( 8.7)  | 7<br>(10.1)  | 11<br>(15.9) | 69<br>(100.0)  | 2.38<br>(1.49)   |                        |
|                      | 전체                            | 59<br>(16.0) | 152<br>(41.2) | 65<br>(17.6) | 38<br>(10.3) | 55<br>(14.9) | 369<br>(100.0) | 2.67<br>(1.28)   |                        |

| 구분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9<br>(19.7) | 70<br>(47.6)  | 14<br>( 9.5) | 10<br>( 6.8) | 24<br>(16.3)   | 147<br>(100.0)   | 2.52<br>(1.33)    |
|                | 15세 이전 <sup>b</sup> | 9<br>( 9.9)  | 23<br>(25.3)  | 26<br>(28.6) | 15<br>(16.5) | 18<br>(19.8)   | 91<br>(100.0)    | 3.11<br>(1.27)    |
|                | 16세 이후 <sup>c</sup> | 23<br>(15.1) | 63<br>(41.4)  | 33<br>(21.7) | 17<br>(11.2) | 16<br>(10.5)   | 152<br>(100.0)   | 2.61<br>(1.19)    |
|                | 전체                  | 61<br>(15.6) | 156<br>(40.0) | 73<br>(18.7) | 42<br>(10.8) | 58<br>(14.9)   | 390<br>(100.0)   | 2.69<br>(1.28)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세 번째 상황인 친구 사귀기의 경우, 체류자격, 한국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동거(F-1 & F-3) 자격의 집단 평균은 3.38로 가장 높았고, 이는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1.98)과 재외동포(F-4) 집단의 평균(2.38)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3.26)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이상 재학 집단의 평균(2.43), 초등학교 이상 재학 집단의 평균(2.21)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서는 15세 이전 입국한 집단의 평균(2.85)이 16세 이후 입국한 집단 평균(2.39)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22.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3) 친구 사귀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0<br>(15.2) | 78<br>(39.6)  | 44<br>(22.3) | 25<br>(12.7) | 20<br>(10.2)   | 197<br>(100.0)   | 2.63<br>(1.19)    |
|    | 여자       | 55<br>(36.2) | 29<br>(19.1)  | 23<br>(15.1) | 20<br>(13.2) | 25<br>(16.4)   | 152<br>(100.0)   | 2.55<br>(1.50)    |
|    | 전체       | 85<br>(24.4) | 107<br>(30.7) | 67<br>(19.2) | 45<br>(12.9) | 45<br>(12.9)   | 349<br>(100.0)   | 2.59<br>(1.33)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41<br>(24.0) | 71<br>(41.5)  | 24<br>(14.0) | 15<br>( 8.8) | 20<br>(11.7) | 171<br>(100.0) | 2.43<br>(1.27)   | 2.71                      |
|                      | 경기인천 <sup>b</sup>             | 25<br>(26.9) | 16<br>(17.2)  | 25<br>(26.9) | 14<br>(15.1) | 13<br>(14.0) | 93<br>(100.0)  | 2.72<br>(1.38)   |                           |
|                      | 기타 <sup>c</sup>               | 19<br>(22.4) | 20<br>(23.5)  | 18<br>(21.2) | 16<br>(18.8) | 12<br>(14.1) | 85<br>(100.0)  | 2.79<br>(1.36)   |                           |
|                      | 전체                            | 85<br>(24.4) | 107<br>(30.7) | 67<br>(19.2) | 45<br>(12.9) | 45<br>(12.9) | 349<br>(100.0) | 2.59<br>(1.33)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22<br>(52.4) | 12<br>(28.6)  | 1<br>( 2.4)  | 1<br>( 2.4)  | 6<br>(14.3)  | 42<br>(100.0)  | 1.98<br>(1.41)   | 5.43**<br>(a<b,e;<br>c<e) |
|                      | 거주(F-2) <sup>b</sup>          | 24<br>(27.6) | 21<br>(24.1)  | 7<br>( 8.0)  | 14<br>(16.1) | 21<br>(24.1) | 87<br>(100.0)  | 2.85<br>(1.57)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7<br>(20.0) | 40<br>(47.1)  | 14<br>(16.5) | 7<br>( 8.2)  | 7<br>( 8.2)  | 85<br>(100.0)  | 2.38<br>(1.14)   |                           |
|                      | 영주(F-5) <sup>d</sup>          | 9<br>(12.0)  | 27<br>(36.0)  | 26<br>(34.7) | 13<br>(17.3) | 0<br>( 0.0)  | 75<br>(100.0)  | 2.57<br>(0.92)   |                           |
|                      | 동거(F-1 &<br>F-3) <sup>e</sup> | 2<br>( 9.5)  | 2<br>( 9.5)   | 7<br>(33.3)  | 6<br>(28.6)  | 4<br>(19.0)  | 21<br>(100.0)  | 3.38<br>(1.20)   |                           |
|                      | 전체                            | 74<br>(23.9) | 102<br>(32.9) | 55<br>(17.7) | 41<br>(13.2) | 38<br>(12.3) | 310<br>(100.0) | 2.57<br>(1.31)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10<br>(21.3) | 3<br>( 6.4)   | 11<br>(23.4) | 11<br>(23.4) | 12<br>(25.5) | 47<br>(100.0)  | 3.26<br>(1.47)   | 7.14***<br>(d<b(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34<br>(23.4) | 59<br>(40.7)  | 24<br>(16.6) | 11<br>( 7.6) | 17<br>(11.7) | 145<br>(100.0) | 2.43<br>(1.26)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9<br>(14.3)  | 22<br>(34.9)  | 16<br>(25.4) | 10<br>(15.9) | 6<br>( 9.5)  | 63<br>(100.0)  | 2.71<br>(1.1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30<br>(41.1) | 19<br>(26.0)  | 9<br>(12.3)  | 9<br>(12.3)  | 6<br>( 8.2)  | 73<br>(100.0)  | 2.21<br>(1.32)   |                           |
|                      | 전체                            | 83<br>(25.3) | 103<br>(31.4) | 60<br>(18.3) | 41<br>(12.5) | 41<br>(12.5) | 328<br>(100.0) | 2.55<br>(1.33)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8<br>(27.5) | 28<br>(27.5)  | 12<br>(11.8) | 18<br>(17.6) | 16<br>(15.7) | 102<br>(100.0) | 2.67<br>(1.44)   | 4.02*<br>(c)(b)   |
|                | 15세 이전 <sup>b</sup> | 20<br>(21.3) | 19<br>(20.2)  | 27<br>(28.7) | 11<br>(11.7) | 17<br>(18.1) | 94<br>(100.0)  | 2.85<br>(1.38)   |                   |
|                | 16세 이후 <sup>c</sup> | 37<br>(24.2) | 60<br>(39.2)  | 28<br>(18.3) | 16<br>(10.5) | 12<br>( 7.8) | 153<br>(100.0) | 2.39<br>(1.19)   |                   |
|                | 전체                  | 85<br>(24.4) | 107<br>(30.7) | 67<br>(19.2) | 45<br>(12.9) | 45<br>(12.9) | 349<br>(100.0) | 2.59<br>(1.33)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네 번째, 대학 내 교우관계 형성하기에 대한 어려움은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에서 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5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은 2.86으로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 2.21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4) 대학 내 교우관계 형성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7<br>(13.7) | 72<br>(58.1)  | 14<br>(11.3) | 5<br>( 4.0)  | 16<br>(12.9) | 124<br>(100.0) | 2.44<br>(1.18)   | 0.05              |
|     | 여자                | 28<br>(29.2) | 37<br>(38.5)  | 9<br>( 9.4)  | 11<br>(11.5) | 11<br>(11.5) | 96<br>(100.0)  | 2.38<br>(1.32)   |                   |
|     | 전체                | 45<br>(20.5) | 109<br>(49.5) | 23<br>(10.5) | 16<br>( 7.3) | 27<br>(12.3) | 220<br>(100.0) | 2.41<br>(1.24)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21<br>(14.1) | 86<br>(57.7)  | 16<br>(10.7) | 8<br>( 5.4)  | 18<br>(12.1) | 149<br>(100.0) | 2.44<br>(1.17)   | 0.22              |
|     | 경기인천 <sup>b</sup> | 16<br>(41.0) | 7<br>(17.9)   | 5<br>(12.8)  | 5<br>(12.8)  | 6<br>(15.4)  | 39<br>(100.0)  | 2.44<br>(1.52)   |                   |
|     | 기타 <sup>c</sup>   | 8<br>(25.0)  | 16<br>(50.0)  | 2<br>( 6.3)  | 3<br>( 9.4)  | 3<br>( 9.4)  | 32<br>(100.0)  | 2.28<br>(1.22)   |                   |
|     | 전체                | 45<br>(20.5) | 109<br>(49.5) | 23<br>(10.5) | 16<br>( 7.3) | 27<br>(12.3) | 220<br>(100.0) | 2.41<br>(1.24)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8<br>(45.0) | 12<br>(30.0)  | 3<br>( 7.5)  | 2<br>( 5.0)  | 5<br>(12.5)  | 40<br>(100.0)  | 2.1<br>(1.37)    | 2.44              |
|                      | 거주(F-2) <sup>b</sup>          | 13<br>(22.4) | 27<br>(46.6)  | 3<br>( 5.2)  | 4<br>( 6.9)  | 11<br>(19.0) | 58<br>(100.0)  | 2.53<br>(1.42)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br>( 1.7)  | 40<br>(69.0)  | 5<br>( 8.6)  | 5<br>( 8.6)  | 7<br>(12.1)  | 58<br>(100.0)  | 2.6<br>(1.09)    |                   |
|                      | 영주(F-5) <sup>d</sup>          | 7<br>(15.9)  | 25<br>(56.8)  | 10<br>(22.7) | 2<br>( 4.5)  | -            | 44<br>(100.0)  | 2.16<br>(0.75)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2<br>(40.0)   | 1<br>(20.0)  | 2<br>(40.0)  | -            | 5<br>(100.0)   | 3<br>(1.00)      |                   |
|                      | 전체                            | 39<br>(19.0) | 106<br>(51.7) | 22<br>(10.7) | 15<br>( 7.3) | 23<br>(11.2) | 205<br>(100.0) | 2.4<br>(1.20)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a</sup>    | 19<br>(15.0) | 77<br>(60.6)  | 9<br>( 7.1)  | 7<br>( 5.5)  | 15<br>(11.8) | 127<br>(100.0) | 2.39<br>(1.17)   | 1.83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3<br>(11.5)  | 13<br>(50.0)  | 5<br>(19.2)  | 1<br>( 3.8)  | 4<br>(15.4)  | 26<br>(100.0)  | 2.62<br>(1.24)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21<br>(43.8) | 15<br>(31.3)  | 4<br>( 8.3)  | 3<br>( 6.3)  | 5<br>(10.4)  | 48<br>(100.0)  | 2.08<br>(1.32)   |                   |
|                      | 전체                            | 43<br>(21.4) | 105<br>(52.2) | 18<br>( 9.0) | 11<br>( 5.5) | 24<br>(11.9) | 201<br>(100.0) | 2.34<br>(1.22)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2<br>(37.3) | 18<br>(30.5)  | 3<br>( 5.1)  | 5<br>( 8.5)  | 11<br>(18.6) | 59<br>(100.0)  | 2.41<br>(1.52)   | 5.36**<br>(c(b))  |
|                      | 15세 이전 <sup>b</sup>           | 4<br>( 7.8)  | 22<br>(43.1)  | 11<br>(21.6) | 5<br>( 9.8)  | 9<br>(17.6)  | 51<br>(100.0)  | 2.86<br>(1.25)   |                   |
|                      | 16세 이후 <sup>c</sup>           | 19<br>(17.3) | 69<br>(62.7)  | 9<br>( 8.2)  | 6<br>( 5.5)  | 7<br>( 6.4)  | 110<br>(100.0) | 2.21<br>(1.01)   |                   |
|                      | 전체                            | 45<br>(20.5) | 109<br>(49.5) | 23<br>(10.5) | 16<br>( 7.3) | 27<br>(12.3) | 220<br>(100.0) | 2.41<br>(1.24)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대학 강의 이해의 어려움은 한국 학교 재학 경험과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의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면, 중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2.93)이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2.00)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15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2.76)이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2.23)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IV-24.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5) 대학 강의 이해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0<br>(16.1) | 62<br>(50.0) | 22<br>(17.7) | 6<br>( 4.8)  | 14<br>(11.3) | 124<br>(100.0) | 2.45<br>(1.16)   | 0.62              |
|          | 여자                            | 36<br>(36.4) | 30<br>(30.3) | 9<br>( 9.1)  | 11<br>(11.1) | 13<br>(13.1) | 99<br>(100.0)  | 2.34<br>(1.41)   |                   |
|          | 전체                            | 56<br>(25.1) | 92<br>(41.3) | 31<br>(13.9) | 17<br>( 7.6) | 27<br>(12.1) | 223<br>(100.0) | 2.40<br>(1.2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32<br>(21.2) | 71<br>(47.0) | 22<br>(14.6) | 9<br>( 6.0)  | 17<br>(11.3) | 151<br>(100.0) | 2.39<br>(1.21)   | 0.02              |
|          | 경기인천 <sup>b</sup>             | 14<br>(35.9) | 11<br>(28.2) | 2<br>( 5.1)  | 7<br>(17.9)  | 5<br>(12.8)  | 39<br>(100.0)  | 2.44<br>(1.47)   |                   |
|          | 기타 <sup>c</sup>               | 10<br>(30.3) | 10<br>(30.3) | 7<br>(21.2)  | 1<br>( 3.0)  | 5<br>(15.2)  | 33<br>(100.0)  | 2.42<br>(1.37)   |                   |
|          | 전체                            | 56<br>(25.1) | 92<br>(41.3) | 31<br>(13.9) | 17<br>( 7.6) | 27<br>(12.1) | 223<br>(100.0) | 2.40<br>(1.2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8<br>(45.0) | 13<br>(32.5) | 3<br>( 7.5)  | 2<br>( 5.0)  | 4<br>(10.0)  | 40<br>(100.0)  | 2.03<br>(1.29)   | 4.45**<br>(a)(e)  |
|          | 거주(F-2) <sup>b</sup>          | 26<br>(42.6) | 15<br>(24.6) | 3<br>( 4.9)  | 4<br>( 6.6)  | 13<br>(21.3) | 61<br>(100.0)  | 2.39<br>(1.59)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br>( 1.7)  | 37<br>(63.8) | 9<br>(15.5)  | 5<br>( 8.6)  | 6<br>(10.3)  | 58<br>(100.0)  | 2.62<br>(1.04)   |                   |
|          | 영주(F-5) <sup>d</sup>          | 5<br>(11.4)  | 24<br>(54.5) | 12<br>(27.3) | 2<br>( 4.5)  | 1<br>( 2.3)  | 44<br>(100.0)  | 2.32<br>(0.83)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2<br>(40.0)  | 1<br>(20.0)  | 2<br>(40.0)  | 5<br>(100.0)   | 4.00<br>(1.00)   |                   |
|          | 전체                            | 50<br>(24.0) | 89<br>(42.8) | 29<br>(13.9) | 14<br>( 6.7) | 26<br>(12.5) | 208<br>(100.0) | 2.41<br>(1.27)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a</sup> | 28<br>(22.0) | 63<br>(49.6) | 16<br>(12.6) | 5<br>( 3.9)  | 15<br>(11.8) | 127<br>(100.0) | 2.34<br>(1.21)   | 5.10**<br>(c(b))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br>( 3.7)  | 11<br>(40.7) | 9<br>(33.3)  | 1<br>( 3.7)  | 5<br>(18.5)  | 27<br>(100.0)  | 2.93<br>(1.17)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23<br>(46.0) | 16<br>(32.0) | 2<br>( 4.0)  | 6<br>(12.0)  | 3<br>( 6.0)  | 50<br>(100.0)  | 2.00<br>(1.25)   |                   |
|                      | 전체                         | 52<br>(25.5) | 90<br>(44.1) | 27<br>(13.2) | 12<br>( 5.9) | 23<br>(11.3) | 204<br>(100.0) | 2.33<br>(1.24)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5<br>(40.3) | 14<br>(22.6) | 6<br>( 9.7)  | 6<br>( 9.7)  | 11<br>(17.7) | 62<br>(100.0)  | 2.42<br>(1.53)   | 3.42*<br>(c(b))   |
|                      | 15세 이전 <sup>b</sup>        | 7<br>(13.7)  | 19<br>(37.3) | 12<br>(23.5) | 5<br>( 9.8)  | 8<br>(15.7)  | 51<br>(100.0)  | 2.76<br>(1.27)   |                   |
|                      | 16세 이후 <sup>c</sup>        | 24<br>(21.8) | 59<br>(53.6) | 13<br>(11.8) | 6<br>( 5.5)  | 8<br>( 7.3)  | 110<br>(100.0) | 2.23<br>(1.08)   |                   |
|                      | 전체                         | 56<br>(25.1) | 92<br>(41.3) | 31<br>(13.9) | 17<br>( 7.6) | 27<br>(12.1) | 223<br>(100.0) | 2.40<br>(1.28)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대학 수업 조별 발표하기에서 겪은 어려움 정도는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평균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앞서 살펴본 항목에서와 동일하게 15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2.90)이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2.24)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5.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6) 대학 수업 조별 발표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7<br>(13.5) | 65<br>(51.6)  | 21<br>(16.7) | 9<br>( 7.1)  | 14<br>(11.1) | 126<br>(100.0) | 2.51<br>(1.16)   | 0.45              |
|                      | 여자                            | 26<br>(27.4) | 36<br>(37.9)  | 11<br>(11.6) | 10<br>(10.5) | 12<br>(12.6) | 95<br>(100.0)  | 2.43<br>(1.33)   |                   |
|                      | 전체                            | 43<br>(19.5) | 101<br>(45.7) | 32<br>(14.5) | 19<br>( 8.6) | 26<br>(11.8) | 221<br>(100.0) | 2.48<br>(1.23)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8<br>(12.3) | 86<br>(58.9)  | 18<br>(12.3) | 12<br>( 8.2) | 12<br>( 8.2) | 146<br>(100.0) | 2.41<br>(1.07)   | 0.74              |
|                      | 경기인천 <sup>b</sup>             | 15<br>(38.5) | 5<br>(12.8)   | 10<br>(25.6) | 4<br>(10.3)  | 5<br>(12.8)  | 39<br>(100.0)  | 2.46<br>(1.43)   |                   |
|                      | 기타 <sup>c</sup>               | 10<br>(27.8) | 10<br>(27.8)  | 4<br>(11.1)  | 3<br>( 8.3)  | 9<br>(25.0)  | 36<br>(100.0)  | 2.75<br>(1.57)   |                   |
|                      | 전체                            | 43<br>(19.5) | 101<br>(45.7) | 32<br>(14.5) | 19<br>( 8.6) | 26<br>(11.8) | 221<br>(100.0) | 2.48<br>(1.23)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8<br>(45.0) | 12<br>(30.0)  | 2<br>( 5.0)  | 7<br>(17.5)  | 1<br>( 2.5)  | 40<br>(100.0)  | 2.03<br>(1.21)   | 3.75              |
|                      | 거주(F-2) <sup>b</sup>          | 12<br>(19.7) | 25<br>(41.0)  | 7<br>(11.5)  | 3<br>( 4.9)  | 14<br>(23.0) | 61<br>(100.0)  | 2.70<br>(1.45)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2<br>( 3.4)  | 38<br>(65.5)  | 8<br>(13.8)  | 3<br>( 5.2)  | 7<br>(12.1)  | 58<br>(100.0)  | 2.57<br>(1.08)   |                   |
|                      | 영주(F-5) <sup>d</sup>          | 5<br>(11.4)  | 24<br>(54.5)  | 12<br>(27.3) | 3<br>( 6.8)  | 0<br>( 0.0)  | 44<br>(100.0)  | 2.30<br>(.76)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2<br>(50.0)  | -            | 2<br>(50.0)  | 4<br>(100.0)   | 4.00<br>(1.15)   |                   |
|                      | 전체                            | 37<br>(17.9) | 99<br>(47.8)  | 31<br>(15.0) | 16<br>( 7.7) | 24<br>(11.6) | 207<br>(100.0) | 2.47<br>(1.21)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a</sup>    | 19<br>(15.1) | 72<br>(57.1)  | 14<br>(11.1) | 7<br>( 5.6)  | 14<br>(11.1) | 126<br>(100.0) | 2.40<br>(1.15)   | 2.11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3<br>(11.1)  | 10<br>(37.0)  | 7<br>(25.9)  | 3<br>(11.1)  | 4<br>(14.8)  | 27<br>(100.0)  | 2.81<br>(1.24)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20<br>(40.0) | 14<br>(28.0)  | 6<br>(12.0)  | 5<br>(10.0)  | 5<br>(10.0)  | 50<br>(100.0)  | 2.22<br>(1.34)   |                   |
|                      | 전체                            | 42<br>(20.6) | 96<br>(47.1)  | 27<br>(13.2) | 15<br>( 7.4) | 23<br>(11.8) | 203<br>(100.0) | 2.41<br>(1.22)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0<br>(32.8) | 16<br>(26.2)  | 8<br>(13.1)  | 6<br>( 9.8)  | 11<br>(18.0) | 61<br>(100.0)  | 2.54<br>(1.49)   | 5.80**<br>(c)(b)  |
|                | 15세 이전 <sup>b</sup> | 5<br>( 9.8)  | 18<br>(35.3)  | 13<br>(25.5) | 7<br>(13.7)  | 8<br>(15.7)  | 51<br>(100.0)  | 2.90<br>(1.24)   |                   |
|                | 16세 이후 <sup>c</sup> | 18<br>(16.5) | 67<br>(61.5)  | 11<br>(10.1) | 6<br>( 5.5)  | 7<br>( 6.4)  | 109<br>(100.0) | 2.24<br>(1.01)   |                   |
|                | 전체                  | 43<br>(19.5) | 101<br>(45.7) | 32<br>(14.5) | 19<br>( 8.6) | 26<br>(11.8) | 221<br>(100.0) | 2.48<br>(1.23)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직장 구하기의 경우, 한국학교 재학 경험과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거나 중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3.17과 3.09)은 고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2.5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2.57)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표 IV-26.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7) 직장 구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9<br>( 8.6) | 74<br>(33.5) | 83<br>(37.6)  | 23<br>(10.4) | 22<br>(10.0) | 221<br>(100.0) | 2.8<br>(1.07)    | -1.04             |
|    | 여자 | 34<br>(27.9) | 14<br>(11.5) | 26<br>(21.3)  | 19<br>(15.6) | 29<br>(23.8) | 122<br>(100.0) | 2.96<br>(1.53)   |                   |
|    | 전체 | 53<br>(15.5) | 88<br>(25.7) | 109<br>(31.8) | 42<br>(12.2) | 51<br>(14.9) | 343<br>(100.0) | 2.85<br>(1.26)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21<br>(10.9) | 67<br>(34.7) | 71<br>(36.8)  | 14<br>( 7.3) | 20<br>(10.4) | 193<br>(100.0) | 2.72<br>(1.09)   | 2.58               |
|                      | 경기인천 <sup>b</sup>             | 20<br>(23.8) | 9<br>(10.7)  | 21<br>(25.0)  | 18<br>(21.4) | 16<br>(19.0) | 84<br>(100.0)  | 3.01<br>(1.44)   |                    |
|                      | 기타 <sup>c</sup>               | 12<br>(18.2) | 12<br>(18.2) | 17<br>(25.8)  | 10<br>(15.2) | 15<br>(22.7) | 66<br>(100.0)  | 3.06<br>(1.41)   |                    |
|                      | 전체                            | 53<br>(15.5) | 88<br>(25.7) | 109<br>(31.8) | 42<br>(12.2) | 51<br>(14.9) | 343<br>(100.0) | 2.85<br>(1.26)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2<br>(15.6) | 5<br>( 6.5)  | 52<br>(67.5)  | 1<br>( 1.3)  | 7<br>( 9.1)  | 77<br>(100.0)  | 2.82<br>(1.02)   | 1.57               |
|                      | 거주(F-2) <sup>b</sup>          | 22<br>(31.4) | 9<br>(12.9)  | 7<br>(10.0)   | 16<br>(22.9) | 16<br>(22.9) | 70<br>(100.0)  | 2.93<br>(1.60)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8<br>(10.5)  | 38<br>(50.0) | 14<br>(18.4)  | 5<br>( 6.6)  | 11<br>(14.5) | 76<br>(100.0)  | 2.64<br>(1.21)   |                    |
|                      | 영주(F-5) <sup>d</sup>          | 3<br>( 4.4)  | 25<br>(36.8) | 26<br>(38.2)  | 12<br>(17.6) | 2<br>( 2.9)  | 68<br>(100.0)  | 2.78<br>(.90)    |                    |
|                      | 동거(F-1 &<br>F-3) <sup>e</sup> | 2<br>(11.8)  | 1<br>( 5.9)  | 5<br>(29.4)   | 5<br>(29.4)  | 4<br>(23.5)  | 17<br>(100.0)  | 3.47<br>(1.28)   |                    |
|                      | 전체                            | 47<br>(15.3) | 78<br>(25.3) | 104<br>(33.8) | 39<br>(12.7) | 40<br>(13.0) | 308<br>(100.0) | 2.83<br>(1.22)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4<br>( 4.4)  | 7<br>( 7.8)  | 57<br>(63.3)  | 14<br>(15.6) | 8<br>( 8.9)  | 90<br>(100.0)  | 3.17<br>(0.86)   | 7.16***<br>(b<a,c)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20<br>(17.2) | 56<br>(48.3) | 16<br>(13.8)  | 7<br>( 6.0)  | 17<br>(14.7) | 116<br>(100.0) | 2.53<br>(1.27)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4<br>( 7.5)  | 10<br>(18.9) | 22<br>(41.5)  | 11<br>(20.8) | 6<br>(11.3)  | 53<br>(100.0)  | 3.09<br>(1.0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24<br>(38.1) | 8<br>(12.7)  | 11<br>(17.5)  | 6<br>( 9.5)  | 14<br>(22.2) | 63<br>(100.0)  | 2.65<br>(1.60)   |                    |
|                      | 전체                            | 52<br>(16.1) | 81<br>(25.2) | 106<br>(32.9) | 38<br>(11.8) | 45<br>(14.0) | 322<br>(100.0) | 2.82<br>(1.24)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2<br>(16.1) | 17<br>(12.4) | 64<br>(46.7)  | 12<br>( 8.8) | 22<br>(16.1) | 137<br>(100.0) | 2.96<br>(1.23)   | 5.37**<br>(c(a,b)) |
|                | 15세 이전 <sup>b</sup> | 11<br>(13.3) | 16<br>(19.3) | 26<br>(31.3)  | 14<br>(16.9) | 16<br>(19.3) | 83<br>(100.0)  | 3.10<br>(1.29)   |                    |
|                | 16세 이후 <sup>c</sup> | 20<br>(16.3) | 55<br>(44.7) | 19<br>(15.4)  | 16<br>(13.0) | 13<br>(10.6) | 123<br>(100.0) | 2.57<br>(1.22)   |                    |
|                | 전체                  | 53<br>(15.5) | 88<br>(25.7) | 109<br>(31.8) | 42<br>(12.2) | 51<br>(14.9) | 343<br>(100.0) | 2.85<br>(1.26)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직장에서 인간관계 맺기 상황에서 한국어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정도는 체류자격과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가운데 동거(F-1 & F-3) 집단의 평균은 3.47로 가장 높았고, 이는 유학비자(D-2)와 재외 동포(F-4) 집단의 평균(2.82와 2.64)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리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3.05)은 고등학교 이상 또는 초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2.64와 2.4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7.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8) 직장에서 인간관계 맺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1<br>(10.2) | 63<br>(30.6) | 89<br>(43.2)  | 22<br>(10.7) | 11<br>( 5.3) | 206<br>(100.0) | 2.7<br>(0.98)    | -1.01             |
|    | 여자 | 24<br>(24.5) | 19<br>(19.4) | 20<br>(20.4)  | 16<br>(16.3) | 19<br>(19.4) | 98<br>(100.0)  | 2.87<br>(1.45)   |                   |
|    | 전체 | 45<br>(14.8) | 82<br>(27.0) | 109<br>(35.9) | 38<br>(12.5) | 30<br>( 9.9) | 304<br>(100.0) | 2.76<br>(1.15)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5<br>( 8.8) | 62<br>(36.3) | 66<br>(38.6)  | 10<br>( 5.8) | 18<br>(10.5) | 171<br>(100.0) | 2.73<br>(1.06)   | 0.18                |
|                      | 경기인천 <sup>b</sup>             | 18<br>(25.0) | 10<br>(13.9) | 24<br>(33.3)  | 12<br>(16.7) | 8<br>(11.1)  | 72<br>(100.0)  | 2.75<br>(1.31)   |                     |
|                      | 기타 <sup>c</sup>               | 12<br>(19.7) | 10<br>(16.4) | 19<br>(31.1)  | 16<br>(26.2) | 4<br>( 6.6)  | 61<br>(100.0)  | 2.84<br>(1.21)   |                     |
|                      | 전체                            | 45<br>(14.8) | 82<br>(27.0) | 109<br>(35.9) | 38<br>(12.5) | 30<br>( 9.9) | 304<br>(100.0) | 2.76<br>(1.15)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4<br>(18.4) | 4<br>( 5.3)  | 51<br>(67.1)  | -            | 7<br>( 9.2)  | 76<br>(100.0)  | 2.82<br>(1.02)   | 5.76***<br>(a,c(e)) |
|                      | 거주(F-2) <sup>b</sup>          | 8<br>(19.0)  | 12<br>(28.6) | 4<br>( 9.5)   | 10<br>(23.8) | 8<br>(19.0)  | 42<br>(100.0)  | 2.93<br>(1.60)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9<br>(12.5)  | 36<br>(50.0) | 13<br>(18.1)  | 6<br>( 8.3)  | 8<br>(11.1)  | 72<br>(100.0)  | 2.64<br>(1.21)   |                     |
|                      | 영주(F-5) <sup>d</sup>          | 6<br>( 9.1)  | 24<br>(36.4) | 28<br>(42.4)  | 7<br>(10.6)  | 1<br>( 1.5)  | 66<br>(100.0)  | 2.78<br>(.90)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7.1)  | 5<br>(35.7)   | 8<br>(57.1)  | -            | 14<br>(100.0)  | 3.47<br>(1.28)   |                     |
|                      | 전체                            | 37<br>(13.7) | 77<br>(28.5) | 101<br>(37.4) | 31<br>(11.5) | 24<br>( 8.9) | 270<br>(100.0) | 2.83<br>(1.22)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4<br>( 5.4)  | 3<br>( 4.1)  | 57<br>(77.0)  | 5<br>( 6.8)  | 5<br>( 6.8)  | 74<br>(100.0)  | 3.05<br>(0.77)   | 4.74**<br>(b,d(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2<br>(11.8) | 48<br>(47.1) | 19<br>(18.6)  | 11<br>(10.8) | 12<br>(11.8) | 102<br>(100.0) | 2.64<br>(1.18)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7<br>(13.5)  | 10<br>(19.2) | 24<br>(46.2)  | 7<br>(13.5)  | 4<br>( 7.7)  | 52<br>(100.0)  | 2.83<br>(1.0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17<br>(29.8) | 19<br>(33.3) | 6<br>(10.5)   | 10<br>(17.5) | 5<br>( 8.8)  | 57<br>(100.0)  | 2.42<br>(1.32)   |                     |
|                      | 전체                            | 40<br>(14.0) | 80<br>(28.1) | 106<br>(37.2) | 33<br>(11.6) | 26<br>( 9.1) | 285<br>(100.0) | 2.74<br>(1.12)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18<br>(13.8) | 21<br>(16.2) | 65<br>(50.0)  | 14<br>(10.8) | 12<br>( 9.2) | 130<br>(100.0) | 2.85<br>(1.09)   | 2.49              |
|                | 15세 이전 <sup>b</sup> | 9<br>(13.2)  | 17<br>(25.0) | 23<br>(33.8)  | 11<br>(16.2) | 8<br>(11.8)  | 68<br>(100.0)  | 2.88<br>(1.19)   |                   |
|                | 16세 이후 <sup>c</sup> | 18<br>(17.0) | 44<br>(41.5) | 21<br>(19.8)  | 13<br>(12.3) | 10<br>( 9.4) | 106<br>(100.0) | 2.56<br>(1.19)   |                   |
|                | 전체                  | 45<br>(14.8) | 82<br>(27.0) | 109<br>(35.9) | 38<br>(12.5) | 30<br>( 9.9) | 304<br>(100.0) | 2.76<br>(1.15)   |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한국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체류자격의 경우,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2.07)이 다른 모든 집단의 평균 보다 낮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을 비교하면,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2.35)이 중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2.98)에 비해 낮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에서는 15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3.01)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28.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겪은 어려움: 9)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기: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0<br>( 9.6) | 112<br>(53.8) | 43<br>(20.7) | 13<br>( 6.3) | 20<br>( 9.6) | 208<br>(100.0) | 2.52<br>(1.07)   | -1.78             |
|    | 여자 | 27<br>(27.8) | 15<br>(15.5)  | 24<br>(24.7) | 10<br>(10.3) | 21<br>(21.6) | 97<br>(100.0)  | 2.82<br>(1.49)   |                   |
|    | 전체 | 47<br>(15.4) | 127<br>(41.6) | 67<br>(22.0) | 23<br>( 7.5) | 41<br>(13.4) | 305<br>(100.0) | 2.62<br>(1.23)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6<br>( 9.4) | 101<br>(59.4) | 27<br>(15.9) | 7<br>( 4.1)  | 19<br>(11.2) | 170<br>(100.0) | 2.48<br>(1.09)   | 2.30                         |
|                      | 경기인천 <sup>b</sup>             | 18<br>(24.0) | 13<br>(17.3)  | 22<br>(29.3) | 12<br>(16.0) | 10<br>(13.3) | 75<br>(100.0)  | 2.77<br>(1.34)   |                              |
|                      | 기타 <sup>c</sup>               | 13<br>(21.7) | 13<br>(21.7)  | 18<br>(30.0) | 4<br>( 6.7)  | 12<br>(20.0) | 60<br>(100.0)  | 2.82<br>(1.40)   |                              |
|                      | 전체                            | 47<br>(15.4) | 127<br>(41.6) | 67<br>(22.0) | 23<br>( 7.5) | 41<br>(13.4) | 305<br>(100.0) | 2.62<br>(1.23)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4<br>(18.7) | 51<br>(68.0)  | 5<br>( 6.7)  | 1<br>( 1.3)  | 4<br>( 5.3)  | 75<br>(100.0)  | 2.07<br>(0.89)   | 9.36***<br>(a(d<e;a<<br>b,c) |
|                      | 거주(F-2) <sup>b</sup>          | 12<br>(27.9) | 9<br>(20.9)   | 3<br>( 7.0)  | 3<br>( 7.0)  | 16<br>(37.2) | 43<br>(100.0)  | 3.05<br>(1.72)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8<br>(10.7)  | 38<br>(50.7)  | 14<br>(18.7) | 5<br>( 6.7)  | 10<br>(13.3) | 75<br>(100.0)  | 2.61<br>(1.18)   |                              |
|                      | 영주(F-5) <sup>d</sup>          | 6<br>( 9.0)  | 22<br>(32.8)  | 33<br>(49.3) | 4<br>( 6.0)  | 2<br>( 3.0)  | 67<br>(100.0)  | 2.61<br>(0.85)   |                              |
|                      | 동거(F-1 &<br>F-3) <sup>e</sup> | 0<br>( 0.0)  | 1<br>( 8.3)   | 6<br>(50.0)  | 3<br>(25.0)  | 2<br>(16.7)  | 12<br>(100.0)  | 3.50<br>(.90)    |                              |
|                      | 전체                            | 40<br>(14.7) | 121<br>(44.5) | 61<br>(22.4) | 16<br>( 5.9) | 34<br>(12.5) | 272<br>(100.0) | 2.57<br>(1.19)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4<br>( 5.4)  | 53<br>(71.6)  | 8<br>(10.8)  | 5<br>( 6.8)  | 4<br>( 5.4)  | 74<br>(100.0)  | 2.35<br>(0.90)   | 3.75*<br>(a<c)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4<br>(14.0) | 43<br>(43.0)  | 25<br>(25.0) | 5<br>( 5.0)  | 13<br>(13.0) | 100<br>(100.0) | 2.60<br>(1.19)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4<br>( 7.7)  | 14<br>(26.9)  | 20<br>(38.5) | 7<br>(13.5)  | 7<br>(13.5)  | 52<br>(100.0)  | 2.98<br>(1.13)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21<br>(34.4) | 14<br>(23.0)  | 9<br>(14.8)  | 2<br>( 3.3)  | 15<br>(24.6) | 61<br>(100.0)  | 2.61<br>(1.58)   |                              |
|                      | 전체                            | 43<br>(15.0) | 124<br>(43.2) | 62<br>(21.6) | 19<br>( 6.6) | 39<br>(13.6) | 287<br>(100.0) | 2.61<br>(1.22)   |                              |

| 구분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계 <sup>1</sup>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2<br>(17.1) | 65<br>(50.4)  | 15<br>(11.6) | 7<br>( 5.4)  | 20<br>(15.5)   | 129<br>(100.0)   | 2.52<br>(1.28)    |
|                | 15세 이전 <sup>b</sup> | 7<br>( 9.9)  | 18<br>(25.4)  | 26<br>(36.6) | 7<br>( 9.9)  | 13<br>(18.3)   | 71<br>(100.0)    | 3.01<br>(1.22)    |
|                | 16세 이후 <sup>c</sup> | 18<br>(17.1) | 44<br>(41.9)  | 26<br>(24.8) | 9<br>( 8.6)  | 8<br>( 7.6)    | 105<br>(100.0)   | 2.48<br>(1.11)    |
|                | 전체                  | 47<br>(15.4) | 127<br>(41.6) | 67<br>(22.0) | 23<br>( 7.5) | 41<br>(13.4)   | 305<br>(100.0)   | 2.62<br>(1.23)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2)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③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 교육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의 적응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한국어 능력 및 한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 가운데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6.3%(231명)가 한국어 등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픽(TOPIK) 한국어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은 176명(42.9%)이었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등급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67명(16.3%)에 불과하였다.

표 IV-29. 조사대상이 소지한 한국어 등급 : 빈도(%)

| 구분    | 없음        | 토픽(TOPIK) | 사회통합프로그램 | 전체         |
|-------|-----------|-----------|----------|------------|
| 빈도(%) | 231(56.3) | 176(42.9) | 67(16.3) | 410(100.0) |

※ 중복 응답 항목임.

토픽 급수를 지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급수를 적도록 하였는데, 토픽 급수를 지닌 176명 중 6급이 63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3급이 46명(26.1%), 4급이 26명(14.8%), 5급이 24명(13.6%), 2급이 13명(7.4%), 1급이 4명(2.3%)의 순이었다. 따라서 토픽자격 중 소지자 전체의 64.2%는 4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0. 토픽 소지자의 한국어 등급

| 급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총          |
|-------|---------|----------|----------|----------|----------|----------|------------|
| 빈도(%) | 4( 2.3) | 13( 7.4) | 46(26.1) | 26(14.8) | 24(13.6) | 63(35.8) | 176(100.0) |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경우도 5급이 3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3급이 17명(25.4%), 4급이 8명(11.9%), 2급이 6명(9.0%), 1급이 1명(1.5%)이었다. 따라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급수 소지자의 89.5%는 3급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급수 소지자의 한국어 등급

| 급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총         |
|-------|--------|--------|----------|---------|----------|-----------|
| 빈도(%) | 1(1.5) | 6(9.0) | 17(25.4) | 8(11.9) | 35(52.2) | 67(100.0) |

이주배경청년의 한국사회의 적응에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7%(167명)로 가장 높았고,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의 비율도 34.1%(140명)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남자(평균 3.92)에 비해 여자(평균 4.35)가 한국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비교할 때, 경기 및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4.36)이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3.95)에 비해 한국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체류자격별로 비교하면, 유학비자(D-2) 집단(평균 3.73)은 거주(F-2) 또는 재외동포(F-4) 집단(평균 4.25와 4.23)에 비해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이 인식하는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평균 3.48)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평균 4.49)이 인식하는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가장 높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서는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평균 4.22)이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평균 3.92)보다 한국어 능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32.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어느<br>정도<br>중요<br>하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3<br>( 1.2)          | 77<br>(30.7)  | 109<br>(43.4)        | 62<br>(24.7)   | 251<br>(100.0) | 3.92<br>(0.77)   | -5.63***           |
|          | 여자                            | -                    | 0<br>( 0.0)          | 23<br>(14.5)  | 58<br>(36.5)         | 78<br>(49.1)   | 159<br>(100.0) | 4.35<br>(0.72)   |                    |
|          | 전체                            | -                    | 3<br>( 0.7)          | 100<br>(24.4) | 167<br>(40.7)        | 140<br>(34.1)  | 410<br>(100.0) | 4.08<br>(0.7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                    | 66<br>(29.7)  | 102<br>(45.9)        | 54<br>(24.3)   | 222<br>(100.0) | 3.95<br>(0.73)   | 10.77***<br>(a<b)  |
|          | 경기인천 <sup>b</sup>             | -                    | 1<br>( 1.0)          | 12<br>(12.4)  | 35<br>(36.1)         | 49<br>(50.5)   | 97<br>(100.0)  | 4.36<br>(0.74)   |                    |
|          | 기타 <sup>c</sup>               | -                    | 2<br>( 2.2)          | 22<br>(24.2)  | 30<br>(33.0)         | 37<br>(40.7)   | 91<br>(100.0)  | 4.12<br>(0.85)   |                    |
|          | 전체                            | -                    | 3<br>( 0.7)          | 100<br>(24.4) | 167<br>(40.7)        | 140<br>(34.1)  | 410<br>(100.0) | 4.08<br>(0.7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53<br>(58.2)  | 10<br>(11.0)         | 28<br>(30.8)   | 91<br>(100.0)  | 3.73<br>(0.91)   | 6.40***<br>(a<b,c) |
|          | 거주(F-2) <sup>b</sup>          | -                    | -                    | 15<br>(16.1)  | 40<br>(43.0)         | 38<br>(40.9)   | 93<br>(100.0)  | 4.25<br>(0.72)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8<br>( 9.1)   | 49<br>(55.7)         | 30<br>(34.1)   | 88<br>(100.0)  | 4.23<br>(0.66)   |                    |
|          | 영주(F-5) <sup>d</sup>          | -                    | -                    | 13<br>(17.1)  | 52<br>(68.4)         | 11<br>(14.5)   | 76<br>(100.0)  | 3.97<br>(0.57)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9<br>(42.9)   | 2<br>( 9.5)          | 10<br>(47.6)   | 21<br>(100.0)  | 4.05<br>(0.97)   |                    |
|          | 전체                            | -                    | 1<br>( 0.3)          | 98<br>(26.6)  | 153<br>(41.5)        | 117<br>(31.7)  | 369<br>(100.0) | 4.05<br>(0.77)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어느<br>정도<br>중요<br>하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1<br>( 1.0)          | 67<br>(69.1)  | 10<br>(10.3)         | 19<br>(19.6)   | 97<br>(100.0)  | 3.48<br>(0.82)   | 31.86***<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                    | 13<br>( 8.9)  | 89<br>(61.0)         | 44<br>(30.1)   | 146<br>(100.0) | 4.21<br>(0.59)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2<br>( 3.0)          | 14<br>(20.9)  | 25<br>(37.3)         | 26<br>(38.8)   | 67<br>(100.0)  | 4.12<br>(0.84)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2<br>( 2.5)   | 36<br>(45.6)         | 41<br>(51.9)   | 79<br>(100.0)  | 4.49<br>(0.55)   |                       |
|                      | 전체                         | -                    | 3<br>( 0.8)          | 96<br>(24.7)  | 160<br>(41.1)        | 130<br>(33.4)  | 389<br>(100.0) | 4.07<br>(0.78)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1<br>( 0.6)          | 61<br>(38.6)  | 45<br>(28.5)         | 51<br>(32.3)   | 158<br>(100.0) | 3.92<br>(0.86)   | 5.81**<br>(a<c)       |
|                      | 15세 이전 <sup>b</sup>        | -                    | 1<br>( 1.0)          | 21<br>(21.6)  | 40<br>(41.2)         | 35<br>(36.1)   | 97<br>(100.0)  | 4.12<br>(0.78)   |                       |
|                      | 16세 이후 <sup>c</sup>        | -                    | 1<br>( 0.6)          | 18<br>(11.6)  | 82<br>(52.9)         | 54<br>(34.8)   | 155<br>(100.0) | 4.22<br>(0.67)   |                       |
|                      | 전체                         | -                    | 3<br>( 0.7)          | 100<br>(24.4) | 167<br>(40.7)        | 140<br>(34.1)  | 410<br>(100.0) | 4.08<br>(0.7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조사대상 가운데 만 19세 이후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항목에 대해서 전체의 78.0%(320명)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 교육 경험 여부 또한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청년 가운데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45.4%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매우 높았다. 체류자격의 경우, 영주(F-5) 및 동거(F-1 & F-3) 자격을 가진 집단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비율(31.6%, 38.1%)이 비교적 높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의 한국어 교육 경험은 중학교 이상 재학일 때(26.9%)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16세 이후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한국어 교육을 받은 비율이 31.0%로 전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IV-33. 만 19세 이후 한국어 교육 경험: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54(21.5) | 197(78.5) | 251(100.0) | 0.07     |
|             | 여자            | 36(22.6) | 123(77.4) | 159(100.0) |          |
|             | 전체            | 90(22.0) | 320(78.0)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22( 9.9) | 200(90.1) | 222(100.0) | 50.85*** |
|             | 경기인천          | 44(45.4) | 53(54.6)  | 97(100.0)  |          |
|             | 기타            | 24(26.4) | 67(73.6)  | 91(100.0)  |          |
|             | 전체            | 90(22.0) | 320(78.0) | 410(100.0) |          |
| 체류자격        | 유학(D-2)       | 18(19.8) | 73(80.2)  | 91(100.0)  | 17.85**  |
|             | 거주(F-2)       | 8( 8.6)  | 85(91.4)  | 93(100.0)  |          |
|             | 재외동포(F-4)     | 22(25.0) | 66(75.0)  | 88(100.0)  |          |
|             | 영주(F-5)       | 24(31.6) | 52(68.4)  | 76(100.0)  |          |
|             | 동거(F-1 & F-3) | 8(38.1)  | 13(61.9)  | 21(100.0)  |          |
|             | 전체            | 80(21.7) | 289(78.3) | 369(100.0)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 13(13.4) | 84(86.6)  | 97(100.0)  | 8.92*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37(25.3) | 109(74.7)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18(26.9) | 49(73.1)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11(13.9) | 68(86.1)  | 79(100.0)  |          |
|             | 전체            | 79(20.3) | 310(79.7) | 389(100.0)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 13( 8.2) | 145(91.8) | 158(100.0) | 28.30*** |
|             | 15세 이전        | 29(29.9) | 68(70.1)  | 97(100.0)  |          |
|             | 16세 이후        | 48(31.0) | 107(69.0) | 155(100.0) |          |
|             | 전체            | 90(22.0) | 320(78.0) | 410(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만 19세 이후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38.9%는 지역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33.3%는 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31.1%는 다문화가족 센터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IV-34. 만 19세 이후 한국어 교육을 받은 기관: 빈도(%)

| 구분    | 지역 이주배경<br>아동청소년<br>지원기관 | 다문화가족센터  | 학원       | 여학당      | 기타       | 전체        |
|-------|--------------------------|----------|----------|----------|----------|-----------|
| 빈도(%) | 35(38.9)                 | 28(31.1) | 30(33.3) | 11(12.2) | 10(11.1) | 90(100.0) |

※ 중복 응답 항목임.

한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42.9%, 176명)와 매우 필요하다(30.5%, 125명)는 응답이 많았다. 집단에 따른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남자(평균 3.86)보다는 여자(평균 4.30)가 한국어 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3.91)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국어 교육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유학비자(D-2)와 영주(F-5) 집단이 인식하는 한국어 교육 필요성(평균 3.63과 3.91)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55)도 다른 집단보다 한국어 교육이 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 입국 시기가 12세 이전으로 빠른 집단도 한국어 교육 필요성(평균 3.91)에 대해 다른 집단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35.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전혀<br>필요<br>하지<br>않다 | 별로<br>필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어느<br>정도<br>필요<br>하다 | 매우<br>필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br>( 0.4)          | 1<br>( 0.4) | 82<br>(32.7)         | 114<br>(45.4)  | 53<br>(21.1)  | 251<br>(100.0)   | 3.86<br>(0.76)    |
|    | 여자                   | -                    | -           | 25<br>(15.7)         | 62<br>(39.0)   | 72<br>(45.3)  | 159<br>(100.0)   | 4.30<br>(0.73)    |
|    | 전체                   | 1<br>( 0.2)          | 1<br>( 0.2) | 107<br>(26.1)        | 176<br>(42.9)  | 125<br>(30.5) | 410<br>(100.0)   | 4.03<br>(0.77)    |

-5.71\*\*\*

| 구분                   |                               | 전혀<br>필요<br>하지<br>않다 | 별로<br>필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어느<br>정도<br>필요<br>하다 | 매우<br>필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br>( 0.5)          | -                    | 64<br>(28.8)  | 111<br>(50.0)        | 46<br>(20.7)   | 222<br>(100.0) | 3.91<br>(0.73)   | 6.65**<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                    | 1<br>( 1.0)          | 19<br>(19.6)  | 36<br>(37.1)         | 41<br>(42.3)   | 97<br>(100.0)  | 4.21<br>(0.79)   |                            |
|                      | 기타 <sup>c</sup>               | -                    | -                    | 24<br>(26.4)  | 29<br>(31.9)         | 38<br>(41.8)   | 91<br>(100.0)  | 4.15<br>(0.82)   |                            |
|                      | 전체                            | 1<br>( 0.2)          | 1<br>( 0.2)          | 107<br>(26.1) | 176<br>(42.9)        | 125<br>(30.5)  | 410<br>(100.0) | 4.03<br>(0.77)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54<br>(59.3)  | 17<br>(18.7)         | 20<br>(22.0)   | 91<br>(100.0)  | 3.63<br>(0.83)   | 8.72***<br>(a<b,c;<br>d<b) |
|                      | 거주(F-2) <sup>b</sup>          | -                    | 1<br>( 1.1)          | 14<br>(15.1)  | 41<br>(44.1)         | 37<br>(39.8)   | 93<br>(100.0)  | 4.23<br>(0.74)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br>( 1.1)          | -                    | 9<br>(10.2)   | 49<br>(55.7)         | 29<br>(33.0)   | 88<br>(100.0)  | 4.19<br>(0.71)   |                            |
|                      | 영주(F-5) <sup>d</sup>          | -                    | -                    | 19<br>(25.0)  | 45<br>(59.2)         | 12<br>(15.8)   | 76<br>(100.0)  | 3.91<br>(0.64)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7<br>(33.3)   | 8<br>(38.1)          | 6<br>(28.6)    | 21<br>(100.0)  | 3.95<br>(0.80)   |                            |
|                      | 전체                            | 1<br>( 0.3)          | 1<br>( 0.3)          | 103<br>(27.9) | 160<br>(43.4)        | 104<br>(28.2)  | 369<br>(100.0) | 3.99<br>(0.77)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                    | 61<br>(62.9)  | 19<br>(19.6)         | 17<br>(17.5)   | 97<br>(100.0)  | 3.55<br>(0.78)   | 26.35***<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br>( 0.7)          | -                    | 15<br>(10.3)  | 92<br>(63.0)         | 38<br>(26.0)   | 146<br>(100.0) | 4.14<br>(0.64)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1<br>( 1.5)          | 22<br>(32.8)  | 22<br>(32.8)         | 22<br>(32.8)   | 67<br>(100.0)  | 3.97<br>(0.85)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3<br>( 3.8)   | 38<br>(48.1)         | 38<br>(48.1)   | 79<br>(100.0)  | 4.44<br>(0.57)   |                            |
|                      | 전체                            | 1<br>( 0.3)          | 1<br>( 0.3)          | 101<br>(26.0) | 171<br>(44.0)        | 115<br>(29.6)  | 389<br>(100.0) | 4.02<br>(0.77)   |                            |

| 구분             |                     | 전혀<br>필요<br>하지<br>않다 | 별로<br>필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어느<br>정도<br>필요<br>하다 | 매우<br>필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                    | 61<br>(38.6)  | 50<br>(31.6)         | 47<br>(29.7)   | 158<br>(100.0) | 3.91<br>(0.82)   | 3.21*<br>(a<c)    |
|                | 15세 이전 <sup>b</sup> | -                    | 1<br>( 1.0)          | 26<br>(26.8)  | 34<br>(35.1)         | 36<br>(37.1)   | 97<br>(100.0)  | 4.08<br>(0.83)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                    | 20<br>(12.9)  | 92<br>(59.4)         | 42<br>(27.1)   | 155<br>(100.0) | 4.12<br>(0.67)   |                   |
|                | 전체                  | 1<br>( 0.2)          | 1<br>( 0.2)          | 107<br>(26.1) | 176<br>(42.9)        | 125<br>(30.5)  | 410<br>(100.0) | 4.03<br>(0.77)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만약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제공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는 비율은 42.7%(175명)였는데, 남자(37.1%)보다는 여자(51.6%)의 참여 의향이 더 높았다.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의 한국어 교육 참여 희망 비율은 27.0%로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다섯 가지 체류자격 가운데 유학비자(D-2)의 참여 희망 비율은 28.6%(26명)로 가장 낮았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참여 희망 비율 역시 20.6%로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36. 한국어 교육 참여 희망 여부: 빈도(%)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93(37.1)  | 158(62.9) | 251(100.0) | 8.349**  |
|     | 여자   | 82(51.6)  | 77(48.4)  | 159(100.0) |          |
|     | 전체   | 175(42.7) | 235(57.3)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60(27.0)  | 162(73.0) | 222(100.0) | 53.62*** |
|     | 경기인천 | 67(69.1)  | 30(30.9)  | 97(100.0)  |          |
|     | 기타   | 48(52.7)  | 43(47.3)  | 91(100.0)  |          |
|     | 전체   | 175(42.7) | 235(57.3) | 410(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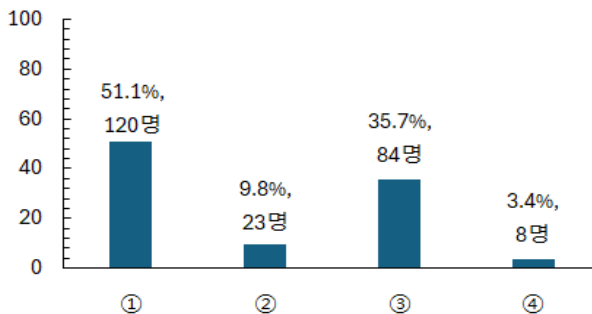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26(28.6)  | 65(71.4)  | 91(100.0)  | 16.99**  |
|                      | 거주(F-2)       | 49(52.7)  | 44(47.3)  | 93(100.0)  |          |
|                      | 재외동포(F-4)     | 30(34.1)  | 58(65.9)  | 88(100.0)  |          |
|                      | 영주(F-5)       | 39(51.3)  | 37(48.7)  | 76(100.0)  |          |
|                      | 동거(F-1 & F-3) | 11(52.4)  | 10(47.6)  | 21(100.0)  |          |
|                      | 전체            | 155(42.0) | 214(58.0) | 369(100.0)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20(20.6)  | 77(79.4)  | 97(100.0)  | 30.51***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62(42.5)  | 84(57.5)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36(53.7)  | 31(46.3)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46(58.2)  | 33(41.8)  | 79(100.0)  |          |
|                      | 전체            | 164(42.2) | 225(57.8) | 389(100.0)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7(42.4)  | 91(57.6)  | 158(100.0) | 0.81     |
|                      | 15세 이전        | 45(46.4)  | 52(53.6)  | 97(100.0)  |          |
|                      | 16세 이후        | 63(40.6)  | 92(59.4)  | 155(100.0) |          |
|                      | 전체            | 175(42.7) | 235(57.3) | 410(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한국어 교육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①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가 없어서 (51.1%, 120명)가 가장 많았고, ③ 지속적으로 참여할 자신이 없어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35.7%, 84명)도 많았다.



①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가 없어서, ②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③ 지속적으로 참여할 자신이 없어서, ④ 필요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이 제공될 것 같지 않아서

그림 IV-3. 한국어 교육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전체 235명)

#### (4) 교육 경험

본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주배경청년의 교육 경험을 파악하고자 과거 한국 및 다른 나라에서 받은 교육과 최종학력, 그리고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조사대상에게는 대학(원) 만족도, 대입준비, 등록금 마련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① 과거 교육 경험

과거 교육 경험을 한국과 다른 나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는 70.7%(290명),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는 76.3%(313명)였다.

표 IV-37. 과거 학교 재학 경험: 빈도(%)

| 구분 | 다른 나라에서 학교 다닌 경험 | 한국에서 학교 다닌 경험 |
|----|------------------|---------------|
| 있음 | 290( 70.7)       | 313( 76.3)    |
| 없음 | 120( 29.3)       | 97( 23.7)     |
| 전체 | 410(100.0)       | 410(100.0)    |

과거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가운데, 절반 정도는 6년 이상~9년 미만(146명) 동안 학교에 다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 기간이 9년 이상~12년 미만인 경우도 18.3%(53명)로 적지 않았으며, 3년 이상~6년 미만도 17.2%(50명) 정도 있었다.

표 IV-38. 과거 다른 나라에서 학교 다닌 기간: 빈도(%)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6년 미만 | 6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 ~ 12년 미만 | 12년 이상    | 전체          |
|--------|----------|---------------|---------------|---------------|----------------|-----------|-------------|
| 빈도 (%) | 1 ( 0.3) | 11 ( 3.8)     | 50 (17.2)     | 146 (50.3)    | 53 (18.3)      | 29 (10.0) | 290 (100.0) |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에게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어느 학교급에서의 재학 경험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다(93.3%, 292명)고 응답하였고, 대학교에 다닌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3.5%(230명)로 매우 높았다.

표 IV-39. 한국에서 다닌 학교 : 빈도(%)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석사       | 대학원 박사      | 전체             |
|-----------|--------------|---------------|---------------|---------------|--------------|-------------|----------------|
| 빈도<br>(%) | 78<br>(24.9) | 151<br>(48.2) | 292<br>(93.3) | 230<br>(73.5) | 38<br>(12.1) | 6<br>( 1.9) | 313<br>(100.0) |

※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재학 경험이 있는 학교를 모두 응답한 항목임.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97명에게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그냥 다니고 싶지 않아서(68.0%, 66명)’였다. 그 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13.4%, 13명)’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으며,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6.2%, 6명)’를 이유로 응답한 이주배경청년도 있었다.

표 IV-40.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 빈도(%)

| 구분                       | 빈도(%)     |
|--------------------------|-----------|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     | 13( 13.4) |
|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서 | 4( 4.1)   |
| 한국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 2( 2.1)   |
|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6( 6.2)   |
|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아서            | 2( 2.1)   |
|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을 돌봐야 해서      | 1( 1.0)   |
| 그냥 다니고 싶지 않아서            | 66( 68.0) |
| 기타                       | 3( 3.1)   |
| 전체                       | 97(100.0) |

## ②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현황

본 설문조사에서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151명 가운데 13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나머지 138명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이하에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138명을 대상으로 학교를 다니는 이유, 대입 관련 사항, 대학(원) 만족도, 아르바이트 여부, 등록금 등을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IV-41. 현재 한국에서 다니고 있는 학교: 빈도(%)

| 구분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석사 과정 | 대학원 박사 과정 | 전체         |
|-------|----------|-----------|-----------|-----------|------------|
| 빈도(%) | 13( 8.8) | 100(66.2) | 32(21.2)  | 6( 4.0)   | 151(100.0) |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조사대상이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47.1%, 65명) 또는 ④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47.1%, 65명)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응답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는 ④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60.0%)를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으나, 여자는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60.3%)의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거주지에 따른 응답을 비교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은 ‘④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를 더 많이 선택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은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의 비율이 더 높았다.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유학비자(D-2)와 재외동포(F-4) 집단은 ‘④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의 비율이 더 높으나 거주(F-2)와 영주(F-5) 집단은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은 ‘④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집단은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의 경우,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은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의 비율이 더 높고,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은 ‘④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의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15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은 두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50%와 43.8%로 매우 비슷하였다.

표 IV-42. 현재 학교를 다니는 이유: 빈도(%)

| 구분                   |                  | 원하는 공부를<br>하고 싶어서 | 비자 연장을<br>위해서 | 원하는 직업을<br>얻기 위해 | 기타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30<br>(37.5)      | 2<br>( 2.5)   | 48<br>(60.0)     | 0<br>( 0.0) | 80<br>(100.0)  | 14.70**  |
|                      | 여자               | 35<br>(60.3)      | 4<br>( 6.9)   | 17<br>(29.3)     | 2<br>( 3.4) | 58<br>(100.0)  |          |
|                      | 전체               | 65<br>(47.1)      | 6<br>( 4.3)   | 65<br>(47.1)     | 2<br>( 1.4) | 138<br>(100.0) |          |
| 거주지                  | 서울               | 30<br>(36.6)      | 2<br>( 2.4)   | 49<br>(59.8)     | 1<br>( 1.2) | 82<br>(100.0)  | 17.46**  |
|                      | 경기인천             | 13<br>(50.0)      | 2<br>( 7.7)   | 10<br>(38.5)     | 1<br>( 3.8) | 26<br>(100.0)  |          |
|                      | 기타               | 22<br>(73.3)      | 2<br>( 6.7)   | 6<br>(20.0)      | 0<br>( 0.0) | 30<br>(100.0)  |          |
|                      | 전체               | 65<br>(47.1)      | 6<br>( 4.3)   | 65<br>(47.1)     | 2<br>( 1.4) | 138<br>(100.0)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10<br>(26.3)      | 5<br>(13.2)   | 23<br>(60.5)     | -           | 38<br>(100.0)  | 64.74*** |
|                      | 거주(F-2)          | 33<br>(91.7)      | -             | 3<br>(8.3)       | -           | 36<br>(100.0)  |          |
|                      | 재외동포<br>(F-4)    | 13<br>(25.5)      | -             | 36<br>(70.6)     | 2<br>( 3.9) | 51<br>(100.0)  |          |
|                      | 영주(F-5)          | 5<br>(62.5)       | -             | 3<br>(37.5)      | -           | 8<br>(100.0)   |          |
|                      | 동거(F-1<br>& F-3) | 2<br>(66.7)       | 1<br>(33.3)   | 0<br>( 0.0)      | -           | 3<br>(100.0)   |          |
|                      | 전체               | 63<br>(46.3)      | 6<br>( 4.4)   | 65<br>(47.8)     | 2<br>( 1.5) | 136<br>(100.0)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 17<br>(23.3)      | -             | 55<br>(75.3)     | 1<br>( 1.4) | 73<br>(100.0)  | 52.14*** |
|                      | 중학교<br>이상 재학     | 10<br>(83.3)      | -             | 2<br>(16.7)      | -           | 12<br>(100.0)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 33<br>(78.6)      | 3<br>( 7.1)   | 5<br>(11.9)      | 1<br>( 2.4) | 42<br>(100.0)  |          |
|                      | 전체               | 60<br>(47.2)      | 3<br>( 2.4)   | 62<br>(48.8)     | 2<br>( 1.6) | 127<br>(100.0) |          |

| 구분             |        | 원하는 공부를<br>하고 싶어서 | 비자 연장을<br>위해서 | 원하는 직업을<br>얻기 위해 | 기타          | 계              | $\chi^2$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38<br>(79.2)      | 3<br>( 6.3)   | 6<br>(12.5)      | 1<br>( 2.1) | 48<br>(100.0)  | 39.75*** |
|                | 15세 이전 | 8<br>(50.0)       | 1<br>( 6.3)   | 7<br>(43.8)      | -           | 16<br>(100.0)  |          |
|                | 16세 이후 | 19<br>(25.7)      | 2<br>( 2.7)   | 52<br>(70.3)     | 1<br>( 1.4) | 74<br>(100.0)  |          |
|                | 전체     | 65<br>(47.1)      | 6<br>( 4.3)   | 65<br>(47.1)     | 2<br>( 1.4) | 138<br>(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조사대상이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는 대학입시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의 도움이 1순위로 컸고(55.1%), 2순위로는 본인(56.3%)이 주로 준비하였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 밖에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1순위 6.5%, 2순위 9.4%)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표 IV-43.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1) 대학입시 전형 준비: 빈도(%)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본인                    | 41( 29.7)  | 72( 56.3)  |
| 부모님                   | 76( 55.1)  | 27( 21.1)  |
| 부모님 제외한 가족            | -          | 3( 2.3)    |
| 학교 선생님                | 9( 6.5)    | 12( 9.4)   |
| 학원(과외) 선생님            | 5( 3.6)    | 3( 2.3)    |
| 지역 청소년·이주배경 관련 기관 선생님 | 4( 2.9)    | 4( 3.1)    |
| 친구                    | 1( 0.7)    | 5( 3.9)    |
| 기타                    | 2( 1.4)    | 2( 1.6)    |
| 전체                    | 138(100.0) | 128(100.0) |

대학입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1순위로는 부모님(52.2%)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2순위로는 본인(55.1%)을 선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은 학교 선생님(1순위 10.1%, 2순위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2) 대학입시 관련 정보 제공: 빈도(%)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본인                    | 40( 29.0)  | 70( 55.1)  |
| 부모님                   | 72( 52.2)  | 25( 19.7)  |
| 부모님 제외한 가족            | 3( 2.2)    | 4( 3.1)    |
| 학교 선생님                | 14( 10.1)  | 16( 12.6)  |
| 학원(과외) 선생님            | 5( 3.6)    | 4( 3.1)    |
| 지역 청소년·이주배경 관련 기관 선생님 | 2( 1.4)    | 4( 3.1)    |
| 친구                    | 1( 0.7)    | 3( 2.4)    |
| 기타                    | 1( 0.7)    | 1( 0.8)    |
| 전체                    | 138(100.0) | 127(100.0) |

대학 진학여부 결정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1순위는 부모님(58.7%)이, 2순위로는 본인(57.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 선생님의 비율도 1순위에서는 5.1%, 2순위에서는 13.5%로 부모님과 본인 다음으로 높았는데 다른 항목에 비해 2순위에서의 비율이 더 높은 편이었다.

표 IV-45.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3) 대학 진학여부 결정: 빈도(%)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본인                    | 42( 30.4)  | 72( 57.1)  |
| 부모님                   | 81( 58.7)  | 28( 22.2)  |
| 부모님 제외한 가족            | 2( 1.4)    | 1( 0.8)    |
| 학교 선생님                | 7( 5.1)    | 17( 13.5)  |
| 학원(과외) 선생님            | 2( 1.4)    | 3( 2.4)    |
| 지역 청소년·이주배경 관련 기관 선생님 | 2( 1.4)    | 2( 1.6)    |
| 친구                    | 1( 0.7)    | 2( 1.6)    |
| 기타                    | 1( 0.7)    | 1( 0.8)    |
| 전체                    | 138(100.0) | 126(100.0) |

입학한 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1순위로는 부모님(58.0%)의 도움이 컸고, 2순위로는 본인(55.0%)이 선택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에 대해서도 부모님(1순위 52.2%)과 본인(53.5%)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V-46.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4) 입학한 대학 선택: 빈도(%)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본인                    | 44( 31.9)  | 71( 55.0)  |
| 부모님                   | 80( 58.0)  | 29( 22.5)  |
| 부모님 제외한 가족            | 2( 1.4)    | 5( 3.9)    |
| 학교 선생님                | 8( 5.8)    | 13( 10.1)  |
| 학원(과외) 선생님            | 2( 1.4)    | 5( 3.9)    |
| 지역 청소년·이주배경 관련 기관 선생님 | 2( 1.4)    | 3( 2.3)    |
| 친구                    | -          | 2( 1.6)    |
| 기타                    | -          | 1( 0.8)    |
| 전체                    | 138(100.0) | 129(100.0) |

표 IV-47. 대학입학에 도움을 준 사람: 5)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 빈도(%)

| 구분                    | 1순위        | 2순위        |
|-----------------------|------------|------------|
| 본인                    | 49( 35.5)  | 68( 53.5)  |
| 부모님                   | 72( 52.2)  | 32( 25.2)  |
| 부모님 제외한 가족            | 4( 2.9)    | 3( 2.4)    |
| 학교 선생님                | 7( 5.1)    | 11( 8.7)   |
| 학원(과외) 선생님            | 4( 2.9)    | 5( 3.9)    |
| 지역 청소년·이주배경 관련 기관 선생님 | 2( 1.4)    | 3( 2.4)    |
| 친구                    | -          | 4( 3.1)    |
| 기타                    | -          | 1( 0.8)    |
| 전체                    | 138(100.0) | 127(100.0) |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원) 만족도를 생활, 학업, 인간관계로 나누어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평균을 먼저 살펴보면, 생활 만족도 평균은 3.67, 학업 만족도 평균은

3.58, 인간관계 만족도 평균은 3.82로 대체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고, 학업 만족도가 다른 영역의 만족도에 비해 다소 낮았다.

각 만족도가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학업만족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남자의 학업만족도(평균 3.46)가 여자(평균 3.74)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에서는 세 영역 만족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영역의 만족도는 모두 유학비자(D-2) 집단 평균(생활 만족도 4.10, 학업 만족도 4.15, 인간관계 만족도 4.17)이 가장 높았다, 그 외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의 평균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으나, 영주(F-5) 집단의 인간관계 만족도(평균 2.91)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거주지, 한국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만족도 평균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48. 대학(원)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          | 구분                         | 빈도  | 대학(원)<br>생활 만족도     | 대학(원)<br>학업 만족도      | 대학(원)<br>인간관계 만족도       |
|----------|----------------------------|-----|---------------------|----------------------|-------------------------|
| 성별       | 남자                         | 80  | 3.61(0.61)          | 3.46(0.79)           | 3.82(0.54)              |
|          | 여자                         | 58  | 3.75(0.83)          | 3.74(0.80)           | 3.81(0.92)              |
|          | 전체                         | 138 | 3.67(0.71)          | 3.58(0.80)           | 3.82(0.72)              |
|          | <i>t</i>                   |     | -1.067              | -2.033*              | 0.085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82  | 3.75(0.65)          | 3.56(0.80)           | 3.90(0.71)              |
|          | 경기인천 <sup>b</sup>          | 28  | 3.71(0.83)          | 3.72(0.90)           | 3.70(0.92)              |
|          | 기타 <sup>c</sup>            | 30  | 3.43(0.75)          | 3.52(0.75)           | 3.70(0.53)              |
|          | 전체                         | 138 | 3.67(0.71)          | 3.58(0.80)           | 3.82(0.72)              |
|          | <i>F</i> (사후분석)            |     | 2.338               | 0.521                | 1.401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38  | 4.10(0.76)          | 4.15(0.91)           | 4.17(0.75)              |
|          | 거주(F-2) <sup>b</sup>       | 36  | 3.47(0.75)          | 3.49(0.67)           | 3.95(0.40)              |
|          | 재외동포(F-4) <sup>c</sup>     | 51  | 3.54(0.50)          | 3.22(0.56)           | 3.62(0.74)              |
|          | 영주(F-5) <sup>d</sup>       | 8   | 3.25(0.38)          | 3.25(0.58)           | 2.91(0.40)              |
|          | 동거(F-1 & F-3) <sup>e</sup> | 3   | 3.33(1.04)          | 3.67(0.58)           | 3.17(0.52)              |
|          | 전체                         | 136 | 3.66(0.71)          | 3.56(0.80)           | 3.81(0.72)              |
|          | <i>F</i><br>(사후분석)         |     | 5.33*<br>(b,c,d(a)) | 7.09**<br>(b,c,d(a)) | 9.04***<br>(d<c<a; d<b) |

| 구분                   |                         | 빈도  | 대학(원)<br>생활 만족도 | 대학(원)<br>학업 만족도 | 대학(원)<br>인간관계 만족도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a</sup> | 73  | 3.85(0.61)      | 3.63(0.87)      | 3.93(0.68)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12  | 3.81(0.62)      | 3.81(0.75)      | 3.71(0.66)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42  | 3.46(0.79)      | 3.48(0.75)      | 3.82(0.68)        |
|                      | 전체                      | 127 | 3.72(0.70)      | 3.6(0.82)       | 3.87(0.68)        |
|                      | <i>F</i> (사후분석)         |     | 3.864*(c(a)     | 1.078           | 0.801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48  | 3.51(0.80)      | 3.52(0.75)      | 3.83(0.69)        |
|                      | 15세 이전 <sup>b</sup>     | 16  | 3.52(0.80)      | 3.73(0.85)      | 3.61(0.98)        |
|                      | 16세 이후 <sup>c</sup>     | 74  | 3.81(0.61)      | 3.59(0.83)      | 3.85(0.68)        |
|                      | 전체                      | 138 | 3.67(0.71)      | 3.58(0.80)      | 3.82(0.72)        |
|                      | <i>F</i>                |     | 2.871           | 0.448           | 0.764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조사대상 가운데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10.9%(15명)에 불과하였다. 아르바이트 여부는 성별과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별의 경우, 여자 이주배경청년 가운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이 22.4%로 남자(2.5%)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체류자격의 경우는 영주(F-5) 또는 동거(F-1 & F-3) 집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비율(37.5%와 33.3%)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IV-49. 현재 아르바이트 여부: 빈도(%)

| 구분  |      | 예        | 아니오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2( 2.5)  | 78(97.5)  | 80(100.0)  | 13.76*** |
|     | 여자   | 13(22.4) | 45(77.6)  | 58(100.0)  |          |
|     | 전체   | 15(10.9) | 123(89.1) | 138(100.0) |          |
| 거주지 | 서울   | 5( 6.1)  | 77(93.9)  | 82(100.0)  | 4.84     |
|     | 경기인천 | 5(19.2)  | 21(80.8)  | 26(100.0)  |          |
|     | 기타   | 5(16.7)  | 25(83.3)  | 30(100.0)  |          |
|     | 전체   | 15(10.9) | 123(89.1) | 138(100.0) |          |



| 구분                   |               | 예        | 아니오        | 계          | $\chi^2$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4(10.5)  | 34( 89.5)  | 38(100.0)  | 9.77*    |
|                      | 거주(F-2)       | 1( 2.8)  | 35( 97.2)  | 36(100.0)  |          |
|                      | 재외동포(F-4)     | 6(11.8)  | 45( 88.2)  | 51(100.0)  |          |
|                      | 영주(F-5)       | 3(37.5)  | 5( 62.5)   | 8(100.0)   |          |
|                      | 동거(F-1 & F-3) | 1(33.3)  | 2( 66.7)   | 3(100.0)   |          |
|                      | 전체            | 15(11.0) | 121( 89.0) | 136(100.0)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5( 6.8)  | 68( 93.2)  | 73(100.0)  | 1.30     |
|                      | 중학교 이상 재학     | 0( 0.0)  | 12(100.0)  | 12(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4( 9.5)  | 38( 90.5)  | 42(100.0)  |          |
|                      | 전체            | 9( 7.1)  | 118( 92.9) | 127(100.0)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12.5)  | 42( 87.5)  | 48(100.0)  | 1.74     |
|                      | 15세 이전        | 3(18.8)  | 13( 81.3)  | 16(100.0)  |          |
|                      | 16세 이후        | 6( 8.1)  | 68( 91.9)  | 74(100.0)  |          |
|                      | 전체            | 15(10.9) | 123( 89.1) | 138(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대학 또는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조사대상은 대부분 부모의 도움(96.4%)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있었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23.2%) 또는 학교 장학금(12.3%)를 통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0. 2025년도 1학기 등록금을 마련한 방법: 빈도(%)

| 구분             | 빈도 (%)      |
|----------------|-------------|
| 부모의 도움         | 133 ( 96.4) |
| 형제, 자매의 도움     | 3 ( 2.2)    |
|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  | 2 ( 1.4)    |
| 본인이 벌어서 직접 마련함 | 6 ( 4.3)    |
| 학교 장학금         | 17 ( 12.3)  |
| 외부 후원금         | -           |
| 학자금 대출         | 32 ( 23.2)  |
| 전체             | 138 (100.0) |

※ 최대 2개의 주된 방법을 응답한 항목임.

조사대상이 인지하는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등록금 마련에 보통(41.3%)의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28.3%)는 비율도 높은 수준이었다.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는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F-2) 집단(평균 1.97)은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가 다른 집단보다 낮았고, 재외동포(F-4) 집단(평균 3.08)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1.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정도: 빈도(%)

| 구분          |                   | 전혀<br>부담을<br>느끼지<br>않는다 | 별로<br>부담을<br>느끼지<br>않는다 | 보통<br>이다     | 약간<br>부담을<br>느낀다 | 매우<br>부담을<br>느낀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3<br>(28.7)            | 6<br>( 7.5)             | 42<br>(52.5) | 4<br>( 5.0)      | 5<br>( 6.3)      | 80<br>(100.0)  | 2.53<br>(1.15)   | -1.16             |
|             | 여자                | 16<br>(27.6)            | 9<br>(15.5)             | 15<br>(25.9) | 7<br>(12.1)      | 11<br>(19.0)     | 58<br>(100.0)  | 2.79<br>(1.46)   |                   |
|             | 전체                | 39<br>(28.3)            | 15<br>(10.9)            | 57<br>(41.3) | 11<br>( 8.0)     | 16<br>(11.6)     | 138<br>(100.0) | 2.64<br>(1.29)   |                   |
| 거<br>주<br>지 | 서울 <sup>a</sup>   | 16<br>(19.5)            | 6<br>( 7.3)             | 47<br>(57.3) | 6<br>( 7.3)      | 7<br>( 8.5)      | 82<br>(100.0)  | 2.78<br>(1.11)   | 2.58              |
|             | 경기인천 <sup>b</sup> | 9<br>(34.6)             | 5<br>(19.2)             | 3<br>(11.5)  | 2<br>( 7.7)      | 7<br>(26.9)      | 26<br>(100.0)  | 2.73<br>(1.66)   |                   |
|             | 기타 <sup>c</sup>   | 14<br>(46.7)            | 4<br>(13.3)             | 7<br>(23.3)  | 3<br>(10.0)      | 2<br>( 6.7)      | 30<br>(100.0)  | 2.17<br>(1.32)   |                   |
|             | 전체                | 39<br>(28.3)            | 15<br>(10.9)            | 57<br>(41.3) | 11<br>( 8.0)     | 16<br>(11.6)     | 138<br>(100.0) | 2.64<br>(1.29)   |                   |

| 구분          |                            |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 보통 이다     | 약간 부담을 느낀다 | 매우 부담을 느낀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체류 자격       | 유학(D-2) <sup>a</sup>       | 14 (36.8)      | 7 (18.4)       | 6 (15.8)  | 6 (15.8)   | 5 (13.2)   | 38 (100.0)  | 2.50 (1.47) | 4.58* (b<c) |
|             | 거주(F-2) <sup>b</sup>       | 23 (63.9)      | 3 ( 8.3)       | 3 ( 8.3)  | 2 ( 5.6)   | 5 (13.9)   | 36 (100.0)  | 1.97 (1.5)  |             |
|             | 재외동포 (F-4) <sup>c</sup>    | 1 ( 2.0)       | 4 ( 7.8)       | 40 (78.4) | 2 ( 3.9)   | 4 ( 7.8)   | 51 (100.0)  | 3.08 (0.72) |             |
|             | 영주(F-5) <sup>d</sup>       | 1 (12.5)       | -              | 5 (62.5)  | 1 (12.5)   | 1 (12.5)   | 8 (100.0)   | 3.13 (1.13) |             |
|             | 동거(F-1 & F-3) <sup>e</sup> | -              | -              | 2 (66.7)  | -          | 1 (33.3)   | 3 (100.0)   | 3.67 (1.15) |             |
|             | 전체                         | 39 (28.7)      | 14 (10.3)      | 56 (41.2) | 11 ( 8.1)  | 16 (11.8)  | 136 (100.0) | 2.64 (1.3)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a</sup>    | 16 (21.9)      | 9 (12.3)       | 43 (58.9) | 4 ( 5.5)   | 1 ( 1.4)   | 73 (100.0)  | 2.52 (0.94) | 0.00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2 (16.7)       | 2 (16.7)       | 8 (66.7)  | -          | -          | 12 (100.0)  | 2.50 (0.8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21 (50.0)      | 3 ( 7.1)       | 4 ( 9.5)  | 3 ( 7.1)   | 11 (26.2)  | 42 (100.0)  | 2.52 (1.74) |             |
|             | 전체                         | 39 (30.7)      | 14 (11.0)      | 55 (43.3) | 7 ( 5.5)   | 12 ( 9.4)  | 127 (100.0) | 2.52 (1.25)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2 (45.8)      | 3 ( 6.3)       | 7 (14.6)  | 4 ( 8.3)   | 12 (25.0)  | 48 (100.0)  | 2.60 (1.70) | 1.38        |
|             | 15세 이전 <sup>b</sup>        | 1 ( 6.3)       | 3 (18.8)       | 7 (43.8)  | 5 (31.3)   | 0 ( 0.0)   | 16 (100.0)  | 3.00 (0.89) |             |
|             | 16세 이후 <sup>c</sup>        | 16 (21.6)      | 9 (12.2)       | 43 (58.1) | 2 ( 2.7)   | 4 ( 5.4)   | 74 (100.0)  | 2.58 (1.03) |             |
|             | 전체                         | 39 (28.3)      | 15 (10.9)      | 57 (41.3) | 11 ( 8.0)  | 16 (11.6)  | 138 (100.0) | 2.64 (1.29)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5) 진로·직업탐색 및 사회진입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및 직업탐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향후 한국에서의 진학 계획, 취업지원 서비스 및 직업훈련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더불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 고용 기간, 월평균 임금, 직업 만족도 등 조사하여 이들의 사회진입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① 진로·직업 탐색

먼저 향후 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198명, 48.3%)가 진학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학 계획의 유무는 거주지, 체류자격, 한국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집단을 비교하면, 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의 진학 계획 비율(63.9%)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체류자격에 따라서는 재외동포(F-4) 집단이 진학 계획 비율(70.5%)이 높았고, 영주(F-5)와 유학비자(D-2)의 진학 계획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31.6%와 34.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향후 더 공부할 계획을 가진 이주배경청년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진학 계획 비율은 17.5%에 불과하였다. 한국 입국 시기에서는 뚜렷한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16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진학 계획 비율이 57.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IV-52. 향후 더 공부할 계획: 빈도(%)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120(47.8) | 131(52.2) | 251(100.0) | 0.06     |
|     | 여자   | 78(49.1)  | 81(50.9)  | 159(100.0) |          |
|     | 전체   | 198(48.3) | 212(51.7)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86(38.7)  | 136(61.3) | 222(100.0) | 19.21*** |
|     | 경기인천 | 62(63.9)  | 35(36.1)  | 97(100.0)  |          |
|     | 기타   | 50(54.9)  | 41(45.1)  | 91(100.0)  |          |
|     | 전체   | 198(48.3) | 212(51.7) | 410(100.0) |          |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31(34.1)  | 60(65.9)  | 91(100.0)  | 33.79*** |
|                      | 거주(F-2)       | 42(45.2)  | 51(54.8)  | 93(100.0)  |          |
|                      | 재외동포(F-4)     | 62(70.5)  | 26(29.5)  | 88(100.0)  |          |
|                      | 영주(F-5)       | 24(31.6)  | 52(68.4)  | 76(100.0)  |          |
|                      | 동거(F-1 & F-3) | 12(57.1)  | 9(42.9)   | 21(100.0)  |          |
|                      | 전체            | 171(46.3) | 198(53.7) | 369(100.0)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17(17.5)  | 80(82.5)  | 97(100.0)  | 51.77***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81(55.5)  | 65(44.5)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36(53.7)  | 31(46.3)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53(67.1)  | 26(32.9)  | 79(100.0)  |          |
|                      | 전체            | 187(48.1) | 202(51.9) | 389(100.0)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7(42.4)  | 91(57.6)  | 158(100.0) | 8.22*    |
|                      | 15세 이전        | 42(43.3)  | 55(56.7)  | 97(100.0)  |          |
|                      | 16세 이후        | 89(57.4)  | 66(42.6)  | 155(100.0) |          |
|                      | 전체            | 198(48.3) | 212(51.7) | 410(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향후 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198명을 대상으로 희망 교육수준을 추가로 조사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4년제 이상 대학교(54.0%) 또는 대학원 이상(31.3%)을 희망하고 있었다. 희망 교육수준 역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대학원 이상을 희망 교육수준으로 응답한 여자의 비율(51.3%)이 남자보다 높았고, 2~3년제 또는 4년제 이상 대학교까지 교육받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13.3%와 65.8%)은 남자가 더 높았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과 경기 및 인천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대학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46.0%)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거주(F-2) 집단의 대학원 이상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88.1%로 매우 높았으며,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도 대학원 이상을 희망 교육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6%였다. 한국에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은 대학원 이상(59.7%)을 희망 교육수준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나 다른 집단은 모두 4년제 이상 대학교(15세 이전 입국 집단 52.4%, 16세 이후 입국 집단 73.0%)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표 IV-53. 희망 교육수준: 빈도(%)

| 구분                   |                  | 고등학교    | 대학교<br>(2~3년제) | 대학교<br>(4년제 이상) | 대학원<br>이상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3( 2.5) | 16(13.3)       | 79(65.8)        | 22(18.3)  | 120(100.0) | 26.51***  |
|                      | 여자               | 4( 5.1) | 6( 7.7)        | 28(35.9)        | 40(51.3)  | 78(100.0)  |           |
|                      | 전체               | 7( 3.5) | 22(11.1)       | 107(54.0)       | 62(31.3)  | 198(100.0) |           |
| 거주지                  | 서울               | 3( 3.5) | 3( 3.5)        | 55(64.0)        | 25(29.1)  | 86(100.0)  | 18.39**   |
|                      | 경기인천             | 2( 3.2) | 12(19.4)       | 34(54.8)        | 14(22.6)  | 62(100.0)  |           |
|                      | 기타               | 2( 4.0) | 7(14.0)        | 18(36.0)        | 23(46.0)  | 50(100.0)  |           |
|                      | 전체               | 7( 3.5) | 22(11.1)       | 107(54.0)       | 62(31.3)  | 198(100.0)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       | 1( 3.2)        | 23(74.2)        | 7(22.6)   | 31(100.0)  | 95.71***  |
|                      | 거주(F-2)          | -       | 1( 2.4)        | 4( 9.5)         | 37(88.1)  | 42(100.0)  |           |
|                      | 재외동포<br>(F-4)    | 3( 4.8) | 5( 8.1)        | 47(75.8)        | 7(11.3)   | 62(100.0)  |           |
|                      | 영주(F-5)          | 2( 8.3) | 7(29.2)        | 11(45.8)        | 4(16.7)   | 24(100.0)  |           |
|                      | 동거(F-1 &<br>F-3) | 1( 8.3) | 3(25.0)        | 6(50.0)         | 2(16.7)   | 12(100.0)  |           |
|                      | 전체               | 6( 3.5) | 17( 9.9)       | 91(53.2)        | 57(33.3)  | 171(100.0)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4(23.5) | 5(29.4)        | 6(35.3)         | 2(11.8)   | 17(100.0)  | 100.10***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 -       | 5( 6.2)        | 65(80.2)        | 11(13.6)  | 81(100.0)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 3( 8.3) | 6(16.7)        | 21(58.3)        | 6(16.7)   | 36(100.0)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 -       | 3( 5.7)        | 11(20.8)        | 39(73.6)  | 53(100.0)  |           |
|                      | 전체               | 7( 3.7) | 19(10.2)       | 103(55.1)       | 58(31.0)  | 187(100.0)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2( 3.0) | 5( 7.5)        | 20(29.9)        | 40(59.7)  | 67(100.0)  | 47.37***  |
|                      | 15세 이전           | 2( 4.8) | 10(23.8)       | 22(52.4)        | 8(19.0)   | 42(100.0)  |           |
|                      | 16세 이후           | 3( 3.4) | 7( 7.9)        | 65(73.0)        | 14(15.7)  | 89(100.0)  |           |
|                      | 전체               | 7( 3.5) | 22(11.1)       | 107(54.0)       | 62(31.3)  | 198(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조사대상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현재 대부분 취업정보 수집(26.1%), 특정 기술 배움(24.8%), 자격증 취득 시험 준비(24.1%), 한국어 공부(23.1%)를 하고 있었으며,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주배경청년도 103명(25.1%) 있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대학 진학 준비, 영어 공부, 한국국적 취득 준비 등이 있었다.

표 IV-54.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노력: 빈도(%)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 71( 23.1)  | 10( 5.2)  | 18(20.5) |
|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 74( 24.1)  | 71(37.0)  | 17(19.3) |
|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 76( 24.8)  | 69(35.9)  | 19(21.6) |
|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80( 26.1)  | 38(19.8)  | 34(38.6) |
| 기타                 | 6( 2.0)    | 4( 2.1)   | -        |
|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 103( 25.1) | -         | -        |
| 전체                 | 410(100.0) | 192(46.8) | 88(21.5) |

지난 1년간 조사대상이 받은 취업지원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였고, 각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섯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① 면접준비 및 자소서 작성과정, ② 현장실습 경험, ③ 인턴과정, ④ 일자리 소개 및 연결, ⑤ 자격증 취득 지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22.7%다. 전반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지 않았으며, 인턴과정을 지원받은 경험(14.4%)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자격증 취득 지원(22.7%)을 받은 경험은 다른 서비스보다는 다소 많은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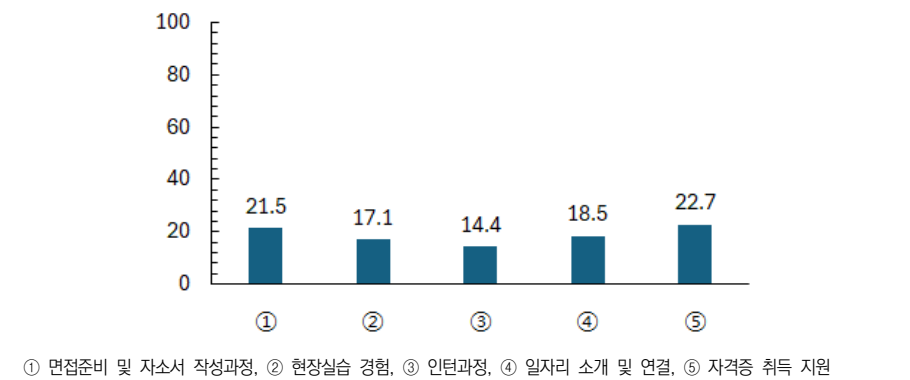


그림 IV-4.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비율)

집단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경향이 있었다. 지역의 경우,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더 많았으며, 체류자격이 거주(F-2)인 집단도 다른 체류자격 집단에 비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과 15세 이전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이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다섯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표 IV-55.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 빈도(%)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성별       | 남자              | 45(17.9) | 35(13.9) | 28(11.2) | 40(15.9) | 42(16.7) |
|          | 여자              | 43(27.0) | 35(22.0) | 31(19.5) | 36(22.6) | 51(32.1) |
|          | 전체              | 88(21.5) | 70(17.1) | 59(14.4) | 76(18.5) | 93(22.7) |
|          | $\chi^2$        | 4.80*    | 4.48*    | 5.50*    | 2.90     | 13.07*** |
| 거주지      | 서울              | 27(12.2) | 20( 9.0) | 23(10.4) | 21( 9.5) | 30(13.5) |
|          | 경기인천            | 25(25.8) | 17(17.5) | 9( 9.3)  | 20(20.6) | 20(20.6) |
|          | 기타              | 36(39.6) | 33(36.3) | 27(29.7) | 35(38.5) | 43(47.3) |
|          | 전체              | 88(21.5) | 70(17.1) | 59(14.4) | 76(18.5) | 93(22.7) |
|          | $\chi^2$        | 30.14*** | 33.88*** | 22.23*** | 36.32*** | 42.20*** |
| 체류자격     | 유학(D-2)         | 6( 6.6)  | 4( 4.4)  | 4( 4.4)  | 3( 3.3)  | 6( 6.6)  |
|          | 거주(F-2)         | 41(44.1) | 35(37.6) | 33(35.5) | 37(39.8) | 48(51.6) |
|          | 재외동포(F-4)       | 16(18.2) | 7( 8.0)  | 8( 9.1)  | 9(10.2)  | 7( 8.0)  |
|          | 영주(F-5)         | 13(17.1) | 8(10.5)  | 2( 2.6)  | 18(23.7) | 14(18.4) |
|          | 동거(F-1 & F-3)   | 4(19.0)  | 5(23.8)  | 2( 9.5)  | 3(14.3)  | 5(23.8)  |
|          | 전체 <sup>1</sup> | 80(21.7) | 59(16.0) | 49(13.3) | 70(19.0) | 80(21.7) |
|          | $\chi^2$        | 41.35*** | 48.42*** | 55.13*** | 46.53*** | 71.57*** |
| 한국학교재학경험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5( 5.2)  | 6( 6.2)  | 2( 2.1)  | 7( 7.2)  | 5( 5.2)  |
|          | 중학교 이상 재학       | 22(15.1) | 14( 9.6) | 10( 6.8) | 15(10.3) | 23(15.8)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18(26.9) | 12(17.9) | 9(13.4)  | 18(26.9) | 20(29.9) |
|          | 전체 <sup>2</sup> | 40(50.6) | 36(45.6) | 34(43.0) | 32(40.5) | 39(49.4) |
|          | $\chi^2$        | 59.08*** | 58.10*** | 72.42*** | 43.21*** | 55.56*** |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85(21.9) | 68(17.5) | 55(14.1) | 72(18.5) | 87(22.4) |
|                | 15세 이전   | 45(28.5) | 45(28.5) | 39(24.7) | 43(27.2) | 52(32.9) |
|                | 16세 이후   | 21(21.6) | 11(11.3) | 9( 9.3)  | 16(16.5) | 15(15.5) |
|                | 전체       | 22(14.2) | 14( 9.0) | 11( 7.1) | 17(11.0) | 26(16.8) |
|                | $\chi^2$ | 9.48**   | 23.85*** | 22.34*** | 14.03**  | 15.39*** |

① 면접준비 및 자소서 작성과정, ② 현장실습 경험, ③ 인턴과정, ④ 일자리 소개 및 연결, ⑤ 자격증 취득 지원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각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은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각 서비스의 필요성 평균은 4.09~4.23이었고, 상대적으로 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던 ⑤ 자격증 취득지원의 필요성 평균이 4.23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한편, 서비스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③ 인턴과정의 필요성도 평균 4.2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표 IV-56. 취업지원 서비스 필요성: 빈도(%)

| 구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          | -          | -          | -          |
| 별로 필요하지 않다 | 1( 0.2)    | -          | -          | 2( 0.5)    | -          |
| 보통이다       | 18( 4.4)   | 18( 4.4)   | 12( 2.9)   | 16( 3.9)   | -          |
| 약간 필요하다    | 39( 9.5)   | 28( 6.8)   | 23( 5.6)   | 32( 7.8)   | 12( 2.9)   |
| 매우 필요하다    | 30( 7.3)   | 24( 5.9)   | 24( 5.9)   | 26( 6.3)   | 48(11.7)   |
| 전체         | 88(21.5)   | 70(17.1)   | 59(14.4)   | 76(18.5)   | 33( 8.0)   |
| 평균(표준편차)   | 4.11(0.76) | 4.09(0.78) | 4.20(0.76) | 4.08(0.81) | 4.23(0.66) |

① 면접준비 및 자소서 작성과정, ② 현장실습 경험, ③ 인턴과정, ④ 일자리 소개 및 연결, ⑤ 자격증 취득 지원  
 1) 각 취업지원 서비스 경험이 있는 대상만 응답함.

한국에서 직업훈련의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1.0%(373명)가 직업훈련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직업훈련 경험의 비율은 성별을 제외한 집단에 따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직업훈련

경험(22.0%)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영주(F-5) 자격 집단도 직업훈련을 받은 비율이 23.7%로 다른 체류자격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 재학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22.4%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5세 이전 한국에 입국한 집단은 13.4%가 직업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직업훈련을 받은 이주배경청년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57. 직업훈련 경험: 빈도(%)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26(10.4) | 225(89.6) | 251(100.0) | 1.40     |
|            | 여자            | 11( 6.9) | 148(93.1) | 159(100.0) |          |
|            | 전체            | 37( 9.0) | 373(91.0)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3( 1.4)  | 219(98.6) | 222(100.0) | 37.98*** |
|            | 경기인천          | 14(14.4) | 83(85.6)  | 97(100.0)  |          |
|            | 기타            | 20(22.0) | 71(78.0)  | 91(100.0)  |          |
|            | 전체            | 37( 9.0) | 373(91.0) | 410(100.0) |          |
| 체류자격       | 유학(D-2)       | 2( 2.2)  | 89(97.8)  | 91(100.0)  | 28.90*** |
|            | 거주(F-2)       | 6( 6.5)  | 87(93.5)  | 93(100.0)  |          |
|            | 재외동포(F-4)     | 4( 4.5)  | 84(95.5)  | 88(100.0)  |          |
|            | 영주(F-5)       | 18(23.7) | 58(76.3)  | 76(100.0)  |          |
|            | 동거(F-1 & F-3) | 3(14.3)  | 18(85.7)  | 21(100.0)  |          |
|            | 전체            | 33( 8.9) | 336(91.1) | 369(100.0) |          |
| 한국학교 재학 경험 | 없음            | 4( 4.1)  | 93(95.9)  | 97(100.0)  | 20.84***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8( 5.5)  | 138(94.5)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15(22.4) | 52(77.6)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6( 7.6)  | 73(92.4)  | 79(100.0)  |          |
|            | 전체            | 33( 8.5) | 356(91.5) | 389(100.0) |          |
| 한국입국시기     | 12세 이전        | 10( 6.3) | 148(93.7) | 158(100.0) | 3.66*    |
|            | 15세 이전        | 13(13.4) | 84(86.6)  | 97(100.0)  |          |
|            | 16세 이후        | 14( 9.0) | 141(91.0) | 155(100.0) |          |
|            | 전체            | 37( 9.0) | 373(91.0) | 410(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37명 이주배경청년에게 어떤 목적으로 직업훈련을 받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조사대상이 13명(35.1%)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취·창업 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V-58. 직업훈련을 받은 목적: 빈도(%)

| 구분             | 빈도 (%)    |
|----------------|-----------|
| 취·창업을 위해       | 8( 21.6)  |
|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 13( 35.1) |
| 경력개발을 위해       | 7( 18.9)  |
| 자격증 취득을 위해     | 8( 21.6)  |
|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 1( 2.7)   |
| 전체             | 37(100.0) |

※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대상만 응답한 항목임.

직업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373명에게는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의 42.1%(157명)가 직업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이어서 시간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19.8%, 74명)는 이주배경청년도 많았다.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가 이주배경청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직업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유학비자(D-2) 집단은 시간이 없어서 받지 않았다는 응답이 58.4%(52명)로 가장 많았고, 한국에서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 역시 같은 이유로 직업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53.8%(50명)였다.

표 IV-59.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이유: 빈도(%)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90(40.0)  | 24(10.7) | 16( 7.1) | 21( 9.3) | 6( 2.7)  | 64(28.4) | 4( 1.8) | 0( 0.0) | 225(100.0) | 38.26**   |
|      | 여자            | 67(45.3)  | 16(10.8) | 19(12.8) | 16(10.8) | 16(10.8) | 10( 6.8) | 2( 1.4) | 2( 1.4) | 148(100.0) |           |
|      | 전체            | 157(42.1) | 40(10.7) | 35( 9.4) | 37( 9.9) | 22( 5.9) | 74(19.8) | 6( 1.6) | 2( 0.5) | 373(100.0) |           |
| 거주지  | 서울            | 95(43.4)  | 20( 9.1) | 17( 7.8) | 13( 5.9) | 13( 5.9) | 59(26.9) | 2( 0.9) | 0( 0.0) | 219(100.0) | 35.90**   |
|      | 경기인천          | 33(39.8)  | 9(10.8)  | 10(12.0) | 13(15.7) | 4( 4.8)  | 9(10.8)  | 3( 3.6) | 2( 2.4) | 83(100.0)  |           |
|      | 기타            | 29(40.8)  | 11(15.5) | 8(11.3)  | 11(15.5) | 5( 7.0)  | 6( 8.5)  | 1( 1.4) | 0( 0.0) | 71(100.0)  |           |
|      | 전체            | 157(42.1) | 40(10.7) | 35( 9.4) | 37( 9.9) | 22( 5.9) | 74(19.8) | 6( 1.6) | 2( 0.5) | 373(100.0) |           |
| 체류지역 | 유학(D-2)       | 20(22.5)  | 7( 7.9)  | 2( 2.2)  | 6( 6.7)  | 1( 1.1)  | 52(58.4) | 1( 1.1) | 0( 0.0) | 89(100.0)  | 168.99*** |
|      | 거주(F-2)       | 38(43.7)  | 9(10.3)  | 13(14.9) | 12(13.8) | 14(16.1) | 1( 1.1)  | 0( 0.0) | 0( 0.0) | 87(100.0)  |           |
|      | 재외동포(F-4)     | 58(69.0)  | 8( 9.5)  | 5( 6.0)  | 4( 4.8)  | 2( 2.4)  | 4( 4.8)  | 2( 2.4) | 1( 1.2) | 84(100.0)  |           |
|      | 영주(F-5)       | 21(36.2)  | 11(19.0) | 4( 6.9)  | 6(10.3)  | 1( 1.7)  | 14(24.1) | 0( 0.0) | 1( 1.7) | 58(100.0)  |           |
|      | 동거(F-1 & F-3) | 6(33.3)   | 2(11.1)  | 2(11.1)  | 5(27.8)  | 2(11.1)  | 0( 0.0)  | 1( 5.6) | 0( 0.0) | 18(100.0)  |           |
|      | 전체            | 143(42.6) | 37(11.0) | 26( 7.7) | 33( 9.8) | 20( 6.0) | 71(21.1) | 4( 1.2) | 2( 0.6) | 336(100.0) |           |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계          | $\chi^2$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13(14.0)  | 7( 7.5)  | 5( 5.4)  | 13(14.0) | 3( 3.2)  | 50(53.8) | 2( 2.2) | 0( 0.0) | 93(100.0)  | 131.83**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68(49.3)  | 17(12.3) | 14(10.1) | 8( 5.8)  | 14(10.1) | 17(12.3) | 0( 0.0) | 0( 0.0) | 138(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24(46.2)  | 10(19.2) | 7(13.5)  | 7(13.5)  | 1( 1.9)  | 2( 3.8)  | 1( 1.9) | 0( 0.0) | 52(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45(61.6)  | 6( 8.2)  | 8(11.0)  | 6( 8.2)  | 1( 1.4)  | 3( 4.1)  | 2( 2.7) | 2( 2.7) | 73(100.0)  |          |
|                      | 전체         | 150(42.1) | 40(11.2) | 34( 9.6) | 34( 9.6) | 19( 5.3) | 72(20.2) | 5( 1.4) | 2( 0.6) | 356(100.0)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1(41.2)  | 12( 8.1) | 10( 6.8) | 8( 5.4)  | 3( 2.0)  | 49(33.1) | 4( 2.7) | 1( 0.7) | 148(100.0) | 51.25*** |
|                      | 15세 이전     | 33(39.3)  | 10(11.9) | 15(17.9) | 13(15.5) | 4( 4.8)  | 7( 8.3)  | 1( 1.2) | 1( 1.2) | 84(100.0)  |          |
|                      | 16세 이후     | 63(44.7)  | 18(12.8) | 10( 7.1) | 16(11.3) | 15(10.6) | 18(12.8) | 1( 0.7) | 0( 0.0) | 141(100.0) |          |
|                      | 전체         | 157(42.1) | 40(10.7) | 35( 9.4) | 37( 9.9) | 22( 5.9) | 74(19.8) | 6( 1.6) | 2( 0.5) | 373(100.0) |          |

※ 직업훈련 경험이 없는 대상만 응답한 항목임.

① 직업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②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③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④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⑤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받지 못했다. ⑥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 ⑦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받지 못했다. ⑧ 기타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52.4%(215명)가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은 집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71.1%로 매우 높았다.

다섯 가지 체류자격 집단 중에서는 재외동포(F-4)의 78.4%가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있는 모든 집단은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는 비율이 50%보다 높았으나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은 17.5%로 매우 낮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나, 12세 이전 입국한 집단의 비율(41.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낮았다.

표 IV-60. 향후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 빈도(%)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119(47.4) | 132(52.6) | 251(100.0) | 1.40     |
|             | 여자            | 96(60.4)  | 63(39.6)  | 159(100.0) |          |
|             | 전체            | 215(52.4) | 195(47.6)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96(43.2)  | 126(56.8) | 222(100.0) | 37.98*** |
|             | 경기인천          | 69(71.1)  | 28(28.9)  | 97(100.0)  |          |
|             | 기타            | 50(54.9)  | 41(45.1)  | 91(100.0)  |          |
|             | 전체            | 215(52.4) | 195(47.6) | 410(100.0) |          |
| 체류자격        | 유학(D-2)       | 36(39.6)  | 55(60.4)  | 91(100.0)  | 28.90*** |
|             | 거주(F-2)       | 44(47.3)  | 49(52.7)  | 93(100.0)  |          |
|             | 재외동포(F-4)     | 69(78.4)  | 19(21.6)  | 88(100.0)  |          |
|             | 영주(F-5)       | 33(43.4)  | 43(56.6)  | 76(100.0)  |          |
|             | 동거(F-1 & F-3) | 10(47.6)  | 11(52.4)  | 21(100.0)  |          |
|             | 전체            | 192(52.0) | 177(48.0) | 369(100.0)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 17(17.5)  | 80(82.5)  | 97(100.0)  | 20.84***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96(65.8)  | 50(34.2)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40(59.7)  | 27(40.3)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49(62.0)  | 30(38.0)  | 79(100.0)  |          |
|             | 전체            | 202(51.9) | 187(48.1) | 389(100.0) |          |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5(41.1)  | 93(58.9)  | 158(100.0) | 3.66*    |
|                | 15세 이전 | 47(48.5)  | 50(51.5)  | 97(100.0)  |          |
|                | 16세 이후 | 103(66.5) | 52(33.5)  | 155(100.0) |          |
|                | 전체     | 215(52.4) | 195(47.6) | 410(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조사대상이 구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을 아홉 가지로 제시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30.2%(124명)는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응답한 이주배경청년은 주로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25.9%, 106명)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은 집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여자(25.8%), 경기 및 인천 거주자(26.8%), 기타 지역 거주자(25.3%), 재외동포(F-4) 소지자(59.1%),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43.8%), 16세 이후 한국에 입국한 집단(40.0%)은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을 구직 과정의 어려움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편, 한국에서 중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은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는 점을 어려움으로 느끼는 비율(22.4%)이 가장 높았다.

표 IV-61. 구직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 빈도(%)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
|------|---------------|-----------|-----------|----------|----------|-----------|----------|----------|----------|----------|------------|
| 성별   | 남자            | 96(38.2)  | 65(25.9)  | 25(10.0) | 13( 5.2) | 22( 8.8)  | 13( 5.2) | 7( 2.8)  | 4( 1.6)  | 6( 2.4)  | 25(100.0)  |
|      | 여자            | 28(17.6)  | 41(25.8)  | 23(14.5) | 19(11.9) | 16(10.1)  | 13( 8.2) | 4( 2.5)  | 6( 3.8)  | 9( 5.7)  | 159(100.0) |
|      | 전체            | 124(30.2) | 106(25.9) | 48(11.7) | 32( 7.8) | 38( 9.3)  | 26( 6.3) | 11( 2.7) | 10( 2.4) | 15( 3.7) | 410(100.0) |
| 거주지  | 서울            | 103(46.4) | 57(25.7)  | 23(10.4) | 10( 4.5) | 11( 5.0)  | 10( 4.5) | 3( 1.4)  | 3( 1.4)  | 2( 0.9)  | 222(100.0) |
|      | 경기/인천         | 8( 8.2)   | 26(26.8)  | 13(13.4) | 13(13.4) | 11(11.3)  | 11(11.3) | 6( 6.2)  | 3( 3.1)  | 6( 6.2)  | 97(100.0)  |
|      | 기타            | 13(14.3)  | 23(25.3)  | 12(13.2) | 9( 9.9)  | 16(17.6)  | 5( 5.5)  | 2( 2.2)  | 4( 4.4)  | 7( 7.7)  | 91(100.0)  |
|      | 전체            | 124(30.2) | 106(25.9) | 48(11.7) | 32( 7.8) | 38( 9.3)  | 26( 6.3) | 11( 2.7) | 10( 2.4) | 15( 3.7) | 410(100.0) |
| 체류지역 | 유학(D-2)       | 52(57.1)  | 22(24.2)  | 4( 4.4)  | 2( 2.2)  | 2( 2.2)   | 1( 1.1)  | 1( 1.1)  | 5( 5.5)  | 2( 2.2)  | 91(100.0)  |
|      | 거주(F-2)       | 33(35.5)  | 12(12.9)  | 18(19.4) | 9( 9.7)  | 13( 14.0) | 3( 3.2)  | 1( 1.1)  | 2( 2.2)  | 2( 2.2)  | 93(100.0)  |
|      | 재외동포(F-4)     | 8( 9.1)   | 52(59.1)  | 7( 8.0)  | 5( 5.7)  | 5( 5.7)   | 6( 6.8)  | 4( 4.5)  | 1( 1.1)  | 0( 0.0)  | 88(100.0)  |
|      | 영주(F-5)       | 29(38.2)  | 6( 7.9)   | 10(13.2) | 3( 3.9)  | 10(13.2)  | 14(18.4) | 1( 1.3)  | 0( 0.0)  | 3( 3.9)  | 76(100.0)  |
|      | 동거(F-1 & F-3) | 0( 0.0)   | 4(19.0)   | 2( 9.5)  | 8(38.1)  | 3(14.3)   | 0( 0.0)  | 0( 0.0)  | 0( 0.0)  | 4( 19.0) | 21(100.0)  |
|      | 전체            | 122(33.1) | 96(26.0)  | 41(11.1) | 27( 7.3) | 33( 8.9)  | 24( 6.5) | 7( 1.9)  | 8( 2.2)  | 11( 3.0) | 369(100.0) |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계          |
|----------------------|------------|-----------|-----------|----------|----------|----------|----------|----------|----------|----------|------------|
| 한국<br>학교<br>제학<br>경험 | 없음         | 53(54.6)  | 8( 8.2)   | 6( 6.2)  | 9( 9.3)  | 11(11.3) | 4( 4.1)  | 1( 1.0)  | 2( 2.1)  | 3( 3.1)  | 97(100.0)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34(23.3)  | 64(43.8)  | 17(11.6) | 5( 3.4)  | 8( 5.5)  | 6( 4.1)  | 3( 2.1)  | 7( 4.8)  | 2( 1.4)  | 146(100.0) |
|                      | 중학교 이상 재학  | 10(14.9)  | 8(11.9)   | 15(22.4) | 7(10.4)  | 9(13.4)  | 10(14.9) | 5( 7.5)  | 0( 0.0)  | 3( 4.5)  | 67(100.0)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26(32.9)  | 19(24.1)  | 9(11.4)  | 7( 8.9)  | 6( 7.6)  | 6( 7.6)  | 0( 0.0)  | 0( 0.0)  | 6( 7.6)  | 79(100.0)  |
|                      | 전체         | 123(31.6) | 99(25.4)  | 47(12.1) | 28( 7.2) | 34( 8.7) | 26( 6.7) | 9( 2.3)  | 9( 2.3)  | 14( 3.6) | 389(100.0)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73(46.2)  | 27(17.1)  | 16(10.1) | 11( 7.0) | 12( 7.6) | 8( 5.1)  | 1( 0.6)  | 2( 1.3)  | 8( 5.1)  | 158(100.0) |
|                      | 15세 이전     | 25(25.8)  | 17(17.5)  | 16(16.5) | 13(13.4) | 13(13.4) | 7( 7.2)  | 4( 4.1)  | 1( 1.0)  | 1( 1.0)  | 97(100.0)  |
|                      | 16세 이후     | 26(16.8)  | 62(40.0)  | 16(10.3) | 8( 5.2)  | 13( 8.4) | 11( 7.1) | 6( 3.9)  | 7( 4.5)  | 6( 3.9)  | 155(100.0) |
|                      | 전체         | 124(30.2) | 106(25.9) | 48(11.7) | 32( 7.8) | 38( 9.3) | 26( 6.3) | 11( 2.7) | 10( 2.4) | 15( 3.7) | 410(100.0) |

① 어려운 점 없음, ②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③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 ④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다는 점, ⑤ 학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 ⑥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 방법을 모른다는 점, ⑦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 ⑧ 가족이 반대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⑨ 체류자격의 문제 때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② 사회진입

조사대상 중에서 현재 일 하고 있는 73명과 대학(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15명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 고용기간, 직업 만족도 등 사회진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을 조사하였다.

먼저, 현재 직장을 찾을 때 일자리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족 및 친구 등 연고자의 소개(36.4%)로 현재 직장을 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회사의 공개채용(28.4%)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도 많았고, 기타 응답으로는 인터넷 구인정보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IV-62. 현재 직장 구직 시 일자리 정보 출처: 빈도(%)

| 구분                                      | 빈도 (%)    |
|-----------------------------------------|-----------|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6( 6.8)   |
| 기타 공공 취업 알선기관(새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 8( 9.1)   |
| 회사의 공개채용                                | 25( 28.4) |
| 한국 내 사설 직업소개소                           | 7( 8.0)   |
| 비정부기구(NGO), 종교단체(외국인근로자 상담소 포함), 동포지원단체 | 2( 2.3)   |
| 비공식 중개인 소개                              | 4( 4.5)   |
| 가족, 친구, 친인척 등 연고자 소개                    | 32( 36.4) |
| 기타                                      | 4( 4.5)   |
| 전체                                      | 88(100.0) |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일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88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인 상용근로자가 55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많은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인 임시근로자(18명, 20.5%)였다. 조사 결과, 88명 가운데 78명은 임금근로자이고 10명은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63. 현재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빈도(%)

| 구분     |              | 빈도 (%)    |
|--------|--------------|-----------|
| 임금근로자  | 상용근로자        | 55( 62.5) |
|        | 임시근로자        | 18( 20.5) |
|        | 일용근로자        | 5( 5.7)   |
| 비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2( 2.3)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 2.3)   |
|        | 무급가족종사자      | 6( 6.8)   |
| 전체     |              | 88(100.0) |

임금근로자인 78명 조사대상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64.1%(50명)였고,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의 1년 이상~2년 미만으로 고용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10명)가 가장 많았다.

표 IV-64. 고용계약 기간: 빈도(%)

| 구분        | 고용계약 기간<br>정하지 않음 | 고용계약 기간 정함  |             |             |              |             |             |              | 전체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계            |               |
| 빈도<br>(%) | 50<br>(64.1)      | 2<br>( 2.6) | 3<br>( 3.8) | 6<br>( 7.7) | 10<br>(12.8) | 2<br>( 2.6) | 5<br>( 6.4) | 28<br>(35.9) | 78<br>(100.0) |

※ 임금근로자인 경우만 응답하는 항목임.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 ~ 1년 미만, ④ 1년 이상 ~ 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조사대상의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이 35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 근로시간은 초과하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 경우는 28명(31.8%) 있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이주배경청년도 7명(8.0%) 있었다.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45명, 51.1%)이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도 23명(26.1%) 있었다. 또한, 2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7명(19.3%) 있었다.

표 IV-65. 최근 3개월 동안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 빈도(%)

| 구분    | 40시간 미만  | 40시간     | 40시간 초과 ~ 52시간 이하 | 52시간 초과 | 전체        |
|-------|----------|----------|-------------------|---------|-----------|
| 빈도(%) | 18(20.5) | 35(39.8) | 28(31.8)          | 7( 8.0) | 88(100.0) |

표 IV-66.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임금: 빈도(%)

| 구분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br>200만원 미만 | 200만원 이상~<br>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br>400만원 미만 | 400만원 이상 | 전체        |
|-------|----------|-----------------------|-----------------------|-----------------------|----------|-----------|
| 빈도(%) | 9(10.2)  | 8( 9.1)               | 45(51.1)              | 23(26.1)              | 3( 3.4)  | 88(100.0) |

조사대상의 현재 하는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근로조건에 만족해서(35.2%)’였고,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6.1%)’를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특히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는 2, 3순위에서 모두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반면에 1순위로 ‘흥미와 적성(전공)에 맞아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경우는 없었다.

표 IV-67.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이유: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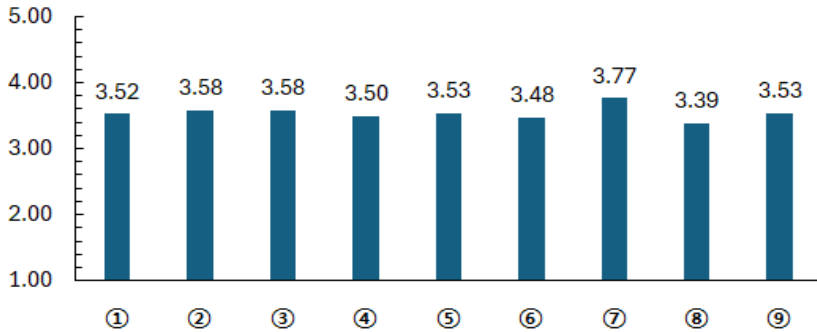
|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                                 | 빈도(%)     | 빈도(%)     | 빈도(%)     |
|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해서          | 31( 35.2) | 1( 1.5)   | 3( 7.0)   |
|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 11( 12.5) | 17( 25.0) | 4( 9.3)   |
|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23( 26.1) | 16( 23.5) | 11( 25.6) |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4( 4.5)   | 5( 7.4)   | 4( 9.3)   |
|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3( 3.4)   | 6( 8.8)   | 3( 7.0)   |
|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 2( 2.3)   | 5( 7.4)   | 2( 4.7)   |
|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 -         | 1( 1.5)   | -         |
|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 2( 2.3)   | 5( 7.4)   | 3( 7.0)   |
|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 6( 6.8)   | 5( 7.4)   | 5( 11.6)  |
|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 3( 3.4)   | 2( 2.9)   | 2( 4.7)   |
|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 1( 1.1)   | 3( 4.4)   | 3( 7.0)   |
|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 1( 1.1)   | 1( 1.5)   | 1( 2.3)   |
| 흥미와 적성(전공)에 맞아서                 | -         | 1( 1.5)   | 2( 4.7)   |
| 기타                              | 1( 1.1)   | -         | -         |
| 전체                              | 88(100.0) | 68(100.0) | 43(100.0)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조사대상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55명 (62.5%)이고, 나머지 33명은 현재 일을 하고는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고 응답 하였다. 이들이 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라는 응답(14명, 42.4%)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7명, 21.2%)’와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해서(5명, 15.2%)’라고 응답한 경우 다수 있었다.

표 IV-68.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빈도(%)

| 구분                              | 빈도 (%)    |
|---------------------------------|-----------|
|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 14( 42.4) |
|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이 아니어서 | 2( 6.1)   |
|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 3( 9.1)   |
|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 7( 21.2)  |
| 한국의 직장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 1( 3.0)   |
| 내가 원하는 일을 부모님이 반대해서             | 1( 3.0)   |
|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해서                   | 5( 15.2)  |
| 원하는 직장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 -         |
| 전체                              | 33(100.0) |

현재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를 전반적인 만족도를 포함하여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53이고, 다른 항목의 만족도 평균은 3.39~3.77 사이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상대적으로 만족도 평균이 낮은 항목은 ⑧ 개인의 발전 가능성(평균 3.39)이었고, ⑦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평균 3.77)가 다소 높은 편이었다. 한편, ③ 복리후생 만족도는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13.3%)와 매우 만족한다(21.7%)의 비율이 모두 높았다.



① 급여수준, ② 고용 안정성, ③ 복리후생, ④ 근무내용, ⑤ 근무시간 및 업무량, ⑥ 근무환경, ⑦ 직장 내 인간관계, ⑧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⑨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IV-5. 직업 만족도(평균)

표 IV-69. 직업 만족도: 빈도(%)

| 구분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  | 전체        |
|-------------------------|-------------|-------------|----------|----------|----------|-----------|
| 급여수준                    | 2( 2.3)     | 6( 6.8)     | 34(38.6) | 36(40.9) | 10(11.4) | 88(100.0) |
| 고용 안정성                  | 4( 4.5)     | 7( 8.0)     | 26(29.5) | 36(40.9) | 15(17.0) | 88(100.0) |
| 복리후생 <sup>1)</sup>      | 3( 3.6)     | 11(13.3)    | 22(26.5) | 29(34.9) | 18(21.7) | 83(100.0) |
| 근무 내용                   | 4( 4.5)     | 5( 5.7)     | 30(34.1) | 41(46.6) | 8( 9.1)  | 88(100.0) |
| 근무시간 및 업무량              | 2( 2.3)     | 8( 9.1)     | 28(31.8) | 41(46.6) | 9(10.2)  | 88(100.0) |
| 근무환경                    | 2( 2.3)     | 7( 8.0)     | 32(36.4) | 41(46.6) | 6( 6.8)  | 88(100.0) |
| 직장 내 인간관계 <sup>1)</sup> | 2( 2.4)     | 4( 4.8)     | 26(31.3) | 30(36.1) | 21(25.3) | 83(100.0) |
| 개인의 발전 가능성              | 3( 3.4)     | 14(15.9)    | 27(30.7) | 34(38.6) | 10(11.4) | 88(100.0) |
| 전반적인 만족도                | 2( 2.3)     | 4( 4.5)     | 36(40.9) | 37(42.0) | 9(10.2)  | 88(100.0) |

1) '해당 사항 없음'으로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조사대상이 현재 일을 하며 손님, 고용주, 또는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88명 가운데 63명(77.3%)은 부정적인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은 들은 적이 있었고(11명, 12.5%),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도 있다(8명, 9.1%)는 응답도 있었다.

표 IV-70. 일을 하며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경험한 일: 빈도(%)

| 구분                                | 빈도 (%)    |
|-----------------------------------|-----------|
|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11( 12.5) |
|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2( 2.3)   |
|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 8( 9.1)   |
| (성, 외모, 연령, 출신국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 6( 6.8)   |
|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3( 3.4)   |
| 위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                  | 63( 77.3) |
| 전체                                | 88(100.0) |

※ 중복응답 항목임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대상이 현재 일을 하며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적 없다는 응답이 65명(73.9%)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경험한 부당한 대우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8명, 9.1%)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은 경우(8명, 9.1%)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71. 일을 하며 경험한 부당한 대우: 빈도(%)

| 구분                         | 빈도(%)     |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8( 9.1)   |
|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 2( 2.3)   |
|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 8( 9.1)   |
|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지 못함         | 3( 3.4)   |
|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 6( 6.8)   |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 4( 4.5)   |
|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 3( 3.4)   |
|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 4( 4.5)   |
| 위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           | 65( 73.9) |
| 전체                         | 88(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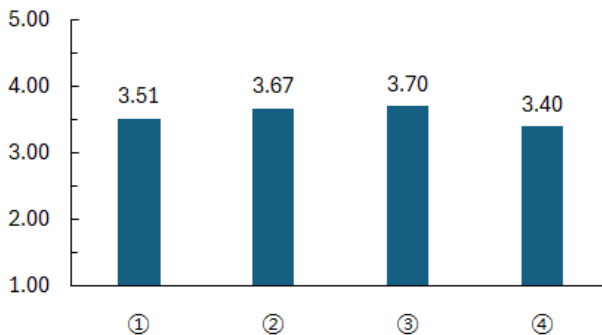
※ 중복응답 항목임

## (6) 사회 인식 및 가치관

이주배경청년이 인식하는 한국 사회와 가치관, 그리고 이주민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① 한국 사회 인식

조사대상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3.51,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3.67,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3.70,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는 평균 3.40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① 공정한 사회, ②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③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④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그림 IV-6. 한국 사회 인식(평균)

각 항목에 대한 조사대상의 인식이 집단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거주지와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3.86)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영주(F-5) 자격을 가진 집단의 평균(3.67)은 유학비자(D-2) 자격 집단의 평균(3.35)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표 IV-72. 한국 사회인식: 1) 공정한 사회: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br>( 0.8)     | 11<br>( 4.4)    | 118<br>(47.0) | 104<br>(41.4) | 16<br>( 6.4) | 251<br>(100.0) | 3.48<br>(0.72)   | -0.94                |
|          | 여자                            | 5<br>( 3.1)     | 15<br>( 9.4)    | 50<br>(31.4)  | 63<br>(39.6)  | 26<br>(16.4) | 159<br>(100.0) | 3.57<br>(0.98)   |                      |
|          | 전체                            | 7<br>( 1.7)     | 26<br>( 6.3)    | 168<br>(41.0) | 167<br>(40.7) | 42<br>(10.2) | 410<br>(100.0) | 3.51<br>(0.83)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2<br>( 0.9)     | 7<br>( 3.2)     | 123<br>(55.4) | 75<br>(33.8)  | 15<br>( 6.8) | 222<br>(100.0) | 3.42<br>(0.71)   | 10.01***<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4<br>( 4.1)     | 13<br>(13.4)    | 30<br>(30.9)  | 40<br>(41.2)  | 10<br>(10.3) | 97<br>(100.0)  | 3.40<br>(0.99)   |                      |
|          | 기타 <sup>c</sup>               | 1<br>( 1.1)     | 6<br>( 6.6)     | 15<br>(16.5)  | 52<br>(57.1)  | 17<br>(18.7) | 91<br>(100.0)  | 3.86<br>(0.84)   |                      |
|          | 전체                            | 7<br>( 1.7)     | 26<br>( 6.3)    | 168<br>(41.0) | 167<br>(40.7) | 42<br>(10.2) | 410<br>(100.0) | 3.51<br>(0.83)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br>( 1.1)     | 5<br>( 5.5)     | 56<br>(61.5)  | 19<br>(20.9)  | 10<br>(11.0) | 91<br>(100.0)  | 3.35<br>(0.79)   | 2.97*<br>(a(d))      |
|          | 거주(F-2) <sup>b</sup>          | 3<br>( 3.2)     | 11<br>(11.8)    | 23<br>(24.7)  | 42<br>(45.2)  | 14<br>(15.1) | 93<br>(100.0)  | 3.57<br>(0.99)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br>( 1.1)     | 2<br>( 2.3)     | 53<br>(60.2)  | 27<br>(30.7)  | 5<br>( 5.7)  | 88<br>(100.0)  | 3.38<br>(0.68)   |                      |
|          | 영주(F-5) <sup>d</sup>          | 0<br>( 0.0)     | 4<br>( 5.3)     | 20<br>(26.3)  | 49<br>(64.5)  | 3<br>( 3.9)  | 76<br>(100.0)  | 3.67<br>(0.64)   |                      |
|          | 동거(F-1 &<br>F-3) <sup>e</sup> | 0<br>( 0.0)     | 2<br>( 9.5)     | 8<br>(38.1)   | 8<br>(38.1)   | 3<br>(14.3)  | 21<br>(100.0)  | 3.57<br>(0.87)   |                      |
|          | 전체                            | 5<br>( 1.4)     | 24<br>( 6.5)    | 160<br>(43.4) | 145<br>(39.3) | 35<br>( 9.5) | 369<br>(100.0) | 3.49<br>(0.81)   |                      |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0<br>( 0.0)     | 5<br>( 5.2)     | 60<br>(61.9)  | 26<br>(26.8)  | 6<br>( 6.2)  | 97<br>(100.0)  | 3.34<br>(0.68)   | 2.65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0<br>( 0.0)     | 8<br>( 5.5)     | 67<br>(45.9)  | 57<br>(39.0)  | 14<br>( 9.6) | 146<br>(100.0) | 3.53<br>(0.74)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1<br>( 1.5)     | 5<br>( 7.5)     | 22<br>(32.8)  | 35<br>(52.2)  | 4<br>( 6.0)  | 67<br>(100.0)  | 3.54<br>(0.7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6<br>( 7.6)     | 6<br>( 7.6)     | 11<br>(13.9)  | 39<br>(49.4)  | 17<br>(21.5) | 79<br>(100.0)  | 3.70<br>(1.12)   |                   |
|                      | 전체                         | 7<br>( 1.8)     | 24<br>( 6.2)    | 160<br>(41.1) | 157<br>(40.4) | 41<br>(10.5) | 389<br>(100.0) | 3.52<br>(0.83)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5<br>( 3.2)     | 10<br>( 6.3)    | 69<br>(43.7)  | 57<br>(36.1)  | 17<br>(10.8) | 158<br>(100.0) | 3.45<br>(0.89)   | 2.32              |
|                      | 15세 이전 <sup>b</sup>        | 1<br>( 1.0)     | 5<br>( 5.2)     | 27<br>(27.8)  | 56<br>(57.7)  | 8<br>( 8.2)  | 97<br>(100.0)  | 3.67<br>(0.75)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11<br>( 7.1)    | 72<br>(46.5)  | 54<br>(34.8)  | 17<br>(11.0) | 155<br>(100.0) | 3.48<br>(0.81)   |                   |
|                      | 계                          | 7<br>( 1.7)     | 26<br>( 6.3)    | 168<br>(41.0) | 167<br>(40.7) | 42<br>(10.2) | 410<br>(100.0) | 3.51<br>(0.83)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한국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를 집단에 따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여자(평균 3.81)는 남자(평균 3.58)보다 더 한국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3.97)은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체류자격이 영주(F-5)인 집단의 평균(3.97)도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은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평균 3.33)가 다소 낮았으며, 한국 입국 시기가 12세 이전인 집단(평균 3.47) 역시 다른 집단보다는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3. 한국 사회인식: 2)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br>( 0.4)     | 6<br>( 2.4)     | 125<br>(49.8) | 84<br>(33.5)  | 35<br>(13.9) | 251<br>(100.0) | 3.58<br>(0.77)   | -2.69**            |
|          | 여자                            | 4<br>( 2.5)     | 10<br>( 6.3)    | 34<br>(21.4)  | 75<br>(47.2)  | 36<br>(22.6) | 159<br>(100.0) | 3.81<br>(0.94)   |                    |
|          | 전체                            | 5<br>( 1.2)     | 16<br>( 3.9)    | 159<br>(38.8) | 159<br>(38.8) | 71<br>(17.3) | 410<br>(100.0) | 3.67<br>(0.85)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2<br>( 0.9)     | 4<br>( 1.8)     | 109<br>(49.1) | 77<br>(34.7)  | 30<br>(13.5) | 222<br>(100.0) | 3.58<br>(0.78)   | 7.37**<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2<br>( 2.1)     | 10<br>(10.3)    | 26<br>(26.8)  | 46<br>(47.4)  | 13<br>(13.4) | 97<br>(100.0)  | 3.60<br>(0.92)   |                    |
|          | 기타 <sup>c</sup>               | 1<br>( 1.1)     | 2<br>( 2.2)     | 24<br>(26.4)  | 36<br>(39.6)  | 28<br>(30.8) | 91<br>(100.0)  | 3.97<br>(0.87)   |                    |
|          | 전체                            | 5<br>( 1.2)     | 16<br>( 3.9)    | 159<br>(38.8) | 159<br>(38.8) | 71<br>(17.3) | 410<br>(100.0) | 3.67<br>(0.85)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br>( 1.1)     | 1<br>( 1.1)     | 53<br>(58.2)  | 24<br>(26.4)  | 12<br>(13.2) | 91<br>(100.0)  | 3.49<br>(0.78)   | 4.84**<br>(a(d))   |
|          | 거주(F-2) <sup>b</sup>          | 3<br>( 3.2)     | 5<br>( 5.4)     | 26<br>(28.0)  | 41<br>(44.1)  | 18<br>(19.4) | 93<br>(100.0)  | 3.71<br>(0.95)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48<br>(54.5)  | 28<br>(31.8)  | 11<br>(12.5) | 88<br>(100.0)  | 3.56<br>(0.72)   |                    |
|          | 영주(F-5) <sup>d</sup>          | -               | 4<br>( 5.3)     | 12<br>(15.8)  | 42<br>(55.3)  | 18<br>(23.7) | 76<br>(100.0)  | 3.97<br>(0.78)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7<br>(33.3)   | 10<br>(47.6)  | 4<br>(19.0)  | 21<br>(100.0)  | 3.86<br>(0.73)   |                    |
|          | 전체                            | 4<br>( 1.1)     | 11<br>( 3.0)    | 146<br>(39.6) | 145<br>(39.3) | 63<br>(17.1) | 369<br>(100.0) | 3.68<br>(0.83)   |                    |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3<br>( 3.1)     | 64<br>(66.0)  | 25<br>(25.8)  | 5<br>( 5.2)  | 97<br>(100.0)  | 3.33<br>(0.62)   | 9.95***<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2<br>( 1.4)     | 55<br>(37.7)  | 66<br>(45.2)  | 23<br>(15.8) | 146<br>(100.0) | 3.75<br>(0.73)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5<br>( 7.5)     | 23<br>(34.3)  | 26<br>(38.8)  | 13<br>(19.4) | 67<br>(100.0)  | 3.70<br>(0.87)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5<br>( 6.3)     | 5<br>( 6.3)     | 11<br>(13.9)  | 32<br>(40.5)  | 26<br>(32.9) | 79<br>(100.0)  | 3.87<br>(1.14)   |                       |
|                      | 전체                         | 5<br>( 1.3)     | 15<br>( 3.9)    | 153<br>(39.3) | 149<br>(38.3) | 67<br>(17.2) | 389<br>(100.0) | 3.66<br>(0.85)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5<br>( 3.2)     | 9<br>( 5.7)     | 74<br>(46.8)  | 46<br>(29.1)  | 24<br>(15.2) | 158<br>(100.0) | 3.47<br>(0.93)   | 8.63***<br>(a(b,c))   |
|                      | 15세 이전 <sup>b</sup>        | -               | 3<br>( 3.1)     | 25<br>(25.8)  | 45<br>(46.4)  | 24<br>(24.7) | 97<br>(100.0)  | 3.93<br>(0.79)   |                       |
|                      | 16세 이후 <sup>c</sup>        | -               | 4<br>( 2.6)     | 60<br>(38.7)  | 68<br>(43.9)  | 23<br>(14.8) | 155<br>(100.0) | 3.71<br>(0.75)   |                       |
|                      | 계                          | 5<br>( 1.2)     | 16<br>( 3.9)    | 159<br>(38.8) | 159<br>(38.8) | 71<br>(17.3) | 410<br>(100.0) | 3.67<br>(0.85)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이주배경청년들이 한국 사회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라고 인식하는 정도는 살펴보면, 남자의 평균(3.80)이 여자의 평균(3.56)보다 높았다. 거주지의 경우, 다른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4.01)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전 항목과 달리 체류자격이 유학비자(D-2)인 집단의 평균이 4.00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과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74. 한국 사회인식: 3)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br>( 0.8)     | 8<br>( 3.2)     | 69<br>(27.5)  | 132<br>(52.6) | 40<br>(15.9) | 251<br>(100.0) | 3.80<br>(0.77)   | 2.20*               |
|          | 여자                            | 7<br>( 4.4)     | 31<br>(19.5)    | 31<br>(19.5)  | 46<br>(28.9)  | 44<br>(27.7) | 159<br>(100.0) | 3.56<br>(1.21)   |                     |
|          | 전체                            | 9<br>( 2.2)     | 39<br>( 9.5)    | 100<br>(24.4) | 178<br>(43.4) | 84<br>(20.5) | 410<br>(100.0) | 3.70<br>(0.97)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3<br>( 1.4)     | 22<br>( 9.9)    | 58<br>(26.1)  | 96<br>(43.2)  | 43<br>(19.4) | 222<br>(100.0) | 3.69<br>(0.94)   | 8.98***<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5<br>( 5.2)     | 14<br>(14.4)    | 29<br>(29.9)  | 31<br>(32.0)  | 18<br>(18.6) | 97<br>(100.0)  | 3.44<br>(1.11)   |                     |
|          | 기타 <sup>c</sup>               | 1<br>( 1.1)     | 3<br>( 3.3)     | 13<br>(14.3)  | 51<br>(56.0)  | 23<br>(25.3) | 91<br>(100.0)  | 4.01<br>(0.8)    |                     |
|          | 전체                            | 9<br>( 2.2)     | 39<br>( 9.5)    | 100<br>(24.4) | 178<br>(43.4) | 84<br>(20.5) | 410<br>(100.0) | 3.7<br>(0.97)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br>( 1.1)     | 2<br>( 2.2)     | 8<br>( 8.8)   | 65<br>(71.4)  | 15<br>(16.5) | 91<br>(100.0)  | 4.00<br>(0.67)   | 5.13**<br>(c(a))    |
|          | 거주(F-2) <sup>b</sup>          | 3<br>( 3.2)     | 20<br>(21.5)    | 12<br>(12.9)  | 30<br>(32.3)  | 28<br>(30.1) | 93<br>(100.0)  | 3.65<br>(1.21)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2<br>( 2.3)     | 49<br>(55.7)  | 25<br>(28.4)  | 12<br>(13.6) | 88<br>(100.0)  | 3.53<br>(0.76)   |                     |
|          | 영주(F-5) <sup>d</sup>          | 1<br>( 1.3)     | 7<br>( 9.2)     | 21<br>(27.6)  | 29<br>(38.2)  | 18<br>(23.7) | 76<br>(100.0)  | 3.74<br>(0.97)   |                     |
|          | 동거(F-1 &<br>F-3) <sup>e</sup> | 1<br>( 4.8)     | 2<br>( 9.5)     | 4<br>(19.0)   | 11<br>(52.4)  | 3<br>(14.3)  | 21<br>(100.0)  | 3.62<br>(1.02)   |                     |
|          | 전체                            | 6<br>( 1.6)     | 33<br>( 8.9)    | 94<br>(25.5)  | 160<br>(43.4) | 76<br>(20.6) | 369<br>(100.0) | 3.72<br>(0.94)   |                     |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3<br>( 3.1)     | 1<br>( 1.0)     | 12<br>(12.4)  | 73<br>(75.3)  | 8<br>( 8.2)  | 97<br>(100.0)  | 3.85<br>(0.71)   | 1.21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8<br>(12.3)    | 48<br>(32.9)  | 45<br>(30.8)  | 35<br>(24.0) | 146<br>(100.0) | 3.66<br>(0.98)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7<br>(10.4)     | 21<br>(31.3)  | 27<br>(40.3)  | 12<br>(17.9) | 67<br>(100.0)  | 3.66<br>(0.9)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5<br>( 6.3)     | 12<br>(15.2)    | 12<br>(15.2)  | 23<br>(29.1)  | 27<br>(34.2) | 79<br>(100.0)  | 3.70<br>(1.26)   |                   |
|                      | 전체                         | 8<br>( 2.1)     | 38<br>( 9.8)    | 93<br>(23.9)  | 168<br>(43.2) | 82<br>(21.1) | 389<br>(100.0) | 3.71<br>(0.97)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7<br>( 4.4)     | 15<br>( 9.5)    | 24<br>(15.2)  | 83<br>(52.5)  | 29<br>(18.4) | 158<br>(100.0) | 3.71<br>(1.02)   | 0.01              |
|                      | 15세 이전 <sup>b</sup>        | 1<br>( 1.0)     | 11<br>(11.3)    | 21<br>(21.6)  | 46<br>(47.4)  | 18<br>(18.6) | 97<br>(100.0)  | 3.71<br>(0.93)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13<br>( 8.4)    | 55<br>(35.5)  | 49<br>(31.6)  | 37<br>(23.9) | 155<br>(100.0) | 3.7<br>(0.95)    |                   |
|                      | 계                          | 9<br>( 2.2)     | 39<br>( 9.5)    | 100<br>(24.4) | 178<br>(43.4) | 84<br>(20.5) | 410<br>(100.0) | 3.7<br>(0.97)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한국 사회가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로 인식하는 정도는 다른 항목보다 다소 낮았고, 집단에 따라서도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남자의 평균이 3.58로 여자의 평균 3.11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체류자격의 경우, 거주(F-2)와 재외동포(F-4) 집단의 평균(3.30과 3.02)이 다른 집단보다 낮은 편이었다. 또한 한국에서 고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평균 3.18)은 한국에서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64)보다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입국 시기가 가장 긴 12세 이전 입국 집단의 평균(3.62)은 다른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다.

표 IV-75. 한국 사회인식: 4)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br>( 1.2)     | 19<br>( 7.6)    | 80<br>(31.9)  | 128<br>(51.0) | 21<br>( 8.4) | 251<br>(100.0) | 3.58<br>(0.8)    | 4.29***                     |
|          | 여자                            | 14<br>( 8.8)    | 43<br>(27.0)    | 41<br>(25.8)  | 34<br>(21.4)  | 27<br>(17.0) | 159<br>(100.0) | 3.11<br>(1.23)   |                             |
|          | 전체                            | 17<br>( 4.1)    | 62<br>(15.1)    | 121<br>(29.5) | 162<br>(39.5) | 48<br>(11.7) | 410<br>(100.0) | 3.40<br>(1.01)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1<br>( 5.0)    | 35<br>(15.8)    | 61<br>(27.5)  | 95<br>(42.8)  | 20<br>( 9.0) | 222<br>(100.0) | 3.35<br>(1.01)   | 6.78**<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5<br>( 5.2)     | 19<br>(19.6)    | 34<br>(35.1)  | 30<br>(30.9)  | 9<br>( 9.3)  | 97<br>(100.0)  | 3.20<br>(1.03)   |                             |
|          | 기타 <sup>c</sup>               | 1<br>( 1.1)     | 8<br>( 8.8)     | 26<br>(28.6)  | 37<br>(40.7)  | 19<br>(20.9) | 91<br>(100.0)  | 3.71<br>(0.93)   |                             |
|          | 전체                            | 17<br>( 4.1)    | 62<br>(15.1)    | 121<br>(29.5) | 162<br>(39.5) | 48<br>(11.7) | 410<br>(100.0) | 3.40<br>(1.01)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br>( 1.1)     | 6<br>( 6.6)     | 12<br>(13.2)  | 60<br>(65.9)  | 12<br>(13.2) | 91<br>(100.0)  | 3.84<br>(0.78)   | 11.97***<br>(b,c<a;<br>c<d) |
|          | 거주(F-2) <sup>b</sup>          | 8<br>( 8.6)     | 23<br>(24.7)    | 15<br>(16.1)  | 27<br>(29.0)  | 20<br>(21.5) | 93<br>(100.0)  | 3.30<br>(1.29)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3<br>( 3.4)     | 15<br>(17.0)    | 52<br>(59.1)  | 13<br>(14.8)  | 5<br>( 5.7)  | 88<br>(100.0)  | 3.02<br>(0.83)   |                             |
|          | 영주(F-5) <sup>d</sup>          | -               | 7<br>( 9.2)     | 23<br>(30.3)  | 42<br>(55.3)  | 4<br>( 5.3)  | 76<br>(100.0)  | 3.57<br>(0.74)   |                             |
|          | 동거(F-1 &<br>F-3) <sup>e</sup> | 1<br>( 4.8)     | 4<br>(19.0)     | 6<br>(28.6)   | 7<br>(33.3)   | 3<br>(14.3)  | 21<br>(100.0)  | 3.33<br>(1.11)   |                             |
|          | 전체                            | 13<br>( 3.5)    | 55<br>(14.9)    | 108<br>(29.3) | 149<br>(40.4) | 44<br>(11.9) | 369<br>(100.0) | 3.42<br>(1.00)   |                             |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3<br>( 3.1)     | 10<br>(10.3)    | 11<br>(11.3)  | 68<br>(70.1)  | 5<br>( 5.2)  | 97<br>(100.0)  | 3.64<br>(0.86)   | 5.91***<br>(b(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7<br>( 4.8)     | 28<br>(19.2)    | 56<br>(38.4)  | 42<br>(28.8)  | 13<br>( 8.9) | 146<br>(100.0) | 3.18<br>(1.00)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1<br>( 1.5)     | 12<br>(17.9)    | 26<br>(38.8)  | 23<br>(34.3)  | 5<br>( 7.5)  | 67<br>(100.0)  | 3.28<br>(0.9)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6<br>( 7.6)     | 9<br>(11.4)     | 18<br>(22.8)  | 24<br>(30.4)  | 22<br>(27.8) | 79<br>(100.0)  | 3.59<br>(1.22)   |                    |
|                      | 전체                         | 17<br>( 4.4)    | 59<br>(15.2)    | 111<br>(28.5) | 157<br>(40.4) | 45<br>(11.6) | 389<br>(100.0) | 3.40<br>(1.02)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7<br>( 4.4)     | 16<br>(10.1)    | 29<br>(18.4)  | 84<br>(53.2)  | 22<br>(13.9) | 158<br>(100.0) | 3.62<br>(0.99)   | 6.52**<br>(b,c(a)) |
|                      | 15세 이전 <sup>b</sup>        | 6<br>( 6.2)     | 19<br>(19.6)    | 27<br>(27.8)  | 35<br>(36.1)  | 10<br>(10.3) | 97<br>(100.0)  | 3.25<br>(1.08)   |                    |
|                      | 16세 이후 <sup>c</sup>        | 4<br>( 2.6)     | 27<br>(17.4)    | 65<br>(41.9)  | 43<br>(27.7)  | 16<br>(10.3) | 155<br>(100.0) | 3.26<br>(0.95)   |                    |
|                      | 계                          | 17<br>( 4.1)    | 62<br>(15.1)    | 121<br>(29.5) | 162<br>(39.5) | 48<br>(11.7) | 410<br>(100.0) | 3.40<br>(1.01)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이주배경청년이 인식하는 한국생활에 대해서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와 ‘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두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각각 3.76과 3.77이었고, 이를 통해 조사대상은 비교적 한국 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집단의 인식 정도를 비교하면, 남자(평균 3.59)보다는 여자(4.04)가 한국에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3.56)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체류자격이 유학비자(D-2)인 집단(평균 3.10) 역시 다른 집단에 비해 한국생활에 대한 인식 정도가 덜 긍정적이었다.

한편,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한국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 입국 시기가 빠를수록 평균이 낮아지는 다소 상반된 경향도 나타났다.

표 IV-76.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1) 한국에 사는 것이 좋다: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49<br>(19.5)    | 37<br>(14.7) | 133<br>(53.0) | 32<br>(12.7) | 251<br>(100.0) | 3.59<br>(0.94)   | -5.06***               |
|          | 여자                            | 1<br>( 0.6)     | 3<br>( 1.9)     | 36<br>(22.6) | 68<br>(42.8)  | 51<br>(32.1) | 159<br>(100.0) | 4.04<br>(0.83)   |                        |
|          | 전체                            | 1<br>( 0.2)     | 52<br>(12.7)    | 73<br>(17.8) | 201<br>(49.0) | 83<br>(20.2) | 410<br>(100.0) | 4.09<br>(0.77)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47<br>(21.2)    | 37<br>(16.7) | 104<br>(46.8) | 34<br>(15.3) | 222<br>(100.0) | 3.56<br>(0.99)   | 13.69***<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1<br>( 1.0)     | 2<br>( 2.1)     | 22<br>(22.7) | 51<br>(52.6)  | 21<br>(21.6) | 97<br>(100.0)  | 3.92<br>(0.79)   |                        |
|          | 기타 <sup>c</sup>               | -               | 3<br>( 3.3)     | 14<br>(15.4) | 46<br>(50.5)  | 28<br>(30.8) | 91<br>(100.0)  | 4.09<br>(0.77)   |                        |
|          | 전체                            | 1<br>( 0.2)     | 52<br>(12.7)    | 73<br>(17.8) | 201<br>(49.0) | 83<br>(20.2) | 410<br>(100.0) | 3.76<br>(0.93)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47<br>(51.6)    | 5<br>( 5.5)  | 22<br>(24.2)  | 17<br>(18.7) | 91<br>(100.0)  | 3.10<br>(1.23)   | 10.58***<br>(a(b,c,d)) |
|          | 거주(F-2) <sup>b</sup>          | -               | 1<br>( 1.1)     | 28<br>(30.1) | 42<br>(45.2)  | 22<br>(23.7) | 93<br>(100.0)  | 3.91<br>(0.76)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16<br>(18.2) | 57<br>(64.8)  | 14<br>(15.9) | 88<br>(100.0)  | 3.95<br>(0.62)   |                        |
|          | 영주(F-5) <sup>d</sup>          | -               | -               | 12<br>(15.8) | 51<br>(67.1)  | 13<br>(17.1) | 76<br>(100.0)  | 4.01<br>(0.58)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5<br>(23.8)  | 10<br>(47.6)  | 6<br>(28.6)  | 21<br>(100.0)  | 4.05<br>(0.74)   |                        |
|          | 전체                            | -               | 49<br>(13.3)    | 66<br>(17.9) | 182<br>(49.3) | 72<br>(19.5) | 369<br>(100.0) | 3.75<br>(0.92)   |                        |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1<br>( 1.0)     | 50<br>(51.5)    | 7<br>( 7.2)  | 29<br>(29.9)  | 10<br>(10.3) | 97<br>(100.0)  | 2.97<br>(1.13)   | 34.88***<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               | 36<br>(24.7) | 89<br>(61.0)  | 21<br>(14.4) | 146<br>(100.0) | 3.90<br>(0.62)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               | 21<br>(31.3) | 36<br>(53.7)  | 10<br>(14.9) | 67<br>(100.0)  | 3.84<br>(0.67)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1<br>( 1.3)     | 5<br>( 6.3)  | 37<br>(46.8)  | 36<br>(45.6) | 79<br>(100.0)  | 4.37<br>(0.66)   |                       |
|                      | 전체                         | 1<br>( 0.3)     | 51<br>(13.1)    | 69<br>(17.7) | 191<br>(49.1) | 77<br>(19.8) | 389<br>(100.0) | 3.75<br>(0.93)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1<br>( 0.6)     | 51<br>(32.3)    | 17<br>(10.8) | 51<br>(32.3)  | 38<br>(24.1) | 158<br>(100.0) | 3.47<br>(1.19)   | 12.08***<br>(a<b,c)   |
|                      | 15세 이전 <sup>b</sup>        | -               | 1<br>( 1.0)     | 27<br>(27.8) | 52<br>(53.6)  | 17<br>(17.5) | 97<br>(100.0)  | 3.88<br>(0.7)    |                       |
|                      | 16세 이후 <sup>c</sup>        | -               | -               | 29<br>(18.7) | 98<br>(63.2)  | 28<br>(18.1) | 155<br>(100.0) | 3.99<br>(0.61)   |                       |
|                      | 계                          | 1<br>( 0.2)     | 52<br>(12.7)    | 73<br>(17.8) | 201<br>(49.0) | 83<br>(20.2) | 410<br>(100.0) | 3.76<br>(0.93)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01$ .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에 대한 조사대상의 동의 정도 또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자의 평균(3.94)은 남자의 평균(3.65)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3.61)도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영주(F-5) 자격을 가진 집단의 평균(4.03)은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평균도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7. 한국 생활에 대한 인식: 2)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8<br>( 3.2)     | 123<br>(49.0) | 68<br>(27.1)  | 52<br>(20.7)  | 251<br>(100.0) | 3.65<br>(0.84)   | -3.19***          |
|          | 여자                            | -               | 11<br>( 6.9)    | 40<br>(25.2)  | 55<br>(34.6)  | 53<br>(33.3)  | 159<br>(100.0) | 3.94<br>(0.93)   |                   |
|          | 전체                            | -               | 19<br>( 4.6)    | 163<br>(39.8) | 123<br>(30.0) | 105<br>(25.6) | 410<br>(100.0) | 3.77<br>(0.89)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8<br>( 3.6)     | 113<br>(50.9) | 59<br>(26.6)  | 42<br>(18.9)  | 222<br>(100.0) | 3.61<br>(0.83)   | 9.20***<br>(a<c)  |
|          | 경기인천 <sup>b</sup>             | -               | 9<br>( 9.3)     | 23<br>(23.7)  | 38<br>(39.2)  | 27<br>(27.8)  | 97<br>(100.0)  | 3.86<br>(0.94)   |                   |
|          | 기타 <sup>c</sup>               | -               | 2<br>( 2.2)     | 27<br>(29.7)  | 26<br>(28.6)  | 36<br>(39.6)  | 91<br>(100.0)  | 4.05<br>(0.89)   |                   |
|          | 전체                            | -               | 19<br>( 4.6)    | 163<br>(39.8) | 123<br>(30.0) | 105<br>(25.6) | 410<br>(100.0) | 3.77<br>(0.89)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3<br>( 3.3)     | 51<br>(56.0)  | 16<br>(17.6)  | 21<br>(23.1)  | 91<br>(100.0)  | 3.6<br>(0.88)    | 4.93***<br>(a<d)  |
|          | 거주(F-2) <sup>b</sup>          | -               | 7<br>( 7.5)     | 32<br>(34.4)  | 23<br>(24.7)  | 31<br>(33.3)  | 93<br>(100.0)  | 3.84<br>(0.98)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3<br>( 3.4)     | 50<br>(56.8)  | 16<br>(18.2)  | 19<br>(21.6)  | 88<br>(100.0)  | 3.58<br>(0.87)   |                   |
|          | 영주(F-5) <sup>d</sup>          | -               | 0<br>( 0.0)     | 14<br>(18.4)  | 46<br>(60.5)  | 16<br>(21.1)  | 76<br>(100.0)  | 4.03<br>(0.63)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4.8)     | 7<br>(33.3)   | 8<br>(38.1)   | 5<br>(23.8)   | 21<br>(100.0)  | 3.81<br>(0.87)   |                   |
|          | 전체                            | -               | 14<br>( 3.8)    | 154<br>(41.7) | 109<br>(29.5) | 92<br>(24.9)  | 369<br>(100.0) | 3.76<br>(0.87)   |                   |

| 구분                   |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5<br>( 5.2)     | 66<br>(68.0)  | 16<br>(16.5)  | 10<br>(10.3)  | 97<br>(100.0)  | 3.32<br>(0.73)   | 31.55***<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7<br>( 4.8)     | 61<br>(41.8)  | 49<br>(33.6)  | 29<br>(19.9)  | 146<br>(100.0) | 3.68<br>(0.84)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3<br>( 4.5)     | 21<br>(31.3)  | 26<br>(38.8)  | 17<br>(25.4)  | 67<br>(100.0)  | 3.85<br>(0.86)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3<br>( 3.8)     | 6<br>( 7.6)   | 23<br>(29.1)  | 47<br>(59.5)  | 79<br>(100.0)  | 4.44<br>(0.8)    |                       |
|                      | 전체 2                       | -               | 18<br>( 4.6)    | 154<br>(39.6) | 114<br>(29.3) | 103<br>(26.5) | 389<br>(100.0) | 3.78<br>(0.89)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8<br>( 5.1)     | 68<br>(43.0)  | 33<br>(20.9)  | 49<br>(31.0)  | 158<br>(100.0) | 3.78<br>(0.95)   | 0.37                  |
|                      | 15세 이전 <sup>b</sup>        | -               | 6<br>( 6.2)     | 29<br>(29.9)  | 39<br>(40.2)  | 23<br>(23.7)  | 97<br>(100.0)  | 3.81<br>(0.87)   |                       |
|                      | 16세 이후 <sup>c</sup>        | -               | 5<br>( 3.2)     | 66<br>(42.6)  | 51<br>(32.9)  | 33<br>(21.3)  | 155<br>(100.0) | 3.72<br>(0.83)   |                       |
|                      | 계                          | -               | 19<br>( 4.6)    | 163<br>(39.8) | 123<br>(30.0) | 105<br>(25.6) | 410<br>(100.0) | 3.77<br>(0.89)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01$ .

이하에서는 이주배경청년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출신국가, 피부색, 외국국적, 체류자격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2.70~3.07로 보통 수준이었고, 상대적으로 출신국가 또는 체류자격으로 인해 받는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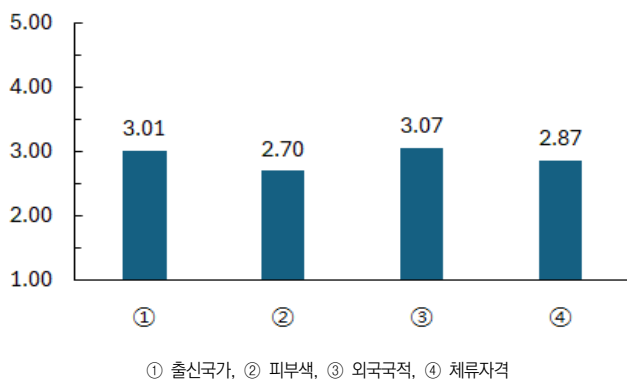


그림 IV-7. 조사대상이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의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 정도(평균)

각 항목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보면, 출신국가로 인한 불이익 또는 부당 대우 정도에 대해서는 남자(평균 2.86)보다 여자(평균 3.26)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체류자격이 동거(F-1 & F-3)인 집단의 평균(3.62)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경향이 있었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차이 역시 유의하지 않았으며, 15세 이전 한국에 입국한 집단(평균 3.29)이 다른 집단보다 출신국가로 인한 부당대우나 불이익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8.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1) 출신국가: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1<br>(12.4) | 45<br>(17.9) | 115<br>(45.8) | 49<br>(19.5)  | 11<br>( 4.4) | 251<br>(100.0) | 2.86<br>(1.01)   | -3.12**           |
|    | 여자 | 28<br>(17.6) | 24<br>(15.1) | 19<br>(11.9)  | 55<br>(34.6)  | 33<br>(20.8) | 159<br>(100.0) | 3.26<br>(1.41)   |                   |
|    | 전체 | 59<br>(14.4) | 69<br>(16.8) | 134<br>(32.7) | 104<br>(25.4) | 44<br>(10.7) | 410<br>(100.0) | 3.39<br>(0.74)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29<br>(13.1) | 39<br>(17.6) | 92<br>(41.4)  | 37<br>(16.7)  | 25<br>(11.3) | 222<br>(100.0) | 2.95<br>(1.15)   | 1.87                       |
|                      | 경기인천 <sup>b</sup>             | 12<br>(12.4) | 16<br>(16.5) | 22<br>(22.7)  | 33<br>(34.0)  | 14<br>(14.4) | 97<br>(100.0)  | 3.22<br>(1.24)   |                            |
|                      | 기타 <sup>c</sup>               | 18<br>(19.8) | 14<br>(15.4) | 20<br>(22.0)  | 34<br>(37.4)  | 5<br>( 5.5)  | 91<br>(100.0)  | 2.93<br>(1.25)   |                            |
|                      | 전체                            | 59<br>(14.4) | 69<br>(16.8) | 134<br>(32.7) | 104<br>(25.4) | 44<br>(10.7) | 410<br>(100.0) | 3.01<br>(1.2)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6<br>(17.6) | 10<br>(11.0) | 53<br>(58.2)  | 11<br>(12.1)  | 1<br>( 1.1)  | 91<br>(100.0)  | 2.68<br>(0.94)   | 5.98***<br>(a<c,e;<br>d<e) |
|                      | 거주(F-2) <sup>b</sup>          | 27<br>(29.0) | 12<br>(12.9) | 3<br>( 3.2)   | 29<br>(31.2)  | 22<br>(23.7) | 93<br>(100.0)  | 3.08<br>(1.6)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7<br>( 8.0)  | 8<br>( 9.1)  | 48<br>(54.5)  | 15<br>(17.0)  | 10<br>(11.4) | 88<br>(100.0)  | 3.15<br>(1.01)   |                            |
|                      | 영주(F-5) <sup>d</sup>          | 4<br>( 5.3)  | 28<br>(36.8) | 19<br>(25.0)  | 24<br>(31.6)  | 1<br>( 1.3)  | 76<br>(100.0)  | 2.87<br>(0.97)   |                            |
|                      | 동거(F-1 &<br>F-3) <sup>e</sup> | 0<br>( 0.0)  | 3<br>(14.3)  | 4<br>(19.0)   | 12<br>(57.1)  | 2<br>( 9.5)  | 21<br>(100.0)  | 3.62<br>(0.86)   |                            |
|                      | 전체                            | 54<br>(14.6) | 61<br>(16.5) | 127<br>(34.4) | 91<br>(24.7)  | 36<br>( 9.8) | 369<br>(100.0) | 2.98<br>(1.18)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4<br>( 4.1)  | 7<br>( 7.2)  | 59<br>(60.8)  | 17<br>(17.5)  | 10<br>(10.3) | 97<br>(100.0)  | 3.23<br>(0.88)   | 3.45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20<br>(13.7) | 36<br>(24.7) | 48<br>(32.9)  | 23<br>(15.8)  | 19<br>(13.0) | 146<br>(100.0) | 2.90<br>(1.21)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5<br>( 7.5)  | 14<br>(20.9) | 18<br>(26.9)  | 24<br>(35.8)  | 6<br>( 9.0)  | 67<br>(100.0)  | 3.18<br>(1.1)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30<br>(38.0) | 7<br>( 8.9)  | 4<br>( 5.1)   | 30<br>(38.0)  | 8<br>(10.1)  | 79<br>(100.0)  | 2.73<br>(1.53)   |                            |
|                      | 전체                            | 59<br>(15.2) | 64<br>(16.5) | 129<br>(33.2) | 94<br>(24.2)  | 43<br>(11.1) | 389<br>(100.0) | 2.99<br>(1.21)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8<br>(17.7) | 9<br>( 5.7)  | 61<br>(38.6)  | 47<br>(29.7)  | 13<br>( 8.2) | 158<br>(100.0) | 3.05<br>(1.18)   | 5.03**<br>(c(b))  |
|                | 15세 이전 <sup>b</sup> | 9<br>( 9.3)  | 24<br>(24.7) | 16<br>(16.5)  | 26<br>(26.8)  | 22<br>(22.7) | 97<br>(100.0)  | 3.29<br>(1.31)   |                   |
|                | 16세 이후 <sup>c</sup> | 22<br>(14.2) | 36<br>(23.2) | 57<br>(36.8)  | 31<br>(20.0)  | 9<br>( 5.8)  | 155<br>(100.0) | 2.80<br>(1.1)    |                   |
|                | 계                   | 59<br>(14.4) | 69<br>(16.8) | 134<br>(32.7) | 104<br>(25.4) | 44<br>(10.7) | 410<br>(100.0) | 3.01<br>(1.2)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이주배경청년들이 피부색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짧을수록 피부색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79.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2) 피부색: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42<br>(16.7)  | 46<br>(18.3) | 99<br>(39.4)  | 51<br>(20.3) | 13<br>( 5.2) | 251<br>(100.0) | 2.79<br>(1.11)   | 1.72              |
|    | 여자 | 59<br>(37.1)  | 27<br>(17.0) | 23<br>(14.5)  | 24<br>(15.1) | 26<br>(16.4) | 159<br>(100.0) | 2.57<br>(1.51)   |                   |
|    | 전체 | 101<br>(24.6) | 73<br>(17.8) | 122<br>(29.8) | 75<br>(18.3) | 39<br>( 9.5) | 410<br>(100.0) | 2.7<br>(1.28)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51<br>(23.0)  | 42<br>(18.9) | 72<br>(32.4)  | 42<br>(18.9) | 15<br>( 6.8) | 222<br>(100.0) | 2.68<br>(1.21)   | 0.22              |
|                      | 경기인천 <sup>b</sup>             | 26<br>(26.8)  | 20<br>(20.6) | 22<br>(22.7)  | 16<br>(16.5) | 13<br>(13.4) | 97<br>(100.0)  | 2.69<br>(1.38)   |                   |
|                      | 기타 <sup>c</sup>               | 24<br>(26.4)  | 11<br>(12.1) | 28<br>(30.8)  | 17<br>(18.7) | 11<br>(12.1) | 91<br>(100.0)  | 2.78<br>(1.35)   |                   |
|                      | 전체                            | 101<br>(24.6) | 73<br>(17.8) | 122<br>(29.8) | 75<br>(18.3) | 39<br>( 9.5) | 410<br>(100.0) | 2.7<br>(1.2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4<br>(15.4)  | 15<br>(16.5) | 54<br>(59.3)  | 7<br>( 7.7)  | 1<br>( 1.1)  | 91<br>(100.0)  | 2.63<br>(0.88)   | 1.31              |
|                      | 거주(F-2) <sup>b</sup>          | 41<br>(44.1)  | 11<br>(11.8) | 11<br>(11.8)  | 12<br>(12.9) | 18<br>(19.4) | 93<br>(100.0)  | 2.52<br>(1.61)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27<br>(30.7)  | 2<br>( 2.3)  | 17<br>(19.3)  | 36<br>(40.9) | 6<br>( 6.8)  | 88<br>(100.0)  | 2.91<br>(1.39)   |                   |
|                      | 영주(F-5) <sup>d</sup>          | 7<br>( 9.2)   | 33<br>(43.4) | 23<br>(30.3)  | 9<br>(11.8)  | 4<br>( 5.3)  | 76<br>(100.0)  | 2.61<br>(0.99)   |                   |
|                      | 동거(F-1 &<br>F-3) <sup>e</sup> | 2<br>( 9.5)   | 5<br>(23.8)  | 8<br>(38.1)   | 4<br>(19.0)  | 2<br>( 9.5)  | 21<br>(100.0)  | 2.95<br>(1.12)   |                   |
|                      | 전체                            | 91<br>(24.7)  | 66<br>(17.9) | 113<br>(30.6) | 68<br>(18.4) | 31<br>( 8.4) | 369<br>(100.0) | 2.68<br>(1.26)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11<br>(11.3)  | 3<br>( 3.1)  | 63<br>(64.9)  | 15<br>(15.5) | 5<br>( 5.2)  | 97<br>(100.0)  | 3.00<br>(0.92)   | 4.02**<br>(d<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33<br>(22.6)  | 44<br>(30.1) | 21<br>(14.4)  | 39<br>(26.7) | 9<br>( 6.2)  | 146<br>(100.0) | 2.64<br>(1.26)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12<br>(17.9)  | 14<br>(20.9) | 27<br>(40.3)  | 6<br>( 9.0)  | 8<br>(11.9)  | 67<br>(100.0)  | 2.76<br>(1.21)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41<br>(51.9)  | 6<br>( 7.6)  | 7<br>( 8.9)   | 11<br>(13.9) | 14<br>(17.7) | 79<br>(100.0)  | 2.38<br>(1.63)   |                   |
|                      | 전체                            | 97<br>(24.9)  | 67<br>(17.2) | 118<br>(30.3) | 71<br>(18.3) | 36<br>( 9.3) | 389<br>(100.0) | 2.7<br>(1.28)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40<br>(25.3)  | 9<br>( 5.7)  | 71<br>(44.9)  | 19<br>(12.0) | 19<br>(12.0) | 158<br>(100.0) | 2.8<br>(1.28)    | 2.54              |
|                | 15세 이전 <sup>b</sup> | 24<br>(24.7)  | 21<br>(21.6) | 28<br>(28.9)  | 10<br>(10.3) | 14<br>(14.4) | 97<br>(100.0)  | 2.68<br>(1.34)   |                   |
|                | 16세 이후 <sup>c</sup> | 37<br>(23.9)  | 43<br>(27.7) | 23<br>(14.8)  | 46<br>(29.7) | 6<br>( 3.9)  | 155<br>(100.0) | 2.62<br>(1.24)   |                   |
|                | 계                   | 101<br>(24.6) | 73<br>(17.8) | 122<br>(29.8) | 75<br>(18.3) | 39<br>( 9.5) | 410<br>(100.0) | 2.7<br>(1.2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외국국적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다. 성별, 거주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체류자격, 한국 학교 재학 경험,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체류자격의 경우, 유학비자(D-2) 자격 집단의 평균(3.29)은 다른 체류자격 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간 평균은 재학 기간이 길어질수록 평균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한국 입국 시기가 빠를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V-80. 한국사회의 부당한 대우: 3) 외국국적: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6<br>(14.3) | 37<br>(14.7) | 79<br>(31.5)  | 87<br>(34.7)  | 12<br>( 4.8) | 251<br>(100.0) | 3.01<br>(1.12)   | -1.19             |
|    | 여자 | 31<br>(19.5) | 21<br>(13.2) | 28<br>(17.6)  | 50<br>(31.4)  | 29<br>(18.2) | 159<br>(100.0) | 3.16<br>(1.39)   |                   |
|    | 전체 | 67<br>(16.3) | 58<br>(14.1) | 107<br>(26.1) | 137<br>(33.4) | 41<br>(10.0) | 410<br>(100.0) | 3.07<br>(1.24)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33<br>(14.9) | 26<br>(11.7) | 72<br>(32.4)  | 74<br>(33.3)  | 17<br>( 7.7) | 222<br>(100.0) | 3.07<br>(1.16)   | 0.61                 |
|                      | 경기인천 <sup>b</sup>             | 15<br>(15.5) | 17<br>(17.5) | 18<br>(18.6)  | 32<br>(33.0)  | 15<br>(15.5) | 97<br>(100.0)  | 3.15<br>(1.32)   |                      |
|                      | 기타 <sup>c</sup>               | 19<br>(20.9) | 15<br>(16.5) | 17<br>(18.7)  | 31<br>(34.1)  | 9<br>( 9.9)  | 91<br>(100.0)  | 2.96<br>(1.32)   |                      |
|                      | 전체                            | 67<br>(16.3) | 58<br>(14.1) | 107<br>(26.1) | 137<br>(33.4) | 41<br>(10.0) | 410<br>(100.0) | 3.07<br>(1.24)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1<br>(12.1) | 14<br>(15.4) | 6<br>( 6.6)   | 58<br>(63.7)  | 2<br>( 2.2)  | 91<br>(100.0)  | 3.29<br>(1.14)   | 2.57*<br>(d(a))      |
|                      | 거주(F-2) <sup>b</sup>          | 30<br>(32.3) | 7<br>( 7.5)  | 13<br>(14.0)  | 28<br>(30.1)  | 15<br>(16.1) | 93<br>(100.0)  | 2.90<br>(1.53)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6<br>( 6.8)  | 8<br>( 9.1)  | 52<br>(59.1)  | 13<br>(14.8)  | 9<br>(10.2)  | 88<br>(100.0)  | 3.13<br>(0.96)   |                      |
|                      | 영주(F-5) <sup>d</sup>          | 13<br>(17.1) | 19<br>(25.0) | 21<br>(27.6)  | 19<br>(25.0)  | 4<br>( 5.3)  | 76<br>(100.0)  | 2.76<br>(1.16)   |                      |
|                      | 동거(F-1 &<br>F-3) <sup>e</sup> | 2<br>( 9.5)  | 2<br>( 9.5)  | 8<br>(38.1)   | 7<br>(33.3)   | 2<br>( 9.5)  | 21<br>(100.0)  | 3.24<br>(1.09)   |                      |
|                      | 전체                            | 62<br>(16.8) | 50<br>(13.6) | 100<br>(27.1) | 125<br>(33.9) | 32<br>( 8.7) | 369<br>(100.0) | 3.04<br>(1.22)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7<br>( 7.2)  | 7<br>( 7.2)  | 14<br>(14.4)  | 62<br>(63.9)  | 7<br>( 7.2)  | 97<br>(100.0)  | 3.57<br>(0.99)   | 9.64**<br>(b,c,d(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8<br>(12.3) | 25<br>(17.1) | 63<br>(43.2)  | 27<br>(18.5)  | 13<br>( 8.9) | 146<br>(100.0) | 2.95<br>(1.1)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4<br>( 6.0)  | 19<br>(28.4) | 21<br>(31.3)  | 17<br>(25.4)  | 6<br>( 9.0)  | 67<br>(100.0)  | 3.03<br>(1.07)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35<br>(44.3) | 3<br>( 3.8)  | 5<br>( 6.3)   | 23<br>(29.1)  | 13<br>(16.5) | 79<br>(100.0)  | 2.70<br>(1.64)   |                      |
|                      | 전체                            | 64<br>(16.5) | 54<br>(13.9) | 103<br>(26.5) | 129<br>(33.2) | 39<br>(10.0) | 389<br>(100.0) | 3.06<br>(1.24)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32<br>(20.3) | 8<br>( 5.1)  | 16<br>(10.1)  | 83<br>(52.5)  | 19<br>(12.0) | 158<br>(100.0) | 3.31<br>(1.33)   | 9.64***<br>(c(a,b)) |
|                | 15세 이전 <sup>b</sup> | 11<br>(11.3) | 18<br>(18.6) | 28<br>(28.9)  | 23<br>(23.7)  | 17<br>(17.5) | 97<br>(100.0)  | 3.18<br>(1.25)   |                     |
|                | 16세 이후 <sup>c</sup> | 24<br>(15.5) | 32<br>(20.6) | 63<br>(40.6)  | 31<br>(20.0)  | 5<br>( 3.2)  | 155<br>(100.0) | 2.75<br>(1.05)   |                     |
|                | 계                   | 67<br>(16.3) | 58<br>(14.1) | 107<br>(26.1) | 137<br>(33.4) | 41<br>(10.0) | 410<br>(100.0) | 3.07<br>(1.24)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체류자격으로 인한 한국 사회에서의 부담 대우 및 불이익에 대한 조사대상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없었고, 체류자격 가운데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3.22)이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의 경우,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3.49)이 다른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한국 입국 시기가 12세 이전인 집단의 평균(3.19)도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81. 한국사회의 부담한 대우: 4) 체류자격: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6<br>(14.3) | 50<br>(19.9) | 75<br>(29.9)  | 80<br>(31.9)  | 10<br>( 4.0) | 251<br>(100.0) | 2.91<br>(1.12)   | 0.97              |
|    | 여자 | 36<br>(22.6) | 27<br>(17.0) | 45<br>(28.3)  | 36<br>(22.6)  | 15<br>( 9.4) | 159<br>(100.0) | 2.79<br>(1.28)   |                   |
|    | 전체 | 72<br>(17.6) | 77<br>(18.8) | 120<br>(29.3) | 116<br>(28.3) | 25<br>( 6.1) | 410<br>(100.0) | 2.87<br>(1.18)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31<br>(14.0) | 48<br>(21.6) | 67<br>(30.2)  | 66<br>(29.7)  | 10<br>( 4.5) | 222<br>(100.0) | 2.89<br>(1.12)   | 0.31                  |
|                      | 경기인천 <sup>b</sup>             | 22<br>(22.7) | 15<br>(15.5) | 30<br>(30.9)  | 22<br>(22.7)  | 8<br>( 8.2)  | 97<br>(100.0)  | 2.78<br>(1.26)   |                       |
|                      | 기타 <sup>c</sup>               | 19<br>(20.9) | 14<br>(15.4) | 23<br>(25.3)  | 28<br>(30.8)  | 7<br>( 7.7)  | 91<br>(100.0)  | 2.89<br>(1.27)   |                       |
|                      | 전체                            | 72<br>(17.6) | 77<br>(18.8) | 120<br>(29.3) | 116<br>(28.3) | 25<br>( 6.1) | 410<br>(100.0) | 2.87<br>(1.1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5<br>(16.5) | 12<br>(13.2) | 6<br>( 6.6)   | 54<br>(59.3)  | 4<br>( 4.4)  | 91<br>(100.0)  | 3.22<br>(1.24)   | 3.70**<br>(b,d(a))    |
|                      | 거주(F-2) <sup>b</sup>          | 30<br>(32.3) | 7<br>( 7.5)  | 28<br>(30.1)  | 24<br>(25.8)  | 4<br>( 4.3)  | 93<br>(100.0)  | 2.62<br>(1.29)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4<br>(15.9) | 7<br>( 8.0)  | 53<br>(60.2)  | 8<br>( 9.1)   | 6<br>( 6.8)  | 88<br>(100.0)  | 2.83<br>(1.03)   |                       |
|                      | 영주(F-5) <sup>d</sup>          | 5<br>( 6.6)  | 37<br>(48.7) | 18<br>(23.7)  | 13<br>(17.1)  | 3<br>( 3.9)  | 76<br>(100.0)  | 2.63<br>(0.98)   |                       |
|                      | 동거(F-1 &<br>F-3) <sup>e</sup> | 2<br>( 9.5)  | 5<br>(23.8)  | 6<br>(28.6)   | 7<br>(33.3)   | 1<br>( 4.8)  | 21<br>(100.0)  | 3<br>(1.1)       |                       |
|                      | 전체                            | 66<br>(17.9) | 68<br>(18.4) | 111<br>(30.1) | 106<br>(28.7) | 18<br>( 4.9) | 369<br>(100.0) | 2.84<br>(1.17)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7<br>( 7.2)  | 9<br>( 9.3)  | 15<br>(15.5)  | 61<br>(62.9)  | 5<br>( 5.2)  | 97<br>(100.0)  | 3.49<br>(0.99)   | 16.12**<br>(b,c,d(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6<br>(11.0) | 40<br>(27.4) | 67<br>(45.9)  | 20<br>(13.7)  | 3<br>( 2.1)  | 146<br>(100.0) | 2.68<br>(0.92)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10<br>(14.9) | 17<br>(25.4) | 24<br>(35.8)  | 12<br>(17.9)  | 4<br>( 6.0)  | 67<br>(100.0)  | 2.75<br>(1.11)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36<br>(45.6) | 4<br>( 5.1)  | 10<br>(12.7)  | 19<br>(24.1)  | 10<br>(12.7) | 79<br>(100.0)  | 2.53<br>(1.56)   |                       |
|                      | 전체                            | 69<br>(17.7) | 70<br>(18.0) | 116<br>(29.8) | 112<br>(28.8) | 22<br>( 5.7) | 389<br>(100.0) | 2.87<br>(1.18)   |                       |

| 구분             |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35<br>(22.2) | 7<br>( 4.4)  | 22<br>(13.9)  | 81<br>(51.3)  | 13<br>( 8.2) | 158<br>(100.0) | 3.19<br>(1.32)   | 9.38***<br>(b.c(a)) |
|                | 15세 이전 <sup>b</sup> | 12<br>(12.4) | 31<br>(32.0) | 33<br>(34.0)  | 14<br>(14.4)  | 7<br>( 7.2)  | 97<br>(100.0)  | 2.72<br>(1.09)   |                     |
|                | 16세 이후 <sup>c</sup> | 25<br>(16.1) | 39<br>(25.2) | 65<br>(41.9)  | 21<br>(13.5)  | 5<br>( 3.2)  | 155<br>(100.0) | 2.63<br>(1.01)   |                     |
|                | 계                   | 72<br>(17.6) | 77<br>(18.8) | 120<br>(29.3) | 116<br>(28.3) | 25<br>( 6.1) | 410<br>(100.0) | 2.87<br>(1.1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조사대상은 한국 사회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그리고 이주배경청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항목에 대한 전체 평균은 3.25와 3.24로 조사대상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대체로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 항목별 집단 평균을 비교해 보면,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는 남자(평균 3.35)가 여자(평균 3.09)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지, 체류자격, 그리고 한국 입국 시기별 집단의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07)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V-8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매우<br>부정적<br>이다 | 부정적인<br>편이다  | 긍정도<br>부정도<br>아니다 | 긍정적인<br>편이다  | 매우<br>긍정적<br>이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2<br>( 0.8)     | 31<br>(12.4) | 128<br>(51.0)     | 56<br>(22.3) | 34<br>(13.5)    | 251<br>(100.0) | 3.35<br>(0.89)   | 2.64**            |
|    | 여자 | 3<br>( 1.9)     | 52<br>(32.7) | 56<br>(35.2)      | 23<br>(14.5) | 25<br>(15.7)    | 159<br>(100.0) | 3.09<br>(1.08)   |                   |
|    | 전체 | 5<br>( 1.2)     | 83<br>(20.2) | 184<br>(44.9)     | 79<br>(19.3) | 59<br>(14.4)    | 410<br>(100.0) | 3.25<br>(0.98)   |                   |

| 구분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인 편이다     |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긍정적인 편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4<br>( 1.8) | 34<br>(15.3) | 124<br>(55.9) | 38<br>(17.1) | 22<br>( 9.9) | 222<br>(100.0) | 3.18<br>(0.87) | 1.69             |
|             | 경기인천 <sup>b</sup>          | 1<br>( 1.0) | 27<br>(27.8) | 32<br>(33.0)  | 18<br>(18.6) | 19<br>(19.6) | 97<br>(100.0)  | 3.28<br>(1.11) |                  |
|             | 기타 <sup>c</sup>            | -           | 22<br>(24.2) | 28<br>(30.8)  | 23<br>(25.3) | 18<br>(19.8) | 91<br>(100.0)  | 3.41<br>(1.06) |                  |
|             | 전체                         | 5<br>( 1.2) | 83<br>(20.2) | 184<br>(44.9) | 79<br>(19.3) | 59<br>(14.4) | 410<br>(100.0) | 3.25<br>(0.98) |                  |
| 체류 자격       | 유학(D-2) <sup>a</sup>       | 3<br>( 3.3) | 3<br>( 3.3)  | 61<br>(67.0)  | 8<br>( 8.8)  | 16<br>(17.6) | 91<br>(100.0)  | 3.34<br>(0.92) | 1.23             |
|             | 거주(F-2) <sup>b</sup>       | 1<br>( 1.1) | 29<br>(31.2) | 22<br>(23.7)  | 14<br>(15.1) | 27<br>(29.0) | 93<br>(100.0)  | 3.4<br>(1.23)  |                  |
|             | 재외동포 (F-4) <sup>c</sup>    | -           | 11<br>(12.5) | 57<br>(64.8)  | 12<br>(13.6) | 8<br>( 9.1)  | 88<br>(100.0)  | 3.19<br>(0.77) |                  |
|             | 영주(F-5) <sup>d</sup>       | -           | 14<br>(18.4) | 23<br>(30.3)  | 36<br>(47.4) | 3<br>( 3.9)  | 76<br>(100.0)  | 3.37<br>(0.83) |                  |
|             | 동거(F-1 & F-3) <sup>e</sup> | -           | 7<br>(33.3)  | 9<br>(42.9)   | 3<br>(14.3)  | 2<br>( 9.5)  | 21<br>(100.0)  | 3.00<br>(0.95) |                  |
|             | 전체                         | 4<br>( 1.1) | 64<br>(17.3) | 172<br>(46.6) | 73<br>(19.8) | 56<br>(15.2) | 369<br>(100.0) | 3.31<br>(0.96)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sup>a</sup>            | 1<br>( 1.0) | 15<br>(15.5) | 64<br>(66.0)  | 10<br>(10.3) | 7<br>( 7.2)  | 97<br>(100.0)  | 3.07<br>(0.77) | 4.09***<br>(a<d)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2<br>( 1.4) | 26<br>(17.8) | 71<br>(48.6)  | 30<br>(20.5) | 17<br>(11.6) | 146<br>(100.0) | 3.23<br>(0.93) |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           | 16<br>(23.9) | 27<br>(40.3)  | 17<br>(25.4) | 7<br>(10.4)  | 67<br>(100.0)  | 3.22<br>(0.93)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d</sup>    | 1<br>( 1.3) | 20<br>(25.3) | 14<br>(17.7)  | 16<br>(20.3) | 28<br>(35.4) | 79<br>(100.0)  | 3.63<br>(1.24) |                  |
|             | 전체                         | 4<br>( 1.0) | 77<br>(19.8) | 176<br>(45.2) | 73<br>(18.8) | 59<br>(15.2) | 389<br>(100.0) | 3.27<br>(0.98) |                  |

| 구분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인 편이다     |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긍정적인 편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br>( 1.3) | 36<br>(22.8) | 74<br>(46.8)  | 18<br>(11.4) | 28<br>(17.7) | 158<br>(100.0) | 3.22<br>(1.03) | 2.16        |
|          | 15세 이전 <sup>b</sup> | 1<br>( 1.0) | 22<br>(22.7) | 36<br>(37.1)  | 32<br>(33.0) | 6<br>( 6.2)  | 97<br>(100.0)  | 3.21<br>(0.9)  |             |
|          | 16세 이후 <sup>c</sup> | 2<br>( 1.3) | 25<br>(16.1) | 74<br>(47.7)  | 29<br>(18.7) | 25<br>(16.1) | 155<br>(100.0) | 3.32<br>(0.97) |             |
|          | 계                   | 5<br>( 1.2) | 83<br>(20.2) | 184<br>(44.9) | 79<br>(19.3) | 59<br>(14.4) | 410<br>(100.0) | 3.25<br>(0.9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에 대해서도 남자(평균 3.37)가 여자(평균 3.03)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07)은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거주지, 체류자격, 그리고 한국 입국 시기별 집단의 인식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83. 이주배경 청년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인 편이다     |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긍정적인 편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성별 | 남자 | -           | 24<br>( 9.6) | 138<br>(55.0) | 60<br>(23.9) | 29<br>(11.6) | 251<br>(100.0) | 3.37<br>(0.81) | 3.36**      |
|    | 여자 | 9<br>( 5.7) | 50<br>(31.4) | 52<br>(32.7)  | 24<br>(15.1) | 24<br>(15.1) | 159<br>(100.0) | 3.03<br>(1.14) |             |
|    | 전체 | 9<br>( 2.2) | 74<br>(18.0) | 190<br>(46.3) | 84<br>(20.5) | 53<br>(12.9) | 410<br>(100.0) | 3.24<br>(0.97) |             |

| 구분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인 편이다     |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긍정적인 편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6<br>( 2.7) | 31<br>(14.0) | 126<br>(56.8) | 38<br>(17.1) | 21<br>( 9.5) | 222<br>(100.0) | 3.17<br>(0.88) | 2.84            |
|             | 경기인천 <sup>b</sup>          | 1<br>( 1.0) | 28<br>(28.9) | 34<br>(35.1)  | 19<br>(19.6) | 15<br>(15.5) | 97<br>(100.0)  | 3.2<br>(1.06)  |                 |
|             | 기타 <sup>c</sup>            | 2<br>( 2.2) | 15<br>(16.5) | 30<br>(33.0)  | 27<br>(29.7) | 17<br>(18.7) | 91<br>(100.0)  | 3.46<br>(1.05) |                 |
|             | 전체                         | 9<br>( 2.2) | 74<br>(18.0) | 190<br>(46.3) | 84<br>(20.5) | 53<br>(12.9) | 410<br>(100.0) | 3.24<br>(0.97) |                 |
| 체류 자격       | 유학(D-2) <sup>a</sup>       | 2<br>( 2.2) | -            | 65<br>(71.4)  | 8<br>( 8.8)  | 16<br>(17.6) | 91<br>(100.0)  | 3.4<br>(0.85)  | 1.63            |
|             | 거주(F-2) <sup>b</sup>       | 5<br>( 5.4) | 27<br>(29.0) | 20<br>(21.5)  | 14<br>(15.1) | 27<br>(29.0) | 93<br>(100.0)  | 3.33<br>(1.31) |                 |
|             | 재외동포 (F-4) <sup>c</sup>    | -           | 11<br>(12.5) | 57<br>(64.8)  | 15<br>(17.0) | 5<br>( 5.7)  | 88<br>(100.0)  | 3.16<br>(0.71) |                 |
|             | 영주(F-5) <sup>d</sup>       | -           | 15<br>(19.7) | 21<br>(27.6)  | 38<br>(50.0) | 2<br>( 2.6)  | 76<br>(100.0)  | 3.36<br>(0.83) |                 |
|             | 동거(F-1 & F-3) <sup>e</sup> | -           | 8<br>(38.1)  | 7<br>(33.3)   | 4<br>(19.0)  | 2<br>( 9.5)  | 21<br>(100.0)  | 3<br>(1)       |                 |
|             | 전체                         | 7<br>( 1.9) | 61<br>(16.5) | 170<br>(46.1) | 79<br>(21.4) | 52<br>(14.1) | 369<br>(100.0) | 3.29<br>(0.97)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sup>a</sup>            | 2<br>( 2.1) | 12<br>(12.4) | 65<br>(67.0)  | 13<br>(13.4) | 5<br>( 5.2)  | 97<br>(100.0)  | 3.07<br>(0.74) | 3.19*<br>(a(b))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4<br>( 2.7) | 24<br>(16.4) | 67<br>(45.9)  | 36<br>(24.7) | 15<br>(10.3) | 146<br>(100.0) | 3.23<br>(0.94) |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           | 15<br>(22.4) | 31<br>(46.3)  | 16<br>(23.9) | 5<br>( 7.5)  | 67<br>(100.0)  | 3.16<br>(0.86)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d</sup>    | 2<br>( 2.5) | 18<br>(22.8) | 20<br>(25.3)  | 12<br>(15.2) | 27<br>(34.2) | 79<br>(100.0)  | 3.56<br>(1.25) |                 |
|             | 전체                         | 8<br>( 2.1) | 69<br>(17.7) | 183<br>(47.0) | 77<br>(19.8) | 52<br>(13.4) | 389<br>(100.0) | 3.25<br>(0.97) |                 |



| 구분             |                     | 매우 부정적이다    | 부정적인 편이다     |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긍정적인 편이다     | 매우 긍정적이다     | 계              | 평균 (표준 편차)     | t/F (사후 분석)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3<br>( 1.9) | 32<br>(20.3) | 79<br>(50.0)  | 17<br>(10.8) | 27<br>(17.1) | 158<br>(100.0) | 3.21<br>(1.02) | 4.02        |
|                | 15세 이전 <sup>b</sup> | 4<br>( 4.1) | 20<br>(20.6) | 38<br>(39.2)  | 32<br>(33.0) | 3<br>( 3.1)  | 97<br>(100.0)  | 3.1<br>(0.91)  |             |
|                | 16세 이후 <sup>c</sup> | 2<br>( 1.3) | 22<br>(14.2) | 73<br>(47.1)  | 35<br>(22.6) | 23<br>(14.8) | 155<br>(100.0) | 3.35<br>(0.94) |             |
|                | 계                   | 9<br>( 2.2) | 74<br>(18.0) | 190<br>(46.3) | 84<br>(20.5) | 53<br>(12.9) | 410<br>(100.0) | 3.24<br>(0.97)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② 가치관

조사대상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미래 실현 가능성과 자신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위 및 자유의지 정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미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사대상의 인식 정도를 전체 평균 3.39으로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았다.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으나,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3.67)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에 비해 미래 실현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을 비교해 보면, 재외동포(F-4) 집단의 평균(3.14)이 다른 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었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14)도 다른 집단에 비해 미래 실현 가능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였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V-84. 삶에서 바라는 미래 실현 가능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실현할 수<br>없다 | 거의<br>실현할 수<br>없다 | 어느<br>정도는<br>실현할 수<br>있다 | 거의<br>실현할 수<br>있다 | 완벽하게<br>실현할 수<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10<br>( 4.0)      | 154<br>(61.4)            | 74<br>(29.5)      | 13<br>( 5.2)        | 251<br>(100.0) | 3.36<br>(0.64)   | -0.95               |
|          | 여자                            | 1<br>( 0.6)       | 15<br>( 9.4)      | 78<br>(49.1)             | 44<br>(27.7)      | 21<br>(13.2)        | 159<br>(100.0) | 3.43<br>(0.86)   |                     |
|          | 전체                            | 1<br>( 0.2)       | 25<br>( 6.1)      | 232<br>(56.6)            | 118<br>(28.8)     | 34<br>( 8.3)        | 410<br>(100.0) | 3.39<br>(0.74)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br>( 0.5)       | 8<br>( 3.6)       | 143<br>(64.4)            | 54<br>(24.3)      | 16<br>( 7.2)        | 222<br>(100.0) | 3.34<br>(0.69)   | 8.59***<br>(a(c))   |
|          | 경기인천 <sup>b</sup>             | -                 | 14<br>(14.4)      | 50<br>(51.5)             | 30<br>(30.9)      | 3<br>( 3.1)         | 97<br>(100.0)  | 3.23<br>(0.73)   |                     |
|          | 기타 <sup>c</sup>               | -                 | 3<br>( 3.3)       | 39<br>(42.9)             | 34<br>(37.4)      | 15<br>(16.5)        | 91<br>(100.0)  | 3.67<br>(0.79)   |                     |
|          | 전체                            | 1<br>( 0.2)       | 25<br>( 6.1)      | 232<br>(56.6)            | 118<br>(28.8)     | 34<br>( 8.3)        | 410<br>(100.0) | 3.39<br>(0.74)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2<br>( 2.2)       | 61<br>(67.0)             | 24<br>(26.4)      | 4<br>( 4.4)         | 91<br>(100.0)  | 3.33<br>(0.6)    | 5.37***<br>(c(b,d)) |
|          | 거주(F-2) <sup>b</sup>          | 1<br>( 1.1)       | 6<br>( 6.5)       | 40<br>(43.0)             | 26<br>(28.0)      | 20<br>(21.5)        | 93<br>(100.0)  | 3.62<br>(0.93)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8<br>( 9.1)       | 63<br>(71.6)             | 14<br>(15.9)      | 3<br>( 3.4)         | 88<br>(100.0)  | 3.14<br>(0.61)   |                     |
|          | 영주(F-5) <sup>d</sup>          | -                 | 2<br>( 2.6)       | 38<br>(50.0)             | 35<br>(46.1)      | 1<br>( 1.3)         | 76<br>(100.0)  | 3.46<br>(0.58)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2<br>( 9.5)       | 12<br>(57.1)             | 6<br>(28.6)       | 1<br>( 4.8)         | 21<br>(100.0)  | 3.29<br>(0.72)   |                     |
|          | 전체                            | 1<br>( 0.3)       | 20<br>( 5.4)      | 214<br>(58.0)            | 105<br>(28.5)     | 29<br>( 7.9)        | 369<br>(100.0) | 3.38<br>(0.72)   |                     |

| 구분                   |                            | 전혀<br>실현할 수<br>없다 | 거의<br>실현할 수<br>없다 | 어느<br>정도는<br>실현할 수<br>있다 | 거의<br>실현할 수<br>있다 | 완벽하게<br>실현할 수<br>있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7<br>( 7.2)       | 74<br>(76.3)             | 11<br>(11.3)      | 5<br>( 5.2)         | 97<br>(100.0)  | 3.14<br>(0.61)   | 13.45***<br>(a<c)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br>( 0.7)       | 8<br>( 5.5)       | 85<br>(58.2)             | 48<br>(32.9)      | 4<br>( 2.7)         | 146<br>(100.0) | 3.32<br>(0.65)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3<br>( 4.5)       | 42<br>(62.7)             | 17<br>(25.4)      | 5<br>( 7.5)         | 67<br>(100.0)  | 3.36<br>(0.69)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4<br>( 5.1)       | 21<br>(26.6)             | 37<br>(46.8)      | 17<br>(21.5)        | 79<br>(100.0)  | 3.85<br>(0.82)   |                   |
|                      | 전체                         | 1<br>( 0.3)       | 22<br>( 5.7)      | 222<br>(57.1)            | 113<br>(29.0)     | 31<br>( 8.0)        | 389<br>(100.0) | 3.39<br>(0.73)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9<br>( 5.7)       | 91<br>(57.6)             | 37<br>(23.4)      | 21<br>(13.3)        | 158<br>(100.0) | 3.44<br>(0.79)   | 0.94              |
|                      | 15세 이전 <sup>b</sup>        | -                 | 6<br>( 6.2)       | 52<br>(53.6)             | 34<br>(35.1)      | 5<br>( 5.2)         | 97<br>(100.0)  | 3.39<br>(0.69)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10<br>( 6.5)      | 89<br>(57.4)             | 47<br>(30.3)      | 8<br>( 5.2)         | 155<br>(100.0) | 3.33<br>(0.7)    |                   |
|                      | 계                          | 1<br>( 0.2)       | 25<br>( 6.1)      | 232<br>(56.6)            | 118<br>(28.8)     | 34<br>( 8.3)        | 410<br>(100.0) | 3.39<br>(0.74)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01$ .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1~10점으로 응답하도록 조사하였고, 응답 값이 커질수록 인식 정도는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조사대상의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 5.60으로 중간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이 인식한 사회적 지위의 집단별 평균을 비교해 보면,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4.96)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체류자격이 거주(F-2)인 집단의 평균(6.39)은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었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차이는,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5.02)이 가장 낮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6.46)이 가장 높았다.

자유의지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를 응답한 것으로 전체 평균 6.30으로 조사대상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위 수준에 비해 더 긍정적인

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을 비교하면, 남자(평균 6.10)보다는 여자(평균 6.61)의 자유의지는 높았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6.87)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자유의지가 높았다. 체류자격의 경우, 유학비자(D-2)와 재외동포(F-4)를 가진 집단의 평균은 거주(F-2)와 영주(F-5)를 가진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5.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삶의 결정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사회적 지위     |                     | 삶의 결정도     |                             |
|-------------|----------------------------|------------|---------------------|------------|-----------------------------|
|             |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 성별          | 남자                         | 5.73(1.56) | 1.85                | 6.10(1.59) | -2.74**                     |
|             | 여자                         | 5.41(1.92) |                     | 6.61(2.00) |                             |
|             | 전체                         | 5.60(1.72) |                     | 6.30(1.7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5.71(1.54) | 9.11***<br>(b<a,c)  | 6.14(1.67) | 6.24**<br>(a<c)             |
|             | 경기인천 <sup>b</sup>          | 4.96(1.81) |                     | 6.12(2.08) |                             |
|             | 기타 <sup>c</sup>            | 6.03(1.85) |                     | 6.87(1.57) |                             |
|             | 전체                         | 5.60(1.72) |                     | 6.30(1.78) |                             |
| 체류자격        | 유학(D-2) <sup>a</sup>       | 5.35(0.91) | 6.87***<br>(a,c<b)  | 5.65(1.35) | 10.13***<br>(a,c<b,d)       |
|             | 거주(F-2) <sup>b</sup>       | 6.39(2.06) |                     | 6.67(1.82) |                             |
|             | 재외동포(F-4) <sup>c</sup>     | 5.23(1.60) |                     | 5.90(1.73) |                             |
|             | 영주(F-5) <sup>d</sup>       | 5.89(1.55) |                     | 6.95(1.57) |                             |
|             | 동거(F-1 & F-3) <sup>e</sup> | 5.05(2.06) |                     | 6.24(1.87) |                             |
|             | 전체                         | 5.68(1.68) |                     | 6.27(1.71)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sup>a</sup>            | 5.02(1.26) | 11.00***<br>(a<b<d) | 5.52(1.49) | 21.94***<br>(a<b,d;<br>c<d)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5.70(1.38) |                     | 6.11(1.49) |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5.52(1.67) |                     | 6.12(1.63)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d</sup>    | 6.46(2.11) |                     | 7.65(1.91) |                             |
|             | 전체                         | 5.65(1.65) |                     | 6.28(1.76)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5.74(1.92) | 0.74                | 6.34(1.97) | 0.13                        |
|             | 15세 이전 <sup>b</sup>        | 5.53(1.73) |                     | 6.32(1.70) |                             |
|             | 16세 이후 <sup>c</sup>        | 5.52(1.47) |                     | 6.24(1.62) |                             |
|             | 계                          | 5.60(1.72) |                     | 6.30(1.7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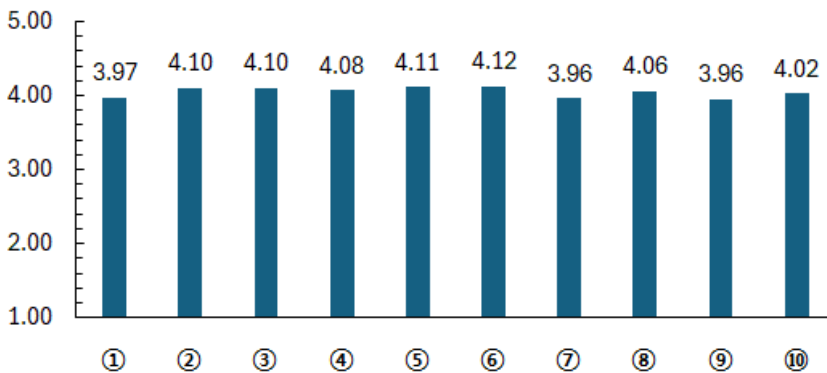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 ③ 이주민 통합을 위한 사회 문제

조사대상은 한국 사회의 이주민 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가지 문제(① 이주민의 교육 기회 보장, ②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보장, ③ 이주민과 한국인의 소득 격차, ④ 이주민과 한국인의 취업률 격차, ⑤ 이주민의 의료 소외, ⑥ 이주민의 가족 해체, ⑦ 이주민의 정치 참여, ⑧ 이주민의 영주권 취득, ⑨ 이주민의 국적취득 용이성, ⑩ 이주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보호 해결)의 중요성을 조사하였다.

각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대상의 전체 평균은 3.96~4.12로 대부분 문제에 대해 중요한 편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제에 대한 인식 정도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⑥ 이주민의 가족 해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다른 문제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이주민의 교육 기회 보장, ②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보장, ③ 이주민과 한국인의 소득 격차, ④ 이주민과 한국인의 취업률 격차, ⑤ 이주민의 의료 소외, ⑥ 이주민의 가족 해체, ⑦ 이주민의 정치 참여, ⑧ 이주민의 영주권 취득, ⑨ 이주민의 국적취득 용이성, ⑩ 이주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보호

그림 IV-8. 한국사회 이주민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의 중요성 (평균)

① 이주민의 교육 기회 보장 문제에 대해서 조사대상이 인식하는 중요성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자의 평균(4.25)은 남자의 평균(3.79)보다 높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3.86)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에 비해 낮았다. 체류자격의 경우,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3.62)이 다른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3.58)도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3.75)은 그 이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

표 IV-86.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1) 교육기회 보장 :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3<br>( 1.2)          | 85<br>(33.9)  | 124<br>(49.4) | 39<br>(15.5)   | 251<br>(100.0) | 3.79<br>(0.71)   | -6.57***               |
|          | 여자                            | -                    | -                    | 17<br>(10.7)  | 86<br>(54.1)  | 56<br>(35.2)   | 159<br>(100.0) | 4.25<br>(0.63)   |                        |
|          | 전체                            | -                    | 3<br>( 0.7)          | 102<br>(24.9) | 210<br>(51.2) | 95<br>(23.2)   | 410<br>(100.0) | 3.97<br>(0.71)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3<br>( 1.4)          | 64<br>(28.8)  | 116<br>(52.3) | 39<br>(17.6)   | 222<br>(100.0) | 3.86<br>(0.71)   | 5.99**<br>(a<b,c)      |
|          | 경기인천 <sup>b</sup>             | -                    | -                    | 18<br>(18.6)  | 48<br>(49.5)  | 31<br>(32.0)   | 97<br>(100.0)  | 4.13<br>(0.7)    |                        |
|          | 기타 <sup>c</sup>               | -                    | -                    | 20<br>(22.0)  | 46<br>(50.5)  | 25<br>(27.5)   | 91<br>(100.0)  | 4.05<br>(0.7)    |                        |
|          | 전체                            | -                    | 3<br>( 0.7)          | 102<br>(24.9) | 210<br>(51.2) | 95<br>(23.2)   | 410<br>(100.0) | 3.97<br>(0.71)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1<br>( 1.1)          | 51<br>(56.0)  | 21<br>(23.1)  | 18<br>(19.8)   | 91<br>(100.0)  | 3.62<br>(0.81)   | 7.24***<br>(a<b,c,d,e) |
|          | 거주(F-2) <sup>b</sup>          | -                    | 1<br>( 1.1)          | 11<br>(11.8)  | 51<br>(54.8)  | 30<br>(32.3)   | 93<br>(100.0)  | 4.18<br>(0.67)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17<br>(19.3)  | 47<br>(53.4)  | 23<br>(26.1)   | 88<br>(100.0)  | 4.05<br>(0.71)   |                        |
|          | 영주(F-5) <sup>d</sup>          | -                    | -                    | 14<br>(18.4)  | 55<br>(72.4)  | 7<br>( 9.2)    | 76<br>(100.0)  | 3.91<br>(0.52)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3<br>(14.3)   | 13<br>(61.9)  | 5<br>(23.8)    | 21<br>(100.0)  | 4.1<br>(0.62)    |                        |
|          | 전체                            | -                    | 3<br>( 0.8)          | 96<br>(26.0)  | 187<br>(50.7) | 83<br>(22.5)   | 369<br>(100.0) | 3.95<br>(0.72)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2<br>( 2.1)          | 54<br>(55.7)  | 24<br>(24.7)  | 17<br>(17.5)   | 97<br>(100.0)  | 3.58<br>(0.8)    | 14.01***<br>(a< c(b;<br>a(e)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13<br>( 8.9)  | 95<br>(65.1)  | 37<br>(25.3)   | 146<br>(100.0) | 4.15<br>(0.59)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                    | 19<br>(28.4)  | 37<br>(55.2)  | 11<br>(16.4)   | 67<br>(100.0)  | 3.88<br>(0.66)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11<br>(13.9)  | 46<br>(58.2)  | 22<br>(27.8)   | 79<br>(100.0)  | 4.14<br>(0.64)   |                              |
|                      | 전체                         | -                    | 3<br>( 0.8)          | 97<br>(24.9)  | 202<br>(51.9) | 87<br>(22.4)   | 389<br>(100.0) | 3.96<br>(0.71)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2<br>( 1.3)          | 66<br>(41.8)  | 59<br>(37.3)  | 31<br>(19.6)   | 158<br>(100.0) | 3.75<br>(0.78)   | 11.21***<br>(a(b,c)          |
|                      | 15세 이전 <sup>b</sup>        | -                    | 1<br>( 1.0)          | 15<br>(15.5)  | 53<br>(54.6)  | 28<br>(28.9)   | 97<br>(100.0)  | 4.11<br>(0.69)   |                              |
|                      | 16세 이후 <sup>c</sup>        | -                    | -                    | 21<br>(13.5)  | 98<br>(63.2)  | 36<br>(23.2)   | 155<br>(100.0) | 4.10<br>(0.6)    |                              |
|                      | 계                          | -                    | 3<br>( 0.7)          | 102<br>(24.9) | 210<br>(51.2) | 95<br>(23.2)   | 410<br>(100.0) | 3.97<br>(0.71)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②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보장 문제에 대해서도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남자(평균 3.89)보다는 여자의 평균(4.42)이 더 높았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4.29)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높았으며,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3.63)도 다른 체류자격 집단보다 낮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3.57)은 다른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고, 한국 입국 시기가 12세인 집단의 평균(3.83)이 가장 낮았다.

표 IV-87.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2) 체류 안정성 보장: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5<br>( 2.0)          | 81<br>(32.3)  | 101<br>(40.2) | 64<br>(25.5)   | 251<br>(100.0) | 3.89<br>(0.81)   | -6.71***                 |
|          | 여자                            | -                    | 1<br>( 0.6)          | 20<br>(12.6)  | 49<br>(30.8)  | 89<br>(56.0)   | 159<br>(100.0) | 4.42<br>(0.73)   |                          |
|          | 전체                            | -                    | 6<br>( 1.5)          | 101<br>(24.6) | 150<br>(36.6) | 153<br>(37.3)  | 410<br>(100.0) | 4.1<br>(0.82)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4<br>( 1.8)          | 64<br>(28.8)  | 74<br>(33.3)  | 80<br>(36.0)   | 222<br>(100.0) | 4.04<br>(0.85)   | 3.51*<br>(a,c(b))        |
|          | 경기인천 <sup>b</sup>             | -                    | -                    | 14<br>(14.4)  | 41<br>(42.3)  | 42<br>(43.3)   | 97<br>(100.0)  | 4.29<br>(0.71)   |                          |
|          | 기타 <sup>c</sup>               | -                    | 2<br>( 2.2)          | 23<br>(25.3)  | 35<br>(38.5)  | 31<br>(34.1)   | 91<br>(100.0)  | 4.04<br>(0.83)   |                          |
|          | 전체                            | -                    | 6<br>( 1.5)          | 101<br>(24.6) | 150<br>(36.6) | 153<br>(37.3)  | 410<br>(100.0) | 4.1<br>(0.82)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1<br>( 1.1)          | 49<br>(53.8)  | 24<br>(26.4)  | 17<br>(18.7)   | 91<br>(100.0)  | 3.63<br>(0.8)    | 12.16***<br>(a(b,c,d,e)) |
|          | 거주(F-2) <sup>b</sup>          | -                    | 2<br>( 2.2)          | 12<br>(12.9)  | 24<br>(25.8)  | 55<br>(59.1)   | 93<br>(100.0)  | 4.42<br>(0.8)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15<br>(17.0)  | 46<br>(52.3)  | 26<br>(29.5)   | 88<br>(100.0)  | 4.10<br>(0.71)   |                          |
|          | 영주(F-5) <sup>d</sup>          | -                    | 1<br>( 1.3)          | 12<br>(15.8)  | 31<br>(40.8)  | 32<br>(42.1)   | 76<br>(100.0)  | 4.24<br>(0.76)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3<br>(14.3)   | 12<br>(57.1)  | 6<br>(28.6)    | 21<br>(100.0)  | 4.14<br>(0.65)   |                          |
|          | 전체                            | -                    | 5<br>( 1.4)          | 91<br>(24.7)  | 137<br>(37.1) | 136<br>(36.9)  | 369<br>(100.0) | 4.09<br>(0.81)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2<br>( 2.1)          | 54<br>(55.7)  | 25<br>(25.8)  | 16<br>(16.5)   | 97<br>(100.0)  | 3.57<br>(0.79)   | 23.67***<br>(a<c(b,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3<br>( 2.1)          | 13<br>(8.9)   | 67<br>(45.9)  | 63<br>(43.2)   | 146<br>(100.0) | 4.3<br>(0.72)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1<br>( 1.5)          | 18<br>(26.9)  | 25<br>(37.3)  | 23<br>(34.3)   | 67<br>(100.0)  | 4.04<br>(0.82)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12<br>(15.2)  | 23<br>(29.1)  | 44<br>(55.7)   | 79<br>(100.0)  | 4.41<br>(0.74)   |                        |
|                      | 전체                         | -                    | 6<br>( 1.5)          | 97<br>(24.9)  | 140<br>(36.0) | 146<br>(37.5)  | 389<br>(100.0) | 4.1<br>(0.82)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3<br>( 1.9)          | 72<br>(45.6)  | 32<br>(20.3)  | 51<br>(32.3)   | 158<br>(100.0) | 3.83<br>(0.91)   | 14.96***<br>(a(b,c))   |
|                      | 15세 이전 <sup>b</sup>        | -                    | 1<br>( 1.0)          | 11<br>(11.3)  | 35<br>(36.1)  | 50<br>(51.5)   | 97<br>(100.0)  | 4.38<br>(0.73)   |                        |
|                      | 16세 이후 <sup>c</sup>        | -                    | 2<br>( 1.3)          | 18<br>(11.6)  | 83<br>(53.5)  | 52<br>(33.5)   | 155<br>(100.0) | 4.19<br>(0.68)   |                        |
|                      | 계                          | -                    | 6<br>( 1.5)          | 101<br>(24.6) | 150<br>(36.6) | 153<br>(37.3)  | 410<br>(100.0) | 4.1<br>(0.82)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③ 이주민과 한국인의 소득 격차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대상의 인식은 성별과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전히 남자의 평균(3.98)은 여자(4.30)보다 낮았으며,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4.38)이 다른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

표 IV-88.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3) 소득격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2<br>( 0.8)          | 45<br>(17.9) | 161<br>(64.1) | 43<br>(17.1)   | 251<br>(100.0) | 3.98<br>(0.62)   | -4.56***          |
|          | 여자                            | -                    | 2<br>( 1.3)          | 20<br>(12.6) | 66<br>(41.5)  | 71<br>(44.7)   | 159<br>(100.0) | 4.30<br>(0.73)   |                   |
|          | 전체                            | -                    | 4<br>( 1.0)          | 65<br>(15.9) | 227<br>(55.4) | 114<br>(27.8)  | 410<br>(100.0) | 4.10<br>(0.6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3<br>( 1.4)          | 24<br>(10.8) | 139<br>(62.6) | 56<br>(25.2)   | 222<br>(100.0) | 4.12<br>(0.63)   | 1.16              |
|          | 경기인천 <sup>b</sup>             | -                    | 1<br>( 1.0)          | 16<br>(16.5) | 47<br>(48.5)  | 33<br>(34.0)   | 97<br>(100.0)  | 4.15<br>(0.73)   |                   |
|          | 기타 <sup>c</sup>               | -                    | -                    | 25<br>(27.5) | 41<br>(45.1)  | 25<br>(27.5)   | 91<br>(100.0)  | 4.00<br>(0.75)   |                   |
|          | 전체                            | -                    | 4<br>( 1.0)          | 65<br>(15.9) | 227<br>(55.4) | 114<br>(27.8)  | 410<br>(100.0) | 4.10<br>(0.6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3<br>( 3.3)  | 71<br>(78.0)  | 17<br>(18.7)   | 91<br>(100.0)  | 4.15<br>(0.45)   | 1.86              |
|          | 거주(F-2) <sup>b</sup>          | -                    | 1<br>( 1.1)          | 16<br>(17.2) | 38<br>(40.9)  | 38<br>(40.9)   | 93<br>(100.0)  | 4.22<br>(0.76)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17<br>(19.3) | 49<br>(55.7)  | 21<br>(23.9)   | 88<br>(100.0)  | 4.02<br>(0.69)   |                   |
|          | 영주(F-5) <sup>d</sup>          | -                    | -                    | 20<br>(26.3) | 39<br>(51.3)  | 17<br>(22.4)   | 76<br>(100.0)  | 3.96<br>(0.7)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4.8)          | 3<br>(14.3)  | 11<br>(52.4)  | 6<br>(28.6)    | 21<br>(100.0)  | 4.05<br>(0.8)    |                   |
|          | 전체                            | -                    | 3<br>( 0.8)          | 59<br>(16.0) | 208<br>(56.4) | 99<br>(26.8)   | 369<br>(100.0) | 4.09<br>(0.67)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1<br>( 1.0)          | 12<br>(12.4) | 69<br>(71.1)  | 15<br>(15.5)   | 97<br>(100.0)  | 4.01<br>(0.57)   | 5.98**<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19<br>(13.0) | 90<br>(61.6)  | 36<br>(24.7)   | 146<br>(100.0) | 4.10<br>(0.63)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2<br>( 3.0)          | 18<br>(26.9) | 30<br>(44.8)  | 17<br>(25.4)   | 67<br>(100.0)  | 3.93<br>(0.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10<br>(12.7) | 29<br>(36.7)  | 40<br>(50.6)   | 79<br>(100.0)  | 4.38<br>(0.7)    |                     |
|                      | 전체                         | -                    | 4<br>( 1.0)          | 59<br>(15.2) | 218<br>(56.0) | 108<br>(27.8)  | 389<br>(100.0) | 4.11<br>(0.68)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2<br>( 1.3)          | 21<br>(13.3) | 85<br>(53.8)  | 50<br>(31.6)   | 158<br>(100.0) | 4.16<br>(0.69)   | 1.87                |
|                      | 15세 이전 <sup>b</sup>        | -                    | 2<br>( 2.1)          | 21<br>(21.6) | 50<br>(51.5)  | 24<br>(24.7)   | 97<br>(100.0)  | 3.99<br>(0.74)   |                     |
|                      | 16세 이후 <sup>c</sup>        | -                    | -                    | 23<br>(14.8) | 92<br>(59.4)  | 40<br>(25.8)   | 155<br>(100.0) | 4.11<br>(0.63)   |                     |
|                      | 계                          | -                    | 4<br>( 1.0)          | 65<br>(15.9) | 227<br>(55.4) | 114<br>(27.8)  | 410<br>(100.0) | 4.10<br>(0.6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④ 이주민과 한국인의 취업률 격차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대상의 인식은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평균 3.91)보다 여자(평균 4.34)가 취업률 격차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학비자(D-2)와 거주(F-2) 자격 집단의 평균은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4.41)도 다른 집단의 평균에 비해 높았다. 한편, 15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4.15)은 16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3.94)보다 높았다.

표 IV-89.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4) 취업을 격차: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2<br>( 0.8)          | 69<br>(27.5) | 130<br>(51.8) | 50<br>(19.9)   | 251<br>(100.0) | 3.91<br>(0.71)   | -6.01***               |
|          | 여자                            | -                    | 2<br>( 1.3)          | 16<br>(10.1) | 67<br>(42.1)  | 74<br>(46.5)   | 159<br>(100.0) | 4.34<br>(0.71)   |                        |
|          | 전체                            | -                    | 4<br>( 1.0)          | 85<br>(20.7) | 197<br>(48.0) | 124<br>(30.2)  | 410<br>(100.0) | 4.08<br>(0.74)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3<br>( 1.4)          | 42<br>(18.9) | 114<br>(51.4) | 63<br>(28.4)   | 222<br>(100.0) | 4.07<br>(0.72)   | 0.06                   |
|          | 경기인천 <sup>b</sup>             | -                    | -                    | 23<br>(23.7) | 44<br>(45.4)  | 30<br>(30.9)   | 97<br>(100.0)  | 4.07<br>(0.74)   |                        |
|          | 기타 <sup>c</sup>               | -                    | 1<br>( 1.1)          | 20<br>(22.0) | 39<br>(42.9)  | 31<br>(34.1)   | 91<br>(100.0)  | 4.10<br>(0.78)   |                        |
|          | 전체                            | -                    | 4<br>( 1.0)          | 85<br>(20.7) | 197<br>(48.0) | 124<br>(30.2)  | 410<br>(100.0) | 4.08<br>(0.74)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1<br>( 1.1)          | 3<br>( 3.3)  | 62<br>(68.1)  | 25<br>(27.5)   | 91<br>(100.0)  | 4.22<br>(0.55)   | 10.30***<br>(c,d(a,b)) |
|          | 거주(F-2) <sup>b</sup>          | -                    | 1<br>( 1.1)          | 11<br>(11.8) | 33<br>(35.5)  | 48<br>(51.6)   | 93<br>(100.0)  | 4.38<br>(0.74)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43<br>(48.9) | 25<br>(28.4)  | 19<br>(21.6)   | 88<br>(100.0)  | 3.70<br>(0.82)   |                        |
|          | 영주(F-5) <sup>d</sup>          | -                    | 1<br>( 1.3)          | 16<br>(21.1) | 45<br>(59.2)  | 14<br>(18.4)   | 76<br>(100.0)  | 3.95<br>(0.67)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                    | 4<br>(19.0)  | 12<br>(57.1)  | 5<br>(23.8)    | 21<br>(100.0)  | 4.05<br>(0.67)   |                        |
|          | 전체                            | -                    | 4<br>( 1.1)          | 77<br>(20.9) | 177<br>(48.0) | 111<br>(30.1)  | 369<br>(100.0) | 4.07<br>(0.74)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                    | 17<br>(17.5) | 69<br>(71.1)  | 11<br>(11.3)   | 97<br>(100.0)  | 3.94<br>(0.54)   | 8.96***<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2<br>( 1.4)          | 42<br>(28.8) | 49<br>(33.6)  | 53<br>(36.3)   | 146<br>(100.0) | 4.05<br>(0.84)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1<br>( 1.5)          | 14<br>(20.9) | 38<br>(56.7)  | 14<br>(20.9)   | 67<br>(100.0)  | 3.97<br>(0.7)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8<br>(10.1)  | 31<br>(39.2)  | 40<br>(50.6)   | 79<br>(100.0)  | 4.41<br>(0.67)   |                      |
|                      | 전체                         | -                    | 3<br>( 0.8)          | 81<br>(20.8) | 187<br>(48.1) | 118<br>(30.3)  | 389<br>(100.0) | 4.08<br>(0.73)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1<br>( 0.6)          | 20<br>(12.7) | 90<br>(57.0)  | 47<br>(29.7)   | 158<br>(100.0) | 4.16<br>(0.65)   | 3.84*<br>(c<b)       |
|                      | 15세 이전 <sup>b</sup>        | -                    | 1<br>( 1.0)          | 16<br>(16.5) | 47<br>(48.5)  | 33<br>(34.0)   | 97<br>(100.0)  | 4.15<br>(0.73)   |                      |
|                      | 16세 이후 <sup>c</sup>        | -                    | 2<br>( 1.3)          | 49<br>(31.6) | 60<br>(38.7)  | 44<br>(28.4)   | 155<br>(100.0) | 3.94<br>(0.81)   |                      |
|                      | 계                          | -                    | 4<br>( 1.0)          | 85<br>(20.7) | 197<br>(48.0) | 124<br>(30.2)  | 410<br>(100.0) | 4.08<br>(0.74)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⑤ 이주민의 의료 소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성별과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차이만 있었다. 이전 항목에서와 같이 남자의 평균(4.04)보다 여자의 평균(4.23)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의 경우, 중학교 이상 재학 집단의 평균(3.88)이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보다 낮았다.

표 IV-90.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5) 의료 소외: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1<br>( 0.4)          | 3<br>( 1.2)          | 42<br>(16.7) | 145<br>(57.8) | 60<br>(23.9)   | 251<br>(100.0) | 4.04<br>(0.7)    | -2.61*            |
|          | 여자                            | -                    | 3<br>( 1.9)          | 24<br>(15.1) | 65<br>(40.9)  | 67<br>(42.1)   | 159<br>(100.0) | 4.23<br>(0.77)   |                   |
|          | 전체                            | 1<br>( 0.2)          | 6<br>( 1.5)          | 66<br>(16.1) | 210<br>(51.2) | 127<br>(31.0)  | 410<br>(100.0) | 4.11<br>(0.73)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1<br>( 0.5)          | 24<br>(10.8) | 141<br>(63.5) | 56<br>(25.2)   | 222<br>(100.0) | 4.14<br>(0.6)    | 0.32              |
|          | 경기인천 <sup>b</sup>             | -                    | 4<br>( 4.1)          | 19<br>(19.6) | 36<br>(37.1)  | 38<br>(39.2)   | 97<br>(100.0)  | 4.11<br>(0.86)   |                   |
|          | 기타 <sup>c</sup>               | 1<br>( 1.1)          | 1<br>( 1.1)          | 23<br>(25.3) | 33<br>(36.3)  | 33<br>(36.3)   | 91<br>(100.0)  | 4.05<br>(0.87)   |                   |
|          | 전체                            | 1<br>( 0.2)          | 6<br>( 1.5)          | 66<br>(16.1) | 210<br>(51.2) | 127<br>(31.0)  | 410<br>(100.0) | 4.11<br>(0.73)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1<br>( 1.1)          | 3<br>( 3.3)  | 68<br>(74.7)  | 19<br>(20.9)   | 91<br>(100.0)  | 4.15<br>(0.51)   | 0.27              |
|          | 거주(F-2) <sup>b</sup>          | -                    | 3<br>( 3.2)          | 18<br>(19.4) | 37<br>(39.8)  | 35<br>(37.6)   | 93<br>(100.0)  | 4.12<br>(0.83)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                    | 19<br>(21.6) | 44<br>(50.0)  | 25<br>(28.4)   | 88<br>(100.0)  | 4.07<br>(0.71)   |                   |
|          | 영주(F-5) <sup>d</sup>          | -                    | 1<br>( 1.3)          | 16<br>(21.1) | 35<br>(46.1)  | 24<br>(31.6)   | 76<br>(100.0)  | 4.08<br>(0.76)   |                   |
|          | 동거(F-1 &<br>F-3) <sup>e</sup> | 1<br>( 4.8)          | -                    | 2<br>( 9.5)  | 10<br>(47.6)  | 8<br>(38.1)    | 21<br>(100.0)  | 4.14<br>(0.96)   |                   |
|          | 전체                            | 1<br>( 0.3)          | 5<br>( 1.4)          | 58<br>(15.7) | 194<br>(52.6) | 111<br>(30.1)  | 369<br>(100.0) | 4.11<br>(0.73)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                    | 11<br>(11.3) | 71<br>(73.2)  | 15<br>(15.5)   | 97<br>(100.0)  | 4.04<br>(0.52)   | 4.64**<br>(c\>b,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15<br>(10.3) | 82<br>(56.2)  | 48<br>(32.9)   | 146<br>(100.0) | 4.21<br>(0.65)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4<br>( 6.0)          | 21<br>(31.3) | 21<br>(31.3)  | 21<br>(31.3)   | 67<br>(100.0)  | 3.88<br>(0.93)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1<br>( 1.3)          | 12<br>(15.2) | 28<br>(35.4)  | 38<br>(48.1)   | 79<br>(100.0)  | 4.3<br>(0.77)    |                    |
|                      | 전체                         | -                    | 6<br>( 1.5)          | 59<br>(15.2) | 202<br>(51.9) | 122<br>(31.4)  | 389<br>(100.0) | 4.13<br>(0.71)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3<br>( 1.9)          | 23<br>(14.6) | 86<br>(54.4)  | 46<br>(29.1)   | 158<br>(100.0) | 4.11<br>(0.71)   | 0.32               |
|                      | 15세 이전 <sup>b</sup>        | -                    | 2<br>( 2.1)          | 21<br>(21.6) | 33<br>(34.0)  | 41<br>(42.3)   | 97<br>(100.0)  | 4.16<br>(0.84)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1<br>( 0.6)          | 22<br>(14.2) | 91<br>(58.7)  | 40<br>(25.8)   | 155<br>(100.0) | 4.08<br>(0.69)   |                    |
|                      | 계                          | 1<br>( 0.2)          | 6<br>( 1.5)          | 66<br>(16.1) | 210<br>(51.2) | 127<br>(31.0)  | 410<br>(100.0) | 4.11<br>(0.73)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⑥ 이주민의 가족 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남자(평균 4.03)의 중요성 인식 정도는 여자(평균 4.27)에 비해 다소 낮았다. 거주지 간 차이는 없었으나, 체류자격이 유학비자(D-2)인 집단의 평균(4.69)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한국에서 학교에 다닌 경험이 없거나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4.40과 4.28)은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4.02와 3.8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국 입국 시기가 가장 빠른 12세 이전 입국 집단의 평균(4.39)도 다른 집단의 평균 더 높았다.

표 IV-91.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6) 가족해체 :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6<br>( 2.4)          | 69<br>(27.5) | 87<br>(34.7)  | 89<br>(35.5)   | 251<br>(100.0) | 4.03<br>(0.85)   | -2.79**                    |
|          | 여자                            | 1<br>( 0.6)          | 2<br>( 1.3)          | 27<br>(17.0) | 52<br>(32.7)  | 77<br>(48.4)   | 159<br>(100.0) | 4.27<br>(0.83)   |                            |
|          | 전체                            | 1<br>( 0.2)          | 8<br>( 2.0)          | 96<br>(23.4) | 139<br>(33.9) | 166<br>(40.5)  | 410<br>(100.0) | 4.12<br>(0.85)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3<br>( 1.4)          | 57<br>(25.7) | 55<br>(24.8)  | 107<br>(48.2)  | 222<br>(100.0) | 4.2<br>(0.87)    | 1.97                       |
|          | 경기인천 <sup>b</sup>             | 1<br>( 1.0)          | 2<br>( 2.1)          | 20<br>(20.6) | 41<br>(42.3)  | 33<br>(34.0)   | 97<br>(100.0)  | 4.06<br>(0.85)   |                            |
|          | 기타 <sup>c</sup>               | -                    | 3<br>( 3.3)          | 19<br>(20.9) | 43<br>(47.3)  | 26<br>(28.6)   | 91<br>(100.0)  | 4.01<br>(0.8)    |                            |
|          | 전체                            | 1<br>( 0.2)          | 8<br>( 2.0)          | 96<br>(23.4) | 139<br>(33.9) | 166<br>(40.5)  | 410<br>(100.0) | 4.12<br>(0.85)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                    | 2<br>( 2.2)  | 24<br>(26.4)  | 65<br>(71.4)   | 91<br>(100.0)  | 4.69<br>(0.51)   | 32.09***<br>(αb,αa;<br>εa) |
|          | 거주(F-2) <sup>b</sup>          | -                    | 2<br>( 2.2)          | 12<br>(12.9) | 34<br>(36.6)  | 45<br>(48.4)   | 93<br>(100.0)  | 4.31<br>(0.78)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1<br>( 1.1)          | 2<br>( 2.3)          | 49<br>(55.7) | 18<br>(20.5)  | 18<br>(20.5)   | 88<br>(100.0)  | 3.57<br>(0.88)   |                            |
|          | 영주(F-5) <sup>d</sup>          | -                    | -                    | 20<br>(26.3) | 35<br>(46.1)  | 21<br>(27.6)   | 76<br>(100.0)  | 4.01<br>(0.74)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4.8)          | 5<br>(23.8)  | 10<br>(47.6)  | 5<br>(23.8)    | 21<br>(100.0)  | 3.9<br>(0.83)    |                            |
|          | 전체                            | 1<br>( 0.3)          | 5<br>( 1.4)          | 88<br>(23.8) | 121<br>(32.8) | 154<br>(41.7)  | 369<br>(100.0) | 4.14<br>(0.85)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3<br>( 3.1)          | 13<br>(13.4) | 23<br>(23.7)  | 58<br>(59.8)   | 97<br>(100.0)  | 4.4<br>(0.84)    | 7.93***<br>(b,c<a,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2<br>( 1.4)          | 46<br>(31.5) | 45<br>(30.8)  | 53<br>(36.3)   | 146<br>(100.0) | 4.02<br>(0.86)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1<br>( 1.5)          | 21<br>(31.3) | 32<br>(47.8)  | 13<br>(19.4)   | 67<br>(100.0)  | 3.85<br>(0.74)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2<br>( 2.5)          | 9<br>(11.4)  | 33<br>(41.8)  | 35<br>(44.3)   | 79<br>(100.0)  | 4.28<br>(0.77)   |                      |
|                      | 전체                         | -                    | 8<br>( 2.1)          | 89<br>(22.9) | 133<br>(34.2) | 159<br>(40.9)  | 389<br>(100.0) | 4.14<br>(0.84)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2<br>( 1.3)          | 21<br>(13.3) | 48<br>(30.4)  | 87<br>(55.1)   | 158<br>(100.0) | 4.39<br>(0.76)   | 14.45***<br>(b,c<a)  |
|                      | 15세 이전 <sup>b</sup>        | -                    | 5<br>( 5.2)          | 18<br>(18.6) | 45<br>(46.4)  | 29<br>(29.9)   | 97<br>(100.0)  | 4.01<br>(0.84)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1<br>( 0.6)          | 57<br>(36.8) | 46<br>(29.7)  | 50<br>(32.3)   | 155<br>(100.0) | 3.92<br>(0.88)   |                      |
|                      | 계                          | 1<br>( 0.2)          | 8<br>( 2.0)          | 96<br>(23.4) | 139<br>(33.9) | 166<br>(40.5)  | 410<br>(100.0) | 4.12<br>(0.85)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⑦ 이주민의 정치 참여 문제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다른 집단 간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거주지가 서울인 집단의 평균(4.22)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고, 유학비자(D-2) 집단의 평균(4.48)도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4.24)과 12세 이전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4.31)은 각 특성 내 집단 중 가장 높았다.

표 IV-92.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7) 정치참여: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3<br>( 1.2)          | 11<br>( 4.4)         | 51<br>(20.3) | 101<br>(40.2) | 85<br>(33.9)   | 251<br>(100.0) | 4.01<br>(0.91)   | 1.28                     |
|          | 여자                            | 8<br>( 5.0)          | 7<br>( 4.4)          | 32<br>(20.1) | 61<br>(38.4)  | 51<br>(32.1)   | 159<br>(100.0) | 3.88<br>(1.07)   |                          |
|          | 전체                            | 11<br>( 2.7)         | 18<br>( 4.4)         | 83<br>(20.2) | 162<br>(39.5) | 136<br>(33.2)  | 410<br>(100.0) | 3.96<br>(0.9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4<br>( 1.8)          | 3<br>( 1.4)          | 26<br>(11.7) | 96<br>(43.2)  | 93<br>(41.9)   | 222<br>(100.0) | 4.22<br>(0.84)   | 17.94***<br>(b,c(a))     |
|          | 경기인천 <sup>b</sup>             | 3<br>( 3.1)          | 7<br>( 7.2)          | 32<br>(33.0) | 33<br>(34.0)  | 22<br>(22.7)   | 97<br>(100.0)  | 3.66<br>(1.01)   |                          |
|          | 기타 <sup>c</sup>               | 4<br>( 4.4)          | 8<br>( 8.8)          | 25<br>(27.5) | 33<br>(36.3)  | 21<br>(23.1)   | 91<br>(100.0)  | 3.65<br>(1.07)   |                          |
|          | 전체                            | 11<br>( 2.7)         | 18<br>( 4.4)         | 83<br>(20.2) | 162<br>(39.5) | 136<br>(33.2)  | 410<br>(100.0) | 3.96<br>(0.9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2<br>( 2.2)          | 2<br>( 2.2)          | 7<br>( 7.7)  | 19<br>(20.9)  | 61<br>(67.0)   | 91<br>(100.0)  | 4.48<br>(0.9)    | 13.28***<br>(c,d,e(b,a)) |
|          | 거주(F-2) <sup>b</sup>          | 1<br>( 1.1)          | 1<br>( 1.1)          | 15<br>(16.1) | 44<br>(47.3)  | 32<br>(34.4)   | 93<br>(100.0)  | 4.13<br>(0.8)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4<br>( 4.5)          | 3<br>( 3.4)          | 21<br>(23.9) | 48<br>(54.5)  | 12<br>(13.6)   | 88<br>(100.0)  | 3.69<br>(0.91)   |                          |
|          | 영주(F-5) <sup>d</sup>          | 3<br>( 3.9)          | 6<br>( 7.9)          | 23<br>(30.3) | 29<br>(38.2)  | 15<br>(19.7)   | 76<br>(100.0)  | 3.62<br>(1.02)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2<br>( 9.5)          | 7<br>(33.3)  | 7<br>(33.3)   | 5<br>(23.8)    | 21<br>(100.0)  | 3.71<br>(0.96)   |                          |
|          | 전체                            | 10<br>( 2.7)         | 14<br>( 3.8)         | 73<br>(19.8) | 147<br>(39.8) | 125<br>(33.9)  | 369<br>(100.0) | 3.98<br>(0.97)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1<br>( 1.0)          | 3<br>( 3.1)          | 19<br>(19.6) | 23<br>(23.7)  | 51<br>(52.6)   | 97<br>(100.0)  | 4.24<br>(0.94)   | 4.81**<br>(c(a))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1<br>( 0.7)          | 7<br>( 4.8)          | 23<br>(15.8) | 75<br>(51.4)  | 40<br>(27.4)   | 146<br>(100.0) | 4.00<br>(0.83)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3<br>( 4.5)          | 3<br>( 4.5)          | 23<br>(34.3) | 24<br>(35.8)  | 14<br>(20.9)   | 67<br>(100.0)  | 3.64<br>(1.01)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3<br>( 3.8)          | 4<br>( 5.1)          | 11<br>(13.9) | 33<br>(41.8)  | 28<br>(35.4)   | 79<br>(100.0)  | 4.00<br>(1.03)   |                      |
|                      | 전체                         | 8<br>( 2.1)          | 17<br>( 4.4)         | 76<br>(19.5) | 155<br>(39.8) | 133<br>(34.2)  | 389<br>(100.0) | 4.00<br>(0.95)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3<br>( 1.9)          | 1<br>( 0.6)          | 27<br>(17.1) | 40<br>(25.3)  | 87<br>(55.1)   | 158<br>(100.0) | 4.31<br>(0.91)   | 18.65***<br>(b,c(a)) |
|                      | 15세 이전 <sup>b</sup>        | 3<br>( 3.1)          | 8<br>( 8.2)          | 26<br>(26.8) | 43<br>(44.3)  | 17<br>(17.5)   | 97<br>(100.0)  | 3.65<br>(0.97)   |                      |
|                      | 16세 이후 <sup>c</sup>        | 5<br>( 3.2)          | 9<br>( 5.8)          | 30<br>(19.4) | 79<br>(51.0)  | 32<br>(20.6)   | 155<br>(100.0) | 3.8<br>(0.94)    |                      |
|                      | 계                          | 11<br>( 2.7)         | 18<br>( 4.4)         | 83<br>(20.2) | 162<br>(39.5) | 136<br>(33.2)  | 410<br>(100.0) | 3.96<br>(0.9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⑧ 이주민의 영주권 취득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성별, 체류자격,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평균은 3.93으로 여자의 평균 4.27보다 낮았고, 체류자격이 거주(F-2)인 집단의 평균이 4.42로 다른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이 4.41로 가장 높았다.

표 IV-93.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8) 영주권 취득: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2<br>( 0.8)          | 73<br>(29.1) | 117<br>(46.6) | 59<br>(23.5)   | 251<br>(100.0) | 3.93<br>(0.74)   | -4.22***                  |
|          | 여자                            | -                    | 6<br>( 3.8)          | 21<br>(13.2) | 56<br>(35.2)  | 76<br>(47.8)   | 159<br>(100.0) | 4.27<br>(0.83)   |                           |
|          | 전체                            | -                    | 8<br>( 2.0)          | 94<br>(22.9) | 173<br>(42.2) | 135<br>(32.9)  | 410<br>(100.0) | 4.06<br>(0.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5<br>( 2.3)          | 48<br>(21.6) | 98<br>(44.1)  | 71<br>(32.0)   | 222<br>(100.0) | 4.06<br>(0.79)   | 1.97                      |
|          | 경기인천 <sup>b</sup>             | -                    | 1<br>( 1.0)          | 18<br>(18.6) | 41<br>(42.3)  | 37<br>(38.1)   | 97<br>(100.0)  | 4.18<br>(0.76)   |                           |
|          | 기타 <sup>c</sup>               | -                    | 2<br>( 2.2)          | 28<br>(30.8) | 34<br>(37.4)  | 27<br>(29.7)   | 91<br>(100.0)  | 3.95<br>(0.83)   |                           |
|          | 전체                            | -                    | 8<br>( 2.0)          | 94<br>(22.9) | 173<br>(42.2) | 135<br>(32.9)  | 410<br>(100.0) | 4.06<br>(0.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1<br>( 1.1)          | 5<br>( 5.5)  | 67<br>(73.6)  | 18<br>(19.8)   | 91<br>(100.0)  | 4.12<br>(0.53)   | 9.33***<br>(αa/b:<br>dαb) |
|          | 거주(F-2) <sup>b</sup>          | -                    | 2<br>( 2.2)          | 9<br>( 9.7)  | 30<br>(32.3)  | 52<br>(55.9)   | 93<br>(100.0)  | 4.42<br>(0.76)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42<br>(47.7) | 22<br>(25.0)  | 23<br>(26.1)   | 88<br>(100.0)  | 3.76<br>(0.86)   |                           |
|          | 영주(F-5) <sup>d</sup>          | -                    | 1<br>( 1.3)          | 16<br>(21.1) | 35<br>(46.1)  | 24<br>(31.6)   | 76<br>(100.0)  | 4.08<br>(0.76)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4.8)          | 9<br>(42.9)  | 8<br>(38.1)   | 3<br>(14.3)    | 21<br>(100.0)  | 3.62<br>(0.8)    |                           |
|          | 전체                            | -                    | 6<br>( 1.6)          | 81<br>(22.0) | 162<br>(43.9) | 120<br>(32.5)  | 369<br>(100.0) | 4.07<br>(0.78)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2<br>( 2.1)          | 19<br>(19.6) | 64<br>(66.0)  | 12<br>(12.4)   | 97<br>(100.0)  | 3.89<br>(0.63)   | 8.50***<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44<br>(30.1) | 48<br>(32.9)  | 53<br>(36.3)   | 146<br>(100.0) | 4.05<br>(0.83)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2<br>( 3.0)          | 17<br>(25.4) | 27<br>(40.3)  | 21<br>(31.3)   | 67<br>(100.0)  | 4.00<br>(0.83)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1<br>( 1.3)          | 8<br>(10.1)  | 28<br>(35.4)  | 42<br>(53.2)   | 79<br>(100.0)  | 4.41<br>(0.73)   |                      |
|                      | 전체                         | -                    | 6<br>( 1.5)          | 88<br>(22.6) | 167<br>(42.9) | 128<br>(32.9)  | 389<br>(100.0) | 4.07<br>(0.78)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3<br>( 1.9)          | 24<br>(15.2) | 81<br>(51.3)  | 50<br>(31.6)   | 158<br>(100.0) | 4.13<br>(0.73)   | 3.32                 |
|                      | 15세 이전 <sup>b</sup>        | -                    | 2<br>( 2.1)          | 19<br>(19.6) | 37<br>(38.1)  | 39<br>(40.2)   | 97<br>(100.0)  | 4.16<br>(0.81)   |                      |
|                      | 16세 이후 <sup>c</sup>        | -                    | 3<br>( 1.9)          | 51<br>(32.9) | 55<br>(35.5)  | 46<br>(29.7)   | 155<br>(100.0) | 3.93<br>(0.84)   |                      |
|                      | 계                          | -                    | 8<br>( 2.0)          | 94<br>(22.9) | 173<br>(42.2) | 135<br>(32.9)  | 410<br>(100.0) | 4.06<br>(0.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01$ .

⑨ 이주민의 국적취득 용이성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의 경우, 문제 해결에 대해 남자(평균 3.83)보다 여자(평균 4.15)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경기와 인천지역 거주자 평균(4.14)이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높았고, 유학비자(D-2) 자격을 가진 집단의 평균(3.57)은 다른 체류자격 집단의 평균에 비해 낮았다. 한국에서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3.43)은 다른 집단보다 낮았으며, 12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3.80)도 이후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에 비해 더 낮았다.

표 IV-94.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9) 국적취득 용이성: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2<br>( 0.8)          | 88<br>(35.1)  | 111<br>(44.2) | 50<br>(19.9)   | 251<br>(100.0) | 3.83<br>(0.75)   | -4.00**               |
|          | 여자                            | 1<br>( 0.6)          | 5<br>( 3.1)          | 25<br>(15.7)  | 66<br>(41.5)  | 62<br>(39.0)   | 159<br>(100.0) | 4.15<br>(0.84)   |                       |
|          | 전체                            | 1<br>( 0.2)          | 7<br>( 1.7)          | 113<br>(27.6) | 177<br>(43.2) | 112<br>(27.3)  | 410<br>(100.0) | 3.96<br>(0.8)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br>( 0.5)          | 5<br>( 2.3)          | 65<br>(29.3)  | 101<br>(45.5) | 50<br>(22.5)   | 222<br>(100.0) | 3.87<br>(0.8)    | 3.92*<br>(a,c(b))     |
|          | 경기인천 <sup>b</sup>             | -                    | 1<br>( 1.0)          | 20<br>(20.6)  | 40<br>(41.2)  | 36<br>(37.1)   | 97<br>(100.0)  | 4.14<br>(0.78)   |                       |
|          | 기타 <sup>c</sup>               | -                    | 1<br>( 1.1)          | 28<br>(30.8)  | 36<br>(39.6)  | 26<br>(28.6)   | 91<br>(100.0)  | 3.96<br>(0.8)    |                       |
|          | 전체                            | 1<br>( 0.2)          | 7<br>( 1.7)          | 113<br>(27.6) | 177<br>(43.2) | 112<br>(27.3)  | 410<br>(100.0) | 3.96<br>(0.8)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1<br>( 1.1)          | 2<br>( 2.2)          | 50<br>(54.9)  | 20<br>(22.0)  | 18<br>(19.8)   | 91<br>(100.0)  | 3.57<br>(0.87)   | 6.65***<br>(a(b,c,d)) |
|          | 거주(F-2) <sup>b</sup>          | -                    | 2<br>( 2.2)          | 16<br>(17.2)  | 40<br>(43.0)  | 35<br>(37.6)   | 93<br>(100.0)  | 4.16<br>(0.78)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20<br>(22.7)  | 50<br>(56.8)  | 17<br>(19.3)   | 88<br>(100.0)  | 3.94<br>(0.68)   |                       |
|          | 영주(F-5) <sup>d</sup>          | -                    | 1<br>( 1.3)          | 13<br>(17.1)  | 40<br>(52.6)  | 22<br>(28.9)   | 76<br>(100.0)  | 4.09<br>(0.72)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4.8)          | 4<br>(19.0)   | 9<br>(42.9)   | 7<br>(33.3)    | 21<br>(100.0)  | 4.05<br>(0.86)   |                       |
|          | 전체                            | 1<br>( 0.3)          | 7<br>( 1.9)          | 103<br>(27.9) | 159<br>(43.1) | 99<br>(26.8)   | 369<br>(100.0) | 3.94<br>(0.8)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3<br>( 3.1)          | 60<br>(61.9)  | 23<br>(23.7)  | 11<br>(11.3)   | 97<br>(100.0)  | 3.43<br>(0.73)   | 25.40***<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12<br>(8.2)   | 93<br>(63.7)  | 40<br>(27.4)   | 146<br>(100.0) | 4.18<br>(0.6)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1<br>( 1.5)          | 17<br>(25.4)  | 30<br>(44.8)  | 19<br>(28.4)   | 67<br>(100.0)  | 4<br>(0.78)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1<br>( 1.3)          | 17<br>(21.5)  | 24<br>(30.4)  | 37<br>(46.8)   | 79<br>(100.0)  | 4.23<br>(0.83)   |                       |
|                      | 전체                         | -                    | 6<br>( 1.5)          | 106<br>(27.2) | 170<br>(43.7) | 107<br>(27.5)  | 389<br>(100.0) | 3.97<br>(0.78)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3<br>( 1.9)          | 72<br>(45.6)  | 37<br>(23.4)  | 46<br>(29.1)   | 158<br>(100.0) | 3.8<br>(0.89)    | 5.44**<br>(a<b)       |
|                      | 15세 이전 <sup>b</sup>        | -                    | 2<br>( 2.1)          | 16<br>(16.5)  | 46<br>(47.4)  | 33<br>(34.0)   | 97<br>(100.0)  | 4.13<br>(0.76)   |                       |
|                      | 16세 이후 <sup>c</sup>        | 1<br>( 0.6)          | 2<br>( 1.3)          | 25<br>(16.1)  | 94<br>(60.6)  | 33<br>(21.3)   | 155<br>(100.0) | 4.01<br>(0.7)    |                       |
|                      | 계                          | 1<br>( 0.2)          | 7<br>( 1.7)          | 113<br>(27.6) | 177<br>(43.2) | 112<br>(27.3)  | 410<br>(100.0) | 3.96<br>(0.8)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⑩ 이주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보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은 남자(평균 3.81)보다 여자(평균 4.36)가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경기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평균 4.23)도 다른 지역 거주자와 비교할 때 해당 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F-2) 자격 집단의 평균은 4.27로 다른 집단의 평균보다 높았고,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한 집단의 평균은 4.54로 가장 높았다. 다만,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V-95. 이주민 통합을 위한 문제: 10) 차별에 대한 사회적 보호: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성별       | 남자                            | -                    | 5<br>( 2.0)          | 90<br>(35.9)  | 104<br>(41.4) | 52<br>(20.7)   | 251<br>(100.0) | 3.81<br>(0.78)   | -7.10***                    |
|          | 여자                            | -                    | 2<br>( 1.3)          | 21<br>(13.2)  | 53<br>(33.3)  | 83<br>(52.2)   | 159<br>(100.0) | 4.36<br>(0.76)   |                             |
|          | 전체                            | -                    | 7<br>( 1.7)          | 111<br>(27.1) | 157<br>(38.3) | 135<br>(32.9)  | 410<br>(100.0) | 4.02<br>(0.82)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                    | 4<br>( 1.8)          | 62<br>(27.9)  | 91<br>(41.0)  | 65<br>(29.3)   | 222<br>(100.0) | 3.98<br>(0.8)    | 4.09*<br>(a,c(b))           |
|          | 경기인천 <sup>b</sup>             | -                    | 1<br>( 1.0)          | 19<br>(19.6)  | 34<br>(35.1)  | 43<br>(44.3)   | 97<br>(100.0)  | 4.23<br>(0.8)    |                             |
|          | 기타 <sup>c</sup>               | -                    | 2<br>( 2.2)          | 30<br>(33.0)  | 32<br>(35.2)  | 27<br>(29.7)   | 91<br>(100.0)  | 3.92<br>(0.85)   |                             |
|          | 전체                            | -                    | 7<br>( 1.7)          | 111<br>(27.1) | 157<br>(38.3) | 135<br>(32.9)  | 410<br>(100.0) | 4.02<br>(0.82)   |                             |
| 체류<br>자격 | 유학(D-2) <sup>a</sup>          | -                    | 2<br>( 2.2)          | 52<br>(57.1)  | 11<br>(12.1)  | 26<br>(28.6)   | 91<br>(100.0)  | 3.67<br>(0.92)   | 6.29***<br>(a(b,c;<br>d(b)) |
|          | 거주(F-2) <sup>b</sup>          | -                    | 2<br>( 2.2)          | 13<br>(14.0)  | 36<br>(38.7)  | 42<br>(45.2)   | 93<br>(100.0)  | 4.27<br>(0.78)   |                             |
|          | 재외동포<br>(F-4) <sup>c</sup>    | -                    | 1<br>( 1.1)          | 14<br>(15.9)  | 45<br>(51.1)  | 28<br>(31.8)   | 88<br>(100.0)  | 4.14<br>(0.71)   |                             |
|          | 영주(F-5) <sup>d</sup>          | -                    | -                    | 18<br>(23.7)  | 43<br>(56.6)  | 15<br>(19.7)   | 76<br>(100.0)  | 3.96<br>(0.66)   |                             |
|          | 동거(F-1 &<br>F-3) <sup>e</sup> | -                    | 1<br>( 4.8)          | 5<br>(23.8)   | 5<br>(23.8)   | 10<br>(47.6)   | 21<br>(100.0)  | 4.14<br>(0.96)   |                             |
|          | 전체                            | -                    | 6<br>( 1.6)          | 102<br>(27.6) | 140<br>(37.9) | 121<br>(32.8)  | 369<br>(100.0) | 4.02<br>(0.82)   |                             |



| 구분                   |                            | 전혀<br>중요<br>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br>하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br>하다 | 계              | 평균<br>(표준<br>편차) | t/F<br>(사후<br>분석)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                    | 3<br>( 3.1)          | 66<br>(68.0)  | 15<br>(15.5)  | 13<br>(13.4)   | 97<br>(100.0)  | 3.39<br>(0.76)   | 45.34***<br>(a<b,c<d)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sup>b</sup> | -                    | 1<br>( 0.7)          | 16<br>(11.0)  | 82<br>(56.2)  | 47<br>(32.2)   | 146<br>(100.0) | 4.2<br>(0.65)    |                       |
|                      | 중학교<br>이상 재학 <sup>c</sup>  | -                    | 3<br>( 4.5)          | 17<br>(25.4)  | 26<br>(38.8)  | 21<br>(31.3)   | 67<br>(100.0)  | 3.97<br>(0.87)   |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sup>d</sup> | -                    | -                    | 3<br>( 3.8)   | 30<br>(38.0)  | 46<br>(58.2)   | 79<br>(100.0)  | 4.54<br>(0.57)   |                       |
|                      | 전체                         | -                    | 7<br>( 1.8)          | 102<br>(26.2) | 153<br>(39.3) | 127<br>(32.6)  | 389<br>(100.0) | 4.03<br>(0.81)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                    | 2<br>( 1.3)          | 65<br>(41.1)  | 37<br>(23.4)  | 54<br>(34.2)   | 158<br>(100.0) | 3.91<br>(0.89)   | 2.84                  |
|                      | 15세 이전 <sup>b</sup>        | -                    | 3<br>( 3.1)          | 25<br>(25.8)  | 31<br>(32.0)  | 38<br>(39.2)   | 97<br>(100.0)  | 4.07<br>(0.88)   |                       |
|                      | 16세 이후 <sup>c</sup>        | -                    | 2<br>( 1.3)          | 21<br>(13.5)  | 89<br>(57.4)  | 43<br>(27.7)   | 155<br>(100.0) | 4.12<br>(0.67)   |                       |
|                      | 계                          | -                    | 7<br>( 1.7)          | 111<br>(27.1) | 157<br>(38.3) | 135<br>(32.9)  | 410<br>(100.0) | 4.02<br>(0.82)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 (7) 심리사회적응 및 일상생활

조사대상의 심리사회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자아존중감, 행복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정적 미래관을 측정하였다. 또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 ①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행복감, 대인관계 어려움, 부정적 미래관을 통해 확인한 조사대상의 심리사회적응 수준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심리사회적응에 해당하는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전체 평균은 3.77과 3.62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부정적 심리사회적응에 해당하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부정적 미래관의 전체 평균은 1.88, 1.90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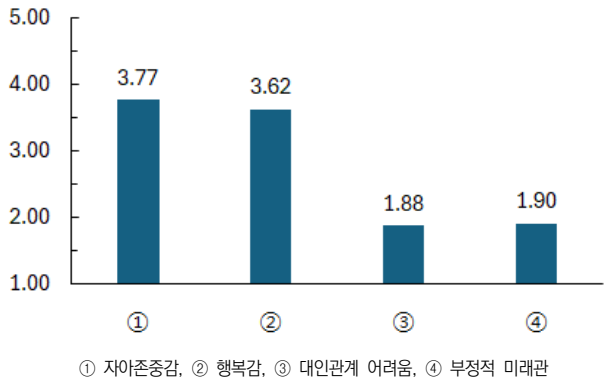


그림 IV-9. 심리사회적응 수준 (평균)

자아존중감의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자(평균 4.09)가 남자(평균 3.57)보다 더 높았고,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사대상(평균 3.97)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평균보다 더 높았다. 체류자격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F-2) 집단의 평균(4.26)은 다른 체류자격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한국에서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평균 3.24)은 한국 학교 경험이 있는 다른 집단보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에 15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3.96)은 다른 집단보다 더 높았다.

행복감 또한 남자(평균 3.55)보다 여자(평균 3.73)가 더 높았다.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집단(평균 3.28)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집단보다 행복감이 더 낮았고, 자아존중감과 마찬가지로 한국 학교 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은 3.43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거주지 및 한국 입국 시기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는 없었다.

표 IV-96. 심리사회적응: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자아존중감      |                               | 행복감        |                            |
|-------------|----------------------------|------------|-------------------------------|------------|----------------------------|
|             |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 성별          | 남자                         | 3.57(0.76) | -6.71***                      | 3.55(0.73) | -2.05*                     |
|             | 여자                         | 4.09(0.75) |                               | 3.73(0.91) |                            |
|             | 전체                         | 3.77(0.80) |                               | 3.62(0.81)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3.70(0.86) | 5.15**<br>(a<c)               | 3.64(0.75) | 0.81                       |
|             | 경기인천 <sup>b</sup>          | 3.75(0.75) |                               | 3.52(0.92) |                            |
|             | 기타 <sup>c</sup>            | 3.97(0.64) |                               | 3.67(0.82) |                            |
|             | 전체                         | 3.77(0.80) |                               | 3.62(0.81) |                            |
| 체류자격        | 유학(D-2) <sup>a</sup>       | 3.43(0.89) | 22.27***<br>(a,c<d<b;<br>e<b) | 3.62(0.61) | 8.43***<br>(c<a,b;<br>c<d) |
|             | 거주(F-2) <sup>b</sup>       | 4.26(0.63) |                               | 3.94(0.95) |                            |
|             | 재외동포(F-4) <sup>c</sup>     | 3.43(0.81) |                               | 3.28(0.76) |                            |
|             | 영주(F-5) <sup>d</sup>       | 3.98(0.54) |                               | 3.81(0.68) |                            |
|             | 동거(F-1 & F-3) <sup>e</sup> | 3.65(0.54) |                               | 3.51(0.72) |                            |
|             | 전체                         | 3.77(0.80) |                               | 3.65(0.80)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sup>a</sup>            | 3.24(0.72) | 28.61***<br>(a<b,c<d)         | 3.43(0.67) | 5.40**<br>(a<b,d)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3.92(0.72) |                               | 3.74(0.76) |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3.79(0.68) |                               | 3.50(0.76)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d</sup>    | 4.18(0.75) |                               | 3.81(0.97) |                            |
|             | 전체                         | 3.78(0.79) |                               | 3.64(0.80)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3.64(0.89) | 4.81**<br>(a<b)               | 3.52(0.82) | 2.25                       |
|             | 15세 이전 <sup>b</sup>        | 3.96(0.73) |                               | 3.73(0.82) |                            |
|             | 16세 이후 <sup>c</sup>        | 3.79(0.72) |                               | 3.65(0.78) |                            |
|             | 전체                         | 3.77(0.80) |                               | 3.62(0.81)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같은 문항으로 측정한 대인관계 어려움은 성별과 거주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체류자격에 따른 차이는 존재하였는데, 재외동포(F-4) 자격의 집단이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집단보다 대인관계 어려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거나, 중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은 다른 집단보다 대인관계 어려움 정도가 높았고, 16세 이후 한국에 입국한 집단(평균 1.83)도 다른 집단보다 대인관계 어려움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문항으로 측정된 부정적 미래관은 남자의 평균(2.02)이 여자의 평균(1.72)보다 높았다. 거주지에 따른 부정적 미래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거주(F-2)와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 미래관 정도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을 비교해 보면, 한국 학교 경험이 없는 집단의 부정적 미래관 평균(2.57)이 가장 높았다. 한국 입국 시기에 따라서는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의 평균(2.11)이 다른 집단 평균보다 더 높았다.

표 IV-97. 심리사회적응: 대인관계 어려움 및 부정적 미래관 : 평균(표준편차)

| 구분   |                            | 대인관계 어려움   |                             | 부정적 미래관    |                       |
|------|----------------------------|------------|-----------------------------|------------|-----------------------|
|      |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 성별   | 남자                         | 1.98(0.61) | 0.81                        | 2.02(0.80) | 3.75***               |
|      | 여자                         | 1.91(0.87) |                             | 1.72(0.82) |                       |
|      | 전체                         | 1.95(0.72) |                             | 1.90(0.82) |                       |
| 거주지  | 서울 <sup>a</sup>            | 1.87(0.62) | 3.18                        | 1.93(0.78) | 0.61                  |
|      | 경기인천 <sup>b</sup>          | 2.05(0.75) |                             | 1.82(0.82) |                       |
|      | 기타 <sup>c</sup>            | 2.05(0.87) |                             | 1.93(0.92) |                       |
|      | 전체                         | 1.95(0.72) |                             | 1.90(0.82) |                       |
| 체류자격 | 유학(D-2) <sup>a</sup>       | 1.91(0.61) | 6.45***<br>(a,d<c;<br>b(c)) | 2.25(0.94) | 13.51***<br>(b,d<a,c) |
|      | 거주(F-2) <sup>b</sup>       | 1.69(0.79) |                             | 1.48(0.67) |                       |
|      | 재외동포(F-4) <sup>c</sup>     | 2.19(0.66) |                             | 2.02(0.66) |                       |
|      | 영주(F-5) <sup>d</sup>       | 1.84(0.58) |                             | 1.72(0.62) |                       |
|      | 동거(F-1 & F-3) <sup>e</sup> | 2.16(0.79) |                             | 2.14(1.01) |                       |
|      | 전체                         | 1.92(0.70) |                             | 1.89(0.81) |                       |

| 구분                   |                         | 대인관계 어려움   |                        | 부정적 미래관    |                      |
|----------------------|-------------------------|------------|------------------------|------------|----------------------|
|                      |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평균(표준편차)   | t/F<br>(사후분석)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sup>a</sup>         | 2.23(0.51) | 16.30***<br>(a,c(b,d)) | 2.57(0.73) | 38.14***<br>(d(c(a))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sup>b</sup> | 1.79(0.62) |                        | 1.67(0.64) |                      |
|                      | 중학교 이상 재학 <sup>c</sup>  | 2.12(0.74) |                        | 1.81(0.74)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sup>d</sup> | 1.67(0.89) |                        | 1.58(0.81) |                      |
|                      | 전체                      | 1.93(0.71) |                        | 1.90(0.82)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sup>a</sup>     | 2.01(0.75) | 4.13*<br>(c(a))        | 2.11(0.91) | 7.56***<br>(b,c(a))  |
|                      | 15세 이전 <sup>b</sup>     | 2.05(0.79) |                        | 1.80(0.77) |                      |
|                      | 16세 이후 <sup>c</sup>     | 1.83(0.61) |                        | 1.76(0.71) |                      |
|                      | 계                       | 1.95(0.72) |                        | 1.90(0.82)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01$ .

## ② 일상생활

조사대상은 일상생활 중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외 다른 누구의 도움을 주로 받는지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없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고,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한국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각 상황 및 집단 특성에 따라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몸이 아플 때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한국인(전체 43.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경기와 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은 나와 국적이 같은 외국인(39.2%)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유학비자(D-2)와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은 나와 국적이 다른 외국인(52.7%와 49.5%)의 도움을 주로 받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반면에 동거(F-1 & F-3) 집단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42.9%)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 나눌 사람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률은 한국인(44.1%)이 가장 높았으나, 유학비자(D-2)와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은 나와 국적이 다른 외국인(51.6%와 50.5%)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마찬가지로 동거(F-1 & F-3) 집단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47.6%)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으로도 조사대상 전체의 응답에서 한국인(44.1%)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나와 국적이 같은 외국인(4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유학비자(D-2) 집단과 동거(F-1 & F-3) 집단,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 그리고 12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집단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전체의 응답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역시 한국인(39.5%)이 가장 많았으나, 여자와 경기 및 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은 나와 국적이 같은 외국인(여자 35.8%, 경기인천 37.1%)이 가장 많았다. 이 항목에서도 유학비자(D-2) 집단과 동거(F-1 & F-3) 집단,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 그리고 12세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집단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IV-98. 어려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몸이 아플 때 :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①          | ②         |
| 성별       | 남자            | 21( 8.4) | 115(45.8)        | 59(23.5)         | 53(21.1)             | 3( 1.2)  | 251(100.0) |           |
|          | 여자            | 23(14.5) | 62(39.0)         | 62(39.0)         | 4( 2.5)              | 8( 5.0)  | 159(100.0) | 3.78      |
|          | 전체            | 44(10.7) | 177(43.2)        | 121(29.5)        | 57(13.9)             | 11( 2.7) | 410(100.0) | 38.75***  |
| 거주지      | 서울            | 12( 5.4) | 97(43.7)         | 58(26.1)         | 49(22.1)             | 6( 2.7)  | 222(100.0) |           |
|          | 경기인천          | 17(17.5) | 32(33.0)         | 38(39.2)         | 5( 5.2)              | 5( 5.2)  | 97(100.0)  |           |
|          | 기타            | 15(16.5) | 48(52.7)         | 25(27.5)         | 3( 3.3)              | 0( 0.0)  | 91(100.0)  | 14.39**   |
|          | 전체            | 44(10.7) | 177(43.2)        | 121(29.5)        | 57(13.9)             | 11( 2.7) | 410(100.0) | 36.01***  |
| 체류<br>자격 | 유학(D-2)       | 3( 3.3)  | 14(15.4)         | 25(27.5)         | 48(52.7)             | 1( 1.1)  | 91(100.0)  |           |
|          | 거주(F-2)       | 14(15.1) | 38(40.9)         | 32(34.4)         | 3( 3.2)              | 6( 6.5)  | 93(100.0)  |           |
|          | 재외동포(F-4)     | 6( 6.8)  | 47(53.4)         | 30(34.1)         | 4( 4.5)              | 1( 1.1)  | 88(100.0)  |           |
|          | 영주(F-5)       | 2( 2.6)  | 63(82.9)         | 11(14.5)         | 0( 0.0)              | 0( 0.0)  | 76(100.0)  | 40.56***  |
|          | 동거(F-1 & F-3) | 9(42.9)  | 4(19.0)          | 7(33.3)          | 1( 4.8)              | 0( 0.0)  | 21(100.0)  | 167.99*** |
|          | 전체            | 34( 9.2) | 166(45.0)        | 105(28.5)        | 56(15.2)             | 8( 2.2)  | 369(100.0) |           |

| 구분                   |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①        | ②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27(27.8) | 5( 5.2)   | 15(15.5)         | 48(49.5)         | 2( 2.1)              | 97(100.0)  | 49.32*** | 186.85***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3( 2.1)  | 80(54.8)  | 54(37.0)         | 3( 2.1)          | 6( 4.1)              | 146(100.0) |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7(10.4)  | 34(50.7)  | 23(34.3)         | 2( 3.0)          | 1( 1.5)              | 67(100.0)  |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2( 2.5)  | 52(65.8)  | 19(24.1)         | 4( 5.1)          | 2( 2.5)              | 79(100.0)  |          |           |
|                      | 전체         | 39(10.0) | 171(44.0) | 111(28.5)        | 57(14.7)         | 11( 2.8)             | 389(100.0) |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12( 7.6) | 60(38.0)  | 33(20.9)         | 51(32.3)         | 2( 1.3)              | 158(100.0) | 2.72     | 75.24***  |
|                      | 15세 이전     | 13(13.4) | 40(41.2)  | 39(40.2)         | 3( 3.1)          | 2( 2.1)              | 97(100.0)  |          |           |
|                      | 16세 이후     | 19(12.3) | 77(49.7)  | 49(31.6)         | 3( 1.9)          | 7( 4.5)              | 155(100.0) |          |           |
|                      | 계          | 44(10.7) | 177(43.2) | 121(29.5)        | 57(13.9)         | 11( 2.7)             | 410(100.0) |          |           |

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② 주로 도움받는 사람.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표 IV-99.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chi^2$ |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          |           |
| 성별       | 남자            | 24( 9.6) | 116(46.2)        | 56(22.3)         | 53(21.1)             | 2( 0.8) | 251(100.0) | 2.311    | 34.03***  |
|          | 여자            | 23(14.5) | 65(40.9)         | 63(39.6)         | 5( 3.1)              | 3( 1.9) | 159(100.0) |          |           |
|          | 전체            | 47(11.5) | 181(44.1)        | 119(29)          | 58(14.1)             | 5( 1.2) | 410(100.0) |          |           |
| 거주지      | 서울            | 13( 5.9) | 107(48.2)        | 53(23.9)         | 47(21.2)             | 2( 0.9) | 222(100.0) | 15.45*** | 26.73***  |
|          | 경기인천          | 19(19.6) | 37(38.1)         | 34(35.1)         | 4( 4.1)              | 3( 3.1) | 97(100.0)  |          |           |
|          | 기타            | 15(16.5) | 37(40.7)         | 32(35.2)         | 7( 7.7)              | 0( 0.0) | 91(100.0)  |          |           |
|          | 전체            | 47(11.5) | 181(44.1)        | 119(29.0)        | 58(14.1)             | 5( 1.2) | 410(100.0) |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4( 4.4)  | 15(16.5)         | 25(27.5)         | 47(51.6)             | 0( 0.0) | 91(100.0)  | 37.78*** | 150.26*** |
|          | 거주(F-2)       | 13(14.0) | 42(45.2)         | 33(35.5)         | 2( 2.2)              | 3( 3.2) | 93(100.0)  |          |           |
|          | 재외동포(F-4)     | 8( 9.1)  | 51(58.0)         | 25(28.4)         | 4( 4.5)              | 0( 0.0) | 88(100.0)  |          |           |
|          | 영주(F-5)       | 4( 5.3)  | 57(75.0)         | 14(18.4)         | 1( 1.3)              | 0( 0.0) | 76(100.0)  |          |           |
|          | 동거(F-1 & F-3) | 10(47.6) | 4(19.0)          | 6(28.6)          | 1( 4.8)              | 0( 0.0) | 21(100.0)  |          |           |
|          | 전체            | 39(10.6) | 169(45.8)        | 103(27.9)        | 55(14.9)             | 3( 0.8) | 369(100.0) |          |           |

| 구분                   |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①        | ②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29(29.9) | 7( 7.2)   | 10(10.3)         | 49(50.5)         | 2( 2.1)              | 97(100.0)  | 52.35*** | 205.81***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3( 2.1)  | 80(54.8)  | 61(41.8)         | 1( 0.7)          | 1( 0.7)              | 146(100.0) |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7(10.4)  | 32(47.8)  | 24(35.8)         | 4( 6.0)          | 0( 0.0)              | 67(100.0)  |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3( 3.8)  | 55(69.6)  | 15(19.0)         | 4( 5.1)          | 2( 2.5)              | 79(100.0)  |          |           |
|                      | 전체         | 42(10.8) | 174(44.7) | 110(28.3)        | 58(14.9)         | 5( 1.3)              | 389(100.0) |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12( 7.6) | 63(39.9)  | 28(17.7)         | 53(33.5)         | 2( 1.3)              | 158(100.0) | 4.85     | 83.61***  |
|                      | 15세 이전     | 16(16.5) | 39(40.2)  | 39(40.2)         | 3( 3.1)          | 0( 0.0)              | 97(100.0)  |          |           |
|                      | 16세 이후     | 19(12.3) | 79(51.0)  | 52(33.5)         | 2( 1.3)          | 3( 1.9)              | 155(100.0) |          |           |
|                      | 계          | 47(11.5) | 181(44.1) | 119(29.0)        | 58(14.1)         | 5( 1.2)              | 410(100.0) |          |           |

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② 주로 도움받는 사람.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01$ .

표 IV-100.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없다            | 있다        |                  |                  |                      |         | 계          | $\chi^2$ | $\chi^2$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          |          |
|          |               |           |                  |                  |                      | ①       |            | ②        |          |
| 성별       | 남자            | 75(29.9)  | 121(48.2)        | 48(19.1)         | 3( 1.2)              | 4( 1.6) | 251(100.0) | 10.58**  | 18.10*** |
|          | 여자            | 25(15.7)  | 60(37.7)         | 64(40.3)         | 5( 3.1)              | 5( 3.1) | 159(100.0) |          |          |
|          | 전체            | 100(24.4) | 181(44.1)        | 112(27.3)        | 8( 2.0)              | 9( 2.2) | 410(100.0) |          |          |
| 거 주 지    | 서울            | 59(26.6)  | 100(45.0)        | 57(25.7)         | 4( 1.8)              | 2( 0.9) | 222(100.0) | 1.34     | 6.71     |
|          | 경기인천          | 22(22.7)  | 38(39.2)         | 30(30.9)         | 2( 2.1)              | 5( 5.2) | 97(100.0)  |          |          |
|          | 기타            | 19(20.9)  | 43(47.3)         | 25(27.5)         | 2( 2.2)              | 2( 2.2) | 91(100.0)  |          |          |
|          | 전체            | 100(24.4) | 181(44.1)        | 112(27.3)        | 8( 2.0)              | 9( 2.2) | 410(100.0) |          |          |
| 체류<br>자격 | 유학(D-2)       | 53(58.2)  | 13(14.3)         | 23(25.3)         | 1( 1.1)              | 1( 1.1) | 91(100.0)  | 95.49*** | 32.34**  |
|          | 거주(F-2)       | 17(18.3)  | 39(41.9)         | 34(36.6)         | 2( 2.2)              | 1( 1.1) | 93(100.0)  |          |          |
|          | 재외동포(F-4)     | 5( 5.7)   | 50(56.8)         | 28(31.8)         | 2( 2.3)              | 3( 3.4) | 88(100.0)  |          |          |
|          | 영주(F-5)       | 4( 5.3)   | 58(76.3)         | 12(15.8)         | 2( 2.6)              | 0( 0.0) | 76(100.0)  |          |          |
|          | 동거(F-1 & F-3) | 9(42.9)   | 6(28.6)          | 4(19.0)          | 1( 4.8)              | 1( 4.8) | 21(100.0)  |          |          |
|          | 전체            | 88(23.8)  | 166(45.0)        | 101(27.4)        | 8( 2.2)              | 6( 1.6) | 369(100.0) |          |          |

| 구분                   |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①         | ②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75(77.3)  | 8( 8.2)   | 10(10.3)         | 1( 1.0)          | 3( 3.1)              | 97(100.0)  | 197.95*** | 21.80*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7( 4.8)   | 81(55.5)  | 53(36.3)         | 3( 2.1)          | 2( 1.4)              | 146(100.0) |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9(13.4)   | 31(46.3)  | 24(35.8)         | 1( 1.5)          | 2( 3.0)              | 67(100.0)  |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4( 5.1)   | 55(69.6)  | 15(19.0)         | 3( 3.8)          | 2( 2.5)              | 79(100.0)  |           |        |
|                      | 전체         | 95(24.4)  | 175(45.0) | 102(26.2)        | 8( 2.1)          | 9( 2.3)              | 389(100.0) |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7(42.4)  | 57(36.1)  | 28(17.7)         | 3( 1.9)          | 3( 1.9)              | 158(100.0) | 45.25***  | 6.84   |
|                      | 15세 이전     | 13(13.4)  | 42(43.3)  | 36(37.1)         | 4( 4.1)          | 2( 2.1)              | 97(100.0)  |           |        |
|                      | 16세 이후     | 20(12.9)  | 82(52.9)  | 48(31.0)         | 1( 0.6)          | 4( 2.6)              | 155(100.0) |           |        |
|                      | 계          | 100(24.4) | 181(44.1) | 112(27.3)        | 8( 2.0)          | 9( 2.2)              | 410(100.0) |           |        |

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② 주로 도움받는 사람.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숙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IV-101. 어려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4)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빈도(%), 평균(표준편차)

| 구분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chi^2$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 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 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 관련 기관 종사자 |            |          |          |
| 성별   | 남자            | 79(31.5)  | 111(44.2)     | 53(21.1)      | 3( 1.2)           | 251(100.0) | 7.93**   | 29.75*** |
|      | 여자            | 30(18.9)  | 51(32.1)      | 57(35.8)      | 19(11.9)          | 159(100.0) |          |          |
|      | 전체            | 109(26.6) | 162(39.5)     | 110(26.8)     | 22( 5.4)          | 410(100.0) |          |          |
| 거주지  | 서울            | 58(26.1)  | 96(43.2)      | 49(22.1)      | 17( 7.7)          | 222(100.0) | 2.45     | 21.89**  |
|      | 경기인천          | 31(32.0)  | 25(25.8)      | 36(37.1)      | 4( 4.1)           | 97(100.0)  |          |          |
|      | 기타            | 20(22.0)  | 41(45.1)      | 25(27.5)      | 1( 1.1)           | 91(100.0)  |          |          |
|      | 전체            | 109(26.6) | 162(39.5)     | 110(26.8)     | 22( 5.4)          | 410(100.0) |          |          |
| 체류자격 | 유학(D-2)       | 54(59.3)  | 12(13.2)      | 24(26.4)      | 1( 1.1)           | 91(100.0)  | 75.78*** | 83.37*** |
|      | 거주(F-2)       | 16(17.2)  | 38(40.9)      | 20(21.5)      | 17(18.3)          | 93(100.0)  |          |          |
|      | 재외동포(F-4)     | 9(10.2)   | 44(50.0)      | 32(36.4)      | 1( 1.1)           | 88(100.0)  |          |          |
|      | 영주(F-5)       | 11(14.5)  | 54(71.1)      | 11(14.5)      | 0( 0.0)           | 76(100.0)  |          |          |
|      | 동거(F-1 & F-3) | 10(47.6)  | 3(14.3)       | 6(28.6)       | 0( 0.0)           | 21(100.0)  |          |          |
|      | 전체            | 100(27.1) | 151(40.9)     | 93(25.2)      | 19( 5.1)          | 369(100.0) |          |          |

| 구분                   |            | 없다        | 있다        |                  |                  |                      | 계          | $\chi^2$  | $\chi^2$ |
|----------------------|------------|-----------|-----------|------------------|------------------|----------------------|------------|-----------|----------|
|                      |            |           | 한국인       | 나와 국적이<br>같은 외국인 | 나와 국적이<br>다른 외국인 | 지역의 이주민<br>관련 기관 종사자 |            |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75(77.3)  | 6( 6.2)   | 12(12.4)         | 2( 2.1)          | 2( 2.1)              | 97(100.0)  | ①         | ②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4( 2.7)   | 79(54.1)  | 46(31.5)         | 1( 0.7)          | 16(11.0)             | 146(100.0) |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12(17.9)  | 28(41.8)  | 24(35.8)         | 1( 1.5)          | 2( 3.0)              | 67(100.0)  | 176.56*** | 21.89**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13(16.5)  | 43(54.4)  | 18(22.8)         | 3( 3.8)          | 2( 2.5)              | 79(100.0)  |           |          |
|                      | 전체         | 104(26.7) | 156(40.1) | 100(25.7)        | 7( 1.8)          | 22( 5.7)             | 389(100.0) |           |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69(43.7)  | 48(30.4)  | 34(21.5)         | 5( 3.2)          | 2( 1.3)              | 158(100.0) |           |          |
|                      | 15세 이전     | 16(16.5)  | 38(39.2)  | 35(36.1)         | 1( 1.0)          | 7( 7.2)              | 97(100.0)  | 38.48***  | 13.67*   |
|                      | 16세 이후     | 24(15.5)  | 76(49.0)  | 41(26.5)         | 1( 0.6)          | 13( 8.4)             | 155(100.0) |           |          |
|                      | 계          | 109(26.6) | 162(39.5) | 110(26.8)        | 7( 1.7)          | 22( 5.4)             | 410(10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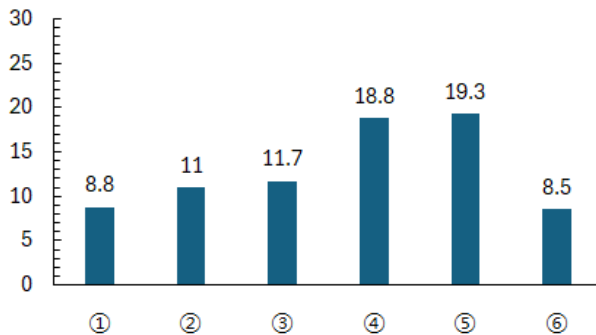
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② 주로 도움받는 사람.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숙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끼니를 거르거나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각 항목의 어려움을 경험한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조사대상의 응답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5%~19.3%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항목에 따라 경험률의 차이가 있었는데,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과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미납의 경험이 있다는 조사대상의 비율(18.8%와 19.3%)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①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②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③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⑥ 집세(월세,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

그림 IV-10.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험(비율)

집단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③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경험은 여자가 더 많았고,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과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험은 남자 집단에서 많았다.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은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과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험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① 끼니를 거름, ② 진료를 받지 못함, ③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경험, ⑥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은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집단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을 비교하면, 거주(F-2) 집단은 ①끼니를 거름, ② 진료를 받지 못함, ③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경험의 경험이 많았고, 유학비자(D-2) 집단은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과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험이 많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가운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 재학 경험이 있는 집단은 ①끼니를 거름, ② 진료를 받지 못함, ③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경험, ⑥ 집세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은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과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의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입국 시기의 경우, 12세 이전에 입국한 집단이 모든 항목에 대한 경험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02. 경제적 어려움 경험: 빈도(%)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성별   | 남자            | 18( 7.2) | 24( 9.6) | 19( 7.6) | 62(24.7) | 61(24.3)  | 18( 7.2) |
|      | 여자            | 18(11.3) | 21(13.2) | 29(18.2) | 15( 9.4) | 18(11.3)  | 17(10.7) |
|      | 전체            | 36( 8.8) | 45(11.0) | 48(11.7) | 77(18.8) | 79(19.3)  | 35( 8.5) |
|      | $\chi^2$      | 2.09     | 1.32     | 10.72**  | 14.87*** | 10.55**   | 1.55     |
| 거주지  | 서울            | 12( 5.4) | 14( 6.3) | 18( 8.1) | 58(26.1) | 54(24.3)  | 12( 5.4) |
|      | 경기인천          | 14(14.4) | 17(17.5) | 20(20.6) | 11(11.3) | 13(13.4)  | 16(16.5) |
|      | 기타            | 10(11.0) | 14(15.4) | 10(11.0) | 8( 8.8)  | 12(13.2)  | 7( 7.7)  |
|      | 전체            | 36( 8.8) | 45(11.0) | 48(11.7) | 77(18.8) | 79(19.3)  | 35(8.5)  |
|      | $\chi^2$      | 7.58*    | 11.02**  | 10.28**  | 17.33*** | 7.96*     | 10.74**  |
| 체류자격 | 유학(D-2)       | 6( 6.6)  | 8( 8.8)  | 6( 6.6)  | 49(53.8) | 53(58.2)  | 3( 3.3)  |
|      | 거주(F-2)       | 14(15.1) | 17(18.3) | 18(19.4) | 10(10.8) | 6( 6.5)   | 10(10.8) |
|      | 재외동포(F-4)     | 6( 6.8)  | 5( 5.7)  | 7( 8.0)  | 8( 9.1)  | 6( 6.8)   | 6( 6.8)  |
|      | 영주(F-5)       | 1( 1.3)  | 0( 0.0)  | 5( 6.6)  | 3( 3.9)  | 2( 2.6)   | 5( 6.6)  |
|      | 동거(F-1 & F-3) | 1( 4.8)  | 2( 9.5)  | 0( 0.0)  | 0( 0.0)  | 1( 4.8)   | 2( 9.5)  |
|      | 전체            | 28( 7.6) | 32( 8.7) | 36( 9.8) | 70(19.0) | 68(18.4)  | 26(7.0)  |
|      | $\chi^2$      | 12.10*   | 19.07**  | 14.23**  | 97.76*** | 127.95*** | 4.133    |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10(10.3) | 9( 9.3)  | 6( 6.2)  | 57(58.8)  | 58(59.8)  | 10(10.3) |
|                      | 고등학교<br>이상 재학 | 4( 2.7)  | 6( 4.1)  | 11( 7.5) | 6( 4.1)   | 2( 1.4)   | 4( 2.7)  |
|                      | 중학교<br>이상 재학  | 8(11.9)  | 13(19.4) | 14(20.9) | 6( 9.0)   | 6( 9.0)   | 8(11.9)  |
|                      | 초등학교<br>이상 재학 | 12(15.2) | 14(17.7) | 12(15.2) | 5( 6.3)   | 11(13.9)  | 12(15.2) |
|                      | 전체            | 34( 8.7) | 42(10.8) | 43(11.1) | 74(19.0)  | 77(19.8)  | 34(8.7)  |
|                      | $\chi^2$      | 11.87**  | 16.10**  | 12.15**  | 133.20*** | 135.64*** | 11.87**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19(12.0) | 27(17.1) | 25(15.8) | 58(36.7)  | 67(42.4)  | 22(13.9) |
|                      | 15세 이전        | 12(12.4) | 14(14.4) | 13(13.4) | 12(12.4)  | 7( 7.2)   | 9( 9.3)  |
|                      | 16세 이후        | 5( 3.2)  | 4( 2.6)  | 10( 6.5) | 7( 4.5)   | 5( 3.2)   | 4( 2.6)  |
|                      | 전체            | 36( 8.8) | 45(11.0) | 48(11.7) | 77(18.8)  | 79(19.3)  | 35( 8.5) |
|                      | $\chi^2$      | 9.61**   | 18.41*** | 7.00*    | 56.58***  | 89.07***  | 12.98**  |

①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②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③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④ 타인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⑤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⑥ 집세(월세,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 (8) 지원정책

조사대상이 경험한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대부분(82.4%, 338명)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경험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의 이용 경험(9.0%)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체류자격별로 비교해 보면, 영주(F-5) 집단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률(30.3%)이 가장 높았고 유학비자(D-2)의 이용률(8.8%)이 가장 낮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상 재학한 경험이 있는 집단의 이용률은 24.1%, 28.4%로 가장 높았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의 이용률은 10.3%로 비교적 낮았다. 한국 입국 시기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103. 이주배경청소년/청년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빈도(%)

| 구분          |               | 있음       | 없음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41(16.3) | 210(83.7) | 251(100.0) | 0.67     |
|             | 여자            | 31(19.5) | 128(80.5) | 159(100.0) |          |
|             | 전체            | 72(17.6) | 338(82.4)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20( 9.0) | 202(91.0) | 222(100.0) | 25.94*** |
|             | 경기인천          | 30(30.9) | 67(69.1)  | 97(100.0)  |          |
|             | 기타            | 22(24.2) | 69(75.8)  | 91(100.0)  |          |
|             | 전체            | 72(17.6) | 338(82.4) | 410(100.0) |          |
| 체류자격        | 유학(D-2)       | 8( 8.8)  | 83(91.2)  | 91(100.0)  | 13.14*   |
|             | 거주(F-2)       | 16(17.2) | 77(82.8)  | 93(100.0)  |          |
|             | 재외동포(F-4)     | 15(17.0) | 73(83.0)  | 88(100.0)  |          |
|             | 영주(F-5)       | 23(30.3) | 53(69.7)  | 76(100.0)  |          |
|             | 동거(F-1 & F-3) | 4(19.0)  | 17(81.0)  | 21(100.0)  |          |
|             | 전체            | 66(17.9) | 303(82.1) | 369(100.0)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 10(10.3) | 87(89.7)  | 97(100.0)  | 14.26**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18(12.3) | 128(87.7)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19(28.4) | 48(71.6)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19(24.1) | 60(75.9)  | 79(100.0)  |          |
|             | 전체            | 66(17.0) | 323(83.0) | 389(100.0)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 25(15.8) | 133(84.2) | 158(100.0) | 0.54     |
|             | 15세 이전        | 18(18.6) | 79(81.4)  | 97(100.0)  |          |
|             | 16세 이후        | 29(18.7) | 126(81.3) | 155(100.0) |          |
|             | 전체            | 72(17.6) | 338(82.4) | 410(100.0) |          |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5$ , \*\*  $p < .01$ , \*\*\*  $p < .001$ .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에게 이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58.3%)을 이용하였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40.3%)과 진로 프로그램(41.7%)을 이용하였다는 응답도 많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체험학습과 의료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다.

표 IV-104. 이용한 지원 프로그램: 빈도(%)

| 구분          | 빈도(%)     |
|-------------|-----------|
|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 42( 58.3) |
| 심리상담 프로그램   | 29( 40.3) |
| 진로 프로그램     | 30( 41.7) |
| 멘토링 프로그램    | 21( 29.2) |
| 기타          | 4( 5.6)   |
| 전체          | 72(100.0) |

※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는 대상이 중복 응답 한 항목임.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조사대상에게는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이주배경청년에게 필요한 지원 영역은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에서는 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포함하여 9가지 지원 영역(② 체류자격 안정화, ③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 교육, ④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⑤ 기술교육, ⑥ 취업을 위한 준비에 대한 도움(면접, 자기소개서 등), ⑦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⑧ 장학금, ⑨ 학자금 대출, ⑩ 취업소개 응답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의 응답을 살펴보면, ② 체류자격 안정화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고, 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선택한 비율도 15.6%로 다른 지원 영역을 선택한 비율보다 높았다. 조사대상의 특성에 따른 집단에서도 대부분 ② 체류자격 안정화를 가장 중요한 지원 영역으로 응답하였으나, 유학비자(D-2) 집단은 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53.8%)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한편, 동거(F-1 & F-3) 집단에서는 ③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 교육(23.8%)이 1순위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④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14.3%)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비교적 많았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과 12세 이전 한국에 입학한 집단도 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52.6%, 31.0%)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면, ① 한국의 일반적(청소년) 청년대상 지원 기관에 이주배경청년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과 ② 이주배경(청소년) 청년을 위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 중 더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②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59.5%로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집단 특성에 따라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남자는 ② 별도 기관 설립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으나 여자는 각 방법을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였다. 거주지의 경우, 서울에 거주하는 집단이 ② 별도 기관 설립을 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② 별도 기관 설립보다 ① 기존 지원 기관에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을 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표 IV-105.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주배경청년 지원: 빈도(%)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          |
|------|---------------|----------|-----------|----------|----------|----------|----------|----------|---------|---------|---------|------------|
| 성별   | 남자            | 60(23.9) | 102(40.6) | 34(13.5) | 19( 7.6) | 22( 8.8) | 9( 3.6)  | 3( 1.2)  | 0( 0.0) | 2( 0.8) | 0( 0.0) | 251(100.0) |
|      | 여자            | 4( 2.5)  | 61(38.4)  | 17(10.7) | 19(11.9) | 26(16.4) | 10( 6.3) | 9( 5.7)  | 8( 5.0) | 1( 0.6) | 4( 2.5) | 159(100.0) |
|      | 전체            | 64(15.6) | 163(39.8) | 51(12.4) | 38( 9.3) | 48(11.7) | 19( 4.6) | 12( 2.9) | 8( 2.0) | 3( 0.7) | 4( 1.0) | 410(100.0) |
| 거주지  | 서울            | 60(27.0) | 99(44.6)  | 12( 5.4) | 12( 5.4) | 23(10.4) | 5( 2.3)  | 6( 2.7)  | 2( 0.9) | 1( 0.5) | 2( 0.9) | 222(100.0) |
|      | 경기인천          | 0( 0.0)  | 32(33.0)  | 26(26.8) | 12(12.4) | 15(15.5) | 7( 7.2)  | 1( 1.0)  | 2( 2.1) | 0( 0.0) | 2( 2.1) | 97(100.0)  |
|      | 기타            | 4( 4.4)  | 32(35.2)  | 13(14.3) | 14(15.4) | 10(11.0) | 7( 7.7)  | 5( 5.5)  | 4( 4.4) | 2( 2.2) | 0( 0.0) | 91(100.0)  |
|      | 전체            | 64(15.6) | 163(39.8) | 51(12.4) | 38( 9.3) | 48(11.7) | 19( 4.6) | 12( 2.9) | 8( 2.0) | 3( 0.7) | 4( 1.0) | 410(100.0) |
| 체류자격 | 유학(D-2)       | 49(53.8) | 29(31.9)  | 2( 2.2)  | 6( 6.6)  | 1( 1.1)  | 0( 0.0)  | 1( 1.1)  | 1( 1.1) | 1( 1.1) | 1( 1.1) | 91(100.0)  |
|      | 가족(F-2)       | 3( 3.2)  | 34(36.6)  | 9( 9.7)  | 12(12.9) | 21(22.6) | 6( 6.5)  | 6( 6.5)  | 2( 2.2) | 0( 0.0) | 0( 0.0) | 93(100.0)  |
|      | 재외동포(F-4)     | 2( 2.3)  | 53(60.2)  | 15(17.0) | 4( 4.5)  | 7( 8.0)  | 1( 1.1)  | 1( 1.1)  | 3( 3.4) | 0( 0.0) | 2( 2.3) | 88(100.0)  |
|      | 영주(F-5)       | 10(13.2) | 28(36.8)  | 11(14.5) | 9(11.8)  | 9(11.8)  | 7( 9.2)  | 0( 0.0)  | 1( 1.3) | 1( 1.3) | 0( 0.0) | 76(100.0)  |
|      | 동거(F-1 & F-3) | 0( 0.0)  | 4(19.0)   | 5(23.8)  | 3(14.3)  | 4(19.0)  | 2( 9.5)  | 1( 4.8)  | 0( 0.0) | 1( 4.8) | 1( 4.8) | 21(100.0)  |
|      | 전체            | 64(17.3) | 148(40.1) | 42(11.4) | 34( 9.2) | 42(11.4) | 16( 4.3) | 9( 2.4)  | 7( 1.9) | 3( 0.8) | 4( 1.1) | 369(100.0) |

| 구분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계          |
|----------------------|------------|----------|-----------|----------|----------|----------|----------|----------|---------|---------|---------|------------|
| 한국<br>학교<br>재학<br>경험 | 없음         | 51(52.6) | 8( 8.2)   | 8( 8.2)  | 4( 4.1)  | 14(14.4) | 6( 6.2)  | 4( 4.1)  | 1( 1.0) | 0( 0.0) | 1( 1.0) | 97(100.0)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10( 6.8) | 86(58.9)  | 18(12.3) | 11( 7.5) | 7( 4.8)  | 4( 2.7)  | 6( 4.1)  | 1( 0.7) | 0( 0.0) | 3( 2.1) | 146(100.0) |
|                      | 중학교 이상 재학  | 1( 1.5)  | 30(44.8)  | 8(11.9)  | 13(19.4) | 7(10.4)  | 5( 7.5)  | 1( 1.5)  | 1( 1.5) | 1( 1.5) | 0( 0.0) | 67(100.0)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1( 1.3)  | 32(40.5)  | 14(17.7) | 8(10.1)  | 18(22.8) | 3( 3.8)  | 0( 0.0)  | 2( 2.5) | 1( 1.3) | 0( 0.0) | 79(100.0)  |
|                      | 전체         | 63(16.2) | 156(40.1) | 48(12.3) | 36( 9.3) | 46(11.8) | 18( 4.6) | 11( 2.8) | 5( 1.3) | 2( 0.5) | 4( 1.0) | 389(100.0) |
| 한국<br>입국<br>시기       | 12세 이전     | 49(31.0) | 43(27.2)  | 16(10.1) | 13( 8.2) | 23(14.6) | 7( 4.4)  | 2( 1.3)  | 3( 1.9) | 2( 1.3) | 0( 0.0) | 158(100.0) |
|                      | 15세 이전     | 6( 6.2)  | 42(43.3)  | 13(13.4) | 15(15.5) | 11(11.3) | 6( 6.2)  | 1( 1.0)  | 2( 2.1) | 0( 0.0) | 1( 1.0) | 97(100.0)  |
|                      | 16세 이후     | 9( 5.8)  | 78(50.3)  | 22(14.2) | 10( 6.5) | 14( 9.0) | 6( 3.9)  | 9( 5.8)  | 3( 1.9) | 1( 0.6) | 3( 1.9) | 155(100.0) |
|                      | 계          | 64(15.6) | 163(39.8) | 51(12.4) | 38( 9.3) | 48(11.7) | 19( 4.6) | 12( 2.9) | 8( 2.0) | 3( 0.7) | 4( 1.0) | 410(100.0) |

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② 체류자격 인정화, ③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 교육, ④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⑤ 기술교육, ⑥ 취업을 위한 준비에 대한 도움(면접, 자기소개서 등), ⑦ 심리전문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⑧ 장학금, ⑨ 학자금 대출, ⑩ 취업소개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시세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표 IV-106. 이주배경청년 지원 조직 신설에 대한 의견: 빈도(%)

| 구분          |               | ①         | ②         | 계          | $\chi^2$ |
|-------------|---------------|-----------|-----------|------------|----------|
| 성별          | 남자            | 85(33.9)  | 166(66.1) | 251(100.0) | 11.78**  |
|             | 여자            | 81(50.9)  | 78(49.1)  | 159(100.0) |          |
|             | 전체            | 166(40.5) | 244(59.5) | 410(100.0) |          |
| 거주지         | 서울            | 61(27.5)  | 161(72.5) | 222(100.0) | 34.01*** |
|             | 경기인천          | 54(55.7)  | 43(44.3)  | 97(100.0)  |          |
|             | 기타            | 51(56.0)  | 40(44.0)  | 91(100.0)  |          |
|             | 전체            | 166(40.5) | 244(59.5) | 410(100.0) |          |
| 체류자격        | 유학(D-2)       | 26(28.6)  | 65(71.4)  | 91(100.0)  | 34.11*** |
|             | 거주(F-2)       | 60(64.5)  | 33(35.5)  | 93(100.0)  |          |
|             | 재외동포(F-4)     | 24(27.3)  | 64(72.7)  | 88(100.0)  |          |
|             | 영주(F-5)       | 32(42.1)  | 44(57.9)  | 76(100.0)  |          |
|             | 동거(F-1 & F-3) | 8(38.1)   | 13(61.9)  | 21(100.0)  |          |
|             | 전체            | 150(40.7) | 219(59.3) | 369(100.0) |          |
| 한국 학교 재학 경험 | 없음            | 16(16.5)  | 81(83.5)  | 97(100.0)  | 34.00*** |
|             | 고등학교 이상 재학    | 62(42.5)  | 84(57.5)  | 146(100.0) |          |
|             | 중학교 이상 재학     | 34(50.7)  | 33(49.3)  | 67(100.0)  |          |
|             | 초등학교 이상 재학    | 44(55.7)  | 35(44.3)  | 79(100.0)  |          |
|             | 전체            | 156(40.1) | 233(59.9) | 389(100.0) |          |
| 한국 입국 시기    | 12세 이전        | 59(37.3)  | 99(62.7)  | 158(100.0) | 1.39     |
|             | 15세 이전        | 39(40.2)  | 58(59.8)  | 97(100.0)  |          |
|             | 16세 이후        | 68(43.9)  | 87(56.1)  | 155(100.0) |          |
|             | 전체            | 166(40.5) | 244(59.5) | 410(100.0) |          |

① 한국의 일반적 (청소년)청년대상 지원 기관에 이주배경청년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청년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체류자격에 따른 집단 구분은 사례 수가 20보다 큰 유형으로 한정하였음.

2)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에 따른 집단 구분은 한국에서 두 개 이상 연속된 학교급에 재학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음.

\*\*  $p < .01$ , \*\*\*  $p < .001$ .

### 3) 결과 요약

본 장에서는 외국국적을 소지한 19~34세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 영역은 크게 배경특성,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교육 경험, 진로·직업 탐색 및 사회진입, 사회인식 및 가치관, 심리사회적응 및 일상생활, 지원정책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기술통계 및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의 배경 특성인 성별(남자와 여자), 거주지(서울, 경기인천, 기타), 체류자격(유학비자(D-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동거(F-1 & F-3), 한국 학교 재학 경험(없음, 고등학교 이상 재학, 중학교 이상 재학, 초등학교 이상 재학), 한국 입국 시기(12세 이전 입국, 15세 이전 입국, 16세 이후 입국)에 따라 집단을 정의하였다. 다만, 표본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석 단위로 보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예: 체류자격이 결혼이민(F-6)인 경우)은 단독 집단으로 정의하지 않고 집단 비교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영역별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107. 설문조사 주요결과 및 시사점

|          | 주요 결과                                                                                                                                                                                                                                                                                                                | 시사점                                                                                                                                                                                                                      |
|----------|----------------------------------------------------------------------------------------------------------------------------------------------------------------------------------------------------------------------------------------------------------------------------------------------------------------------|--------------------------------------------------------------------------------------------------------------------------------------------------------------------------------------------------------------------------|
| 배경<br>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 최종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교(각 58.8%, 58.0%) 졸업이 가장 많았음.</li> <li>■ 가정 경제 수준은 중간(48.0%)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잘 사는 편(33.9%)이라는 응답도 높았음.</li> <li>■ 56.1%가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는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서'(47.4%)임.</li> <li>■ 희망하는 최종 체류 상태는 한국 국적 취득(40.7%)이 가장 많았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장기 정착의지가 높으며,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li> </ul>                                           |
| 한국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요건으로 한국어 능력은 중요하게 인식함 (어느 정도 중요 40.7%, 매우 중요 34.1%)</li> <li>■ 한국어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42.7%</li> <li>■ 한국어 교육 참여 희망여부는 경기인천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li> <li>■ 여자가 남자보다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유의하게 더 높게 인식하고, 한국어 교육 참여 의향</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주배경청년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됨.</li> <li>■ 한국어교육에 대한 희망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함.</li> <li>■ 한국학교에 재학한 적이 있는 경우 오히려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li> </ul> |



|                  | 주요 결과                                                                                                                                                                                                                                                                                                                                                                                                                                                                                                               | 시사점                                                                                                                                                                                                                                                                                                                                              |
|------------------|---------------------------------------------------------------------------------------------------------------------------------------------------------------------------------------------------------------------------------------------------------------------------------------------------------------------------------------------------------------------------------------------------------------------------------------------------------------------------------------------------------------------|--------------------------------------------------------------------------------------------------------------------------------------------------------------------------------------------------------------------------------------------------------------------------------------------------------------------------------------------------|
|                  | <p>도 더 높음 (여자 51.6% vs 남자 3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이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함.</li> <li>■ 12세 이전 입국 집단이 16세 이후 입국 집단보다 자신의 한국어 읽기, 듣기 능력 수준을 높게 지각</li> <li>■ 16세 이후 입국한 집단이 12세 이전 입국한 집단보다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세 이후, 즉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연령에 한국에 입국한 집단의 경우 한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함.</li> <li>■ 이주배경청년 대상 한국어는 수요가 있고, 특히 중학교 이후 고연령기에 입국한 경우 그 요구도가 매우 높음.</li> </ul>                                                                                                                                                 |
| 교육 경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자가 76.3%임</li> <li>■ 현재 학교를 다니는 주된 이유는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47.1%)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47.1%)임.</li> <li>■ 대학(원)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고, 학업 만족도(평균 3.28)가 다른 영역보다 다소 낮았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교육경험자가 다수임. 따라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사회진출 시 적응에 용이함.</li> <li>■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원하는 공부'와 '원하는 직업'임.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사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대학(원) 입학자들의 학업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함</li> </ul>                                                                                                  |
| 진로 직업 탐색 및 사회 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8.3%가 향후 더 공부할 계획이 있었고, 희망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54.0%) 또는 대학원 이상(31.3%)이 대부분임.</li> <li>■ 향후 직업훈련 계획은 52.4%가 있다고 응답함.</li> <li>■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1.1%)이 가장 많았음.</li> <li>■ 전반적인 직업 만족도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평균 3.53)이었고, '개인의 발전 가능성' (평균 3.39)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li> <li>■ 재외동포(F-4) 집단(70.5%)의 진학 계획 비율이 가장 높았고, 유학비자(D-2) 집단의 비율(34.1%)이 가장 낮았음.</li> <li>■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진학 계획 비율이 증가했으며, 경험이 없는 집단은 17.5%에 불과함.</li> <li>■ 15세 이전 입국 집단의 직업훈련 경험이 더 많았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음.</li> <li>■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이는 이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역량을 개발시키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함</li> <li>■ 안정적 체류자격을 지닌 경우 진학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음. 체류자격이 안정되었을 때 교육을 통해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li> <li>■ 이른 나이에 입국한 경우 직업훈련 경험 이 많다는 것은 정보접근성이 이유일 수 있음.</li> </ul> |
| 한국 사회 인식 및 가치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li> <li>■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평균 3.70)와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평균 3.67) 인식이 높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평균 3.40) 인식이 가장 낮았음.</li> <li>■ 한국생활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긍정적인.</li> <li>■ 이주민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사회 문제를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이주민의 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에 대한 가치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식도 높은 편임.</li> <li>■ 이주민의 통합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가족체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함.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li> <li>■ 한국 학교 재학 기간이 길수록 한국사회</li> </ul>                                                                                                       |

|                                 | 주요 결과                                                                                                                                                                                                                                                                                                                                                                  | 시사점                                                                                                                                                                                                                                                                                                                             |
|---------------------------------|------------------------------------------------------------------------------------------------------------------------------------------------------------------------------------------------------------------------------------------------------------------------------------------------------------------------------------------------------------------------|---------------------------------------------------------------------------------------------------------------------------------------------------------------------------------------------------------------------------------------------------------------------------------------------------------------------------------|
|                                 | <p>족 해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인식한 사회적 지위는 중간(10점 만점에 5.60) 수준이었고, 자유의지 정도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10점 만점에 평균 6.30).</li> <li>■ 한국 학교 재학기간이 길수록 한국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함.</li> <li>■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짧을수록 '피부색'으로 인한 부당대우를 높게 인식하고,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이 '체류자격'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부당대우를 가장 높게 인식함.</li> </ul>                                       | <p>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부당대우도 적게 인식함. 따라서 한국 학교 재학은 이주배경청년들의 적응에 중요한 요인임.</p>                                                                                                                                                                                                                                                        |
| 심리<br>사회<br>적응<br>및<br>일상<br>생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아존중감(평균 3.77)과 행복감(평균 3.62)은 보통보다 높았고, 대인관계 어려움(평균 1.95)과 부정적 미래관(평균 1.90)은 낮았음.</li> <li>■ 전반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국인으로부터 도움을 주로 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li> <li>■ 거주(F-2) 집단이 자아존중감(평균 4.26)이 가장 높았고, 재외동포(F-4) 집단이 행복감(평균 3.28)이 가장 낮았음.</li> <li>■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자아존중감(평균 3.24)이 가장 낮았고, 부정적 미래관(평균 2.57)이 가장 높았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심리적응의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임.</li> <li>■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한국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아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임</li> <li>■ 체류자격에 따라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짐</li> <li>■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경우 심리적응수준이 낮음. 이는 이주배경청년들의 한국학교 경험이 이들의 적응수준을 높이기 때문으로 보임.</li>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li> </ul> |
| 지원<br>정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 이 없는 경우가 82.4%임.</li> <li>■ 가장 필요한 지원은 '체류자격 안정화'(39.8%)라는 응답이 많았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에 대한 선호가 높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 경험은 영주(F-5) 집단의 이용률(30.3%)이 가장 높았고, 유학비자(D-2)의 이용률(8.8%)이 가장 낮았음</li> <li>■ 한국 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기존 지원 기관에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을 선호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경험은 대다수가 없고, 이용한 경우는 한국어교육을 이용함.</li> <li>■ 체류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li> <li>■ 비자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이 다름.</li> <li>■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별도의 조직 보다는 기존의 조직에 이주배경청년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li> </ul>                         |

## 2.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1) 조사목적

본 면접조사는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및 자립 실태와 정책적 요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의 당사자인 이주배경청년과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던 현장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및 자립지원과 관련한 실태를 생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선행된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 결과가 내포한 함의를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고, 다양한 결과의 이면에 존재하는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심도 있는 해석을 더하고자 면접조사를 수행하였다. 셋째, 다양한 체류 지위와 성장경로를 지닌 청년들이 청년기 전환과정에서 직면하는 제도적, 실천적 장애요인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 (2) 조사방법

본 면접조사는 집단초점면담, Focus Group Interview(FGI)에 기반한 반구조화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으로 설계되었다. FGI는 동일하고 유사한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고를 확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응답을 이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Kitzinger, 1995). 때문에 본 면접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년 및 전문가 집단의 언어 및 문화적 배경 이질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같은 언어권 중심의 집단 구성을 적용해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FGI 면담 방식을 활용하였다.

본 FGI 조사는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토대로 하는 반구조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 기법을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가 면담자에게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질문의 형태인 열린 질문과, 참여자의 응답 흐름에 맞추어 질문의 순서와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추가적인 질문과 응답도 자유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은 개인의 경험과 인식을 심층 파악하는 데 적합하며, 특히 복합적 전환기 과제를 겪는 이주배경청년의 경험기반 응답을 이끌어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Creswell, 2007; Merriam, 2009; Yin, 2014).

조사대상자의 모집 방식은 의도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방법을 적용하여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핵심 질문에 대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참여자를 연구진이 선정하였으며, 이는 면접 조사 및 질적 연구 방식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Creswell, 2007; Merriam, 2009; Patton, 2002). 조사대상자는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 지원기관, 학교 및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주배경청년집단에서는 체류지위·출생지·성별·연령·진로상태의 이질성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교·지자체·민간·대안교육 등 실천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3) 조사 절차

본 연구는 윤리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서와 심의신청서를 비롯하여, 조사 안내문 및 참여 동의서, 연구자 윤리교육 이수증, 각종 서약서, 그리고 면접 질문지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심의를 거쳤다. 그 결과, 2025년 7월 25일부로 최종 승인(승인번호: 202505-HR-고유-008)을 획득하였다. 면접조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 이후 면접조사 목적에 근거하여 이주배경청년 30명과 전문가 8명을 섭외하였고, 2025년 8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IRB 승인을 받은 후, 연구진은 참여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하고, 조사 참여 희망자에게 연구목적, 절차, 익명성 보장, 자발적 참여 및 중도 철회권 등을 상세히 알렸다. 면담은 참여자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 1주일 전에 사전조사설문지와 면담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연구진은 면담 3일 전까지 회수된 사전조사설문지를 검토하여 참여자의 생활사적 배경과 현재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면담 현장에서 개별 경험을 맥락화한 추적 질문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집단 상호작용이 응답의 풍부성과 심층성을 높인다는 FGI의 장점을 실제 면담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Kitzinger, 1995).

면접조사는 개별 회의실에서 소규모 집단 단위로 진행하였다. 한 집단의 기준 인원은 3~5명, 기준 시간은 약 2시간으로 운영하였고, 면접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었으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약 30분 내외의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 동의를 전제로 녹취를 병행하였고, 면담 종료 후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전환하였다. 현장에서는 연구진이 조사참여자의 합의와 이견이 나타나는 경우, 정서적

강도의 변화 등을 현장 메모로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이후 약호화 단계에서 응답의 의미를 맥락과 결부해 해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언어와 집단 편성은 참여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동일 및 유사 언어권을 한 집단으로 묶는 편성이 상호 이해를 촉진한다는 점을 고려해 한 집단으로 묶고자 노력하였고,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통역 및 번역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통역 및 번역자를 섭외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였고, 통역을 활용한 경우는 전체 중 두 명이었다.

면담 후 자료들은 면접조사 및 질적 연구의 표준적 품질관리와 윤리 준수, 자료관리 원칙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Creswell, 2007; Merriam, 2009; Yin, 2014). 전사 과정 전체에 비식별화 원칙을 적용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거 및 대체하였고, 모든 자료는 암호화된 저장공간에 분리 보관하여 연구진 외 접근을 제한하였다. 분석으로 이관하기 전, 면담집단별 질문 흐름의 차이가 결과 비교 가능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공통 핵심 항목(예: 체류 경험, 학업·노동 전환의 제약, 차별·배제 경험, 정책 접점)이 전 집단에서 최소한으로 확보되었는지 확인하였다.

#### (4) 조사대상자

면접조사에는 이주배경청년 30명과 전문가 8명이 참여하였다. 먼저 이주배경청년은 국적, 체류자격, 성별, 거주지역, 현재 활동 등에서 다양한 청년집단으로 구성하여, 청년기 진로 및 자립역량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실태에 관한 맥락을 폭넓게 포착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주배경청년의 국적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다양한 국적을 모집하였으며, 체류자격 또한 유학 비자(D-2), 구직 비자(D-10), 전문취업(E-7), 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F 계열), 난민·인도적 체류(G-1), 미등록, 귀화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청년들의 현재 활동은 대학 재학과 휴학, 아르바이트 및 인턴, 구직과 비자 전환 준비, 자영업 및 현장직, 돌봄 및 육아와 같은 비임금 활동 등으로 다양하며, 지역도 최대한 다양하게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주배경청년 참여자 모집은 전국 단위로 진행되었으나, 다수의 이주배경청년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유입·정주하는 인구학적 특성이 반영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 참여자의 비율이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108. 면접조사 개요

| 주요 요소           | 내 용                                                                                                                                                                                                                                                                                                                                                                                                                                                |
|-----------------|----------------------------------------------------------------------------------------------------------------------------------------------------------------------------------------------------------------------------------------------------------------------------------------------------------------------------------------------------------------------------------------------------------------------------------------------------|
|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지역별 이주배경청소년·청년 관련 기관, 학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 추천 등을 통해 섭외</li> <li>○ 전문가: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기관, 학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 추천을 통해 섭외</li> </ul>                                                                                                                                                                                                                                                                                    |
| 면담참여자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30명</li> <li>○ 전문가 및 교사: 8명</li> </ul>                                                                                                                                                                                                                                                                                                                                                                |
|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 국적, 체류자격, 성별, 거주지역, 현재 활동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청년 집단으로 구성함. 특히 청년기 진로 및 자립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체류자격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하게 구성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류자격: 유학(D-2), 구직(D-10), 전문취업(E-7), 재외동포·영주·결혼이민(F계열), 난민·인도적 체류(G-1), 미등록, 귀화 등</li> <li>- 국적: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태국, 몽골,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li> </ul> </li> <li>○ 전문가: 국내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기관 실무자 및 이주배경학생 담당 교사, 연구자 등 관련 업무 최소 3년 이상 종사자</li> </ul> |
| 면담방식            |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통한 Focus Group Interview(FGI)                                                                                                                                                                                                                                                                                                                                                                                                         |
| 면담 시간 및 횟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1시간 30분 ~ 2시간,</li> <li>○ 심층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 필요에 따라 후속 면담을 수행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질의응답은 유선 및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함</li> </ul>                                                                                                                                                                                                                                                                                             |
| 면담 시기           | 2025년 7월 25일 ~ 2025년 10월 31일                                                                                                                                                                                                                                                                                                                                                                                                                       |
|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녹취 후 분석                                                                                                                                                                                                                                                                                                                                                                                                                                            |
| 면담자             | 내부 연구진                                                                                                                                                                                                                                                                                                                                                                                                                                             |

표 IV-109. 면접조사 참여 청소년 배경특성

| 대상자 | 성별 | 출생연도 | 거주지역 | 국적     | 체류자격  |
|-----|----|------|------|--------|-------|
| Y1  | 남  | 2000 | 부산   | 파키스탄   | 미등록   |
| Y2  | 남  | 1996 | 부산   | 파키스탄   | 미등록   |
| Y3  | 남  | 2000 | 부산   | 파키스탄   | 미등록   |
| Y4  | 남  | 2006 | 포천   | 스리랑카   | D-2   |
| Y5  | 남  | 2004 | 울산   | 우즈베키스탄 | D-2   |
| Y6  | 여  | 2003 | 경기   | 태국     | D-2   |
| Y7  | 여  | 2002 | 서울   | 몽골     | D-2   |
| Y8  | 남  | 2000 | 당진   | 필리핀    | D-10  |
| Y9  | 여  | 1994 | 서울   | 몽골     | D-10  |
| Y10 | 남  | 1997 | 인천   | 몽골     | E-7   |
| Y11 | 남  | 2004 | 안산   | 필리핀    | E-7-Y |

| 대상자 | 성별 | 출생연도 | 거주지역 | 국적     | 체류자격  |
|-----|----|------|------|--------|-------|
| Y12 | 남  | 2004 | 서울   | 중국     | F-1   |
| Y13 | 여  | 2003 | 대전   | 베트남    | F-1   |
| Y14 | 여  | 1991 | 경기   | 몽골     | F-2   |
| Y15 | 남  | 2005 | 서울   | 말리     | F-2   |
| Y16 | 남  | 2005 | 안산   | 수단     | F-2   |
| Y17 | 여  | 2005 | 울산   | 필리핀    | F-2   |
| Y18 | 남  | 2003 | 경북   | 베트남    | F-2-R |
| Y19 | 여  | 2001 | 서울   | 우즈베키스탄 | F-4   |
| Y20 | 여  | 2003 | 서울   | 중국     | F-4   |
| Y21 | 여  | 2003 | 서울   | 중국     | F-4   |
| Y22 | 남  | 2003 | 서울   | 중국     | F-4   |
| Y23 | 남  | 1999 | 구로   | 중국     | F-5   |
| Y24 | 남  | 2005 | 서울   | 중국     | F-5   |
| Y25 | 남  | 1999 | 서울   | 중국     | F-5   |
| Y26 | 남  | 1970 | 개봉   | 중국     | F-5   |
| Y27 | 여  | 2004 | 서울   | 아프가니스탄 | G-1-6 |
| Y28 | 여  | 2001 | 인천   | 이집트    | G-1-6 |
| Y29 | 남  | 2003 | 개봉   | 중국     | H-2   |
| Y30 | 여  | 2002 | 청주   | 베트남    | 귀화    |

전문가 집단의 경우,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와 현장의 문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이주배경청년 관련 전문기관,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섭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 지역 기반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다년간 이주배경청년 지원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해 온 실무자, 교사, 연구자 등 총 8명의 전문가로 조사대상자를 구성하였다.

표 IV-110. 면접조사 참여 전문가 배경특성

| 조사대상자 | 성별 | 연령 | 직업          | 관련업무 경력 |
|-------|----|----|-------------|---------|
| P1    | 여  | 50 | 연구원 연구위원    | 7년      |
| P2    | 여  | 69 |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 5년      |
| P3    | 여  | 57 | 청소년공동체 대표   | 14년     |
| P4    | 여  | 46 | 청소년센터 센터장   | 18년     |
| P5    | 여  | 56 | 대안학교 교사     | 20년     |
| P6    | 여  | 53 | 외국인지원센터 센터장 | 25년     |
| P7    | 남  | 60 | NGO단체 이사    | 13년     |
| P8    | 여  | 46 | 다문화가족센터 팀장  | 6년      |

### (5) 조사 내용

본 면접조사 대상인 이주배경청년은 체류자격 및 하는 일들에 따라 다양한 집단으로 나누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 도구를 설계함에 있어 전체 참여자에게 적용되는 공통 질문을 기반으로 하되, 각 집단이 지닌 고유한 배경과 상황적 특수성을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집단별로 차별화된 핵심 질문과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을 대상으로 한 공통질문 및 체류자격별, 참여자가 처한 현재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질의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IV-11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한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면담 과정에서는 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질문의 순서를 조정하거나, 내용을 통합 및 보완하며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표 IV-111. 이주배경청년 면접조사 질문지

| 구분                 | 문항내용                                                                                                                                                                                                                                                                                                                                                                                                                                                                                                                                                                                                                                                                                    |
|--------------------|-----------------------------------------------------------------------------------------------------------------------------------------------------------------------------------------------------------------------------------------------------------------------------------------------------------------------------------------------------------------------------------------------------------------------------------------------------------------------------------------------------------------------------------------------------------------------------------------------------------------------------------------------------------------------------------------|
| 도입<br>(모두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름과, 태어난 연도, 국적, 비자, 형제를 소개해 주세요.</li> <li>■ 부모님의 국적을 말씀해주시고,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 무슨 비자이신지, 귀화를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세요.</li> <li>■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시/군/구)과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지인의 구성을 소개해 주세요.</li> <li>■ 만일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어디에서 살았었는지 알려주시고, 거주지를 옮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li> <li>■ 지역이 달라져서 느낀 차이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li> <li>■ 현재 하고 계신 주요 활동을 주중에는 무엇을 하고 주말에는 무엇을 하는지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li> </ul>                                                                                                                                                                                                                                                                                   |
| 체류 및 정착<br>(모두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에는 몇 살에, 어느 나라로부터 들어왔습니까?</li> <li>■ 한국에 어떤 이유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까?</li> <li>■ 그 당시 부모님의 비자와 본인의 비자를 말씀해 주세요.</li> <li>■ 본인과 부모님께서 처음 부여받은 비자, 현재 비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비자에 대한 변경과 연장을 했다면 연장했던 일을 시간순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비자를 얻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했던 추가적 노력이 있었다면 설명해주세요.</li> <li>■ 지금 소지하신 비자를 선택한 이유를 알려주세요.</li> <li>■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을 했 때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예: 재정 서류, 행정 절차, 기간, 비용, 정보 경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려주세요.</li> <li>■ 2020년부터 법무부에서 이주배경청년에게 유리한 비자정책이 발표되었는데, 들어보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만일 경험했다면 실제 본인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거나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li> <li>■ 최근에 나온 체류자격 제도 변화(E-7-Y: 청년특화 특정활동, F-2-7: 점수제 거주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접하셨고, 본인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li> </ul> |



| 구분                      | 문항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제도 활용을 시도했거나 요건을 검토했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디에서 포기했는지(예: 요건 불충족, 심리적 부담, 정보 부족, 주변의 우려 등) 이야기해 주세요.</li> <li>■ 과거 미등록으로 거주한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였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으로 지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었습니까?</li> </ul> </li> <li>■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영주권(F-5)이나 귀화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요.</li> <li>- (본국 혹은 다른 나라로 갈 생각) 한국에 머물지 않고 본국에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은 이유를 말씀해주시요.</li> </ul> </li> <li>■ 관련하여 부모님의 의사와 생각은 어떠십니까?</li> <li>■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좋은 점과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li> <li>■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주배경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과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복지, 교육, 고용 지원 측면에서 장점과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li> </ul> </li> </ul>                                                                                                                                                |
| 한국어<br>(모두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는 일상생활이나 학업/업무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어떤 영역에서 특히 어려움을 느끼십니까?</li> </ul> </li> <li>■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였으며, 주로 어떤 경로(예: 학교, 기관, 자가 학습)로 배우셨습니까?</li> <li>■ 현재 하고 있는 공부나 업무 수행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어떤 종류의 언어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예: 보고서 작성, 발표 능력, 비판적 독해 등)</li> </ul> </li> <li>■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한국어 교육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온라인 수업 / 오프라인 소규모 수업 / 찾아가는 방문형 교육 등</li> </ul> </li> <li>■ 지역에서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한국어 실력 향상 및 “사고력 강화, 문해력 증진”을 위한 독서 기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하고 싶다면 어떤 주제나 방식의 프로그램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소설 읽기 및 토론, 시 번역 활동, 한국 사회 관련 텍스트 읽기 등)</li> </ul> </li> </ul>                                                        |
| 기술, 직업<br>교육<br>(모두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기술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예: 폴리텍 특화과정,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li> </ul> </li> <li>■ 본인의 관심 분야나 진로 목표와 관련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직업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요리, 미용, 컴퓨터, 간호조무, 자동차 정비, 제과제빵 등</li> </ul> </li> <li>■ 위와 같은 교육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li> <li>■ 기술이나 직업 교육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정보를 찾기 어려움, 비용 부담, 언어 문제, 주변 시설 없음, 체류자격 제한 등</li> </ul> </li> <li>■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현재의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의 직업교육”이 있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을 것 같으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온라인 교육, 주말반, 방문형, 외국인 대상 별도 과정 등</li> </ul> </li> <li>■ 기술·직업교육이 향후 진로와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느끼시나요?</li> </ul> </li> </ul> |

| 구분                    | 문항내용                                                                                                                                                                                                                                                                                                                                                                                                                                                                                                                                                                                                                                                                                                                                                                                                                                                                                                                                                                                                                                 |
|-----------------------|--------------------------------------------------------------------------------------------------------------------------------------------------------------------------------------------------------------------------------------------------------------------------------------------------------------------------------------------------------------------------------------------------------------------------------------------------------------------------------------------------------------------------------------------------------------------------------------------------------------------------------------------------------------------------------------------------------------------------------------------------------------------------------------------------------------------------------------------------------------------------------------------------------------------------------------------------------------------------------------------------------------------------------------|
| 취업자만<br>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하고 계신 일은 어떤 형태입니까?<br/>- 정규직 / 계약직 / 인턴 / 일용직 / 아르바이트 중 해당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li> <li>■ 현재 일하고 계신 직장 또는 일자리를 얻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br/>- 예: 온라인 공고, 지인 소개, 학교 추천, 이주민 지원기관 안내 등</li> <li>■ 취업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제도(예: 진로상담센터, 이주민 지원기관, 고용센터 등)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br/>- 없었다면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말씀해 주세요.</li> <li>■ 자격증·면허 취득이나 학력·경력 인정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li> <li>■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이나 금융(계좌·대출) 이용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li> <li>■ 현재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br/>-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li> <li>■ 일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br/>- 예: 업무 강도, 차별 경험, 언어 장벽, 비자 제한, 고용 불안 등</li> <li>■ 현재 본인의 체류자격이 취업이나 생활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br/>- 예: 특정 업종 제한, 자격증 요구, 지역 제한 등</li> <li>■ 체류자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br/>- 특히 졸업 이후 D-10 → E-7 또는 F-2-R 전환과 관련해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li> <li>■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예: 현재 직장 유지, 전직, 진학, 자격증 취득 등)<br/>- 해당 계획을 위해 준비 중인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br/>-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li> </ul> |
| 대학생 및<br>대학원생<br>만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다니고 계신 학교와 전공은 무엇인가요?<br/>- 해당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li> <li>■ 어떤 전형으로 대학 입시를 진행하셨나요?</li> <li>■ 입학할 준비하며 재능능력인증에 어려움을 겪으셨나요?</li> <li>■ 등록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나요? 등록금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li> <li>■ 학교에서 어떤 장학금을 받고 있나요?</li> <li>■ (의무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 한국어 수업이 도움이 되고 있나요?</li> <li>■ 자격증·면허 취득이나 학력·경력 인정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li> <li>■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이나 금융(계좌·대출) 이용에서 경험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li> <li>■ 학교 입학에 위해 했던 노력과 입학 후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노력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li> <li>■ 학교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시나요?<br/>- 예: 수업 이해, 발표/보고서 작성, 언어 부담, 교우 관계, 생활비, 체류자격 관련 불안감 등</li> <li>■ 위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br/>-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지원(예: 튜터링, 장학금, 심리상담 등)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나요?</li> <li>■ 향후 진로(취업, 진학 등)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li> </ul>                                                                                                                                                                                               |

| 구분                                       | 문항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li> <li>■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정보 부족, 언어/자격 요건, 취업 비자 문제, 차별적 채용 조건 등</li> </ul> </li> <li>■ 졸업 후 체류자격 전환(D-10 → E-7, F-2-R 등)이나 한국 거주 유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비자나 체류 방식이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그것을 얻는 데 어떤 어려움이 예상되나요?</li> </ul> </li> <li>■ 현재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등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학업과 병행에 있어 어려움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li> </ul> </li> </ul>                                                                                                                                                                                                                                                                                                                                                                                                                                                                                                              |
| NEET<br>(취업 및 학업<br>중이 아닌<br>경우에만<br>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즘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예: 쉬는 중, 자격증 공부 중, 가족 돌봄 등)</li> <li>■ 이전에 학교나 직업을 가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고등학교 졸업 후 알바, 대학 중퇴 등)</li> <li>■ 현재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건강, 가족 상황, 언어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신감 부족 등</li> </ul> </li> <li>■ 현재 앞으로 진학이나 취업 등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음) 어떤 계획이며,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 중이신가요?</li> <li>- (없음) 현재는 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우신지 설명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 쉬고 싶어서, 상황이 안 좋아서 등)</li> </ul> </li> </ul> </li> <li>■ 진로나 생활에 대해 생각은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막힌다고 느끼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정보 부족, 돈, 자격요건, 언어, 심리적 부담 등</li> </ul> </li> <li>■ 만약 지금보다 나아진 조건이 주어진다면, 다시 진학하거나 취업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렇게 하려면 어떤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li> </ul> </li> <li>■ 장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삶을 이루기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변화나 지원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li> </ul> </li> </ul> |
| 이주배경<br>청년정책<br>(모두 응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사회나 지금 일하거나 공부하는 곳에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적 지원을 직접 경험해보셨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있다면) 어떤 내용이었고,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li> <li>-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정보 부족, 나와 무관해 보여서 등)</li> </ul> </li>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체류 안정, 언어교육, 직업교육, 진학/취업 정보, 정신건강 지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역 내 소속감 강화 등</li> <li>- 그 중 현재 본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는 무엇인가요?</li> </ul> </li> <li>■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안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시기/장소에서 운영된다면 참여할 수 있을지 등</li> </ul> </li>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청년센터 / 다문화가족센터 / 외국인지원기관 / 대학 내 전담부서 / 기타</li> </ul> </li> </ul>                                                                                                                                                                                                           |

전문가에 대한 조사 내용과 질문은 현장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폭 넓고 깊은 경험과 관점을 담아내고, 전문가 간의 경험과 관점을 명확하게 비교하기 위하여 집단 간의 큰 차이가 나는 특정 관련 질문 몇 가지를 제외하고, 공통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공통 질문과 별도 질문을 통합해서 구성한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IV-112>와 같다. 전문가 면접조사 역시 열린 질문을 기반으로 한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면접조사 시 다음의 질문 내용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순서를 재배치하거나 병합 및 추가해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표 IV-112. 전문가 면접조사 항목**

| 문항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께서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 정책, 연구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의 주요 내용과 기간을 간략히 말씀해주시시오.</li> <li>- 다음 중 귀하의 주요 활동 대상은 어떤 유형의 청년이었습니까?<br/>(중복 응답 가능: 중도입국청소년 / 난민 / 미등록자 / 고려인·조선족 등 동포 / 유학생 등)</li> </ul> </li> <li>■ 귀하의 경험상, 외국국적자 및 미등록자를 포함한 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활, 취업, 일상생활 각 측면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시오.</li> </ul> </li> <li>■ 이주배경청년이 겪는 문제 중, 비자 유형별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 F-4 단순노무 제한, H-2 고용허가 불일치, D-10 비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부담 문제 등</li> <li>-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이슈는 무엇입니까?</li> </ul> </li> <li>■ 최근 도입된 E-7-Y, F-2-7 등 체류자격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겪는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li> <li>- 기업의 외국인 채용 기피, 근로계약 선요구, 비자 전환 대행 비용 부담 등과 관련된 현실을 반영해 말씀해주시시오.</li> </ul> </li> <li>■ 한국 국적이 없는 이주배경청년들의 체류·취업·거주 관련 주요 문제는 무엇이며,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측면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히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와 주거지원에서의 배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시오.</li> <li>- 현 제도 설계와 실제 생활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정이 있다면 제안해주시시오.</li> </ul> </li> <li>■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영역은 무엇이며, 각 영역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한국어 교육</li> <li>- (2) 기술 및 직업역량 교육</li> <li>- (3) 진로 설계 및 이력관리 역량</li> <li>- (4)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li> <li>- 위 교육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br/>(법적 근거, 정보 접근성, 체류자격, 연령, 지역 편차, 기업의 인식 등)</li> </ul> </li>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내 어떤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 근거, 적용 가능한 사업, 기존 협력 네트워크가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시오.</li> </ul> </li> </ul> |

## (6) 분석 방법

면접조사의 결과는 질적 사례연구(case study)의 틀에서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사례연구는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 개인·집단의 경험을 둘러싼 맥락과 의미의 층위를 포착하는 데 유리하며(Creswell, 2018; Merriam, 2009), 이주배경청년기의 체류, 교육, 노동 전환과 같이 복합 변수가 교차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Yin, 2014). 이러한 분석 방법의 적용은 분석 결과의 일반화 자체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장에 유의미한 통찰을 도출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 분석 과정에서는 귀납·연역의 순환적 코딩을 병행하였다. 먼저 개방 코딩으로 응답의 의미단위를 폭넓게 표지하고, 이후 유사·대조 범주를 정비하는 축 코딩을 거쳐, 연구문제와 연결되는 주제 맥락을 도출하였다. 이때 연구자 메모를 코딩 의사결정의 근거로 남기고, 재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NVivo)를 활용하여 전사 전량에 대한 코드 부여와 수정 이력을 관리하였다. 이를 통해 NVivo 기반의 약호화 및 범주화 절차를 거쳐 주제 묶음—하위 주제—대표 내용 인용의 삼단 구성을 활용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① 사례연구의 논리로 경험의 맥락성을 확보하고, ② 체계적 코딩과 소프트웨어 보조를 통해 분석의 투명성을 담보하며, ③ 결과 제시 시 실제 진술(익명 인용)을 병치하여 해석의 근거충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7) 분석 절차 및 윤리 준수

분석 절차는 Creswell(2018)이 제시한 단계적 절차를 참조하여 자료 준비 → 반복 독해 → 코딩·범주화 → 주제 도출 및 서술화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수행하였다. 첫째, 모든 세션의 녹취를 전사하고 기초 정비를 마쳤다. 둘째, 전사본을 여러 차례 정독하며 의미단위와 맥락 신호(전환·강조·정서)를 표시했다. 셋째, 연구자 메모를 토대로 초기 코드 체계를 설계하고, NVivo로 청년 30명과 전문가 8명의 자료 전체에 코드 부여—검토—재부여를 반복하였다. 넷째, 3회 이상 코딩 라운드를 거쳐 상위·하위 범주를 정리하고 중복·과잉 코드를 정돈했다. 다섯째, 범주 간 관계를 점검하여 핵심 주제를 추려 내고, 각 주제를 대표 인용과 함께 기술함으로써 결과의 맥락적 의미를 명료화하였다.

윤리 준수는 전 과정에 걸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기준을 따랐다.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자발적 참여와 중도 철회에 대한 권리를 안내받고 동의하였다(승인번호: 202505-HR-고유-008)분석 단계에서는 비식별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개인을 추정할 수 있는 세부 표지를 제거·대체하였다. 보고서에는 조사대상자의 실명·특정 가능 정보 대신 익명 기호(Y01~Y30, P01~P08)만 제시하고, 표와 본문에서도 최소 필요 변수만 표시하였다. 또한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녹취·전사 파일은 암호화·분리 보관하고, 연구진 외 접근을 제한하였다. 인용의 정확성이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후속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되, 추가 확인 과정에서 익명성과 민감정보 보호 원칙을 유지하였다.

요약하면,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전사-정독-코딩-범주화-주제화의 단계적 흐름과 IRB 기준의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 보안 저장을 준수하여, 방법적 일관성과 윤리적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 2) 분석 결과

본 면접조사 내용은 Creswell(2018)의 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전사 자료의 반복 독해와 단계적 약화 결과물 상위 범주와 하위 주제로 체계화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와 현실은 5개의 범주와 15개의 주제로 정리되었다. 각 범주는 이주배경청년 및 전문가의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경험의 공통 패턴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고, 하위 주제는 범주별 핵심 현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각 범주와 범주를 중심으로 나타난 주제는 다음의 <표 IV-113>과 같다.

표 IV-113. 내용분석의 범주와 주제

| 범주                     | 주제                                                                                                      |
|------------------------|---------------------------------------------------------------------------------------------------------|
| 1. 입국통기 및 한국정착의지       | 1) 부모의 이주에 따른 동반 이주<br>2)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br>3) 한국 정주 의지                                                  |
| 2. 체류자격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어려움 | 4) 외국국적 소지 또는 체류불안정성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br>5) 비자별 취득 요건 및 진로분야의 현실성 부족<br>6) 개인별 체류자격 관련 정보 부족 및 변경 절차 작업의 어려움 |
| 3.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영역별 어려움 | 7) 성인 대상 수준별, 영역별 한국어 교육과정의 부족<br>8) 기술교육에 대한 정보는 부족,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교육에 대한 욕구<br>9)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지원체계 부족    |

| 범주                                              | 주제                                                                                                         |
|-------------------------------------------------|------------------------------------------------------------------------------------------------------------|
| 4.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 10)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br>11) 인턴십과 현장실습의 경력 미인정 및 채용과의 연계성 부족<br>12) 노동시장에서의 부당대우와 권리침해                          |
| 5. 이주배경청년 지원시스템<br>부재 및 지역사회 중심<br>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 13)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별 서비스 기관 부재<br>14) 지역별 이주배경청년의 현황파악 및 사례관리의 필요성<br>15) 지역 내 학교·지자체·민간 단체 등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

### (1) 범주 1: 입국동기 및 한국정착의지

본 범주는 이주배경청년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직접적 계기와 현재 및 향후 한국에서의 정주 의향을 포괄하고 있다. 분석 결과, 입국 동기는 주로 부모의 결정에 따른 미성년기 동반 이주와 더 나은 교육, 생활, 안전을 기대한 선택으로 구분되며,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의 한국 정착, 국내에서의 학업·노동·사회관계 경험, 출신국의 불안정 등이 정주 의지의 근거로 도출되었다.

범주 도출은 면접 전사내용 전체에서 ‘입국 이유’와 ‘정주 의향’을 직접 언급한 구절을 1차 개방코딩으로 추출하고(예: “부모를 따라옴”, “좋은 미래를 위해 선택”, “한국에서 계속 살 계획”), 유사 의미군을 축코딩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① 부모의 이주에 따른 동반 이주, ②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③ 한국 정주 의지)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청년 응답의 서사적 맥락(입국 시점, 최초·현재 비자, 가족 구성, 거주 이전)과 전문가의 해석(정주 선택을 지지 및 제약하는 제도, 정보 요인)을 교차 검증하여 범주의 외적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 ① 주제 1: 부모의 이주에 따른 동반 이주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 다수가 미성년기에 부모의 결정으로 입국하거나 국내에서 성장하여 청년기에 이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부모에 의한 동반 이주는 입국 시점, 최초 체류자격, 거주 형태, 학력 증빙이라는 초기 조건을 한꺼번에 결정하고, 이후 한국어 학습과 학교 편입, 체류 절차의 속도와 난이도를 좌우한다. 다시 말해, 청년기의 학업과 진로, 정주 의지를 설명하는 출발점이자 향후 지원 체계 설계의 기준 축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이주배경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성년기 동반 입국과 국내 성장이라는 진입 경로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은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주배경청년의 개념과 규모, 성장 경로를 제시한 선행 분석과도 부합한다. 이 주제의 핵심은 동반 이주가 개인의 선택 이전에 이미 설정된 출발선이라는 점이며, 그 출발선이 이후의 경로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거나 촉진한다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동반 이주는 재혼과 가족 재결합에 따른 초청, 본국의 경제 및 교육 여건 악화, 부모의 선 정착 후 자녀의 후속 합류로 요약되었다. 이 경로는 입국 직후의 한국어 학습 시작점, 학력 관련 서류 정리, 전학과 편입 절차를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체류 안정화와 학교 진입,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의 순서가 촘촘하게 얹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연령 입국이나 학력서류 미비는 취학 및 편입 단계의 병목을 낳아 학교 밖 공백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이는 성인기에 언어·학업·체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전가되었다. 이러한 성인기 안정적 전환의 어려움은 지역과 학교, 지원기관의 준비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초기 적응기의 설계 수준이 이후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진학과 경력 형성 속도를 가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재혼이나 가족 재결합에 따른 초청 입국 사례에서 가족의 분산 거주로 전학과 생활 정돈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다는 응답이 반복되었다. 선 정착 후 합류 유형의 경우에는 한국어와 교과 학습, 학력 증빙 보완을 짧은 기간에 병행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압축 적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고, 검정고시와 위탁 및 대안교육 연계를 통해 학업 경로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했으나 문턱이 너무 높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었다. 전문가들 또한 고연령 입국, 학력서류 미비가 취학과 편입의 병목을 만들고, 그 결과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청년기에 이르러 언어, 학업, 체류 절차를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커진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자 : 한국에 어떤 이유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까?

Y19 : 저는 2017년 8월에 한국에 들어왔고, 어머니 재혼으로 초청 입국했습니다. 어머니는 F-6, 동생은 F-1이었고요. 저는 제천과 울산을 오가며 학교를 다녔고, 가족이 지역에 흩어져 지내다 보니 전학과 생활 정돈을 함께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울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학사 일정과 비자 갱신 시기를 같이 맞추는 일이 늘 중요했어요.

연구자 : 만일 거주지가 달라졌다면 어디에서 살았는지 알려주시고, 거주지를 옮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Y5 : 처음엔 서산 지역의 다문화 초등학교에 반년 다녔고, 한국어를 익힌 뒤 중학교로 갔어요. 언어 과목이 맞아서 외고에 진학했고 기숙사 생활을 했죠. 지금은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부모님은 서산에 계십니다. 입국 초반에는 한국어, 교과,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적응하고 정리해야 해서, 수업과 생활을 한국 상황에 빠르게 맞춰 정착해 나가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연구자 : 비자의 변경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Y8 : 입국 초기에 3개월 단기 비자로 들어와 집과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검정고시(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보았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하시면서 저도 F계열 비자로 바꾸었지만, 성인이 다가오고 성인이 되어서는 체류자격을 위해 저의 학업 및 취업 일정과 일정과 체류 절차를 같이 맞추는 게 저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자 전부가 되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들의 학업 및 진로상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P7 : 동반 이주한 청년과 청소년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재혼가정의 중도입국 청소년과 청년은 특히 취학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의 학력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편입 및 전학이 지연되고, 이 공백이 청년기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이 공백은 곧 청년기의 진로 의사결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가정이 불안정하거나 부모의 정보 취득 및 행정 처리 역량이 약하면 비자, 입학, 편입 일정이 어긋나게 되고, 아이들은 고등학교와 대학 및 취업 단계에서 스스로 길을 찾아 공백기를 버텨야 하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동반 이주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설정된 출발선으로서 초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한국어 학습, 학력 보완, 체류 절차를 동시에 요구하며, 이 기간의 설계 수준이 이후 대학 진학과 경력 형성, 정주 의지의 구체화 속도를 결정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재혼, 가족 재결합, 후속 합류라는 이주배경청년의 초기 입국 경로 특성을 반영한 초기 통합 사례관리 체계를 상시화하여 전학과 편입, 학력 증빙, 체류 절차를 한 묶음으로 안내해야 한다. 둘째, 고연령 입국자에 대해 검정고시, 위탁 및 대안교육, 대학 예비과정과 한국어, 교과 보충을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표준 경로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과 학교, 민간기관의 역할을 조정

하여 초기 적응기의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시간표 충돌을 최소화하고, 가족 분산 거주 상황에서도 이동과 일정 관리의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이주배경청년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구조적 병목을 조기에 해소하고, 자립역량 축적과 장기 정주 기반을 조기에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 ② 주제 2: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일부 이주배경청년이 부모의 결정이 아닌 본인의 학업과 경력 형성, 생활 안정이라는 목표로 한국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입국 단계에서부터 학업, 비자, 취업, 정주를 한 흐름으로 묶어 설계하며, 선택의 결과가 곧 체류 전략과 교육 및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 전략의 구조를 결정한다. 청년 자신의 목적지향적 선택은 역량 축적과 소득 안정, 장기 정주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지니므로, 초기 삶에 대한 설계의 질이 이후 삶의 경로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러한 경향은 이주배경청년의 자발적 경로 설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지원체계 역시 개인의 목표와 경로를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선택의 동기는 출신국의 낮은 임금 수준과 제한된 교육 인프라를 넘어, 학업을 통한 역량 축적과 안정적 소득 및 경력 형성, 장기 정주 기반 마련으로 요약되었다. 이들은 유학이나 연수로 접근한 뒤 구직 비자로 탐색 기간을 확보하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일련의 경로를 계획적으로 모색했다. 그 과정에서 전공과 직무, 자격증과 현장실습, 비자 요건을 서로 맞물리게 배치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졸업 직후의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탐색 기간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두드러졌고, 생활비와 주거비 같은 비용 구조를 계산에 넣어 소득 안정이 가능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탐색했다. 반면 일부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은 국적과 자격 요건으로 접근성이 제한되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실제 면접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이 한국을 학업과 취업 준비의 기반으로 인식하며, 학위 과정과 자격 취득, 현장 경험, 비자 전환을 한 흐름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졸업 직후에는 곧바로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구직 비자를 통해 시간을 벌고, 그 기간에 이력서와 면접 준비,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전략이 나타났다. 장기 정주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전환을 목표로 하되, 주거와 금융 접근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를 먼저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전문가

들 역시 진로탐색과 역량개발 프로그램이 경력 설계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국적 및 자격 요건으로 인한 진로탐색과 역량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이주배경청년의 초기 경로 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 한국에 어떤 이유로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까?

Y14 : 몽골의 낮은 임금이 가장 컸어요. 유학으로 먼저 들어와 공부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었고, 한국에서 경력과 자격을 쌓아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죠. 지금은 F-2를 목표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환경이 갖춰진 곳에서 장기적으로 정착하고 싶습니다.

연구자 : 졸업 이후 체류와 취업을 어떻게 연결하셨나요?

Y9 :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D-10으로 탐색 기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기간에 이력서 작성하고 면접 준비하면서 현장 실습도 병행했어요. 한국에서 어떻게든 정착하고 경력을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연구자 :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영주권(F-5)이나 귀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Y26 : 확 튀는 것보다 안정적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F계열, F-5 포함)와 꾸준한 소득이 나오는 일을 찾고 있어요. 월세·보증금 같은 생활비도 계산해야 하니, 지속 가능한 경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P1 : 체계적인 진로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년은 사회 구조를 보는 관점과 설계 능력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다만 일부 우수 프로그램은 국적 요건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주배경청년도 진로에 대해 진단, 탐색, 현장경험, 피드백이 연결된 과정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은 개인의 목표를 중심으로 학업, 비자, 현장 경험, 취업, 장기 체류를 하나의 연속선으로 묶어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전후 시기에 진로 탐색과 비자 전환을 함께 설계하는 패키지형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구직 기간의 제도적 인정과 경력 형성 활동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내와 표준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국적과 자격 요건으로 접근이 제한되는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의 문턱을 낮추어, 정보 접근과 참여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장기 체류를 목표로 하는 청년에게는 비자와 체류자격 유지에 관한 로드맵과 1대1 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와 생활비를 고려한 장학금과 바우처를 연계하여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치가 병행될 때, 이주배경청년 개인이 설정한 더 나은 삶의 목표를 통한 진로 및 자립역량강화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 ③ 주제 3: 한국 정주 의지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학업 지속과 노동시장 진입, 가족 형성, 지역 사회 관계망 구축은 모두 ‘한국에서 얼마나, 어떤 자격으로, 어떤 조건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정주 의지에 의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정주 의지는 단순한 거주 선호가 아니라, 체류 안정화와 직업 및 소득의 지속 가능성, 주거와 금융 접근, 가족 및 또래 관계의 유지와 확대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이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청소년기 이후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 기반을 쌓아 온 이주배경청년 집단으로써 청년기에 대거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주 의지가 형성되는 근거와 그 변동 요인을 파악하는 일은 향후 지원체계를 설계하는 기준 축이 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주 의지는 자립역량 축적의 속도를 좌우하고, 비자 전환과 취업, 주거와 금융, 지역사회 참여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우선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정주 의지는 가족과 사회관계의 국내 기반, 생활 및 언어 환경의 익숙함, 체류자격 안정과 장기 체류로의 전환 가능성, 직업과 소득의 전망이라는 네 가지 축에서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미등록 상태나 잦은 체류자격 연장 및 체류자격 하향과 같은 불안정한 체류 상황은 정주 의지를 제한하거나 조건부로 만들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졸업 직후나 경력 초기에는 비자 연장에 대한 피로를 줄이고 합법적 체류를 안정화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인식되었으며, 주거 대출과 금융 접근, 가족 형성과 같은 삶의 결정 역시 체류자격의 예측 가능성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이 한국을 생활 기반과 정체성이 축적된 장소로 인식하는 가운데, 장기 거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한편 미등록 또는 불안정한 체류 단계에 있는 응답자는 일상 이동, 금융, 취업에서의 제약을 이유로 정주 의지를 실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지역 차원에서 이주 인구의 증가와 행정·정책 인프라의 보강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체류 안정화와 취업, 주거, 금융을 잇는 지원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정주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                                                                                                                                                                                                                                                                                                                                  |
|----------------------------------------------------------------------------------------------------------------------------------------------------------------------------------------------------------------------------------------------------------------------------------------------------------------------------------|
| <p>연구자 :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영주권(F-5)이나 귀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br/>(지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요.</p> <p>Y8 :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어려워서 D-10으로 시간을 확보했어요. 그 기간에 현장실습도 하고, 네트워크를 넓혔습니다. 솔직히 제 사회관계, 생활 루틴, 의료·교통 같은 기본 인프라가 다 여기 있고, 친구도 가족도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있어요. 요즘은 '고향'이라고 하면 한국이 먼저 떠오릅니다. 취업이 안정되면 F계열로 전환해서 장기적으로 살고 싶습니다.</p> |
| <p>연구자 :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영주권(F-5)이나 귀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br/>(지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요.</p> <p>Y14 :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이 아동보호와 복지, 교육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느껴요. 주거대출이나 금융 접근도 서서히 가능해졌고, 안정적인 일자리만 갖추면 장기 체류를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 가족의 생활이 안정되는 쪽이 한국이라면, 영주권까지는 가보려고 합니다.</p>                                                    |
| <p>연구자 :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입니까? 그렇다면 영주권(F-5)이나 귀화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br/>(지속 거주를 원하는 경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요.</p> <p>Y2 : 만약에 비자 받게 되면 거주할 생각이 있어요. 잡힐까봐 집에서 나가는 것도 힘들고 나가는 게 스트레스예요. 어딜 가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은행도 못 가고요. 귀화할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 산 지 10년 되었으니까 계속 거주할 마음이 있고... 한국에도 일정 기간 거주하면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p>                     |
| <p>연구자 :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p> <p>P1 : 제주만 봐도 외국인 주민 비중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절대숫자는 크지 않아도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그에 맞춰 도 차원에서 외국인 이민정책팀이 신설되고, 특화비자 용역이나 유학생 시범지구 같은 제도를 추진 중입니다. 결국 지역은 장기 거주를 전제로 정책과 제도를 갖춰 가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p>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주 의지는 가족과 관계망, 생활과 언어 환경, 체류자격의 예측 가능성, 직업과 소득 전망이 맞물릴 때 강화되며, 체류 불안정은 그 의지를 실질적 선택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약화시킨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졸업 전후와 경력 초기 단계에서 체류 안정화와 취업 연계를 묶어 지원하는 패키지를 상시화하여 정주 의지의 실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장기 체류 전환과 영주권 및 귀화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사 구간에서의 합법적 근로와 학업 지속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주거와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주배경청년을 포괄하는 대출, 보증, 신용 이력 구축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 차원의 정주 인프라를 강화하여 학교, 지자체, 민간기관이 생활 상담, 언어·학업·취업 지원을 일관된 경로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의 정주 결정이 행정과 제도 환경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이 병행될 때, 이주배경청년의 정주 의지는 그들의 자립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정착, 지역사회 정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 (2) 범주 2: 체류자격과 비자 전환의 현실

본 범주는 이주배경청년이 학업·취업·정주의 연속선에서 마주하는 체류자격 유지·변경의 실제 경험을 포괄한다. 분석 결과, 체류 불안정은 이동, 금융, 교육 접근을 위축시켜 학업과 경력 형성을 동시에 지연시키는 요인, 장기 심사 구간 및 체류자격 하향은 소득 공백과 비공식 노동 위험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 방식과 비자 요건의 불일치(연봉 기준, 직무코드, 고용사유서, 사전계약 등)는 초기 채용과 전공 기반 진입을 가로막았으며, 개인별 체류자격 정보의 분절과 예약, 제출, 보완, 번역, 공증 등 절차 작업의 과부하는 학업, 아르바이트, 구직 일정과 충돌을 일으켜 비용과 시간을 누적시키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범주 도출은 면접전사 자료에서 비자 유형(현재 및 과거), 전환 시점, 요건 및 비용, 예약, 보완, 반려 사유 등을 1차 개방코딩으로 추출하고, ‘요건 부담-절차 지연-경력 및 생계 영향’의 인과 흐름을 축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④ 외국국적 소지 또는 체류불안정성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 ⑤ 비자별 취득 요건 및 진로분야의 현실성 부족, ⑥ 개인별 체류자격 관련 정보 부족 및 변경 절차 작업의 어려움)로 정리하였다. 아울러 청년 응답의 시점별 맥락(연장 및 전환 구간, 준비 서류)과 전문가의 제도 해석(신청 및 심사 로직, 안내 및 상담 체계)을 교차 검증하여 범주의 타당성을 보완하였다.

### ④ 주제 4: 외국국적 소지 또는 체류불안정성에 따른 다양한 어려움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일상과 학업, 진로 전환의 모든 단계가 국적과 체류지위의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좌우되기 때문이다. 체류가 불안정하면 이동과 금융,

교육 접근이 제약되고, 이는 곧 학업 지속과 경력 형성, 소득 확보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미등록 상태나 잦은 연장, 체류자격 하향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청년기의 핵심 전환기에서 선택을 축소시키며, 비공식 노동과 소득 공백을 낳아 장기 정주 기반을 약화시킨다. 다시 말해, 체류 안정은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과 정주 의지를 실질로 연결하는 전제조건이므로 정책적 우선성이 높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유형별 다양한 제약이 학업과 일의 연속성을 끊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대중교통과 은행 이용 같은 기본 생활부터 위축되고, 학생 비자에서는 근로시간 상한과 잔고증명 요구가 생활비와 학업 유지에 이중 부담을 만들고 있었다. 또한 구직 및 장기 심사 구간에서는 취업 금지 또는 제한으로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비공식 노동로의 유인이 커지며, 체류자격 하향이나 장기 심사 대기과 같이 제도 간 공백이 발생할 때 이주배경청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이주배경청년의 청년 진입기인 졸업 직후와 경력 초기의 진로 탐색 기간을 매우 취약하게 만들며, 이로 인하여 이주배경청년은 청년기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력 단절과 신용 이력 형성 지연의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는, 다수의 이주배경청년이 본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학교, 일, 생활의 전 영역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등록 시기에는 외출과 금융 업무를 회피하게 되고, 학생 비자 단계에서는 근로시간 제한과 금융 요건 충족을 위해 학업과 아르바이트, 서류 준비를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는 응답이 해당 체류자격의 이주배경청년들에게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었다. 인도적 체류(G-1) 등 일부 체류자격에서는 전문직 진입 자체가 제한되어 전공을 살린 진로 설계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다. 전문가들 또한 이주배경청년의 비자 유형별 정보 접근의 격차와 장기 심사 구간의 취업 제한, 사전 안내의 부족이 이주배경청년의 청년기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연구자 :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체류 연장·변경 등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Y7 : 현재 D-2인데 미등록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없을 때는 밖에 나가는 것부터 무서웠어요. 버스 타다가 단속 나올까 봐, 은행도 못 가고요. 대학도 가고 싶었는데 미등록이면 아예 지원이 안 되거나, 중간에 준비하다가 막혀요. 하루하루가 멈춘 느낌이었어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고, 일상적인 본인 인증도 막히니 학교나 기관 서비스 사용이 어렵고 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연구자 : 비자의 변경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Y4 : 미등록으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이동을 못 했어요. 멀리 여행을 가는 건 물론이고, 단속을 걱정하며 지내다 보니 어릴 때부터 하고 싶은 활동도 많이 포기했습니다. 대학은 D-2 비자로 다녔는데, 등록금이랑 월세 내려면 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D-2는 근로시간 제한이 있고, 연장할 때 잔고증명도 계속 요구돼요. 방학에는 좀 더 일하고 싶은데 시간 제한이 걸리고, 학기 중엔 수업·알바·서류 준비가 겹쳐서 항상 바빴했어요. 그래서 졸업 앞두고는 D-10으로 바뀌어서 탐색기간을 버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연구자 : 진로 준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Y27 : 저는 지금 G-1(인도적 체류)인데, 6개월 또는 1년마다 갱신해야 했어요. 그때는 통장 개설이 안 되고, 갱신 비용이 계속 누적됐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정말 어려워서 학업을 하면서도 경력 쌓기가 막혔죠. 출입국·고용노동부를 계속 오가며 버텼어요. 갱신이 다가올 때마다 일이 멈춰요. 통장 만들기도 어렵고, 휴대전화 요금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체류가 안정되지 않으면 직장도 은행도 다 불안합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P6 : 특별귀화를 신청해도 심사가 1년 반 가까이 걸립니다. 그 기간엔 사실상 일을 못 하니까 몰래 일하다 적발되면 벌금이나 비자 취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해요. F-2로 있던 청년도 사전 안내 없이 연장이 거부돼 F-1로 떨어지면 취업이 막히고요. 출입국사무소의 안내와 상담이 충분치 않아서, 처음부터 '비자-학업-취업' 경로를 엮어 로드맵으로 알려주는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체류 불안정은 이동과 금융, 교육 접근의 제약을 통해 청년기의 학업 유지와 경력 형성을 끊고, 장기 심사 구간과 체류자격 하향은 소득 공백과 비공식 노동 위험을 확대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미등록과 장기 심사 구간에서의 최소한의 합법적 근로와 학업 지속을 보장하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학생과 구직 단계에서 적용되는 근로시간과 잔고 등 금융 요건을 현실화하고, 학업과 생계의 동시 지속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체류 전환과 심사 단계 전반에 걸친 표준 안내와 사전 통지, 통합 상담을 상시화하여 정보 격차로 인한 시행착오와 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 넷째, 체류 안정과 학업, 취업을 하나의 경로로 묶은 초기 설계 지원을 제도화하여, 졸업 직후와 경력 초기의 취약 구간에서 경력 단절과 신용 이력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완이 병행될 때,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안정은 일상과 학업, 진로 전환의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다.

#### ⑤ 주제 5: 비자별 취득 조건과 진로 분야의 현실성 부족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전공과 역량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비자 취득과 유지 조건이 채용 경로의 주요 관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채용 방식과 비자 조건이 서로 어긋나면 졸업 직후의 탐색, 실습, 초기 채용이 끊어지며, 전공과 무관한 직무 이동이나 형식적 경력 쌓기가 반복된다. 결국 체류 안정과 초기 경력의 연결이 좌절되면 장기적으로 사회보험과 신용 이력 형성도 지연되므로, 이 주제는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는 데서 핵심적이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E-7-Y 등 취업 및 정주 경로의 새로운 도입에도 불구하고 연봉 기준, 직무코드, 고용사유서, 사전계약과 같은 다양한 조건들은 이주배경청년의 입국 후 초기 채용 단계의 속도 및 방식과 맞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었다. 기업은 첫 외국인 채용에 소극적이거나 행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아 이주배경청년 구인을 주저하고 있었고, 구직자인 이주배경청년은 탐색과 실습 단계에서 비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체류자격 전환 시점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일부 체류자격은 전문 영역 활동 및 취업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이주배경청년 본인의 전공을 살린 취업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새로운 체류자격 및 진로 관련 제도가 나름의 통로를 마련해도 그 적용 범위가 좁거나 서류 및 행정절차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실제 이주배경청년의 제도 이용률이 현격히 낮아지는 가운데, 그 사이 청년기의 경력 형성은 단절되기 쉬운 환경이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이 취업이 가능한 E계열 체류자격을 준비하면서 직무코드 매칭과 고용사유서 작성, 대행 수수료 등 절차적 부담이 큰 장벽임을 지목했고, 결국 기업이 그러한 행정 지원을 전담해 주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환이 가능했다고 설명하고 있었다. G계열과 같은 인도적 체류 등 일부 자격에서는 아예 전문직 공고에

올라온 이력 사항에 도달할 수가 없어, 본인의 대학 전공을 포기하는 사례마저 확인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새로운 체류자격 제도 본래의 취지가 현장까지 잘 전달되려면, 먼저 이주배경청년 첫번째 채용을 하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준비서류 및 요건에 대한 완화 혹은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 최근에 나온 체류자격 제도 변화(E-7-Y, F-2-7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접하셨고, 본인과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Y11 : D-10으로 넘어가 탐색기간을 확보한 뒤 E-7-Y를 알아봤는데, 고용사유서를 회사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직무코드 찾는 것도 복잡했어요. 행정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수백만 원이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부담이 컸습니다. 무료 상담을 수소문해 서류를 직접 써서 냈지만, 코드가 맞지 않는데 재작성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제도는 길을 열었다고 하지만 처음 건너는 사람에게는 너무 높은 다리 같았습니다.

연구자 : 졸업 이후 체류와 취업을 어떻게 연결하셨나요?

Y10 : 저는 E-9으로 도축장에서 일하다가 회사가 저를 계속 쓰고 싶다고 해서 E-7 전환을 제안했어요. 회사가 서류 준비를 다 지원해 주니까 2년씩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저처럼 기업이 적극적으로 행정 절차를 맡아 주는 경우에는 길이 열리지만, 이게 모두에게 가능한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 의지가 없거나 서류를 모르는 곳이면 같은 실력을 갖고도 문 앞에서 멈추는 친구들이 많아요.

연구자 : 현재 본인의 체류자격이 취업이나 생활에 제약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Y27 : 저는 G-1(인도적 체류)이라서 전문직 쪽으로는 거의 일을 못해요. 공고에도 비자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라고 적혀 있고, 실제로는 단순 업무만 가능하니 전공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바꾸려면 G-2 전환이나 난민 재신청뿐이라고 들었는데, 10년 넘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어도 성인이 되면 비자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막히는 느낌입니다. 체류 변경의 통로 자체가 좁다 보니, 취업 계획도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연구자 : 최근 도입된 E-7-Y, F-2-7 등 체류자격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P8 : 서류상으로는 D-10에서 넘어갈 길이 생겼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업의 첫 채용을 주저하고 사전계약·수수료 부담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도는 생겼지만 그 틈을 실제로 건너는 청년은 많지 않다는 인상이 큼니다. 적용 대상도 조건이 까다로워 협소하고요. 결국 요건-현장-기업 관행의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초기 경력 설계가 계속 흔들립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체류요건과 채용현실의 불일치는 졸업 직후와 경력 초기의 경로를 구조적으로 분절시키며, 전문 활동을 제한하는 자격은 전공 기반 진입을 지연시킨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E-7-Y와 F 계열 전환 구간에 대한 표준 절차와 서류 양식을 마련하고, 직무코드 매칭과 고용사유서 작성을 지원하는 공공 상담을 상시화해야 한다. 둘째, 연봉과 경력 요건은 초기 채용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실습과 계약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 첫 채용 기업에 행정 대행 비용 보전과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 측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넷째, 전문 활동이 제한된 체류자격의 취업 허용 범위를 합리화하고, 전공 연계 직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도입하여 전환 대기 기간에도 취업 및 자립역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보완이 빠르게 이루어질 때, 비자 제도는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개척에 대한 통로로서 실제로 기능하는 가운데 이주배경청년의 취업역량과 노동시장에 안착할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⑥ 주제 6: 개인별 체류자격 관련 정보 부족 및 변경 절차 작업의 어려움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유지와 전환이 개인의 학업, 구직, 장기 정주 계획과 맞물려 단계별로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해석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실제 절차 수행이 청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류자격 변경 시점별로 필요한 요건과 서류, 예약과 보완 방식이 제때 명확하게 안내되지 않으면 신청 준비와 일정 조정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수업과 아르바이트, 면접과 현장실습 같은 필수 활동이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정보의 공백과 절차 작업의 과중은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설계를 계획이 아니라 시행착오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인 것이다.

분석 결과, 정보와 절차의 어려움은 체류자격별 요건과 체류자격 심사 해석의 상이함, 예약·제출·보완 등에 대한 디지털 방식의 접근성 제약, 번역·공증·증빙 설계에 대한 과도한 개인 부담에서 두드러졌다. D-4에서 D-2로의 변경이나 D-2 연장에서는 잔고 기준과 입학·등록 확인의 범위가 창구와 안내문 사이에서 다르게 전달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졸업 후 D-10 전환과 E-7 또는 E-7-Y 신청 단계에서는 직무코드, 고용사유서, 경력·자격 증빙의 작성 기준이 충분히 예시되지 않아 보완 요구가 반복되고 있었다. F-2 유지와 F-5 전환 구간에서는 소득과 납세, 체류기간 요건의 산정 방식이 복잡하게 안내되어 자료를 스스로 결합·해석해야 했고, 지역별 요구 서류의 차이와 제출 파일 형식 오류, 예약 대기 장기화가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공백과 과부하는 절차의 지연과 추가

비용을 초래하며, 청년기의 학업과 구직, 체류의 동시 진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는, 다수의 이주배경청년이 체류자격 연장의 변경 및 연장 과정의 정보 공백과 절차 과부하가 학업과 생활 전반을 흔들었다는 응답을 하고 있었다. 전문가 역시 체류자격 관련 사전 안내 혹은 상담 체계가 미비한 점이 이주배경청년의 성인기 안정적 정착에 주요 원인임을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했을 때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예: 재정 서류, 행정 절차, 기간, 비용, 정보 경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려주세요.

Y6 : 처음 받을 때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경할 때는 코로나 시기라서 예약도 잡기 힘들고, 어떤 서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매번 다르게 들었습니다. 번역·공증도 일정이 맞지 않아서 기한을 놓칠까 계속 불안했고요. 연장 시기마다 수업·아르바이트·서류 준비가 겹치다 보니 학업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연구자 :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했을 때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예: 재정 서류, 행정 절차, 기간, 비용, 정보 경로 등)을 구체적인 사례로 들려주세요.

Y20 : F-4 관련해서는 본국의 증빙을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 때는 서류 송부가 잘 안 됐고 이름 표기 차이 때문에 다시 신고하고 수수료를 냈습니다. 대행 수수료도 10만~14만 원씩 드니까 한 번에 끝내려고 더 많은 서류를 들고 다녔습니다. 이런 절차가 길어질수록 일도 미루게 되고 생활이 불안정해집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중 현재 본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는 무엇인가요?

Y26 : 출입국 사무소에서 체류·비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문자나 온라인 공지로 제도가 바뀌는 걸 먼저 알려주면 준비를 할 텐데, 실제로는 홍보가 적다고 느낍니다. 여행사나 주변에 물어봐도 정확한 얘기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았어요. 결국 스스로 인터넷을 뒤지고, 여러 번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합니까?

P6 : 연장이 안 된다고 통보받고서야 '그럼 어떻게 하나'고 물으면, 출입국사무소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저희가 대안을 찾아 특별귀화를 신청하자고 해서 서류를 다 작성해 갔죠. 당연한 권리로서 접수는 해 주지만, 그 과정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고 상담체계가 미비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개인별 체류자격 정보의 분절과 변경 절차 작업의 과부하는 비자별 요건 해석의 차이, 디지털 절차의 비직관성, 번역 및 공증 등 서류 설계 부담을

통해 학업과 구직의 시간표를 뒤흔들고 불필요한 비용을 누적시킨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D-4에서 D-2, 졸업 후 D-10, 취업 전환 시 E-7, E-7-Y, 장기 체류의 발판이 되는 F-2, F-5처럼 청년이 자주 거치는 단계별로 표준 체크리스트와 사례집을 다국어로 마련하여 접수 기관 및 대상 간 해석 차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체류자격 변경과 관련한 예약, 제출, 보완, 통지를 한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절차를 정비하고, 형식 오류 자동 점검과 기한 알림을 도입하여 재방문과 재제출을 줄여야 한다. 셋째, 대학과 지자체, 민간기관에 전담 상담을 상시 배치하여 개인별 요건을 반영한 증빙 설계를 지원하고, 고용사유서와 직무코드 작성 같은 핵심 문서에 대한 실례 중심의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번역, 공증, 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바우처를 연계하고, 이주배경청년의 합법적 근로소득과 장학금 등 학업 관련 수입의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여 절차 수행의 실질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 및 지원이 병행될 때, 이주배경청년은 합리적인 정보에 근거한 선택을 바탕으로 본인의 자립역량 강화 및 정착의 필수 요소인 체류, 학업, 구직의 연속선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 (3) 범주 3: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영역별 어려움

본 범주는 성인기로 전환한 이주배경청년이 자립역량을 형성·확장하는 데 핵심이 되는 한국어 학습, 기술교육, 대학생활 영역의 실제 어려움을 포괄한다. 분석 결과,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은 수준과 목적(학문, 직무, 제도)별 세분화와 시간표, 평가, 성과 인정의 정합성이 부족하여 학업 수행과 직무 적응, 체류 절차의 자율적 관리에 적지 않은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기술교육에 대해서 이주배경청년들은 IT, 제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높지만, 정보 창구의 분절과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 불명확성, 비유연적 운영 및 비용 구조로 인해 탐색·신청·수료·취업 연계가 끊기기 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대학생 활동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와 전공 문해력, 팀 과제, 포괄 관계, 장학금 대출 접근, 표준화된 학습지원 부재가 중첩되어 대학 초기 학업 성취를 이루기 어려웠고, 이로 인하여 졸업 및 진로 전환이 동시에 지연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범주 도출은 전사 전량에서 ‘한국어 교육(수준·목적·평가)’, ‘기술·직업훈련(정보·참여·연계)’, ‘대학생활(학업·관계·재정·행정)’을 지시어로 1차 개방코딩하고, 공통 저해 요인(세분화 부족·정보 단절·지원 표준의 부재)을 축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⑦

성인 대상 수준별, 영역별 한국어 교육과정의 부족, ⑧ 기술교육에 대한 정보는 부족,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교육에 대한 욕구, ⑨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지원체계 부족)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응답자의 전환 시점(입학·방학·졸업)과 참여 경로, 성취 및 포기 요인과 더불어 전문가의 교육 프로그램 설계 원리와 대상 요건에 대한 해석을 교차 검증하여 범주의 외적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 ⑦ 주제 7: 성인 대상 수준별, 영역별 한국어 교육과정의 부족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이 성인기에 접어들면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 학업 수행과 취업 준비, 직무 적응, 체류 절차의 자율적 관리까지 지탱하는 핵심 역량이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 일반 한국어와 달리 성인기의 한국어는 전공 학습을 위한 학문 목적, 채용과 업무를 위한 직무 목적, 행정과 금융 처리를 위한 제도 목적처럼 요구가 세분화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은 수준과 목적, 시간표와 평가가 이주배경청년의 실제 여건에 맞게 정교화되어 있지 않아, 학업과 구직, 체류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시기에 학습 공백과 낙차가 반복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인기 한국어 교육의 미비는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축적의 속도와 노동시장 진입의 질을 함께 제약하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 중 하나인 것이다.

분석 결과,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은 중급 이후의 세분화가 부족하고, 학문 목적과 직무 목적, 제도 이용 목적을 분리해 다루는 과정이 제한적이었다. 대학 수업을 따라가기 위한 읽기와 쓰기, 발표 중심의 학문 목적 한국어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과제 작성과 보고서 서술에서 병목이 발생했으며, 취업 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입문 직무를 위한 보고와 회의 발언, 고객 응대와 안전 교육 등 직무 목적 한국어의 체계적 훈련이 부족해 현장 적응 속도가 느려지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또한 체류 연장과 금융, 임대차와 같은 생활 기반의 정비에 필요한 제도 이용 관련 목적 한국어 역시 단기 특강 위주로 단편화되어 있어, 실제 문서 이해와 작성, 용어 해석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장면이 잦았다. 더불어 야간과 주말, 온라인 혼합형 같은 유연한 시간표가 부족하고, 수료와 평가 결과가 대학의 전공 기초 이수나 장학, 채용 서류와 신뢰 있게 연동되지 않아 학습 동기와 지속성이 약화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기초 회화 중심 교육만으로는 학업과 직무에 필요한 읽기와 쓰기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입국 직후 기관 수업과 온라인 강의로

학습을 이어갔으나, 교과서 문장 구조나 보고서 쓰기 같은 학문 목적 한국어는 스스로 해석하며 따라가야 했다는 경험이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상담, 행정, 사무 등 문서 중심 전공과 직무에서는 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어를 추출하는 고급 읽기, 사례기록과 보고서 작성 능력의 부족이 학업과 업무의 병목으로 지목되었다. 전문가 역시 문해력 격차가 큰 현실을 전제로 수준별 분화와 목적별 조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소그룹과 커뮤니티 연계, 참여 인센티브가 결합된 꾸준한 이수 체계가 실제 효과를 높인다고 제시하고 있었다.

연구자 :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신 시기는 언제였으며, 주로 어떤 경로(예: 학교, 기관, 자가 학습)로 배우셨습니까?

Y6 : 입국 직후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기초를 배우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는 혼자 교과서를 따라 읽는 방식으로 보완했어요. 이후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랑 TOPIK 온라인 강의로 이어 갔고요. 센터 수업은 도움이 됐지만 학습 한국어, 특히 교과서 문장 구조나 보고서 쓰기를 채워 주는 과정은 거의 없어서, 과제마다 문장을 뜯어보며 혼자 익혀야 했습니다.

연구자 : 현재 하시고 있는 공부나 업무 수행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Y20 : 상담 관련 전공이라 보고서·사례기록을 많이 쓰는데, 읽고 쓰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한국어는 끝까지 읽어야 의미가 결정되는 문장이 많다 보니 문서를 빨리·정확히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쓰기도 조사·어순 때문에 고치기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수업은 회화 중심이어서 학문적 글쓰기나 전공 어휘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수업이 있었으면 합니다.

연구자 : 현재 하시고 있는 공부나 업무 수행을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종류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Y23 : 직장에서 문서를 빨리 읽고 요약해야 하는데, 긴 문장을 끝까지 읽어야 뜻이 정리되는 부분에서 자주 막힙니다. 회의에서 보고서를 근거로 말할 때도 핵심어를 정확히 집어내는 훈련이 부족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읽기 속도, 비판적 독해, 보고서 요약 같은 세트로 배울 수 있는 고급 과정을 원합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영역은 무엇이며, 한국어 교육에서 어떤 내용과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P2 : 문해력 격차가 큰 청년이 많아서 ‘수준별’로 나누고, 목적에 맞게 ‘영역별’로 조직해야 합니다. 일상 회화만으로는 학업·직무를 감당하기 어렵고, 보고서, 발표, 전공 한국어 등 특수목적 한국어가 별도로 설계되어야 해요. 소그룹·커뮤니티 연계·참여 인센티브가 결합된 과정으로 꾸준히 들을 수 있어야 실제 효과가 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성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부족은 수준 체계의 불연속과 목적별 과정의 한계, 시간표 유연성의 결핍, 학습 성과의 제도적 인정 미흡을 통해 이주배경청년의 학업과 구직, 체류 절차를 동시에 지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급 이후를 세분화한 학문 목적, 직무 목적, 제도 목적 한국어 표준과정을 마련하여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대학 예비과정, 학기 중 보충, 졸업 전후 구직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야간과 주말, 온라인을 결합한 유연 운영과 소그룹, 멘토링, 커뮤니티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이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하고, 평가방식도 과제 기반 평가로 변환하여 이주배경청년의 실제 문해력과 보고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수료와 평가 결과를 전공 기초 이수, 장학 심사, 채용 서류와 연계하는 인정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 성과가 학업과 취업에서 이주배경청년의 실질적 이익으로 환류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이 정책적으로 이루어질 때, 성인기 한국어 학습은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생활 안정과 초기 경력 형성, 체류 절차의 자율적 관리로 연결되는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다.

⑧ 주제 8: 기술교육에 대한 정보는 부족, 그러나 다양한 영역의 교육에 대한 욕구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초기 경력 형성과 소득 안정, 장기 정주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전공 및 관심 분야에 맞춘 기술교육으로의 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성인기에 접어든 이주배경청년은 학업, 구직, 체류 관리를 동시에 수행하는 가운데, 정보의 접근 경로와 제도적 문턱, 시간과 비용의 제약 때문에 기술교육으로의 연결이 지연되기 쉬운 조건에 놓여 있다. 다시 말해, 기술교육 수요는 높지만 정보와 접근 구조의 미비로 인해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간극이 존재하며, 이는 자립역량 축적의 속도와 진로개발의 질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기술교육에 대한 욕구는 정보기술, 제조·정비,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폭넓게 확인되었으나, 필요한 정보를 한 자리에서 확인하고 개인의 체류 여건과 학력 수준에 맞추어 과정을 선택할 수 있는 안내 체계가 부족했다. 학교나 기관의 선제적 안내가 없으면 어디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이주배경청년의 일부만이 우연한 전학이나 주변 추천을 통해서만 기술교육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국적자의 직업교육기관 입학과 이수에 관한 법적 근거와 세부 요건이 해당 기관과 이주배경청년 모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본인이 참여 가능한 과정과 불가능한 과정



을 스스로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에 더해 주중 낮시간 위주로 편성된 교육, 연속된 학기제 중심 운영, 비용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는 이주배경청년의 기술 교육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교육과정이 단기 자격증 취득이나 현장실습과의 연계와 약할 경우,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흐릿해지는 문제 또한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자 : 본인의 관심 분야나 진로 목표와 관련해 배우고 싶은 기술이나 직업교육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Y1 : 비자만 안정되면 IT 쪽, 특히 그래픽이나 프로그래밍을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보가 흩어져 있어서, 정식 과정 진입이 어렵다고 느낍니다.

Y5 : 울산에서 자랐고 현대차 공장이 가까워서 자동차 정비를 제대로 배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을 수 있는 과정이 어디인지, 비자로 가능한지 등을 스스로 찾아야 해서 발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기술 또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예: 폴리텍 특화과정, 직업훈련기관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디서, 어떻게 그 정보를 알게 되었나요?

Y4 : 솔직히 특화과정 같은 건 들어 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누가 먼저 알려주지 않으면,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Y21 : 중학교 때 대안학교를 견학하다가 폴리텍을 방문해 알게 됐어요. 이런 경로가 아니면 접근이 쉽지 않아요. 공식적으로 한 번에 안내해 주는 창구가 있었다면 더 빨리 선택했을 거예요.”

연구자 :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은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 정보 접근성, 체류자격, 연령, 지역 편차, 기업의 인식 등)

P1 : 외국국적자가 직업교육기관에 합법적으로 입학하고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 인센티브를 일부라도 보전하고, 전문대·디지털대의 단기 자격 취득과 연계해 시간·비용 부담을 낮추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보가 분절되고, 제도 접근에 장벽이 높아 교육 수요에 비해 참여가 저조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기술교육으로의 수요는 IT와 제조 및 정비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높게 확인되지만, 정보의 분절과 안내 부재,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성 미비, 시간표와 비용 구조의 비유연성이 참여를 가로막고 있으며, 교육과 자격, 현장 경험, 채용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와 지자체, 직업훈련기관을 잇는 통합 안내 창구를 마련하여 과정 정보, 지원 요건, 체류자격별 가능 여부, 신청 절차를 한 경로에서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국국적자의 직업교육기관

입학과 이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단기 자격과정과 현장 실습, 채용 연계를 표준 경로로 제시하여 교육과 취업 사이의 단절을 줄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야간과 주말, 온라인 혼합형 운영을 확대하고, 교통비와 수강료 일부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연계하여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전문대와 디지털대의 단기 자격과 폴리텍과 같은 기술훈련을 상호 인정하는 학점 및 자격증 연계 체계를 도입해, 학습 성과가 학위와 자격, 채용 서류로 자연스럽게 환류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이주배경청년의 기술교육 참여는 실제 경력 형성과 소득 안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적 통로가 될 것이다.

#### ⑨ 주제 9: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지원체계 부족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대학 단계가 이주배경청년의 학업 역량을 증명하고 전공 기반 경력을 설계하는 핵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업 이해와 평가 대응, 팀 과제와 또래 관계, 장학금과 학자금 접근, 표준화된 학습지원의 부재가 중첩되면 학업의 지속성과 진로 전환이 동시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생활의 경험에 대한 질은 곧 전공 성취와 자격 취득,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이후 체류 안정의 선택까지 이어지므로, 대학생활 구간의 어려움과 지원 공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일은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다.

분석 결과, 수업 이해와 과제 수행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와 전공 문해력의 부족, 발표와 보고서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표현과 논증 구조의 부담, 과제 양식과 인용 규범에 대한 안내 미비로 인한 이해 부족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대학 내 관계 영역에서는 연령차와 생활경험의 차이, 군 복무 경험을 전제로 한 대화 문화 등으로 팀 과제 협업과 또래 네트워킹에 진입하기 어려운 양상 역시 확인되고 있었다. 대학 행정과 재정 측면에서는 외국국적자의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접근의 제약, 학사 안내와 학습지원 정보의 분절, 개별 교수나 선배의 선의에 의존하는 비공식 도움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대학생활의 어려움은 대학입학 후 초반의 과제 실패 경험과 자신감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학업 중도 이탈 위험과 졸업 지연뿐 아니라 졸업 후의 진로 설계와 자립역량 강화의 출발 지점을 후퇴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은, 대학 진학 이후 수업 난이도 상승에 대비한 공식 학습지원이 부족해 보고서 형식과 인용 규범, 발표 구조를 스스로 채워 넣어야 했으며, 또래 관계에서는 연령·경험 차이로 팀 과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동시에 장학·대출의 문턱과 안내의 단절을 이유로 공적 지원 대신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전문가 역시 표준화된 학습지원과 재정 지원의 부족, 그리고 한국어가 팀 프로젝트 참여와 발표를 제약하는 구조가 결합될 경우 자신감 저하와 학업 이탈 위험이 커지고, 그 여파가 비자 연장과 취업 준비의 부담으로 연쇄적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 대학생활에 대한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말씀해 주세요.

Y4 : 고등학교 때는 생기부 관리하고 토픽 점수 맞추는 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대학교에 올라와 보니 수업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사회학과에 적응하려고 ppt를 보면서 복습하고, 학자들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며 개념을 따라갔어요. 발표나 보고서에서는 표현을 더 정확히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누가 어디까지 도와주는지 정해진 게 없으니 결국 제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Y5 : 저는 수업 자체보다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어요. 같은 1학년이라도 나이가 두세 살 더 많은 형들이 많고 군대 얘기 같은 게 자연스럽다 보니 제가 끼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이 지내다가도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결국엔 혼자 다니게 됐습니다. 팀으로 하는 과제에서는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중간에서 도와주는 창구가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Y6 : 입학 준비는 선생님이랑 부모님이 같이 도와주셨는데, 막상 입학하고 나서는 수업 내용·발표·보고서에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친구·선배·교수님이 개인적으로 도와주신 적은 있어도 학교 차원의 지원은 잘 못 느꼈습니다. 표준화된 안내나 학습지원이 있었다면 적응이 훨씬 빨랐을 거예요.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이 대학생이 되었을때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P5 : 팀별 과제를 할 때 한국어 때문에 가장 많이 막힙니다. 한국어는 평생교육 관점에서 지원돼야 한다고 봐요. 언어가 서툴면 팀플에 끼우는 걸 주저하게 되고, 그렇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 단계인 비자 문제, 취업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장학금과 대출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단계 어려움은 학문 목적 한국어와 전공 문해의 미비, 팀 과제와 포레 관계망 진입의 어려움, 장학금과 학자금 접근의 제약, 대학 차원의 표준화된 학습지원과 행정 안내 부족으로 수렴되며, 이는 대학 학업 지속과 진로 개발을 동시에 지연시킨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공 기초 세미나와 연계한 학문 목적 한국어, 발표와 보고서 쓰기, 인용과 데이터 해석을 포함한 전공 문해 과정을 학년별로 상시 개설하고, 과제 템플릿과 피드백

기준을 공개해 적응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둘째, 팀 프로젝트 매칭과 또래 멘토링, 학과별 스터디 코칭을 대학 차원의 창구에서 운영하여 인간관계 진입장벽을 낮추고, 소그룹 발표 훈련과 피드백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국적자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의 접근 기준을 정비하고, 근로장학과 튜터링 장학을 연계하여 학업과 생계의 동시 지속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학업 안내, 학습지원, 실습과 취업 준비 정보를 한 경로에서 제공하는 통합 포털과 1대1 상담을 상시화하여 비공식 도움 의존을 줄이고, 초기 실패 경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방안이 제시된다면, 이주배경청년의 대학생활은 학업 성취와 진로 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 (4) 범주 4: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본 범주는 이주배경청년이 대학과 직업교육을 마치고 구직과 채용과 초기 배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실제 장애를 포괄한다. 분석 결과, 졸업 직후 구직이 장기화되고 인턴과 현장실습이 경력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며 초창기 일자리에서 계약과 권리 보장이 미흡해 경력 형성과 정주 기반이 동시에 흔들리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범주 도출은 면접 전사내용 전체에서 ‘졸업 전후 구직’과 ‘실습·인턴의 전환 경험’, ‘근로계약과 권리 보장’을 직접 언급한 구절을 1차 개방코딩으로 추출하고(예: “졸업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음”, “실습을 했는데 경력으로 잘 인정되지 않음”, “계약을 안 쓰고 구두로만 약속했음”, “외국인이라 주말 근무만 가능함”), 유사 의미군을 축코딩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⑩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 ⑪ 인턴십과 현장실습의 경력 미인정 및 채용과의 연계성 부족, ⑫ 노동시장에서의 부당대우와 권리침해)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청년 응답의 서사적 맥락(졸업 시점, 전공과 희망 직무, 현재·과거 비자 유형, 실습·인턴의 성격, 근로계약 형태와 임금·휴게·안전 경험)과 전문가의 해석(초기 채용 관행과 기업의 첫 외국인 채용 부담, 비자 요건과 심사 구간의 제약, 권리구제와 노동상담 체계)을 교차 검증하여 범주의 외적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 ⑩ 주제 10: 졸업 후 취업의 어려움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고교 및 대학 졸업 직후 구간이 비자 유지와 초기 경력 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위험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채용 관행과 언어와 문해력에 대한 역량, 정보 접근과 생활 여건이 어긋나면, 이주배경청년의 구직 속도가 떨어지고 단기적이거나, 전공과 관계 없는, 또는 비공식적인 노동으로의 방향성이 커지게 된다.

분석 결과, 이주배경청년의 경우 전공과 희망 직무가 초기 채용 방식과 맞지 않거나 학교와 지역기관의 안내가 미흡하거나 분절되어 탐색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기업은 첫 외국인 채용에 소극적이었고, 당사자는 구직과 체류 절차와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느라 진로 설계가 쉽게 지연되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취업에 대한 준비와 진로 설계를 혼자 해야만 한다는 부담을 반복적으로 서술하였고, 전문가들은 역시 이주배경청년의 취업을 위한 전공과 관련한 인턴 채용의 연결장치 부재를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 졸업(또는 학업 마무리) 이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보 경로, 비자 조건, 언어·문해, 비용·시간 제약 등)

Y13 : 메이크업 아티스트 교육과정 수강을 시도했지만, 실제 취업 단계에서는 언어·인맥·비자 조건이 동시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과 생활은 편한데, 취업으로 들어가려면 한국어도 중요하고, 또 취업을 주변에 연결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찾다 막히는 느낌입니다.

연구자 : 졸업(또는 학업 마무리) 이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보 경로, 비자 조건, 언어·문해, 비용·시간 제약 등)

Y12 : 일상 적응이 된 뒤에도 문서 읽기와 말하기의 속도·정확도에서 자신감이 떨어져, 면접처럼 빠르게 판단하고 표현해야 하는 국면에서 더 위축됩니다. 이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먼저 보이는 단순노무로 눈이 쏠리고, 전공과 연결된 경로를 다시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연구자 : 졸업(또는 학업 마무리) 이후 취업을 준비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보 경로, 비자 조건, 언어·문해, 비용·시간 제약 등)

Y18 : 사실 채용 공고에 대한 이해와 서류 및 면접 준비, 회사 서류 협의 같은 실무 국면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사이 생활비 압박이 커져서 어떻게든 취업을 빨리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취업준비는 또 어렵습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의 '졸업 후 취업' 구간에서 무엇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 보십니까?

P7 : 대학이 유학생 및 이주배경청년 유치를 늘리면서도, 전공, 인턴, 채용, 비자 전환을 잇는 체계적 안내와 기업 측 지원이 부족합니다. 교수 개인의 선의나 근로장학 안내 수준에 머무르면, 졸업 직후 구직은 장기 아르바이트로 수렴하기 쉽고, 그 사이 전공 기반 경력 형성과 비자 전환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졸업 전후 구직 구간은 구조적 병목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는 이주배경청년에 대하여 졸업 이전부터 구직과 채용 준비를 연속선으로 설계해서 상담, 서류, 점검, 모의면접을 한 경로에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기업의 첫 이주배경청년 채용 부담을 낮추는 안내와 행정 지원을 상시화해야 한다. 셋째, 구직 기간에도 이주배경청년이 학업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일정과 평가 인정 체계를 마련해 초기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넷째, 취업 관련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국어 포털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구직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때, 이주배경청년의 졸업 후 첫 경력 형성은 지금과 달리 합법적이고, 신속하며, 전공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렴될 수 있을 것이다.

#### ⑪ 주제 11: 인턴십과 현장실습의 경력 미인정 및 채용과의 연계성 부족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인턴과정과 현장실습 과정이 그들의 첫 경력을 만드는 핵심 통로이지만, 이러한 인턴십과 현장실습에서의 경험이 실제 채용에서는 경력으로 신뢰받지 못해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인 일자리 전환이 자주 멈추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대학과 기관 중심의 인턴십 및 현장실습이 비자 형태와 근로계약의 제약 속에서 실제 업무에 대비하여 역할이 제한되거나, 수료증 및 확인서가 기업의 경력 심사에서 효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실습과 채용 사이의 표준 경로(사전 설명-과정 이수-평가-전환면접)가 매우 불분명해, 실습이 경험으로만 머물고 채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더 나아가 이주배경청년 본인이 채용 준비를 모두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습 일정 및 증빙 작업과 구직 기간이 충돌하여 실습의 학습효과 및 채용효과가 희석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 안도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에 있었던 이주배경청년 또는 비전형 경로(휴학·중도퇴학·검정고시 등)에 놓여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경우 실습 기회 자체가 거의 없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학업과 생계, 비자 관리를 병행하는 조건에서 실습과 구직이 시간표와 해당 요건 측면에서 빈번히 충돌함을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및 지역기관 프로그램을 경험해도 기업의 채용 전환 기준과 서류·절차가 연결되지 않아, 실습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어려움도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전문가들

역시 지역·학교·청년정책이 존재해도 이주배경청년에게까지 정보가 도달하지 않는 ‘연결의 병목’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다.

연구자 : 현재 하고 계신 주요 활동(예: 진학 준비, 취업 준비, 직장 생활, 가사/돌봄 등)을 말씀해 주세요.

Y25 : 대학(서울) 졸업 이후에는 취업 활동을 하다가 대학원 진학을 고민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통역 아르바이트를 간간히 했고, 한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했어요. 부모님은 현장에서 일하십니다. 저는 서류를 챙기고 면접도 보러 다녔는데,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단기 업무들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느낌은 크지 않았어요. 결국 더 공부를 하거나 다른 경로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자 : 현재 하고 계신 주요 활동(예: 진학 준비, 취업 준비, 직장 생활, 가사/돌봄 등)을 말씀해 주세요.

Y29 : 요즘에는 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일은 H-2(체류자격)라서 가능한 범위에서 찾고 있는데, 실습이나 인턴십은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업 들으면서도 ‘이게 취업으로 어떻게 이어질까’가 계속 고민이에요.

연구자 : 현재 하고 계신 주요 활동(예: 진학 준비, 취업 준비, 직장 생활, 가사/돌봄 등)을 말씀해 주세요.

Y27 : 저는 지금 음식점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고, 매니저 업무도 맡고 있어요. 제주랑 부산을 왔다 갔다 했는데,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많아도 그게 이력서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직원 뵈을 때도 실습이나 프로그램 이수보다 실제로 같이 일해 본 경험을 더 보니까, 제 경험을 경력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더 배우고 싶어요.

연구자 : 귀하께서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 정책, 연구 또는 지원 업무를 수행해오셨습니까?

P4 :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청년과 연결하려고 계속 시도했는데, 대학·청년센터·현장 자원이 있어도 ‘누가 옆에서 손을 잡아 건너주지 않으면’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정보접근성 문제 때문에 실습·프로그램을 알아도 채용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인턴십·현장실습은 비자·계약·증빙의 제약으로 ‘경력’ 인정이 약하고, 실습·채용을 잇는 표준 경로가 부재하여 채용 전환율이 낮으며, 학업·생계·비자 일정과 충돌해 학습효과 및 채용효과가 분산되고, 학교 밖과 비전형 경로 청년의 접근성이 낮아 초기 채용 기회가 협소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학·지자체·기관의 실습과정들 ‘경력 인증형’으로 전환해 수행평가·업무기여·슈퍼파이어 확인·표준증빙(직무기술·산출물·근무평정)을 한 세트로 발급하고, 기업이 경력 심사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표준화해야 한다. 둘째, 실습·채용 전환을 위해 사전설명(비자·노무·전환조건)·중간평가·전환면접·채용제시의

단계별 절차를 프로그램 설계에 내장하고, 전환 실패 시 재도전(보충과제·추가면접) 경로를 명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학업, 구직, 체류 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학기와 방학, D-10, E-7(Y) 전환 기간에 맞춘 실습(야간·주말·모듈형·원격)을 확대하고, 증빙, 보완, 번역 업무를 도와주는 전담 상담을 상시화해야 한다. 넷째, 학교 밖 청년과 비전형 경로에 대해 지역 통합창구(학교·청년센터·고용센터 연계)를 통해 실습 모집·사전 교육·현장배치·전환면접을 한 경로에서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때 인턴십 현장실습은 이주배경청년에게 경험을 넘어선 ‘경력’이자 ‘채용’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통로로 작동할 것이다.

## ⑫ 주제 12: 노동시장에서의 부당대우와 권리침해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졸업과 동시에 생계와 경력을 동시에 설계해야 하는 이주배경 청년에게 근로계약의 투명성, 채용과 배치 과정의 차별 금지, 안전과 보건을 포함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곧 안정적 정착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계약 부재나 임금 체불, 국적과 언어를 이유로 한 배제 관행은 단기간에 신용 이력과 사회보험 가입의 누락으로 이어지고, 이후 비자 유지와 경력 전환의 모든 단계에 누적 손실을 만든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권리 보장은 이주배경청년의 자립 역량과 장기 정주의 실질적 전제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분석 결과,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세 갈래로 모아졌다. 하나는 외국인 또는 특정 체류자격이라는 이유로 채용 기회 자체가 축소되거나 주말·야간 등 불리한 시간대로 배치되는 차별적 관행이다. 또 하나는 구두 약속에 의존한 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휴게·안전 규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는 계약 관행이다. 마지막으로 권리 침해해 호소할 수 있는 경로가 지역과 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문제가 발생해도 구제 과정이 길고 복잡해 초기 경력이 쉽게 중단되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양상은 언어와 정보 접근의 격차, 체류 심사 구간에서의 취업 제한과 맞물리며, 이주배경청년의 첫 일자리 경험을 쉽게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일할 의지가 충분함에도 비자와 국적, 언어를 이유로 채용 기회가 제한되거나 근로조건이 후순위로 배정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한편, 취업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는 시기에 계약과 권리 조항을 스스로 확인하고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는 응답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역시 정부와 지자체, 학교와 기업, 시민사



회가 역할을 나누어 제도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보 안내와 권리 구제의 문턱을 낮추지 않으면 청년기의 경력 단절과 불안정이 구조화된다고 지적하였다.

연구자 : 일을 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

Y16 : 평일에 일하고 싶은데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말만 가능한 곳이 많아요. 언어 소통이 아직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정해진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원하면 바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가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와 일을 같이 하려는 계획이 자주 미뤄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평일 근무를 하면서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요

연구자 : 일을 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

Y28 : 저는 대학교도 가고 한국어도 더 잘하고 싶어요. 번역 일을 해 보고 싶어서 식당 관리자처럼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도 관심이 있어요. 일자리만 좀 더 공정하게 기회를 주면 좋겠어요. 서류나 계약 같은 절차를 또박또박 알려 주는 곳이 있으면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차별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 일을 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 채용이나 근로 조건에서 겪은 어려움을 말씀해 주세요.

Y3 :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가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무엇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부터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집 근처에 그런 창구가 있으면 제 상황을 설명하고 일자리도 제대로 찾아 보고 싶어요. 이동과 시간이 많이 드는 구조에서는 일을 시작해도 금방 끊기더라고요.

연구자 : 노동시장 진입과 초기 경력 형성에서 이주배경청년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P2 : 정부는 비자와 제도를 정비하고, 학교와 기업은 안내와 실습을 연결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당장 도움이 되는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서 헤매지 않도록 옆에서 붙잡아 주는 체계가 있어야 차별과 낙인이 줄어듭니다. 이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질 때, 정보 접근과 권리 구제가 함께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시장 경험은 채용 단계에서의 배제와 배치 차별, 계약과 안전 규정의 누락, 권리 구제 경로의 분절이라는 세 가지 축에서 취약성이 집중되고 있었다. 초기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경력의 첫 단추가 흐트러지고, 학업과 체류, 생계의 문제가 동시에 연쇄적으로 흔들리게 된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지자체, 고용센터가 함께 표준 근로계약서와 임금, 휴게, 안전 규정 점검표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채용 직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국적과 체류자격을 이유로 한 채용 제한과 불리한 배치 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고충을 익명으로 접수해 신속히 조정하는 지역 단위의 창구를 상시화해야 한다. 셋째, 초창기 취업기의 분쟁과 임금채불, 산업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 상담과 법률 지원, 통번역 지원을 묶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 처리 동안 학업과 체류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주배경청년 보호 장치를 두어야 한다. 넷째, 현장실습과 인턴십 단계부터 사회보험 가입과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행 기업에는 행정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초기 경험이 공정한 근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질 때, 이주배경청년의 첫 일자리는 차별과 위협의 기억이 아니라 경력과 자립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 (5) 범주 5: 이주배경청년 지원시스템 부재 및 지역사회 중심 관리체계 마련의 필요성

본 범주는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지역 단위의 전담 창구, 현황 파악과 사례관리, 기관 간 연계의 실제 작동 수준을 포괄한다. 분석 결과, 전담 창구의 부재와 가시성 부족으로 동일 사안을 반복 설명하는 비용이 커졌고, 지역별 현황 파악과 사례관리가 부재할 때 취약 구간에서의 유지가 어렵고, 학교와 지자체와 민간의 연계가 약할수록 정보와 일정의 단절이 발생하였다.

범주 도출은 면접 전사내용 전체에서 ‘지역 단위 전담 창구의 부재’, ‘현황 파악과 사례관리의 필요’, ‘학교·지자체·민간 간 연계’에 대한 직접 서술을 1차 개방코딩으로 추출하고(예: “어디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음”, “한 곳에서 다음 기관으로 이어 주면 좋겠음”,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함”, “기관끼리 연결이 잘 안됨”), 유사 의미군을 축코딩으로 통합하여 최종적으로 세 가지 주제(⑬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별 서비스 기관 부재, ⑭ 지역별 이주배경청년의 현황파악 및 사례관리의 필요성, ⑮ 지역 내 학교·지자체·민간 단체 등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주배경청년 응답의 서사적 맥락(거주 지역과 최초 접점 기관, 이동 거리와 접근성, 통역 가능 여부, 미등록·심사 대기 등 취약 구간의 경험)과 전문가의 해석(지역 거버넌스의 구조, 허브 기관 모델, 표준 연결 경로와 자원 지도, 공동창구 운영)의 관점을 교차 검증하여 범주의 외적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⑩ 주제 13: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별 서비스 기관 부재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가장 자주 마주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 단위의 답이 비어 있다는 데 있다. 체류, 학업, 직업, 생활지원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전담 창구가 없거나, 있더라도 청소년·결혼이민·외국인노동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청년층은 바깥에 서는 경우가 잦았다. 그 결과 정보 탐색과 행정절차, 상담과 연계가 개인의 시행착오로 전가되고, 동일 지역 내에서도 기관별 문턱과 안내의 편차가 커지며 초기 적응기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있었다.

분석 결과, 면접자료 곳곳에서 “지역에 청년을 위한 전담 창구가 보이지 않는다”, “있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들은 동네 기반의 접근 가능한 거점, 청년 중심 커뮤니티, 외국인 지원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를 지역 수준에서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네트워크가 결혼이민가족, 미성년, 외국인노동자에 집중되어 있어 이주배경청년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청년정책 체계와 이주배경청년 지원체계를 연결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지역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관이 맡아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는지”를 구체적으로 답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Y16 : 처음 정착한 곳이 00이라 실제로 발길이 닿는 곳이 중요해요. 행정도 언어도 한꺼번에 묻고 해결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00글로벌센터가 제일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지하철역에서 가깝고, 직원들이 외국인 업무를 잘 알아서 학교 문제나 체류, 구직 같은 걸 묶어서 상담받을 수 있거든요. 지역에서 살려면 동네 안에서 곧바로 연결되는 창구가 있어야 해요.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Y15 : 청년이라고 해서 전혀 다른 걸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있는 다문화가족센터나 외국인지원센터가 전담해서 받쳐 주면 좋겠어요. 거기에 청년창구를 따로 두고 학업, 장학, 취업 같은 걸 한 번에 연결해 주면 시행착오가 줄어요. 지금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어보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시간이 너무 들어요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Y17 : 저는 무엇보다 또래가 모일 수 있는 청년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느껴요. 행정도 중요하지만, 처음엔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거든요. 동네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정보를 나누고, 필요하면 센터나 학교, 구청의 담당자와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 좋겠어요. 혼자 찾아다니는 시간이 줄면 공부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P3 : 어떤 기관보다 청년이 안전하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관련 사회집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사람과 조직이 있어야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생겨요. 실제로 관계 맺기가 가능한 방식으로 커뮤니티를 설계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대가 작동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별 전담 창구의 부재와 네트워크의 분절이 이주배경청년의 초기 적응과 일상 문제 해결을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었다.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 지역 거점, 외국인지원기관, 청년 커뮤니티로 모아진 것은 한 곳에서 상담과 연계가 통합적으로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군구 단위에서 이주배경청년 전담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체류·학업·취업·생활을 묶은 상담과 연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지원기관과 다문화가족센터에 청년 전용 동선을 설치해 학교와 고용센터, 대학 전담부서, 민간 상담창구로의 즉시 연결을 표준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 청년커뮤니티를 제도권 지원체제와 직접 연결하고 정기 모임, 정보 공유, 또래 멘토링을 통해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의 청년정책 체제와 이주·다문화 지원체제를 묶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보와 예산, 사업 실행이 한 흐름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이주배경청년은 자신의 사는 동네 및 지역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로 이어지는 경로를 빠르게 확보하게 되고, 정착과 자립의 속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 ⑭ 주제 14: 지역별 이주배경청년의 현황파악 및 사례관리의 필요성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학업과 일, 체류, 생활지원이 실제로 일어나는 무대가 지역이기 때문이다. 같은 제도라도 지역에 따라 안내의 깊이와 기관 간 연결성이

크게 달라지고, 당사자가 처음 만나는 창구가 어디냐에 따라 이후 경로가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지역 차원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수요가 보이고, 학교와 지자체, 민간기관을 잇는 사례관리가 작동해야 일상 문제 해결과 증장기 진로 및 경로 설계가 끊기지 않는다. 다시 말해, 지역을 단위로 한 정보 맵과 표준 연결 경로가 없으면 개별 청년은 각종 증빙과 예약, 전환 시기를 혼자 감당하게 되고, 그 사이 학업과 구직, 체류가 동시에 흔들리기 십상이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전담 창구의 존재와 기관 네트워크의 결속이 이주배경청년의 체감 경로를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지원센터나 청년센터가 허브 역할을 하면서 통역과 행정, 법률, 교육, 주거를 한 번에 연결하는 곳은 초기 실패 경험의 적고, 필요한 서비스로의 이동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반대로 기관 간 손 넘김이 잦거나 정보가 흩어져 있는 곳에서는 동일한 질문과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미등록이나 심사 대기 같은 취약 구간일수록 이동과 금융, 교육 접근이 동시에 위축되었다. 무엇보다도 학교, 지자체, 민간기관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면 사례관리가 부재해지고, 이주배경청년 개개인에게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임시 도움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실제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지역 안에서 처음 만나는 창구가 무엇인지, 그 창구가 어디까지 손을 잡아 주는지에 따라 경험이 달라진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역 자원 지도를 전제로 한 상시 사례관리 체계를 강조하며, 기존 가족·생활 지원 조직에 청년 파트를 더해 학교와 청년정책, 직업역량 프로그램을 엮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이 생각하는 관련 분야의 정책 제언을 말씀해 주세요.

Y30 : 저는 외국인지원센터가 허브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통역과 행정 같은 즉각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주고 연속적으로 팔로업하는 구조가 있어야 해요. 개인이 혼자 알아보는 방식으로는 중간에 자주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한 번에 정보를 모아 안내하고, 다음 기관과 확실히 이어주는 시스템이 지역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떤 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Y2 : 제가 살아 본 경험으로는 외국인 주민지원센터가 제일 현실적이었어요. 체류나 생활 문제를 들고 가면 한 곳에서 상황을 파악해 주고, 필요한 기관으로 바로 연결해 줍니다. 경찰서나 주민센터, 은행이나 병원처럼 서로 말이 잘 안 통하는 곳들 사이에서 길을 만들어 주는 느낌이지요. 숙련된 통역까지 붙여 주니까 괜히 여러 군데를 전전하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졌습니다.

연구자 : 한국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영주권이나 귀화에 대한 생각도 말씀해 주세요.

Y22 : 저는 영주권을 따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장 없이 꾸준히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큼니다. 절차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자주 막히는데, 지역에 체류와 학업, 일을 함께 보는 창구가 있었으면 준비 순서를 덜 헤맸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학교와 일 사이에서 시간을 맞추려면 누가 한 번에 일정을 잡아 주는 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 지원을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P5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같은 기존 조직에 청년 파트를 명확히 배정하고 가족·생활 지원을 청년 과제와 연계해야 합니다. 지역별 네트워크 안에서 청년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와 손을 잡고, 학교와의 연결을 통해 학업 적응과 생활 상담, 직업역량 강화를 이어가야 해요. 그러려면 각 지역에 맞는 자원 지도가 있어야 하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사례관리가 끊기지 않게 설계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 차원의 현황 파악과 사례관리는 이주배경청년의 첫 접점에서부터 다음 단계로의 이동을 설계하는 일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허브 기관이 정보를 모아 안내하고 통역과 행정, 법률, 교육, 주거를 이어 주면 초기 실패 경험이 줄고, 미등록이나 심사 대기 같은 취약 구간에서도 학업과 구직, 체류가 동시에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지역 네트워크가 약하고 역할 구분이 모호하면 같은 질문과 서류가 반복되고, 문제는 사건 이후에야 응급 처리되는 경향이 커진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 단위로 이주배경청년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학교와 센터, 민간기관의 자원 지도를 상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둘째, 지역 허브 기관을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통역, 행정 절차, 법률·노동·주거 연계를 한 경로로 제공하는 표준 사례관리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기존 가족·생활 지원 조직에 청년 전담 파트를 설치해 학업과 진로, 체류 상담을 묶어 제공하고, 학교와 청년센터, 외국인지원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공동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미등록과 심사 대기, 전환 준비와 같은 취약 구간을 별도 트랙으로 관리하여 일정 알림과 서류 설계, 기관 간 이송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시행착오와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각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일상 문제 해결과 중장기 진로 및 경로 설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 ⑮ 주제 15: 지역 내 학교·지자체·민간 단체 등 관련기관 간 연계 강화 필요

이 주제가 선정된 이유는, 이주배경청년의 일상과 학업, 구직과 체류, 복지와 주거가

서로 다른 창구에서 각각 다루어질 때 정보의 누락과 일정 충돌이 발생하고, 그 결과 초기 적응과 경력 형성이 동시에 지연되기 때문이다. 학교, 지자체, 민간 단체, 출입국, 지원센터가 한 흐름으로 연결되어야만 입국 초기의 학력 보완과 한국어, 대학 진학과 기술교육, 비자 변경과 취업 준비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다. 지역 안에서의 연계 수준은 곧 개인의 시간표를 얼마나 덜 혼드는가와 직결되므로, 청년기 경로 설계의 현실성을 좌우하는 기반이 된다.

분석 결과, 지역 중심의 연계가 부족하면 같은 정보를 여러 번 설명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부담이 커졌고, 기관 간 안내 범위가 어긋나 실질적 도움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졌다. 반대로 지역에 외국인주민센터나 다문화센터, 청년센터, 대학 상담, 지자체 담당 부서가 서로 알고 연결될 때는 한국어와 학업 보충, 비자 상담과 취업 준비, 장학과 생활자원이 한 경로에서 이어져 초기 공백이 줄어들었다. 특히 성인기에 접어든 청년에게는 학교 안팎, 공공과 민간을 가로지르는 원스톱 안내의 유무가 체류 안정과 경력 전환의 속도를 가르는 차이로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들은 지역 안에서 누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한눈에 알 수 없었고, 기관마다 담당 연령과 대상이 달라 도움을 받기까지 발품을 많이 들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역 센터와 학교,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때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았다는 경험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역시 청소년기 이후를 담당할 전문 창구와 지역 연계 거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교 밖 청년을 먼저 찾아 연결할 수 있는 현장형 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하고 있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중 현재 본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는 무엇인가요?

Y30 : 저는 귀화 절차나 체류 같은 정보를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고, 학교와 지역기관이 서로 연결되어 한 군데에서 안내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찾아가면 창구가 나뉘어 있어 한 걸음을 때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중 현재 본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는 무엇인가요?

Y28 : 공식 안내는 거의 접하지 못했고 교회나 글로벌센터를 통해서만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학과 지자체, 센터가 함께 묶여 있으면 언어와 학업, 비자와 취업까지 이어지는 길을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각 따로 움직여서 연결이 끊기는 느낌이 큼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중 현재 본인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는 무엇인가요?

Y26 : 출입국에서 제도가 바뀌면 먼저 알려주는 문자를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나 지역센터와 연결되어 사전 안내와 상담이 같이 이루어지면 서류 준비와 수업, 아르바이트 일정을 덜 흔들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각자 찾아다니며 맞춰야 해서 늘 바쁩니다.

연구자 : 이주배경청년들의 진로와 취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4 : 아이들에게는 꿈과 미래, 진로를 들어주고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한 명의 훌륭한 어른이 절실합니다. 찾아가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장소, 그러니까 학교와 센터, 지역의 상담 창구가 함께 묶여서 아이들이 막다른 곳에서 멈추지 않게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 내 기관 간 연계는 동일한 정보를 반복하고 일정을 중복하는 비효율을 줄이고, 학교 안팎의 학습과 생활, 체류와 취업을 하나의 여정으로 이어 주는 실질적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 단위에서 학교와 지자체, 외국인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청년센터와 대학 상담을 잇는 윈스톱 안내 창구를 상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입학과 방학, 졸업과 구직 시점에 맞춰 기관 간 연동 일정을 미리 제시하고, 서류와 증빙을 한 경로에서 공유할 수 있게 표준 양식을 통일해야 한다. 셋째, 찾아가는 연계가 가능하도록 학교 밖 청년과 은둔형 청년을 발굴하는 현장형 네트워크를 두고, 초기 상담에서 학업 보충과 비자, 취업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해 기관별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계 실적과 대기 시간을 공개하여 연계 품질을 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연계가 강화될 때 이주배경청년의 시간표는 덜 흔들리고, 자립역량과 정주 기반은 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 3) 요약 및 소결

본 절은 이주배경청년 면접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선행연구와 기존 조사 및 통계에서 확인된 여러 쟁점과 이주배경청년 및 전문가의 면접조사 내용을 비교하는 가운데,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 및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로 범주를 도출하고, 주제별 서사를 재구성한 뒤,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개발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학업, 취업, 정주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점과 이를 회복시키는 이주배경청



년과 전문가의 요구 사항을 찾고자 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배경청년의 입국 경로는 대체로 부모에 따른 동반 이주와 개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으로 나뉘며, 성인이가 되면 가족과 또래 관계망, 익숙한 생활, 언어, 환경, 체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주배경청년의 한국 정주 의지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미등록 상태 및 잦은 연장, 체류자격 불안정 등은 이주배경청년의 자유로운 이동 및 금융, 교육, 취업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주배경청년의 정주 결정을 어렵고 힘들게 만든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는 한국에 갓 들어온 초기 적응기 기간에 꼭 필요한 학력 보완 및 한국어 교육, 전학 및 편입, 체류 절차 등이 한 묶음으로 설계되는 점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는 대학 진학과 진로 개발이 빨라지고, 이를 통한 안정적 정착 및 장기 정주의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이주배경청년의 불안한 체류자격의 현실은 이주배경청년의 학업과 구직의 시간을 동시에 잠식한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었다. 학생과 구직 단계의 다음 단계의 체류를 위한 각종 준비들은 정착 가장 중요한 학업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것들을 소홀하게 하고, 장기간의 체류 심사 기간은 이주배경청년의 소득 공백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불법적노동의 위험을 키우고 있었다. 또한, 취업 채용 관행과 이주배경청년이 가지고 있는 비자 요건이 맞물리지 않으면 졸업 직후의 초기 채용이 지연되고 전공과 무관한 경로로 밀려난다는 점에서 불안한 체류자격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의 요구는, 체류자격 현실화, 체류자격 전환 단계별 표준 안내와 준비 서류의 통일성, 직무 코드 매칭과 고용사유서 지원, 기업의 첫 외국인 채용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체류 안정과 안정적 정착, 자립역량 강화 및 진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셋째, 성인기에 접어든 이주배경청년은 한국어 학습과 기술교육, 대학생활이 서로 얽혀 있어 하나가 흔들리면 다른 영역도 함께 지연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중급 이후의 학문 목적과 직무 목적 한국어가 부족하고, 그나마도 교육과정의 시간적 유연성이 낮아 참여할 수 없게 되며, 대학생들은 과제와 보고서, 발표에서 반복적으로 막히고 있었다. 또한 취업을 지망하는 이주배경청년들은 기술교육에 대한 정보 창구를 찾을 수 없어, 참여 자체가 늦어지며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학업 및 취업 현장에서 초기 성취가 흔들리는 양상이 드러났

고, 이는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자립역량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는 목적별 한국어 과정의 세분화와 한국어 과정의 야간과 주말 및 온라인 혼합 운영, 한국어 과정 수료 결과의 학점과 장학금 및 채용 서류와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지역 단위 통합 안내 창구를 통해 기술교육 정보와 체류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 기술교육의 모듈형 과정과 현장실습 연계를 강화해 달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들은 학업과 실습, 취업 준비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축적과 진로 개발이 빠르게 앞당겨질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넷째, 이주배경청년의 고교 및 대학 졸업 이후 첫 취업 단계에서 체류자격으로 인한 구직 속도의 지연과 실습 경력에 대한 미인정, 채용과 배치 과정의 부당대우가 겹치게 되었을 때 자립역량이 약화되고, 체류 안정과 정주에 대한 생각도 함께 흔들린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자에 대한 요건과 취업 취업현장의 채용 관행에 생기는 간극은 이주배경청년의 입사와 전환의 고리를 약화시키고, 현장실습은 단순 경험으로만 머물러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노동 계약과 임금 및 안전 규정의 미비는 이들의 권리 침해를 키우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는 졸업 전후 구간에 대한 취업과 진로 개발을 위한 표준 시스템 제시와 이를 위한 상담의 상시화, 비자에 대한 직무 코드 매칭과 고용사유서 작성을 위한 행정 지원, 기업의 첫 외국인 채용에 대한 행정 부담 완화, 현장 실습의 경력 인증과 전환 면접 내재화, 표준 근로계약과 안전 점점의 의무화, 지역 단위 권리 구제 창구의 설치를 요청하고 있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춰질 때 이주배경청년의 첫 일자리는 단기적 일자리와 불법적 경로로 소진되지 않고, 본인이 가진 전공 및 기술과 연계된 안정적 경력의 출발점으로 자리 잡으며, 체류의 예측 가능성과 장기 정주 선택도 함께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지역 차원의 지원시스템 부재와 기관 간 연계 부족은 이주배경청년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같은 문제를 반복 설명하고, 같은 서류를 되짚어야 하는 비효율을 낳아 한국에 들어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초기 적응과 진로 및 삶의 경로 설계의 시간을 잠식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전담 창구가 없거나 대부분의 지원시스템이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과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설계된 전국 및 지역 지원 구조에서는 이주배경청년층이 지원시스템 밖에 서기 십상인 상황이다.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해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개별적인 사례관리가 약한 지역일수록 학교와 지자체, 민간기관의

지원시스템에 대한 역할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주배경청년의 생활과 학업, 체류와 취업에 대한 지원 및 상담의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분석결과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는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시군구 단위 전담 창구와 지역 허브 기관의 상시 운영,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이주배경청년 개개인에 대한 사례관리의 정례화, 학교와 지자체 및 외국인지원기관과 청년센터를 연결하는 공동 창구의 필요성 및 이를 위한 표준 시스템의 도입,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연계와 체류자격 및 지원에 대한 일정 및 주요 정보 알림의 통합 운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주배경청년과 전문가는 이러한 체계가 작동하면 초기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지역차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이주배경 청년들이 상담에서 학업 보충, 비자 전환, 실습과 채용까지 한 지역에서 하나의 경로로 이어져 정보 격차와 시간 낭비가 줄고,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시행착오가 완화된 채,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기반이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조기에 마련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었다.

종합하면, 이주배경청년의 삶은 입국 동기와 정부 의지, 체류자격, 자립역량, 노동시장, 지역 체계가 맞물리는 연속선 위에 있으며, 어느 한 고리의 불일치가 전체 여정의 지연으로 확장된다. 초기 설계를 앞당기고, 전환 단계의 절차를 단순화하며, 실습을 경력으로, 구직을 전환으로, 지역의 창구를 생활의 통로로 만드는 체계가 구축될 때 학업과 구직과 체류는 하나의 여정으로 수렴한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제도와 현장이 지지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앞으로는 청년 전용 표준 경로와 사례관리 모델을 지역 단위로 정착시키고, 기업의 첫 채용을 촉진하는 행정·재정 장치를 정교화하며, 성인기 한국어와 기술교육, 대학 학습지원의 연결 도를 높이는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요약을 종합하면, 본 면접조사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과 이론적 배경의 분석 틀,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경향을 현실의 맥락과 과정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이주배경청년의 진로와 자립역량 관련, ‘어디에서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넓게 보여줬다면, 면접조사에서는 ‘왜 거기에서 막히는가’와 ‘어떻게 풀 수 있는가’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입국-학업-취업-정주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지점의 작동 원인과 이를 회복시키는 실행 장치가 드러났다. 이러한 이주배경청년의 진로와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장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 대상이나 사업 목록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단위 경로를 재설계하고 지원 절차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본 면접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IV-114. 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주요결과                                                                                                                                                                                                                                                                                                                                                                                                                                                                                                                                                                                                                                                                                                                                                                                       | 시사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경로는 '부모 동반'과 '자발 선택'으로 양분되며, 성인기에 가족·포래망과 익숙한 생활·언어·환경, 체류의 예측 가능성이 정주 의지를 강화함</li> <li>■ 미등록·잡은 연장·체류 하향 등 체류 불안정은 이동·금융·교육·취업 접근을 제약해 정주 결정을 지연시킴</li> <li>■ 체류 심사 장기화는 소득 공백과 비공식 노동 위험을 확대, 학업·구직 일정 동시 관리의 부담을 가중</li> <li>■ 채용 관행과 비자 요건(연봉, 직무코드, 고용사유서 등) 불일치는 졸업 직후 초기 채용과 전공 연계성을 저해</li> <li>■ 성인기 한국어는 중급 이후 학문·직무·제도 목적 분화가 미흡하고, 야간·주말·온라인 등 유연 운영과 성과 인정 연계가 부족</li> <li>■ 기술교육은 정보 창구가 분절되고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성이 불명확하여 탐색·신청·수료·채용 연계가 약함</li> <li>■ 대학 단계에서 과제·보고서·발표·팀과제·장학·대출·학습지원의 구조적 공백이 초기 성취와 진로 전환을 지연</li> <li>■ 인턴·현장실습은 경력 인증과 채용 전환 절차가 부재하거나 약하여 '경험'에 머무름</li> <li>■ 채용·배치 단계의 차별과 계약·안전 규정 미이행, 권리구제 창구 분절로 초기 경력의 불안정성이 집중</li> <li>■ 지역 단위 전담 창구 부재, 현황 파악·사례관리 미흡,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동일 설명·서류 반복 등 비효율이 상시화</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국 초기 6-12개월 '통합 패키지'(학력보완·한국어·전학/편입·체류 절차) 표준화 및 상시 운영</li> <li>■ 청년 친화 체류 로드맵 정비: 점수제·연봉 요건 현실화, 전환 구간 합법적 근로 허용, 표준 안내·사전 통지·원스톱 상담 상시화</li> <li>■ 직무코드 매칭·고용사유서 작성 공공지원, 외국인 첫 채용 기업에 행정대행 비용 지원 및 컨설팅 제공</li> <li>■ 성인기 한국어 '목적별 표준과정'(학문·직무·제도) 도입, 야간·주말·온라인 혼합 운영, 수료 성과의 학점·장학·채용 서류 연계</li> <li>■ 기술교육 통합 안내창구 구축, 외국국적자 입학·이수 요건 명확화, 모듈형 과정+현장실습+채용 연계 표준 경로 설계, 시간·비용 인센티브 제공</li> <li>■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전공 문해·보고서·발표 훈련 정례화, 팀프로젝트 매칭·포래 멘토링·학습 지원 포털 및 1:1 상담 상시화, 장학·대출 접근 기준 정비</li> <li>■ 졸업 전후 '구직·비자·채용' 표준 시스템(상담·서류·모의면접·전환 절차) 도입, 실습의 경력 인증(직무기술·산출물·평정)과 전환 면접 내재화</li> <li>■ 표준 근로계약·임금·휴게·안전 점검 의무화, 지역 단위 권리구제 창구 상시화, 통번역 포함 원스톱 노동·법률 지원 제공</li> <li>■ 시군구 전담 창구와 지역 허브기관 설치, 현황조사·자원지도 상시 업데이트, 학교·지자체·외국인 지원기관·청년센터 '공동 창구' 운영</li> <li>■ 찾아가는 연계와 일정/서류 알림의 통합 운용, 취약 구간(미등록·심사 대기·전환 준비)별 별도 관리 트랙 도입</li> </ul> |

### 3. 이주배경청년의 실태 및 요구도: 전문가조사

#### 1) 조사개요

전문가 조사는 앞의 전문가 대상 요구조사와 동일한 대상, 동일한 절차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조사대상과 절차에 대한 내용은 반복하여 제시하지 않고 조사의 내용과 결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한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국내 50명의 이주배경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15가지 영역, 즉,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3) 기술교육 및 지원, 4) 창업교육 및 지원,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10) 사회적 고립문제, 11) 결혼 및 출산, 12) 부모 교육,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14) 자녀 돌봄, 15) 주거지원과 그 외 기타 주제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전문가들은 15개의 영역과 기타 주제에 대하여 모두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핵심은 앞의 표장에서 주요 이슈 및 주제로 도출된 다섯 가지이므로 이번 장의 이주배경청년 실태 및 요구도의 전문가 의견은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3) 기술교육 및 지원, 4) 고등교육 지원, 5)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나머지 주제에 대한 의견들은 2026년과 2027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 2) 조사결과

##### (1)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우선, 이주배경청년 중 한국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시한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이주배경청년들의 경우 미성년 시기까지는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어 있으나(F-1, F-3),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체류자격이 상실되거나 단기비자로 전환되어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비자(D-2)를 취득하지 않는 한은 매우 불안정한 체류상태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즉, 국내에서 미성년 시기를 보내고 성장한, 한국국적 비(非)소지자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는 성년이 된 이후 부모와 독립적인 체류자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비자제도는 아직 안정적으로 마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D-10등의 임시자격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 장기적 체류자격의 취득은 점수제나 고용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하여 사실상 안정적인 체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이후 국내에 입국한 경우다 보니, 체류기간, 언어능력, 교육이력 등이 짧아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으로의 전환이 더욱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또한 기존의 체류자격 중 F-4는 단순노무 제한, H-2는 고용허가 필요, F-2는 점수제 적용 등 비교적 안정적이어 보이는 체류자격도 이주배경청년들에게는 조건을 맞추기 어려운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어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입장벽이 현실적으로 높다는 의견이었다. 그 외 기타 한국인 부모의 입양을 기대하고 입국을 하였으나 입양이 무산되거나 가정이 해체되어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청소년이 단독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서 미등록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청년으로 성장하면 미등록 성인이 되는 문제도 있었다.

이와 관련되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유예 체류를 보장하는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 전용의 체류 유예 비자(F-2-Y)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교육이력, 국내 체류기간, 사회 적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때는 공교육 이수정도, 지역 정착 경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 여부 등 여러 기준으로 체류자격 평가요소를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현행 점수제 기반 체류자격의 요건을 이주배경청년의 상황에 맞도록 현실화하고 청년친화적이고 정주지향적인 새로운 체류자격군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면, 국내성장기반 장기거주 이주배경청년들의 경우는 GNI(국민총소득: Cross National Income)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넷째는 입양이 무산되거나 가정해체된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보호형 비자 또는 자립 전환형 비자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다섯째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일정한 조건, 즉, 한국거주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며, 범죄이력을 가지지 않은 경우 등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는 영주의 가능성에 초점을 둔 체류자격 획득경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국적취득 로드맵을 마련하여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들이 각자의

조건에서 안정적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었다.

표 IV-115. 한국국적 비(非)소지자 체류자격 안정화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황                                                                                                                                                                                                                                                                                                                                                                                                                                                                                                                                                                                                                                                                                       | 개선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대부분은 부모의 비자(F-1, F-3 등)에 종속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체류자격이 상실되거나 F-1 단기 비자로 전환되어 체류 불안정 상태에 놓임</li> <li>■ 성년이 되면서 독립적 체류자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적절한 비자 제도가 현행 체계에서는 부재함</li> <li>■ 졸업 후 F-2-7, D-10 등으로의 전환은 점수제나 고용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려움</li> <li>■ 입양이 무산되거나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는 경우, 청소년이 단독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미등록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음</li> <li>■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체류기간, 언어능력, 교육이력이 짧아 안정적인 체류자격 전환이 더욱 제한적임</li> <li>■ 한국 공교육을 이수한 사실이나 지역사회 정착 경험이 체류자격 평가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li> <li>■ F-4는 단순노무 제한, H-2는 고용허가 필요, F-2는 점수제 적용 등, 기존 체류자격이 청년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li> <li>■ 보호대상 아동 또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유예 체류를 보장하는 이주배경청년 전용 체류유예 비자(F-2-Y 등) 도입 필요</li> <li>■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교육이력, 체류기간, 사회 적응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필요</li> <li>■ 공교육 이수, 지역 정착 경험, 사회통합프로그램 수료 여부 등을 체류자격 평가 요소로 제도화해야 함</li> <li>■ 현행 점수제 기반 체류자격(F-2-7 등)의 요건을 현실화하고, 청년 친화적이고 정주지향적인 새로운 체류자격군을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함</li> <li>■ 아동·청소년기 입국자의 경우는 안정적 거주 및 취업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 주거나 안정적 비자 취득의 조건을 완화시켜주어야 함.</li> <li>■ 성인기 입국자와는 별도로 국내성장자들을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조건을 마련할 필요 있음.</li> <li>■ 국내성장기반 장기거주 이주배경청년의 GNI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li> <li>■ 입양 무산, 보호자 부재, 가정해체 청소년을 위한 별도 보호형 비자 또는 자립 전환형 비자 신설이 필요함</li> <li>■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일정 조건(한국거주기간, 교육이수기간, 범죄이력 등 고려)을 갖춘 경우 영주 가능성에 초점을 둔 체류자격 획득 경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 갈 수 있는 방안 모색</li> <li>■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국적취득 로드맵 마련</li> </ul> |

(2) 수준별 한국어능력 강화

다음으로 한국어능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이른 나이에 입국한 경우는 한국어의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 이상의 시기에 입국한 경우는 일상한국어는 가능

해도 학습한국어, 직업한국어를 문제없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문해력 자체가 부족한 기초학력 미달자도 있어서 한국어 부족의 문제가 학교생활적응과 학습부적응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한국어 능력의 강화는 중요한데, 어느 정도 학습 한국어가 되는 경우도 보다 높은 수준의 학문목적 한국어 등의 고급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나 다문화센터 등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 이내에 수료가 되고, 그 이후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더욱 개발하여 자신의 학문이나 직업적 성취와 연결시키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주배경청년의 입국시기, 교육이력, 진로목표 등에 따라 차별화된 수준별, 목적별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보편화되어 있는 일상한국어 수준에서 나아가 학습한국어, 취업한국어, 직업 및 전공별 한국어, 학문적 공식적 담화 등 단계별 체계적 한국어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최근 발전된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을 강조하였는데, 맞춤형 온라인 한국어교육, 다국어 모바일 학습플랫폼을 구축하여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현재 한국어능력 시험인 TOPIK의 경우 실질적 언어능력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주배경청년 맞춤형 한국어 인증제를 개발하여 실질적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고 제도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 현재와 같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지자체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학교, 직업교육기관, 지역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어보충수업이나 대학생멘토링, 도서관의 무료 한국어교육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년의 장기적 정착과 자립 및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단기과정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여 연속성 있는 언어학습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IV-116. 수준별 한국어능력 강화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황                                                                                                                                                                                                                                                                                                                                                                                                                                                                                                                                                                                                                                                                                                                                                                                 | 개선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들은 입국 연령, 모국어 사용 환경, 학업 경험 등에 따라 한국어 숙련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단일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움</li> <li>■ 초·중등 입국자 중에는 문해력(읽기·쓰기) 자체가 부족한 기초학력 미달 청년도 있어,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나 수업 방식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li> <li>■ 중도입국 후 고등학교에 바로 진입한 청소년은 교과 이해력이 낮아 학업 중도포기 위험이 높으며, 학업용 한국어와 생활 한국어 간의 괴리도 큼</li> <li>■ 진학 또는 취업 진로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로수준에 맞는 맞춤형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함</li> <li>■ 고급 숙달도 이상, 직업별 직무 목적, 학문 목적 등 특수목적 언어교육 및 훈련지원 미흡</li> <li>■ 한국어능력 인증제는 있지만, 현재는 이주배경청년에 특화된 별도 체계가 없고, TOPIK과 같은 시험이 실질적인 언어능력을 반영하지 못함</li> <li>■ 현장에서는 수준별 교재, 전문 강사, 연령·목적 맞춤형 교육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함</li> <li>■ 수준 높은 한국어 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li> <li>■ 지자체나 다문화센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수료 후 중단되며, 이후의 연속적 언어 교육 시스템이 부재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의 입국 시기, 교육 이력, 진로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수준별·목적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함</li> <li>■ 일상한국어, 학습한국어, 취업한국어, 직업 및 전공별 한국어, 학문적 공식적 담화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li> <li>■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한국어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li> <li>■ 다국어 모바일 학습플랫폼 구축</li> <li>■ 기초학력 미달 청년을 위한 문해력 회복 중심의 기초 한국어 프로그램, 학업중심 언어 습득을 위한 교과 한국어 강화 과정, 진로 연계를 고려한 직업 한국어 및 면접·직장 커뮤니케이션 교육이 별도로 구성되어야 함</li> <li>■ 기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외에 이주배경청년 맞춤형 한국어 인증제를 개발하여, 실질적 능력과 적응도를 평가하고 제도 연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 중심의 교육을 넘어서, 학교, 직업교육기관,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한국어보충수업, 대학생멘토링, 도서관 무료 한국어교실 등 제공</li> <li>■ 장기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단기 과정 중심의 지원을 탈피한 연속성 있는 언어학습 지원 구조 마련이 시급함</li> </ul> |

### (3) 기술교육 지원

다음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과 관련한 현황으로, 첫째는 이주배경청년 중 상당수가 사실상 고졸 이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실질적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는 직업기술교육의 기회는 매우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주로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주배경 집단 중에서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있는,

그리고 한국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고, 주로 단기 자격증 위주의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어서 장기적 직무역량향상이나 경력설계, 산업이해 기반의 역량을 키우기는 어렵고 이러한 프로그램들 역시 외국국적자에게는 기회가 없는 상황이다. 외국국적자들의 경우는 기술교육을 받은 이후에도 체류자격이 되지 않으면 취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과 체류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고 나서도 취업이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학교박청소년, 대안학교청소년, 고졸자 등의 진로경로를 가진 청년들에게 특화된 기술교육 체계가 없다는 점, 여성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섬세한 직종설계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전용 직업훈련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 트랙을 설계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방정부 훈련체계 내에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와는 다르게 기존의 내국인 대상 고용지원 사업에 이주배경청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언어, 문화 등 통역을 지원하고, 선행기초과정을 제공하고, 홍보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로는 고졸, 비정규 교육경로 청년, 미등록자 또는 체류불안정 청년도 기술교육에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한 훈련참여 요건이나 인증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셋째는 단순한 기능보다는 직무이해-실습-현장연계-경력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역량개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로는 한국어 능력과 무관하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 다섯째로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여섯째로는 지역사회 내에서 기업과 이주배경청년을 연계하는 맞춤형 기술교육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곱째 뿌리산업 연계방안 모색, 여덟째 여성이주배경청년, 청소년기 입국자, 학교박청소년 등 취약 하위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설계와 직종발굴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표 IV-117. 기술교육 지원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황                                                                                                                                                                                                                                                                                                                                                                                                                                                                                                                                                                                                                                                                                                                                       | 개선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함</li> <li>■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언어·문화 장벽이 있는 이주배경 청년에게는 접근성과 수강 지속률이 낮은 편임</li> <li>■ 현행 직업훈련은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나,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li> <li>■ 취업비자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만 장기적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이 가능함. 따라서 체류자격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li> <li>■ 정보접근성의 어려움</li> <li>■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 미등록자 등 다양한 체류 지위와 연령대의 이주배경청년을 포괄하는 교육 기획이 필요하며, 개별 맞춤형 접근이 강조됨</li> <li>■ 단기 자격증 취득형 훈련보다는 장기적 직무 역량 향상, 경력 설계, 산업 이해 기반의 체계적 프로그램이 필요함</li> <li>■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청소년, 또는 고졸자 등 비정규 진로 경로를 가진 청년에게 특화된 기술교육 체계 부재도 주요 문제로 지적됨</li> <li>■ 여성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섬세한 직종 설계 및 젠더 관점을 반영한 기술교육 필요성도 제기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전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 트랙을 설계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방정부 훈련 체계 내에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li>■ 기존 내국인 대상 고용지원 사업에 이주배경청년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언어·문화 통역 지원, 선행기초 과정 연계, 홍보체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함</li> <li>■ 고졸자·비정규 교육경로 청년, 미등록자 또는 체류 불안정 청년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유연한 훈련 참여 요건 및 인증 체계가 요구됨</li> <li>■ 단순한 기능 중심이 아닌, 직무 이해·실습·현장 연계·경력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술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li> <li>■ 한국어능력과 무관하게 기술습득을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li> <li>■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li> <li>■ 지역사회 내 기업과 이주배경청년을 연계하는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방안 모색</li> <li>■ 뿌리산업 연계방안 모색</li> <li>■ 직업훈련 및 교육기관의 수혜대상에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 중 외국국적자도 포함</li> <li>■ 여성 이주배경청년, 청소년기 입국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 하위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설계와 직종 발굴이 중요함</li> </ul> |

#### (4) 고등교육지원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국적 비(非)소지 이주배경청년 중 다수는 체류자격 문제, 언어장벽, 정보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이는 경우가 많고, 대학입시제도나 입시전형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낮아서 대학진학에 불리한 상황임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도입국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짧은 청년들의 경우는 입시의 기회조차 가지기 어려워서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었다. 대학을 진학하더라도 재학 중 체류자격 유지와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의 이중부담으로 중도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외국국적자의 경우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이 어려워 더더욱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을 그만두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의 전형이나 학업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입학은 했지만 전공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발표하기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대학교육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대학진학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함께 연계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둘째는 한국어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한국어, 교과학습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셋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 경우도 진학준비 연계과정(브릿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대학진학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넷째는 국내성장 이주배경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체류를 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유학비자(D-2)가 아닌 거주비자(F-2), 동포비자(F-4), 영주비자(F-5)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다섯째,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의 경우 외국국적자라 할지라도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여섯째, 대학 내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학습지원, 생활적응, 상담지원, 재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창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IV-118. 고등교육지원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황                                                                                                                                                                                                                                                                                                                                                                                                                                                                                                                                                                              | 개선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중 다수가 체류자격 문제, 언어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임</li> <li>■ 대학 입시제도가 전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중도입국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짧은 청년은 입시 준비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움</li> <li>■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 전형이나 학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li> <li>■ 다문화 가정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재학 중 체류자격 유지와 등록금·생활비 마련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li> <li>■ 고교 졸업 후 비자 전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학에 합격하고도 체류자격이 없어 등록을 포기하거나 미등록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li> <li>■ 장학금 제도 또한 다문화 가정 일부에 한정되며, 외국국적자이거나 부모의 체류자격에 종속된 경우 복지·교육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름</li> <li>■ 비국적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어려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제공 체계(입시설명회, 진학컨설팅 등)”를 교육청·지자체·민간 연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li> <li>■ 한국어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한국어 및 교과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li> <li>■ 고졸 후 학업 지속 의사가 있는 청년에 대한 진학준비 연계과정(브릿지 프로그램) 도입 필요</li> <li>■ 국내성장자의 경우 일반 유학비자(D-2)가 아닌 거주비자(F-2), 동포비자(F-4), 영주비자(F-5) 등의 체류자격 제공</li> <li>■ 외국국적 청년도 사회통합·지역정착 이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 확대가 필요함</li> <li>■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의 경우는 학자금 및 국가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li> <li>■ 대학 내에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학습지원·생활적응·상담지원·재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창구 설치 필요</li> </ul> |

#### (5) 지역사회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다음으로 지역사회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조성의 주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현재 이주배경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단위 정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에 한정되거나 청소년기 이후 연령층은 제도 밖에 머무르는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청년정책, 이주민정책, 교육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존재하지만, 이주배경청년이라는 교차적 정체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설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일반적인 청년정책들은 있지만 이주배경청년은 포함되지 않고 있고, 외국국적자 또는 미등록자는 정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지역마다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국적, 유입경로, 체류자격 분포가 다르지만 국가 중심의 일률적 접근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청년위원회,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근거가 될만한 지역 내 이주배경청년 관련 통계의 부재, 전담인력 부족,

예산의 제약 등으로 실질적 정책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주배경청년을 지방정부의 청년정책으로 추천하기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중앙정부와 연계 재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둘째, 지역특성에 따라 청년의 유입배경, 국적분포, 체류형태, 정착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설계 및 사업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지자체에 이주배경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필요한 교육, 취업, 체류자격, 사회통합 등 다양한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어 정책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표 IV-119.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황                                                                                                                                                                                                                                                                                                                                                                                                                                                                                                                                                                                                | 개선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이주배경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 정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족 지원에 한정되거나 청소년기 이후 연령층은 제도 밖에 머무름</li> <li>■ 지역의 청년정책, 이주민 정책, 교육정책 등은 분절적으로 존재하나, 이주배경청년이라는 교차 정체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설계는 부족함</li> <li>■ 청년정책(고용, 주거, 복지 등)에 이주배경청년이 포함되지 않거나, 외국국적자-미등록자라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li> <li>■ 이주배경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지역 거버넌스, 청년위원회, 민관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음</li> <li>■ 현장 실무자들은 지역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근거 통계 부재와 전담 인력 부족, 예산의 제약 등으로 인해 실제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는 의견 제시</li> <li>■ 지역마다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국적, 유입 경로, 체류자격 분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일률적 접근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이 어려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을 지방정부 청년정책 또는 이주민 정책 내 독립된 정책군으로 포섭하고,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을 유도할 필요 있음</li> <li>■ 지자체의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근거 마련(조례 제정), 실태조사 실시, 전담조직 설치, 중앙정부와의 연계 재정지원 체계 확보가 동반되어야 함</li> <li>■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의 유입배경, 국적분포, 체류 형태, 정착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사업 모델이 필요함</li> <li>■ 지자체별 이주배경청년 인구 현황 및 특성파악</li> <li>■ 지자체에 이주배경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함</li> <li>■ 교육청, 고용센터,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 통합지원센터 또는 조정기구 설치를 통해 분절된 지원체계를 조정해야 함</li> <li>■ 이주배경청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자문단, 청년포럼,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하여, 현장 기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및 강화(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li> </ul> |

## (6) 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년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이주배경청년들이 연령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제도 밖에 방치된 존재로, 정착지원, 교육, 고용, 체류, 자립 등 생애경로별 단계에서 이전 제도의 이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고, 관련정보가 언어, 접근경로, 이해수준 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 공공기관 간 정보가 서로 다르거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정책간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다 통합적 정책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개선방안으로 이주배경청년을 별도의 정책군으로 구별하기 보다는 정책대상별, 생애경로별 통합적 정책설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책의 범주를 나이, 국적, 체류자격 등에 따라 나누기 보다는 정착과정에서 마주치는 공통의 문제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것, 체류자격, 언어, 정체성, 복지적 접근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지방 연계형 협업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주배경청년 정책이 부처별 개별사업이 아니라 청년정책, 이주민정책, 고용 및 고용정책을 수직 및 수평적으로 연계한 로드맵을 그리고, 정책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별도 항목을 구성하여, 정책영향평가를 지표화하는 등 체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주배경청년정책의 경우 정책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이주배경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년 정책자문단(가칭)을 구성하여 지역별 협의체에 참여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120. 기타 이주배경청년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 현황                                                                                                                                                                                                                                                                                                                                                                                              | 개선방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청소년-청년-성인’ 또는 ‘외국인-다문화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중간에 위치한 이주배경청년은 제도 밖에 방치됨</li> <li>■ 정착지원-교육-고용-체류-자립 등 생애 경로별 단계에서 이전 제도의 이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매 단계마다 제도 진입이 초기화되고 있음.</li> <li>■ 관련 정보가 언어, 접근 경로, 이해 수준 면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공공기관 간 정보 불일치나 연계 부재로 인해 이중으로 서류 제출하거나 자격이 제한되는 사례 빈발</li> <li>■ 정책 간 칸막이 해소,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 복합적 삶의 조건을 반영한 통합 정책 설계가 필요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을 별도의 정책군으로 간주하기보다, 정책 대상의 교차성과 생애 경로에 기반한 통합형 정책 설계로 전환할 필요 있음</li> <li>■ 정책 범주를 나이, 국적, 체류자격 등에 따라 나누기보다, 정착 과정에서 마주치는 공통의 문제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함</li> <li>■ 체류자격, 언어, 정체성, 복지 접근 등 다영역 문제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지방 연계형 협업체계(예: 이주청년통합지원센터) 마련이 필요</li> <li>■ 부처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정책, 이주민 정책, 교육·고용 정책을 수직·수평으로 연결한 연계 로드맵 및 책임 주체 명확화가 요구됨</li> <li>■ 실질적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실시, 통계 시스템 내 별도 항목 구성, 정책영향평가 지표화가 필요함</li> <li>■ 정책 수립 초기부터 이주배경청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내 관련 협의체에 참여</li> </ul> |



#### 4. 요약 및 소결

4장은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이주배경청년의 삶의 기반 마련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하여 설문조사, 면접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였고, 각 연구방법에 따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V-121.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와 요구도 조사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연구방법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사회진출 시 적응에 용이함</li> <li>■ 한국 장기 정착의지가 높으며,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율이 높음. 따라서 안정적 정착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키울 필요가 있음.</li> <li>■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주배경청년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됨.</li> <li>■ 한국어교육에 대한 희망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함.</li> <li>■ 이주배경청년 대상 한국어는 수요가 있고, 특히 중학교 이후 입국한 경우 요구도가 높음.</li> <li>■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원하는 공부'와 '원하는 직업'인 만큼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사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음. 이는 이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역량을 개발시키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함.</li> <li>■ 체류자격이 안정되었을 때 교육을 통해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li> <li>■ 한국사회에 대한 가치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식도 높은 편임.</li> <li>■ 이주민의 통합과 관련하여 가족해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li> <li>■ 체류자격에 따라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지고,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없는 경우 심리적응수준이 낮음. 이는 이주배경청년들의 한국학교 경험이 이들의 적응수준을 높이기 때문으로 보임.</li> <li>■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공교육 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li> <li>■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경험은 대다수가 없고, 이용한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이용함.</li> <li>■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li> <li>■ 한국학교 재학 경험이 길수록 별도의 기존의 조직에 이주배경청년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을 선호함.</li> </ul> |

## 연구방법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면접 조사

- 미등록·잡은 연장·체류 하향 등 체류 불안정은 이동·금융·교육·취업 접근을 제약해 정규 결정을 지연시킴. 따라서 체류안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 있음.
- 채용 관행과 비자 요건(연봉, 직무코드, 고용사유서 등) 불일치는 졸업 직후 초기 채용과 전공 연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직무코드, 매칭·고용사유서 작성 공공지원, 외국인 첫 채용 기업에 행정대행 비용 지원 및 컨설팅 제공이 필요함.
- 성인기 한국어는 중급 이후 학문·직무·제도 목적 분화가 미흡하고, 야간·주말·온라인 등 유연 운영과 성과 인정 연계가 부족함. 따라서 성인기 한국어를 위한 '목적별 표준과정'(학문·직무·제도) 도입, 야간·주말·온라인 혼합 운영, 수료 성과의 학점·장학·채용 서류 연계방안 등이 필요함.
- 기술교육은 정보 창구가 분절되고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성이 불명확하여 탐색·신청·수료·채용 연계가 약하므로 기술교육 통합 안내창구를 마련하고, 외국국적자 입학·이수 요건 명확화, 모듈형 과정+현장실습+채용 연계 표준 경로 설계, 시간·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음.
- 대학 단계에서 과제·보고서·발표·팀과제·장학·대출·학습지원의 구조적 공백이 초기 성취와 진로 전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산출함. 따라서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전공 문해·보고서·발표 훈련 정례화, 팀프로젝트 매칭·도래 멘토링·학습지원 포털 및 1:1 상담 상시화, 장학·대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반적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인턴·현장실습은 경력 인증과 채용 전환 절차가 부재하거나 약하여 '경험'에 머무름. 따라서 졸업 전후 '구작·비자·채용' 표준 시스템(상당·서류·모의면접·전환 절차) 도입, 실습의 경력 인증(직무기술·산출물·평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역 단위 전담 창구 부재, 현황 파악·사례관리 미흡,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동일 설명·서류 반복 등 비효율이 발생함. 따라서 시군구 차원에서 전담 창구와 지역 허브기관 설치, 현황조사·지원지도 상시 업데이트, 학교·지자체·외국인지원기관·청년센터 '공동 창구' 운영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찾아가는 연계와 일정/서류 알림의 통합 운용, 취업 구간(미등록·심사 대기·전환 준비)별 별도 관리 트랙을 도입하여 사회통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조사

- 이주배경청년 대부분은 부모의 비자(F-1, F-3 등)에 종속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체류자격이 상실되거나 F-1 단기비자로 전환되어 체류 불안정 상태에 놓이고, 성년이 되면서 독립적 체류자격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대체할 적절한 비자 제도가 현행 체계에서는 부재함.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유예 체류를 보장하는 이주배경청년 전용 체류유예 비자(F-2-Y 등)를 도입 하고,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교육이력, 체류기간, 사회적인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기 입국자의 경우는 안정적 거주 및 취업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 주거나 안정적 비자 취득의 조건을 완화시켜주어야 함.
- 성인기 입국자와는 별도로 국내성장자들을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조건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국내성장기반 장기거주 이주배경청년의 GNI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함.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일정 조건(한국거주기간, 교육이수기간, 범죄이력 등 고려)을 갖춘 경우 영주 가능성에 초점을 둔 체류자격 획득 경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한국국적 취득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체류자격 안정화를 위한 국적취득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시함.

- 이주배경청년들은 입국 연령, 모국어 사용 환경, 학업 경험 등에 따라 한국어 숙련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단일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의 입국 시기, 교육 이력, 진로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수준별·목적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함.
-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한국어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다국어 모바일 학습플랫폼 구축 등이 필요함.
- 이주배경청년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하는데,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언어·문화 장벽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접근성과 수강 지속률이 낮은 편임. 또한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맞춤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
-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전용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기술교육 트랙을 설계하여, 고용노동부 및 지방정부 훈련 체계 내에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취업비자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만 장기적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이 가능함. 따라서 체류자격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
-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 지역사회 내 기업과 이주배경청년을 연계하는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방안 모색
- 여성 이주배경청년, 청소년기 입국자,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 하위집단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설계와 직종 발굴이 필요함.
- 이주배경청년 중 다수가 체류자격 문제, 언어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임. 대학 입시제도나 전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중도입국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짧은 청년은 입시 준비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움.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제공 체계(입시설명회, 진학컨설팅 등)”를 교육청·지자체·민간 연계로 운영하고, 한국어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한국어 및 교과학습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 전형이나 학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재학 중 체류자격 유지와 등록금·생활비 마련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
- 고졸 후 학업 지속 의지가 있는 청년에 대한 진학준비 연계과정(브릿지 프로그램) 도입 필요
- 국내성장자의 경우 일반 유학비자(D-2)가 아닌 거주비자(F-2), 동포비자(F-4), 영주비자(F-5) 등의 체류자격을 제공할 필요 있음.
- 외국국적 청년도 사회통합·지역정착 이력을 기반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 확대가 필요함.
- 대학 내에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학습지원·생활적응·상담지원·재정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할 필요 있음.
- 이주배경청년을 지방정부 청년정책 또는 이주민 정책 내 독립된 정책군으로 포섭하고,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을 유도할 필요 있음.
- 지자체의 정책추진을 위한 행정근거 마련(조례 제정), 실태조사 실시, 전담조직 설치, 중앙정부와의 연계 재정지원 체계 확보가 동반되어야 함

| 연구방법 |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특성에 따라 청년의 유입배경, 국적분포, 체류 형태, 정착 여건이 상이하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와 사업 모델이 필요함.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및 강화(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가 필요함.</li> <li>■ 지자체에 이주배경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li> <li>■ 체류자격, 언어, 정체성, 복지 접근 등 다영역 문제를 동시에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지방 연계형 협업체계(예: 이주청년통합지원센터) 마련이 필요</li> <li>■ 부처별 개별 사업이 아니라, 청년정책, 이주민 정책, 교육·고용 정책을 수직·수평으로 연결한 연계 로드맵 및 책임 주체 명확화가 요구됨</li> <li>■ 실질적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실시, 통계 시스템 내 별도 항목 구성, 정책영향평가 지표화가 필요함</li> </ul> |

# ○ — 제Ⅴ장 이주배경청년 정책현황

- 1. 이주배경청년 관련 국가 기본계획
- 2. 이주배경청년 관련 주요 이슈별 정책 현황



## 1. 이주배경청년 관련 국가 기본계획

이번 절에서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국가 기본계획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주배경청년은 연령상 만 19세에서 34세이므로 그 연령이 포함된 계획들이 있으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3년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에서 일차로 다룬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 연령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 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경제·안전·통합·인권·협력 및 인프라의 다섯 영역에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배경청년과 관련해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을 목표로 한 통합 영역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중점과제는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참여, 정체성 확립, 지역공동체 내 통합을 촉진하는 기반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과제는 이주배경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이민집단의 사회적 적응 정도와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이주배경청년 집단의 사회통합 수준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응을 정교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6) 5장의 1절은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고, 2절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함

둘째,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은 다문화 감수성, 문화 간 이해,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상호 존중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셋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과제는 이민자 개인의 자립역량, 직업역량, 시민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직업훈련·진로지원·시민교육 등 이주배경청년 대상 자립역량 개발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넷째,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은 재외동포와 국내 이주민, 그리고 청년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글로벌 정체성과 상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이다. 이는 이주배경청년의 국제교류형 청년활동, 한민족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종합하면,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은 단순히 체류관리나 법적 지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이주배경청년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통합의 정책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년과 깊은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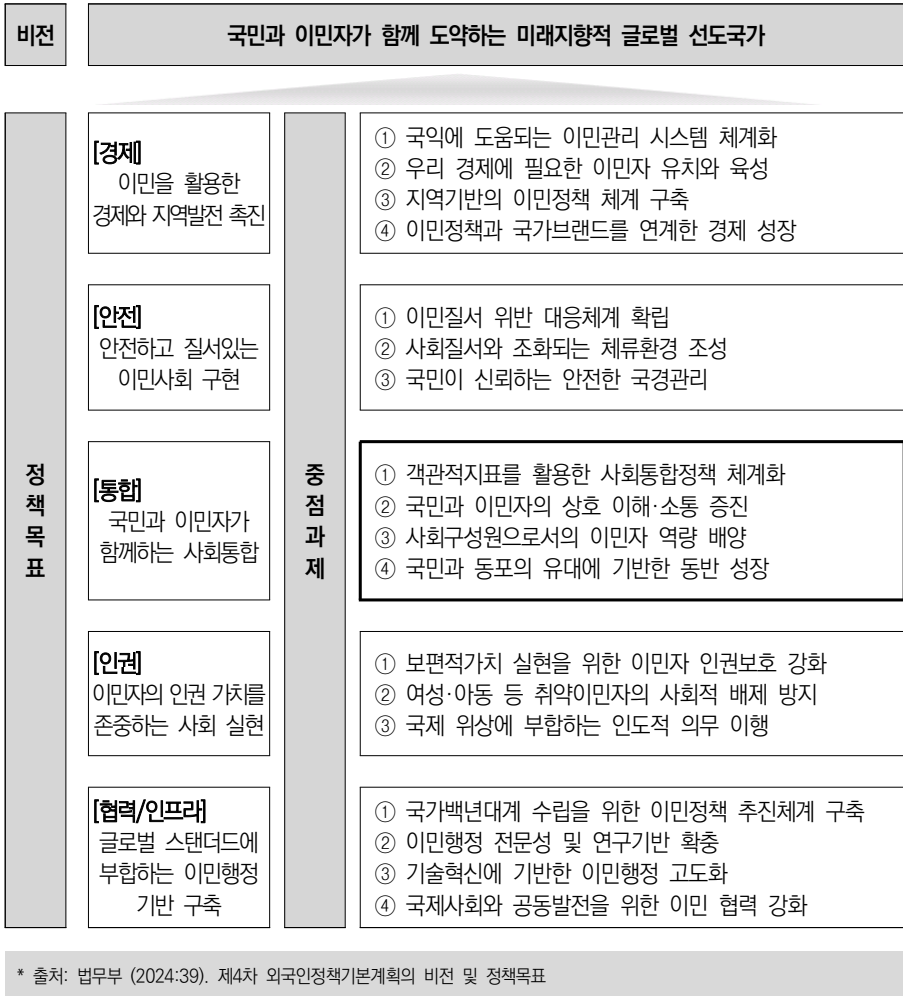


그림 V-1.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

또한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새롭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운영되어 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주요 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 KIIP)도 이주배경청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

부터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법무부, 2024:114), 출입국관리법 제 39조(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교육의 내용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그리고 한국사회이해교육의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래 <표 V-1>과 같이 기초를 제외한 5단계로 구성되며, 1~4단계는 ‘한국어·한국문화’, 5단계는 ‘한국사회 이해’ 과정이다. 운영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지자체·가족센터·민간단체 등이며, 2024년 기준 334개이다(법무부, 2024). 이러한 대학·지자체·가족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운영 방식은 이주배경청년에게 학습 경로(학습-평가-인증)가 명확하게 제시된다는 점에서 진로·고등교육·고용서비스와의 연계가 용이하며, 지역 기반 학습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 내 교류·참여를 촉진한다. 아울러 연도별 운영 규모(예: 2019-2024년 운영기관 308→334개, 참여자 56,535→70,949명)는 통합정책이 현장에서 확장·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이주배경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지역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국제교류 포함)과 결합해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성장’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됨을 시사한다.

표 V-1.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 교육명<br>구분 | 한국어와 한국문화 |        |        |        |       | 한국사회이해  |         |
|-----------|-----------|--------|--------|--------|-------|---------|---------|
|           | 0단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 과정        | 기초        | 초급1    | 초급2    | 중급1    | 중급2   | 영주용     | 귀화용     |
| 총 교육시간    | 15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100시간 | 70시간    | 30시간    |
| 평가        | 없음        | 1단계 평가 | 2단계 평가 | 3단계 평가 | 중간 평가 | 영주용종합평가 | 귀화용종합평가 |

\* 출처: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2025).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2025.10.15일 검색\)](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2025.10.15일 검색))

표 V-2.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참여자 현황

| 연도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운영기관수(개) | 308    | 348    | 347    | 339    | 339    | 334    |
| 교육참여자(명) | 56,535 | 36,620 | 43,552 | 42,163 | 58,028 | 70,949 |
| 전년대비     | 11.6%  | -35.2% | 18.9%  | -3.2%  | 37.6%  | 22.3%  |

\* 출처: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법무부, 2024: 115) 표 9-1 수정

표 V-3. 지역별·이민자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현황

| 구분   | 총참여자   |       | 결혼이민자  |       | 일반이민자  |       |
|------|--------|-------|--------|-------|--------|-------|
|      | 합계     | 비율(%)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 수도권  | 32,602 | 46.0  | 6,466  | 49.4  | 26,136 | 45.2  |
| 비수도권 | 38,347 | 54.0  | 6,630  | 50.6  | 31,717 | 54.8  |
| 계    | 70,949 | 100.0 | 13,096 | 100.0 | 57,853 | 100.0 |

\* 출처: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법무부, 2024: 115) 표 9-2 수정

## 2) 제1차 재외동포 기본정책(2024~2028)

제1차 재외동포 기본정책(2024~2028)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포괄하는 포용적 정책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력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는 재외동포정책의 실질적 핵심으로, 이주배경청년이 국내에 정착하며 겪는 사회적 적응과 시민적 권리의 확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역이다. 이 정책목표의 과제 중 하나인 ‘국내동포 지원’ 과제는 귀국 또는 역이주한 재외동포, 그리고 부모 세대의 이주를 통해 한국에 정착한 청년 집단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장치를 의미한다. 국내동포 지원정책 과제는 법적 지위와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F-4 비자 청년, 재외동포 청년 2세 및 3세 등에게 제도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취업, 주거, 복지 서비스를 포괄하는 국내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국내동포 지원 정책과제는 이주배경청년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근거가 된다.

또한 ‘편리한 동포 생활’ 과제는 국내에서 생활하는 재외동포 및 그 자녀가 체류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사회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이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해서 비자 행정의 간소화, 온라인 기반의 민원 서비스 확대, 생활정보 제공, 의료·금융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이주배경청년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안정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근거가 된다. 특히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확충과 다중 언어 정보 제공은 언어적·문화적 장벽을 완화하여 이주배경청년의 자립역량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종합하면 제1차 재외동포 기본정책 중 몇몇 추진과제들은 단순한 행정지원 차원을 넘어, 재외동포 출신 청년이 국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주배경청년정책과의 연계성이 크다. 이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사회통합목표와도 맥락적으로 이어지며, 향후 이주배경청년의 정체성 확립, 사회참여 확대, 정주기반 강화를 위한 포괄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                                           |                                                                                                  |  |
|-------------------------------------------|--------------------------------------------------------------------------------------------------|--|
| 미션                                        |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한다.                                                 |  |
| 비전                                        | 전 세계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                                                                 |  |
| 정책목표                                      | 추진과제                                                                                             |  |
| 재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립                            | <div>①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div> <div>② 범정부 협업 및 의견수렴 활성화</div>                                         |  |
|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 <div>① 재외동포 교육 강화</div> <div>② 차세대 동포 지원 사업 내실화</div> <div>③ 한국 정치·경제 발전상 알리기</div>              |  |
|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지원 강화                       | <div>① 재외동포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div> <div>② 취약동포 보듬기</div> <div>③ 국내동포 지원</div> <div>④ 편리한 동포 생활</div> |  |
| 한인 네트워크 구축                                | <div>① 지역별·분야별·세대별 한인 네트워크 강화</div> <div>② 재외동포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div>                                |  |
|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여                            | <div>① 상생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div> <div>② 글로벌 가치 선도에 기여</div>                                         |  |
| * 출처: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2024-2028) 보도자료. |                                                                                                  |  |

그림 V-2. 제1차 재외동포정책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 3)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를 비전으로, 청년의 삶을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5대 정책방향 중 '복지·문화' 영역에 포함된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과제는 이주배경청년정책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진다.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과제는 청년 세대 내의 불평등 구조와 사회적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경제·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지원체계를 확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는 경제적 자립기반이 약하고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제한된 이주배경청년에 게 특히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소득 및 고용안전망 확대, 주거 취약청년 지원, 심리·정서 건강증진, 사회복귀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는 이주배경청년의 정착 초기의 사회경제적 격차 완화와 자립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취약계층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역량기반 접근(competency-based approach)으로 확장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의 진로역량 강화, 교육-고용 연계, 재도전 지원 등은 언어, 학업, 경력단절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년이 사회진입 과정에서 겪는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센터, 자립지원센터, 지역 커뮤니티 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주배경청년이 정체성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확립하는 데 실질적 기반을 제공한다.

따라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과제는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의 제도적 틀로 기능한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 논의된 외국인정책 및 재외동포정책이 주로 체류 및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접근한 것과 달리, 청년세대의 삶의 질, 역량, 사회참여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연속성과 보완성을 갖는다. 궁극적으로 이 과제는 이주배경청년이 '청년'이라는 동일한 정책대상 안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고, 자립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청년정책 패러다임의 실현을 의미한다.

|                  |                                                                                                                                                                                                                                                                                                                                                                                                                                         |       |       |
|------------------|-----------------------------------------------------------------------------------------------------------------------------------------------------------------------------------------------------------------------------------------------------------------------------------------------------------------------------------------------------------------------------------------------------------------------------------------|-------|-------|
| 비전               |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 가는 미래                                                                                                                                                                                                                                                                                                                                                                                                             |       |       |
| 방향               |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br>△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                                                                                                                                                                                                                                                                                                                                                                      |       |       |
| 3대 원칙            | 참여와 주도                                                                                                                                                                                                                                                                                                                                                                                                                                  | 격차 해소 | 지속가능성 |
| 5대 정책 방향 및 중점 과제 | <div> <div> <div>일자리</div> <div>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div> <div>           ①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br/>           ②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br/>           ③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br/>           ④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div> </div> <div> <div>주거</div> <div>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div> <div>           ① 청년 주택 공급 확대<br/>           ②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br/>           ③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br/>           ④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div> </div> </div> |       |       |
|                  | <div> <div>교육</div> <div>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div> <div>           ① 고른 교육기회 보장<br/>           ②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br/>           ③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br/>           ④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div> </div> <div> <div>복지·문화</div> <div>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div> <div>           ①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br/>           ② 청년건강 증진<br/>           ③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br/>           ④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div> </div>                                           |       |       |
|                  | <div> <div>참여·권리</div> <div>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div> <div>           ①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br/>           ②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div> </div> <div> <div></div> <div>           ③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br/>           ④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div> </div>                                                                                                                                                                    |       |       |
|                  |                                                                                                                                                                                                                                                                                                                                                                                                                                         |       |       |

\* 출처: 관계부처합동 (2023b:6).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양계민 외(2023: 236) 표 IV-8 재인용.

그림 V-3.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 및 추진과제

#### 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공정사회의 실현,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을 핵심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의 첫 번째 과제인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은 이주배경청년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지점이다.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과제는 한국 사회의 가족 형태가 급격히 다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혼인·출산·양육·돌봄의 제도적 기준을 가족 다양성에 맞게 재구조화하려는 방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이주배경가족, 한부모가족, 비혼가족, 조손가족, 재외동포 귀국가족 등 다양한 형태를 포용함으로써 기존의 ‘혈연·혼인 중심 가족규범’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양성과 평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가족복지 차원을 넘어, 이주배경청년이 속한 가족의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기반이다.

특히 이주배경청년의 상당수는 결혼이민자 가정, 재외동포 귀국가정, 또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곧 이주배경청년이 사회 내에서 차별과 배제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청년정책 간 연계, 가족 돌봄 및 상담 서비스 확대는 이주배경청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사회통합 역량 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라는 상위 목표는, 다양한 가족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 사회정책의 기초와 일맥상통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은 이주배경청년정책의 근간인 사회통합, 평등, 포용의 가치를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의 틀 안에 제도적으로 내재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 다양성의 제도화를 통해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적 인정과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앞서 살펴본 외국인정책, 재외동포정책, 청년정책에서 강조한 사회적 포용의 방향성과 연결되며, 이주배경청년이 한국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미래세대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       |                                                                                                                                                                                                               |                                                                                                                                                                                                         |              |
|-------|---------------------------------------------------------------------------------------------------------------------------------------------------------------------------------------------------------------|---------------------------------------------------------------------------------------------------------------------------------------------------------------------------------------------------------|--------------|
|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                                                                                                                                                                                        |                                                                                                                                                                                                         |              |
| 목표    |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 인구변화 대응 사회혁신 |
| 추진 전략 |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li> <li>②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li> <li>③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li> <li>④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li> <li>⑤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li> </ul>             |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li> <li>②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li> <li>③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li> <li>④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li> <li>⑤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li> </ul> |              |
|       |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li> <li>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li> <li>③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li> <li>④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li> <li>⑤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 참여</li> </ul> |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li> <li>② 연령통합적 사회준비</li> <li>③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li> <li>④ 지역상생 기반 구축</li> <li>⑤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li> </ul>                        |              |
| 추진 체계 | ① 연도별 중앙부처·지자체 시행계획 수립<br>② 중앙·지자체 인구문제 공동대응 협의체 운영 등 중앙·지역 거버넌스 구축                                                                                                                                           |                                                                                                                                                                                                         |              |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그림 V-4.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비전 및 추진과제

## 2. 이주배경청년 관련 주요 이슈별 정책 현황

### 1)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체류자격 현황

#### (1)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체류자격 종류와 특성

이주배경청년은 19세에서 34세의 연령으로 이주배경아동청소년과 공통된 부분도 있으나 청년의 연령이기에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은 아동청소년 연령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 크게 D, F, E 계열이 있고, 그 외 기타 종류가 있는데, D는 유학생, 일반연수 및



대학 졸업 후 구직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비자이다. D-2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기본 체류가능 기간은 2년이고 연장이 가능하다. D-4는 일반연수 비자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체류기간은 2년이다. D-10은 구직비자로 국내 교수(E-1) 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로 1회에 6개월씩 1년이 가능하고 연장시에는 점수제를 적용하고 있다.

F 계열 중 첫 번째는 거주(F-2)비자로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자가 대상이다. 그 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또는 영주(F-5)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난민 인정자,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영주(F-5)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특별기여자 등 다양한 집단이 대상이 된다. F-2 비자는 체류자격이 5년으로 비교적 길어서 안정적 체류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F-4는 재외동포 비자로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들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중국과 고려인 동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이고 단순노무는 불가하다. F-5는 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영구체류가 가능하고 취업제한이 없는, 가장 안정적인 비자라고 할 수 있다.

E계열에서 E-7은 특정활동 비자로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말한다. 이 분야는 관리·전문직종, 준전문직종, 일반기능직종, 숙련기능직종 등의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E-7-1은 전문인력으로 관리자 및 전문가의 67개 직종이 포함되고, E-7-2는 준전문인력으로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의 10개 직종이 포함되며, E-7-3는 일반기능인력으로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의 10개 직종이 포함된다. E-7-4는 숙련기능인력으로 점수제로 이루어지고 3개 직종이 포함된다. E-9은 비전문 취업으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고용허가제는 현재 한국이 MOU를 맺고 있는 16개 국가(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의 외국인에게만 해당되며,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의 체류기간은 3년이고,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업이 휴업이나 폐업 등 정상적 근로 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는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그 외 방문취업 비자인 H-2는 18세 이상 7개 국적(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체류기간은 3년이고, 정해진 46개 업종 이외에는 취업이 불가하다. 마지막으로 G-1 비자로 체류하는 것이 가능한데 G-1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보통의 경우 산재, 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표 V-4. 이주배경청년(19~30세)의 주요 체류자격 종류와 특성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D계열 | 유학(D-2)  |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등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사람 | 2년<br>(연장가능) | 과학기술연구분야 학생연구원과 시간제 취업 가능 | · 입학 및 체류자격변경시 재정 능력 요구<br>(수도권 소재 2,000만원, 비 수도권 1,600만원)<br>·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배제<br>· 시간제 취업의 업종과 취업시간 제한으로 학비 및 생활비 마련에 한계, 그러나 휴학 불가<br>· 학점과 출석률이 미달되는 경우 체류자격 연장 불투명 |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 일반연수 (D-4)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2년                                                         |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외 활동 억제                                                |    |
|     | 종교(D-6)    |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 단체로부터 국내 등록된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또는 종교 활동을 하는 자<br>·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등                                                                                                                                                                                   | 2년<br>(연장가능)                                               |                                                                   |    |
|     | 구직 (D-10)  |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br>· 기업투자(D-8)자격 '다'목에 해당하는 기술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자<br>· 해외 우수대학 첨단기술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졸업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석사이상: 만 35세)로, 법무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에서 첨단기술분야 인턴활동을 하려는 자 | 1회 6개월<br>(연장 시에는<br>점수제 적용)<br>첨단기술인턴<br>의 경우 1회<br>최대 1년 | 유학체류자격에서 구직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시간제 취업할 동이 가능함<br>(주당 20시간, 주말 무제한) |    |
|     | 교수(E-1)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교육 또는 연구지도 하는 자                                                                                                                                                                                                                                              | 5년                                                         |                                                                   |    |
| E계열 | 회화지도(E-2)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 2년                                                         |                                                                   |    |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           |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br>외국어 회화지도                                                                                                                                                                                                                                                                                               |                                              |                                                                                                  |                                                                                                                                                                                                                  |
|    | 연구(E-3)   | ·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br>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br>· 고급과학기술인력, 사회과학, 인<br>문학, 예체능 분야의 연구인력                                                                                                                                                                                                                                           | 5년                                           |                                                                                                  |                                                                                                                                                                                                                  |
|    | 기술지도(E-4) |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br>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대한민<br>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br>기술을 제공하는 자                                                                                                                                                                                                                                                   | 5년                                           |                                                                                                  |                                                                                                                                                                                                                  |
|    | 전문직업(E-5) | ·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br>인정된 외국의 국가공인자격증<br>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br>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br>어 있는 전문업무 종사자<br>· 항공기조종사, 의료기관 근무자,<br>의사 등                                                                                                                                                                                             | 5년                                           |                                                                                                  |                                                                                                                                                                                                                  |
|    | 예술흥행(E-6) |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br>등의 예술활동을 하는 자<br>·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br>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br>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2년                                           |                                                                                                  |                                                                                                                                                                                                                  |
|    | 특정활동(E-7) | ·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br>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br>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br>사람<br>· ‘특정활동’이란 법무부장관이 국<br>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br>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br>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br>다 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br>의미함.<br>·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br>의 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br>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 등을 감<br>안하여 관리·전문직종(67개),<br>준전문직종(10개), 일반기능<br>(10개), 숙련기능직종(3개)으로<br>구분함. | 3년<br>(전문 영역에<br>서 5년인 경우<br>도 있음)<br>(연장가능) | 각 분야 및 비자<br>유형에 맞는 직<br>종에 취업을 원<br>칙으로 하나 유<br>사직종에 대하<br>여 자격요건을<br>충족한 경우 심<br>사 후 취업<br>가능함 | · 특정활동(E-7)<br>중 전문인력<br>(E-7-1)은 주<br>로 이공계 위주<br>의 총 67개 업<br>종에 전공과의<br>관련성이 입증<br>되어야 변경가<br>능함.<br>· 준 전문 인 력<br>(E-7-2)중 요<br>리사는 특정국<br>적자 사증발급<br>을 제한함.<br>· 고용업체는 규<br>모와 외국인 고<br>용비율을 맞추<br>면서 외국인 고 |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             |                                                                                                                                                                                                                                                                                                                                        |              |                                                                                        | <p>용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외국인의 임금 요건이 전년도 GNI(국민총소득)의 70% 또는 80% 이상이 되어야 함</p> <p>· 신설된 E-Y-7은 취업 업종에 제한이 없고 임금요건도 없지만 신청조건에 제한이 있음.</p> |
|     | 비전문취업 (E-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임.</li> <li>·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8월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li> <li>·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 고용을 허가함.</li> </ul> | 3년<br>(연장가능) | 최초 고용 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해야 함. 단, 사업장의 휴·폐업 등 정상적 근로 관계를 지속하기 곤란 경우 변경 신청 가능            |                                                                                                                                    |
| F계열 | 거주(F-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주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li> <li>·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li> <li>·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 난민을 인정받은 사람</li> <li>·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li> </ul>                                                                               | 5년<br>(연장가능) | <p>거주자격 취득 직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취업 등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p> <p>점수이민제 우수인재</p> | <p>· 거주 중 점수제 우수인력(F-2-7)은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해서 체류해야 신청가능 (연소득 4,000만원이 넘는 경우 3년 미만 체류자도 신청</p>                                   |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           | <p>영주(F-5)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 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 <li>·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함</li> <li>·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li> <li>· 바로 위의 두 개 규정(외국인투자자, 특별기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li> <li>·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인력수급과 지역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li> </ul> |              | (F-2-7) 비자 소시자가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p>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이, 학력, 기본소양(한국어능력시험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소득의 기본점수와 기타 가점 및 감점의 항목 점수를 합산해서 총 170점이 넘어야 신청가능함</li> <li>· 거주 중 우수인재(F-2-R)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D-10이나 E-7-Y로 4년 이상 체류, 전년도 GNI 70%를 충족시켜야 하고 지지체장의 추천이 필요하며, 해당 지자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함.</li> </ul> |
|    | 방문동거(F-1) |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는 자                                                                                                                                                                                                                                                                                                                                                                                                                                                                                                                                                                                                                                                                                            | 2년<br>(연장가능) |                                  |                                                                                                                                                                                                                                                                                                 |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 재외동포(F-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li> <li>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재외동포법 제 2조 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 동포(중국·고려인))</li> </ul>                                                                                     | 3년<br>(연장가능) | 단순노무 불가        |                                                                                                                                            |
|     | 결혼이민(F-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우리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사람</li> <li>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ul> | 3년<br>(연장가능) |                |                                                                                                                                            |
|     | 영주(F-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 중인 사람으로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동포와 난민은 제외됨)</li> </ul>                                                                                                                                                                                           | 영구           | 취업제한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요건은 전년도 GNI의 2배임. 2025년 4월 기준, 전년도 GNI는 약 4,995만원으로 영주체류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연소득 9,990만원이 넘어야 함</li> </ul> |
| 그 외 | 방문취업(H-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이상 7개 국적(중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동포로서 모국 방문 또는 취업(46개 업종)하려는 사람</li> </ul>                                                                                                                                               | 3년<br>(연장가능) | 46개 업종 이외 취업불가 |                                                                                                                                            |

| 계열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체류기간         | 취업제한     | 현실 |
|----|----------|-----------------------------------------------------------------------------------------------------------------------------------------------------------------------------------------------|--------------|----------|----|
|    | 기타(G-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호 중 외교(A-1)부터 방문취업(H-2)까지 또는 영주(F-5) 체류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li> <li>산재, 질병치료, 난민신청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등이 포함됨</li> </ul> | 1년<br>(연장가능) | 취업 일부 제한 |    |

\* 출처: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의 내용을 요약 발췌함. 현실의 내용은 본 연구의 전문가포럼 (2025.04.29.)에서 김사강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추가로 포함함.

## (2) 성인기 이행시 체류자격 변경 경로

### ① 외국국적 이주배경자의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체류자격 변경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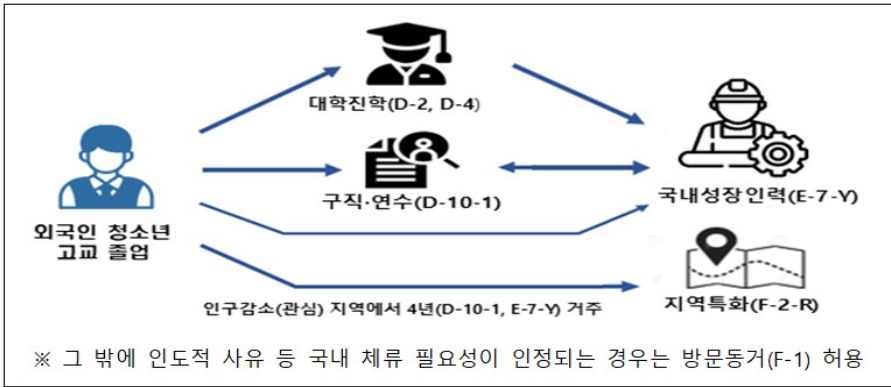
외국국적 이주배경자가 청소년에서 성인기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등록 아동과 등록아동이 서로 다른데, 미등록 아동의 경우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2021.4~2022.1) 또는 구제대책을 개선한 ‘국내장기체류 아동 교육 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2022.2.1.~2028.3.31.)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일반연수(D-4)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기타(G-1) 체류자격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비자를 충족하지 못하여 여전히 많은 경우가 이 두 가지 비자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지내고 있는 것(김사강, 2025)으로 현장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등록아동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유학비자(D-2)로 변경이 가능하고 체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신청자(G-1-5)의 경우는 대학에 진학을 한다 할지라도 유학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지 않아도 체류를 위하여 대학에 진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바로 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취업을 위한 비자 중 전문취업비자(E-1~E-7)는 최소 전문학사 졸업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고, 비전문 취업비자(E-9~E-10)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예술홍행비자(E-6)로의 변경은 가능하지만 재능이 매우 뛰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에 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김사강, 2025). 그러나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을 2028년 3월 3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많은 경우 구제가 되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취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가 발표함에 따라 E-7-Y를 취득하거나, 바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D-10-1을 신청하여 구직을 할 수 있고, 취업도 진학도 하지 못했으나 인도적 사유 등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부여하게 되었고, 아래에 제시되는 바와 같이 D-10, E-7-Y로 인구감소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F-2-R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 제도’로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 ② 국내 성장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최근 법무부에서는 성장기반이 국내에 형성된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취업 및 정주하면 자립할 수 있도록 체류를 지원하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를 발표하였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25.03.20.) 이 제도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일반체류자격),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제25(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법적근거로 아래의 경로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아래의 [그림 V-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외국국적을 지닌 경우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국내성장인력(E-7-Y) 비자를 취득하거나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는 (F-2-R) 공통요건을 충족하면서 구직(D-10) 또는 국내성장인력(E-7-Y) 자격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4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 체류자격 변경 가능하다. 지역특화 우수인재비자를 지닌 경우는 인구감소(관심) 지역에 실거주 해야 하고, 자격변경 후 2년 경과 시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2025).



\* 출처: 20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p. 641)

그림 V-5. 고교졸업 외국인 청소년의 성년기 체류자격 취득 경로

표 V-5.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취업·정주 체류제도 대상자

| 체류자격(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
| 유학(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 일반연수(D-4)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를 받거나 유학(D-2),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구직(D-10)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특정활동(E-7) | 대한민국 내의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
| 방문동거(F-1)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거주(F-2)   |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20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수급과 지역활력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p. 131

국내 성장기본 요건의 원칙적 대상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① 신청일 기준 18세~24세 이하의 합법체류자, ② 18세가 되기 전 국내에서 7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체류기간 중 91일 이상 출국한 기간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 ③ 10세~18세 기간 중

3년 이상 연속하여 해외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④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추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기본계획, p. 642-643). 위의 기준 중 ①~③은 충족하였으나 ④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즉, 국내 초·중·고교 일부 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정하고 있다(2025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p. 643).

표 V-6. 국내성장 기반요건 예외적 대상자의 인정 기준

| 국내 초·중·고 졸업 여부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
| ① 초등학교 미졸업, 중·고등학교 졸업      | 5단계 기본과정    |
| ②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미졸업 | 5단계 심화과정    |

\*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p. 643

또한 중도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는 사유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 18세 기준 역산으로 7년 이내에 1회 출국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및 출국한 기간의 총합이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p. 650). 이 때 법령 준수·품행단정 요건 및 제한 대상이 있는데, 영주(F-5) 자격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에게 적용되는 품행 단정 요건을 준용한다고 되어있다. 이 요건은 1) 국내 범죄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2) 해외범죄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3) 준법시민교육 대상자이다. 국내범죄 심사기준은 특정강력범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 범칙금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이다. 해외범죄 심사기준은 특정 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그 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을 의미한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도 제한된다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 2) 국내 한국어교육 현황과 이주배경청년 대상 한국어교육 현황

### (1) 국내 한국어교육 현황

국내 한국어교육은 지난 수십 년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언어교육 체계를 다층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그 출발점은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으로, 이는 한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한 법률이다(법제처, 2005). 이후 2024년 10월 개정을 통해 국가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어교육의 지원 및 보급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국가 차원의 한국어 교육 의무가 한층 강화되었다(법제처, 2024). 이 개정으로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및 양성 등 한국어교육 전반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촉진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체계적 관리체계가 구축되었다. 특히 국립국어원은 한국어교원 1급, 2급, 3급의 자격제도를 운영하며, 대학 및 민간기관의 양성과정 심사를 통해 전문 인력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국립국어원, 2025). 이러한 법적·제도적 발전은 한국어교육이 단순한 외국어 교육을 넘어 사회통합, 학업 적응, 문화 이해를 포괄하는 국가 통합정책의 일환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한국어교육의 추진체계는 여러 정부 부처가 역할을 분담하면서 병렬적으로 발전해왔다. 교육부는 학령기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공교육 내 한국어교육(KSL, Korean as a Second Language)을 제도화하였으며, 2012년 「한국어교육과정」을 고시하고 2017년 개정안을 발표함으로써(교육부, 2017a),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학교 교과 학습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뿐 아니라 학문적 언어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을 함께 함양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후 교사용 지도서, 표준 교재, 진단 도구 등 현장 적용 자료가 연차적으로 개발되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램(KIIP: Korea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rogram)을 운영하며, 성인 이민자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과 한국사회 이해 과정을 제공해 왔다.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2009년 1,331명에서 2024년 70,949명으로 5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운영기관은 335개소에 달한다(법무부, 2025). 이는 한국 사회 내 이민자 및 이주배경자의 언어 적응 수요가 구조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부 외에도 성평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정 단위의 방문형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218개 센터에서 방문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도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한국어 방문교육 참여자는 연인원 78,1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여성가족부·건강가정진흥원, 2025). 성평등가족부가 제공하는 이러한 가정 중심의 언어교육은 가족 단위의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언어·문화 통합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은 2012년 설립 이후 전 세계 한국어 보급을 주도해 왔으며, 2024년 기준 87개국 252개소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 수강생 규모는 210,374명에 달하며,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과 청년층 이주민에게도 원격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세종학당재단, 2025).

정부부처를 넘어 공교육 현장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적응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교육지원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어교육과정」은 교실 수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뿐 아니라 교과 학습 수행에 필요한 언어능력을 함께 배양하도록 설계되었다(교육부, 2017b). 2013년 이후 표준 한국어 교재, 익힘책,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되어 교사 주도의 수업 적용이 체계화되었으며, 이주배경학생이 밀집한 지역에는 한국어교육 거점학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이주배경학생은 193,814명에 이르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중·고등학교 단계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교육부, 2024). 이는 학령기를 지나 청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될 것임을 시사하며, 특히 대학 진학이나 직업훈련에서 학문적 언어역량(CALP)의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임을 함께 시사한다.

다음으로 성인 이민자 및 이주배경자 대상의 한국어교육은 생활 적응과 체류 안정화를 목표로 한 실용 중심 교육으로 발전해 왔다. 성인 한국어교육의 대표적인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일정 수준 이상 이수하면 체류 자격 심사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민자들과 이주배경자들의 학습

참여 유인이 높은 편이어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성인 한국어교육 제도는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본 역량을 높여줄 수 있다는 목적 아래 시행되고 있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는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이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기관으로 발전해 왔다. 1959년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 이후 전국 다수의 대학이 유학생 유치와 국제화를 위해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기당 평균 200시간 내외의 수업으로 구성된 정규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수료 기준은 출석률 80%, 성적 70점 이상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되며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수료 기준을 가지고 있다(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n.d.).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 청년의 대학 진학, 취업, 체류 연장을 위해 한국어를 외국어로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인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TOPIK은 사실상 국가 공인 언어능력 평가로 자리 잡았다. 2024년 기준 TOPIK 응시자는 428,585명으로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24). 최근에는 TOPIK 시험체계의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어, 2025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TOPIK, Internet-Based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이 국외에서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말하기 평가(TOPIK-S,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 Speaking) 도입을 통해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디지털 학습환경의 확산은 한국어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는 중이다.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과 국립국어원의 KSL 교수학습 자료 공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줄여 학습자 중심의 학습환경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청년층 외국인이나 이주배경 청년에게 자율적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종학당재단은 2030년까지 350개소 이상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형 한국어교육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세종학당재단, 202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국내 한국어교육은 법적, 제도적 기반 위에서 학교, 성인, 대학, 그리고 국제적 학습자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체계를 잘 구축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국어교육은 정부부처별 및 교육기관별 목적과 수준체계가 상이해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경로가 단계별로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는 대상별 분절성과 제도간 상호연계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학교 KSL 성취기준, 성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 대학 예비과정과 TOPIK(및 TOPIK-S) 등 평가 및

배치 체계가 서로 다른 논리로 설계되어 학습 이력이 누적 및 인정되지 않거나(예: 학교→성인·대학 전환 시 초기화), 동일 수준의 한국어 역량이라도 제도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문제가 반복된다(교육부, 2017a;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24; 법무부, 2025). 또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음에도(법제처, 2024)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별 질적 관리 기준과 성과지표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과 기관 간 운영 격차가 크며, 교원 자격—현장 배치—직무연수—디지털 교수법 역량을 하나의 생태계로 엮는 한국어교원에 대한 인사 및 연수 체계도 충분히 정합적이지 않다(국립국어원, 2025). 최근 디지털 전환과 원격학습 확대로 접근성은 개선되었으나, 온라인 세종학당·기관별 학습 관리 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과 오프라인 과정 간 학습 데이터의 상호운용과 신뢰성 있는 성취 인증 체계가 미흡해 성취의 사회적 효용(학업·고용·체류 안정 등)으로의 전환이 제한된다는 한계점을 넣고 있다(세종학당재단, 2025). 이상의 국내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V-7>과 같다.

표 V-7. 국내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

| 주요현황                                                                                                                                                                                                                                                                                                                                                                                                                                                                                                                                                                                                                                                              | 한계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기본법」 제정(2005)과 2024년 개정으로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국어교육의 국가 책무가 강화되었으며,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 자격과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li> <li>■ 교육부는 공교육 내 KSL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고 교재·지도서·진단도구를 개발하여 학령기 이주배경학생의 학업 적응을 지원함.</li> <li>■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통해 성인 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와 기관 수가 매년 증가함.</li> <li>■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가족 단위 방문형 한국어교육을 운영하며 생활 적응과 언어·문화 통합을 지원함.</li> <li>■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세종학당재단은 전 세계 87개국 252개소를 운영하며, 온라인 세종학당을 통해 국내외 학습자의 접근성을 확대함.</li> <li>■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은 유학생 대상 정규과정을 운영하며 TOPIK이 입학·취업·체류의 국가 공인 평가로 자리 잡음.</li> <li>■ 세종학당 온라인 플랫폼과 국립국어원 KSL 자료 공개로 디지털·원격 학습 접근성이 확대되고 하이브리드형 학습모델이 확산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처별·기관별 목적과 수준체계의 불일치로 인해 학습자별 학습 경로가 단계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제도 간 연계성 및 호환성이 낮아 학습경험의 누적이 어렵고 생애주기별 분절이 지속됨.</li> <li>■ 학교 KSL 성취기준, 성인 대상 KIIP 단계, 대학 예비과정 및 TOPIK 체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설계되어 동일한 한국어 역량이라도 제도마다 다르게 인정되며, 청년기의 학문·직무 목적 언어교육 연계가 미흡함.</li> <li>■ 프로그램 간 질 관리 기준과 성과지표가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지역 및 기관 간 교육 품질 격차가 크며, 교원 자격·배치·연수·디지털 교수법 역량을 연결하는 체계적 인력 양성·관리 시스템이 부족함.</li> <li>■ 디지털 전환으로 접근성은 향상되었으나, 온라인 세종학당과 각 기관의 LMS(학습관리시스템) 간 학습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및 성취 인증 체계가 미흡하여 학업·고용·체류 안정 등 사회적 효용으로의 전환이 제한됨.</li> <li>■ 성인·가족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프로그램이 청년기의 학업 및 직무 맥락과 요구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고급 한국어 능력(CALP, 직무 및 전문 영역 한국어)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않음.</li> </ul> |

## (2) 이주배경청년 한국어교육 현황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학령기 교육과 성인기 사회통합 프로그램 사이에서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영역으로, 청년기에 요구되는 학문적·직무적 언어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초등 및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 과정」에 따라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만(교육부, 2017a),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이러한 지원이 단절되어, 청년층이 대학, 직업훈련, 취업 환경에 진입할 때 언어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학문 목적 한국어(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와 직무 및 전문 영역 한국어교육 과정의 부족은 이주배경청년들의 대학에서의 보고서 작성 및 과제 수행, 취업 준비와 취업 후의 구직 면접, 직무 수행 등에서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교육부, 2017b; 법무부, 2025).

성인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이주배경청년층이 참여 가능한 유일한 국가 운영 프로그램이지만, 프로그램 설계 목표가 체류 안정과 사회 적응에 맞춰져 있어 학업 및 직무 중심의 이주배경청년 언어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다. 실제로 KIIP의 한국어교육 단계가 생활 의사소통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과정 이수 후에도 학문적 언어 능력으로의 연계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청년층의 학습 동기와 지속성이 낮아질 수 있다.(법무부, 2025). 또한, 가족 단위의 방문형 한국어교육(여성가족부·건강가정진흥원, 2025) 역시 가정 내 생활 적응에는 기여하지만,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진학·취업·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언어 지원 기능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이주배경청년층은 학령기 이후 별도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미흡으로 없이 한국어교육 공백 상태에 놓이거나, 한국어교육을 원하는 이주배경청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용으로 구성된 일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이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주배경청년에게는 학비·시간·수준·목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문 목적 한국어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나, 이는 교양선택이나 단기 보충 수준에 머무르기 때문에, 이주배경청년이 원하는 학문적 담화 능력이나 전공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n.d.). 그나마도 최근에는 대학 내 언어교육원, 학과, 교양교육센터가 분리되어 운영되면



서, 이주배경청년 대학생 학습자 입장에서 대학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통합 지원 경로를 찾기 더욱 어려워졌다.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 후 취업과 사회진출 단계로 이동하면서 이주배경청년은 직무 수행과 행정 절차, 노동 관련 문서 이해 등에 필요한 직무 및 전문 영역 한국어 능력을 요구받게 되지만, 이러한 한국어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한국어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하다. 이주배경청년이 대학 입학 및 취업과 사회진출 시기에 접하게 되는 TOPIK은 여전히 대표적인 평가도구로 기능하지만(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24), 지필 중심의 평가 방식이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직장 내 담화 이해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최근 도입되는 IBT TOPIK과 말하기 평가(TOPIK-S)가 이러한 한계를 일부 보완하지만, 시험 성취가 학문적 성과나 고용 과정과 연계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지역사회와 민간기관에서도 이주배경청년 대상 한국어교육이 일부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수준, 목적,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고, 학습 결과가 공식 인증되거나,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입학 및 취업 단계에서 인정받는 사례는 드물다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특히 이주배경청년층은 시간적 제약이 크고 학업과 근로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주배경청년이 접근하기 쉬운 야간 혹은 주말 시간대, 또는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는 혼합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공급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세종학당 온라인과 국립국어원의 학습 자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나(세종학당재단, 2025), 이주배경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형 및 직무형 한국어 학습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다양한 학습 데이터의 상호운용이나 학습 인증의 표준화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

결국 이주배경청년의 한국어교육은 다양한 한국어교육 제도 간의 연계 부재, 이주배경청년 특화 교육과정의 미비, 취업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 및 인증체계의 단절이라는 삼중의 대표적인 한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법제도 정비(법제처, 2024)와 디지털 기반 확대(세종학당재단, 2025)로 이주배경청년들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는 확인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의 목표, 수준체계, 인정규칙을 갖춘 중간단계 한국어교육 제도 및 프로그램의 구축이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자립역량 강화, 안정적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의 이주배경청년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V-8>과 같다.

표 V-8. 이주배경청년 한국어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

| 주요현황                                                                                                                                                                                                                                                                                                                                                                                                                                                                                                                                                                                                                                                                                                                                                                           | 한계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과정」에 따라 공교육 내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지원이 단절되어 청년층이 대학, 직업훈련, 취업 환경에 진입할 때 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음</li> <li>■ 성인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청년층이 참여 가능한 대표적 국가 프로그램이지만, 체류안정과 사회 적응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li> <li>■ 가족 단위의 방문형 한국어교육은 생활 적응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주배경청년 개인의 진학·취업·자립 역량 강화와는 직접적인 연계가 약함</li> <li>■ 지역사회와 민간기관의 이주배경청년 맞춤형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가 매우 적음</li> <li>■ 대학 부설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어 이주배경청년에게 학비·시간·수준 측면의 접근 장벽이 존재함</li> <li>■ 대학 내 한국어교육원, 학과, 교양교육센터가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학업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통합 지원 경로를 찾기 어려움</li> <li>■ TOPIK은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서 대표적인 평가 도구로 활용되며, 최근에는 IBT TOPIK과 말하기 평가(TOPIK-S)가 도입되어 평가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li> <li>■ 세종학당 온라인과 국립국어원의 자료 공개 등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이 확대되어, 이주배경청년층의 자율학습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령기 이후 한국어교육 제도가 단절되어 청년층의 언어 학습 공백이 지속되고 있음</li> <li>■ 청년층 특화 교육과정 부재로 학문적·직무적 언어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함</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 대학·취업 단계 간 연계가 약해 학습 지속성과 동기 유지가 어려움</li> <li>■ 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이 보충 수준에 머무르고, 학문적 담화 능력 및 전공별 문해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함</li> <li>■ TOPIK이 실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며, 성취 결과가 학업·고용 등과 연계되지 않음</li> <li>■ 지역사회와 민간기관의 프로그램은 숫자도 적지만 목적, 수준, 평가가 상이하고, 공식 인증 체계가 없어 성과 활용이 제한됨</li> <li>■ 청년층의 시간·비용 제약을 고려한 야간·주말·온라인 혼합형 교육과정이 부족하며, 학습 데이터 상호운용과 인증 표준화가 미흡함</li> </ul> |

### 3) 이주배경청년 대상 진로, 기술 및 직업교육 정책 현황

이주배경청년 대상 진로 및 직업교육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진로교육 종합계획」, 「청년고용정책 기본계획」 등 여러 정책의 교차점에 위치하지만, 여전히 명시적인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불분명하고 애매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다. 정부부처별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이 각각의 대상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주배경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된 독립적인 진로·직업훈련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

먼저, 진로교육의 측면에서 이주배경청년은 제도적으로 “진로취약계층”에 포함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일반 이주배경학생 정책의 연장선에 머무르고 있다. 교육부의 「제6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주배경·농산어촌·저소득층 청소년을 주요 지원군으로 포함하였다(교육부, 2023). 그러나 해당 계획은 주로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 졸업 후의 청년기 진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연계 체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전국 이주배경학생의 약 20%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불확정 상태에 놓여 있으며, 대학 진학률은 전체 학생 대비 약 15%p 낮게 나타난다(통계청, 2023). 또한 진로교육의 주요 전달체계가 학교 내 ‘진로전담교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주배경청년이 청소년기를 지나면 진로에 관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청년 단계의 진로 탐색·상담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글로벌 다문화청년 취업지원사업(2024)’을 통해 이주배경청년 대상 진로상담, 직무멘토링, 인턴십을 결합한 통합형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서울특별시, 2024).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기반의 단기 프로젝트로, 중앙정부 차원의 안정적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속성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다음으로, 기술 및 직업교육 영역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23-2027)」과 연계하여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운영된 「다문화청년특화훈련과정」은 이주배경청년의 실무형 기술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계된 유일한 국가단위 프로그램으로, 방송미디어, 기계설계, 제과제빵, 뷰티디자인 등 산업 수요 기반 단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이주배경가정 출신 청년(만 19~34세)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2024년 기준 전국 8개 캠퍼스에서 20여 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 프로그램은 직무훈련-진로상담-취업연계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며, 이수자 중 약 65%가 취업 혹은 상급훈련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한국폴리텍대학, 2024). 이처럼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은 잘 되어있지만, 이주배경청년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직업훈련 참여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 청년 직업훈련 참여자 중 외국국적 또는 복수국적자의 비율은 1.4%에 불과하다(고용노동부, 2023). 그 이유로는 참여율이 가장 높을 수 있는 D-2(유학), F-4(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경우 법적 신분제한으로 인해 다수의 공공직업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직업 훈련생 선발 단계에서 언어능력·체류자격·학력 증빙요건이 높아, 이주배경청년의 접근성이 크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의 확산이 이주배경청년의 기술 및 직업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K-Digital Training」 및 「K-Digital Credit」은 AI, 데이터 분석, UX/UI 등 미래산업 직무를 중심으로 온라인·혼합형 학습을 지원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청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고용노동부, 2024). 그러나 이 또한 현행 과정 대부분이 국내 대학생이나 청년 구직자를 주 대상으로 설계되어, 이주배경청년의 학력, 언어 수준, 체류자격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지원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한편, 폴리텍대학의 「다문화청년특화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청년정책과 연계되어 취업알선·멘토링·기업탐방 등을 제공하고 있어 이주배경청년에게 매우 효과적인 교육정책이지만, 과정별 지역 불균형이 심하고 일부 캠퍼스에서는 통역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가 미흡해 교육과정 운영 안정성이 낮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또한 수료 이후에도 직업자격증 취득, 고용연계, 체류자격 전환 등 후속지원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이주배경청년이 훈련성과를 장기적 직무역량의 자산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점이 지적된다. 이상의 이주배경청년 진로 및 직업 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V-9>와 같다.

표 V-9. 이주배경청년 진로 및 직업 교육 주요 현황 및 한계점

| 주요현황                                                                                                                                                                                                                                                                                                                                                                                                                                                                                                                                                    | 한계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의 「제6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23-2027)」은 사회적 배려대상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 강화를 명시하였으나, 이주배경청년은 청소년기 이후 지원체계에서 제외됨.</li> <li>■ 전국 이주배경학생의 대학진학률은 전체 평균 대비 15%p 낮으며, 졸업 후 진로 미확정 비율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나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진로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통계청, 2023).</li> <li>■ 서울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주배경청년 대상 진로상담 및 취업멘토링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단기사업 중심으로 운영됨.</li> <li>■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다문화청년특화훈련과정」을 통해 실무형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제과제빵 등 20여 개 과정 운영 중.</li> <li>■ K-Digital Training, K-Digital Credit 등을 통해 디지털 신산업 분야 직무교육이 확대되며, 외국인 청년의 일부 참여가 가능해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이 「진로취약계층」으로 분류되지만, 청년기 특화 진로지원 제도나 예산은 부재함.</li> <li>■ 체류자격·언어수준·학력 등의 제약으로 공공직업 훈련 접근성이 낮고, 외국인 청년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1.4% 수준에 불과함(고용노동부, 2023).</li> <li>■ 폴리텍 다문화청년특화훈련은 시범사업으로 규모가 제한적이며, 통역·상담 인력과 지역 네트워크 부족으로 운영 안정성이 낮음.</li> <li>■ 직업훈련 수료 이후 고용연계·자격취득·비자전환 등 사후지원체계가 미비하여 훈련성과의 지속적 활용이 어려움.</li> <li>■ 디지털 직무교육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청년의 언어·학력 수준을 고려한 교육콘텐츠와 지원 서비스가 부족함.</li> <li>■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정책 연계 및 데이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년기 진로·직업경로의 추적 및 관리가 어려움.</li> </ul> |

## ○ — 제Ⅵ장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이주배경청년 정책방안 도출의 절차
- 2.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이주배경청년 정책방안 도출의 절차

이주배경청년의 정책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 [그림 VI-1]과 같다. 우선 크게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근거자료 준비단계와 정책과제 도출단계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근거자료 준비단계에서는 1단계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학술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 및 정부부처 자료검토를 통해서 이주배경청년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와 현재의 정책현황들을 검토하였다. 2단계에서는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년들의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되어 도출해야 할 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3단계로는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박사를 초청하여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 시장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OECD 국가의 이민자와 선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홍종명 교수를 초청하여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한국어교육에 대한 개괄과 함께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한계,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4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의 체류자격 현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포럼을 실시하였다. 5단계에서는 학계 및 현장전문가들 대상으로 이주배경청년의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6단계에서는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년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단계에서는 역시 이주배경청년의 현황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주배경청년 30명과 현장전문

7) 6장은 양계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정책개발자문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집필함

가 8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지막 8단계에서는 이주배경청년과 관련된 국가의 기본계획 및 지자체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 출처: 양계민 외 (2022:268) 그림 VII-1 수정

그림 VI-1. 본 연구의 정책과제 도출의 절차



두 번째 단계로 정책과제 도출단계에서는 위에서 추진한 다양한 작업을 기초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개발자문위원회와 함께 최종 정책과제(안)를 개발하였다. 최종 도출된 1차안으로 국회포럼을 추진하여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대해 정부부처별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마지막으로 11단계에서는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 부처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부처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최종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2.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 1)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사회의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앞서 이주배경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이주배경청년 정책의 방향은 첫째, 삶의 기본여건 마련, 둘째, 자립역량강화, 셋째,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조성이다. 첫째로 삶의 기본 여건 마련은 이주배경청년들이 안정적 상황에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체류자격 안정과 한국어능력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로 자립역량강화는 기술교육 강화를 통한 진로·직업역량 강화와 대학진학자를 우수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지원방안의 양방향적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중심 정책추진 기반 조성은 현재 마련되지 않은 이주배경청년정책을 추진할 중앙부처 차원의 체계 및 그에 따른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일과 이주배경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지역수요기반 맞춤형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가지 방향을 근거로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이주배경청년의 삶의 기반 마련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진방향은 1. 기본적 삶의 여건 마련, 2. 자립역량 강화, 3.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 기반 마련의 세 가지이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은 총 6개이며, 추진과제는 총 10개이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 VI-1>과 같다.

표 VI-1. 이주배경청년정책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추진방향                      | 추진전략                        | 추진과제                                                                             |
|---------------------------|-----------------------------|----------------------------------------------------------------------------------|
| 1. 기본적인 삶의 여건 마련          | 1-1. 체류 안정화                 | 1-1-1.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개선<br>1-1-2. 국내 성장기반 청년의 취업 및 정주방안 개선    |
|                           | 1-2. 성인기 한국어 능력 강화          | 1-2-1. 이주배경청년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구축<br>1-2-2.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연계형 온라인 한국어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
| 2. 자립역량 강화                | 2-1.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      | 2-1-1. 이주배경청년 대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br>2-1-2. 이주배경청소년 거점형 직업교육 고등학교 설립            |
|                           | 2-2. 고등교육 내실화               | 2-2-1. 다문화친화적 캠퍼스환경조성<br>2-2-2. 대학 내 이주배경학생 학습, 진로 및 취업지원센터 설립                   |
| 3. 지역중심 이주배경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 3-1.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 체계 구축 | 3-1-1.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지원체계구축                                                         |
|                           | 3-2.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 3-2-1. 지역별 인력수요 기반 맞춤형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

각 추진과제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기본적 삶의 여건 마련

### 추진전략 1-1. 체류 안정화

#### 추진과제 1-1-1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청년 체류자격 요건 개선

##### (1) 현황 및 진단

- 2025년 3월 20일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3년 연장(2028년 3월 31일까지 시행)을 발표함. 그러나 2021년 4월 말부터 2025년 2월까지 해당 조치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은 1,250여 명으로 20,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국내 성장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의 수에 비해 매우 작음
- 현재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청년으로 체류자격 신청 요건은 ① 국내에서 출생 또는 6세 미만 국내 입국자로 6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 ② 6세 이후 국내 입국자로 7년 이상 국내 체류, 신청일 기준 국내 초·중·고교 재학 또는 고교 졸업자로 국한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개인적 사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졸업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은 체류자격 신청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에게는 각각 최대 9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범칙금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나 가족해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이에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도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을 적극적으로 추가 감면하거나 범칙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최소한 청소년 연령대에 있는 동안(24세까지)은 부모의 체류를 허용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향후 법무부의 ‘불법체류 아동 학습권 지원 방안’ 지침에 따라 미등록으로 체류하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학교에 다니거나 졸업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체류자격을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화할 필요가 있음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도입국 청소년은 국적을 미취득한 경우가 다수로 체류가 불안정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취업이나 다른 활동에 제약이 많은 상황임</li> <li>■ 청소년기까지는 대부분 학업으로 인해 한국 체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진학이나 취업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외 출생자의 후기청소년기에는 이전 학령기보다 체류자격이 중요한 문제가 됨</li> <li>■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활동에 집중해야 해서 자기 개발이나 실력 향상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시기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음</li> <li>■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진로 탐색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향</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다고 응답함.</li> <li>■ 희망하는 최종 체류상태가 한국국적 취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li> <li>■ 한국 교육을 경험한 경우가 다수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고, 사회진출 시 적응이 용이함.</li> <li>■ 한국사회에 대한 가치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인식도 높은 편임.</li> <li>■ 체류안정화에 대한 요구가 높으며, 이주민의 통합과 관련하여 체류자격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함.</li> <li>■ 체류자격에 따라 심리적응 수준이 달라짐</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등록·잡은 연장·체류 하향 등 체류 불안정은 이동·금융·교육·취업 접근을 제약해 정주 결정을 지연시킴</li> <li>■ 체류 심사 장기화는 소득 공백과 비공식 노동 위험을 확대, 학업·구직 일정 동시 관리의 부담을 가중 됨.</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졸업 후 F-2-Y, D-10 등으로의 전환은 점수제나 고용요건 등의 장벽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진입이 어려움. 현행 점수제 기반 체류자격(F-2-Y 등)의 요건을 현실화하고, 청년 친화적이고 정주지향적인 새로운 체류자격군을 정책적으로 설계해야 함</li> <li>■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일정 기간 유예 체류를 보장하는 이주배경청년 전용 체류유예 비자(F-2-Y 등) 도입 필요</li> <li>■ 부모의 비자에 종속되지 않고, 개인의 교육이력, 체류기간, 사회 적응 정도를 기준으로 독립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마련 필요</li> </ul>                                                            |

## (3) 추진내용

### ① 대상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6세 이전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6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사람(현행과 동일)

- 6세 이후 입국해 신청일 기준 7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사람(현행과 동일)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7년 이상 체류한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로 국내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일부 이수한 사람(신설)
- 위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 ② 주요 내용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위 대상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초·중·고교 재학생에게는 일반연수(D-4) 체류자격 부여, 고교를 졸업했거나 초·중·고 교육과정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는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로 국내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기타(G-1)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신청 시 범칙금은 원 범칙금액의 70%를 감경하고, 범칙금 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범칙금 추가 감면 적극 시행(현행과 동일)
- 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녀가 만 24세가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자녀의 질병이나 장애 등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만 24세 이후라도 체류를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의 2(장기체류 아동 등에 대한 특칙) 신설로 체류자격 부여의 법적 근거 마련, 상시적 제도로 확립

## (4) 추진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이민조사과, 체류관리과

## (5) 기대 효과

- 본인의 선택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내에 미등록으로 체류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인권 및 교육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정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성장 이주배경청년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인구감소 시대에 한국사회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

## (6) 고려 사항

- 국내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의 일부만 이수하고 기타 체류자격(G-1)을 부여받은 경우, 체류자격 부여 이후 3년 이내에 고졸 검정고시 통과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를 전제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교육권 보장의 취지를 살림
- 국내에서 초·중·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점, 국내 체류기간, 그 밖의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미등록 이주배경청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체류자격 신청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추진과제 1-1-2

###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의 취업 및 정주방안 개선

#### (1) 현황 및 진단

- 2025년 3월 20일 법무부가 발표한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취업·정주 방안에 따라,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 청소년들은 4월 1일부터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E-7-Y) 또는 구직(D-10-1)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됨. 또한, 인도적 사유로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방문동거(F-1) 체류자격도 신청할 수 있게 됨.
  - E-7-Y 또는 D-10 체류자격 신청 요건이 ①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②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 체류, ③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초·중·고교 과정 일부 미졸업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 이수)로 되어 있어 대상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여전히 대학 진학(D-2)이나 취업(E-7-Y), 그리고 취업을 위한 구직(D-10)만을 허용하고 있어 진로 탐색, 창업, 프리랜서 활동 등은 사실상 불가능해 활동범위에 제약이 큼.
-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D-10) 또는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게 됨
  -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지역특화형 거주(F-2-R)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주배경 청소년·청년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 정책에 따르면 24세까지 E-7-Y 취득이 가능한데, E-7-Y 이후 해당 체류자격 유

지가 가능한지 불분명함.

- 인구감소(관심) 지역의 경우 4년 이상 거주 시 F-2-R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는 이후 체류자격 설계에 대한 고민이 없음.
- E-7-Y의 요건상 연령기준의 의미가 강하므로 취업업종 제한을 없애고 취업유지 조건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등 이들의 정착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이주배경아동·청소년·청년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체류자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현재의 체류자격 다음에 어떤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여 잘못된 체류자격을 획득하기도 함.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에 취업활동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동포 청소년·청년들에게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에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를 늦추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결정이 중요한 시기에 체류자격이 안정적이어야 진로를 고민할 수 있음</li> <li>■ 불안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청년들이 진로 탐색을 미루거나 포기함.</li> <li>■ 동포 청년은 단기체류비자의 특성상 체류의 불안정성이 높고 취업제한이 있음</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음.</li> <li>■ 안정적 체류자격을 지닌 경우 진학을 하겠다는 비율이 높음.</li> <li>■ 체류자격이 안정되었을 때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li> <li>■ 이른 나이에 입국한 경우 직업훈련 경험 많음.</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의 익숙한 생활·언어·환경, 가족, 체류의 예측 가능성이 성인기 한국 사회 정주 의지를 강화함</li> <li>■ 청년 친화 체류 로드맵 정비할 필요 있음: 점수제·연봉 요건 현실화, 전환 구간 합법적 근로 허용, 표준 안내·사전 통지·원스톱 상담 상시화</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체류자격이 청년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li> <li>■ 국내성장자들의 경우 안정적 거주 및 취업을 위한 비자를 만들어 주거나 비자 취득의 조건을 완화시켜주어야 함.</li> <li>■ 국내성장자들을 위한 별도의 체류자격조건을 마련할 필요 있음.</li> <li>■ 국내성장기반 장기거주 이주배경청년의 GNI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함.</li> <li>■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이 일정 조건(한국거주기간, 교육이수기간, 범죄기록 없음 등)을 갖춘 경우 영주 및 한국국적 취득까지 갈 수 있는 체류자격 획득 경로(로드맵)를 만들 필요</li> </ul> |

### (3) 추진 내용

#### ① 대상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
- 신청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 7년 이상인 자
- 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 또는 초·중·고교 과정 일부 미졸업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 ② 내용

- 위 대상 요건 중 처음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거주(F-2-Y) 체류자격(이하 국내 성장 거주 비자)을 신설함
- 국내 성장 거주 비자(F-2-Y) 소지자에게는 활동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진학(휴학), 취업, 창업, 구직은 물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모든 활동을 허용
- 국내 성장 거주 비자(F-2-Y)로 4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내 성장 이주배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영주(F-5-Y) 체류자격(이하 국내성장 영주비자)를 신설함
  - 국내 성장 영주 비자(F-5-Y) 신청 시 소득요건은 전년도 GNI와 연계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영주자격 요건 등)의 제3항제2호에 따라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 24. 거주(F-2)에 새로운 목을 추가해 F-2-Y의 근거를 마련함

| 체류자격<br>(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
| 24. 거주<br>(F-2) |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br>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br>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br>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체류자격<br>(기호)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
|--------------|-----------------------------------------------------------------------------------------------------------------------------------------------------------------------------------------------------------------------------------------------------------------------------------------------------------------------------------------------------------------------------------------------------------------------------------------------------------------------------------------------------------------------------------------------------------------------------------------------------------------------------------------------------------------------------------------------------------------------------------------------------------------------------------------------------------------------------------------------------------------------------------------------------------------------------------------------------------------------------------------------------------------------------------------------------------------------------------------------------------------------------------------------------------------------------------------------------------------------------------------------------------------|
|              |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br>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br>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br>마.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br>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br>사. 삭제 <2022. 12. 27.><br>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br>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br>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br>카.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했다고 인정하는 사람<br>타.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br>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등에서의 인력 수급과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대상 업종·지역, 해당 지역 거주·취업 여부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br>하. <u>미성년 시기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주로 성장한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신설)</u><br>- <u>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u><br>- <u>신청일 기준 국내 체류기간 7년 이상인 자</u><br>- <u>국내에서 초·중·고교 졸업 또는 초·중·고교 과정 일부 미졸업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u> |

\* 출처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국가법령정보센터(2025.10.21.검색)

- E-7-Y 이후의 체류자격 취득 경로를 포함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의 전반적인 체류자격 및 변경가능한 경로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그에 앞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류자격을 설계하여 제공함.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에게는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에서 ‘단순노무를 하는 경우’를 적용하지 않음
- (법령)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2. 예외 기준」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국내에 입국한 동포 청년을 포함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군·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국내에 입국해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34세의 연령에 속하는 경우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신설)

\* 출처 :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2025.10.21.검색)

(4) 추진주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 및 체류관리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통합과

(5) 기대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인권존중과 더불어 인구감소 시대에 국내 성장이 주배경청년의 인적자원 활용
- 비자 발급 및 변경 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이주배경청년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고려

(6) 고려사항

- 체류자격 및 변경 가능한 경로에 대한 정보는 관련 부처 홈페이지나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동포체류지원센터, 외국인주민센터 등 다양한 이주민 관련 지원기관에 공지

## 추진전략 1-2. 성인기 한국어능력 강화

### 추진과제 1-2-1 이주배경청년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구축

#### (1) 현황 및 진단

-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등은 국적 취득 목적의 학습자 또는 결혼이민자 등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민을 위해 설계된 범용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주배경청년의 고급 한국어(학업·직무 중심)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년의 한국어 수준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대학 진학률, 취업률, 직업훈련 경험에 일반 한국 청년보다 낮고(국외 사례에서도 이주배경청년들의 대학 진학 희망률 및 실제 진학률이 낮음, 비정규직·저임금 비율 높음), 학업·취업 상황에서 한국어 부족이 핵심 장애요인으로 지적됨.
- 고졸 이후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려움.
- 인구 감소로 인한 외국인·이주배경인구 증가 추세(2042년 이주배경인구 404만 명, 총 인구의 8.1% 전망)로 장기적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역량 강화 정책이 필요함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고 좋은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li> <li>■ 진로는 학업과 언어 능력에 크게 좌우됨.</li> <li>■ 언어 장벽으로 학업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입시 정보 접근에의 한계 등을 경험함.</li> <li>■ 언어는 매우 중요한 자본임.</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주배경청년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됨.</li> <li>■ 한국어교육에 대한 희망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함.</li> <li>■ 이주배경청년 대상 한국어는 수요가 있고, 특히 중학교 이후 입국한 경우 요구도가 높음.</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기 한국어는 중급 이후 학문·직무·제도 목적 분화가 미흡하고, 아간·주말·온라인 등 유연 운영과 성과 인정 연계가 부족</li> <li>■ 성인기 한국어 '목적별 표준과정'(학문·직무·제도) 도입, 아간·주말·온라인 혼합 운영, 수료 성과의 학점·장학·채용 서류 연계 필요</li> </ul>                |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들은 입국 연령, 모국어 사용 환경, 학업 경험 등에 따라 한국어 숙련도에 큰 차이를 보이며, 단일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효과적인 교육이 어려움. 따라서 이주배경청년의 입국 시기, 교육 이력, 진로 목표에 따라 차별화된 수준별·목적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해야 함</li> <li>■ 초·중등 입국자 중에는 문해력(읽기·쓰기) 자체가 부족한 기초학력 미달 청년도 있어,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나 수업 방식으로는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일상한국어, 학습한국어, 취업한국어, 직업 및 전공별 한국어, 학문적 공식적 담화 등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함</li> <li>■ 진학 또는 취업 진로에 따라 요구되는 한국어 능력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진로수준에 맞는 맞춤형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미비함</li> <li>■ 고급 숙달도 이상, 직업별 직무 목적, 학문 목적 등 특수목적 언어교육 및 훈련자원이 미흡함.</li> </ul> |

### (3) 추진 내용

#### ① 대상

- 미성년 시기에 부모 동반으로 입국하여 성인 연령에 이른 자로 19세에서 34세의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
-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청년 중 고급 한국어를 원하는 자

#### ② 내용

- 이주배경청년(19~34세,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 포함)의 사회·학업·취업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수준별·목적별 한국어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온라인·대학·직업훈련기관 연계형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주 가능성과 자립 역량을 강화함.
  - 전체 프로그램을 한국어표준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함.
  -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체계는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성하고, 전문과정은 전공별 학술 한국어 과정과 기술 및 직업 한국어 과정으로 구성함.
  - 전공과정은 대학의 전공별 전문어휘, 보고서 작성, 프리제네이션 등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필요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함.
  - 기술 및 직업 한국어는 산업별 맞춤형 교육모듈을 구성하고, 병존언어교수법을 활용하여 기술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과정별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의 표에 제시함.

표 VI-2.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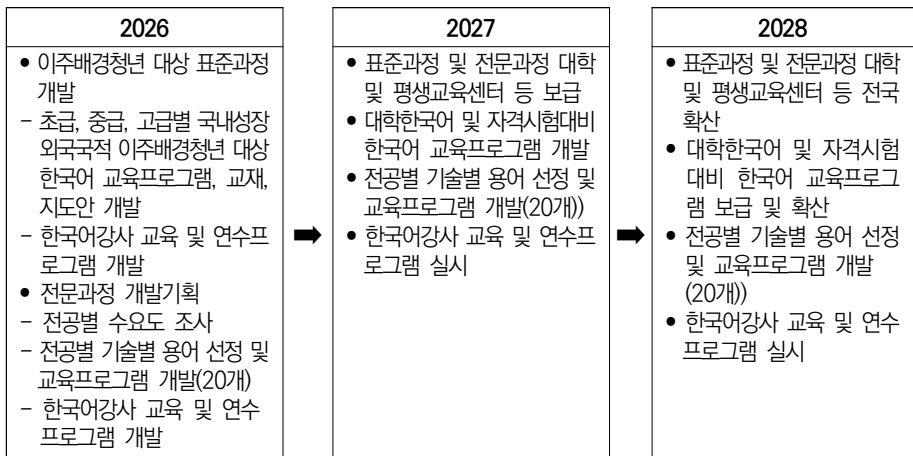
| 과정       |                | 프로그램 내용                                                                                                                     |
|----------|----------------|-----------------------------------------------------------------------------------------------------------------------------|
| 표준<br>과정 | 초급과정           | 정착 및 생활 적응을 위한 일상 한국어                                                                                                       |
|          | 중급과정           | 학교생활 및 직장 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
|          | 고급과정           | 대학 학업·자격시험 대비 한국어                                                                                                           |
| 전문<br>과정 | 전공과정           | 대학 전공별 전문 어휘,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등 고등교육 장면의 한국어                                                                                 |
|          | 기술 및 직업<br>한국어 | 산업별(제조·서비스·IT·뷰티·의료·관광 등) 맞춤형 교육 모듈 구성<br>병존언어교수법을 활용하여 직업 교육에 필요한 전문 한국어 교육<br>직장 적응을 위한 전문 어휘, 보고서작성, 프레젠테이션, 직무별 의사소통 훈련 |

- 기술 및 직업 한국어의 경우 전문대와 연계하여 각 전공별 기술 용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재학생들에게 적용함
- 예산은 연 100억 원 규모(중앙 50%, 지자체 30%, 대학·기업 20%)로 시범사업 운영 후 전국 확대함
- 위 각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개발 및 교육매뉴얼 개발

#### (4)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5) 추진 로드맵



## (6) 기대 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적응률·취업률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 한국어·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고용시장 경쟁력 확보 및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실현

## (7) 고려 사항

- 지원대상 선정 기준(예: 체류자격, 한국어 수준, 학업·취업 의사)을 명확히 함
- 교육과정 입문시 비용을 내고, 일정 수준(예: 80%) 이상 참여하면 되돌려 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임
-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교원 역량 강화(KSL 교사 전문교육)와 중복사업 조정 필요
- 학습자의 참여 지속성을 위해 재정지원(장학금·교통비·수당) 및 멘토링 인센티브 병행.

|            |                                     |
|------------|-------------------------------------|
| 추진과제 1-2-2 |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연계형 온라인 한국어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
|------------|-------------------------------------|

### (1) 현황 및 진단

-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청년 중 늦은 나이에 입국하거나 학교 교육 공백 및 지역 간 학습 환경 격차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성장한 경우, 일상한국어는 가능하나 대학교육수준이나 기술 및 직업 장면의 고급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교육에 대한 동기가 있으나 이주배경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과정은 찾기 어려움.
  -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의 경우 전일제 교육과정에는 참여하기 어려우며,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움
  - 이주배경청년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장소 제약 없는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기존 한국어교육 사업의 중복문제와 단기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생태계 조성 필요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능력이 우수할수록 사회적응력이 높고 좋은 직업을 얻을 가능성이 높음</li> <li>■ 진로는 학업과 언어 능력에 크게 좌우됨.</li> <li>■ 언어 장벽으로 학업에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입시 정보 접근에의 한계 등을 경험함.</li> <li>■ 언어는 매우 중요한 자본임.</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주배경청년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됨.</li> <li>■ 한국어교육에 대한 희망 수준이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함.</li> <li>■ 이주배경청년 대상 한국어는 수요가 있고, 특히 중학교 이후 입국한 경우 요구도가 높음.</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기 한국어는 중급 이후 학문·직무·제도 목적 분화가 미흡하고, 야간·주말·온라인 등 유연 운영과 성과 인정 연계가 부족</li> <li>■ 성인기 한국어 ‘목적별 표준과정’(학문·직무·제도) 도입, 야간·주말·온라인 혼합 운영, 수료 성과의 학점·장학·채용 서류 연계 필요</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나 다문화센터 중심의 한국어 교육은 일정 기간(예: 1년) 이내 수료 후 중단되며, 이후의 연속적 언어 교육 시스템이 부재함. 따라서 장기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해, 단기 과정 중심의 지원을 탈피한 연속성 있는 언어학습 지원 구조 마련이 시급함</li> <li>■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맞춤형 한국어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li> <li>■ 다국어 모바일 학습플랫폼 구축이 요구됨</li> </ul> |

## (3) 주요 내용

### ① 대상

- 미성년 시기에 부모 동반으로 입국하여 성인 연령에 이른 자로 19세에서 34세의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
-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청년 중 고급한국어를 원하는 자도 참여 가능함

### ② 내용

- 이주배경청년이 언제 어디서나 수준별·목적별 한국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플랫폼과 지역 기반 지원망(지역 거점 대학 활용)을 통합 운영
  - 기존의 온라인 교육체계(K-MOOC)를 활용하되, 지역 평생교육기관, 대학부설 어학원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교육모델을 도입하여 운영함.
- 지역 한국어 러닝허브 구축
  - 지역거점대학 중심으로 멘토링 및 대면 학습을 병행함
  - 온라인 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온라인 교육이 가지는 한계, 즉, 지속적 참여동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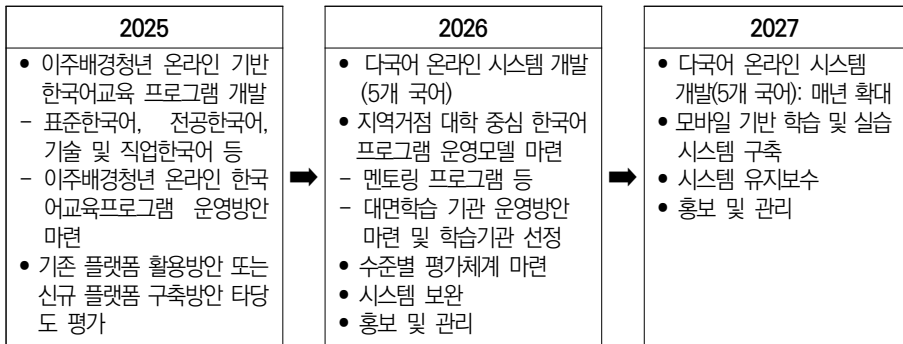
낮고 완료단계까지 충실히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이나 대학부설 어학원 또는 지역의 이주배경청년 지원기관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정기적 수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을 관리하고 관여도를 높일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다국어 지원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도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문해부터 직업·학술 한국어까지 다룰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하고, 모바일 기반 학습 및 실습을 지원함.
- 개인 맞춤형 학습경로를 설계하여 진단-학습단계추천-교육-튜터링으로 학습 지속성을 제고함.

#### (4)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 (5) 추진 로드맵



#### (6) 기대 효과

- 학습 격차 해소, 학업·직업·사회 적응 연계형 학습 지속성을 보장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함. 이를 통하여 이주배경청년의 진로 및 직업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통합에 기여함.
- 우선적으로는 이주배경청년을 타겟으로 하나 향후 지역 내 다양한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역량강화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음.



## 2. 자립역량강화

### 추진전략 2-1. 전문기술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

#### 추진과제 2-1-1 이주배경청년 대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

##### (1) 현황 및 진단

- 한국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이주 배경 청년들이 성인이 된 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필수적임. 이들은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언어 문제, 정보 부족, 비자 문제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단순 노무직이나 일용직으로의 유입, 혹은 불법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음
  - 대학에 갈 의지가 없는 경우 기술교육을 통한 취업이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줌으로써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필요 있음.
- 현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인력 확보 어려움은 더욱 가중.
  - 이주배경청년의 수와 추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이들은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 인력난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현재 이들이 국내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전환되거나 성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내국인 청년의 감소 속에서 이주배경청년을 활용한 대안적 인재 육성이 시급함
- 이주배경청소년들의 경우 고졸 이후 진로 미정자가 다수이며, 현행 직업훈련 시스템과 전문대학은 외국국적 청년 대상 접근 제한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음
  - 민간 훈련기관은 자부담 구조 탓에 접근 장벽이 존재함
  - 현장 수요기반, 중장기 기술 로드맵에 따른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함
  - 그 외 기타 기존 직업 교육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이 본인을 둘러싼 이주배경 환경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자아실현 중심의 진로 선택이 어려움</li> <li>■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li> <li>■ 외국출신 이주배경청년이 국내출생 청년의 경우보다 취업에 있어서 더 높은 장벽을 경험함</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li> <li>■ 이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역량을 개발시키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 있음.</li> <li>■ 향후 직업훈련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임.</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교육은 정보 창구가 분절되고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성이 불명확하여 탐색·신청·수료·채용 연계가 약함</li> <li>■ 기술교육 통합 안내창구 구축, 외국국적자 입학·이수 요건 명확화, 모듈형 과정+현장실습+채용 연계 표준 경로 설계, 시간·비용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필요</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 기회는 부족함</li> <li>■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언어·문화 장벽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접근성과 수강 지속률이 낮은 편임</li> <li>■ 현행 직업훈련은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나,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li> <li>■ 취업비자 획득이 가능한 경우에만 장기적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이 가능함.</li> <li>■ 단순한 기능 중심이 아닌, 직무 이해·실습·현장연계·경력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술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li> </ul> |

## (3) 추진 내용

### ① 대상

- 미성년 시기에 부모 동반으로 입국하여 성인 연령에 이른 19세에서 34세의 이주배경청년
- 국내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후 성인연령에 이른 19세에서 34세의 외국국적 이주배경청년

### ② 내용

- 수요자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 운영
  - 전국의 지역별 폴리텍대학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함.
  - 단기 진로탐색과정과 중장기 취업연계과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운영함

- 단기진로탐색과정의 경우 1~3개월의 모듈형으로 운영함. 특정지역이나 국가별 커뮤니티의 요구를 반영한 과정이나 진로탐색을 위한 기초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이주배경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중장기 전문기술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함. 모듈형 과정 이수 후에는 전문적인 기술과정이나 전문대학 학위과정으로의 진학을 유도하여 심화교육 및 취업을 지원함.
- 중장기 취업연계과정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전문적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과정 이수 후 바로 취업이 가능한 취업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을 필수교육으로 받도록 하고, 현장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수료 후에는 취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구성함.

표 VI-3. 수요자 맞춤형 직업 교육 과정(안)

| 과정                         | 내용                                                                                                                                                                                                                                                                      |
|----------------------------|-------------------------------------------------------------------------------------------------------------------------------------------------------------------------------------------------------------------------------------------------------------------------|
| 단기 진로 탐색 과정<br>(1~3개월 모듈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정 지역 혹은 국가별 커뮤니티의 요구를 반영한 과정 또는 진로 탐색을 위한 기초 기술교육을 제공함.</li> <li>• 이주 배경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중장기 전문기술 과정으로 연계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함.</li> <li>• 모듈형 과정 이수 후 전문적인 기술교육과정 혹은 전문대학(폴리텍대학) 학위과정으로 진학을 유도하여 심화 교육 및 취업을 지원</li> </ul> |
| 중장기 취업 연계 과정<br>(6개월 ~ 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 등을 기반으로 바로 취업이 가능한 취업 유망 직종 (예: 전기내선설비, 특수용접, 반도체설비보전, 기계, 에너지설비 등)을 중심으로 운영함.</li> <li>• 이 과정은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교육, 현장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수료 후 취업 연계를 목표로 함</li> </ul>                                                          |

- 1년 간의 정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경우 진입 및 적응단계, 직무기술 습득단계, 현장연계 단계로 크게 3단계의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음.
- 1단계는 진로 및 직업탐색과정으로 각 폴리텍대학별로 제공가능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진로 및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기술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이와 더불어 기본적인 생활기술로 IT나 금융, 노동법의 이해,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와 필요한 서류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함. 이때, 한국어가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문화이해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한국에서 일정 기간의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는 한국어 교육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따라서 초기부터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을 구분하여 반을 구성할 수 있음.

- 2단계로는 산업별 기술훈련을 실시하고 국가기술자격취득을 위한 지원을 하는 단계로, 기술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이때 한국어 역시 필요한 경우 교육을 함. 이 단계에서 기술과 관련된 전문용어의 활용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함.
- 3단계는 현장연계 단계로 각 기술별로 지역의 산업체와 연계하여 인턴십을 수행하도록 하고, 캡스톤 기반의 직무수행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산업현장에서 부딪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 이 단계에서 취업을 연계해주고 컨설팅을 하며 취업과 관련된 비자전환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

표 VI-4. 1년 직업교육과정 구성(안)

| 단계  | 교육유형     | 주요내용                                                                                                                                             | 교육기간  |
|-----|----------|--------------------------------------------------------------------------------------------------------------------------------------------------|-------|
| 1단계 | 진입-적응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진로 및 직업 탐색 생활기술(IT, 금융, 노동법 등), 체류자격 관련 정보</li> <li>• (일부) 한국어 집중교육, 문화이해교육</li> </ul>              | 2~3개월 |
| 2단계 | 직무기술 습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산업별 기술훈련(전기, 기계, 바이오, 뷰티, 스마트제조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 지원</li> <li>• (일부) 수준별 한국어 교육, 기술관련 전문 한국어</li> </ul> | 3~6개월 |
| 3단계 | 현장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기업 인턴십</li> <li>• 캡스톤 기반 직무수행 프로젝트</li> <li>• 취업연계 컨설팅 및 비자전환 안내</li> </ul>                           | 1~3개월 |

#### ○ 다양한 전문기술교육 훈련직종 개발 및 확대

- 기존의 제한된 직종에서 더 나아가 여성친화적 직종이나 최근 청년들의 관심과 취향을 반영한 직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많은 이주배경청년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각 직종별 확대방향과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음.

표 VI-5. 전문기술교육 훈련직종(안)

| 구분          | 확대 방향          | 세부 내용                              |
|-------------|----------------|------------------------------------|
| 서비스 직종      | 케어·뷰티·서비스 분야   | 간호조무사 기초,<br>미용(피부·네일), 제과제빵       |
| 신산업 기반 직종   | 스마트제조·AI·바이오   | 스마트팩토리 운영,<br>SI활용 품질관리, 바이오공정 기초  |
| 고수익 블루칼라 직종 | 기계·설비·건설 유망 기술 | 냉난방설비, 온돌배관,<br>특수용접, 전기공사         |
| 창업 연계 직종    | 자영업 기반 직무      | 푸드트럭 실습, 커피바리스타,<br>영상편집 유튜브 크리에이터 |

○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강화

- 수준별 한국어 교육 분반 운영: 입학 전 한국어 능력 평가를 통해 수준별 반을 편성하고, 기술 직종에 필요한 전문 용어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 이중언어 능통 전문 인력 배치: 교육생의 한국어 이해 부족 및 유대감 형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중언어에 능통한 이주배경청년을 교육지원 장학생(조교)으로 활용하며, 이주배경과정 공통 상담/번역 센터 운영을 검토함
-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정책과제(추진전략 1-2의 성인기 한국어능력 강화에서 제시한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함. 즉, 지역대학 및 지자체의 평생학습시설을 활용하여 한국어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온라인 한국어 강좌 등 교육 콘텐츠 보급을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함.
- 한국어 교육을 기술교육을 위한 “필수(의무) 교육”으로 지정하여 직업교육 쇼핑을 방지하고 참여자의 의무와 역할을 강화함

○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 강화

- 지자체 중심으로 유관기관 업무협약: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글로벌 네트워크 및 협단체, 고등학교 등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교육대상자 확보 및 연계를 강화함
- 지역사회 밀착 홍보: 지역 내 아시아마트, 세계요리 전문점 등 외국인 방문이 잦은 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다문화 및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등학교 방문 등을 통해 직접적인 모집 활동을 진행

- 취업 박람회 및 설명회 개최: 지역대학 및 지역고용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과 연계한 채용설명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주배경 청년 전문기술과정을 홍보하고, 기업-수료생 간 오프라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취업률을 제고함
- 취업 연계 및 사후 관리
  - 취업 후 관리 및 모니터링: 교육 수료생에 대한 취업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들의 직업 생활 안정을 돕고, 경력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일학습병행 훈련 도입: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 훈련을 신설하여, 이론 교육과 현장 훈련을 병행하고 훈련 종료 후 E-7 비자로 전환을 지원함
- 이주배경청년 특성별 경력 경로 지원
  - 이주배경청년의 다양한 진로 상태와 준비 수준을 고려하여, 진로 미결정자, 진로 결정자(기술 기반 진입 희망자), 그리고 진로준비를 완료한 고숙련 진입 희망자로 구분하여 맞춤형 경력 경로 지원이 필요함
  - 첫째, 진로 미결정자에게는 단기 ‘니즈 맞춤형’ 모듈형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수요기반의 탄력적 교육훈련을 통해 직업세계 탐색과 진로 설계를 유도. 특히, 2~3개월 단위의 모듈형 탐색과정을 통해 장기과정으로의 진입을 유도
  - 둘째, 진로가 명확하고 기술기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는 자격기반 중장기 전문기술 훈련과정을 제공함. 이 과정은 약 6~9개월 간 진행되며, 직무 중심 기술훈련과 함께 한국어·문화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짐(한국어가 부족한 경우). 주요 연계기관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전문대학, 민간훈련센터 등이 해당하며, 자격 취득 및 현장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체계임
  - 셋째,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 및 기술역량을 보유한 진로결정자는 학위 연계형 경로를 통해 고숙련직으로 진입할 수 있음. 이들에게는 진학과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경로를 제시함. 직업기술교육 이후 전문대학·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졸업 후 한국에서 전문기술인력으로 체류와 취업이 가능한 진로경로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산업 고숙련 이주인재의 지속적 활용이 가능함.

표 VI-6. 이주배경청년 경력 경로 지원과정(안)

| 대상                      | 과정지원                  | 내용                                                                                                                                           |
|-------------------------|-----------------------|----------------------------------------------------------------------------------------------------------------------------------------------|
| 진로 미결정자                 | 단기 '니즈 맞춤형' 모듈 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 기반 탄력적 교육훈련 과정 설계</li> <li>• 모듈형 2~3개월 체험 중심 프로그램</li> <li>• 진로 탐색 후 장기과정 진입 유도</li> </ul>       |
| 진로 결정자<br>기술기반 취업<br>희망 | 자격기반 중장기<br>전문기술 양성과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개월 직무 교육 + 한국어·문화교육 통합</li> <li>• 분야별 자격 취득 연계</li> <li>• 연계기관: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공공직업훈련기관</li> </ul> |
| 진로결정자<br>학위자격기반<br>취업희망 | 학위 연계형<br>경로 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기술교육 후 전문대·폴리텍 진학 유도</li> <li>• 전문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전문기술자로 안착할 수 있는 경로 제공</li> </ul>                  |

#### (4) 추진주체 및 역할

- 지자체-중소기업-유관기관 연계 방안은 중앙정부, 지자체, 중소기업, 유관기관, 고용센터 및 대학 등 다층적 주체의 협력을 통해 실행
- 중앙정부는 비자 제도 검토 및 체류자격 관련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지자체는 교통·숙박·유휴공간 지원 등 정책지원과 입학지원 확보를 담당
- 유관기관은 학교 및 다문화 커뮤니티를 통한 모집과 진로상담, 중도탈락 예방 지원에 집중하며, 대학(폴리텍·전문대)은 교육과정 개발과 학점연계, 자격연계 및 진로연계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주체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 중소기업은 산업 현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직종 제안, 인턴 운영, 채용 연계 MOU 체결 등 현장 중심의 참여를 수행하고, 지역 상공회의소와 고용센터는 공동 채용박람회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표 VI-7. 이주배경청년 직업교육과정 추진주체별 역할과 내용

| 참여주체             | 역할             | 내용                                                                                                                                                |
|------------------|----------------|---------------------------------------------------------------------------------------------------------------------------------------------------|
| 중앙정부             | 비자 등 제도기반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자제도 검토</li> <li>• 체류자격 관련 행정지원</li> </ul>                                                               |
| 지자체              | 정책지원 및 입학자원 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지원 (버스광고, 축제부스 등)</li> <li>• 유희공간 제공, 기숙사 유지</li> <li>• 교육 수당 보조(예산지원)</li> </ul>                      |
| 유관기관             | 모집 및 적응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센터·고등학교·다문화 커뮤니티</li> <li>• 홍보, 입학설명회, 통역지원</li> <li>• 상담 및 중도탈락 예방 지원</li> </ul>                      |
| 대학(폴리텍·전문대)      | 운영 주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 개발, 자격 연계</li> <li>• 한국어 수준별 분반 운영</li> <li>• 기술교육 운영, 자격연계, 학점인정</li> <li>• 진로연계 시스템 구축</li> </ul> |
| 중소기업             | 수요제공 및 현장실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요기반 직종 제안</li> <li>• 현장실습 및 인턴 운영</li> <li>• 고용 연계 MOU 체결</li> </ul>                                    |
| 지역 상공회의소<br>고용센터 | 취업 연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채용박람회 운영</li> </ul>                                                                                   |

##### (5) 추진 로드맵

-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기술교육 내실화 방안은 크게 5개 단계(기획-시범-제도화-확산-정착)를 거쳐 전국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음
- 1단계(시범 기획)에서는 시범지역 선정과 수요조사, 직종 설계 및 법제도 분석.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청년의 전국 분포 통계가 우선되어야 함.
- 2단계(시범 운영)에서는 통합교육과정(한국어-기술-현장실습)의 실험적 운영과 기업 인턴십 연계를 추진
- 3단계(제도 기반 구축)에서는 이주배경 거주자의 직업훈련 참여자격 확대(D-2, F-4, F-5 등) 및 비자 전환 요건 완화, 훈련수당 제도화, 학점연계 제도 마련
- 4단계(권역 확산)에서는 권역별 전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지자체-학교-기업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 운영함
- 마지막 5단계(전국 정착)에서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교육-고용-추적 관리까지 연계하고, 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함



표 VI-8. 이주배경청년 직업교육방안 추진 로드맵

| 연도   | 단계                 | 주요 목표                                                                                   | 핵심 추진 과제                                                                                                                                                             | 실행 주체                                                                                                       |
|------|--------------------|-----------------------------------------------------------------------------------------|----------------------------------------------------------------------------------------------------------------------------------------------------------------------|-------------------------------------------------------------------------------------------------------------|
| 2026 | 1단계<br>시범 기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모델 설계</li> <li>시범지역 선정</li> </u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범지역(3~5곳) 선정</li> <li>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수요조사)</li> <li>중점 직종 및 과정 설계</li> <li>법·제도 현황 분석</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노동부</li> <li>교육부</li> <li>폴리텍대학</li> <li>지역 지자체</li> </ul>         |
| 2027 | 2단계<br>시범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훈련 시범운영</li> <li>과정별 개선점 도출</li> </u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청년 통합 기술교육 운영 (한국어-기술-현장실습)</li> <li>취업연계형 모델 실험</li> <li>기업 인턴십 협약체결</li> <li>커뮤니티 기반 지원 구축</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리텍대학 (거점 캠퍼스)</li> <li>전문대학</li> <li>중소기업</li> <li>이주민단체</li> </ul> |
| 2028 | 3단계<br>제도<br>기반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제도 정비</li> <li>예산항목 신설</li> </u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업훈련 참여 자격 확대(비자개선 등)</li> <li>비자 전환 요건 완화 (E-7, F-2-R 등)</li> <li>훈련수당 및 인센티브 예산 반영</li> <li>직업계고·전문대와 학점연계 체계 구축</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회</li> <li>법무부</li> <li>교육부</li> <li>고용노동부</li> </ul>               |
| 2029 | 4단계<br>권역별<br>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전담 교육기관 지정</li> <li>지역 연계 인프라 강화</li> </u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참여대학 확대</li> <li>지역 중소기업 매칭 강화</li> <li>지자체-학교-기업 간 MOU 체결</li> <li>교육과정의 직종 다변화(IT, 바이오, 뷰티 등)</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역별 전문대학 (폴리텍)</li> <li>지자체</li> <li>상·중·소기업</li> </ul>              |
| 2030 | 5단계<br>전국<br>정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표준 모델 정착</li> <li>지속가능한 통합 운영체계 구축</li> </u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 플랫폼 운영(신청-교육-고용 연계)</li> <li>졸업생 추적 관리 및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li> <li>지역 인구소멸 대응과 연계한 지속가능성 강화</li> </o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청년정책연구원</li> <li>지역 고용센터</li> <li>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ul>             |

#### (6) 기대 효과

##### ○ 이주 배경 청년의 성공적 자립 및 사회통합 증진

- 이주 배경 청년들에게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업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취업 경로를 확보하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함
- 교육과정을 통한 한국사회 적응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이들의 고립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을 가속화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고용률 제고에 기여함

##### ○ 지역 및 국가 인적 자원 역량 강화

- 지역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청년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 지자체-기업-대학 간의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정착시켜 지역 산업의 활성화와 인구감소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는 국가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주 배경 청년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이들을 지역의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인적 자원 기반을 마련
- 미래 사회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 사회통합 및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마련
- 지역 산업의 수요와 이주 배경 청년의 자립 경로를 효과적으로 매칭함으로써,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7) 고려사항

- 외국국적자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 가능한 비자 확보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 한국어 능통자와 아닌 청년을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 있음.

|            |                          |
|------------|--------------------------|
| 추진과제 2-1-2 | 이주배경청소년 거점형 직업교육 고등학교 설립 |
|------------|--------------------------|

#### (1) 현황 및 진단

- 학교교육은 종합교육 시스템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사회 정착 제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주배경 청소년 중 고등학교 교육을 전담하는 학교들이 추가로 설립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가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특히 기숙형 학교로서의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충북 제천)는 기술교육을 통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회진출에 역할을 하며 정착해 왔음. 그러나 전국에 2곳 밖에 없기에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택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됨.
- 지역별 거점형태로 수도권(경기 안산) 및 경남권(부산)에 기숙형 직업교육 고등학교(대안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다양한 전공에 대한 교육적 니즈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기에 진입하기 전 단계인 고등학교 단계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술교육을 정규학교에서 받음으로써 직업역량을 갖춘 이주배경청년을 양성하고 졸업 후 사회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함.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이 본인을 둘러싼 이주배경 환경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나 심리적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진로 선택에 있어 자아실현 중심의 선택이 어려움</li> <li>■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li> <li>■ 외국출신 이주배경청년 청년이 국내출생 청년의 경우보다 취업에 있어서 더 높은 장벽을 경험함</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원하는 공부'와 '원하는 직업'임. 이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한국사회 인적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li> <li>■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망이 높음.</li> <li>■ 현재 하고 있는 일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이는 이들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진로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역량을 개발시키고 인적자원으로 활용함</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중 상당수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나, 실질적인 직무역량을 갖추 수 있는 직업기술 교육 기회가 매우 부족함</li> <li>■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내국인 청년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언어·문화 장벽이 있는 이주배경청년에게는 접근성과 수강 지속률이 낮은 편임</li> <li>■ 현행 직업훈련은 고용센터 또는 직업훈련기관 중심으로 제공되나, 이주배경청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임</li> </ul> |

## (3) 주요 내용

### ① 대상

- 국내외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또는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만 22세 이하의 이주배경 청소년(3학년이 되었을 때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는 청소년)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자녀, 재외동포·영주권자·난민인정자녀

### ② 내용

- 수도권, 중부권, 경남권, 호남권에 이주배경 청소년 직업교육 고등학교(각종 대안학교) 운영
-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교육청에서 전담

○ 최종적인 거점별 고등학교(각종 대안학교) 운영 체제 예상(안)

| 거점(지역) |          | 직업교육              | 운영                  | 비고                             |
|--------|----------|-------------------|---------------------|--------------------------------|
| 수도권    | 서울       | 서비스 계열<br>(2개 학과) | 비기숙형 학교<br>(서울교육청)  | 서울다솜관광<br>고등학교 운영 중            |
|        | 경기<br>안산 | 기술 계열<br>(3개 학과)  | 기숙형 학교<br>(한국폴리텍대학) | 추가 개교 필요                       |
| 중부권    | 충북<br>제천 | 기술 계열<br>(3개 학과)  | 기숙형 학교<br>(한국폴리텍대학) | 한국폴리텍다솜<br>고등학교 운영 중           |
| 경남권    | 부산       | 기술 계열<br>(3개 학과)  | 기숙형 학교<br>(한국폴리텍대학) | 추가 개교 필요                       |
| 호남권    | 전남<br>강진 | 기술 계열<br>(3개 학과)  | 기숙형 학교<br>(전남교육청)   | 전남미래국제<br>고등학교 개교 예정<br>(2026) |

○ 거점형 고등학교(각종 대안학교) 세부 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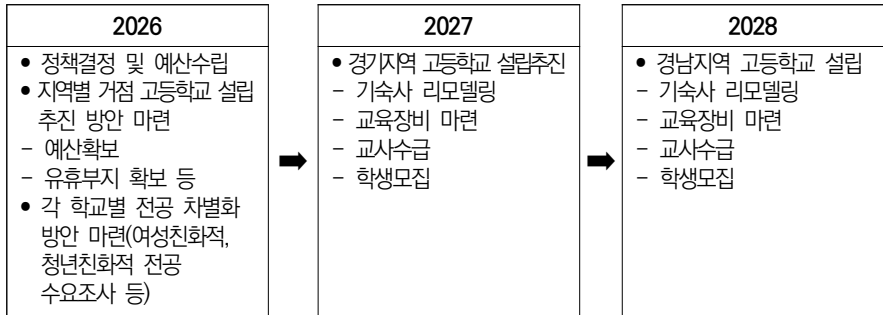
| 거점(지역) | 학과                                  | 세부 규모            | 총원   |
|--------|-------------------------------------|------------------|------|
| 경기 안산  | 기술계열 3개 학과<br>(세부학과 결정 별도<br>TFT운영) | 3개 학과*15명씩*3개 학년 | 135명 |
| 부산     |                                     | 3개 학과*15명씩*3개 학년 | 135명 |

(4) 추진부처 및 역할

○ (조직)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지자체, 교육청, 한국폴리텍대학 협의 필요

| 조직              | 추진 사항                       | 비고                 |
|-----------------|-----------------------------|--------------------|
| 고용노동부           | 정책결정 및 예산수립<br>한국폴리텍대학 협의   |                    |
| 기획재정부           | 정책결정 및 예산확보 지원              |                    |
| 지자체,<br>교육(지원)청 | 학교 유휴 부지 확보 지원<br>학교 인허가 지원 | 경기도, 안산시,<br>부산광역시 |
| 한국폴리텍대학         | 학교 설립 결정 및 운영 주관            |                    |

### (5) 추진로드맵



### (6) 기대 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한 사전단계의 교육으로서 효과적임
-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교육적 수요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음
- 한국어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한국사회적응 교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음
- 인구감소 시대에 부족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음

### (7) 고려 사항

-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E-7-Y 비자(이주배경청년 합법적 체류 비자) 및 F-2-R 비자(인구감소지역 지역특화형 비자) 등에 대한 비자 조건 완화 고려
- 역차별, 분리교육이라는 비판적 의식보다는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 학교로서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2-2. 고등교육 내실화

### 추진과제 2-2-1 다문화친화적 캠퍼스 환경조성

#### (1) 현황 및 진단

- 일부 이주배경청년은 일반 4년제 대학에 진학하나, 언어·학업·문화적 적응 문제로 학업 지속과 졸업, 진로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제도는 존재하나, 이주배경청년은 그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문화적 배경·체류 자격·언어 수준 등에서 유학생과 다른 지원이 요구됨.
- 한국 사회의 대학은 여전히 다문화적 감수성, 민감성이 부족하고, 이들을 위한 별도 학업지원·상담 체계가 부재하며, 기존의 외국인 지원센터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음
-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교수자의 재교육, 튜터링·라이팅센터, AI 학습도구, 다문화친화적 포용성(inclusive) 있는 오리엔테이션 필요
- 이주배경청년이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업 성취와 진로 설계를 이루도록, 대학 내에 문화·학업·생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 있음
-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들도 포함 가능함.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지지망을 넓혀주고 인정받고 수용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li> <li>■ 언어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적 시선이나 부당한 대우는 사회적 위축의 원인이 됨.</li> </ul>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의 대학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으나 학업만족도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다소 낮음</li> <li>■ 현재 학교를 다니는 주된 이유는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47.1%)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47.1%)임.</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전공 문해·보고서·발표 훈련 정례화, 팀프로젝트 매칭·또래 멘토링·학습지원 포털 및 1:1 상담 상시화, 장학·대출 접근 기준 정비 필요</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중 다수가 체류자격 문제, 언어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임. 대학 입시제도로 전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중도입국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이</li> </ul>                                     |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 <p>짧은 청년은 입시 준비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 전형이나 학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주배경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재학 중 체류자격 유지와 등록금·생활비 마련의 이중 부담으로 인해 중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음</li> <li>■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대학 진학 정보제공 체계(입시설명회, 진학컨설팅 등)”를 교육청·지자체·민간 연계로 운영하고, 한국어가 부족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습한국어 및 교과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li> </ul> |

### (3) 추진내용

#### ① 대상

-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대학생
- 외국인 유학생
- 각 대학교 내 교직원, 교수, 일반 학생

#### ② 내용

- 친(親) 다문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캠퍼스 역량강화
  - 입학단계의 초기적응지원부터 학습지원, 생활적응지원 및 교수자 및 교직원 다문화 역량강화까지 전체를 대학교 과정으로 구성하고 성공적 학습과 졸업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활용함.
  - 입학단계 초기적응에서는 대학생활에 대하여 알려주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서와 지원 요청 방법 등을 안내하며, 버디 매칭을 통하여 한국대학생과 이주배경학생 또는 유학생을 연결하여 학습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대학별로 입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다문화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교 전체가 다문화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생활적응지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과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학생생활상담실을 운영하여 기숙사나 행정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졸업후 취업관련 체류자격에 대한 전반적 안내, 지역사회 이주민 지원기관 안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수자 및 교직원 다문화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 표준과정(안)을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고, 각 대학별로 교수나 교직원 대상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이해, 다문화수용성, 문화적 민감성, 인권과 차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역량을 강화함.

표 VI-9. 다문화친화적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 운영(안)

| 영역        | 주요 내용                                                                                                                                                                                                                       |
|-----------|-----------------------------------------------------------------------------------------------------------------------------------------------------------------------------------------------------------------------------|
| 입학 단계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용 기반(다문화, 인권 등)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운영</li> <li>• 학생 Peer 버디 매칭 프로그램 운영</li> </ul>                                                                                                        |
| 생활 적응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과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학생생활 상담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행정 등 맞춤형 안내</li> <li>- 심리상담</li> <li>- 지역사회 이주민 자원기관 안내 및 연계</li> </ul> </li> </ul> |
| 교수자 역량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교직원 대상 “문화적 민감성(Cultural Sensitivity)” 연수 실시</li> <li>• 교내 교수법 센터와 연계</li> </ul>                                                                                                 |

○ 지표 기반 평가체계 도입

- 다문화 프렌들리 캠퍼스 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하여 책무성을 강화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국 단위의 다문화 프렌들리 캠퍼스 지표를 개발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고

(4) 추진부처 및 역할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이고, 각 역할은 아래와 같음.

표 VI-10. 다문화친화적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운영의 부처별 역할

| 부처/기구   | 역할                    |
|---------|-----------------------|
| 교육부     | 대학 지원정책 설계, 운영 지침 마련  |
| 지방시대위원회 | 시범대학 재정지원, 광역 비자 연계   |
|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기 연계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연결 |
| 고용노동부   | 일학습병행, 취업연계 프로그램 통합   |



### (5) 추진로드맵

○ 다문화친화적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 운영(안)의 연차별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음.

| 2026                                                                                                                                                                                                        | 2027                                                                                                                                                                                               | 2028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별 1개 내외 시범 대학 지정 (총 5~10개 대학)</li> <li>• 다문화 프렌들리 캠퍼스 지표개발</li> <li>• 이주배경 및 유학생 지원센터 설치 준비</li> <li>• 교직원 및 교수 대상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민감성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대학 확대 (전국 총 50개 대학)</li> <li>• 다문화프렌들리 캠퍼스 관련 성과 기반 운영 표준화 작업</li> <li>• 이주배경 및 유학생 지원센터 설치</li> <li>• 교직원 및 교수 대상 다문화수용성 및 문화적 민감성 관련 교육 실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지역 대학으로 확산</li> <li>• 캠퍼스 다양성지수 등 관련 지표 대학 정보공시 연계 추진</li> </ul> |

### (6) 기대 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대학 내 학업 지속률 및 졸업률 향상
- 대학의 문화적 포용성 증진 및 다양성 경쟁력 확보
- 향후 이주배경청년을 통한 지역 인재 확보 및 정주 기반 조성
- 외국인 유학생 중심 정책과 더불어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 인적자원 양성 정책의 병행을 통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정책 효과 극대화

## 추진과제 2-2-2 이주배경 대학생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1) 현황 및 진단

- 이주배경학생들의 경우 국외출생 후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한 외국국적자의 경우 외국인 전형으로 자기 수준보다 높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나 대학에 진학해도 여전히 전공공부, 영어, 컴퓨터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학습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음
- 이주배경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 팀별 발표 등에서 소외되고

- 유학생비자(D-2)를 가지고 있는 경우 휴학을 하면 체류자격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휴학을 하지 못함.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등록이나 생활비 마련의 부담으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중도탈락하는 사례가 많음.
- 졸업 후 체류의 불안정으로 향후 진로에 대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 장기적인 진로를 설계하기 어려움.
-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년이 대학 과정을 충실히 완수하여 졸업하고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이주배경청년들이 대학 내에서 학습,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있음.
- 최근 증가하는 지역대학의 외국인유학생들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음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선행연구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진학과정에서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여 충분하지 않은 입시정보 진입장벽을 경험함</li> <li>■ 대학을 진학한다 해도 한국 학생과의 경쟁이 쉽지 않은 점과 자기계발에서 뒤처짐</li> <li>■ 이주배경청년은 학습에 관심은 있지만 시간이나 경제적인 제약, 정보 부족 등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li> <li>■ 일부는 이주배경이라는 조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학습 동기에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인 언어 장벽이나 경제적·시간적 제약이 장애로 작용함.</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 단계에서 과제·보고서·발표·팀과제·장학·대출·학습지원의 구조적 공백이 초기 성취와 진로 전환을 지연하는 결과를 보임.</li> <li>■ 대학 내 학문 목적 한국어·전공 문해·보고서·발표 훈련 정례화, 팀프로젝트 매칭·포레 멘토링·학습지원 포털 및 1:1 상담 상시화, 장학·대출 접근 기준 정비 필요</li> <li>■ 졸업 전후 '구직·비자·채용' 표준 시스템(상담·서류·모의면접·전환 절차) 도입, 실습의 경력 인증(직무기술·산출물·평정)과 전환 면접 내재화 필요</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청년 중 다수가 체류자격 문제, 언어장벽, 정보 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 진학 자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에 놓임</li> <li>■ 대학 입시제도나 전형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중도입국자 또는 고등학교 재학기간이 짧은 청년은 입시 준비의 기회조차 갖기 어려움</li> <li>■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별도 전형이나 학업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li> </ul>                                                |

### (3) 추진내용

#### ① 대상

- 미성년 시기에 부모동반으로 입국하였거나 국내에서 출생한 이주배경대학생
- 외국인 유학생도 활용가능함.

#### ② 내용

- 이주배경대학생 학습, 진로 및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각 대학별로 이주배경대학생의 학습 및 진로를 지원하는 「이주배경학생 학습·진로 및 취업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여 학업지원과 진로지원을 수행함.
  - 학업지원 영역에서는 튜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공과목별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고학년 학생이나 석박사 과정생과 1:1 매칭을 하여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학술 작문이나 레포트 작성, 발표연습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습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별로 AI기반의 도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이와 함께 GPT 기반의 자가학습도구를 마련하여 기초과목(수학, 영어, 컴퓨터 등)의 학습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진로지원 영역에서는 이주배경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고, 체류자격별 취업가능직종 안내, 졸업 후 가능한 취업처를 연계할 수 있음. 지자체별로 사업체와 연계하여 사전에 MOU를 체결하고, 필요한 이주배경학생 인력에 대한 수요를 미리 조사하여 교육하고 인턴십과 현장체험을 거친 후 취업으로 연계함. 취업 후에는 관리 및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취업 후 적응도를 평가하고 사업체에서 피드백을 받음. 이 과정은 맨 마지막 과제인 「지역별 인력수요 기반 맞춤형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더 자세히 다룸.

표 VI-11. 이주배경대학생 학습, 진로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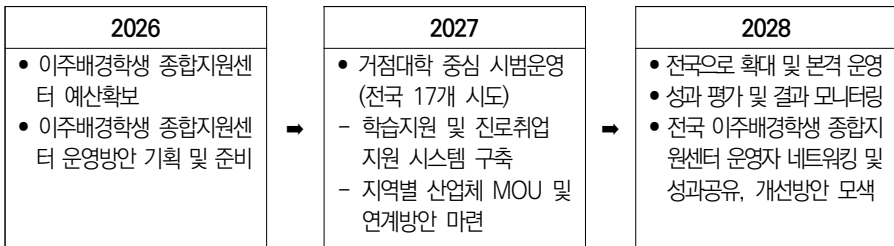
| 영역        | 내용                                                                                                                                                                                                                                                                                                                                                                                                                                 |
|-----------|------------------------------------------------------------------------------------------------------------------------------------------------------------------------------------------------------------------------------------------------------------------------------------------------------------------------------------------------------------------------------------------------------------------------------------|
| 학습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튜터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 과목별 학습 멘토링(석·박사 과정생과 1:1 매칭)</li> </ul> </li> <li>• 라이팅센터(writing center)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 작문, 레포트 작성, 발표 연습 등 지원</li> <li>- 대학별 AI 기반 도구 병행</li> </ul> </li> <li>• 디지털 학습도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PT 기반 자가 학습 도구 도입</li> <li>- 수학·영어·컴퓨터 등 주요 기초과목 학습 보조</li> </ul> </li> </ul> |
| 진로 및 취업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대학생 대상 진로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진로교육</li> <li>- 체류자격별 취업가능직종 안내, 졸업 후 체류자격 변경안내</li> </ul> </li> <li>• 취업처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별 취업연계: 지자체별 사업체와 사전에 MOU를 맺고, 필요한 이주배경학생 인력을 교육하여 인턴십, 현장체험 후 취업으로 연계함.</li> <li>- 취업 후 관리 및 모니터링</li> </ul> </li> </ul>                                                                            |

#### (4) 추진부처 및 역할

- 본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교육부와 지자체로 교육부는 대학 내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학습

| 부처/기구 | 역할                            |
|-------|-------------------------------|
| 교육부   | 대학 내 이주배경학생 종합지원센터 관련 예산배정    |
| 지자체   | 지역 내 산업체와 대학간 연계 작업           |
| 대학교   | 이주배경학생 종합지원센터 운영기획(안) 마련 및 추진 |

#### (5) 추진 로드맵



#### (6) 기대효과

- 이주배경대학생의 학습역량을 제고하고, 진로 및 취업역량을 함께 제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진출을 도모함.

#### (7) 고려사항

- 이주배경청년의 취업 및 체류를 위한 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파악 및 체류자격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함.
- 이주배경청년 뿐 아니라 유학생 대상 사업을 함께 추진할 수 있음.
- 지역별 산업체와 연계할 경우 지역소멸의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 3.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기반 마련

#### 추진전략 3-1. 지역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추진과제 3-1-1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자원체계 구축

###### (1) 현황 및 진단

-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국내성장기반 청소년의 취업, 정주허용 E-7-Y, D-10, 지역형 비자인 F-2-R의 확대 등 외국인가정의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착과 자립,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법과 지원정책은 미비함.
- 지역특화형비자의 활성화로 이주민밀집지역 이주민들의 국내이동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지역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체계가 없어 지원의 연속성이 사라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청년기로 접어든 이주배경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서비스 파이프라인이 없는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산업자원부-성평등가족부-법무부’ 등 범부처 위원회 마련과 함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응체계를 만들며, 이주배경청년의 사회진출과 자립지원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국내 법적 제도적 기반 역시 미비하나 성년의 나이에 접어든 이주배경청년들은 그보다도 열악한 환경으로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교육·자립·복지 관련 정책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국내에서 아동기 및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까지 성장한 경우의 대부분은 향후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착하여 정주할 여지가 높아 이들의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지원 정책 모색이 시급함
- 현재 이주배경청소년센터는 지자체조례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도 3곳(안산, 수원, 화성), 서울 1곳(영등포구)이 있음. 2024년 12월에 경기도조례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광역형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하도록 입법되었으나 후속 조치가 없는 상태임.

- 국무조정실에서 발의·제정한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정의를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한 만큼 이주배경청년 역시 국내 다른 청년들과 동일하게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 OECD에서는 어떤 국가의 전체 인구 대비 이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이면 그 사회를 ‘다문화사회’, ‘다인종 국가’로 명명. 따라서 광역 및 지자체 인구의 5% 이상으로 다문화 지역사회를 이루는 경우 지역차원의 대응 전략이 필요함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과정에서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경험은 대다수가 없고, 이용한 경우는 한국어교육을 이용함.</li> <li>■ 이주배경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에 대한 찬성도가 높음</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단위 전담 창구 부재, 현황 파악·사례관리 미흡, 기관 간 연계 부족으로 동일 설명·서류 반복 등 비효율이 상시화</li> <li>■ 시군구 전담 창구와 지역 허브기관 설치, 현황조사·자원지도 상시 업데이트, 학교·지자체·외국인지원기관·청년센터 ‘공동 창구’ 운영 필요</li> <li>■ 찾아가는 연계와 일정/서류 알림의 통합 운용, 취약 구간(미등록·심사 대기·전환 준비)별 별도 관리 트랙 도입 필요</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대부분의 정책이 ‘청소년-청년-성인’ 또는 ‘외국인-다문화가족’으로 이원화되어 중간에 위치한 이주배경청년은 제도 밖에 방치됨</li> <li>■ 현재 이주배경청년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단위 정책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다문화가족 지원에 한정되거나 청소년기 이후 연령층은 제도 밖에 머무름</li> <li>■ 지역의 청년정책, 이주민 정책, 교육정책 등은 분절적으로 존재하나, 이주배경청년이라는 교차 정체성을 고려한 통합적 정책설계는 부족함</li> <li>■ 지역마다 이주배경청년의 규모, 국적, 유입 경로, 체류자격 분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의 일률적 접근으로 인해 지역실정에 맞는 대응이 어려움</li> <li>■ 지자체에 이주배경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필요 있음.</li> <li>■ 교육청, 고용센터, 복지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지역 통합지원센터 또는 조정기구 설치를 통해 분절된 지원체계를 조정해야 함</li> <li>■ 이주배경청년 당사자 참여 기반의 정책자문단, 청년포럼, 거버넌스 조직을 구축하여, 현장 기반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li> <li>■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및 강화(지자체, 지역 경제단체, 이주민 지원단체, 종교단체 등)</li> </ul> |

### (3) 추진 내용

#### ① 대상

- 국내에서 출생 또는 미성년 시기에 입국하여 청년 연령에 이른 자로 19세에서 34세의 외국국적자 또는 무국적자 청년
- 국적과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배경청소년 누구나

#### ② 내용

- 이주배경 청소년·청년 원스톱(one-stop)지원체계 (가칭)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 설치
  - 이주배경청년만을 위한 별도의 센터보다는 현재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에 청년 업무를 하는 조직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모델
  - ‘중앙 이주배경청소년·청년센터’를 국무조정실 또는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설치
  - 전국 17개 시도는 거점센터로 하고 시도지역 거점센터 하에 시군구 단위의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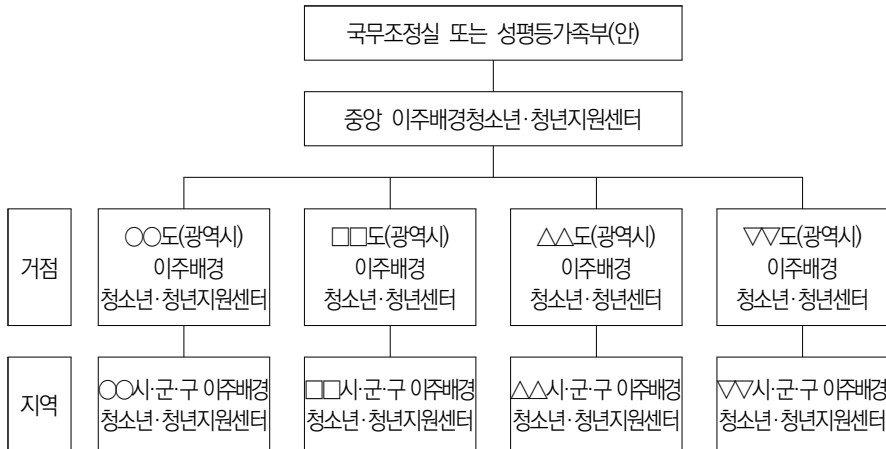


그림 VI-2.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 조직 모형



- 중앙센터와 거점센터 및 지역센터의 역할은 아래와 같음.

표 VI-12.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의 조직 및 역할

| 조직   | 역할                                                                                                                                                                                                   |
|------|------------------------------------------------------------------------------------------------------------------------------------------------------------------------------------------------------|
| 중앙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청소년·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총괄</li> <li>중앙단위의 사업기획, 실태조사, 운영매뉴얼 개발 및 제공, 컨설팅, 모델개발</li> <li>거점 및 지역센터 관리</li> <li>이주배경청소년·청년에 대한 이해교육 연수과정 개발 및 제공</li> </ul> |
| 거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청소년·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별 원스톱서비스 총괄</li> <li>지역별 실무자 교육 및 연수</li> <li>이주배경청소년·청년 사업</li> </ul>                                                                 |
| 지역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배경청소년·청년 사업(자립지원, 교육사업, 복지사업, 문화교류사업 등)</li> <li>지역연계 협력사업 수행</li> </ul>                                                                                    |

- 시군구 지역의 지역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는 아래의 [그림VI-3]과 같이 자립지원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문화교류사업 등을 수행하며 각 사업별 구체적 지원의 내용은 아래의 [그림 VI-3]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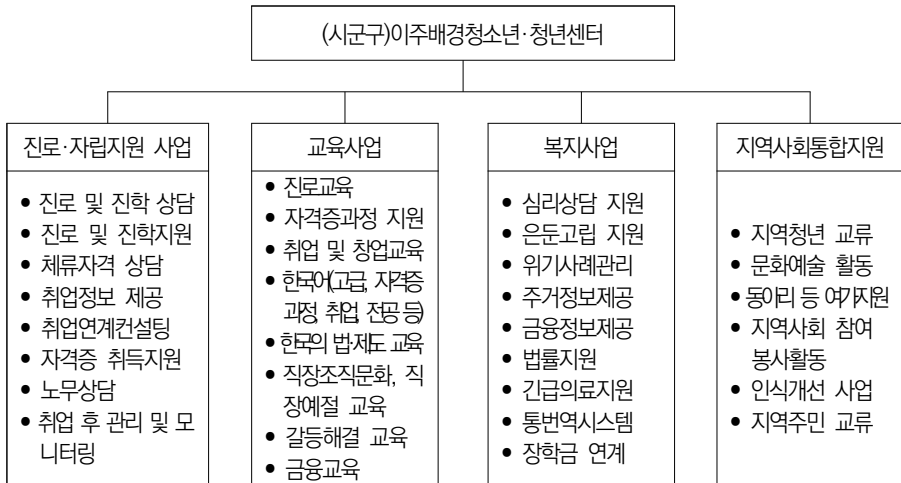


그림 VI-3. 이주배경청소년·청년센터 조직 모형

- 이주배경청소년·청년 지원센터의 영역별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아래의 [그림 V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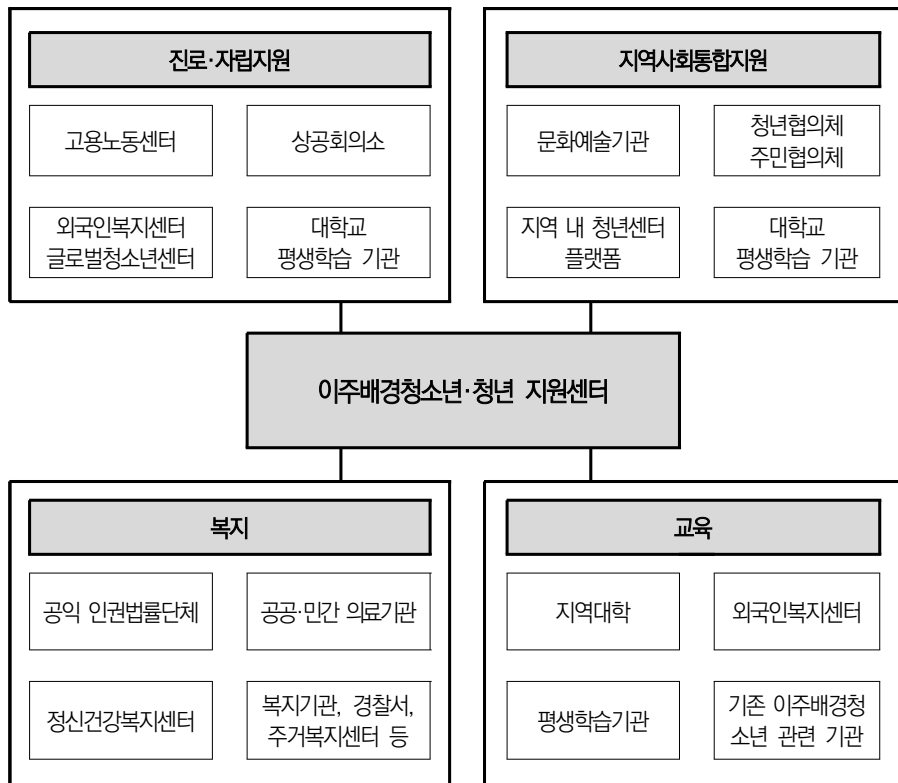


그림 VI-4. 이주배경청년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 청년기본법의 개정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의 ③항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과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이주배경청년을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

| 개정전                                                                                                    | 개정후                                                                                                                    |
|--------------------------------------------------------------------------------------------------------|------------------------------------------------------------------------------------------------------------------------|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br>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br>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br>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과 <b>이주배경청년</b> 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 추진부처 및 역할

| 부처, 조직 | 역할                                                                                                        |
|--------|-----------------------------------------------------------------------------------------------------------|
| 보건복지부  | • 취약계층 청년지원 법 제정 및 지원을 구축                                                                                 |
| 성평등가족부 | • 중앙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
| 교육부    | • 지역 내 대학 연계, RISE 사업 연계 등                                                                                |
| 법무부    | • 이주배경청년 체류자격 정책 도출                                                                                       |
| 고용노동부  | • 이주배경청년 고용정책 개선, 장벽해소 등 취업 및 자립 지원<br>• 고용센터, 일자리센터(취업지원센터),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주배경청년 대상 취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지원 |
| 통계청    | • 이주배경청년의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현황통계 생산                                                                           |
| 광역·지자체 | • 이주배경청년지원 및 관련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br>• 광역 또는 지자체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

#### (5) 추진로드맵



#### (6) 기대 효과

- 이주배경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통한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의 안정적 인력 확보
- 다문화사회, 다인종국가로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의 기반마련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서비스의 지속성을 통해 정책 효과성 극대화 및 예방적 대응
- 원스톱 전달체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질 고도화
- 정책 실현의 인권강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위상 제고

#### (7) 고려 사항

- 기존의 청년정책, 청년센터 등의 전달체계 외에 이주배경청년에 대한 별도의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부처 인식이 필요함.
- 인구미래가족부와 같은 별도의 부처가 없는 한 국무조정실이 이주배경청년을 주요 아젠다로 삼아 부처별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 필요
-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이전에 이주배경청년들에 대한 사업을 지역 내 어떤 전달체계를 통해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
- 현재 지역의 청년센터들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청년재단과 중앙청년지원센터의 공모사업들을 받아 운영 중이나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의 경우 중앙 및 광역 차원의 보조금이 없을 경우 지자체의 예산으로 별도 센터 운영에 소극적일 수 있음

## 추진전략 3-2.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추진과제 3-2-1 지역별 인력수요 기반 맞춤형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 (1) 현황 및 진단

- 이주배경청년은 국적, 체류자격, 입국 시기 등에 따라 기존의 재외국민, 다문화 정책 범주에서 벗어나 제도적 공백을 경험
- 후기청소년기에 입국하여 성장한 청년의 경우, 치열한 한국 대학입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학습기회와 준비기간의 부족 등,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
- 이주배경청년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신규 입학자원이자 지역사회 미래 주체로서, 사회통합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 보장이 필요함.
- 지역대학의 유학생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성장 이주배경대학생 지원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 대학내 일자리+센터를 확대하여 유학생과 국내성장이주배경 대학생의 사회진출과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2) 본 연구의 결과

| 연구방법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
| 설문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8.3%가 향후 더 공부할 계획이 있고, 희망 교육 수준은 4년제 이상 대학교 (54.0%) 또는 대학원 이상(31.3%)이 대부분임.</li> <li>■ 향후 직업훈련 계획은 52.4%가 있다고 응답함.</li> <li>■ 한국사회 적응에 한국어 능력을 중요하게 여김</li> <li>■ 이주배경청년 대상 교육이 있을 경우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됨.</li> </ul> |
| 면접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교육은 정보 창구가 분절되고 외국국적자의 제도 접근성이 불명확하여 탐색·신청·수료·채용 연계가 필요함.</li> <li>■ 인턴·현장실습은 경력 인증과 채용 전환 절차가 부재하거나 약하여 '경험'에 머무름</li> <li>■ 채용 관행과 비자 요건(연봉, 직무코드, 고용사유서 등) 불일치는 졸업 직후 초기 채용과 전공 연계를 저해</li> </ul>                |
| 전문가 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기능 중심이 아닌, 직무 이해·실습·현장연계·경력관리로 이어지는 단계별 기술역량 개발 시스템 구축이 필요</li> <li>■ 지역사회 내 기업과 이주배경청년을 연계하는 맞춤형 기술교육 지원방안 모색</li> <li>■ 뿌리산업 연계방안 모색 필요</li> </ul>                                                              |

### (3) 추진 내용

#### ① 대상

-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만19세~34세)
-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하여 운영 가능

#### ② 내용

- 대학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 지역 일자리 플러스센터, 이주배경청년 관련 센터 등의 연계협력으로 교육-취업-지역 정착의 시스템을 구축함.
- 지역권역별 이주배경청년 집중지원 (전문)대학 선정 및 지원
- 이주배경청년의 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별학과 및 교육 트랙을 설계, 운영함으로써 학력 취득과 진로 연계의 통합적 경로 마련
- 계약학과 운영, 인턴십, 현장실습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주배경청년이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직무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갖추도록 지원함.

| 주체                 | 역할                                                                                                                                                                                                                                                                                                                                                                                  |
|--------------------|-------------------------------------------------------------------------------------------------------------------------------------------------------------------------------------------------------------------------------------------------------------------------------------------------------------------------------------------------------------------------------------|
|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산업체별 전체 인력수요 조사를 인적자원 및 재원 지원</li> <li>• 지역 내 대학별 이주배경학생 인력양성 사업 운영</li> <li>• 예산 확보</li> <li>• 국내성장 이주배경청년 대학졸업시 체류자격 안정화 방안 마련</li> </ul>                                                                                                                                                                                            |
| 대학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전공별 이주배경학생 인력양성을 위한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li> <li>- 전공한국어 교육과정</li> <li>- 인턴십, 현장체험 프로그램</li> </ul> </li> <li>• 지역별 산업체 이주배경학생 수요도 분석 및 전공별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내 일반 전공, 전문대 계약학과 등의 학과들과 지역별 산업체가 직접 연계하여 졸업 후 취업가능하도록 함.</li> </ul> </li> </ul> |
| 산업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배경학생 수요도 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인원수, 필요한 역량, 필요한 전공, 직무태도, 한국어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도를 마련하여 각 대학과 공유</li> </ul> </li> </ul>                                                                                                                                                                              |
| 지역<br>일자리<br>플러스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컨설팅</li> <li>• 면접코칭</li> <li>• 채용행사</li> </ul>                                                                                                                                                                                                                                                                                           |

| 주체             | 역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언어상담창구</li> <li>• 이주배경진로전문상담</li> <li>• 취업지원 코디네이터</li> </ul>                    |
| 이주배경청년<br>지원센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 및 진학지원</li> <li>• 체류자격 상담</li> <li>• 노무상담</li> <li>• 취업 후 관리 및 모니터링</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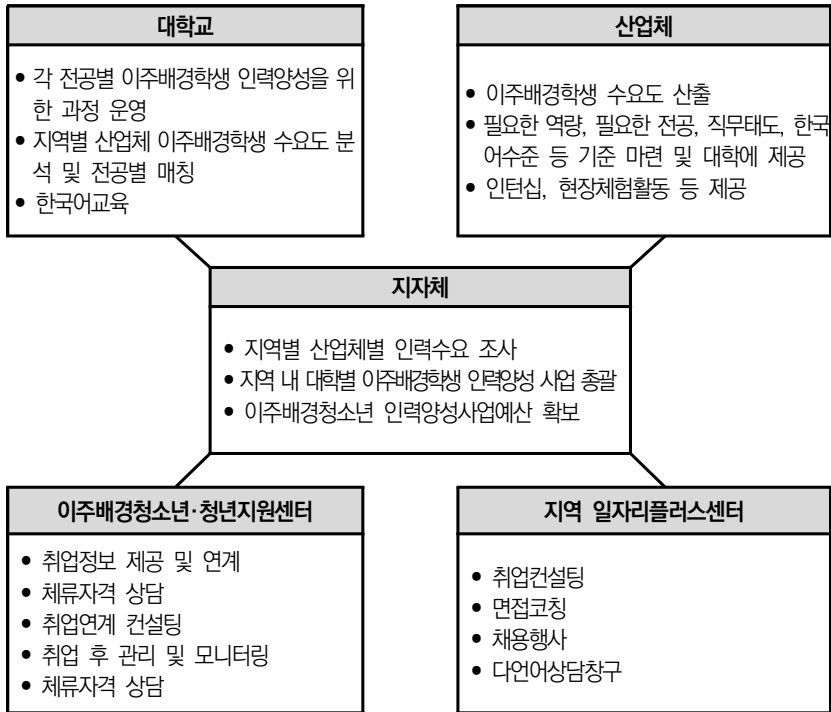


그림 VI-5.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협력방안

#### (4) 추진주체 및 역할

| 주체     | 역할                                        |
|--------|-------------------------------------------|
| 교육부    |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이주배경청년대상 프로그램 운영 대학 선정 및 지원 |
| 성평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청년지원센터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
| 지자체    |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협력방안              |
| 노동부    |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및 예산확보                     |

#### (5) 추진로드맵





#### (6) 기대 효과

- 이주배경청년이 대학 진학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자격을 갖추고, 경제적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의 책임 있는 주체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함.
- 이미 국내에 성장하고 교육을 받고 장기간 거주한 이주배경청년들은 정주 가능성과 고용 연계성이 높아, 외국인 유학생에 비해 유치·정착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적고, 교육 투자의 회수 가능성과 사회통합 효과도 더 클 것임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인력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의 대학들이 이주배경 청년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산업 활성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소함.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고상두 (2012). 이주자 사회통합모델의 비교분석: 네덜란드, 독일, 한국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제 46집 제 2호, 241-324.
- 고용노동부 (2023). 직업능력개발훈련 통계연보 2023.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24). K-Digital Training 및 K-Digital Credit 운영계획(2024). 세종: 고용노동부.
- 곽윤경, 주유선, 우선희 (2019). 이민자의 사회적 포용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수시) 2019-09.
- 곽윤경, 하은솔, 오옥찬, 신영규 (2022). 청년 미래의 삶을 위한 자산 실태 및 대응방안.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곽은혜 (2021). 경기침체와 청년·여성 노동시장.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2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2025). 국무조정실.
- 교육부 (2017a). 한국어교육과정 고시.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17b). 체계적인 한국어(KSL)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정·고시 보도자료.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3). 제6차 진로교육 종합계획(2023-2027).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5.8.29.). 이주배경학생 통계. 교육기본통계. 세종: 교육부.
- 교육부·국립국제교육원 (2024). TOPIK 통계 및 안내(IBT·TOPIK-S). 서울: 국립국제교육원.
- 국립국어원 (2025).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양성과정 운영 공고(제2차). 서울: 국립국어원.
- 길현중, 이경희, 이영수 (2022). 일의 가치 변화와 고용정책의 미래.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강남 (2019). 후기 청소년기 중도입국청소년의 자립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기현, 김형주, 강영배, 오선정 (2023). 한·중·일 청년의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 변화 분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기현,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심층분석 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장근영, 신인철, 임성근 (2023).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시민권과 참여-총괄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욱, 전대성, 이주실 이정철 (2018). 한국형 이민통합 정책지수 개발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문길 외 (2022a).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 일자리. 세종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 김문길 외 (2022b).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의 삶과 소득.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문길, 김기태, 최선영, 우선희, 김상배, 노법래 (2023).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 김상욱, 강신욱, 정영호, 김안나, 조명래, 이주연, 하태정 (2012). 사회통합증지기 전략개발 연구. 서울: 사회통합위원회
- 김민선, 김재훈, 고은영 (2022). 다문화 청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 진로 선택에 대한 합리적 질적 연구. 진로교육연구, 35(1), 111-141.
- 김민선, 송영호 (2023). 후기 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_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기관 관계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7), 358-369.
- 김사강 (2025). 미등록에서 등록으로, 등록에서 정주로 미등록 이주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정책과 개선 방안. 오늘의 교육,(88), 134-143.
- 김성아, 김문길, 임덕영, 노혜진, 노현주 (2023).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 김성아, 노현주, 김문길, 곽윤경, 임덕영, 신영규, 황선유, 송치호 (2021). 취약계층 청년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을 중심으로. 세종 국무조정실.
- 김영아, 강동우, 임유진 (2024). 이주배경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연구. 정책연구 2024-15.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영주, 고윤석, 김아름, 김소현 (2012). 국내 이주배경 청년의 한국어 습득 예측 변인 연구 -북한이탈 청년과 중도입국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4), 31-64.
- 김유빈, 전주용 (2014). 청년층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과 정책 시사점.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김은정, 김민선, 김두울 (2022). 다문화 청년들의 부모-자녀 관계와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국내출생, 중도입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집단 분석. 교육연구논총, 43(1), 67 - 108.
- 김정유 (2024). 이주배경 독거청년노동자의 한국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안전문화연구, (32), 161-176.
- 김종숙, 김혜영, 김난주, 남재량 (2007). 대졸여성 청년층 노동시장 구조파악과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진희, 김경애, 한효정, 김태준, 공석기, 권진희, 김자영, 이로미 (2020).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2020-19.
- 김진희, 김자영, 권진희 (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 요구에 대한 질적 분석. 평생학습사회, 17(2), 61-88.
- 김진희, 이로미, 권진희 (2021). 다문화배경 청년의 자기정체성에 관한 질적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4(1), 117-146.
- 김태홍, 김종숙 (2002). 여성 청년층집단의 취업이행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현숙 (2021). MIPEX의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MIPEX 2020을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보, 4(1), 2765-3706.
- 김형주, 김정숙, 김문길, 변금선, 배정희 (2023).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연보라, 정세정, 변금선 (2021).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장근영, 박미선, 정세정, 변금선, 배정희 (2022).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정세정, 박미선, 김동훈 (2024).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인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혜진 (2016). 한국 거주 고려인 청년층의 민족정체성 변화. 슬라브학보, 31(2), 31-70.
- 노승인 (2018).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 및 개선 방향 - 중도입국한 후기청

- 소년의 진로와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비교법학, 29(0), 48-65.
- 노연희, 신서원 (2024). 중도입국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관한 현상학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5(2), 243-266.
- 대한민국정부 (2021).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보건복지부.
- 류우선 (2023). 이주배경청년의 생애기획 경로에 대한 기초연구. 대전: 대전세종연구원.
- 박광동 (2024).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연구. 연구보고 24-02. 한국법제연구원.
- 박미선, 강미나, 임상연 (2017). 1인 청년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방향. 세종: 국토연구원.
- 박희진, 위고운, 강민희, 윤성찬, 김민선 (2023). 중도입국 이주배경 청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주변화, 미묘한 차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류 및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30(7), 173-204.
- 백경민, 연규진 (2022). 사회적 주변화 인식에 대한 사회적 자본의 영향- 한국 거주 이주배경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 23(1), 143-158.
- 법무부 (2024). 2024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법무부 (2024.9.26.).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를 대비하는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
- 법무부 (2025).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 현황 2009-2024. 서울: 법무부.
- 법무부 (2025.3.20.).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발표 보도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5).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법제처 (2005). 국어기본법 [법률 제7428호]. 서울: 법제처.
- 법제처 (2024). 국어기본법 [일부개정 2024.10.22., 시행 2025.4.23.]. 서울: 법제처.
- 변수정, 조성호, 이지혜 (2018).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덕희, 김은석 (2015).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군 개발 및 취업지원 방안 연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MYF-15-07-연.
- 서울특별시 (2024). 2024 글로벌 다문화청년 취업지원사업 운영계획. 서울: 서울특별시청.
- 세종학당재단 (2025). 2024년 세종학당 운영성과 보고서. 서울: 세종학당재단.
- 송영호, 김재훈 (2022). 이주배경청년의 불안정성 잠재프로파일과 삶의 질. 디아스포라연구, 16(1), 105-144.
- 송영호, 최영미 (2021). 이주배경청년의 시민적 위계화와 사회적 주변화- 국적과 출생지,



- 젠더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22(2), 3-38.
- 안선영, Hernan Cuervo, Johanna Wyn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 정책방안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3-일반02.
- 양계민, 김지연, 장윤선, 김사강, 김동진, 이탁진, 김주영, 변수정, 조성호, 김은정, 이주연, 조혜영, 김성식, 김이선, 최윤정, 이명진, 동제연, 이민영, 장인숙, 김학령, 김유연 (2020)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 연구 체계 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6-01.
- 양계민, 이정민, 정윤미, 엄진섭, 장윤선, 전경숙 (2022).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2-일반03.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 번호: 연구보고 20-R13).
- 양계민, 정윤미, 장윤선(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서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보고서 번호 MYF21-19-개).
-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진흥원 (20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한국어교육 등 운영 현황(2024). 서울: 여성가족부.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n.d.). 한국어학당 소개. 서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이, 김화연, 민수진, 홍성준, 한창묵, 김도원 (2024). 이민자 사회통합지수 측정 및 정책컨설팅[제1편: 개관]. 이민정책연구원.
- 유민이, 박민정 (2021). 이민통합정책 평가지표 개발 및 지수 측정. 이민정책연구원 용역 보고서. 11-1270000-001162-0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윤준현 (2021). 청년기 노동시장 상황이 삶에 미치는 영향.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이민정 (2022). 청년 이주민의 종교별 차별경험과 생활만족도- 무슬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맥락효과 탐색. 사회사상과 문화, 25(1), 149-180.

이우태, 조정아, 이규창, 이지순, 최규빈, 김정원, 장인숙, 박환보, 최종학 (2022). 북한배  
 청년들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2-일반08-2.

이창원, 허설화, 조하영 (2020). 청년층 중국동포 한국사회 편입과정과 정책과제. 이민정  
 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06.

이해응, 김미정 (2024). 제주지역 이주배경청년의 생활경험과 정책지원 방안. 제주: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이혜경 (2016).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 및 과제. 이민정책포럼, 13-32.

이혜정, 황명진 (2024). 고려인 청년의 귀환 이주 후 재정착과정에 대한 생애사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8(2), 5-35.

장은아, 백예은, 정혜원 (2023). 토픽모델링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이주배경 청소년  
 연구 동향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4(1), 91-122.

장현진, 류예진, 왕희찬, 연규진, 김민선, Paul Youngbin Kim (2023). 사회적 주변화가  
 이주배경 청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24(3), 131-154.

장현진, 이수현, 한은지, 김민선, 연규진 (2022). 이주배경 청년의 코로나 19 스트레스,  
 취업장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3), 1-27.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시행 2023. 5.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재외동포청 (2024.01.30.).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 확정(2024-2028) 보도자료.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전경숙 (2020). 비제도권 중도입국청소년의 이주 후 사회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가족  
 및 사회적 지지의 긍정적 효과-. 다문화콘텐츠연구, 35. 253-291.

정상우 (2016).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입법평가 Issue Paper  
 16-17-⑤. 한국법제연구원.

정인수, 김기민(2005). 청년층의 실업실태 파악 및 대상별 정책과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조석주, 박지영 (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성호, 변수정, 김문길, 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 스가 케이타, 와타나베 유이치, 시카타 마사토, 김유경, 김지민 (2017). 청년층의

-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채소린 (2021). 중국 출신 이주청소년들이 경험한 초국적 불안정성-학력 중단 이후 교육 및 진로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3), 177-211.
- 채소린 (2022). 중국 출신 중도입국청소년의 대학교육 의미와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5(2), 291-328.
- 채중현, 김세진, 조유선, 이효주 (2023).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23-17, 한국행정연구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개정 2025. 5. 27.).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계청 (2023).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23. 대전: 통계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 이주배경청년의 직업교육훈련 참여 실태 및 정책과제. 세종: KRIVET.
- 한국폴리텍대학 (2024). 2024 다문화청년특화훈련과정 운영 현황 자료집. 서울: 한국폴리텍대학.
- 한국행정연구원 (2025). 2024년 사회통합실태조사 보고서. ISSN 2288-7326.
- 한국행정연구원. (2024). 2023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3-15).
- 함선유, 이원진, 김지원 (2021). 코로나19의 확산과 청년노동시장 변화.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행정안전부 (2025.10.30.).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 258만 명. 총인구 대비 5%. 지속적인 증가세 이어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년 10월 30일자.
- 황복선 (2019). 중도입국청소년 사회통합정책의 정책수단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 제3차 외국인정책 중심으로. 한국이민정책학회, 2(4), 303-309.
- Alba, Richard D. and Victor Nee. (1997). “Rethinking Assimilation Theory for a New Era of Im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s Review, Vol. 31, No. 4. 826-874.
- Castles, Stephen and Mark J. Miller. 2003. The Age of Migration, Hampshire: Palgrave Macmillan.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_ Choosing

-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age Publications, Inc.
- Creswell, J. W., & Poth, C. N. (201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Fourth Edition. Sage Publications, Inc.
- Joppke, Christian and Eva Morawska. 2003. Toward Assimilation and Citizenship: Immigrants in Liberal Nation-Stat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Kitzinger, J. (1995). Qualitative research; Introducing focus groups. BMJ, 311(7000), 299-302.
-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Michalowski, Ines. (2010). "Integrationstests oder Assimilationstests? Eine deutsche Inhaltsanalyse." in Frank Baasner (Hg.) Migration und Integration in Europa, Saarbrücken: Nomos.
- Patton, Michael Quinn.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 Yin, R. K. (2014).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5th ed.). Sage.
- Vasta, Ellie. (2005). "From Ethnic Minorities to Ethnic Majority Policy: Multiculturalism and the Shift to Assimilationism in the Netherlands." Ethnic and Racial Studies, Vol. 30, No. 5.

## [인터넷 자료]

-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 (2025). [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https://www.socinet.go.kr/soci/contents/PgmCosCopl.jsp?q_global_menu_id=S_SIP_SUB02)(2025.10.15.일 검색)
- MIPEX 2020 (n.d.). Anti-discrimination. <https://www.mipex.eu/anti-discrimination> (2023.10.27. 검색)



## 부 록



# 부록

## 1. 전문가 의견 조사지

 국무총리실 산하 정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방안 연구 I」를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25년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방안 연구 I」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방안을 위하여 다루어야 할 다양한 주제들을 도출하고, 각 주제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파악함으로써 연차별 주제를 선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어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각 조사 문항에 대한 의견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본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15일

연구·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 양계민 선임연구위원 (044-415-2117)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044-415-2222)

권오영 부연구위원 (044-415-2103)

## 연구 참여 설명문

연구과제명 :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1. 무엇을 위한 조사이며 결과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본 연구에서는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방안 연구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도출된 주제를 시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배치할 예정입니다.

### 2. 조사 참여 절차 및 방법 등은 어떻게 됩니까?

본 조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조사대상자들은 본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 내외가 될 것입니다.

### 3. 수집되는 자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됩니까?

본 설문조사는 인적 특성,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정책의 주요 주제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통합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4.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은 무엇입니까?

현재 여러분이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위험은 없으며, 본 연구 참여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 사회통합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사에 참여하여 소중한 응답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10만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 5. 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습니까?

조사 참여 후에도 언제든지 조사 참여를 그만둘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설문 후에도 조사 참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미 응답한 정보나 기록 등은 저장되지 않고 삭제될 것입니다.

### 6.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속기관, 경력, 휴대전화 번호 등입니다. 본 연구의 참여로 수집되는 모든 정보는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됩니다.

### 7. 조사 관련 문의는 누구에게 합니까?

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음의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양계민 선임연구위원 (044-415-2117)

공동연구자 : 서정아 선임연구위원 (044-415-2222)

권오영 부연구위원 (044-415-2103)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익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전화번호 : 044-415-2188



## 연구 참여 동의서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내가 응답한 내용이 연구목적으로 제3자(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여부] 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하시면 해당 항목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중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별, 연령, 지역, 학력, 소속기관, 경력, 휴대전화 번호 등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 종료일로부터 2년
  -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후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파기함

[동의 여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① 동의함                      ② 동의하지 않음 → 조사중단

## I.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 0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문 0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문 03] 근무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 ① 서울특별시   | ② 부산광역시   | ③ 대구광역시 | ④ 인천광역시   |
| ⑤ 광주광역시   | ⑥ 대전광역시   | ⑦ 울산광역시 | ⑧ 세종특별자치시 |
| ⑨ 경기도     | ⑩ 강원특별자치도 | ⑪ 충청북도  | ⑫ 충청남도    |
| ⑬ 전북특별자치도 | ⑭ 전라남도    | ⑮ 경상북도  | ⑯ 경상남도    |
| ⑰ 제주특별자치도 |           |         |           |

[문 04]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석사 수료  
⑤ 석사 졸업    ⑥ 박사 수료    ⑦ 박사 졸업    ⑧ 기타 (       )

[문 05] 귀하의 직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대학교수    ② 연구원    ③ 현장전문가    ④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⑤ 장학사    ⑥ 교사    ⑦ 기타 (               )

[문 06] 귀하의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업무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1년 미만         |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
| ④ 3년 이상 ~ 4년 미만 | ⑤ 4년 이상 ~ 5년 미만 | ⑥ 5년 이상 ~ 6년 미만 |
| ⑦ 6년 이상         |                 |                 |

## II.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주제의 필요성과 시급성

본 연구에서 이주배경청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19세에서 34세(청년기본법 기준)의 연령에 속하는 자로 미성년 시기에 부모를 동반하여 국내로 이주한 경우 또는 국내에서 태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독으로 입국한 유학생이나 외국인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문 01] 다음은 이주배경청년을 위한 사회통합방안을 위한 주제들입니다. 각 주제별로 **필요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내용                         | 전혀<br>필요하지<br>않다 | ← 필요성 → |   |   |   |   |   |   |   | 매우<br>필요하다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1) 결혼 및 출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2) 부모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4) 자녀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5) 주거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6)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문 02] 다음은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을 위한 주제들로 위의 [문 01]과 동일한 문항들입니다. 각 주제별로 **시급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 제시된 각 주제를 향후 3년 간 추진한다고 계획했을 때,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기준으로 시급성을 평가해주시요.

| 내용                         | 전혀<br>시급하지<br>않다 |   | ← 시급성 → |   |   |   |   |   | 매우<br>시급하다 |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7)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8) 심리사회 적응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9) 사회적 배제와 차별 해소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0) 사회적 고립문제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1) 결혼 및 출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2) 부모 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4) 자녀 돌봄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5) 주거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16) 기타(직접 써주세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Ⅲ.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문 03] 다음의 주제별로 현황, 문제 및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책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주제                         | 현황, 문제 및 필요한 정책 |
|----------------------------|-----------------|
| 1) 한국 국적 비(非)소지자의 체류자격 안정화 |                 |
| 2) 수준별 한국어 능력 강화           |                 |
| 3) 기술교육 및 지원               |                 |
| 4) 창업교육 및 지원               |                 |
| 5) 고등교육(대학 이상교육) 지원        |                 |
| 6) 이주배경 특화 전문가 양성          |                 |
| 7) 심리사회 적응 지원              |                 |
| 8) 사회적 배제와 차별              |                 |
| 9) 사회적 고립                  |                 |
| 10) 지역사회 중심 이주배경청년 정책기반 조성 |                 |
| 11) 결혼 및 출산                |                 |
| 12) 부모교육                   |                 |
| 13)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                 |
| 14) 자녀 돌봄                  |                 |
| 15) 주거지원                   |                 |
| 16) 기타(직접 써주세요) _____      |                 |

응답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설문지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ID

|  |  |  |  |  |
|--|--|--|--|--|
|  |  |  |  |  |
|--|--|--|--|--|

## 2025년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배경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국내 이주배경청년들의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콜센터 ☎ 042-224-950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044-415-2188

### 조사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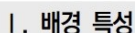
### 실사기관



|             |                                                               |                   |
|-------------|---------------------------------------------------------------|-------------------|
| 출생년월        | _____년 _____월 ▶2006년 이후(만18세 이하), 1991년 이전(만35세 이상) 출생자 조사 중단 |                   |
| 국적          | ① 한국 ▶조사 중단                                                   | ② 그 외 국적          |
| 한국 거주 시작 나이 | ① 만 18세 이하                                                    | ② 만 19세 이상 ▶조사 중단 |

##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조사참여·자료활용 동의서

| 내용                                                                                                                                                                                                                                                                                                                                                                             | 동의함                      |
|--------------------------------------------------------------------------------------------------------------------------------------------------------------------------------------------------------------------------------------------------------------------------------------------------------------------------------------------------------------------------------|--------------------------|
| <p>■ 본인은「2025년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의(自意)에 의해 「2025년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p>                                                                                                                                                                                                                                                                                   | <input type="checkbox"/> |
| <p>■ 본인은「2025년 이주배경청년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 통계작성의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갤럽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p> <p>[수집·이용 목적] ① 이주배경청년의 체류, 자립, 진로 및 사회통합 관련 실태 파악<br/>         ② 이주배경청년 대상 설문을 통해 제도개선 마련<br/>         ③ 조사참여 답례품 발송(모바일 상품권)</p> <p>[보유 및 이용기간]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됩니다. 다만,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보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p> | <input type="checkbox"/> |
| <p>[개인정보 수집 항목] 전화번호 등 설문항목</p>                                                                                                                                                                                                                                                                                                                                                | <input type="checkbox"/> |
| <p>■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조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이해하였습니다.</p> <p>■ 본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갤럽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p> <p>「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p> <p>모바일 연락처 010 - ( ) - ( )</p> <p>(답례품 발송을 위해 필수 응답)</p> <p>2025년 월 일</p>                                                                             | <p>■ 본인 (서명)</p>         |



**D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D3** 귀하의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미혼                      ② 결혼(사실혼 포함)                      ③ 이혼  
④ 별거                      ⑤ 사별

**D4**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 ③ 형제/자매     | ④ 할머니/할아버지 |
| ⑤ 친척        | ⑥ 친구/선호배   |
| ⑦ 자녀        | ⑧ 배우자      |
| ⑨ 기타(적어주세요) | ⑩ 혼자 산다    |

## D5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1) 아버지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2) 어머니

- ① 중학교 이하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D6 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중간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매우 잘산다

**D7 현재 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 여러 개에 해당되는 경우 주로 하고 있는 일을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학교를 다니고 있다 ▶D8로 이동
- ② 일을 하고 있다 ▶D8로 이동
- ③ 일자리를 찾고 있다 ▶D8로 이동
- ④ 쉬고 있다(일자리를 찾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D7-1로 이동
- ⑤ 기타(적어주세요: ) ▶D8로 이동

## D7-1 일을 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 ② 하던 일의 계약이 끝나서
- ③ 몸이 아파서
- ④ 그냥 쉬고 싶어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 II. 이주배경 특성

### 1 귀하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습니까?

- ① 한국                      ② 외국

### 2 (외국의 경우) 태어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 |          |         |                    |
|----------|---------|--------------------|
| ① 중국     | ② 일본    | ③ 대만               |
| ④ 베트남    | ⑤ 필리핀   | ⑥ 태국               |
| ⑦ 캄보디아   | ⑧ 미얀마   | ⑨ 우즈베키스탄           |
| ⑩ 러시아    | ⑪ 카자흐스탄 | ⑫ 키르기스스탄           |
| ⑬ 네팔     | ⑭ 방글라데시 | ⑮ 스리랑카             |
| ⑯ 아프가니스탄 | ⑰ 인도    | ⑱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3 (외국 국적인 경우) 현재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 |          |         |                    |
|----------|---------|--------------------|
| ① 중국     | ② 일본    | ③ 대만               |
| ④ 베트남    | ⑤ 필리핀   | ⑥ 태국               |
| ⑦ 캄보디아   | ⑧ 미얀마   | ⑨ 우즈베키스탄           |
| ⑩ 러시아    | ⑪ 카자흐스탄 | ⑫ 키르기스스탄           |
| ⑬ 네팔     | ⑭ 방글라데시 | ⑮ 스리랑카             |
| ⑯ 아프가니스탄 | ⑰ 인도    | ⑱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4 귀하가 처음 한국에 살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_\_\_\_\_년

### 5 현재 귀하의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유학생(D-2)  | ② 일반연수(D-4)         | ③ 종교(D-6)    |
| ④ 구직(D-10)  | ⑤ 교수(E-1)           | ⑥ 화화지도(E-2)  |
| ⑦ 연구(E-3)   | ⑧ 기술지도(E-4)         | ⑨ 전문직업(E-5)  |
| ⑩ 예술홍행(E-6) | ⑪ 특정활동(E-7)         | ⑫ 비전문취업(E-9) |
| ⑬ 방문동거(F-1) | ⑭ 거주(F-2)           | ⑮ 재외동포(F-4)  |
| ⑯ 영주(F-5)   | ⑰ 결혼이민(F-6)         | ⑱ 방문취업(H-2)  |
| ⑲ 기타(G-1)   | ⑳ 그 외(적어주세요: _____) |              |

### 6 현재의 체류자격 이전에 다른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6-1로 기록                      ② 아니오 ▶7로 기록

#### 6-1 어떤 체류자격이었습니까? 한국어로 작성해 주세요.

## 7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7-1로 이동

② 아니오 ▶7-2로 이동

③ 잘 모르겠다 ▶8로 이동

## 7-1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금까지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 ②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서
- ③ 한국에서 사는 게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아서
- ④ 안전 등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해서

▶ 응답 후 8로 이동

## 7-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 ② 한국사회 적응이 어려워서
- ③ 취업이 어려워서
- ④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⑤ 장기적으로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기에 힘들 것 같아서
- ⑥ 부모님 나라(또는 내가 태어난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
- ⑦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서
-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8

귀하는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체류 상태를 원하십니까?

- ① 현재의 체류자격 유지
- ② 체류자격 변경(원하는 체류자격: 8-1로 \_\_\_\_\_)
- ③ 영주권 취득
- ④ 한국국적 취득

## 8-1

원하시는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 ① 유학생(D-2)
- ② 일반연수(D-4)
- ③ 종교(D-6)
- ④ 구직(D-10)
- ⑤ 교수(E-1)
- ⑥ 회화지도(E-2)
- ⑦ 연구(E-3)
- ⑧ 기술지도(E-4)
- ⑨ 전문직업(E-5)
- ⑩ 예술총행(E-6)
- ⑪ 특정활동(E-7)
- ⑫ 비전문취업(E-9)
- ⑬ 방문동거(F-1)
- ⑭ 거주(F-2)
- ⑮ 재외동포(F-4)
- ⑯ 결혼이민(F-6)
- ⑰ 방문취업(H-2)
- ⑱ 기타(G-1)
- ⑳ 그 외(적어주세요: \_\_\_\_\_)

## 9

귀하는 다음의 각 영역별로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역     | 전혀 못한다 | 못하는 편이다 | 중간이다 | 잘하는 편이다 | 매우 잘한다 |
|--------|--------|---------|------|---------|--------|
| 1) 말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쓰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읽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듣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귀하는 토픽(TOPIK)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10-1로 이동

② 아니오 ▶11로 이동

10-1

몇 등급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만 기재해주세요.  
두 가지 시험 등급이 모두 있으면 모두 기재해주세요.

- 1) 토픽(TOPIK) \_\_\_\_\_ 등급  
2) 사회통합프로그램 \_\_\_\_\_ 단계

11

귀하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래 보기에서 국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중국     | ② 일본    | ③ 대만               |
| ④ 베트남    | ⑤ 필리핀   | ⑥ 태국               |
| ⑦ 캄보디아   | ⑧ 미얀마   | ⑨ 우즈베키스탄           |
| ⑩ 러시아    | ⑪ 카자흐스탄 | ⑫ 키르기스스탄           |
| ⑬ 네팔     | ⑭ 방글라데시 | ⑮ 스리랑카             |
| ⑯ 아프가니스탄 | ⑰ 인도    | ⑰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12

귀하 부모님의 현재 국적은 무엇입니까?  
(국적이 외국인 경우) 아래 보기에서 국가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아버지  
① 한국(남한)                      ③ 외국(국가: \_\_\_\_\_)
- 2) 어머니  
① 한국(남한)                      ③ 외국(국가: \_\_\_\_\_)

- |          |         |                    |
|----------|---------|--------------------|
| ① 중국     | ② 일본    | ③ 대만               |
| ④ 베트남    | ⑤ 필리핀   | ⑥ 태국               |
| ⑦ 캄보디아   | ⑧ 미얀마   | ⑨ 우즈베키스탄           |
| ⑩ 러시아    | ⑪ 카자흐스탄 | ⑫ 키르기스스탄           |
| ⑬ 네팔     | ⑭ 방글라데시 | ⑮ 스리랑카             |
| ⑯ 아프가니스탄 | ⑰ 인도    | ⑰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 III. 교육경험

13 과거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3-1로 이동      ② 아니오 ▶14로 이동

13-1

(‘예’라고 응답한 경우)  
과거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교를 다닌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6년 미만  
④ 6년 이상-9년 미만      ⑤ 9년 이상-12년 미만      ⑥ 12년 이상

14 한국에서 학교(정규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포함)를 다닌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4-1로 이동      ② 아니오 ▶14-2로 이동

14-1

(‘예’라고 응답한 경우) 다음 중 한국에서 어떤 학교를 다니셨습니까?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다닌 적이 있는 학교는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석사      ⑥ 대학원 박사

14-1-1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_\_\_\_\_ 년 ▶15로 이동

14-2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을 벌어야 해서  
② 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해서  
③ 한국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④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⑤ 부모님이 보내주지 않아서  
⑥ 집안일을 돕거나 동생을 돌봐야 해서  
⑦ 몸이 아파서  
⑧ 그냥 다니고 싶지 않아서  
⑨ 본국에서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5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15-1로 이동      ② 고등학교 졸업 ▶15-1로 이동  
 ③ 2년제 대학교 재학 ▶16으로 이동      ④ 2년제 대학교 졸업 ▶16으로 이동  
 ⑤ 4년제 대학교 재학 ▶16으로 이동      ⑥ 4년제 대학교 졸업 ▶16으로 이동  
 ⑦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16으로 이동      ⑧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16으로 이동  
 ⑨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16으로 이동      ⑩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16으로 이동

15-1

(위에서 ①, ②에 응답한 경우) 한국에서 졸업했습니까?

- ① 예 ▶15-2로 이동      ② 아니오 ▶15-3으로 이동

15-2

어떤 방식으로 졸업을 했습니까?

- ① 학교를 다니고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함  
 ② 검정고시로 졸업자격을 취득함

15-3

(위에서 '중학교 졸업 이하'와 '고등학교 졸업'에 응답한 경우)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학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② 빨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③ 진학하고 싶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  
 ④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에 성적이 부족해서  
 ⑤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요건(졸업장, 체류자격 등)을 취득하지 못해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6

귀하는 만 19세 이후 한국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6-1로 이동  
 ② 아니오 ▶17로 이동

16-1

한국어 교육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해당하는 곳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 지역의 이주배경이동청소년 지원 기관(예: 글로벌청소년센터, 레인보우스쿨 등)  
 ② 다문화가족센터  
 ③ 학원  
 ④ 어학당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17

귀하는 이주배경청년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한국어 수준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어느 정도 중요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8

귀하는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경험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많은<br>편이다 | 매우<br>많다 | 해당<br>사항<br>없음 |
|----------------------|----------|----------|----------|-----------|----------|----------------|
| 1) 일상생활 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2) 공공기관에서 업무 보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3) 친구 사귀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4) 대학 내 교우관계 형성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5) 대학 강의 이해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6) 대학 수업 시간의 조별 발표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7) 직장 구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8) 직장 내에서 인간관계 맺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9) 직장 내에서 업무 수행하기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 10)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19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한국어가 부족한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20

만일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 제공된다면 이용할 생각에 있습니까?

- ① 예 ▶21로 이동
- ② 아니오 ▶20-1로 이동

#### 20-1 이용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한국어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가 없어서
- ② 교육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서
- ③ 지속적으로 참여할 자신이 없어서
- ④ 필요한 수준의 한국어교육이 제공될 것 같지 않아서
-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D7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귀하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입니까? 휴학 중인 경우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세요.

- ① 고등학교 ▶22로 이음
- ② 대학교 ▶21-1로 이음
- ③ 대학원 석사과정 ▶21-1로 이음
- ④ 대학원 박사과정 ▶21-1로 이음

#### 21-1 현재 재학 중인 학교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 ② 비자 연장을 위해서
- ③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 ④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21-2 대학입학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사항별로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움을 많이 준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본인
- ② 부모님
- ③ 부모님을 제외한 가족(형제자매, 친인척 등)
- ④ 학교 선생님
- ⑤ 학원(과외) 선생님
- ⑥ 지역 청소년·이주배경 관련 기관의 선생님
- ⑦ 친구
-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문항                        | 1순위   | 2순위   |
|---------------------------|-------|-------|
| 1) 대학입시 전형 준비(자기소개서 작성 등) | _____ | _____ |
| 2) 대학입시 관련 정보 제공          | _____ | _____ |
| 3) 대학 진학여부 결정             | _____ | _____ |
| 4) 입학한 대학 선택              | _____ | _____ |
| 5) 전공계열 및 학부 선택           | _____ | _____ |

21-3

다음은 귀하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세요. ※ 휴학생인 경우 휴학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약간<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대학(원)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내가 선택한 대학교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최근에 대학(원)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나는 대학(원)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휴학이나 자퇴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나는 대학(원)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나는 학과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나는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나는 대학(원)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나는 과모임, 동아리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나는 최근에 대학(원)생활에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나는 대학(원)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1-4

귀하는 현재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1-5

(대학생, 대학원생) 2025년도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 주된 방법을 최대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휴학생인 경우는 휴학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① 부모의 도움  
 ② 형제, 자매의 도움  
 ③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  
 ④ 본인이 벌어서 직접 마련함  
 ⑤ 학교 장학금  
 ⑥ 외부 후원금  
 ⑦ 학자금 대출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1-6

귀하는 등록금 마련에 대해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을 느낀다

⑤ 매우 부담을 느낀다





## Ⅳ. 진로·직업탐색 및 사회진입

22 향후 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예 ▶22-1로 이동  
② 아니오

22-1

(한국에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는 경우)  
귀하는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합니까?

- ① 고등학교  
② 대학교(2~3년제)  
③ 대학교(4년제 이상)  
④ 대학원 이상(석·박사)

23 (D7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현재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하나만 작성해 주세요.

24 (대학생 중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일을 하는 경우)  
현재의 직장을 찾을 때 일자리 정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 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② 기타 공공 취업 알선기관(세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③ 회사의 공개채용  
④ 한국 내 사설 직업소개소  
⑤ 비정부기구(NGO), 종교단체(외국인근로자 상담소 포함), 동포지원단체  
⑥ 비공식 중개인 소개  
⑦ 가족, 친구, 친인척 등 연고자 소개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25 지난 1주일 동안 근무한 직장(일)에서 종사상 지위는 무엇이었습니까?

- |                  |                |
|------------------|----------------|
|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 ① 상용근로자 ▶26으로 이동 |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② 임시근로자 ▶26으로 이동 |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③ 일용근로자 ▶26으로 이동 | ⑥ 무급가족종사자      |

26 지난 1주일 동안 근무한 직장(일)에서 고용계약 기간(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① 예 ▶26-1로 이동  
② 아니오(장년 포함)

26-1

고용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③ 6개월 이상~1년 미만  
④ 1년 이상~2년 미만  
⑤ 2년 이상 ~ 3년 미만  
⑥ 3년 이상

27

최근 3개월 동안 일한 시간은 일주일 평균 몇 시간입니까?  
일을 한 모든 시간을 합하여 응답해주시요.

일주일 평균 \_\_\_\_\_ 시간

28

최근 3개월 동안 귀하가 받은 1개월 평균(월평균) 임금은 얼마입니까?(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실제 임금을 써주세요)

\_\_\_\_\_만원

29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골라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해서
- ② 안정적인 일자리이기 때문에
- ③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 ④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 ⑤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⑥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 ⑦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해
- ⑧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
- ⑨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 ⑩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 ⑪ 가족의 일을 도와야 해서
- ⑫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 ⑬ 흥미와 적성(전공)에 맞아서
- ⑭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0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본인이 원하는 일입니까?

- ① 예 ▶31로 이동
- ② 아니오 ▶30-1로 이동

30-1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 ②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비자)이 아니어서
- ③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 ④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해서
- ⑤ 한국의 직장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 ⑥ 내가 원하는 일을 부모님이 반대해서
- ⑦ 일단은 돈을 벌어야 해서
- ⑧ 원하는 직장에서 나를 뽑아주지 않아서
-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31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래의 항목별로 응답해 주세요.  
※ 3) 복리후생 또는 7)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해당없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의존계약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해당이 없는 경우만 선택해주세요.

| 문항            | 전혀<br>만족하지<br>않는다 | 별로<br>만족하지<br>않는다 | 보통<br>이다 | 대체로<br>만족한다 | 매우<br>만족한다 | 해당없음 |
|---------------|-------------------|-------------------|----------|-------------|------------|------|
| 1) 급여수준       | ①                 | ②                 | ③        | ④           | ⑤          | X    |
| 2) 고용 안정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 3) 복리후생       | ①                 | ②                 | ③        | ④           | ⑤          | ⑧    |
| 4) 근무 내용      | ①                 | ②                 | ③        | ④           | ⑤          | X    |
|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 ①                 | ②                 | ③        | ④           | ⑤          |      |
| 6) 근무 환경      | ①                 | ②                 | ③        | ④           | ⑤          | X    |
| 7) 직장 내 인간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 8) 개인의 발전 가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X    |
| 9) 전반적인 만족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일을 하는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응답)  
현재 일을 하면서 손님, 고용주, 혹은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① 욕설, 폭언,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
- ②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 ③ 무시당하거나, 왕따를 당한 적이 있다
- ④ (성, 외모, 연령, 출신국 등으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 ⑤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
- ⑥ 위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

33

(일을 하는 경우,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응답)  
현재 일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
- ②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함
- ③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음
- ④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치료받지 못함
- ⑤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을 받지 못함
- ⑥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함
- ⑦ 정해진 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초과해 근무함
- ⑧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
- ⑨ 위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다

34

귀하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구체적으로, 가능한 한국어로 써주세요)

35

귀하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이 노력하는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  
②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③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④ 취업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36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문항                 | 지원받은 경험 |    | 필요성              |                  |      |            |            |
|--------------------|---------|----|------------------|------------------|------|------------|------------|
|                    | 있다      | 없다 | 전혀<br>필요하지<br>않다 | 별로<br>필요하지<br>않다 | 보통이다 | 약간<br>필요하다 | 매우<br>필요하다 |
| 1) 면접준비 및 자소서 작성과정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현장실습 경험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인턴과정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일자리 소개 및 연결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자격증 취득 지원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한국에서 직업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gt;37-1로 이동

② 아니오 &gt;37-2로 이동

#### 37-1 직업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취·창업을 위해  
②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③ 경력개발을 위해  
④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⑤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⑥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37-2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업훈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②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③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④ 직업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탐색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⑤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다  
⑥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  
⑦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받지 못했다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37-3 향후 직업훈련의 기회가 있다면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38

귀하가 일자리를 찾을 때 느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점
- ②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다는 점
- ③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없다는 점
- ④ 학력과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
- ⑤ 일자리 관련 정보가 부족하거나 취업 방법을 모른다는 점
- ⑥ 한국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
- ⑦ 가족이 반대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
- ⑧ 체류자격의 문제 때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는 점
- ⑨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⑩ 어려운 점 없음



## V. 사회인식 및 가치관

39

다음은 한국 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한국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한국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0

다음은 한국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별로 그렇지 않다 | 보통 이다 | 대체로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현재 귀하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매우 낮다 | 보통이다 |   |   |   |   | 매우 높다 |   |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42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실현할 수 없다
- ② 거의 실현하기 어렵다
- ③ 어느 정도는 실현할 수 있다
- ④ 거의 실현할 수 있다
- ⑤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

**43** 귀하는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   |         |   |  |
|------------|---|---|------|---|---|---|---|---------|---|--|
| 전혀 자유롭지 않다 |   |   | 보통이다 |   |   |   |   | 매우 자유롭다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

**44** 한국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br>없다 | 별로<br>없다 | 보통<br>이다 | 약간<br>있다 | 매우<br>있다 |
|----------|----------|----------|----------|----------|----------|
| 1) 출신국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피부색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외국국적자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체류자격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귀하는 한국사회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긍정적인 편이다
-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④ 부정적인 편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이다

**46** 귀하는 한국사회가 이주배경청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긍정적이다
- ② 긍정적인 편이다
- ③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 ④ 부정적인 편이다
- ⑤ 매우 부정적이다

**47** 귀하는 한국사회의 이주민 통합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항                    | 전혀<br>중요하지<br>않다 | 별로<br>중요하지<br>않은<br>편이다 | 보통<br>이다 | 중요한<br>편이다 | 매우<br>중요하다 |
|-----------------------|------------------|-------------------------|----------|------------|------------|
| 1) 이주민의 교육기회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이주민의 체류 안정성 보장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이주민과 한국인의 소득격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이주민과 한국인의 취업을 격차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이주민의 의료 소외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이주민의 가족해체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이주민의 정치참여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이주민의 영주권 취득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이주민의 국적취득 용이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이주민 차별에 대한 사회적 보호 | ①                | ②                       | ③        | ④          | ⑤          |



## VI. 심리사회적응 및 일상생활

48 귀하는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많은 장점을 가졌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전반적으로 나 자신에 대하여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9 귀하는 다음 문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별로<br>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그런<br>편이다 | 매우<br>그렇다 |
|-----------------------|-----------------|-----------------|----------|-----------|-----------|
|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0 귀하는 평소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낍니까?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거의<br>그렇지<br>않다 | 자주<br>그렇다 | 매우<br>자주<br>그렇다 |
|-------------------------------|-----------------|-----------------|-----------|-----------------|
| 1) 나는 외롭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④         | ⑤               |
| 2)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          | ①               | ②               | ④         | ⑤               |
| 3)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 | ①               | ②               | ④         | ⑤               |
| 4)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 ①               | ②               | ④         | ⑤               |

5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선택해주세요.

| 문항                                     | 도움 받을 수 있는<br>사람 유무 |    | 주로 도움받는 사람 |                        |                        |                            |
|----------------------------------------|---------------------|----|------------|------------------------|------------------------|----------------------------|
|                                        | 있다                  | 없다 | 한국인        | 나와<br>국적이<br>같은<br>외국인 | 나와<br>국적이<br>다른<br>외국인 | 지역의<br>이주민<br>관련 기관<br>종사자 |
| 1) 몸이 아플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 2)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를<br>나눌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 3)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 4)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①                   | ②  | ①          | ②                      | ③                      | ④                          |



50 귀하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항                                                     | 있다 | 없다 |
|--------------------------------------------------------|----|----|
| 1) 식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                           | ①  | ②  |
| 2) 병원비가 부담되어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                          | ①  | ②  |
| 3) 본인 또는 가족의 학비 마련이 곤란하여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     | ①  | ②  |
| 4) 타의에 의한 실업(권고사직, 강제퇴직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5) 공과금(건강보험료와 전·의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6) 집세(월세, 전세금)의 상승으로 이산한 적이 있다                         | ①  | ②  |

## Ⅶ. 지원정책

53 지금까지 이주배경청소년 또는 이주배경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예 ▶53-1로 이동      ② 아니오 ▶54로 이동

53-1 이용해 본 지원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② 심리상담 프로그램  
③ 진로 프로그램                                ④ 멘토링 프로그램  
⑤ 기타(적어주세요: )

54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최대 3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체류자격 인정화
- ② 청년 대상 수준별 한국어 교육
- ③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 ④ 기술교육
- ⑤ 취업을 위한 준비에 대한 도움(면접, 자기소개서 등)
- ⑥ 심리적인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 ⑦ 장학금
- ⑧ 학자금 대출
- ⑨ 취업소개
- ⑩ 기타(적어주세요: \_\_\_\_\_)
- ⑪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55 귀하는 이주배경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의 일반적 (청소년)청년대상 지원 기관에 이주배경청년 담당 조직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이주배경(청소년)청년을 위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이주배경청년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하여 이주배경청년 집단이 당면한 주요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주배경청년의 객관적 실태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 정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주배경청년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3년 연속과제이다. 그 중 2025년의 연구는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실태 및 자립실태를 파악하고, 이주배경청년의 체류자격 확대방안 및 자립역량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목적에 위하여 일반청년 생활 실태 및 이주배경청년 생활 실태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이주배경청년 관련 정책 분석, 이주배경청년의 현황 및 요구도 파악 등을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세 가지 추진방향의 6가지 추진 전략을 도출하고, 10가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10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내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개선, 2) 국내 성장기반 청년의 취업 및 정주방안 개선, 3) 이주배경청년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구축, 4) 이주배경청년 대상 지역연계형 온라인 한국어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5) 이주배경청년 대상 수요자 맞춤형 전문기술교육 강화, 6) 이주배경청소년 거점형 직업교육 고등학교 설립, 7) 다문화친화적 캠퍼스환경조성, 8) 대학 내 이주배경학생 학습, 진로 및 취업지원센터 설립, 9) 지역별 이주배경청년 지원체계구축, 10) 지역별 인력수요 기반 맞춤형 이주배경청년 인력양성시스템 구축 및 운영.

## ABSTRACT

This study reports the first year of a three-year project to advance the integration of youth with migration backgrounds in Korea. Using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it identifies key challenges and develops evidence-based policy measures for stable settlement and inclusion. The 2025 phase examines residence status and self-reliance, and explores ways to expand residence qualifications and strengthen independence. Methods include literature and policy reviews and an empirical needs assessment. On this basis, the study proposes three policy directions, six strategies, and ten tasks: (1) improve visa and residence rules to secure the right to education for long-term resident children; (2) enhance employment and settlement paths for Korea-raised youth; (3) build a customized Korean-language education support system; (4) develop a region-linked online platform for Korean-language learning; (5) strengthen demand-driven vocational and technical training; (6) establish hub-type vocational high schools; (7) foster multicultural-friendly campuses; (8) create on-campus centers for learning, career, and job support; (9) build regional support systems; and (10) operate regional human-resource development systems aligned with local labor demand. Collectively, these measures outline a clear roadmap toward equitable participation in education, work, and society.

##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 기관고유과제

|                |                                                                       |
|----------------|-----------------------------------------------------------------------|
| 연구보고25-기본01    |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 연구보고25-기본02    |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 연구보고25-기본03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 연구보고25-기본04    |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 연구보고25-기본05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 연구보고25-기본06    |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 연구보고25-기본07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 연구보고25-기본08    |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 연구보고25-일반01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 연구보고25-일반01-01 |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 연구보고25-일반02    | 청년의 성인지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 연구보고25-일반02-01 | 청년의 성인지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 연구보고25-일반03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 연구보고25-일반06    |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 연구보고25-일반06-01 |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송                             |
| 연구보고25-일반07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 연구보고25-일반07-01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 연구보고25-일반07-02 |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Ⅱ /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해정·김경준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 수 탁 과 제

### < 일 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
|----------------|---------------------------------------------------------------------------------------|
| 연구보고25-수탁04-01 |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5    |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5-01 |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6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
| 연구보고25-수탁07    |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
| 연구보고25-수탁08    |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
| 연구보고25-수탁09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
| 연구보고25-수탁10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
| 연구보고25-수탁11    |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br>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
| 연구보고25-수탁12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
| 연구보고25-수탁13    |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
| 연구보고25-수탁14    |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
| 연구보고25-수탁15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br>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br>정·진인범 |
| 연구보고25-수탁16    |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
| 연구보고25-수탁17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1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2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3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7-4  |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
| 연구보고25-수탁18    |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학폭01    |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br>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 연구보고25-학폭02    |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br>모상현·백승훈·박재욱                                                |
| 연구보고25-학폭03    |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 연구보고25-학폭04-01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br>일년나기(초등학교 3~4학년) /<br>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4-02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br>일년나기(초등학교 5~6학년) /<br>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                                                                                             |
|----------------|---------------------------------------------------------------------------------------------|
| 연구보고25-학폭04-03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4-04 |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 연구보고25-학폭05    |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 연구보고25-학폭06    |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 연구보고25-학폭07    |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 연구보고25-학폭08    |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 연구보고25-학폭09    |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 연구보고25-학폭10    |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대안01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 연구보고25-대안02 |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현정·김희정     |
| 연구보고25-대안03 |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위센터01 |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 연구보고25-위센터02 |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 연구보고25-위센터03 |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 연구보고25-위센터04 |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 연구보고25-위센터05 |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                                                   |
|-------------|---------------------------------------------------|
| 연구보고25-학중01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 연구보고25-학중02 |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br>김희진·백혜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 연구보고25-학중03 |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br>김희진·백혜정·황여정·전예빈 |

## 자 료 집

### < 세 미 나 >

|          |                                             |
|----------|---------------------------------------------|
| 세미나25-01 |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
| 세미나25-02 |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
| 세미나25-03 |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 < 워크숍 >

|          |                                                             |
|----------|-------------------------------------------------------------|
| 워크숍25-01 |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
| 워크숍25-02 |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 < 포럼 >

|         |                                                |
|---------|------------------------------------------------|
| 포럼25-01 |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
| 포럼25-02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
| 포럼25-03 |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
| 포럼25-04 |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
| 포럼25-05 |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
| 포럼25-06 |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
| 포럼25-07 |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
| 포럼25-08 |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AI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
| 포럼25-09 |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 < 콜로키움 >

|           |                                     |
|-----------|-------------------------------------|
| 콜로키움25-01 |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
| 콜로키움25-02 |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
| 콜로키움25-03 |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 < 기 타 자 료 집 >

|         |                                   |
|---------|-----------------------------------|
| 자료25-01 |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 자료25-02 |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 자료25-03 |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 자료25-04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 자료25-05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6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7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 자료25-08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 자료25-09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 자료25-10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 자료25-11 | 제14회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 자료25-12 |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 자료25-13 |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 자료25-14 |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 자료25-15 |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 자료25-16 |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 기타 발간물

##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 NYPI Bluenote 통계 〉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삼일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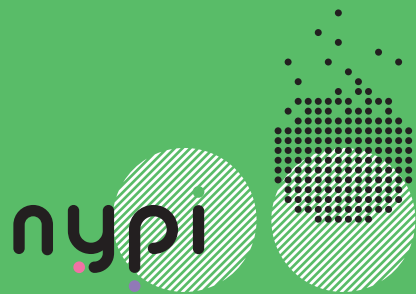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59-3

연구보고25-일반03

#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59-3